

주역집해찬소 1

(周易集解纂疏)

-주역 상수학(象數學)의 모든 것-

이정조(李鼎祚) 편저(編著)

이도평(李道平) 찬(撰)

김가원(金家源) 편역

<제목 차례>

주역집해찬소(周易集解纂疏) 번역물을 간행하며	5
주역집해찬소(周易集解纂疏)를 통한 역(易)의 상수학	7
인간의 오래된 정신이 살아나는 기쁨	9
● 주역집해찬소(周易集解纂疏)에 관하여	10
○ 주역집해찬소(周易集解纂疏)에 등장하는 상수학적인 이론들	11
괘기설(卦氣說)	11
소식(消息) - 음양(陰陽)의 불어나고 줄어드는 이치	12
효진설(爻辰說)	13
음양(陰陽)의 기운이 오르고 내리는 승강설(升降說)	16
납갑설(納甲說)	16
납십이지설(納十二支說)	18
팔궁괘(八宮卦)	20
납갑응정설(納甲應情說)	21
세월(世月)	22
24방위설(方位說)	23
● 역(易)의 일반적인 상식에 대하여	24
십진법의 수리적인 체계 주역	25
○ 삼황 시대 - 역(易)의 등장	26
○ 복희의 괘상에 말을 붙인 주나라의 문왕	27
십익전(十翼傳) 등의 역전(易傳)에 대하여	29
○ 춘추시대에 활동한 공자와 주역	30
● 역의 어원에 대한 3가지 설	31
● 연산(連山) 귀장(歸藏) 주역(周易)	32
● 역은 점서(占書)일까? 의리(義理)서일까?	35
● 고문헌 상에 나타난 역의 전승 문제	37
천체 운행의 도수와 역의 십진법	39
제 일(一) 중천건(重天乾)	43
한국의 사상과 문화 및 정치철학의 본질 주역	43
건(乾) 패사 원(元) 형(亨) 이(利) 정(貞)에 대하여.	47
설괘전에 대하여.	48
하늘에 대한 개념의 고찰.	48
한나라 시대의 6경(詩·書·禮·樂·易·春秋)과 위서(緯書).	49
맹희의 12벽괘설	50

건(乾) 육효도(六爻爻)	51
최경에 대하여	52
마융(馬融)에 대하여	53
초구가 갑자(甲子)에 해당한다는 말의 뜻	55
주역(周易)의 위서(緯書)	56
정현에 대하여	58
효진설이란	58
계람도의 괘기설	59
맹희에 대하여 1	60
6일 7분법에 의한 괘상의 배분 - 맹희의 역학 3	64
역의 납갑(納甲)	69
왕필에 대하여	70
주역 해석의 한 방법 상응(相應)설	73
순상(荀爽)에 대하여	76
역의 패사와 효사	77
우변(虞翻)과 우변(虞翻)의 역(易) 1	80
우변역(虞翻易)의 특징 2 -방통(旁通)	83
주역 삼천양지(參天兩地)의 수	89
괘상과 패사 효상과 효사 및 괘상의 자리	90
최경에 대하여	91
대성괘와 천지인 삼재	94
팔괘가 주장하는 계절의 기운을 나타내는 도표	94
건용구(乾用九) 곤용육도(坤用六圖)	99
용구(用九)의 개념 풀이	100
건지대시도(乾知大始圖) 곤작성물도(坤作成物圖)	105
건곤(乾坤)의 책수(策數)	107
설시에서의 천책(天策)과 지책(地策) 및 인책(人策)	107
○ 황도 28수의 의미와 절기(斗柄)	110
○ 황도 28수와 365원도	110
하늘 28수(宿) 12차(次) 12진(辰)과 육효(六爻) 점	113
주천 28수의 일반적인 의미	116
24절기와 28수의 관계	117
○ 12차 명칭의 배경	119
○ 사기정의에 의한 순화의 해설	121
○ 해와 달이 만나는 때와 자리를 진(辰)으로 나타내는 이유	122

○ 천문과 지호 및 음양오행의 발단 - 각진(角軫)숙과 규벽(圭壁)숙의 진(辰)	124
○ 일년의 운행 도수를 나타내는 28개의 별자리와 주역	127
○ 하늘의 28수는 어떻게 현실 상황에 적용되어질까	128
○ 해와 달의 일식과 월식	128
○ 역법가들에 의해 제기된 일귀와 각루	129
주역의 건곤(乾坤)과 감리(坎離)	131
십익(十翼)의 한 범주 문언(文言)	144
요신(姚信)에 대하여	145
원형이정(元亨利貞)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	146
중천건 네 가지 덕에 바탕을 둔 오상(五常) 등의 개념	150
덕을 중시하는 의리역설	167
중용의 성(誠)과 경(敬)	205
덕을 갖춘 사람에 대한 주역에서의 다섯 가지 호칭	216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의 개념	220
하늘과 땅의 패상에 대한 성격을 정리한 도표	228
제 이(二) 중지곤(重地坤)	228
○ 주역 상·하경 각 18패의 도상(圖象)	229
○ 주역 상·하경의 차례에 대한 도상(圖象) 1	231
○ 패의 차례 고찰도 2	233
○ 상·하경의 차례에 대한 고찰 3	235
중지곤(重地坤) 초육도(初六圖)	258
제 삼(三) 수뢰둔(水雷屯)	315
주역 패상의 월별 배치도	321
삼구법에 대한 의미는 수지비 괘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음	342
수뢰둔과 산수몽의 屯象圖 및 蒙養正圖	351
제 사(四) 산수몽(山水蒙)	352
서경의 홍범과 주역	363
제 오(五) 수천수(水天需)	379
제 육(六) 천수송(天水訟)	406
공자의 작사모시(作事謀始)	417
변효 해석의 상수학적인 한 사례	418
제 칠(七) 지수사(地水師)	435
제 팔(八) 수지비(水地比)	467
地水師卦와 水地比卦	468
◆ 《周易集解纂疏》 원본 텍스트	503

주역집해찬소(周易集解纂疏) 번역물을 간행하며

유남고전인문학당 대표 김광민

상수학과 관련된 옛사람들의 문헌이 이제야 번역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특히 이정조의 주역집해(周易集解)가 그렇다.

“주역집해 10권은 당의 저작량 이정조가 자하 맹희 경방 마유 순상 정강 성 유표 하안 송충 우변 육적 간보 왕숙 왕보사 요신 왕이 장번 향수 왕 개충 후과 촉재 적현 한강백 유현 하타 최경 심린사 노씨 최근 공영달 등 30여가의 설을 모으고 구가역과 건착도 등 17편을 붙인 것이다. 순상과 우변의 설을 가장 많이 취하였다.”

「중흥관각서목(中興館閣書目)」

이 책이 상수학적인 흐름을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기록 내용이다. 주역의 세 분야인 상(象)과 수(數) 의리(義理) 가운데 특히 상(象)에 주목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정조는 우변(虞翻)의 설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당대의 인물로는 최경(崔憬)의 설을 중요시한다. 최경은 공영달의 뒤 이정조의 앞 시대에 활동했던 당대의 인물로 보인다. 그는 주역의 근본이 괘상에 있음을 특히 강조한다.

“역이란 책은 삼재(三才)를 밝혀서 넓어 뒤집지 않은 것이 없고, 거대하여 포함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두루 갖추어서 만물의 상(象)이 있다는 말이다.”

한편 최경은 괘기설을 취하여 괘명의 뜻을 풀이하는 경향도 보여준다. 그러나 괘변설과 납갑설 등을 중시하면서도 의리를 놓치지도 않는다. 즉 괘상의 연구는 역리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처럼 생각하는 입장이다. 이는

왕필이 역의 패상을 버리고 뜻을 취하고자 하는 입장과 전혀 상반된 접근 방법이다.

주역에 관심을 갖고자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하는 시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가원에 의해서 번역된 주역집해찬소는 꽤 의미가 깊다. 이 책의 역자 김가원은 칩거해 지내는 곳이 대구 달구벌대로 반고개역 근처 유남고전인문학당이다.

한때 고전의 이치로 세상살이에 대한 바른 안목을 모색하고자 담수회 설립에도 간여하셨던 집안의 선친 유남 이종오 어르신의 뜻에 맞는 작업일 것을 나로서는 분명히 믿고 있다.

아무튼 주역집해찬소 이 한 권의 번역물은 주역과 동양 고전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은 물론 학문적인 시각에서 주역에 접근하는 학도들에게 매우 요긴한 문헌일 것이다.

주역집해찬소(周役集解纂疏)를 통한 역(易)의 상수학

한국자치학회 회장 전상직

주역(周易)에 접근하는 시각은 두 갈래다. 하나는 뜻이고 두 번째는 패상(卦象)과 수(數)다.

정자의 전(傳)과 주자의 본의(本義)는 뜻으로 접근하는 대표적인 주역의 텍스트다. 한편 패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학자에 따라서 그 방법이 구구했다. 패변에 의한 주역의 이해 방법은 그로 인해 생겨난 결과물이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 책에 등장하는 순상(荀爽)이나 우번(虞翻) 등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다소 억지에 가까운 면이 없지 않아 후학들이 어떤 표준으로 취하기는 어려웠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마찬가지다. 패상에 근거한 패변을 패상 이해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합리적인 듯 하면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다. 또 그로 인한 번잡함이 주역을 매우 난해하면서도 혼란스러운 학문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잊는다는 왕필(王弼)의 주장은 그로 인해 생겨난 역 해석의 접근법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왕필의 시각에 동조하더라도 기억해야 하는 게 있다.

패변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시각을 알고 나서 이를 버려야한다는 점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패변설의 근거, 그들이 접근하는 주역 이해의 방법들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 해석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한나라 시대의 이 정조가 찬술한 주역집해(周易集解)는 매우 의미가 있는 상수학의 기본 텍스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더구나 이 번역본은 이정조의 주역집해(周易集解)를 다시 청나라 시대의 이도평이 해석을 곁들여 편찬한 주역집해찬소(周役集解纂疏)다. 오랫동안 번역자가 없었으나 이를 김가원(金家源)님이 시간을 투자하여 5권으로 번역을 해 냈다. 물론 책의 원문에 자신의 견해를 일부 곁들여 주역의 열개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가도 함께 다루고 있다. 듣기로는 그의 이런 열정은 새삼스러운 게 없다. 어딘

가에 마음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자기 삶의 긍지를 찾고자 하는 수행자다운 하나의 지혜로 알고 있다.

논어에 공자의 말씀이 주역의 십익을 그대로 옮겨놓은 내용이 많고中庸(中庸)은 주역의 철학적인 압축본이라고 하여 세간에서는 주역을 만학의 제왕이라고 일컬어왔다. 이런 점을 배제하더라도 상수학을 통한 주역의 이해는 세상을 바라보는 옛사람들의 지혜까지 함께 엿볼 수가 있다. 모쪼록 삶의 본질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보는 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쉴쉴하게 비가 내리는 늦은 오후다. 인생이 이 책 한 권으로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인간의 오래된 정신이 살아나는 기쁨

디에스 아이 코리아 대표이사 이 준 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다. 그 점에서 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사업이라는 개념부터가 그렇다. 주역에 의하면 사업이란 하늘이 땅을 통해 만물이 살아나게 하는 창조적인 행위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하늘이 보여주는 진정한 이로움은 마땅한 것들이 서로 아름답게 어울리는 조화에서 뜻을 찾아야 한다고도 가르친다. 주역 문언전의 구절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생각이 미치면 종종 갈등이 생겨나기도 한다.

나는 정말 수천 년 인간의 정신에 기여하려는 마음의 노력을 가져 본 적이 있었던가. 그 점에서 나는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존경한다.

수 천 년 인류 정신의 유산인 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그 답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자하 맹희 경방 마옹 순상 정강성으로 시작되는 이름은 듣기에도 모두 생소하다. 유표 하안 송충 우번 육적 간보 왕숙 왕보사 요신 왕이 장번 향수 왕개충 후과 축재 적현 한강백 유현 하타 최경 심린사 노씨 최근 공영달 등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거짓말처럼 일치하는 지향점이 있다. 오래된 인간의 정신에 이바지하려는 노력이다.

그리고 이처럼 이름조차 생소한 그들의 노력을 21세기에 살려낸 성과물이 바로 김가원의 주역집해찬소(周易集解纂疏) 번역본이다. 오랫동안 인간의 오래된 정신에 집중하고 살아가면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람들의 시각에서 상수학적인 주역을 되살려보려는 뜻의 결과일 것이다. 나는 그 점에서 전체 5권 분량으로 번역해 출간한 편역자의 노력을 높이 사주고 싶다. 역사에 한 점 기억되는 책이 되어 줄 것임을 믿으면서 인간의 정신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이 땅의 후학들도 함께 도움받기를 기대하는 바가 크다.

● 주역집해찬소(周易集解纂疏)에 관하여

주역집해찬소(周易集解纂疏)란 이정조가 정리한 주역집해의 뜻이 통할 수 있도록 해석을 덧붙인 책이라는 뜻이다. 편찬자는 청나라 시대에 활동했던 이도평이다. 참고로 이정조의 주역집해를 이해하고자 하면 시기적으로 그보다 조금 앞서는 주역정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주역정의를 당나라 때 태종이 중서시랑 안사고에게 조칙을 내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오경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도록 하면서 간행된 책이다.

그 작업을 주도했던 인물은 공영달이다. 그러나 책의 완성에는 공영달이 세상을 뜨고 난 648년의 일이다. 이를 653년 중서 문하 국자 3관의 박사 홍문관 박사 등이 2차 고증을 거쳐 세상에 반포하였다. 이것의 이름이 오경정의다. 주역정의를는 그때 완성을 본 교재에 속한다.

오경정의를는 관방 교과서로 전승되면서 삼국시대 이후 과거의 고시과목이 되는 경전의 뜻을 집대성한 작업으로 명경고시의 표준과 근거가 되었다. 전체적인 작업의 소요 기간은 24-5년이 걸린 것으로 본다.

주역정의를는 뜻의 소통과 고증에 있어서 공영달 마가운 조건협 소덕용 조홍지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역정의 머릿말에서는 밝히고 있다.

이와 달리 주역집해(周易集解)는 주역정의를(周易正義)의 뒤를 이어 이정조가 역학 성과를 총결산한 저작물이다.

참고로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갈래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상수역을 이해하기 위한 주역집해찬소 원문 번역이다.

둘째는 의리역을 곁들이기 위한 본인의 덧붙이는 글들이다.

셋째는 역학의 전체적인 흐름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선현들의 성과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다만 둘째와 셋째 항목은 본인이 교보문고에서 출간했던 「주역으로 가는 길」과 많은 부분이 겹친다. 따라서 상수역을 위한 관심이 아니라면 「주역으로 가는 길」을 구입한 독자들은 이 책은 의미가 없는 게 된다.

○ 주역집해찬소(周役集解纂疏)에 등장하는 상수학적인 이론들

괘기설(卦氣說)

괘기(卦氣) 설은 역위계람도(易緯稽覽圖)에 등장한다. 그 책의 머리말에서 갑자(甲子)는 괘기로 보아 풍택중부(風澤中孚)로부터 일어난다. 6일 80분의 7에 해당한다. 사시(四時)의 괘는 일진(一辰)을 쫓아 나간다. 감(坎)은 항상 동지에 시작됨을 본떴다. 지뢰복(地雷復)이 습감(習坎)의 뒤 7일에 생겨난다. 불어나거나 줄어드는 잡괘들이 서로 이를 보여준다. 하나만 예로 든다면 모두가 풍택중부(風澤中孚)에 배열되어 있는 괘상들과 같다.

그 법을 살펴보면 습감(習坎), 중화리(重火離), 중뢰진(重雷震), 중택태(重澤兌) 4정괘(正卦)가 사시(四時)의 우두머리 괘다.

나머지 60괘가 12월에 나누어 자리잡고 있으면서 6일 7분을 주관한다. 또 지뢰복으로부터 중지곤(重地坤)까지의 12괘가 소식(消息)의 기본괘가 된다. 그밖의 나머지 잡괘(雜卦)는 공(公), 경(卿), 대부(大夫), 후(侯)를 주관한다. 기운으로 보면 풍우한온(風雨寒溫)으로써 미세하게 호응한다. 대개 맹희 경방의 학으로부터 생겨났다.

한나라 시대에 역에 대해 말하는 대유(大儒)들은 근본 이론이 대체로 여기에 근거한 것들이 많다. 아래에 도표로서 대신해둔다.

12지 (支)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천자(天子)	지뢰복(地雷復) 	지택림(地澤臨) 	지천태(地天泰) 	뇌천대장(雷天大壯) 	택천괘(澤天夬) 	중천건(重天乾) 
四正卦	감(坎) 			진(震) 		
공(公)	풍택중부(風澤中孚) 	지풍승(地風升) 	풍산점(風山漸) 	뇌수해(雷水解) 	택화혁(澤火革) 	풍천소축(風天小畜) 
절기(節氣)	동지(冬至)	대한(大寒)	우수(雨水)	춘분(春分)	곡우(穀雨)	소만(小滿)
경(卿)	산뢰이(山雷頤) 	화택규(火澤睽) 	풍뢰익(風雷益) 	화지진(火地晉) 	산풍고(山風蠱) 	수지비(水地比) 

	雷頤䷚	澤睽䷥	雷益䷩	地晉䷢	風蠱䷑	地比䷇
대부(大夫)	수 산 건(水山蹇)䷦	지 산 겸(地山謙)䷎	산 수 몽(山水蒙)䷃	택 퇴 수(澤雷隨)䷐	천 수訟(天水訟)䷅	지 수 사(地水師)䷆
제후(諸侯)	화 수 미 제(火水未濟)䷿	수 퇴 둔(水雷屯)䷂	뇌 산 소 과(雷山小過)䷽	수 천 수(水天需)䷄	뇌 지 예(雷地豫)䷏	화 산 려(火山旅)䷷
절기(節氣)	대설(大雪)	소한(小寒)	입춘(立春)	경칩(驚蟄)	청명(淸明)	입하(立夏)
12 지(支)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
천자(天子)	천 풍 구(天風姤)䷫	천 산 둔(天山遯)䷠	천 지 비(天地否)䷋	풍 지 관(風地觀)䷓	산 지 박(山地剝)䷖	중 지 곤(重地坤)䷁
四 正 卦	리(離)			태(兌)		
공(公)	택 산 함(澤山咸)䷞	천 택 리(天澤履)䷉	산 택 손(山澤損)䷨	산 화 비(山火賁)䷖	택 수 곤(澤水困)䷮	택 풍 대 과(澤風大過)䷛
절기(節氣)	하지(夏至)	대서(大暑)	처서(處暑)	추분(秋分)	상강(霜降)	소설(小雪)
경(卿)	수 풍 정(水風井)䷯	풍 수 환(豐水渙)䷺	천 화 동 인(天火同人)䷌	산 천 대 축(山天大畜)䷙	지 화 명 이(地火明夷)䷣	화 퇴 서 함(火雷噬嗑)䷔
대부(大夫)	풍 화 가 인(風火家人)䷤	뇌 화 풍(雷火豐)䷲	수 택 절(水澤節)䷻	택 지 취(澤地萃)䷬	천 퇴 무 망(天雷无妄)䷘	수 화 기 제(水火既濟)䷾
제후(諸侯)	화 천 대 유(火天大有)䷍	화 풍 정(火風鼎)䷱	뇌 풍 항(雷風恒)䷟	중 풍 손(重風巽)䷸	뇌 택 귀 매(雷澤歸妹)䷵	중 산 간(重山艮)䷳
절기(節氣)	망종(芒種)	소서(小暑)	입추(立秋)	백로(白露)	한로(寒露)	입동(立冬)

소식(消息) - 음양(陰陽)의 불어나고 줄어드는 이치

산지박(山地剝) 단전(彖傳)에 「군자는 소식(消息) 영허(盈虛)의 이치를 숭상한다」고 하였다.

뇌화풍(雷火豐) 단전(彖傳)에서도 「천지(天地)의 기운이 가득 차고 비어

가는 때와 더불어 불어나고 줄어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복희가 지은 10언의 가르침에 맞췄다」고 했으니 「건(乾) 곤(坤) 진(震) 손(巽) 감(坎) 리(離) 간(艮) 태(兌) 소(消) 식(息)」을 말한다. 역위(易緯)에 「성인은 음양(陰陽)을 인하여 소식(消息)을 표시했으니 건곤(乾坤)으로서 천지(天地)을 거느리는 것」이다. 계람도(稽覽圖)에도 「오직 소식(消息) 및 사시(四時) 패가 그날에 모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 「소식(消息) 및 잡괘가 서로 열거 되는 게 마치 중부(中孚) 이하의 예와 같다고 하였다.

태사공(太史公)은 또한 「황제가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고서 달력을 만든 이치를 상고해 볼 때 오행에 움직임에 맞는 소식(消息)을 세웠다」고 하였다. 황간(皇侃)의 주석에 의하면 「건(乾)은 양(陽)이 생겨나면서 불어난 패상이다. 곤(坤)은 음(陰)이 작용하면서 녹아든 게 된다.」

소식(消息)의 뜻은 이미 옛적에 갖추어졌다.

맹씨(孟氏)가 그 학을 전하고 순씨(荀氏)가 언급은 했어도 충분하지는 않았다. 오직 우씨(虞氏)의 주석만이 그 개요를 알아 볼 수가 있다. 대저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 등의 12벽괘는 소식(消息) 패의 정(正)이 된다. 지택림(地澤臨䷒) 천산돈(天山遯䷠) 천지비(天地否䷋) 지천태(地天泰䷊) 뇌천대장(雷天大壯䷡) 풍지관(風地觀䷓)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효의 본보기다.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효의 본보기를 따르지 않는다. 모두 2괘씩 방통(旁通)의 관계이니 그것이 소식(消息) 패다.

소식(消息) 패가 모두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으로 서로 합하는 때에 있게 되면 산지박(山地剝䷖) 지뢰복(地雷復䷗)택천괘(澤天夬䷪) 천풍구(天風姤䷫) 지천태(地天泰䷊) 천지비(天地否䷋)의 사괘이다.

이에 대해서는 근래의 무진장씨(武進張氏)의 말이 가장 정밀하다.

상세한 내용은 주역(周易) 우씨(虞氏) 소식(消息)에서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효진설(爻辰說)

효진(爻辰)이란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의 12효가 좌우로 서

로 섞이면서 12진(辰)에 해당한다.

건작도(乾鑿度)에서 말하기를 「중천건(重天乾䷀)은 양(陽)이고 중지곤(重地坤䷁)은 음(陰)이다. 아울러 사귀어 섞이면서 움직인다. 중천건(重天乾䷀)은 11월 자(子)에서 정해진다. 왼쪽으로 움직이는 양(陽)의 때가 6이다. 중지곤(重地坤䷁)은 6월 미(未)에서 정해진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음(陰)의 때가 6이다. 이로써 그 순서를 따라 돌면서 한 해가 성립된다. 한 해가 수뢰둔(水雷屯䷂)과 산수몽(山水蒙䷃)을 따라 마친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음괘(陰卦)는 양효와 더불어 자리가 함께 하고 있다면 일진(一辰)이 물러난다. 미(未)로서 자리가 정해진다. 그 효(爻)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그 사이에 6진(辰)을 다스린다.

내가 살피건대 건작도의 말은 12율(律) 상생(上生)의 설과 더불어 합한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태사(太師)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석에 의하면 「황중(黃鍾)은 초구(初九)다. 아래로 임중(林鍾) 초육(初六)을 낳는다. 임중(林鍾)은 또 위로 태주(太簇)의 구이(九二)를 낳는다. 태주(太簇)는 또 아래로 남려(南呂) 육이(六二)를 낳는다. 남려(南呂)는 다시 위로 고선(姑洗) 구삼(九三)을 낳는다. 고선(姑洗)은 또 아래로 응중(應鍾) 육삼(六三)을 낳는다. 응중(應鍾)은 또 위로 유빈(蕤賓) 구사(九四)를 낳는다. 유빈(蕤賓)은 다시 위로 대려(大呂) 육사(六四)를 낳는다. 대려(大呂)는 또 아래로 이칙(夷則) 구오(九五)를 낳는다. 이칙(夷則)은 또 위로 협중(夾鍾) 육오(六五)를 낳는다. 협중은 다시 아래로 무역(無射) 상구(上九)를 낳는다. 무역은 또 위로 중려(仲呂) 상육(上六)을 낳는다」고 하였다.

주어(周語)에 대한 위소(韋昭)의 주석에 의하면 「11월은 율려가 황중(黃鍾)이며 중천건(重天乾䷀) 초구(初九)다. 12월은 대려(大呂)로서 중지곤(重地坤䷁) 육사(六四)다. 정월은 태주(太簇)이니 중천건(重天乾䷀) 구이(九二)다. 2월은 협중(夾鍾)이니 중지곤(重地坤䷁) 육오(六五)다. 3월은 고선(姑洗)이며 중천건(重天乾䷀) 구삼(九三)이다. 4월은 중려(仲呂)이며 중지곤(重地坤䷁) 상육(上六)이다. 5월은 유빈(蕤賓)이니 중천건(重天乾䷀) 구사(九四)다. 6월은 임중(林鍾)이니 중지곤(重地坤䷁) 초육(初六)이다. 7월은 이칙(夷則)이니 중천건(重天乾䷀) 구오(九五)다. 8월은 남려(南呂)이니 중지곤(重地坤䷁) 육이(六二)다. 9월은 무역(無射)이니 중천건(重天乾䷀) 상구(上九)다. 10월은 응중(應鍾)이며 중지곤(重地坤䷁) 육삼(六三)」이라

고 하였다.

또 경방(京房)도 효진에 대해 말했으니 정현과 더불어 같지 않다. 중천건(重天乾䷲)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양(陽)의 때 6은 자(子)에서 시작하여 술(戌)에서 끝나는 것은 두 사람이 모두 같다. 중지곤(重地坤䷁)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음(陰)의 때 6은 미(未)에서 시작하여 유(酉)로 끝나는 것은 경씨의 설이다.

두 사람은 모두 율진(律辰)에서 함께 출발을 하고 있으나 정씨는 월률(月律)에 근본을 두었으니 곧 월령 12월에 맞는 른(律)로서 격팔상생의 차례를 따른다. 이처럼 월률의 움직임에 따르므로 효진도 또한 순행한다.

반면 정씨는 주례(周禮) 태사(太師)에서 말하는 「육률(六律) 육동(六同)으로써 음양(陰陽)의 소리에 합한다.」는 구절을 따르고 있다. 양(陽)의 소리는 황종(黃鍾) 태주(太簇) 고선(姑洗) 유빈(蕤賓) 이척(夷則) 무역(無射)이다. 음(陰)의 소리는 대려(大呂) 응중(應鍾) 남려(南呂) 임중(林鍾) 중려(仲呂) 협중(夾鍾)이다. 소리에 합하는 시작과 끝의 차례는 월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소리에 합하는 움직임은 거슬린다. 그러므로 효진도 또한 거슬린다. 정씨는 효진(爻辰)으로써 역(易)에 대해 설명함으로 경씨의 설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이에 그것을 아래에 도표로써 소개해 놓았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뒤의 그림은 정씨의 효진(爻辰)이다.

12지地	12율律	괘상(卦象)
자子	황종黃鍾	중천건(重天乾䷲) 초구(初九)
축丑	대려大呂	중지곤(重地坤䷁) 육사(六四)
인寅	태주太簇	중천건(重天乾䷲) 구이(九二)
묘卯	협중夾鍾	중지곤(重地坤䷁) 육오(六五)
진辰	고선姑洗	중천건(重天乾䷲) 구삼(九三)
사巳	중려仲呂	중지곤(重地坤䷁) 상육(上六)
오午	유빈蕤賓	중천건(重天乾䷲) 구사(九四)
미未	임중林鍾	중지곤(重地坤䷁) 초육(初六)
신申	이척夷則	중천건(重天乾䷲) 구오(九五)
유酉	남려南呂	중지곤(重地坤䷁) 육이(六二)
술戌	무역無射	중천건(重天乾䷲) 상구(上九)
해亥	응중應鍾	중지곤(重地坤䷁) 육삼(六三)

음양(陰陽)의 기운이 오르고 내리는 승강설(升降說)

중천건(重天乾䷀)은 기운이 올라가고 중지곤(重地坤䷁)은 내려간다. 그 뜻이 역위건작도(易緯乾鑿度)에 나온다. 음(陰)은 양(陽)에 걸려서 살아난다. 양(陽)은 7을 거쳐 9로 나아간다. 음(陰)은 8을 거쳐 6으로 내려간다. 그러므로 양(陽)의 성질은 오르려고 하고 음(陰)의 성질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계사(繫辭)에 「오르고 내림에 일정함이 없으며 강유(剛柔)가 서로 바뀐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이다.

순씨(荀氏)가 역에 대해 말하면서 이러한 뜻으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한 부분이 매우 많다. 음양(陰陽)의 효가 오르고 내리는 성격은 안과 밖이라고 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중화리(重火離䷄)와 뇌산소과(雷山小過䷛)의 4효가 양(陽)으로써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대표적인 본보기다.

상하(上下)의 폐가 오르고 내림이 있는 것은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이 마찬가지다. 지풍승(地風升䷭) 초효와 중풍손(重風巽䷸)은 하나의 몸으로서 서로 따른다. 지풍승(地風升䷭)의 양(陽)은 위의 중지곤(重地坤䷁)으로 올라가 거처하려는 게 그 이유다. 이것은 양(陽)은 올라가고 음(陰)은 내려가려고 하는 대표적인 본보기가 된다.

납갑설(納甲說)

납갑이란 중천건(重天乾䷀)이 육갑(六甲)의 갑(甲)과 임(壬)을 받아들이고, 중지곤(重地坤䷁)이 을(乙)과 계를 받아들이며 중뢰진(重雷震䷲)은 경(庚)을 중풍손(重風巽䷸)은 신(辛)을 중산간(重山艮䷳)은 병(丙)을 중택태(重澤兌䷹)는 정(丁)을 습坎(習坎䷜)은 무(戊)를 중화리(重火離䷄)는 기(己)를 받아들인다.

그 설은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는지 자세히는 알 수가 없다.

위백양(魏伯陽)의 참동계에 의하면 「3일에 나오는 달은 중뢰진(重雷震䷲)이니 서방의 경(庚)에 출현하고 8일의 달은 중택태(重澤兌䷹)와 같은 데 정(丁)방에 출현하며 상현(上弦) 달은 노곤과 같다고 하였다. 계속해서 15일 보름달은 중천건(重天乾䷀)과 같은 모습이 되고 갑(甲)으로 동방에 가득 찬다. 15일이 지나면 달은 꺾이면서 기울기 시작한다. 그래서 16일부터는 중풍손(重風

巽(☴)으로 신(辛)방에서 밝게 나타난다. 중산간(重山艮(☶))은 병(丙)에 해당하는 남방이 되며 하현(下弦)이 되었을 때는 23일 무렵이다. 중지곤(重地坤(☷))은 30일로써 을(乙)이 되니 동북(東北)은 그 벗을 잃는 곳이다. 한 사이클이 끝나면 서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밝음이 생겨나면서 그 현상이 반복된다. 나머지 십간(十干)에서 임계(壬癸)는 갑을(甲乙)과 짝이 되면서 시작과 끝의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에 묶어 생각한다.」

문헌에 실려 있는 납갑은 바로 여기에 등장한다.

이와 관련된 설패전의 말을 요약해 보면 「하늘과 땅이 자리를 정하고 산과 못이 기운을 통하며 우레와 바람이 서로 부딪친다」고 하였다. 삼양(三陽) 삼음(三陰)으로부터 일양(一陽) 일음(一陰)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하는 말이다. 그 뒤로는 「물과 불이 서로 배척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개 6괘의 불어나고 없어지는 이치가 수화(水火)의 작용이 되기 때문이다.

우씨(虞氏)는 이에 근본을 두고 역을 설명한다. 경(經)의 뜻과 더불어 매우 일치하는 바가 있다. 그 법은 중뢰진(重雷震(☳)) 중풍손(重風巽(☴)) 중산간(重山艮(☶)) 중택태(重澤兌(☱)) 중천건(重天乾(☰)) 중지곤(重地坤(☷)) 여섯 괘가 일 년 12달의 월후(月候)에 호응하는 그대로다. 그리고 습坎(習坎(☵))과 중화리(重火離(☲))는 해와 달의 본체이니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는다. 중뢰진(重雷震(☳))에서 밝음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의 양(陽)이 비로소 생겨나는 것과 같고, 또 밝음이 생겨날 때에 초 저녁의 때에 달이 경방(庚方)에 출현하는 것과 일치한다.

한편 중택태(重澤兌(☱))는 상현(上弦) 달 모양으로 2양(陽)으로 점차 성해지는 것에 해당한다. 또 상현(上弦)의 때에는 달이 초저녁 정방(丁方)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보름달에 해당하는 중천건(重天乾(☰))의 예도 마찬가지다. 삼양(三陽)으로 가득 찬 모습의 달은 갑방(甲方)에서 초저녁에 나타난다. 중풍손(重風巽(☴))은 아래에서 먹히면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니 일음(一陰)이 비로소 생겨나는 상과 일치한다. 또 달이 아래에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남아 있는 밝은 부분은 중풍손(重風巽(☴)) 모양으로 출현하는 방위는 신방(辛方)이다. 그렇다면 중산간(重山艮(☶))은 어떨까? 달로 보면 하현(下弦)이다. 곧 2음(陰)이 자라나면서 달이 어둡으로 채워지는 때다. 또 하현(下弦)의 때는 그달의 위치가 병방(丙方)이다. 중지곤(重地坤(☷))은 그믐이니 삼음(三陰)으로 달이 완전히 잠식되었을 때다. 또 그믐의 때는 달이 을방(乙方)에 자리한다. 이는 납갑

(納甲)의 전체적인 개요이니 다음의 도표로 대신한다.

태(兌☱) 상현(上弦) 정방(丁方)	갑방(甲方) 건(乾☰)	손(巽☴) 신생백(辛生魄)
	이(離☲) 감(坎☵) 일(日) 월(月)	
진(震☳) 경생명(庚生明)	곤(坤☷) 을방(乙方) 회(晦)	병(丙) 하현(下弦) 간(艮☶)

납십이지설(納十二支說)

납지(納支)란 8괘 육획(六劃)으로서 음양(陰陽) 6진에 나누어 받아들이는 원리다.

중천건(重天乾☰)은 안의 삼획괘는 갑(甲)이 되고 지지로는 자(子)와 인(寅)과 진(辰)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초구는 갑자(甲子) 구이(九二)는 갑인(甲寅) 구삼(九三)은 갑진(甲辰)이 된다.

반면 바깥 삼획괘는 임(壬)을 받아들이면서 지지는 오(午) 신(申) 술(戌)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구사(九四)는 임오(壬午) 구오(九五)는 임신(壬申) 상구(上九)는 임술(壬戌)이다.

또 이런 원리는 곤(坤)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책에 적용되고 있는 나머지 팔괘와 지지의 상관관계는 다음의 도표와 같다.

괘효	8괘	乾	震	坎	艮	坤	兌	離	巽
바깥괘 상괘	상효	戌	戌	子	寅	酉	未	巳	卯
	5효	申	申	戌	子	亥	酉	未	巳
	4효	午	午	申	戌	丑	亥	酉	未
안괘 하괘	3효	辰	辰	午	申	卯	丑	亥	酉
	2효	寅	寅	辰	午	巳	卯	丑	亥
	초효	子	子	寅	辰	未	巳	卯	丑

육친설(六親說)

육친(六親)에 관한 효의 상관관계는 경방 군명에서 비롯된다.

경씨(京氏)는 적산법(積算法)에서 이렇게 말한다.

「공자의 말씀에 팔괘(八卦)의 귀(桴)는 계효(繫爻), 재(財)는 제효(制爻), 천지(天地)는 의효(義爻)」라고 하였다.

육적(陸績)의 주석에 따르면 「천지(天地)는 곧 부모」이기 때문이다.

「복덕(福德)은 보효(寶爻)가 된다.」고 했는데 그때의 복덕은 자손(子孫)이다.」 동기(同氣)는 전효(專爻)가 된다는 구절도 형제(兄弟) 효(爻)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팔괘의 여섯 자리로써 법(法)을 삼되 중천건(重天乾)은 금(金)에 속하는 괄다. 육갑(六甲)으로는 갑자(甲子) 임오(壬午)다.

중지곤(重地坤)은 토(土)에 속했다. 을미(乙未)와 계축(癸丑)을 받아들이며 중뢰진(重雷震)은 목(木)에 속했다. 육갑(六甲)으로는 경자(庚子)와 경오(庚午)를 주장했다. 중풍손(重風巽)도 오행으로는 목(木)에 속하는 괄다. 육갑(六甲)으로는 신축(辛丑)과 신미(辛未)를 주관했다.

습감(習坎)은 오행상 수(水)에 속한다. 육갑(六甲)으로는 임인(壬寅)과 무신(戊申)을 주관한다.

중화리(重火離)는 오행상 화(火)에 속한다. 육갑(六甲)으로는 기묘(己卯)와 기유(己酉)를 주관한다.

중산간(重山艮)은 토(土)에 속한다. 육갑(六甲)으로는 병진(丙辰)과 병술(丙戌)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택태(重澤兌)는 금(金)에 속한다. 육갑(六甲)으로는 정사(丁巳)와 정해(丁亥)를 주관한다.

각기 음양(陰陽) 괄상의 변화로서 육진(六辰)을 다스린다. 세괄(世卦)의 오행으로부터 상호 간의 상생(相生) 상극(相克)을 살펴보면 육친(六親)의 명(命)이 적용된다. 마치 중천건 갑자라면 자(子)는 수(水)에 해당하므로 금(金)이 수(水)를 살리는 의효(義爻)다. 중천건(重天乾)의 바깥 임오(壬午)는 오(午)가 화(火)이므로 화(火)가 금(金)을 제압하는 제효(制爻)가 이것이다. 그 나머지 이치는 오행 상생 상극의 이치로서 미루어 짐작해 보면 된다.

팔궁괘(八宮卦)

팔궁괘(八宮卦)는 경씨(京氏) 역에 근본을 둔다. 대개 중천건과 중지곤은 서로 사귀어 여섯 자녀를 낳는데 이들 팔순괘(八純卦)는 56괘를 낳으니 모두 64괘다. 역전적산법(易傳積山法)에 「공자의 말을 인용하기를 역(易)에 64괘가 있으니 4역(易)이 있다. 1세 2세는 지역(地易)이 되고 3세와 4세는 인역(人易) 5세와 6세는 천역(天易)이며 유혼(遊魂)과 귀혼(歸魂)은 귀역(鬼易)이다.」

그 법은 64괘를 팔궁에 나누어 속하게 하는 형식으로 중천건(重天乾䷀) 중뢰진(重雷震䷲) 습坎(習坎䷜) 중산간(重山艮䷳) 중지곤(重地坤䷁) 중풍손(重風巽䷸) 중화리(重火離䷄) 중택태(重澤兌䷹)의 차례가 된다. 팔괘(八卦)는 본래 상(象)이 팔순(八旬)이 되는 데 세(世)는 위에 있다. 그래서 초효(初爻)가 변하는 1세(世)로부터 5효(爻)까지 변하고 난 뒤 맨 위의 상효(上爻)는 변하지 않고 사효(四爻)로 다시 내려오면서 변하는 데 명칭이 유혼(遊魂)이다. 아래의 삼획괘가 모두 본래로 돌아오면 귀혼(歸魂)괘가 된다. 유혼과 귀혼의 변화는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이 불과 물의 작용한 결과이니 중화리(重火離䷄)와 습坎(習坎䷜)은 건곤(乾坤)의 용(用)이다. 또한 중뢰진(重雷震䷲)과 중풍손(重風巽䷸)은 태(兌)와 간(艮)의 작용에 의함이니 중택태(重澤兌䷹)와 중산간(重山艮䷳)은 진(震)과 손(巽)의 용(用)이 된다. 도표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上世	건 (乾䷀)	진 (震䷲)	감 (坎䷜)	간 (艮䷳)	곤 (坤䷁)	손 (巽䷸)	이 (離䷄)	태 (兌䷹)
一世	구 (姤䷫)	예 (豫䷏)	절 (節䷻)	비 (賁䷖)	복 (復䷗)	소축 (小畜䷈)	여 (旅䷷)	곤 (坤䷁)
二世	돈 (遯䷠)	해 (解䷧)	둔 (屯䷂)	대축 (大畜䷙)	임 (臨䷒)	가인 (家人䷤)	정 (鼎䷱)	취 (萃䷬)
三世	비 (否䷋)	항 (恒䷟)	기제 (既濟䷾)	손 (損䷨)	태 (泰䷊)	익 (益䷩)	미제 (未濟䷿)	함 (咸䷞)
四世	관 (觀䷓)	승 (升䷭)	혁 (革䷰)	규 (睽䷥)	대장 (大壯䷡)	무망 (无妄䷘)	몽 (蒙䷃)	건 (蹇䷦)
五世	박 (剝䷖)	정 (井䷯)	풍 (豐䷶)	리 (履䷉)	쾌 (夬䷪)	서합 (噬嗑䷔)	환 (渙䷺)	겸 (謙䷎)
游魂	진	대과	명이	중부	수	이	송	소과

	(晉䷢)	(大過䷛)	(明夷䷣)	(中孚䷼)	(需䷄)	(頤䷚)	(訟䷅)	(小過䷽)
歸魂	대유	수	사	점	비	고	동인	귀매
	(大有䷍)	(隨䷐)	(師䷆)	(渙䷺)	(比䷇)	(蠱䷑)	(同人䷌)	(歸妹䷵)

납갑응정설(納甲應情說)

납갑(納甲)이 사람의 정(情)에 호응한다는 이론이다. 익봉(翼奉)에게서 시작되었다. 주역의 뜻과는 관련이 없다. 간씨(干氏)가 경(經)을 해석하면서 드물게 이런 원리를 채용하였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한서(漢書) 익봉전(翼奉傳)에 의하면 북방(北方)의 정은 좋아하는 데 있다. 행동하기를 좋아하니 탐욕스럽고 어지럽다. 신자(申子)가 이를 주장하였다. 이 구절의 뜻에 대한 맹강의 주석을 살펴보면 「물의 성질은 땅에 붙어서 흐른다. 물에 닿으면 윤택하게 된다. 좋아하는 바가 많은 까닭이다. 좋아함이 많으면 탐욕을 부려 싫어함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탐욕스러워서 어지럽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동방의 뜻은 노함에 있다. 노해서 움직이는 것은 음기(陰氣)가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 해묘(亥卯)가 이를 주장한다. 이 구절의 주석에 따르면 목성(木性)은 물을 빨아들여 자라난다. 땅을 꿰뚫고 나온다. 그러므로 노함이 된다. 음기(陰氣)가 땅을 도적질하여 해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음기(陰氣)가 도적질하는 것과 같게 된다. 또 남방(南方)의 정에 대해서는 악(惡)이라고 하였다. 악(惡)은 행동이 곧으니 인오(寅午)가 이를 주장한다. 주석에 의하면 남방 화(火)의 기운은 맹렬하게 위로 타오른다. 받아들이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미워하는 대상 악(惡)이 된다. 그 정밀한 기운은 엄하면서 가지런하다. 그러므로 곧은 게 된다. 또 서방의 기운은 기쁨이다. 기쁘게 움직이니 너그럽고 크다. 기유(己酉)가 이를 주장한다. 주석에 의하면 금(金)이라는 사물이 기쁘게 온갖 사물을 칼로 벤다. 그러므로 기쁨이 된다. 날카로운 칼날을 더하므로 관대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너그럽고 크다고 하였다. 또 상방(上方)의 정은 즐거움이다. 즐겁게 움직이는 것은 간사(姦邪)하다. 진미(辰未)가 이를 주장한다. 주석에 의하면 상방은 북방과 더불어 동방을 뜻한다. 양기(陽氣)가 싹트는 장소다. 그러므로 상(上)이 된다. 진(辰)은 수기운(水氣運)에서 힘이 다하고 미(未)는 목기운(木氣運)에서 끝난다. 익씨(翼氏)는 풍각(風角)에서 나무가 잎이 지면 근본으로 돌아가고 물은 흘러 끝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무의 이로움은 해(亥)에 있고 물의 이로움은 진(辰)에 있다. 기운의

성쇠가 각기 마땅함을 얻은 게 되므로 즐겁다. 물이 다하면 들어감에 틈이 있을 수가 없다. 나무가 땅을 뚫고 나오면 곁으로 퍼져간다. 그러므로 간사(姦邪)함이 된다. 또 하방(下方)의 정은 슬프다. 슬픈 움직임은 공정(公正)하다. 술(戌)과 축(丑)이 이를 주관한다고 하였다. 주석에 따르면 하방(下方)이란 남서(南西) 방이다. 음기(陰氣)가 싹트는 곳이므로 아래가 된다. 술(戌)은 불에서 끝나고 축(丑)은 금(金)에서 끝난다. 익씨(翼氏)는 풍각(風角)에서 금강의 불은 강하다. 각기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불은 오(午)에서 죽고 금기운(金氣運)은 유(酉)에서 죽는다. 유(酉)와 오(午)는 금화(金火)의 기운이 성한 곳이다. 성할 때는 형벌을 받는데 끝에 이르면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러므로 슬프다고 하였다. 불의 성질은 사사로움이 없다. 금의 성질은 바야흐로 군세므로 공정하다고 하였다.

세월(世月)

호일계(胡一桂)의 주장이다.

경방이 주장한 월례(月例)에서 1세(世) 패를 말했다. 음(陰)은 5월에 생겨나므로 일음(一陰)은 오(午)에 있다.

양(陽)은 11월에 생겨나므로 일양(一陽)은 자(子)에 있다.

2세 패라면 음(陰)이 주장하는 6월이다. 2음(陰)이 미(未)에 있다. 양(陽)은 12월을 주장하므로 2양(陽)은 축(丑)에 있다.

3세 패에서는 음(陰)이 주장하는 7월이다. 3음(陰)이 신(申)에 있다. 양이 주장하는 정월은 3양(陽)이니 지지(地支)로는 인(寅)이 된다.

4세 패는 음(陰)이 주장하는 8월이다. 4음(陰)이 유(酉)에 있다. 양(陽)이 주장하는 2월은 4양(陽)이니 지지(地支)로는 묘(卯)가 된다.

5세 패에서는 음(陰)이 주장하는 9월이다. 5음(陰)이 술(戌)에 있다. 양이 주장하는 3월은 5양(陽)이니 지지(地支)로 진(辰)이 된다.

팔순(八純) 상세(上世) 패는 음(陰)이 주장하는 10월이다. 6음(陰)이 해(亥)에 있다. 양(陽)이 주장하는 4월은 6양(陽)이니 지지(地支)로는 사(巳)가 된다.

유혼(遊魂) 4세 패는 주장하는 바가 앞의 4세 패와 같다.

귀혼(歸魂) 3세 패는 주장하는 바가 앞의 3세 패와 같다.

납지(納支) 이하는 간씨(干氏)가 이 책에서 드물게 적용하고 있다. 대개 간씨(干氏)가 적용하는 역의 이론은 다분히 인사의 문제를 결부시키면서 이런 사례를 취하여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잡스럽게 비교하여 활용하는 방식이다.

24방위설(方位說)

24방위는 곧 음양가(陰陽家) 24산(山)이다. 한나라 사람들이 역을 말하면서 이 법을 자주 사용하였다. 그 뜻은 가장 오래 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채록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소개한다. 팔괘(八卦)는 네 모서리만을 쓰고 네 곳의 정방(正方)은 사용하지 않게 되는 데 네 곳의 정방(正方)에 해당하는 괘는 자오묘유(子午卯酉)의 자리다. 그러므로 괘를 적용하지 않고 지(支)를 사용한다. 지(支)를 적용하는 것이 곧 괘를 쓰는 일이다. 팔괘가 이미 정해지면 네 곳의 바른 방위는 팔간(八干)으로써 이를 보완한다. 갑을(甲乙)은 진(震) 병정(丙丁)은 이(離) 경신(庚辛)은 태(兌) 임계(壬癸)는 감(坎)이다. 나머지 네 모서리는 주역의 괘로서 이를 보완한다. 술해(戊亥)는 건(乾) 축인(丑寅)은 간(艮) 진사(辰巳)는 손(巽) 미신(未申)은 곤(坤)이다. 합해서 모두 8간 12지가 된다. 그리고 다시 이를 전체로 보면 24방위가 된다. 천간(天干)에서 무기(戊己)는 쓰지를 않는데 그 까닭은 무기(戊己)가 중앙의 토(土)가 되기 때문에 정해진 자리가 없다. 이와 같은 방위도는 아래 도표와 같다.

손(巽)	사(巳)	병(丙)	오(午)	정(丁)	미(未)	곤(坤)
진(辰)						신(申)
을(乙)		손(巽)	이(離)	곤(坤)		경(庚)
묘(卯)		진(震)		태(兌)		유(酉)
갑(甲)		간(艮)	감(坎)	건(乾)		신(辛)
인(寅)						술(戊)
간(艮)	축(丑)	계(癸)	자(子)	임(壬)	해(亥)	건(乾)

● 역(易)의 일반적인 상식에 대하여

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역 혹은 4서 삼경의 역경을 일컫는다.

고대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역은 애초에 하늘신(천신天神)·땅신(지지地祇)·종묘(종묘宗廟)에 제사 지내기 전, 혹은 전쟁과 같은 나라의 중대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사용하던 점서의 도구 일체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즉 역의 기원이 시초 풀과 거북점에 바탕을 둔 점복서의 형태로서, 인간사와 천지자연의 법칙을 반영한 역경이라는 명칭은 역의 해설서인 전(傳)이 출현하고 난 뒤인 한나라 이후의 일이었다.

한편 주나라 초기의 제도에 대한 기록서인 주례(周禮)에 의하면 태복(太卜)이라는 관리가 3가지 역을 관장하였다는 기록이 있다.(春官掌三易

일 환 연산 이 환 귀장 삼 환 주역
一曰連山 二曰歸藏 三曰周易)

여기서 연산(連山)은 하(夏)나라의 역, 귀장(歸藏)은 은(殷)나라의 역, 주역(周易)은 주(周)나라의 역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연산(連山)과 귀장(歸藏)은 그 내용이 전해지지 않아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다만 세 가지 역(易)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세 역(易)의 차이점은 천지 만물의 생성 이치를 어디에 맞추어 생각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천지 만물의 생성 이치가 하늘 중심이라면 중천건(重天乾䷀) 하늘 패가 역의 머리 패가 될 것이고

땅 중심이면 중지곤(重地坤䷁) 땅 패가 역의 머리에 왔을 것이고,

사람 중심이면 중산간(重山艮䷳) 산 패가 역의 머리가 된다.

실제 이들 세 나라의 달력을 살펴보면 하나라는 인월세수(寅月歲首), 은나라는 축월세수(丑月歲首), 주나라는 자월세수(子月歲首)로 역의 시대별 다른 명칭과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주나라는 천지자연의 만물 중심을 하늘로 보아 역의 머리 패로 중천건(重天乾䷀)을 내세우고 은나라는 땅이 만물의 근본 모체가 된다고 보아 중지곤(重地坤䷁)을, 하나라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여 중산간(重山艮䷳)

을 역의 머리 꽤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도표로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분류	나라	역의 명칭	歲首	비고
인통人統	하夏	연산역連山易	인월세수寅月歲首· 인생어인人生於寅	사람중심의 사고
지통地統	은殷	귀장역歸藏易	축월세수丑月歲首· 지벽어축地關於丑	땅 중심의 사고
천통天統	주周	주역周易	자월세수子月歲首· 천개어자天開於子	하늘 중심의 사고

따라서 지금의 역이라면 당연히 주역을 일컫는다.

이때 주역의 주(周)는 그 뜻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

하나는 시대의 명칭이며 하나는 두루 혹은 널리라고 하는 개념(두루 周)이다. 따라서 그때의 주역이란 천지 만물의 모든 세상 이치에 두루 관여하는 책이라는 뜻이다.(한나라의 정현鄭玄)

한편 역(易)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변역(變易)이다.

모든 사물은 끊임없이 변하고 바뀐다. 봄이 왔는가 하면 여름이고 여름은 다시 가을을 거쳐 겨울로 바뀐다. 시간은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은 세상의 이치를 역은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를 하나의 부호로써 바꾸면 음(陰)과 양(陽)이고 수로써 표시하면 구(九)와 육(六)¹⁾이 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 나타내면 음양학 혹은 구(九)·육(六)학이 된다.

둘째 불역(不易)이다.

1) 십진법의 수리적인 체계 주역

주역은 천체 운행의 법칙을 음양의 부호로서 나타낸 십진법의 체계다.

그래서 가장 큰 홀수인 양(陽)을 구(九)로 나타내고 다 자란 음(陰)을 육(六)으로 표기한다. 이유는 역(易)이 다른 아닌 십진법의 수에 의존한 역법(曆法)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일(一)부터 오(五)까지는 형이상학적인 수가 되고 육(六)부터 십(十)까지는 형이하학적인 수가 되는데 다시 칠(七)과 구(九) 홀수는 소양(少陽)과 노양(老陽)이 되고 육(六)과 팔(八) 짝수는 노음(老陰)과 소음(少陰)의 사상(四象)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역의 일반적인 관례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쪽 기사전에서 확인하면 된다.

변화의 원리 및 변한다고 하는 그 이치는 항상 바뀌지 않는다. 세상이 변하고 바뀐다는 역의 의미는 하나의 정해진 법칙이 된다. 동시에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며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하는 오류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뀔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항상 바뀌지 않는 불역(不易)의 의미다.

셋째 쉽고 간단하다는 간이(簡易)다.(이간易簡 혹은 간이簡易)다.

세상의 진리는 쉽고 간단하다. 봄이 오면 양이 활동하고 가을이 되면 음이 점점 성해지기 시작하는 이치, 하늘이 주장하고 땅이 받아들여 세상의 만물을 전개하는 이치 그것은 어떤 계산 아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야말로 쉽고 간단한 이치다.

○ 삼황 시대 - 역(易)의 등장

중국의 역사서들은 중국 역사의 출발점을 대체로 수인씨(燧人氏)와 복희씨(伏羲氏) 신농씨(神農氏)로부터 잡는다. 흔히 말하는 삼황(三皇)시대다.

수인씨(燧人氏)는 나무를 엮어 움집을 만들고 자연적으로 익은 나무의 열매 등을 따먹으면서 짐승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다. 나무를 마찰시켜 불을 일으키는 지혜도 수인씨의 공덕이었다. 수인씨에서 수(燧)는 부싯돌이라는 뜻이다.

수인씨의 뒤를 이어 나타난 성인은 복희씨였다. 복희씨는 머리는 사람과 같았으나 몸은 뱀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천문을 우러러 보고 지리를 살펴 역의 기본 팔괘(八卦)²⁾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

2) 주역의 괘가 지닌 의미

괘(卦)는 천지자연의 이치를 겹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즉 천지인(天地人) 삼획괘로 이루어진 주역의 여덟 가지 음양(陰陽) 부호를 통해 천지자연의 변화하는 이치를 모조리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의미와 명칭 등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겠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그 여덟 가지를 도표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삼획괘	건(乾)	태(兌)	이(離)	진(震)	손(巽)	감(坎)	간(艮)	곤(坤)
부호	☰	☱	☲	☳	☴	☵	☶	☷

고 문자가 없던 시대에 새끼로 매듭을 엮어 의사소통을 꾀하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정치를 하였다. 또 역을 이용하여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중화리 重火離䷔) 활과 화살로 사냥을 해서 짐승고기를 먹었으며(화택규火澤睽䷥) 야생동물을 길들여 생활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택뢰수澤雷隨䷐)

그 후 사회는 모계 중심의 씨족사회를 이루었다. 인류사적으로 보면 이 무렵부터는 신석기 시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때 나타난 성인은 신농씨였다. 신농씨는 역의 과상을 응용하여 나무를 깎아서 쟁기와 보습을 만들고, 나무를 휘어서 가래를 만들었으며, 백성에게 밭을 갈아 살아가게 하는 농경사회를 정착시켰다.(풍뢰익風雷益䷩)

○ 복희의 과상에 말을 붙인 주나라의 문왕

주나라의 조상은 후직(后稷)이었다. 후직은 요임금과 순임금 때에 농사일을 관장하던 벼슬을 지낸 인물이었다.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을 무너뜨리고 황제가 된 무왕은 바로 그 후직의 16세 손이다.

그 가문은 고공단보 대에 이르러 기산이라는 산 밑을 연고지로 삶의 터전을 잡았다. 그의 큰 아들은 태백이고, 둘째 아들은 우중이며, 막내가 계력이었다. 계력이 창(뒷날의 문왕)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덕망이 있었다. 그래서 태백과 우중은 아버지인 고공단보가 장차 계력을 후계자로 삼아 나라의 통치권을 창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을 알아차리고 형나라 땅으로 옮겨가 왕위를 셋째인 계력에게 양보하였다. 고공단보가 세상을 떠나자 계력이 뒤를 이었으며 후직의 대통은 계력의 아들 창으로 이어졌다.

뒷날의 문왕인 계력의 아들 창은 당시 은나라의 임금이었던 제을(帝乙) 왕의 누이와 결혼을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제을 왕은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주왕의 아버지다. 주왕의 아버지 제을은 누이를 희창에게 시집보내고 그를 서백의 제후로 봉하였다. 서백 창은 덕망이 높아 나라 안의 사람들에게 어진 정치를 베풀었으므로 나라 안의 백성과 제후들로부터 신망을 한 몸에 받는 처지가 되었다.

당시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님이었던 주(紂)는 하나라의 걸왕(桀王) 못지않은 폭군의 이미지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주(紂)는 미녀 달기를 사랑하여 백성들에게 무겁게 세금을 매기고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재화와 보물을 녹대라 불리는 누각에 가득 채웠으며 곡식도 산처럼 쌓아두고 연회를 즐겼다. 거기에 정원을 크게 확장하고 많은 술로 연못을 만들었으며 고기를 숲처럼 걸어 놓고 남녀를 발가벗겨 뛰어다니게 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큰 잔치를 되풀이하였다. (이는 술로 못을 이루고, 고기로 숲을 이룬다는 뜻으로, 극히 호사스럽고 방탕한 술잔치'를 가리키는 주지육림(酒池肉林)의 고사성어가 생겨나게 된 배경의 기록이다.)

이에 백성들은 원한을 품었으며 제후들은 배반이 늘어났다.

그러나 주왕(紂王)은 포락의 형벌이라 불리는 끔찍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오히려 문왕(文王)을 유리옥(羑里獄)에 가두었다. 포락의 형벌이란 구리로 기둥을 만들어 그 위에 기름을 바르고 활활 타는 숯불 위에다 올려놓고, 죄인을 그 위로 건너게 하여 결국 미끄러져 불에 타 죽게 하는 형벌이었다. 또 포락의 형벌뿐이 아니었다. 기록에 의하면 주는 창(창)의 세력을 의심하여 창(창)의 친구인 악후와 구후의 살코기 젖을 서백(西伯)의 회창(희창)에게 전했다. 회창은 그 패륜 행위에 할 말을 잊고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느꼈다. 이를 지켜본 송후호는 주왕에게 그 사실을 고자질하여 주왕은 당장 회창을 유리옥(羑里獄)에 감금시켜 버렸다.

문왕은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주역의 64괘에 말을 붙였다.

그래서 계사전에서 말하는 역의 성립은 복희씨(伏羲氏)가 패를 만들고 신농씨가 64괘로 열거하였으며 문왕과 주공이 패와 효에 말을 붙이고, 거기에 공자가 전(傳) 십편(十篇)을 엮어 만들었다고 보는 시각이 세간의 일반적인 학설이다.

그 결과 주역의 경이라면

① 복희씨가 그린 그림 예컨대 하늘 건(乾☰), 연못 태(兌☱), 해 이(離☲), 우레 진(震☳), 바람 손(巽☴), 물 감(坎☵), 산 간(艮☶), 땅 곤(坤☷)의 기본 8괘와 이를 두 개씩 포개어 만든 64개의 괘상이다. 이는 천지자연의

모든 이치를 그 그림의 부호 속에 걸고 있다고 하여 명칭이 괘(卦)다.

② 앞의 모든 괘상에는 그 그림만의 고유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그 의미를 문왕과 주공은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글로써 나타낸다. 이른바 괘사와 효사다. 그러나 그와 같은 괘사와 효사 역시 일반사람들에게 접근이 쉽지 않다. 그래서 공자는 십익전(十翼傳)을 짓는다.

③ 공자의 십익전³⁾은 주역의 의리(義理)를 알기 쉽게 자세히 기술한 주

3) 십익전(十翼傳) 등의 역전(易傳)에 대하여

역전은 주역의 계사전 등 역에 관한 해설서 일체를 일컫는다. 7종 10편이다. 따라서 명칭이 십익전이다,

십익은 사람들에 따라서 달리 구분한다.

상단(上象)·하단(下象)·상상(上象)·하상(下象)·상계사(上繫辭)·하계사(下繫辭)·문언(文言)·설괘(說卦)·서괘(序卦)·잡괘(雜卦)로 10편이라 하고

혹은 단(彖)·대상(大象)·소상(小象)·건문언(乾文言)·곤문언(坤文言)·상계사(上繫辭)·하계사(下繫辭)·설괘(說卦)·서괘(序卦)·잡괘(雜卦) 10편이라고 하기도 하며

상단(上象)·하단(下象)·대상(大象)·소상(小象)·문언(文言)·상계사(上繫辭)·하계사(下繫辭)·설괘(說卦)·서괘(序卦)·잡괘(雜卦)로 10편을 삼기도 한다.

십익(十翼)의 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공자의 저작이라는데 동의한다. 이미 한나라 초에 주역의 원문과 동일한 경전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陸賈의 新語 변혹편에 근거한다. 거기에 보면 역에 이르길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그것은 쇠라도 자르듯——” 운운하여 이미 역전을 역이라고 일컫고 있다. 예기에도 ‘重地坤 六二의 움직임은 곧고도 방정하다’는 象傳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역전을 易이라고 일컫고 있다. 그밖에 동중서의 춘추번로 회남자의 무칭훈 등에서도 문언전이라 서괘전 등의 문구를 인용하면서 그 명칭을 역이라 일컬어 역전의 명칭이 이미 역경을 의미하는 역과 동일시하고 있다.

역에 관한 저술은 앞의 역전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편을 남겼다. 그래서 공자의 역전과 서로 구분하기 위하여 역위 건척도(乾鑿度)에서는 공자의 저술로 단정 짓는 7종 10편의 저술을 十翼이라고 일컫는 기록이 나온다. 그곳에 보면 “공자가 역을 점쳐서 旅卦를 얻어 잡념을 없애고 조용히 읽어 나가 나이 오십에 ‘십익’을 지었다.”고 하였다. 이 설이 뒷날의 경학자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져 계사전 등 역에 관한 저술을 십익이라고 일컫게 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翼이란 돕는다. 혹은 날개를 뜻하는 말로 개념이 傳과 다르지 않다.

어떤 학자는 이들 십익을 易대전(易大傳)이라고 부른다. 이는 육가의 요지

석서다.

○ 춘추시대에 활동한 공자와 주역

춘추 전국시대는 제자백가들이 일어나 활동하던 시기였다. 그 가운데 역의 십익전을 찬술했다고 말하는 공자가 있다. 공자는 이름이 구(丘), 자가 중니(仲尼)였다. 선조는 송나라 사람이었으나 송나라가 망하자 공자의 선조들은 노나라로 피난하여 노나라 사람이 되었다.

공자는 아버지가 흘(紇), 어머니가 안(顔)씨였다.

그는 자라나면서 제사 지내는 절차에 관한 예식과 예절을 행할 때의 동작 및 형식에 대해 흥내를 자주 내는 등 관심이 무척 유별났다. 또 자라서 노나라 귀족인 계손씨(季孫氏) 집안의 일을 맡아 다스리는 가신이 된

를 논한 사기의 기록 중에 나오는 사마담의 예를 본뜬 것으로 그 까닭은 아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것이다. 첫째는 역의 십익이 역의 전체적인 대의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뜻일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역에 관한 저술이 이들 십익의 내용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이다.

십익에 관한 문헌상의 기록은 대략 다음과 같다.

“공자가 눈물을 흘리며, 천명인지 운명인지? 봉황도 오지 않고 하수에서는 도서도 나오지 않으니, 슬프다! 하늘의 명이다.’ 하며, 한탄한 뒤에 뜻을 안정 시키고 읽기를 그만두시고, 50세에 이르러 십익을 연구하여 지었다.” (건축도)

“易의 6괘를 거듭하여 上·下篇을 썼고, 공자가 彖·象·繫辭·文言·序卦 등 10편을 만들었다.” (예문지)

“(비직이 역의) 10편에 밝았는데, 장구가 없으므로 다만 彖·象·繫辭 등 10편과 문언을 가지고 상하경의 뜻을 해설했다.” (비직전)

십익에 대한 성호의 견해

공자의 글이 처음에는 경 안에 편입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의 글로 있었고, 또한 책의 편수가 무거워 10편으로 나누되 계사 같은 것은 반드시 3~4편이 되어야 하므로, 彖·象 등과 합하여 10의 수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다만 비직전에 의하면 문언이란 것은 彖·象·繫辭를 통합한 이름인 듯하고, 예문지로 본다면 또한 따로 그 글이 있는 듯하니,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십익에 대한 명칭은 앞에서 밝힌 대로다. 다만 명칭에 관한 논란은 정현 이래로 의견이 분분하다.

적이 있었다. 그때 공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창고의 곡식을 관리할 때는 창고의 곡식이 항상 넘쳐났고 목축 일을 맡아 행했을 때는 가축의 번식과 성장이 눈에 띄도록 불어났다.

그는 점차 세상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노나라 정공에 의해서 중도라는 도시의 시장으로 발탁되었다. 그때 공자는 그곳의 정사를 잘 베풀어 불과 1년 만에 사방의 모든 지방에서 그의 정사를 본받고자 하는 일이 생겨났다. 그래서 그는 지금의 국가 일반 행정 장관직에 해당하는 사공으로 승진하게 되고 다시 국가의 사범을 책임지는 대사구의 자리에 발탁되기도 하였다.

그 뒤 그는 남방의 대국인 초나라로부터 초청을 받는 몸이 되었다. 그러나 초나라의 세력을 견제하던 진나라와 채나라가 공자 일행을 진채의 평원에 가둬 움직일 수 없게 된 적도 있었다. 이처럼 공자는 천하를 두루 다니며 자기의 사상과 경륜을 펼쳐보고자 애를 썼지만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깨닫고 현실정치에서 손을 놓았다. 그뒤 공자는 제자를 가르치는 한편 저술활동에 전념하였다. 이는 역사서인 춘추(春秋)를 간추리고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을 짚고 다듬어 세상의 풍속을 진작시키려는 일이었다. 그는 나이들어 주역(周易)을 특히 좋아했었음이 사기의 사마천 등에 전해온다. 그는 소가죽으로 만든 책의 표지가 세 번이나 닳아 손을 보아야 할만큼(위편삼절韋編三絕) 주역의 이치에 빠져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의 역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점술서였던 역의 사회적인 위치를 점 대신 점이 근거하는 이치에 바탕하여 덕을 중시하는 의리역의 철학서로서 그 기능을 바꾸어 놓았다.

역에 대한 그의 지론은 논어 속에 2편, 예기 속에 7건, 여씨 춘추에 1건이 있다. 이는 물론 역의 주석서에 해당하는 계사전 문언전 등을 제외한 자료다.

● 역의 어원에 대한 3가지 설

첫째, 석척설(蜥蜴說)이다.

역을 도마뱀을 나타내는 상형문자로 보는 입장이다. 중국의 고대인들은 도마뱀이 수시로 그 빛깔을 바꾸는 것처럼 바로 역이 그 변화의 의미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일월설(日月說)이다.

역을 해(이離☲)와 달(감坎☵)의 합성어로 해석하는 시각이다. 즉 일(日)은 양(陽) 월(月)은 음(陰)을 상징하는 측면에서 역(易)을 음양(陰陽) 소장(消長)에 관한 책으로 간주한다.

셋째, 자의설(字義說)이다.

역을 그 자체에 내포된 의미로 보아 해석하는 시각이다.

그 점에서 보면 한자의 물 수(水)는 감(坎☵)에서 비롯했다고 말할 수 있고 날 일(日)은 이(離☲)과 결부해 생각할 수도 있다.

- 참고로 역에 세 가지 뜻이 있다는 설은 처음 역위의 건작도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그 후 동한(東漢)의 정현, 당의 공영달 송명(宋明) 대의 의리(義理) 학파들을 거쳐 현대에 이르면서 그 설이 하나의 불문율처럼 수용되어 오고 있다.

● 연산(連山) 귀장(歸藏) 주역(周易)

주나라의 역 이전에 존재했었다는 연산과 귀장에 대해 손이양(孫詒讓)은 주역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⁴⁾

“연산과 귀장은 한서 예문지에 실려 있지 않다. 그런데 북당서초 예문부에서 환담이 신론에 있는 말을 인용하여 ‘여산(厲山 - 연산連山の 다른 이름)은 난대(蘭臺)에 간직하고 있고, 귀장 태복에 실려 있다.’고 하였다. 어람학부에서도 신론을 인용하여 ‘연산은 8만의 글귀로 되어 있고, 귀장은 4,300의 글귀로 되어 있다.’고 하였으니, 곧 한대에 실제로 이 두 역이 있었던 것이다. 한서는 7략(略)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이니, 가끔 기록하는 것을 빠뜨렸을 뿐이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손이양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예기

4) 이하 이 단락의 전체적인 참고문헌 - 고회민(高懷民)의 상수역학

예운의 주석에서 정현은 귀장(歸藏)이라는 책이 있었다고 말하므로 이들의 존재를 단정해서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전해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쉽사리 수긍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공자의 말을 통해 추정해보자. 공자는 하시(夏時)라는 역서(曆書)와 곤건(坤乾)이라는 음양 변화의 책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연산과 귀장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추정해볼 여지는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라의 예를 보기 위하여 그 후손의 나라인 기나라에 가서 살폈으나 연대가 이미 오래되어 증거가 거의 없었으며, 다만 하시(夏時)라는 일종의 역서(曆書)만을 얻었다. 나는 또 은나라의 예를 보기 위하여 그 후손의 나라인 송나라에 가서 살폈으나 불만한 것이 그리 많지 않았으며, 다만 坤乾이라는 음양 변화를 말하는 책만을 얻었다.”는 구절이다.

하시(夏時)라는 역서(曆書)와 건곤(坤乾)이라는 음양 변화의 책, 이는 역의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또 이글은 어디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을까? 분명히 그것은 논어의 팔일(八佾)편과 위령공편일 것이다. 그래서 이글의 결말도 논어에서 강조하는 예의 문제와 크게 빗나가지 않는다.

“내가 본 것은 곤건(坤乾)이라는 책 속에 예의 변화 발전의 도리를 말한 내용이고, 하시(夏時)라는 책 속에 예(禮)의 운용 절차를 기재한 것이다.”고 하였다. (禮記 예운)

즉 연산과 귀장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주역에 대한 관심이 아니다. 다만 이들 기록을 연산과 귀장이라는 역의 명칭과 연계시키는 사람은 다른 아닌 후대의 정현이다.

정현은 이곳에 대해 주석하기를 夏時는 하나라의 사계절에 대한 책이라고 했으며, 그 책이 보존된 것으로 小正이 있다고 말한다. 또 음양 변화에 관한 坤乾에 대해서는 은나라의 음양에 관한 책이니, 그 책이 보존된 것으로 귀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 기록을 여기서 역사적인 사실로 간주하여 받아들

이더라도 그 내용을 주역과 연계시켜 이해하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선진 시대에 주역 이외에 다른 형태의 점치는 책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구절은 좌전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음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연산과 귀장이라는 명칭의 점서가 아니었을까 추정해볼 여지가 있게 된다.

주례(周禮) 대복(大卜)에 “대복은 세 가지 역을 맡아서 처리하였다. 첫째는 연산이고, 둘째는 귀장이고, 셋째는 주역이다. 그 바른 패는 모두 여덟 개이고, 겹친 패는 모두 예순네 개다.”고 말하고 있다.

서인(筮人)에도 “세 가지 역을 맡아서 처리하였다. 첫째는 연산이고, 둘째는 귀장이고, 셋째는 주역이다.”고 하고 있다.

정현은 두자춘의 말을 인용하여 “연산은 복희의 역이고, 귀장은 황제의 역이다.”고 풀이한다. 가공언(賈公彦)은 해석에서 정지(鄭志)의 말을 인용하여 “근래의 선비들은 모두 연산은 하나라의 역, 귀장은 은나라의 역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주역 공영달의 주석에 정현의 역찬과 역론의 말을 인용하여 “하나라의 역을 연산이라고 하고, 은나라의 역을 귀장이라고 하고, 주나라의 역을 주역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공영달은 또 “세보의 여러 책에서 신농의 역은 연산씨라고 하였고, 다른 말로는 열산씨라고 하였다. 황제의 역은 또 귀장이라고 하였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역사적인 실체에 해당하는지 하더라도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앞의 신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분량부터 애매하기 짝이 없다. 그곳에서는 연산이 8만 여 글귀이고 귀장이 4300여 글귀였다고 말하는데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연산의 경우 주석이 덧붙여진 형태이고, 귀장은 본문만을 나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겠지만 유통 시기로 보아 연산이 귀장에 앞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마저 많은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

● 역은 점서(占書)일까? 의리(義理)서일까?⁵⁾

우리는 그 점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역학의 전체적인 발전 양상을 먼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역의 연구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문헌의 성격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보아 상수역과 의리역의 흐름이다. 학자에 따라서 역학 발전의 내용을 어떻게 구분짓든 대체로 理, 象, 數의 관점에서 그 연구의 틀이 잡혀 있으며 그밖의 과학역과 문헌의 고증 등은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진시황의 분서갱유 문제를 우선 떠올려보자.

진시황의 분서갱유는 상수학의 입장에서 역을 수용하고자 했을 뿐 공자에 의해서 틀이 잡힌 의리역의 관점은 거부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진시황이 즉위하고 34년째 되던 기원전 213년의 일이었다.

천하통일 9년째를 기념하는 축하 잔치를 가지면서 그 자리의 박사 주청신과 순우월 사이에는 진시황의 치적과 덕에 대해 서로 크게 엇갈리는 논쟁이 벌어졌다. 여기에 대해 진시황은 승상 이사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승상은 다음과 같은 글을 위로 올렸다.

오제는 되풀이되지 않았고 삼대는 이어받지 않았으며 각자대로 다스렸습니다. 그것은 정치의 내용이 반대되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중략-

여러 유학자들이 오늘을 스승으로 삼지 않고 옛 것만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를 잘못되었다고 말함으로서 백성들의 판단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중략

진나라의 역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모두 불사르도록 사관에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시나 서에 대해 말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옛 것으로 오늘날을 비방하는 자는 삼족을 멸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적발하지 않는 관리도 같은 죄에 처하십시오. 명령을 내린 지 30일 이후에도 관련 서

5) 참고문헌 - 고회민(高懷民)의 상수역학

적을 불태우지 않는 사람은 얼굴에 먹물을 떠넣어 장성 쌓는 일을 시키십시오. 다만 없애서는 안 될 것은 의약, 복서, 종수에 관한 것입니다.

승상 이사의 이와 같은 건의는 진시황에 의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詩書가 불타고 당시 중국의 선진 백가 사상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주역은 점치는 책 즉 복서로 분류되어 살아남았다. 이는 묘한 역설이었다. 역의 십익에 나타난 유가 사상과 백성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진시황의 분서갱유가 정작 불사르고 통제해야 하는 공자 사상의 원천인 역의 경문과 전에 대해서는 터럭 하나 건드리지 않고 살아남게 한 것이다. 곧 역의 의리역은 거부하면서도 역의 상수적인 측면 즉 복서의 기능은 말살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분명한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이(理)와 상(象) 수(數) 중에서 상(象)과 수(數)를 취하고 의리(義理)를 버린 결과다.

참고로 이때 불타버린 육경의 판본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까지 아직 남아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소개한다.

그러나 공자는 역의 기본 취지에 충실하자고 하면 역을 매개로 세상 일에 대해 점을 쳐볼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 공자에 의하면 점에 있어서는 그 점괘에 상응하는 덕이 뒤따라야만 한다고 본다.

“점을 할 것도 없을 만큼 (덕이 항상해야 한다는 말은) 정말 틀림이 없다.”(논어 자로)

이는 진시황의 분서갱유와 달리 의리를 취하고 상과 수를 소홀하게 여기는 입장에서 생겨난 역의 수용이다.

그렇다면 그때 말하는 이(理)와 상(象) 수(數)의 개념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며 서로 다른 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는 역의 개념을 우리가 정리하고자 할 때 절대적인 기초 자료가 된다.

한서 예문지의 도서 분류에 의하면 역경과 관련된 저작물은 모두 역가류(曆家) 류에 포함을 시키고 점을 치는 시귀(蓍龜)는 천문 역보 오행 잡점 형법과 함께 수술가(數術家) 류로 구분해 등재했다. 즉 분서갱유의 대상이었던 유가역의 운명을 점치는 측면의 술수류 주역과 나누어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좋은 단서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역은 당시의 사상과 지식인의 사고를 통제하려던 진시황의 의도로부터 양쪽 모두 결정적인 화를 피해 살아남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다.

이는 당시의 명목상 정통을 자처하던 유가 역학가들이 대부분 서술에 정통했던 까닭이기도 한다. 의약 복서 중수에 관한 책으로 서술가들의 주역이 분서갱유의 참화로부터 비호를 받으면서 주역의 유가적 해설이 곁들인 사상서도 동시에 온전했기 때문이다.

현재 주역의 체재를 이루고 있는 경과 전은 당시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나누어져 시중에 유포되고 있었다. 여기서 경이란 점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주역의 괘상, 괘사, 효사를 가리키며 전이란 공자에 의해서 첨가되었다는 괘상 괘사 효사의 해설서인 십익전을 뜻한다. 애초에 역경은 상경과 하경, 십익전 등 열두 편으로 각기 나누어져 별도로 유통되고 있었다. 그것이 서한 말 비직에 의해서 최초로 결합되었으며, 다시 동한의 정현과 위의 왕필에 의해서 주석을 달면서 오늘날과 같은 역경 본이 시작되었다.

● 고문헌 상에 나타난 역의 전승 문제⁶⁾

크게 보아 역의 계보는 서한 이전과 서한 및 동한으로 그 시기를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중 서한 이전은 사기의 중니제자열전에 실린 다음의 기록이다.

"상구는 노나라 사람이다. 자는 진목이며 공자보다 29년 뒤에 태어났다. 공자는 역을 상구에게 전했고, 상구는 간비에게 간비는 강동사람 교자에게 전했으며, 교자는 연나라 사람 주수에게 전했고, 주수는 순우 출신의 광우에게 전했다. 광우는 제나라 출신의 전하에게 전했고, 전하는 동무사람 왕동에게 전했다. 왕동은 치천 출신의 양하에게 전했는데, 양하는 원삭에 역의 연구로 한중대부가 되었다."

또 다른 하나의 기록은 유림열전이다.

"노나라의 상구는 공자로부터 역을 전수했다. 공자가 죽고 나자 상구

6) 참고문헌 - 고회민(高懷民)의 상수역학

이후 여섯 번 전해져 제나라 사람 전하에게 이르렀다. 그 때쯤 한나라가 성립되었다.”

다시 사기에 근거하여 쓰여졌을 것으로 여겨지는 한서 유림전에서는 기록이 사기와 조금 다르면서도 내용은 좀더 상세하다.

“한대 성립 이후 전하는 제나라로부터 두릉(杜陵)으로 이주하고 스스로 杜田生이라 불렀다. 그는 동무 사람인 王同과 낙양 사람인 周王孫 丁寬 제의 服生에게 전했다. 이들은 모두 역전 여러 편을 지었다. 왕동은 또 叔元이라는 자를 가진 치천의 양하에게 전했는데, 양하는 원광 연간에 태중 대부가 되었다. 제의 卽墨成은 城陽相이 되었고, 廣川의 孟但은 태자문대부가 되었다. 魯의 周霸, 莒의 衡胡, 임치의 主父偃 등은 모두 역으로 높은 관리가 되었다. 역을 말하는 자는 본래 전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각 기록상에 다소의 이견은 있지만 공자로부터 전하 이전은 서한 이전의 시대이고, 전하 이후는 비로소 역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한역의 시대에 해당된다. 즉 이는 공자의 역을 전승한 전하의 존재가 역의 전승에 있어서 특별히 기억되어야 할 인물의 한 사람으로 손꼽아져야 함을 알 수 있게 하는 기록이다.

전하의 제자로는 왕동, 주왕손, 정관, 복생 등 네 사람이 특히 눈에 띈다. 그중 전하의 역을 계승 유포시킨 전승자는 양나라 사람 정관이다. 정관은 탕(湯)의 전왕손에게 그 학문을 전하고, 다시 시수 맹희 양구하에게 전해지면서 전하의 역은 더욱 크게 일어났다. 시기적으로도 이때는 한대 유가역의 전성기로 역이 가장 흥성하던 때이기도 했다.

전하와 함께 역의 전승을 이어오던 계열의 또 하나는 한영과 비직 그리고 고상이었다.

한영은 시로도 매우 이름을 떨쳤으며 문제 때 시경박사 되었다. 나이는 전하보다는 적고 정관보다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며 자하역전을 한영의 작품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계보는 밝혀지지 않았다.(고희민) 어쨌든 이들 두 계열은 전통적인 유가역의 학풍에 속했다. 반면 이들은 당시 한대 역학의 주류는 아니었다. 한대 역학의 주류는 맹희 초연수 경방

등의 상수 역학이었다. 물론 이들도 그 맥은 앞의 전하였다.

다음은 비직이다. 이는 초연수나 경방과 다른 또 하나의 상수 역학가다. 그의 생존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마국한에 의하면 왕망 연간의 사람일 것으로 추정한다. 비직에 관한 한서 예문지의 기록을 참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향이 중고문으로 시수 맹희 양구하의 역을 교정해보니 無垢나 悔亡 등의 문구가 빠져 있었다. 그러나 비직의 경만은 고문과 같았다."

비직의 역은 동한 중엽 이후 크게 세간에 성행하였다. 그것은 비직의 경이 옛 경의 뜻과 같다는 유향의 판단과, 공자의 전으로 경을 해석하는 비직의 역해석 방법에 기인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비직의 이와 같은 역해석 방법의 특징은 뒷날 정현과 왕필 등에게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까지, 역의 경문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공자의 십익전에 의존하는 경향의 일관성이 그때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고상이다. 고상은 비직과 함께 학관이 설치되어 다루어지지 못했고 다만 민간에서만 유행을 하였다. 거기에 고상은 자기의 아들 고강과 무장영에게 전했는데 영향력이 뒷날까지 계승되어 뻗어나가지 못했다.

여기서 유가역과 상수역의 서로 다른 차이점은 경전 해석의 방법이었다. 유가역과 달리 맹희 초연수 경방 고상의 4대 상수학과는 점험에 의한 재이해석을 위주로 역을 받아들였고, 유가역은 공자의 십익에 근거한 의리로써 인도의 여러 이치를 미루어 밝히는 관점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비직의 역은 상수학의 입장을 받아들여 점험과 재이를 말하면서도 십익의 의리를 함께 다루는 포괄적인 역 해석의 방법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 역의 기본 범주 상(象)과 수(數)⁷⁾와 뜻[義理]

7) 천체 운행의 도수와 역의 십진법

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지구와 달 등 천지 운행의 도수를 수리적인 법칙으로 나타내면 그것이 바로 역의 괘상(卦象)으로 구체화 되는 십진법의 체계다.

왜냐하면 십진법이 펼쳐지는 천지 대연의 수 50이야말로 사상(四象)의 모든 경우에 한결같이 적용되어 나타나는 수의 단위가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가

태극 마크를 떠올리게 되어 있는 일 년 주기의 해그림자 변화를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땅 위에 8자 막대를 세워 해그림자를 측정한다면 소성괘에서는 밑변이 3 높이가 4 대각선이 5라야만 하고 대성괘에서는 밑변이 6 높이가 8 대각선이 10이라야 한다.

그렇게 되면 10진법의 단위 안에서 천지 대연의 수 50을 충족시키는 삼각형의 모습은 모두 8개가 되며 그 삼각형을 포함하고 있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도 또한 7이 되어 전체적인 변화의 단위 역시 천지 대연의 수 50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늘의 사방 별자리로 상(象)을 내거는 단위도 기본은 반드시 칠수(七宿)다.

$7 \times 7 = 49$ 즉 기본 태극의 수 하나를 제외한 49는 천지 대연의 수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상의 전개 양상이 바로 여덟 개의 삼각형이 속해 있는 팔괘(八卦)의 조합인 것이다.

만면 이들 천지 대연(大衍)의 수는 둘이 하나의 짝으로 합해져야 만물의 온수 100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소양(少陽)과 소음(少陰), 태양(太陽)과 태음(太陰)을 하나의 온전한 짝으로 여기게 되는 이유가 생겨난다. 그리고 그 변화를 구궁도(九宮圖) 상의 10진법 체계로 단순화시켜 보더라도 그 결론은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된다. 즉 1이 9와 합하고 3과 7, 2와 8, 4와 6이 합해서 10을 이루는 구궁도의 특징은 바로 중앙 태극의 수 5를 매개로 하는 사상(四象)의 수이고, 팔괘(八卦)의 작용을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도식인 셈이다.

그래서 계사전(9장)에서는 하늘의 수가 다섯, 땅의 수가 다섯이니 이것이 바로 만물의 변화를 이루며 귀신을 부리는 수의 전부가 된다고 적으면서 그들 수가 다시 삼오(三五)로써 변하며 서로 섞이고 어울려 변화에 통하게 되는 최소 단위를 이룬다고 하였다. 이것은 다시 말해 역이 천체 운행의 도수를 십진법으로 단순화시켜 그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

삼각형 하나의 대각선 제곱 25는 십진법의 기본 단위가 되는 1부터 10까지의 조합 가운데서 하늘의 수들인 $1 \cdot 3 \cdot 5 \cdot 7 \cdot 9$ 의 합을 반영한 결과다. 계사전 구덕(九德) 삼진괘(三陳卦)를 구궁도(九宮圖)로 나열하여 卍字로 연결시키면 그들 수의 합이 각각 25가 되는 이유도 그 까닭은 여기에 있다.

따라서 360도에 해당하는 천체 운행의 변화를 십진법으로 표기한다면 괘의 범주는 삼획괘(三劃卦)를 본질로 하는 8괘가 기본이 되고 100을 단위로 하는 온수로 볼 때는 육획괘(六劃卦)를 본질로 하는 64괘가 필연이다.

태양(太陽)의 수 36은 십진법의 단위 가운데 가장 큰 하늘의 수 9가 사계절

○ 수(數)는 위의 주석에 밝힌 대로이고, 상(象)은 음양(陰陽)의 부호가 조합된 주역의 괘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의리(義理)란 주역의 괘상에 포함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법칙을 의미한다.

실제로 주역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상의 일정한 법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주역을 배우는 사람은 그 법칙에 입각하여 세상의 눈을 정리하고자 노력해야 함을 전제로 주역의 해석을 시도한다. 이것이 의리(義理)적인 입장의 역 해석이다.

이와 같은 방법의 시작은 두말할 바 없이 공자의 심익전이다. 그러나 의리를 말함에 있어서도 그 흐름은 황제를 첫머리에 내세우고 노자의 관점에서 역을 해석한 엄군평, 양웅, 위백양 등이 있고 비직의 고문역에 입각, 공자의 입장에 충실하려는 마응, 정현, 순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주역집해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象)은 사물의 이치를 형상으로 본뜬다고 보는 본받을 상(像)의 뜻이고 수(數)는 역으로 점을 침에 있어서 만물

로 운행한 결과이니 이때 9와 짝이 되어 있는 수는 바로 태음(太陰)의 수 6이다. 소양의 수 7과 소음의 수 8도 이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서로 짝이 되어 온수를 이루는 9와 6, 7과 8의 합은 각각 15가 되어 이것도 십진법에 의존한 주역 계사전의 삼오이변(參伍以變)이다.

9+6=15(태양(太陽)과 태음(太陰)의 합)

7+8=15(소양(少陽)과 소음(少陰)의 합)

1+2+3+4+5+6+7+8=36(전체 8괘의 총합 즉 형이상학적인 형태의 양기가 지극하게 펼쳐졌을 때의 합)

4×9=36은 양의 만수로 사계절이 운행했을 때 생겨나는 수의 총합이다.

땅 위에 규표(圭表)를 세워 그림자를 측정했을 때 생겨나는 천체 운행의 도수가 십진법의 체계에서 8괘로 정리되었듯이 유독 십진법의 단위에서 괘상이 여덟이 되는 까닭도 따지고 보면 십진법의 체계라는 점에서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즉 십진법의 기본 단위 가운데 역의 괘상으로 나타난 1부터 8까지 낱알의 수를 더하면 합이 36이 되는데 바로 그 의미는 태양의 수 9로 4계절에 나타나는 십진법의 수리적인 작용과도 일치하는 수가 되며 가로가 삼(三) 세로가 사(四), 대각선의 길이가 오(五)인 직각 삼각형에 해당하는 수의 조합이 여덟 개로서 일년의 변화를 대신한다는 원리다.

의 이치 속에 깃들여 있는 수리적인 측면의 법칙성이 강조된 결과다. 설괘전에 보면 “신명을 그윽히 도와서 시초품을 이용하여 점치는 법을 만들고 하늘을 1, 3, 5의 세 수로 하고 땅을 2, 4의 양 수로 하여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단순화시키면 음(陰)과 양(陽)의 부호가 조합된 기본 8괘 및 여섯 획의 대성괘(大成卦)를 상(象)이라고 할 수 있고 그때의 괘상은 일정한 형태의 수리적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점을 치는 1에서부터 10까지의 수로 대체하여 생각할 수가 있다.

따라서 상수는 자연의 원리를 역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그 원리를 나타내는 일정한 부호와 수리적인 법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상수학 혹은 상수학과는 형성은 한나라 시대에 맹희 초공 등에 의하여 괘기설의 이론들이 갖추어지고 경방과 그의 제자들에 의하여 발전해나가 괘기론으로 완성을 본다.⁸⁾ 특히 경방은 역학의 내용을 괘기설에 의존 8궁 오행 납갑 등의 설로 역을 해석 한역 상수학과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천지자연의 변화 법칙을 주역 괘상의 상하 음양의 수와 기본 괘상으로 천지 만물의 길흉을 해석할 수 있다고 여겨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역이란 상이고 효란 (만물의 이치를) 본받음이다. 성인이 우러러 살피고 굽어 보아서 천지 일월 등의 만물을 괘로서 본받으니 그것에 순종하면 화평하고 거스르면 어지럽게 된다. 무릇 만물의 이치는 미세하여 이루 다 궁리할 수가 없고 깊고 아득하여 이루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시초를 통하여 효를 굿고 천지 만물의 실상을 64괘 384효로 정하면 6효에 따르는 세상의 길흉과 9,6,7,8의 수와 안팎 및 승(承) 승(乘)의 象을 살필 수가 있게 된다.

한편 이들 상수학(象數學)의 흐름은 이 책의 저자인 당대의 이정조에 의해서 주역집해로 그 저술들이 편집되고 송나라에 들어 진단 유목 이지재 및 주진 채원정 등의 역학에 영향을 미치면서 의리과 역학과 대립하는 하나의 역학 사조를 형성한다. 우리가 역을 이해하는 길잡이로 채택한 지

8) 주역철학사(예문서원)

금의 주역집해는 바로 앞의 이정조가 저술한 그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은 여러 가지 점에서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다. 우선 괘변의 시각이 그렇다. 또 우변이 근거로 삼는 괘변은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어서 뒷날의 학자들은 그 주장을 따르지 않는다. 그럼 왜 이 책을 번역했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다. 필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책이야말로 그 어떤 해설서보다도 역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주역의 괘와 효사에 함축된 역사적인 배경까지 망라하고 있으며 괘사와 효사에 관련된 옛사람들의 문화와 풍속을 소상하게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터무니 없게 여겨지는 부분도 한 번쯤 되짚어보면 취할만한 주장이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은 본문 내용 가운데서 주석 형태로 다루고자 한다.

제 일(一) 중천건(重天乾䷀)

乾, 元, 亨, 利, 貞⁹⁾.

9) 한국의 사상과 문화 및 정치철학의 본질 주역

사람의 생활 양식은 하나의 상징체계를 갖는다. 그 증거로는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나 꽃 문화재 등을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주역의 첫머리를 여는 이 구절에 대한 이해는 조선 오백 년의 문화재에 주목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특히 수도 서울에 배치된 사대문 중심의 궁궐 명칭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음은 동국여지승람의 인용이다.

「한양의 성곽(京城)은 태조 5년 돌로 축조하였고, 세종 4년에 고쳐서 수리를 했다. 둘레는 9천 9백 75보 높이는 40척 2촌이다. 성곽을 출입하는 통로로 여덟 개의 문을 세웠는데, 정남(正南)이 숭례문(崇禮門)이고 정북(正北)은 숙청문(肅淸門)이고 정동(正東)은 흥인문(興仁門) 정서(正西)는 돈의문(敦義門)이었다. 동북(東北)은 혜화문(惠化門 - 처음 명칭은 홍화문이었다), 서북(西北)은 창의(彰義)며, 동남(東南)은 광희(光熙)요, 서남(西南)은 소덕(昭德)이었다.

경성 복판에 있는 궁성도 둘레 1천 8백 13보에 높이 21척 1촌의 성을 쌓고 경성의 사대문과 마찬가지로 남을 광화(光化 - 정문正門), 북(北)을 신무(神武), 동(東)을 건춘(建春) 서(西)를 영추(迎秋)라 하였다.」

정도전의 해설에 따르면 “천자와 제후의 형세는 비록 차이는 있으나 남쪽을 향해 다스리는 이치는 모두가 하나이다. 고전에 따르면 천자의 문을 단문(端門)이라 하였는데, 그 단(端)은 곧 정(正)이다. 지금 광화(光化) 즉 오문(午門)을 일컬어 정문이라 하였으니 명령과 정사에 따른 가르침(政敎)이 모두 이문을 통해 나오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핀 뒤에 말이 나오므로 거짓 비방하고 잘못된 말이 나오지 않고, 거짓 속임수가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아래에서 올리는 의견과 보고는 반드시 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니 이미 자세히 살핀 뒤에 들어오므로 사가 되고 치우침이 스스로 나올 수가 없고, 그 공적은 헛되지가 않다. 이 문을 닫아서는 괴이한 말을 하는 부정한 백성을 거절하고, 이 문을 열어서는 사방의 어진 이를 오게 할 것이니, 이것이 모두 정(正)의 큰 덕이다.” 고 하였다.

무슨 뜻일까?

경성의 명칭인 숭례(崇禮)는 예(禮)를 숭상한다는 뜻이니 중천건괘(重天乾卦)에서 말하는 하늘의 형통한(亨)덕이다. 정북의 속청문(肅淸門)은 후대에 속정문(肅靜門)으로 고쳐 불리기도 했으니 만물이 감추어져 고요하고 맑은 하늘괘의 곧은 정덕(貞德)이다. 정동의 흥인문(興仁門)은 봄이 되어 생겨나는 만물의 시작이니 중천건괘에서 말하는 하늘이 세상을 펼쳐 보이는 어진 원덕(元德)이다. 정서는 돈의문(敦義門)이니 가을이 되어 마땅한 이치로 거두어지는 하늘의 이로운 덕으로 만물이 결실을 맺는 이덕(利德)이다. 경성의 명칭은 동서남북이 그대로 하늘의 원형이정(元亨利貞)한 덕을 상징하는 의미체계다. 궁성도 마찬가지다. 남쪽의 광화(光化)는 그곳이 경성의 숭례(崇禮)와 통한다. 방위로는 남쪽에 속하고 남쪽은 역의 후천 팔괘로 보아 이방(離方)이다. 이(離)는 세상의 이치에 밝은 과상이고 양의 기운이 왕성한 하지(夏至) 혹은 오시(午時)의 때다. 주례에서도 천자가 나라를 다스림에 북쪽에 위치하여 남쪽을 바라보고 정치를 행한다고 했으니 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가 세상의 근본 이치에 밝은 안목을 갖추고, 세상의 온 백성을 이롭게 하자는데 뜻이 있었다. 북쪽의 신무(神武) 동쪽의 건춘(建春), 서쪽의 영추(迎秋) 등도 예외가 아니다. 역의 원형이정(元亨利貞)을 방위로 나누어 보면 동서남북(東西南北)이 되고, 계절로 분류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며, 색깔로 구분하면 원덕(元德)은 푸른색의 청룡(靑龍), 형덕(亨德)은 붉은 색의 주작(朱雀), 이덕(利德)은 서리가 내리는 흰색의 백호(白虎), 정덕(貞德)은 물의 기운만이 왕성한 검은 색의 현무(玄武)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들 내용을 도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아진다.

중천건괘의 네가지 덕	元	亨	利	貞
방위	東	南	西	北

색깔	靑色	赤色	白色	黑色
인간의 덕성	仁	禮	義	智
만물의 생성	生	長	收	藏
경성의 사대문 명칭	홍인문	승례문	돈의문	숙청문
궁성의 사대문 명칭	建春	光化	迎秋	神武

여기에서 우리는 조선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주역의 중천건괘 원형이정의 이치를 정치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었음을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역에서 말하는 원형이정(元亨利貞)의 개념은 뜻이 무엇일까?

공자의 해설을 참고해 보자.

원(元)이란 선(善)의 으뜸이다. 형(亨)이란 하늘의 이치에 의한 아름다움의 모임이다. 이로우[利]]란 모든 사물이 하늘의 마땅한 이치를 얻어 이로운 모습이다. 정(貞)이란 하늘 이치의 올바른 덕이니 모든 일을 주관하는 근간이다.

사람은 어진 덕을 몸에 지녀야 남의 어른이 될 수가 있으며, 마땅한 이치에 모여 통하는 아름다움을 얻어야 예에 합한다고 할 수 있으며, 만물을 이롭게 할 수 있어야 족히 마땅하다고 할 수 있으며, 올바른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 굳게 지킬 수 있어야 일의 근간이 된다고 하였다.[文言傳]

조선의 정치는 바로 이와 같은 하늘의 거룩한 덕으로서 백성을 이롭게 하고 만물을 하늘의 이치로 편안하게 하며, 그 성스러운 덕으로 이 땅에 하늘의 법도가 행해지기를 바라는 영원의 결과였다.

따라서 나라의 임금이 정치에서 물러나 휴식을 취할 때조차도 생각은 항상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하늘의 덕에 있어야 했음을 환취정의 기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김종직은 그 기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회에서 물러 나와 맑고 조용한 여가에 가끔 발길을 뚫어 환취정에 오르실 제, 법궁의 주변 의장은 일체 물리치고 가벼운 옷을 입고, 광무의 두건을 비스듬히 하여 정신을 유쾌하게 하고 생각을 맑히어 도와 더불어 합치한다. 더구나 봄기운이 화창하여 초목이 무성할 때를 당하면, 건곤(乾坤)이 만물을 생육하는 어진 덕(仁)을 느껴서 어떻게 하여 고달프고 병든 이와 홀아비와 과부들이 굶주림이 없게 하며, 훈훈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 뜨거운 별이 허공에 올 때를 당하면, 순임금의 백성을 위하던 오현금의 곡조를 읊조리며, 이 맑은 이 골짜기에서 시원한 그늘을 사방에 고루 베풀어줄까 하고, 누른 나뭇잎이 떨어지는 절후에 온갖 열매가 성숙할 때를 당하면 내 백성들의 1/10의 세금을 제도에 지나쳐서는 안 되겠구나 하시고, 구슬 가루로 쏟아져 찬 기운이 갓옷에 스며들면 내 백성들은 손발이 얼어 터지고 주리니, 다시 부역으로 수고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사시의 모든 경치를 임금은 모조리 취하여 정치를 내고 어진 덕을 베푸는 자료로 삼고자 한다.” 라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조상들은 직무에 나가서는 물론 쉴 때조차도 오직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고자 하는 뜻으로 살아야 한다고 믿었으니 그것이 그대로 우리 주변의 문화재와 전통 건축물 속에 치밀하게 반영되고 있는 주역의 근본 이치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위해 신하들을 맞이하는 근정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경의 구절을 인용하여 어떤 것이 세상과 국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치는 통치자의 자세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기도 한다.

“서경에 이르기를 ‘걱정이 없을 때를 경계하여 법도를 잃지 말라.’ 하였고 또 ‘안일하고 탐욕하지 않음은 나라를 가진 자의 도리이니, 하루 이틀 모든 일에 조심하고 경계하라. 모든 관직을 비우지 말라. 하늘의 할 일을 사람이 대신하느니라.’ 하였으니, 이것이 옛 순임금과 우임금의 부지런한 바였다. 또 서경에, ‘아침에서 해가 기울도록 밥 먹을 여가가 없었고, 만민을 모두 화목하게 하였다.’ 고 하였으니 이것은 문왕의 부지런 했던 바.”

라고 하여 근정전(勤政殿)의 명칭을 부지런한 근(勤)과 다스릴 정(政)으로 일컬었는지 기문에서는 밝히고 있다. 근정전은 경복궁에 딸려 있으니 남쪽이 근정전이고, 또 그 남쪽이 홍례문이며, 동쪽은 일화문이고 서쪽은 월화문이었다. 따라서 이들 명칭들도 주역에 근거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근정은 하늘이 세상을 쉴 새 없이 이롭게 하는 뜻을 본받고 있다면, 홍례 및 일화 월화 등은 주역의 후천 팔괘 배치도를 염두에 둔 명칭에 해당한다.

얼마나 치밀하고 아름다운 우리 조상들의 통치이념인가. 따라서 우리나라의 풍물을 바라보는 외국 사신들의 기록도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는 조선부에 나타난 동월의 기록이다.

“파주에 멈추어 멀리 한성을 바라보니, 아름다운 기운이 높이 오른다. 이에 벽제를 지나고 다시 홍제(弘濟-관의 이름)에 오르면 여기가 왕경으로서 동쪽에 우뚝 솟았으니, 높고 높은 삼각산으로서 자리를 정하였고, 푸르고 푸른 소나무들로 산하가 덮여있다. 북으로 깎아지른 낭떠러지의 형세를 벌여 놓았으니 어찌 그 장관이 천군만을 제압할 뿐이라. 서쪽으로 한 관문을 바라보면 그 길은 단지 한 기마를 용납할 만하다. 산이 성 밖을 둘러싸매 봉이 날아오르는 듯, 모래가 소나무 뿌리를 쌓았으며 하얗게 쌓인 눈이 처음 개었다. 모화관은 곤방산록에 세워졌고, 숭례문은 정히 이방에 해당한다.”

고 하였다. 곤방은 서남방이고 이방은 주역에서 말하는 남쪽의 방위다. 해가 뜨거워 양 기운이 성하듯 만물이 무성하고 하늘의 이치에 밝아 형통한 덕으로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방위다.

한편 경회루의 명칭에서는 직접 중천건괘 구오의 효사를 결부시켜 설명하는

重天乾卦 (위도 하늘☰ 아래도 하늘☰의 궤상이다.)

건(乾☰)은 선하고 형통하고 이롭고 곧으리라¹⁰⁾.

기록도 찾을 수 있다. 경회루는 역시 나라를 다스리는 궁전에 속하니 사정전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누의 둘레로 못을 만들었는데, 못은 깊고 넓으며, 연꽃을 심었고 그 가운데 두개의 섬을 두었다. 하륜의 기문에 보면 경회루를 중건한 내력을 먼저 적고 나라의 정치를 언급하는 경회의 뜻에서 다루는 내용이 역시 주역이다.

“--- 경회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가 덕으로써 만나는 것입니다. 만일 중천건(重天乾☰) 구오(九五)에서 그 큰 덕으로써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만일 건(乾☰)의 구오(九五)에서 그 큰 덕으로서 구이(九二)의 여질게 보필하는 덕을 만나서 뜻이 같고 기운이 합하여 그 도를 행하게 되면, 여러 어진 이들이 함께 앞으로 나와 국가가 창성하고 빛날 것이니 이른바 구름이 용을 따르고 바람이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중략 다만 누를 일으켜 회복하는 것이 나라를 경륜하는 것과 같으니 기운 것은 바로잡고, 위태로운 것은 편안하게 하는 것은 선세의 업을 보전함이요, 흙을 쌓되 튼튼히 하고 땅을 깊이 파서 습기를 없애는 것은 큰 기업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요, 들보와 마룻대, 기둥과 주춧돌을 웅장하게 함은, 무거운 것을 지탱하되 약해서는 안되는 것이요, 대공과 지도리와 설주가 모두 갖추어짐은 작은 재목이 큰 소임을 맡을 수 없는 것이요, 시원하게 추녀 끝을 트이게 함은 사방으로 보고 들어 총명을 하는 것이요, 높은 뜰에 사닥다리가 얹하니 그것은 등급의 차별이요, 밑으로 내려다 보면 반드시 두려우니, 그것은 경외를 가지는 것이요, 멀리 보아 빠뜨리지 않음은 만물을 포용하는 이치를 숭상하는 것이다. 중략 진실로 오르고 내릴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서 행하면 이 누의 유익함이 진실로 적지 않을 것.”

이라고 하였다. 만물을 내는 하늘의 이치, 만물을 수용하는 땅의 덕, 하늘을 우러러 천문을 살피고 땅을 굽어보아 지리를 살피되 가까이서는 사람의 몸에서 취하고 멀리서는 만물에서 취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었다는 역의 도리는 이처럼 우리 문화재의 작은 누정에까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왜 송유정책을 나라의 근본이념으로 삼고자 했는지,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역의 이치에 눈을 떠야 하는지 그 까닭을 우리는 이와 같은 문화유산을 통해 깊이 자각할 수가 있다.

10) 건(乾☰) 궤사 원(元) 형(亨) 이(利) 정(貞)에 대하여.

이 구절은 중천건(重天乾☰) 궤상(卦象)의 뜻을 풀이하는 주나라 시대 文王의 卦象辭(괘를 판단하는 말)다.

점서적인 풀이 - 크게 형통하고 끝음이 이롭다.

참고 : 설괘전¹¹⁾에 건(乾☰)은 굳세다고 하였다. 하늘¹²⁾의 성질이 작용에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으로 두 갈래의 시각이 존재한다.

● 하나는 원형이정(元亨利貞)을 하늘의 고유한 덕을 풀이하였다고 보아 하늘은 선하고 형통하고 이롭고 바르다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 둘째는 주역의 모든 과사와 효사가 점 풀이를 위한 용법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여겨 크게 형통하고 바른 게 이롭다 혹은 이로운 점이라는 입장이다.

11) 설괘전에 대하여.

설괘전은 공자께서 엮으셨다는 십익전의 하나다.

십익의 명칭은 위서에서 비롯되었다.

사기에도 “공자가 만년에 역을 좋아하여 단사를 차례 매겨 붙이고, 상상 설괘 문언을 지어 붙였다.”고 하였으나 십익이란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다.

위서는 서한 말엽에 나왔는데, 그 중 건작도에 “공자가 눈물을 흘리며, 천명인지 운명인지? 봉황도 오지 않고 하수에서는 도서도 나오지 않으니, 슬프다! 하늘의 명이다.’ 하며, 한탄한 뒤에 뜻을 안정시키고 읽기를 그만두었으며, 50세에 이르러서 십익을 연구하여 지었다.”고 하였다.

대개 역경이 두 편인데, 공자가 저술한 것이 또한 10편이므로 반고의 예문지세, “역경이 12편이다.”라고 하였다.

십익에 관한 문헌상의 기록들을 간추려 보면 대략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다.

“공자가 눈물을 흘리며, 천명인지 운명인지? 봉황도 오지 않고 하수에서는 도서도 나오지 않으니, 슬프다! 하늘의 명이다.’ 하며, 한탄한 뒤에 뜻을 안정시키고 읽기를 그만두었으며, 50세에 이르러서 십익을 연구하여 지었다.”(건작도)

“역(易)의 6효(爻)를 거듭하여 상(上)·하(下)편을 썼고, 공자가 단(彖)·상(象)·계사(繫辭)·문언(文言)·서괘(序卦) 등 10편을 만들었다.”(예문지)

“(비직이 역의) 10편에 밝았는데, 장구가 없으므로 다만 단(彖)·상(象)·계사(繫辭) 등 10편과 문언을 가지고 상하경의 뜻을 해설했다.”(비직전)

십익에 대한 기록은 앞을 참고하면 된다.

12) 하늘에 대한 개념의 고찰.

시경 모씨전을 보면 “높여서 임금처럼 받드는 것으로 표현하면 황천(皇天)이라고 하고, 원기가 광대한 것으로 표현하면 호천(昊天)이라 하고, 세상을 인자하게 덮어주고 아래 백성들을 걱정해주는 데 비교하면 민천(旻天)이라고 하며, 위에서 아래를 보살피는 입장에서 말하면 상천(上天)이 되고, 먼 데서 보아

있어서 굳세다. 운행이 쉬지 않고, 마땅하게 호응하여 변함이 끝이 없다. 그러므로 성인이 이를 법받았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의 작용을 법 받되, 하늘의 본체를 법 받은 게 아니므로 과명을 하늘이라 일컫지 않았다. 자하전에 원(元)은 시(始 처음 혹은 근본)이라고 하였다. 형(亨)은 통함이라고 하였다. 이(利)는 화(和) 즉 서로 응하고 합당하게 함이라고 하였다. 정(貞)은 바르다는 정(正)의 뜻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중천건(重天乾䷀)은 순수한 양의 성질을 품 받았으므로 만물에서 으뜸으로 나온다. 각기 근본에서 시작되어 열려 통하고 서로 마땅한 조화를 이루어 곧고 견고하다. 이치의 마땅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로써 군자는 중천건(重天乾䷀)을 법 받아 4가지의 덕을 행해 베풀다. 그러므로 원(元), 형(亨), 이(利), 정(貞)이다.

이정조(李鼎祚) 풀이의 해설

앞의 참고 글은 이씨의 해설이다. 설괘전에 건(乾)은 굳세다고 하였다. 우변은 그곳의 주석에서 “뜻의 굳셈은 스스로 이긴다. 움직여 행함이 쉬지 않는다. 그러므로 굳세다.”

또 역위건곤착도(易緯乾坤鑿度)¹³⁾에서 중천건(重天乾䷀)은 뜻이 굳세다. 씹 씹하고 굳세어 쉬지 않는다 했으니 그 뜻이다. 몸은 형상이다. 궁륭(穹窿-하늘이 활 모양으로 둥글게 휘어진 모양)은 하늘의 형상이다. 강건하다는 것은 하늘의 작용이다. 왕번(王蕃)은 혼천설(渾天說)에서 「하늘의 주천도수는 365도 589분」이라고 하였다. 오직 그 운행은 쉬지 않는다. 이로써

파란 색깔을 나타내는 점에서는 창천(蒼天)이라 한다.” 고 하였다.

또 정자가 기술한 주역의 전에 보면 “하늘 그대로를 말하면 道라 하고, 나누어 형체로서 말하면 天이 되고, 주재하는 입장에서 말하면 帝, 功用으로 말하면 鬼神, 묘한 작용으로 말하면 神이고, 性情으로 말하면 乾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13) 한나라 시대의 6경(詩·書·禮·樂·易·春秋)과 위서(緯書).

6경에는 모두 緯書가 있었다. 그 가운데 역의 위서는 뒷 사람들이 흠어진 문장을 수집하여 편집한 黃氏 逸書考가 있다. 그 속에 乾鑿度 乾坤鑿度 稽覽圖 通卦驗 是類謀 坤靈圖 辨終備 등이 들어 있다.

변화가 무궁하여 일년 네 계절을 이루고 만물을 낳아 기른다. 이는 모두 굳셈이 지극한 하늘의 성정(性情) 때문이다. 곧 하늘의 성스러움은 지극히 정성스럽고 쉽이 없다. 하늘과 더불어 그 형체가 같지 않으나 하늘과 더불어 그 작용이 같다. 그러므로 하늘의 작용을 본뜬다고 했으니, 굳센 덕을 본받음이다.

하늘의 본체를 본뜨지 않았다 함은 하늘의 의미가 활모양으로 둥글고 휘어진 궁륭의 형체에 있지 않음을 말한다. 그 작용을 본받았으므로 이름이 중천건(重天乾䷀)이다. 그 형상을 본받은 개념이 아니므로 하늘이라 패명을 하늘이라 일컫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씨를 들먹인 부분은 대개 공영달의 주역정의에 근거한 문구다. 자하전에 元은 비롯한다는 始라고 해설한 부분은 이아(爾雅), 석고문(釋詁文)의 인용구다.

춘추 공양전 은공 원년 조에 원년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임금의 통치가 시작되는 해라고 하였다.

역위건작도에 태초라는 개념은 기운의 시작이라고 하였고 역이 지뢰복(地雷復䷗)의 초효(初爻)에서 만물이 힘입어 시작되므로 元의 개념은 비롯한다는 시작이라고 하였다.

양(陽)이 불어나 삼효(三爻)까지 이르면 지천태(地天泰䷊)¹⁴를 이룬다. 태

14) 맹희의 12벽괘설

양이 불어난다고 하는 시각은 맹희의 12벽괘설에 근거한 해석이다. 맹희의 12벽괘설은 아래 도표와 같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地 天 泰	大 壯 卦	澤 天 夬	重 天 乾	天 風 姤	風 山 遯	天 地 否	風 地 觀	山 地 剝	重 地 坤	地 雷 復	地 澤 臨
䷊	䷡	䷪	䷀	䷫	䷠	䷋	䷓	䷖	䷁	䷗	䷒
䷊	䷡	䷪	䷀	䷫	䷠	䷋	䷓	䷖	䷁	䷗	䷒

12벽괘설은 위에서 보듯 1년의 12달을 역의 64괘 중 12괘로서 구분하여 나타내는 방법이다.辟이라는 글자는 원래 고대에 晝와 晝를 뜻하였다. 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晝는 해시계를 뜻하는 말로 하늘의 해가 움직이는 모습을 측정하는 수단이었고, 임금에 해당하는 晝는 사계절의 만물을 통솔하는 주재자의 개념이다. 하나의 양이 아래로부터 지뢰복으로 자라나면서 중천건이 되고, 다시 하

(泰)의 뜻은 서괘전에 통함이라고 하였다. 중천건(重天乾䷀)의 양(陽)이 중지곤(重地坤䷁)의 음(陰)에 통하여 음과 양이 서로 사귀므로 형통함은 곧 통함이라고 하였다. 허신의 설문에 날카로움은 칼날을 두고 하는 말이니, 날카로움은 서로 어울리게 되면서 생겨나는 개념이다. 곧 날카로움은 어울림(和)에 의한 개념이니 날카롭다는 이(利)와 서로 어울린다(和)는 문구가 동일하다.

중지곤(重地坤䷁)에 중천건(重天乾䷀)이 와 들면서 만물이 형성된다. 아름다운 이로움으로 천하를 이롭게 함으로 이로움은 마땅한 어울림이 된다. 곧 을 정(貞)은 바르다는 정(正)이니 지수사(地水師) 단전에 나온다. 효의 자리가 마땅함을 두고 바르다고 말한다. 중천건(重天乾䷀)에서 2효와 4효 상효는 모두 자리가 어긋났다. 변해서 바르게 가면 수화기제(水火既濟䷾)가 되어 정해진다. 곧 구름이 가고 비가 내려 천하가 평평해진다. 그러므로 곧 을 정(貞)은 바르다는 정(正)이다.

하늘이 순수한 양의 성질을 품수(稟授)한다는 것은 예기(禮記) 악기(樂記) 편의 말이니, 그곳에서 하늘이 양(陽)을 품수한다고 하였다. 오직 그 성질이 순양(純陽)에 해당하므로 능히 여러 만물에 머리로 나온다. 그리고 네 가지의 덕을 갖추었다. 문왕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중천건(重天乾䷀)의 네 가지 덕을 본받아 행해게 되기를 바랬으므로 특별히 역의 머리에 원형이정 네 가지 덕을 매달아 역을 여는 말로 삼으셨다.

초 구 잠 용 물 용
初九, 潛龍¹⁵⁾勿用.

나의 음이 천풍구로부터 자라나면서 중지곤이 되며 일년 12달을 차례로 주관한다면 양이 자라날 때는 양이 주관하고 음이 자라날 때는 음이 주관한다. 그래서 12월 때는 ‘음이 작용하여 消가 되고 양이 작용하여 息이 된다.’는 의미에서 12 소식괘라고도 불린다.

15) 건(乾) 육효도(六爻爻)

중천건(重天乾)의 괘상은 용(龍)에 비유하여 효(爻)를 설명한다. 그 까닭은 하늘의 움직임에 있다. 그래서 하늘 괘 건(乾)이 갑(甲) 을(乙) 병(丙)의 십간(十干) 세 자리 글자로서 만들었다. 그 가운데 처음 움직이는 하늘의 기운은 해가 떠오르며 양기(陽氣)가 발동하는 동방(東方)의 방위 청룡(靑龍)의 상(象)에

초구는 잠겨 있는 용이니 쓰지 말아야 한다.

최경(崔憬)¹⁶⁾의 풀이.

구(九)란 늙은 양(陽)의 수다. 점을 칠 때 움직임으로 나타난 수다. 그러므로 양이라고 일컫는다. 잠겨있다는 잠(潛)은 숨어 있음을 뜻한다. 용이 아

속한다. 그러므로 양(陽)이 초효로부터 차츰 불어나는 중천건(重天乾)의 괘상은 당연히 용에 비유하여 효를 설명한다.

천문에서 동방의 별자리 청룡의 상은 그 뿔이 진(辰)에 있고 꼬리가 인(寅)에 있고 우리는 묘(卯)다. 건은 자(子)에서 시작하여 사(巳)에서 가득 찬다. 그러므로 양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11월은 건(乾)의 초구(初九)가 드러나는 때다. 설괘전에서도 진(震)은 우레, 용(龍), 현황(玄黃), 퍼는 것, 큰길, 장자, 결단하고 조급함, 푸른 대나무, 갈대가 되고, 그 말에 비유하면 잘 우는 말, 발이 흰 것, 등 외에 심는 데는 돌아와 생동함이 되고, 궁극에는 굳센 것(중천건이 되므로)이 되고, 번성하고 고운 것으로 해석했다. 이 역시 초점은 중천건(重天乾)이 지뢰복(地雷復)에서 순양(純陽)으로 자라나는 천지 운행의 이치에 있다.

중천건의 괘사인 원(元)의 마음(中)은 동지(冬至)의 기운이니 괘상(卦象)으로 보면 풍택중부(風澤中孚)다.

그 다음은 갑(甲)과 을(乙) 인(寅) 등의 삼목(三木)이니 동방이다. 그러므로 용(龍)이 가운데서 나온다고 하였다. 머리와 꼬리는 진실로 거뜰 논할 까닭이 없다. 요는 원문(元文)에서 말하는 용이 가운데서 나온다는 개념이다.

용의 덕이 비로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음이 지극하지 않으면 양이 생겨나지 않는다. 어지러움이 지극하지 않으면 덕이 나타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양의 드러나는 이치도 마찬가지다. 음이 지극하면 양이 태어나게 되니 이는 중천건의 초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초구 지뢰복(地雷復)은 양(陽)이 음(陰)들의 아래 아직 잠겨 있다. 그 상이 효사에서 잠용물용(潛龍勿用)이라 일컫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로써 보면 중천건의 설명은 동방의 별자리에 근거하면서도 다시 음양(陰陽)의 성쇠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6) 최경에 대하여

당나라 시대에 활동한 역학가다. 그의 생애는 고증되어 있지 않다. 그는 취상설을 주장하면서 괘기설과 호체설(互體說)을 강론하는데 이정조의 주역집해에서 그의 관점을 특히 중요하게 여겨 많이 인용하고 있다. 저술에 역탐현(易探玄) 삼권이 있다. 뒤쪽 계사전의 해석 역(易)이란 곧 상(象)이라는 부분을 참고할만하다.

래로 내려와 땅에 숨어 있어서 잠겨 있는 덕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군자가 빛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니 그 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자하전(子夏傳)¹⁷⁾의 풀이

용(龍)은 양(陽)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하였다.

마융(馬融)¹⁸⁾의 풀이

17) 공자의 제자. 사마정의 색은(索隱)에는 “자하가 역에 전을 붙였다”는 설이 있다. 이를, 어떤 사람은 자하역전이 자하의 저술이라고 하고 혹은 한영의 저술로도 본다.

18) 마융(馬融)에 대하여

자가 계장(季長), 부풍(扶風) 무릉(茂陵) 사람이다. 동한(東漢) 장제 건초 4년~환제 연희 9년 서기 79년~166년)에 활동한 인물이다. 88세까지 살았다. 그에 관한 후한서 열전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뛰어난 재주와 넓은 지식으로 당시 통달한 유학자로 불렸으며 제자를 천여 명이나 길렀다. 탁군의 노식, 복해의 정현은 모두 그의 제자다.”

후한서 유림전을 보면 마융은 역을 정현에게 전하고 정현은 역주를 지었으며 순상도 역전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들은 모두 중심테스트가 비씨역이었다. 반면 그들 경학가는 맹희·경방의 괘기설을 중심으로 역을 이해하고 위서를 인용하여 해설하면서 오행생성설(五行生成說) 효진설(爻辰說) 승강설(升降說) 등을 주장하였다.

양한시대의 역학을 저술한 강학위(康學偉)에 의하면 마융의 역학을 다음과 같이 평한다.

“상수학파의 이론체계는 한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점차 형성된 것이다. 그 형성 과정은 대체로 4단계로 나뉜다. -중략- 제 4단계는 동한시대다. 이 시기의 주요한 특징은 마융·정현·순상·우번·육적 등 경학가가 맹희·경방의 괘기설을 발취하고 위서(緯書)를 인용하여 역을 해설한 여러 가지 논법이 등장한 점이다.”

강학위가 구분하는 첫 단계는 위상·맹희·초공 등에 의하여 괘기설이 출현하면서 상수학 이론의 틀이 갖추게 된 단계다. 둘째 단계는 경방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앞의 괘기설이 발전되고 완성을 보게 된 시점이다. 셋째 단계는 수많은 역의 위서들이 무더기로 출현하면서 앞의 괘기설이 한층 신비화되고 음양 재변과 참위학의 성격이 역의 주된 내용으로 적용되게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마융이 이어받았다고 말하는 네 번째 단계다.

만물 가운데 용(龍)보다 더 대단한 형상은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용을 빌려와서 하늘의 양(陽) 기운(氣運)에 비유하는 말로 삼았다. 초구(初九)는 (60갑자 중의) 자(子)가 들어서는 달이다. 양의 기운이 처음 황천(黃泉)에서 움직인다. 이미 짝이 트지 못했으므로 오히려 잠겨 있는 것이다.

대체로 상수학설은 한나라 역의 주류를 대표한다. 그것은 주역의 기능 가운데 하나인 복서의 측면이 강조되면서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었다. 그러므로 마옹 역시 당시의 학문적인 풍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의 역 해석을 보아도 이는 쉽게 알 수 있다.

風火家人卦 象傳 바람이 불에서 나오는 것이 가인이다.(風自火出 家人)

마옹의 해설-나무는 불을 일으키고 불은 나무를 집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가인이다.

불이 나무에서 생겨 바람을 만나 더욱 크게 일어나는 것이 마치 부부의 도리는 서로 따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重天乾 初九 잠겨 있는 용이니 써서는 안 된다.(潛龍勿用)

마옹의 해설은 집해 본문을 참고하자. 그곳을 살펴보면 그의 역 해석이 상수학을 하나의 기본적인 바탕에 두고 접근하고 있음을 엿보아 알 수 있게 한다. 또 후한서 정현전에 보면 상수학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마옹의 가풍을 짐작할만한 다음과 같은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마옹이 여러 학생들을 불러 모아 역도와 역위를 토론할 때, 정현이 셈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가까이 불러 올렸다.”

반면 그의 역학은 비직으로부터 전해져 오던 훈고학적인 측면의 의리역을 유행시킨 중심에 서 있기도 했다.

이에 관한 기록은 조공무의 『군재독서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전」 「상전」 「문언전」 등을 께에 삽입시킨 것은 비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동경의 순상·마옹·정현이 모두 그의 학문을 전수 받았다.”

그러므로 마옹의 경향은 集本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문자의 훈고를 중시하고 동시에 잡다한 상수 학설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 하나 마옹이 역을 해석하는 방법은 호체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현의 역을 설명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주진의 다음과 같은 한상역설에 찾아볼 수 있다.

“정현은 마옹의 학을 전하여 겹쳐서 삼획을 이루는 호체를 많이 논하였다.”

그러나 정현이 마옹의 학을 전해 받았다고 하지만 두 사람의 학문적인 경향은 서로 많이 달랐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의 언급은 생략한다.

그러므로 잠겨 있는 용(龍)이라고 말한다.

심린사(沈麟士)의 풀이

용은 형상에 의탁한 표현이다. 천지의 기운은 오르고 내림이 있고 군자의 도에도 행해지고 감취짐이 있다. 이는 용이 능히 날기도 하고 잠기기도 하는 신비스러움이 있음과 통하므로 용의 형상을 빌려 군자의 덕에 비유하였다. 초구가 아직 잠겨서 숨어 있으므로 효사에서 쓰지 말라고 하였다.

간보(干寶)¹⁹⁾의 풀이

자리가 처음 시작되므로 명칭이 처음을 뜻하는 초(初)다. 양(陽)은 무겁다. 그러므로 구(九)라고 일컫는다. 양(陽)이 초구의 자리에 있으므로 11월의 때다. 지뢰복(地雷復䷗)으로부터 왔다. 초구(初九)는 갑자(甲子)이니²⁰⁾

19) 자가 영승(令升)이다. 진 원제 때(320년 전후)에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자기의 역설에서 한나라의 맹희·경방 역을 모태로 상수역학의 독창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20) 초구가 갑자(甲子)에 해당한다는 말의 뜻

이는 납갑으로 역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아래에서 다시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여기서 대략만을 말한다면 주역의 팔궁괘를 각각 천간(天干) 지지(地支)의 10간과 12지로 받아들여 서로의 일치점을 추구하 해석 방법이다. 10간의 첫머리가 갑(甲)이므로 납갑(納甲)이다.

경방의 납갑설은 설괘전의 건곤 부모설과 회남자 등의 율력설에 기원을 둔다. 설괘전 10장에 의하면 건곤(乾坤)은 부모괘, 진손감리간태(震巽坎離艮兌)는 자녀 괘로 보아 오행에 안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 회남자 천문훈은 12월을 12월과 12지에 배당하고 있다. 경방의 납갑설은 이와 같은 관점의 연결선상에서 비롯되었다.

경씨 역전에 따르면 “천지 건곤(乾坤)의 상을 나누어 갑을(甲乙) 임계(壬癸)에 배당한다. 진손(震巽)의 상은 경신(庚辛)에 감리(坎離)의 상은 무기(戊己)에 간태(艮兌)의 상은 병정(丙丁)에 배당한다.” 고 하였다. 그 내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23일(하현)	그믐날 저녁	3일	
乾	艮	坎	震	乾
	少男	中男	長男	
甲	丙	戊	庚	壬
乙	丁	己	辛	癸

하늘의 바른 자리이다. 그리고 건원(乾元)의 시작되는 바다. 양(陽)이 삼천(三泉)의 아래에 처해 있고 성스러운 덕은 우매한 속세 가운데 있는 때다. 이는 주나라의 문왕이 유리(羨里)옥 가운데 있을 때와 같다. 비록 성스러운 덕이 문왕에게 있으나 때의 쓰임을 입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효사에서 쓰지 말라고 하였다.

최경(崔憬) 풀이의 해설

역위²¹⁾ 건착도²²⁾에 이런 말이 있다. 1이 변하면서 7이 되고 7이 변하여 9로 된다. 여기서 9란 기운의 변화를 나타내는 끝수이다. 설문에도 양은 변화수가 9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9란 늙은 양의 변하는 수라고 하였다. 지뢰복은 숨어서 엎드려 있는 괘상이다. 그러므로 용이 내려와 땅에 숨어

	少女	中女	長女	
坤	兌	離	巽	坤
	8일(하현)	초하루 아침	16일(魄)	

뒷날 참동계는 달의 차고 기우는 월체 납갑설로 이를 받아들여 그 뜻을 정리하였다.

21) 주역(周易)의 위서(緯書)

위(緯)는 위서(緯書)를 뜻한다. 위서는 유가 경전에 대한 신비주의적인 해석서다. 한나라 시대에는 6경에 모두 위(緯)가 있었다. 그 가운데 역위는 주역을 해석한 책으로 한나라 역의 주요 유파를 형성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역위(易緯)가 형성된 시기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위서가 서한 전기에 형성되었다고 보는 견해다. 근거는 진나라 시대에 이미 참어가 유행했었음을 꼽는다.

두 번째는 위서가 기원전 7세기 및 기원후 5세기의 한나라 애제·평제 때 형성되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셋째 위서가 왕망 시대에 형성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들 주장의 근거를 놓고 볼 때 둘째와 셋째 관점이 매우 타당하다고 여긴다.

22) 건착도는 역위 가운데 대표적인 서적이다. 건착도의 관점은 경씨 역전을 해석하고 구명하는데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으니, 중심이 되는 사상은 괘기설이다. 역에 세 가지 뜻이 있다는 설 및 태역설·팔괘 방위설·구궁설·효진설 등이 대표적이다.

있어 잠겨 있는 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빛을 감추고 때를 기다림이니 그 행이 이루어지지 못해 쓰지 말라고 한 그 말이니 그 뜻은 곧 문언전²³⁾에서 설명하는 행하나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문구와 일치한다.

자하전(子夏傳) 풀이의 해설

구가역(九家易)설의 설괘전에 건은 용이 된다고 하였다. 또 설괘전에 진(震☳)은 용이 된다고 하였다. 대개 진(震☳)이 건의 한 양(陽)을 얻은 괘상이므로 용이 된다. 비아(埤雅)에 용은 비늘이 81개다. 이는 9×9의 수가 갖추어진 숫자이다. 즉 양의 수 9에 해당하므로 용이 양을 상징하는 대상이 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마융(馬融) 풀이의 해설

춘추(春秋)전 원명포(元命包)에 용의 드러남을 말한다고 하였다. 용은 음가운데 양의 성질을 가진 존재다. 그러므로 용을 빌려서 하늘의 양기에 비유하였다. 마융은 비씨역을 전공한 인물이다. 비씨는 6효가 위로 붙어나는 예가 없다. 초구가 (60갑자 중) 子로 들어서는 달이 된다는 뜻은 건곤(乾坤) 12효를 12월의 때에 결부시키는 말이니 12월 소식(消息)괘에 해당하는 말이다. 정현(鄭玄)²⁴⁾이 말하는 효진설²⁵⁾과는 같지 않아서 중천건(重

23) 공자 십익의 하나 문언

문언은 하늘괘와 땅괘를 그 괘의 괘사에 별도의 문구로 설명하고 그 괘를 차례 지으면서, 해당 괘를 꾸며놓아 생겨난 명칭으로 근본적으로는 문장으로 꾸몄다는 뜻에 해당한다.

성호는 예기 중의 “거상 중에는 말을 문식하지 않는다.”는 구절을 빌려와 말에 있어서 꾸미는 것이 곧 문언이라고 하였다. 또 계사 가운데의 “그 말이 문식되고 그 언사가 곡진하여 맞는다.”는 구절을 인용 문언이란 곧 말의 주석이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또 덧붙이기를 문언은 당초에 따로 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계사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계사 상전의 8장과 계사 하전의 5장이 문언과 같은 유인데 이 두 장은 여러 괘를 섞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사 속에 있는 것이고, 지금의 이른바 문언은 건괘 곤괘의 12효가 구비되었기 때문에 바로 괘 밑에 가져다 놓고 지금의 문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주장이다.

24) 정현에 대하여

자는 강성(康成)이다. 동한 말기에 활동한 인물이다. 어려서 집이 가난했으나 학문에 전념하면서 많은 스승을 섬겼다. 후한서 정현전에 의하면 정현은 여러 경전을 두루 주석하여 백여 만 글자에 이르렀으며, 그 경전 주석은 금문과 고문의 장점을 취한 특징이 있어 당시는 물론 후세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그의 학문을 정학(鄭學)이라고 일컫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역의 상과 수를 추리 탐구하여 호괘(互卦) 및 소식(消息) 등의 이치는 물론 오행생성설 효진설 등을 주장 역 상수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대연수의 해석에서도 양이 짝이 없고 음이 배필이 없으면 서로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땅의 수 육(六)은 수(水)를 북에서 이루어 하늘의 수 일(一)과 병행한다고 하였다. 나머지 오행의 수가 모두 마찬가지로 동시에 대연의 수는 55인데 오행의 각 기가 병행하니, 5를 감하여 50만 있게 했다고 보았다. 다시 50의 수는 $7 \cdot 8 \cdot 9 \cdot 60$ 이 될 수 없으므로 복서(卜筮) 점(占)으로 사용할 때는 다시 그 하나를 감한다. 그러므로 작용하는 수는 49가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25) 효진설이란

괘기(卦氣)설의 한 형식이다.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설의 요지는 역의 64괘가 순서대로 각각 대립하는 두 괘의 여섯 효를 12진에 배당 12개월을 대표시켜 1년으로 한다. 그래서 32쌍의 괘상이 32년을 대표하되, 건곤(乾坤)에서부터 기제 미제에 이르기까지 순환 반복한다고 보아 연대를 추산하는 방식이다.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의 견착도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乾)은 양(陽)이고 곤(坤)은 음(陰)이다. 이들은 함께 다스려 교착하면서 움직인다. 건(乾)은 11월 자(子)에 배당이 되고 움직임에 있어서는 좌측으로 돌아간다. 이로 인해 양(陽)의 시가 여섯이다. 곤(坤)은 6월 미(未)에 배당되니 움직임에 있어서는 우측으로 돌아간다. 이로 인해 음(陰)의 시간도 여섯이다. 이는 32년 주기 가운데 첫 번째 해의 효진 순서다. 다음은 주역 세 번째 괘상인 수뢰둔(水雷屯)과 네 번째 괘상인 산수몽(山水蒙)이다. 수뢰둔(水雷屯)은 양(陽)이니 12월 축(丑)에 배당하고 산수몽(山水蒙)은 음(陰)이므로 정월 寅에 배당하되 그 효의 움직임은 건곤(乾坤)과 같다. 한 해가 마치면 그 다음 괘를 따른다. 양괘(陽卦)는 진(辰)에 배당하므로 그 효가 천도의 운행 방향인 왼쪽으로 돌고, 하나씩 걸러서 한 해의 6진을 다스린다. 음괘로써 양괘와 자리가 같은 경우에는 1진을 물러나 배당하고, 그 효는 지도의 운행 방향인 오른쪽으로 하나씩 걸러서 움직이며 돈다.

상경 12번째인 지천태(地天泰)와 13번째 천지비(天地否)의 괘만은 각각 자기 진(辰)에 배당시켜 1진씩 차례로 왼쪽으로 행해 서로 따른다. 중부는 양(陽)

天乾(䷀)이 子에서 일어나고 중지곤(重地坤䷁)이 未에서 일어나며, 그 사이에 때가 6진으로 행해진다는 이론과는 다르다. 월령편에 중동(仲冬)의 달에는 물이 샘에서 움직인다고 했으므로 여기서 양기가 처음 황천(黃泉)에서 움직인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개 초효는 자가 들어서는 달에 해당하므로 양기가 처음 움직이나 오히려 잠복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효사의 말이 잠겨 있는 용이 되는 것이다.

심린사(沈麟士) 풀이의 해설

빌릴 가(假)는 빌린다는 차(借)와 뜻이 같다. 용의 형상을 빌려서 효의 뜻을 밝힌 말이다. 설문에 “용은 비늘이 있는 곤충 중의 으뜸이다. 그 변화가 신출귀몰하여 능히 숨기도 하고 능히 나타나기도 하며 능히 커지기도 하고 능히 작아지기도 하며 능히 짧게도 되고 능히 길게도 변하니 춘분에 하늘에 오르고 추분에 못에 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석에서 용이라는 존재는 능히 날아오르고 능히 잠긴다고 하였다. 그리고 천지의 기운은 오르고 내림이 있고 군자의 도는 행해지고 감춤이 있다고 했으므로 용을 빌려와 군자의 덕에 비유한 말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오직 잠겨 있으므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정현이 뜻을 풀이한 건착도에서 역의 기운은 아래로부터 생겨난다. 그러므로 지위가 아래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건착도에 양의 변화는 7에서 9로 자라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양이 무거워진 노양(老陽)은 9라고 일컫는다. 양(陽)이 초구에 있음은 십일월의 때이니 지뢰복(地雷復䷗)으로부터 왔다고 함은 괘기 소식의 이치로 하는 말이다. 괘기의 말은 역위계람도²⁶⁾

이라 11월 자(子)에 배당하고 소과(小過)는 음(陰)으로 6월 미(未)에 배당하여 앞의 처음처럼 건곤(乾坤)을 본받는다. 32세가 다하여 한 바퀴 돈다. 그리고 64괘 384효 11520탁(垓) 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효의 배치가 새로 시작된다.

26) 계람도의 괘기설

맹희와 경방의 설에 바탕을 두고 전개된다.

즉 맹희 경방의 괘기설에서 기후가 변해 달라짐을 가지고 역을 이해하던 방식을 근거로 하지와 동지 추분과 춘분의 2분·2지를 4정괘에 배합하고 12소식괘

에서 비롯된다. 지뢰복(地雷復䷗)으로부터 중지곤(重地坤䷁) 12괘에 이르기까지 모두 열두 개의 괘상이니 이가 일년(一年) 12달의 변화를 나타내는 소식(消息)의 괘다. 그중 지뢰복(地雷復䷗)은 하나의 양이 아래 초효에서 생겨나는 자(子)월의 괘다. 이는 지택림(地澤臨䷒), 지천태(地天泰䷊), 뇌천대장(雷天大壯䷡), 택천괘(澤天夬䷪)를 지나서 4월 달에 중천건(重天乾䷀)이 된다. 천풍구(天風姤䷫)로 여기서 다시 하나의 음이 생겨나면서 십이지지(十二地支) 중 오(午)월에 해당하는 괘가 된다. 그리고 음(陰)이 계속 자라나면서 천산돈(天山遯䷠), 천지비(天地否䷋), 풍지관(風地觀䷓), 산지박(山地剝䷖)을 거쳐 10월이 되면 중지곤(重地坤䷁)이 된다. 그러므로 간씨(干氏)가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의 12호를 모두 거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맹희²⁷⁾ 경방의 학에 속하는 말이다. 초구(初九)

가 12월의 음양 2기의 소장을 주관한다고 보았으며 잡괘는 그밖의 기후변화에 관계한다고 이해하였다. 아울러 64괘 가운데 3효와 상효를 가지고 춥고 더운 기후의 변화 정도를 표시하였다. 예컨대 1년 사계절 기후의 변화가 괘기의 순서와 부합하면 괘기가 효험이 있어 음양이 조화하고 천하가 태평하다고 보았으며, 만약 부합하지 않으면 괘기가 효험이 없어 음양이 조화를 잃고 기후가 어긋나며 나라 안에 반드시 난리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27) 맹희에 대하여 1

자가 장경 한나라 소제와 선제 사이에 활동했다. 전하의 역학이 정관을 거친 전왕손의 제자다. 그는 사람됨이 명성을 좋아하여 역가의 후음양재변서(候陰陽災變書)를 입수해 스승의 임종 때 홀로 그 법을 얻었다고 사람들을 속여 상수역의 개조가 되었다. 맹희 역학의 주된 내용은 사정괘설, 12월 괘설, 64괘를 72후에 짝 지우는 설 등이 있다. 맹희는 경방과 더불어 송나라 시대에 상수학이라 불리게 된 그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들 학파의 특징은 역학 연구에 있어서 괘상과 주역의 몇몇 숫자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팔괘를 우주의 축소판으로 통한다고 보아 역법 절기 음률 등에 연관시키는 한편 인류 사회의 변화도 팔괘로 표시할 수 있다고 보아 팔괘의 변화 법칙만 알면 위로 국가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일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맹희가 현대 상수역을 개창한 최초의 인물로 간주하고 있다. 근거는 경방전이다.

“초연수는 일찍 맹희에게서 역을 배웠다고 말했다. 맹희가 죽자 경방은 초연수 역을 맹희역이라고 여겼다.”

이곳의 기록을 보면 맹희가 초연수보다 연장자이고 역림의 저자인 초연수 역

이 맹희에게서 비롯됐으므로 상수역의 개창자는 곧 맹희라는 주장이다.

맹희와 초연수는 여러모로 보아 서로 교류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초연수로부터 역을 전수받은 경방전에 보면 ‘초연수가 은사(隱士)의 설을 배웠고’ ‘맹희에게 일찍 역에 대해 물었다.’ 고 했다. 초연수에게 역을 가르친 사람이 은사였듯이 맹희도 그가 획득한 「역가후음양재변서」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고회민은 두 사람이 모두 같은 스승으로부터 역을 전수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 상수역은 초연수로부터 역을 전수 받은 경방에 의해 본격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나갔으니 맹희가 선배이고 초연수가 후배이므로 한나라 이후 상수역의 출발은 맹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맹희 역설의 특징은 당대의 고승이었던 일행(一行)에 의해 정리되어 있다.

먼저 그의 「대연역의대衍曆議」에 인용하고 있는 맹씨장구의 4정괘설(正卦說)을 살펴보자.

감(坎☵)·이(離☲)·진(震☳)·태(兌☱)의 24기는 차례대로 한 효씩 주관하며 운행한다. 그 첫 번째가 동지(冬至)와 하지(夏至), 춘분(春分)과 추분(秋分)이다. 감(坎)은 음이 양을 감싸고 있으므로 정북(正北)쪽(절기상 동지)으로부터 미약한 양이 아래에서 움직여 올라가지만 이르지 못한다. 2월까지 가면 응고한 기가 사라지고 감(坎)의 운행이 끝난다. 춘분은 진(震)에서 나오는데 비로소 만물의 으뜸으로 안에서 들어 주관하니 여러 음이 변화하여 그것을 따른다. 정남(正南 - 절기상 하지)에 이르면 만물이 풍성하게 커지는 변화가 그치고 진의 작용이 끝난다. 이(離)는 양으로써 음을 감싸므로 하지로부터 미약한 음이 땅속에서 생겨나 쌓이지만 현저히 드러나지는 못한다. 8월에 이르면 문명의 질이 쇠퇴하고 이(離)의 운행이 끝난다. 중추(中秋)는 음이 태(兌)에서 드러나 비로소 만물의 말단을 따라 안에서 주관하니 여러 양이 내려와 그것을 잇는다. 동지에 이르러 하늘의 은택이 끝나고 태(兌)의 공이 끝난다. 그러므로 양 7의 고요함은 감(坎)에서 시작되고 양 9의 움직임은 진(震)에서 시작되며 음 8의 고요함은 이(離)에서 시작되고 음 6의 움직임은 태(兌)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사상의 변화는 모두 6효를 경과하지만 그 안에는 계절에 따라 법칙에 맞는 감응이 갖춰져 있다.

맹희의 사정괘설 2

맹희의 4정괘설(正卦說)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역의 기본 8괘 가운데 1년 24절기를 대신해서 나타낼 수 있는 괘상은 문왕 후천 8괘의 4正卦다. 그가 말하는 감(坎☵)·이(離☲)·진(震☳)·태(兌☱)는 모두 효가 24효가 되고 하나의 효는 하나의 절기를 대신하는 괘상의 움직임이다. 그 가운데 감(坎☵)·이(離☲)는 양(陽)과 음(陰)이 서로를 감싸고 있는 점에서 음(陰)과 양(陽)의 숨고 드러남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양(陽)이 갇혀 있고 음(陰)이 드러나 왕성한 점에서 보면 동지(冬至) 때의 坎(☵)이다. 양(陽)이 드러나고 음(陰)이 갇혀 있는 점에서 보면 양의 기운이 왕성한 하지(夏至) 때의 離(☲)다. 다만 그것은 그 절기의 시작에 해당하며 다음 절기의 추분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맹희 쾌기설의 특징이다. 이는 우리가 일년의 운행에서 삼복의 의미와 연결해 볼 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에서 시작한 양의 왕성한 이(離☲)괘는 가을의 추분까지 사라지지 않고 작용을 하므로 오행의 경(庚) 금(金)은 이미 하지를 지난 뒤에도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이(離☲)괘의 아래 옆 드러 있다고 하여 삼복(三伏)이다.

한편 고회민의 주장대로 맹희의 사정괘설은 다음과 같은 설괘전의 기록을 참고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제출호진(帝出乎震), 제호손(齊乎巽), 상견호리(相見乎離), 치역호곤(致役乎坤), 열언호태(說言乎兌), 전호건(戰乎乾), 로호감(勞乎坎), 성언호간(成言乎艮).

상제(上帝)가 진(震☳)에서 나온다. ·손(巽☴)에서 가지런하고, 이(離☲)에서 서로 보며, 곤(坤☷)에서 역사를 이루고, 태(兌☱)에서 기뻐하고, 건(乾☰)에서 싸우며, 감(坎☵)에서 위로하고, 간(艮☶)에서 이룬다. 최경의 주역탐현(周易探玄)에 근거하면 이곳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절기로 도표화 시킬 수가 있다.

立夏 巽(손☴)	夏至 離(이☲)	立秋 坤(곤☷)
春分 震(진☳)		秋分 兌(태☱)
立春 艮(간☶)	冬至 坎(감☵)	立冬 乾(건☰)

배치상의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봄철의 과상인 제출호진에 대해서만 집해의 내용을 인용해보기로 한다. 최근(崔觀)은 제출호진(帝出乎震)의 제(帝)가 하늘의 왕기라고 말한다. 곧 춘분에 이르면 왕기가 되는 우리로서 만물이 출생하는 의미라는 이야기다.

이는 맹희에게서 보면 제출호진(帝出乎震)으로 震(진☳)이 나오는 춘분의 때다. 그 이전까지는 겨울에 해당하는 坎(감☵)의 효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하지와 추분 및 동지도 마찬가지다. 하지가 되었다는 것은 離(이☲)가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추분과 동지가 되었다는 것은 태(兌☱) 坎(감☵)이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도표로 이를 구체화시켜보자.

	震 ䷲ 九 四 立 夏	震 ䷲ 六 五 小 滿	震 ䷲ 上 六 芒 種	離 ䷲ 初 九 夏 至	離 ䷲ 六 二 小 暑	離 ䷲ 九 三 大 暑	
震䷲六三穀雨				離䷲			離䷲九四立秋
震䷲六二清明							離䷲六五處暑
震䷲初九春分							離䷲上九白露
坎䷲上六驚蟄				兌䷲			兌䷲初九秋分
坎䷲九五雨水							兌䷲九二寒露
坎䷲六四立春							兌䷲六三霜降
	坎 ䷲ 六 三 大 寒	坎 ䷲ 九 二 冬 至	坎 ䷲ 初 六 冬 至	兌 ䷲ 上 六 大 雪	兌 ䷲ 九 五 小 雪	兌 ䷲ 九 四 立 冬	

이 도표에 대한 맹희의 설명을 살펴보자.

“동지 초부터 중부(中孚)가 작용한다. 1개월의 책(음양의 변화를 나타내는 수)은 9, 6, 7, 8이니, 이것이 30이다. 궤는 땅의 6이고 후는 하늘의 5다. 5와 6이 상승하여 소식영허가 한차례 변한다. 12변을 한 뒤에 세월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감(坎䷲)·이(離䷲)·진(震䷲)·태(兌䷲)는 24기가 차례로 1효씩 주관한다. 그 처음은 동지와 하지의 2주 및 춘분과 추분의 2分이다.

습감(習坎䷲)은 음(陰)이 양(陽)을 감싸므로 저절로 북방이다. 미약한 양이 아래에서 운동하여 올라가되 채 도달하지 않고, 2월에 극하여 응고의 기가 소멸하면 감(坎䷲)의 운행이 끝난다.

춘분은 진(震䷲)에서 나와 처음으로 만물의 원을 근거로 안에서 주장하니 뭇 음들이 화하여 따른다. 정남에서 지극하여 풍부 성대한 변이 다하면 진(震䷲)의 공이 마무리된다.

이(離䷲)는 양이 음을 싸므로 저절로 정남방이다. 미약한 음이 지하에서 생겨나 쌓이되 채 드러나지 않으니, 8월에 이르러 문명의 질이 쇠하면 이(離䷲)의 운행은 끝난다.

중추는 음이兌에서 형태를 이루어 비로소 만물의 끝을 따라 안에서 주장하여 뭇 양들이 내려가 받든다. 정북방에서 지극하여 천택의 베품이 다하면 태의 공

갑자(甲子)의 뜻은 납갑(納甲)²⁸⁾으로 하는 말이다. 중천건(重天乾䷀)은 갑이 다한다.

그러므로 양칠(陽七)의 고요함[靜]은 감(坎䷜)에서 비롯하고, 양구(陽九)의 움직임[動]은 진(震䷲)에서 비롯한다.

음팔(陰八)의 고요함[靜]은 이(離䷄)에서 비롯하고, 음육(陰六)의 움직임[動]은 태(兌䷹)에서 비롯한다. 그러므로 4상의 변화가 모두 6효(爻)를 겸하며, 중절(中節)의 응함이 갖추어진다(신당서 권 27).”

6일 7분법에 의한 과상의 배분 - 맹희의 역학 3

이상의 4정과설 이외에 맹희는 다시 12벽과(辟卦)설도 주장한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地 天 泰	大 壯 卦	澤 天 夬	重 天 乾	天 風 姤	風 山 遯	天 地 否	風 地 觀	山 地 剝	重 地 坤	地 雷 復	地 澤 臨
䷊	䷡	䷪	䷀	䷫	䷠	䷋	䷓	䷖	䷁	䷗	䷒
䷊	䷊	䷊	䷊	䷊	䷊	䷊	䷊	䷊	䷊	䷊	䷊

12벽과설은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년의 12달을 역의 64과 중 12과로서 구분하여 나타내는 방법이다. 벽이라는 글자는 원래 고대에 규(圭)와 군(君)을 뜻하였다. 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규(圭)는 해시계를 뜻하는 말로 하늘의 해가 움직이는 모습을 측정하는 수단이었고, 임금에 해당하는 군(君)은 사계절의 만물을 통솔하는 주재자의 개념이다. 하나의 양(陽)이 아래로부터 지뢰복(地雷復䷗)으로 자라나면서 중천건(重天乾䷀)이 되고, 다시 하나의 음(陰)이 천풍구(天風姤䷫)로 자라나면서 중지곤(重地坤䷁)이 되며 일년 12달을 차례로 주관한다면 양(陽)이 자라날 때는 양이 주관하고 음(陰)이 자라날 때는 음이 주관한다. 그래서 12월과는 ‘음(陰)이 작용하여 녹는 소(消)가 되고 양(陽)이 작용하여 불어나는 식(息)이 된다.’는 의미에서 12소식(消息)과다.

한편 12벽과는 일 년의 절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12과 72효로 구체화시킨 72후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이는 예기 월령과 여씨춘추의 설과 일치하는데 그때의 과기원도는 송대의 이개에 의해서 전해져 온다.

일년 4철을 사정과 및 주역 12과를 12개월에 적용하는 벽과설 이외에 맹희는 주역의 전체 과상을 1년 365일 1/4의 날수에 배당하는 6일 7분법도 주장한다. 맹희의 6일 7분법은 일년의 운행 도수인 365와 1/4을 주역 64과 가운데 4정과인 감(坎䷜)·이(離䷄)·진(震䷲)·태(兌䷹)를 제외하고 나머지 60과 360효로서 일 년의 운행 도수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60과 360효와 일년 운행도수인 365와 1/4을 서로 결부시켜 배분하면 주역의 효와 일 년의 날수 사이에는 5와 1/4의 숫자가 남는다. 이것을 60과로 다시 나

누면 각 괄�에 7분씩의 몫이 배당되어 돌아간다.

하루를 80분의 단위로 계산하면 5일은 400분이다. 또 하루의 1/4은 $80 \times 1/4$ 로 20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5와 1/4은 420분이다. 이것을 주역의 60괄로 분배하면 몫은 7분이다.

이는 원의 각도가 360도임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배분이다.

근거는 후한서 율력지다. 지구의 운행도수 365와 1/4에 맞추게 된 결과다.

관련 기록을 먼저 확인해보자.

“표준을 정해 해의 그림자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데서부터 역수가 생겨났는데 해의 그림자가 길면 해가 멀다. 이것이 천도의 끝이다. 해가 끝에서 출발하여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이지만 그 그림자는 1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네 바퀴 돌아 1461에야 애초의 그림자로 돌아온다. 이것이 운행의 끝이다. 이것을 지구가 운행한 바퀴 수인 4로 나누면 365와 1/4의 수가 계산되어 나온다. 이것이 1년의 실제 운행하는 도수다.”

그러므로 365와 1/4에 해당하는 일 년의 날 수를 360도의 도수와 일치시키자면 맹희가 창안한 것처럼 6일 7분법의 괄상 배분법이 반드시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 그 6일 7분법에 따라 분배된 괄상의 분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달					벽괄
10월	重山艮	水火既濟	火雷噬嗑	澤風大過	重地坤
9월	雷澤歸妹	天雷无妄	地火明夷	澤水困	山地剝
8월	重風巽	澤地萃	山天大畜	山火賁	風地觀
7월	雷風恒	水澤節	天火同人	山澤損	天地否
6월	火風鼎	雷火豐	風水渙	天澤履	天山遯
5월	火天大有	風火家人	水風井	澤山咸	天風姤
4월	火山旅	地水師	水地比	風天小畜	重天乾
3월	雷地豫	天水訟	山風蠱	澤火革	澤天夬
2월	水天需	澤雷隨	火地晉	雷水解	雷天大壯
1월	雷山小過	山水蒙	風雷益	風山漸	地天泰
12월	水雷屯	地山謙	火澤睽	地風升	地澤臨
11월	火水未濟	水山蹇	山雷頤	風澤中孚	地雷復

맹희의 역 4

위의 도표에서 64괄 전체 괄상의 배분은 역법의 순환을 따르고 있다. 그 구체적인 연결 관계는 납갑(納甲)을 참고하면 쉽게 짐작이 간다. 곧 이는 간지(干支) 및 율려(律呂)의 법칙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해와 달의 운행이 하늘의 12차에서 만나게 되는 그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경방은 이를 쉽게 적용하고자 납갑설을 제창하여 자신의 역학을 설명하는 기초로 삼고 있다. 납갑(納甲)이란 팔궁괄(八宮卦)를 각각 십간(十干)에 배당하고 팔궁괄의 각 효를 12

지(支)에 배당하는 방법이다. 갑(甲)이 첫 번째의 십간(十干)이므로 갑을 받아 들인다는 납갑은 곧 육십(六十) 갑자(甲子)의 순행하는 원리를 주역의 과상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방법이다.

경씨 역전에 “천지(天地) 건(乾☰) 곤(坤☷)의 상을 나누어 갑을(甲乙) 임계(壬癸)로 더 한다. 진(震☳)·손(巽☴)의 상은 경신(庚辛)에 배당하고, 감(坎☵)·이(離☲)의 상은 무기(戊己)에 배당하며, 간(艮☶)태(兌☱)의 상은 병정(丙丁)에 배당한다.” 라고 하였다. 건(乾☰)과 곤(坤☷)의 2괘를 예로 들면 건(乾☰)과 곤(坤☷)이 모두 내괘와 외괘로 나누어지는 대성괘가 되므로 건(乾☰)의 내괘는 갑(甲)을 적용하고, 외괘는 임(壬)을 적용하며, 곤(坤☷)괘의 내괘는 을(乙)을 적용하고 바깥괘는 계(癸)를 적용한다. 기타 나머지 자녀괘들도 마찬가지로인데 이것은 주역의 과상에 천간을 배합할 때의 설명이고 따로 각 효사에는 지지(地支)를 나누어 배합시킨다. 이것이 경방이 제창한 납갑(納甲)설의 실체다. 그 내용의 자세한 설명은 혜동의 『역한학』에서 다루고 있다. 앞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곁들였지만 여기서 다시 혜동의 『역한학』에 실려 있는 팔괘 육위도에 의거하여 경방의 납갑설을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팔괘 간 지 효위	重天乾 ☰	重澤兌 ☱	重火離 ☲	重雷震 ☳	重風巽 ☴	習坎 ☵	重山艮 ☶	重地坤 ☷
上爻	壬戌	丁未	己巳	庚戌	辛卯	戊子	丙寅	癸酉
5爻	壬申	丁酉	己未	庚申	辛巳	戊戌	丙子	癸亥
4爻	壬午	丁亥	己酉	庚午	辛未	戊申	丙戌	癸丑
3爻	甲辰	丁丑	己亥	庚辰	辛酉	戊午	丙申	乙丑
2爻	甲寅	丁卯	己丑	庚寅	辛亥	戊辰	丙午	乙巳
初爻	甲子	丁巳	己卯	庚子	辛丑	戊寅	丙辰	乙未

참고로 경방의 납갑설(納甲說)은 설괘전의 건곤부모(乾坤父母) 설과 회남자 등의 율력(律曆)설에 기원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예컨대 주역의 설괘전은 역의 기본 8괘를 부모괘와 자녀괘로 구분하고 있고, 회남자 천문훈에서는 12을을 12월과 12지에 배당하는데 이것을 천도 운행의 관점에 착안하여 서로 결부시켜 생각해 낸 이론이 바로 경방의 납갑설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경방의 6일 7분법에 의한 과상의 배분은 후학인 우리가 나름대로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는 이론이다.

그런데 왜 맹희는 전체 과상을 12벽괘설에 나누어 배분하면서 주역 본문의 서괘전에 나타난 괘의 차례를 따르지 않고 앞의 도표와 같은 형태로 그 유형을 구분하고 있을까? 이는 고회민의 설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1월의 가운데 절기인 동지는 대설 15일 후인데 이때는 엄동이기 때문에 미약한 양이 땅속에서 움직이고 있어도 지표까지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를 복(復䷗) 과상의 양 하나가 아래에서 생기는 것으로 형용하는 것이 아주 그럴듯하므로 복괘 앞에 중부(中孚䷼)괘를 배치한 것이다. 중부(中孚䷼) 과상은 초효, 이효, 오효, 상효가 양이고 삼효와 사효는 음이다. 전체 모습으로 보면 단단하고 실한 것이 밖에서 막고 있고 안에 부드러운 것이 함유되어 있는 과실의 핵 모습이다. 이 때문에 과실의 핵을 상징하는 중부(中孚䷼)괘를 복(復䷗)괘 앞에 배치함으로써 만물이 이때에는 갇혀 드러나지 못하고 있지만 안에는 생명의 기틀이 자라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복(復䷗)괘로 이어져 양기가 점점 생겨나는 모습을 상징한다. 이로부터 의미를 취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 또 중부(中孚䷼)라는 괘의 이름은 당초에는 과상으로부터 나왔을 것이다. ‘부(孚)’자는 손톱 조(爪)에서 나왔다. 설문의 단옥재 주에는 “방언이다. 아직 까지 않은 말이다. 여기서 부에 대한 해석을 얻을 수 있다.” 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중부괘 이하 60괘는 어떤 원칙에 따라 배열되어 있는지를 물으면서 다음과 같이 스스로 설명한다.

“이런 것에 대해 이전의 역학가들은 토론한 적이 없다. 64괘의 배열 방식으로 말하면, 한대 이전에는, 서괘전에 기재된 배열 방식 하나가 유일했다. 서괘전의 배열은 과상의 반대괘와 방통괘에 따르는 원의 순환이라는 의미에 근거한다. 맹희의 60괘에 대한 배열은 서괘전에 근거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다. 서괘전이 건(乾䷀)·곤(坤䷁) 두 괘를 뺀 나머지 62괘를 배열한 것이라면, 괘기는 ·감(坎䷜)·이(離䷄)·진(震䷲)·태(兌䷹) 네 괘를 뺀 나머지 60괘를 배열한 것이다. 서괘전은 과상과 괘의 의미에 근거하여 배열한 것이지만 괘기는 과상을 고려하지 않고 괘의 의미만으로 배열한 것이다. 하지만 원의 순환이라는 의미를 취한 점에서는 괘기나 서괘전이 다름이 없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장에서 취할 바는 괘기가 순환의 의미를 취하고 있다는 점과 괘의 의미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주목하면 될 것이다. 그밖의 논란은 괘기설의 본질을 빗나가 있다.

다시 맹희의 괘기설이 어떻게 괘의 의미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의 다음 주장이다.

“이제 괘기의 60괘의 배열을 보면 중부(中孚䷼)로부터 복(復䷗), 그리고 둔(屯䷂)은 서괘전의 시작과 비슷하니 만물의 점진적 성장에서 취한 것이다.

다음은 지산겸(地山謙䷎)으로부터 화택규(火澤睽䷥), 그리고 지풍승(地風升䷭) 지택림(地澤臨䷒)까지는 만물이 장성하여 빛나는 것에서 취했다. 뇌산소과(雷山小過䷛)부터 산수몽(山水蒙䷃) 지천태(地天泰䷊)는 작은 좌절을 당해 은연

(甲)과 임(壬)을 받아들이니 중천건(重天乾䷀) 초효(初爻)가 갑자(甲子)를

중 물러나 평안히 자처하는 것에서 취했다.(여기서 몽(蒙䷃)은 어린 아이의 몽매를 풀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빛을 감춘다는 의미의 몽매함이다.)

그 다음에는 태연히 처하여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데에 쓰이는 수천수(水天需䷄)가 있다. 이어서 물건들이 서로 따르는택뢰수(澤雷隨䷐)이고 뚜렷이 번성하는 화지진(火地晉䷢)이며, 그로 인해 곤란에서 벗어나는 뇌수해(雷水解䷧)이며, 대단히 왕성해지면 뇌천대장(雷天大壯䷡)의 극성에 이른다.

극성하면 쇠퇴하므로 미리 내다보는 마음이 생기고(뇌지에雷地豫䷏) 송사가 생기며(천수송天水訟䷅) 어려움이 생기면 개혁해야 한다(택화혁澤火革䷰). 또 개혁하려면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하므로 택천괘(澤天夬䷪)로 뒤를 잇는다.

이로서 전쟁을 위해 군대가 일어난다(지수사地水師䷆). 전쟁 이후에는 서로 도우면서 부지런히 도야하여(수지비水地比䷇) 조금씩 길러야 하고(풍천소축風天小畜䷈) 열심히 노력하여(중천건重天乾䷀) 커다란 소득을 얻는다(화천대유火天大有䷍). 그 다음 공을 이루면 물러나 가인과 더불어 살며 시골 생활을 즐긴다(수풍정水風井䷯)"

여기까지가 풍택중부(風澤中孚䷼)로부터 수풍정(水風井䷯)까지 한 단락을 이룬다고 보는 30괘다.

결론적으로 그는 만물의 시초가 날마다 조금씩 일어나고 앞드리고, 성해졌다가 쇠퇴하여 극에 이르면 반드시 되돌아가되 곤궁하면 스스로 강해지는 이치를 나타낸다는 논리로 과거의 차례가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왜 그 같은 이치가 생겨나게 되는지 의미 중심으로 괘상을 배치하는 관점이 신선하다.

28) 앞에서 소개했듯이 경방은 천지(天地)건(乾䷀)곤(坤䷁)의 상을 나누어 갑을(甲乙)임계(壬癸)와 일치시키며 진(震䷲)·손(巽䷸)의 상은 경신(庚辛)에 배당하고, 감(坎䷜)·이(離䷄)의 상은 무기(戊己)에 배당하며, 간(艮䷳)태(兌䷹)의 상은 병정(丙丁)에 배당케 하였다. 다만 건곤의 2괘는 모두 내괘와 외괘로 나누어 지므로 건괘의 내괘는 갑에 해당하고 외괘는 임이 된다. 곤괘는 내괘가 을을 받아들이고 외괘는 계를 받아들였다. 여기서는 그 납갑과 달리 납지를 구체적으로 도표화 시키면 다음과 같아진다. 위의 표1은 앞서 소개한 납갑이고, 아래 표 2는 납지다.

8괘	乾	坤	艮	兌	坎	離	震	巽	乾	坤
천간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받아들인다. 경방의 역전에 보면 갑(甲)과 임(壬)은 안과 밖(甲)²⁹⁾으로 하는 말이다. 중천건(重天乾䷀)은 갑(甲)과 임(壬)을 받아들이니 중천건(重天乾䷀) 초효(初爻)가 갑자(甲子)를 받아들인다. 경방의 역전에 보면 갑(甲)과 임(壬)은 안과 밖의 두 상에 짝을 지웠다. 육적(陸績)은 그곳의 주석에

괘효	8괘	乾	震	坎	艮	坤	兌	離	巽
바깥괘 상괘	상효	壬戌	庚戌	戊子	丙寅	癸酉	丁未	巳巳	辛卯
	5효	壬申	庚申	戊戌	丙子	癸亥	丁酉	巳未	辛巳
	4효	壬午	庚午	戊申	丙戌	癸丑	丁亥	巳酉	辛未
안괘 하괘	3효	甲辰	庚辰	戊午	丙申	乙卯	丁丑	巳亥	辛酉
	2효	甲寅	庚寅	戊辰	丙午	乙巳	丁卯	巳丑	辛亥
	초효	甲子	庚子	戊寅	丙辰	乙未	丁巳	巳卯	辛丑

29) 역의 납갑(納甲)

앞에서 소개했듯이 경방은 천지(天地)건(乾䷀)곤(坤䷁)의 상을 나누어 갑을(甲乙)임계(壬癸)와 일치시키며 震巽의 상은 庚辛에 배당시켰다. 다시 감리의 상은 무기에 배당시키고, 간태의 상은 병정에 배당케 하였다. 다만 건곤의 2괘는 모두 내괘와 외괘로 나누어지므로 건괘의 내괘는 갑에 해당하고 외괘는 임이 된다. 곤괘는 내괘가 을을 받아들이고 외괘는 계를 받아들였다. 여기서는 그 납갑과 달리 납지를 구체적으로 도표화 시키면 다음과 같아진다. 위의 표1은 앞서 소개한 납갑이고, 아래 표 2는 납지다.

8괘	乾	坤	艮	兌	坎	離	震	巽	乾	坤
천간	甲	乙	丙	丁	戊	巳	庚	辛	壬	癸

괘효	8괘	乾	震	坎	艮	坤	兌	離	巽
바깥괘 상괘	상효	壬戌	庚戌	戊子	丙寅	癸酉	丁未	巳巳	辛卯
	5효	壬申	庚申	戊戌	丙子	癸亥	丁酉	巳未	辛巳
	4효	壬午	庚午	戊申	丙戌	癸丑	丁亥	巳酉	辛未
안괘 하괘	3효	甲辰	庚辰	戊午	丙申	乙卯	丁丑	巳亥	辛酉
	2효	甲寅	庚寅	戊辰	丙午	乙巳	丁卯	巳丑	辛亥
	초효	甲子	庚子	戊寅	丙辰	乙未	丁巳	巳卯	辛丑

서 중천건(重天乾䷱)은 천지의 머리가 되고, 갑(甲)과 임(壬)을 나누어 중천건(重天乾䷱)의 자리에 든다고 하였다. 갑자(甲子)는 60갑자에서 천간과 지지의 머리가 된다. 그러므로 하늘의 바른 자리이고 건원(乾元)이 시작되는 바라고 말하고 있다. 사기에 시황(始皇)을 여산에 장사 지냄에 천하 무리 70여만이 이르러 전송을 했으니 3천(泉)을 뚫었다고 적고 있다. 사고(師古)가 삼중(三重)의 샘은 그 깊이를 말한다고 하였다. 양(陽)이 3천의 아래에 처하여 있음은 성스러운 덕이 우매한 세속 가운데 있는데 비유할 수 있다. 오직 문왕만이 족히 이를 감당할만한 덕이 되는 것이다. 사기 은본기(殷本紀)에 주왕(紂王)이 아홉 제후를 소금에 절이고 악후(鄂侯)를 포(脯)를 뒀다. 서백 창(昌)이 이를 듣고 가만히 탄식하는 말이 있었다. 이를 송후호가 알고서 주왕에게 고자질을 하니 주왕은 서백을 유리옥(羨里獄)에 가두었다. 이에 서백의 신하 굉천(閼天)의 무리들이 미녀와 갖가지 기이한 보배 및 좋은 말을 주에게 바치고 그를 구하고자 하였다. 주가 이에 서백을 사면했다고 사마천은 적고 있다. 그 내용은 주나라 본기의 기록도 대체로 이와 같다. 말하자면 문왕에게 성스러운 덕이 있었으나 아직 때에 쓰임을 입지 못하고 오히려 유리옥에 간힘을 당했으니 이는 곧 이곳 중천건(重天乾䷱)의 초구(初九) 효(爻)와 상황이 서로 합치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잠겨 있는 용이니 쓰지 말라는 뜻으로서 그 효사를 취하였다.

구 이 현 룡 제 천 이 견 대 인
九二, 見龍在田, 利見大人.

구이는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

왕필(王弼)³⁰⁾의 풀이

30) 왕필에 대하여

자는 보사(輔嗣) 삼국시대 위나라 산양(山陽) 고평(高平)사람이다. 출생한 해는 위문제 7년(226년)이고, 제왕 가평 원년(249년)까지 24살의 짧은 생애를 살았다.

하소의 왕필전에 의하면 왕필은 어려서부터 지혜로웠으며 열 서너 살에 노다를 좋아하여 언변이 뛰어났다. 그는 천성이 대단히 특출난 천재인데다가 본바탕이 온화하고 뛰어난 언변에 자부심이 컸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를 무시하고

연회를 즐겼으며 음률에 밝고 투호를 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조조의 족손인 조상의 우대를 받았지만 끝내 중용되지 못했으며 조조의 보호를 받다가 위의 공주와 혼인한 하안의 밑에서 상서량이란 낮은 벼슬에 만족해야 했다. 그의 죽음은 스물네 살에 앓던 전염병이 원인이었다.

왕필은 주역이 정치철학을 강론한 책이라 보고, 득의망상설(得意忘象說)·취의설(取義說)·효위설(爻位說)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그의 역학은 한나라 시대에 극히 왕성하게 전개되던 상수학과 극단적인 형식의 점서(占筮) 면을 배척하고 현학에 의지한 역 해석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 가운데 득의망상설(得意忘象說)은 역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바는 뜻에 있다고 보아 뜻을 얻음은 상을 잊는데 있다는 관점이다.

무릇 상(象)이란 의(義)를 드러내는 것이다. 언어란 상을 밝히는 것이다. 뜻을 다함은 상(象)보다 나은 것이 없고, 상(象)을 다함은 언어만한 것이 없다. 언어는 상에서 생기므로 언어를 찾아보아 상을 관찰한다. 상은 뜻에서 생기므로 상을 찾아 뜻을 관찰한다. 뜻은 상으로써 다하고 상은 언어로써 드러난다. 언어란 상을 밝히는 수단이니, 상을 얻으면 언어를 잊는다. 상이란 뜻을 두는 수단이니, 뜻을 얻으면 상을 잊는다.

올무는 토끼를 잡는 것이 목적이므로 토끼를 잡으면 올무를 잊어버리고, 통발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므로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잊음과 같다. 그러한 즉 언어란 상의 올무이고 상이란 뜻의 통발이다. 사람이 언어에 집착하면 상을 얻지 못하고, 상에 집착하면 뜻을 얻지 못한다.

따라서 뜻을 위주로 하는 그의 주역 패효사의 해석은 한역 상수역을 극력 배격한다.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예로 든다면 그 중의 하나가 중천건괘 구사효의 다음과 구절이 될 것이다.

아래 소성괘의 끝을 지나 위 소성괘의 아래에 해당하므로 건의 도가 변하는 때이다. 위로 하늘에 있지 않고, 아래로 발에 있지 않으며, 가운데 인간에 있지 않다. 겹쳐서 양강의 험난함을 디디고 서서 일정한 위치가 없으므로 처한 바가 진실로 진퇴(進退)무상(無常)의 때다. 지극히 높은 자리에 가까워 그 도리를 다 해야 하며 아랫 사람에게 몰려 아랫 사람이 도약하여 미칠 바가 아니다. 그 거처함에 안정하고자 하나 거처함이 안정되지 않으므로 의심을 품고 머뭇거리면서 감히 뜻을 결정하지 못한다. 마음을 써서 공변됨을 지키고, 나아가되 사사로움을 두지 않아 의심하고 우려한다. 따라서 너무 과감해 그르치지를 않는다. 그래서 허물이 없다.

이는 어디까지나 해설의 기준이 이치 중심이다.

잠겨 있는 데서 벗어나고 숨어 있는 데서 떠났다. 그러므로 나타난 용이다. 땅 위로 나왔으므로 밭에 있다고 하였다. 덕의 베풀어줌이 두루하고, 중(中)에 머물러 치우치지 않는다. 비록 군주의 자리는 아니나 군주의 덕을 지녔다. 초효(初爻)는 드러나지 못하고, 삼효(三爻)는 곧세게 하며, 사효(四爻)는 혹 뛰어보며, 상효(上爻)는 지나치게 높다. 대인(大人)을 봄이 이롭다고 함은 오직 이효(二爻)와 오효(五爻)에 해당하는 말이다.

정현(鄭玄)의 풀이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로 나누어보면 이효(二爻)는 땅의 자리다. 땅의 위라면 곧 밭이다. 그러므로 효사에서 밭을 말한다.

간보(干寶)의 풀이

양(陽)이 구이(九二)에 있으니, 12월의 때로 지택림(地澤臨䷒)으로부터 왔다. 이효(二爻)가 땅 위가 됨은 밭이 땅의 곁에 있고, 사람의 공이 나타난 곳이다. 양기(陽氣)가 장차 베풀어짐에 성인이 곧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는

반면 이와 같은 역 해석의 관점은 왕숙 한강백 등과 더불어 근간이 노장 현학이다. 그 까닭에 왕필 등의 역학을 현학과 역학이라 일컫는다. 현학과 역학에 모태가 된 위진 현학은 주로 본과 말, 유와 무의 문제 등을 토론했다. 즉 형이상학적인 세계의 본질론에 관한 문제만을 강론하여 세상사에 절실하지 않은 까닭에 명칭이 현학이다. 그 당시 현학자들은 고대 경전을 해석하면서 간명함을 하나의 풍조로 내세웠는데 왕필은 바로 그 범주에 속하는 현학 역학의 창시자이자 대표적인 인물이다.

왕필 역학의 또 하나 특징은 효위설이다. 즉 주역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괄의 전체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한 효의 의미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여기는 입장이다.

주역악례의 구절을 인용해보자.

“무릇 단이란 한 괄의 체를 전체적으로 말한 것이다. 한 괄의 체는 반드시 한 효를 위주로 하므로 한 효의 뜻을 지적하고 해명하면 이로 인해 한 괄의 뜻을 전체적으로 통괄하고 있다. 그 예로는 화천대유괘를 들 수 있다.

북사 유림전에서 남학의 역학으로 왕필을 취하고 북학의 역학은 정현을 취한다는 뜻에서 강좌(江左)는 주역에 왕보사요, 하락은 주역에 정강성이라고 하였다. 그 후 이처럼 분리되어 유행하던 역학은 수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남학이라 일컫던 왕필의 역학이 정현의 북학을 흡수 병합할 만큼의 세력을 얻기도 했다.

문왕(文王)이 유리옥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는 때다. 그러므로 대인을 봄이 이롭다고 하였다.

왕필(王弼) 풀이의 해설

초효(初爻)는 잠겨 있는 용이 된다. 이효(二爻)는 잠겨 있는 데서 벗어난 효다. 초효는 용의 덕이 있으나 잠겨 있고, 2효는 초효의 잠겨 있는 데서 벗어난 자리다. 이처럼 잠겨 있는 데서 벗어나고 숨어 있는 데서 떠났으므로 나타난 용이라고 하였다. 초효는 잠겨 못에 있고, 이효는 나타나서 밭에 있으니 땅의 위에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밭에 있다고 하였다. 문언에 덕이 두루하여 교화한다고 하였으니 여기서는 곧 덕이 두루 베풀어진다고 하였다. 이효가 아래 소성괘의 가운데 있으므로 가운데 머물러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위가 아닌 아래이므로 군주의 자리가 아니다. 다만 中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군주다운 덕이 있다. 초효는 숨어 있고 삼효는 위태롭고 사효는 의심스럽고, 上爻는 너무 높다. 여기서 중을 얻은 효는 위와 아래의 이효(二爻)와 오효(五爻)³¹⁾가 되므로 그 두개가 대인(大人)을 봄이 이롭다. 건작도(乾鑿度)에 대인이란 성스러운 덕이 갖추어진 이라고 하였다. 맹희가 대인이란 성인의 덕이 갖추어진 이라고 하였다. 이효는 아래의 성인에 해당한다. 앞 시대의 선비들이 부자께서 수사(洙泗)에서 가르쳐 천하를 이익 되게 하되 인군의 덕이 있으므로 대인이라 일컫는다는 표현이 바로 그 뜻이다. 이효(二爻)는 군주의 덕이 있으니, 마땅히 중지곤(重地坤䷁) 오효(五爻)로 올라가 때로 밭에 그치니 자리에 맞게 변하면 괘상이 이(離䷄)가 된다. 설괘전에 이(離䷄)는 눈이 된다고 하고 또 서로

31) 주역 해석의 한 방법 상응(相應)설

상응설은 괘상이 초효(初爻) · 이효(二爻) · 삼효(三爻)가 세 자리를 건너 뛴 사효(四爻) · 오효(五爻) · 상효(上爻)와 서로 호응한다고 보되, 양효(陽爻)가 음효(陰爻)와 상응하는 것을 응(應)함이 있다고 한다. 예컨대 초효(初爻)가 양(陽)이고 사효(四爻)가 음(陰), 이효(二爻)가 음(陰)이고 오효(五爻)가 양(陽)이면 서로 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같은 양(陽)끼리거나 같은 음(陰)끼리면 응함이 없다고 본다. 보통 역을 해석함에 응함이 있으면 길하고, 응함이 없으면 흉하다.

이(離☲)에서 본다고 했으므로 대인을 봄이 이롭다는 말이 된다.

정현(鄭玄) 풀이의 해설

공(孔)의 주석에 “초효와 이효는 땅의 자리이고, 삼효와 사효는 사람의 자리이며, 오효와 상효는 하늘의 자리다. 이효가 초효의 위에 있으니 이는 구이효가 땅의 위에 거처한 뜻이 된다. 이는 말미암아 밥을 먹게 되는 자리이니 오직 그 공이 땅에 있으므로 일컬기를 밭이라고 하였다”는 선유의 설을 인용하고 있으니, 그는 곧 정현의 시각이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구이(九二) 효(爻)가 지택림(地澤臨☱☵)으로부터 왔다는 뜻은 소식영허(消息盈虛)의 이치로써 하는 말이다. 이효가 땅의 위가 된다고 함은 정현과 뜻이 일치한다. 밭이 땅의 겉에 있으니 사람의 공이 있다고 함은 孔疏의 다음과 다음과 같은 해석에 근거한다. “밭은 사람이 경작을 하여 이익을 얻는 곳이니, 만물이 가득 채워짐에 미치면 사람에게 이익됨이 있다. 마치 성인이 만물을 유익하게 함이 이와 같으므로 일컬어 밭이라고 한다”는 구절이다. 지택림(地澤臨☱☵)은 이효(二爻)까지 양의 궤다. 이효 양이 지택림(地澤臨☱☵)으로부터 오고, 삼효(三爻) 양은 지천태(地天泰☱☲)를 이룬다. 그러므로 양기가 장차 베풀어져 성인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래서 문왕이 유리옥에서 벗어나는 상황에 해당되므로 대인을 봄이 이롭다고 하였다.

구삼 九三, 君^군자^자종^종일^일건^건건^건, 夕^석惕^척若^약, 厲^려无^무咎^구.

구삼(九三)은 군자가 날을 마치도록 힘쓰고 힘쓰되, 저녁에 두려운 듯하면 위태로우나 허물은 없다.

정현(鄭玄)의 풀이

삼효(三爻)는 삼재(三才)의 자리로 나누어 보면 사람의 자리이다. 하늘의 덕이 있으면서 사람의 자리에 있으니, 군자의 상이 된다.

우번(虞翻)³²⁾의 풀이

32) 우번 역에 대하여

우번의 견해는 주역 집해에서 집중적으로 인용된다.

그의 특징은 주석의 관점이 다음과 같은 괘변(卦變)설에 근거를 둔다.

괘변에 관한 포괄적인 의미의 언급은 맹희의 12월괘, 초연수 역림에 나타난 64괘변정, 경방의 팔궁도, 정현의 효진설과 순상의 승강도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괘변설은 주역 64괘 전체의 괘상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고 법칙과 체계 면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므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엄격한 의미의 괘변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주역의 연구가 활발해진 한대 이후로부터 본격적인 괘변으로 그 분류가 가능한 설은 경방의 팔궁 괘변과 우변의 괘변이다. 그중 우변의 괘변도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원칙에 의존하여 자기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 보여준다.

○ 첫째 건(乾☰)과 곤(坤☷)의 이효(二爻)와 오효(五爻)가 서로 바뀌어 감(坎☵)과 리(離☲)가 되는 형태다.

○ 둘째 자리가 바르지 못한 효는 반드시 변하여 자리가 바른 효가 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 셋째 12벽괘(碧卦)에 의한 괘변 역시 우변은 수용하고 있다.

○ 넷째 진(震☳)과 손(巽☴)의 괘변을 특별한 형태의 괘변이라고 여겨 하나의 원칙을 삼는다는 점이다.

○그중 우변의 핵심 이론은 12벽괘에 의한 괘변이다. 다만 우변의 저술은 이정조의 주역집해를 통해서 그 윤곽이 드러나 있을 뿐 그 내용을 추정해 정리한 사람은 송나라의 주진이다.(주진朱震의 저서 한상역전괘도漢上易傳卦圖)

특히 위 괘변 중 세 번째의 괘변설이 중요시된다. 그중 음양의 각 효 하나만이 일왕일래(一往一來)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① 하나의 음효(陰爻)와 하나의 양효(陽爻)로 이뤄진 괘는 각각 여섯인데 모두 천풍구(天風姤☵)와 지뢰복(地雷復☳)으로부터 변하였다.

② 두 개의 음효(陰爻)와 두 개의 양효(陽爻)로 이뤄진 괘는 각각 아홉인데 모두 지택림(地澤臨☵)과 천산돈(天山遯☶)으로부터 변하였다.

③ 세 개의 음효(陰爻)와 세 개의 양효(陽爻)로 이뤄진 괘는 각각 열인데 모두 지천태(地天泰☶)와 천지비(天地否☷)로부터 변하였다.

④ 네 개의 음효(陰爻)와 네 개의 양효(陽爻)로 이뤄진 괘는 각각 아홉인데 모두 뇌천대장(雷天大壯☳)과 풍지관(風地觀☶)으로부터 변하였다.

⑤ 예외의 괘는 풍택중부(風澤中孚☱)와 뇌산소과(雷山小過☱)다.-풍택중부와 뇌산소과의 괘 모양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개의 음(陰)과 두 개의 양괘(陽卦)로서 지택림(地澤臨☵)과 천산돈(天山遯☶)에서 괘가 변하여야 하지만 효의(一往一來)의 원칙으로는 괘변할 수 없기 때문에(서로 이웃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긋나므로) 변례로 처리하였다.

⑥ 변괘는 모두 건(乾☰)과 곤(坤☷)으로부터 온 것이다.

양(陽)이 불어나 삼효(三爻)에 이름을 말한다. 이효가 변하면 이(離☲)의 상을 이룬다. 이(離☲)는 해가 되고, 곤(坤☷)은 저녁이 된다.

순상(荀爽)³³⁾의 풀이

대신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면 건(乾☰)과 곤(坤☷) 풍택중부(風澤中孚☱☲)와 뇌산소과(雷山小過☱☲)를 제외한 나머지 60괘의 괘들은 괘변의 적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 원칙을 적용하면 68개의 괘사가 생겨난다. 괘변설의 해석에서 대략을 설명하지만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듭 언급해 둔다.

⑦자료상의 불일치 예들 - 수지비(水地比☵☲)는 일양(一陽)의 괘로서 지뢰복(地雷復☱☲)에서 변해야 하지만 주에는 지수사(地水師☱☵)에서 변했다고 하고, 산수몽(山水蒙☵☶)은 이양(二陽)의 괘로서 지택림(地澤臨☱☳)에서 변해야 하지만 중산간(重山艮☶☶)에서 변했다고 설명을 한다.

33) 순상(荀爽)에 대하여

자는 자명, 영천 사람이다. 열두 살에 춘추와 논어에 통하여 경서를 깊이 연구하면서 관직에 나오라는 부름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뒷날 동탁이 정권을 농락하는 과정에 피하지 못하고 삼공의 지위인 사공을 제수받았으나 동탁을 제거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재 원년 190년에 병으로 죽었다.

순상이 정립하여 주장한 이론 가운데 양은 올라가고 음은 내려간다는 양승음강설(陽升陰降說)이 있다.

혜동의 역한학에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순상은 역을 논하면서 양이 둘째 효에 있는 것은 곤 다섯째 효로 올라가 군주가 되고, 음이 다섯째 자리에 있는 것은 건 둘째 자리로 내려와 신하가 된다. 즉 건곤(乾坤) 2괘 속에 있는 음양(陰陽) 효위(爻位)의 승강(升降)이 팔괘와 64괘의 기초가 된다.

그의 주장을 강학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양승음강설(陽升陰降說)은 두 가지 사상을 담고 있다. 하나는 건곤(乾坤) 2괘가 나머지 6괘를 낳는다는 사상이다.

다른 하나는 음양(陰陽)의 올라가고 내려가는 움직임을 통해 각 괘의 괘상을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사상이다.

한편 우상은 자신의 괘변설에 체계를 세우면서 순상의 설을 직접 계승하는데 이로 인해 후세에는 순상이 괘변을 가장 먼저 강론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잠시 양승음강설(陽升陰降說)의 이해를 위해 강학위의 해설을 좀 더 곁들여 보자.

음양을 상징하는 건(乾☰)·곤(坤☷) 2괘는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

해(日)는 군주에 비유된다. 삼효가 아래 괘상의 끝에 있으므로 군주에 해당하는 자리다. 위와 아래의 소성괘가 모두 건(乾☰)으로 이루어져 건(乾☰)을 이어서 건(乾☰)을 행하므로 종일토록 굳세고 굳세게 하는 건건(乾乾)이다. 저녁에 두려운 듯이 함은 신하에 비유한 말이다. 삼효(三爻)는 오효(五爻)와 견주면 지위가 신하의 자리다. 곧 마땅히 유순한 도리를 닦아서 위태로움이 제거된 양으로 움직이므로 허물이 없다고 하였다.

간보(干寶)의 풀이

효는 기의 변화로써 나타낸다. 상징을 용(龍)으로서 대신해 설명했다. 인간사의 일에 관여하지 않음을 꺼리므로 군자로 나타냈다. 양(陽)이 구삼(九三) 효(爻)에 있음이니 정월의 때이고 지천태(地天泰☰)로부터 왔다. 양(陽)의 기운이 처음 지상으로 나와 만물로 나타남에 사람이 가장 신령스러우므로 인간사의 일로서 천지의 공을 이루게 됨은 여기 구삼(九三) 효에 있다. 그러므로 군자가 생각을 깊고 멀리하며, 조석으로 게을리 하지 않는다. 물러나 근심하여 아름다운 모임의 차례에 들지 못함과 곱어 두려워함으로 마땅한 이치의 조화에 미치지 못함은 반복하기를 천도로서 함이니, 처음에 피하고 끝에 돌이켜 살피므로 날을 마치도록 굳세고 굳세게 한다고 하였다. 이는 문왕이 나라를 돌아봄에 그 정치를 행하는 때의 괘상이다. 무릇 허물이 없다고 함은 근심하는 가운데 맞는 기쁨으로 일에 있어서 허물을 잘 보충한다는 뜻이다. 문왕³⁴⁾이 일찍 밝게 드러나는 덕을

되는 기본 괘다. 이 2괘 효의 자리가 서로 뒤바뀌어 건(乾☰)괘의 구이(九二)가 곤(坤☷)괘 육오(六五)로 올라가면 습坎(習坎☵)이 되고 곤(坤☷)괘 육오(六五)가 건(乾☰)괘 구이(九二)로 내려오면 중화리(重火離☲)가 된다. 이렇게 하여 감(坎☵)과 리(離☲) 2괘가 상경의 마지막이 된다. 또 감(坎☵)과 리(離☲) 두괘는 서로 배합하여 다시 수화기제(水火既濟☵☲)와 화수미제(火水未濟☲☵)가 되는데 이것이 하경의 마지막이다. 따라서 건(乾☰)·곤(坤☷) 2괘 속에 있는 음양(陰陽) 효가 자리를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팔괘와 64괘의 기초가 된다. 아래 본문의 지천태(地天泰☰) 및 뇌천대장(雷天大壯☳) 지택림(地澤臨☵) 등에 대한 순상의 해설은 좋은 자료가 된다.

34) 역의 과사와 효사

사기(史記)의 주본기(周本紀)에 의하면 문왕의 시조는 후직(后稷)이며, 이

름이 기(弃)였다. 기(弃)는 어머니가 강원(姜原)이니 제곡(帝嚳 - 요(堯)임금의 아버지)의 둘째 비(妃)였다. 그는 농사일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요임금이 그를 농사(農師)의 벼슬에 두었으며, 손임금은 태(郃)에 봉하고 후직(后稷)이라는 호를 내렸다.

후직이 죽은 후 아들 부줄(不窋)이 그 뒤를 잇는데, 부줄의 임기 말년에 하후씨의 정치가 쇠락해지자 농사에 힘을 쓰지 않으면서 조정에 두고 있던 농관의 직을 폐지하였다. 그로 인해 그는 나라에서 관직을 잃고 나라 밖 용적(戎狄)의 땅으로 거처를 옮겼다. 부줄(不窋)은 아들 국(鞠)이 대를 이어갔으며, 국이 죽은 후에는 아들 공류(公劉)가 뒤를 계승하였다.

공류의 업은 다시 그의 아들 경절(慶節)이 잇고 그는 삶의 터전을 빈(豳 - 지금의 섬서성 빈현(邠縣))으로 하였다. 다시 공류의 업은 고공단보까지 이어져 내려오는데 공류의 9대손이었던 고공단보는 어진 덕과 행실로 세상의 민심을 한몸에 떠안은 몸이 되었다.

그런데 그 무렵 그 터전을 넘보던 훈육족(薰育族)이 쳐들어오자, 고공단보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땅과 재물을 모조리 넘겨주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일족을 거느리고 빈을 떠나 칠수(漆水) 및 저수(沮水)를 지나고 양산(梁山 - 섬서성 건현(乾縣) 서북쪽)을 넘어 기산(岐山 - 지금의 섬서성 기산현(岐山縣)) 기슭으로 옮겨 갔다. 태뢰수(澤雷隨(雷))에 문왕이 유리옥(羗里獄)에서 돌아와 서산에 제사를 드렸다는 효사는 바로 이곳으로 고공단보가 처음 터전을 잡은 기산이다. 고공단보의 이와 같이 덕행은 인접 지역까지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귀속해 왔다. 고공은 그곳에서 차츰 터를 내리면서 나라의 풍속을 아름답게 만들고 성곽과 가옥을 구축했으며 관제와 직책을 만들어 사회질서를 바로잡아 갔으니 곧 주나라의 기반은 여기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고공에게는 태백(太伯)과 우중(虞仲)과 계력(季歷)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다. 큰아들은 태백이고, 둘째 아들은 우중이며, 막내가 계력이었다. 계력은 태임(太任)이라는 현부인을 아내로 맞아 칠을 낳았다. 창은 자라나면서 덕망이 있었다. 그래서 태백과 우중은 아버지인 고공단보가 장차 계력을 후계자로 삼아 나라의 통치권을 창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을 알아차리고 형나라 땅으로 옮겨가 왕위를 셋째인 계력에게 양보하였다. 고공단보가 세상을 떠나자 계력이 뒤를 이었으며 후직의 대통은 계력의 아들 창으로 이어져 내려갔다. 창은 문왕(文王)이다.

문왕은 당시 은나라의 임금이었던 제을(帝乙) 왕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제을 왕은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주(紂)의 아버지다. 주(紂)의 아버지 제을(帝乙)은 딸을 희창에게 시집보내고 그를 서백(西伯)의 제후로

한스러워하며 큰 환란을 무릅쓰셨고 일찍 유순함을 닦아 오히려 복되게 하는 이치를 생각하셨으므로 허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정현(鄭玄) 풀이의 해설

전체적으로 여섯 효의 자리는 천지인 삼재의 도를 본뜨고 있다. 그중 삼효(三爻)는 안 패의 끝이면서 인도(人道)의 시작이다. 천지의 공로에 참여함이 있으므로 오효가 모두 용(龍)으로써 표현하되 구삼(九三) 효(爻)는 홀로 군자라 일컬었다. 춘추(春秋) 원명포에 양(陽)이 삼효에서 이루어진

봉하였다. 서백 창은 덕망이 높아 나라 안의 사람들에게 어진 정치를 베풀었으므로 나라 안의 백성과 제후들로부터 신망을 한 몸에 받는 처지가 되었다.

당시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님이었던 주(紂)는 하나라의 걸(桀) 왕 못지않은 폭군의 이미지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주는 미녀 달기를 사랑하여 백성들에게 무겁게 세금을 매기고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재화와 보물을 녹대(鹿臺)라 불리는 누각에 가득 채웠으며 곡식도 산처럼 쌓아두고 연회를 즐겼다. 거기에 정원을 크게 확장하고 많은 술로 연못을 만들었으며 고기를 숲처럼 걸어 놓고 남녀를 발가벗겨 뛰어다니게 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큰 잔치를 되풀이하였다. (이는 술로 못을 이루고, 고기로 숲을 이룬다는 뜻으로, 극히 호사스럽고 방탕한 술잔치'를 가리키는 주지육림(酒池肉林)의 고사성어가 생겨나게 된 배경의 기록이다.)

이에 백성들은 원한을 품었으며 제후들은 배반하는 자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주왕은 포락의 형벌이라 불리는 끔찍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오히려 문왕을 유리옥에 가두었다. 포락의 형벌이란 구리로 기둥을 만들어 그 위에 기름을 바르고 활활 타는 숯불 위에다 올려 놓고, 죄인을 그 위로 건너게 하여 결국 미끄러져 불에 타 죽게하는 형벌이었다. 또 포락의 형벌 뿐이 아니었다. 기록에 의하면 주는 창(창)의 세력을 의심하여 창(창)의 친구인 악후와 구후의 살고기 젖을 서백의 희창에게 전했다. 희창은 그 패륜 행위에 할말을 잊고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느꼈다. 이를 지켜본 송후호는 주왕에게 그 사실을 고자질하여 주왕은 희창을 유리(羨里)옥에 감금시켰다.

문왕은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주역의 64괘에 말을 붙였다.

복희씨로부터는 약 2천 여 년 뒤의 일이고 은나라의 말기였다.

그러므로 주역의 괘사와 효사에는 이와 같은 당시의 시대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風天小畜의 괘사, 地火明夷의 전체 효사 등이다. 또 제율이 누이동생을 희창에게 시집보내는 고사와 관련된 괘들로는 지천태의 六五, 뇌택귀매의 괘·효사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다고 하였다. 이는 삼효(三爻)가 건(乾☰)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덕이 있으면서 인도(人道)에 있으므로 군자의 상이라고 한다는 뜻이다. 경에서 말하는 군자는 대체로 구삼(九三) 효(爻)를 뜻하니 이곳이 그 표본이다.

우번(虞翻)³⁵⁾의 풀이

35) 우번(虞翻)과 우번(虞翻)의 역(易) 1

우번은 자기의 5대조 할아버지로부터 대대로 맹희(孟喜) 역(易)을 전해왔다는 기록이 『삼국지』 우번 주에 등장한다.

“신의 고조부 고 영릉태수 광은 어려서 맹희의 역을 공부했고, 증조부 고 평여령 성은 고조부의 사업을 이어받았지만 조부 봉이 가장 치밀하게 공부했습니다. 신의 선고인 고 일남태수 흠은 본래 조부에게서 공부를 하여 옛 서적을 가장 많이 공부했습니다. 신까지 대대로 다섯 대에 걸쳐 가업을 이어왔습니다. 이전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였지만 장구를 다듬어서 신비로운 학설은 세웠지만 경전을 소홀히 하여 경전에서 멀어졌습니다. 신은 어지러운 세상에 태어나 군대에서 자랐고 복소리 속에서 경전을 공부했으며 전마 위에서 강론을 했고 스승들의 학설과 경전에 의지하여 주석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신의 고을 아전인 진도가 신과 도사가 서로 만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도사는 머리를 늘어뜨리고 사슴 가죽옷을 입고 역의 여섯 효를 늘어놓고 그 셋을 뒤섞어 신에게 삼키게 했는데 신이 그것을 다 삼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사가 역도는 하늘에 있으니 세 효로 족하다고 하였답니다. 신이 사명을 받았다면 경전을 아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 학자들의 해석을 두루 보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론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실상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고치고 바른 해석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고회민은 이 부분에 근거하여 우번의 역을 맹희의 역만을 계승하지 않고 상수역의 여러 학설을 결집한 것이라고 말한다.

“12일괘 6일 7분법은 맹희의 역을 계승한 것이고 그밖에 팔궁(八宮)·납갑(納甲)·호체(互體)·비복(飛伏)·효진(爻辰)·효체(爻體)·승강(升降) 등은 도사 위백양의 단도역의 납갑설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창안한 괘변(卦變)·반상 등의 새로운 설을 덧붙인 것이다. 후세의 사람들이 그를 양한 상수역의 최고봉이라고 한 말은 지나친 말이 아니다.

(6일 7분법, 팔궁(八宮)·납갑(納甲), 등의 역설은 주제별로 따로 정리하여 소개하겠음)

우번의 자는 중상, 출신은 회계(會稽) 여요(餘姚) 사람이었다.

그의 벼슬길은 처음 회계태수 왕랑 아래에서 녹사 벼슬인 공조(功曹)를 거쳤고 뒤에 오나라에 벼슬하였다. 그는 기품이 자못 높다는 평을 받았으며 여러 차례 위와 촉으로부터 높은 벼슬을 미끼로 그를 데려가고자 하였다. 한 왕실에 서는 시어사로 불렸으며 조조가 사공으로 초빙했으나 나아가지 않고 오나라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대신 오나라에 머물면서도 입바른 말로 손권을 여러 차례 화나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를 두고 성품이 세속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평했고, 교주로 유배를 당하기도 하였다.

다시 삼국지(三國志) 오서(吳書) 우번전(虞翻傳)을 보자.

그 전에 위나라 장수 우금이 관우에게 잡혀서 성안에 갇혀 있었는데 손권이 성에 이르러 우금을 풀어주고 만나보았다. 다른 날 손권이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갈 때 우금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고 우번이 우금을 꾸짖었다.

‘너는 행복한 포로 주제에 감히 우리 임금과 함께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가느냐?’며 채찍을 들어 우금을 치려고 하였다. 손권이 우번을 꾸짖으며 말했다. 나중에 손권이 누선에서 여러 신하들과 잔치를 벌였을 때 우금이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우번이 그것을 보고 또 말했다.

‘너는 속임수를 써서 죽음을 면하려느냐?’

손권은 마음이 매우 언짢았다.

오나라 왕의 자리에 오른 손권이 잔치 끝에 스스로 일어나 술을 돌리자 우번은 땅에 엎드려 취한 채하며 술잔을 받지 않았다. 손권은 매우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우번을 치려고 하였다. 모시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도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대사농 유기가 일어나 손권을 안고 말했다.

‘대왕께서 세 번 술잔을 내리신 후에 손수 재주 있는 선비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우번이 비록 죄가 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모를 것입니다. 또 대왕께서 재주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므로 해내의 사람들이 멀리서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명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손권이 대답하였다.

‘조맹덕도 공문거를 죽였다. 내가 우번을 죽인들 무슨 상관이나?’

유기가 대답했다.

‘맹덕은 선비를 가벼이 해쳐서 온 세상 사람들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왕이 몸소 덕과 의를 행하여 요순시대처럼 융성하게 다스리고자 하시면서 어찌 조맹덕에게 자신을 비교하려 하십니까?’

이리하여 우번은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손권은 지금부터 술을 마시고 나서 누구를 죽이라고 명령하거던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좌우에 명령을 내렸다.

우변이 배를 타고 가다가 미방과 만났다. 사람이 많이 탄 미방의 배에서는 우변의 배가 피하기를 바라고 물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소리쳤다.

‘장군의 군선을 피하십시오.’

우변이 사납게 소리쳤다.

‘충성과 신의를 잃어버린 사람이 어찌 임금을 섬기느냐? 남의 두 성을 빼앗긴 사람을 장군이라고 하는 것이 될 말이나?’

미방이 입을 다물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급히 배를 돌려 피했다. 후에 우변이 수레를 타고 가다가 또 미방의 진영을 지나치게 되었다. 문지기가 문을 닫고 수레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우변이 성을 내면서 말했다.

‘달아야 할 때는 열고 열어야 할 때는 닫다니 옳은 일이나?’

미방이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였다.

우변의 성격은 탁 트이고 곧았으며 술에 취해 자주 실수했다.

언젠가 손권이 장소와 신선을 논하고 있었는데 우변이 장소를 가리키며 말했다.

‘신선은 모두 죽은 사람인데 신선을 말하다니 세상에 어찌 신선이 있겠느냐?’

관우를 죽인 우변

여몽이 관우를 치려고 병을 핑계 삼아 건업으로 돌아가면서 우변이 의술을 알고 있다 하여 자기를 따라 오도록 청하였다. 아울러 이 기회에 우변이 사면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또 관우가 여몽에 의해 붙들렸을 때 죽어야 한다는 과상을 뽑아 죽게 만든 장본인이다. 해당 기록은 다음과 같다.

관우가 패하고 손권이 우변에게 점을 치게 했더니 아래가 태(兌☱), 위가 감(坎☵)인 수택절(水澤節䷻)이 본괘, 변하여 가는 지괘(之卦)는 지택림(地澤臨䷒)이었다.

우변이 ‘이틀을 넘기지 말고 관우의 목을 쳐야 한다.’ 고 하였다.

손권은 우변의 말대로 했다. 손권은 우변에게 ‘그대는 복희에게야 미칠 수 없을지 몰라도 동방삭에게는 비교할 수 있겠소.’ 하고 말했다. 우변에 대한 손권의 쌓인 분노 때문에 마침내 交州로 쫓겨났을 때는 부지런히 학문을 강의하여 제자들이 항상 수백여 명이 넘었다.

그의 전해오는 저서로는 노자 논어 국어의 훈주가 있다. 그가 交州에 있을 때는 산음의 정람과 태말의 서릉이 고을의 아전들 틈에 있어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우변은 단번에 알아보고 친구로 삼아 그들의 이름도 마침내 유명해졌다. 남쪽에서 지낸 지 십여 년 만에 70여 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의 역에 관한 평가는 소부 공융과 장광도 등의 편지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먼저 우번이 소부 공융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저술한 역의 주석을 보여주었을 때의 평이다.

‘연릉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듣고 선생께서 역학을 논하는 것을 보니 동남쪽 지방의 훌륭한 것이 회계의 죽전뿐만이 아님을 알겠습니다.’

‘온갖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추위와 더위를 살펴 응하며, 화와 복의 근원을 탐구하고 신령과 결합하여 맺어지니 밝힌바 깊이 감추어진 이치는 오묘한 경지까지 통하였다 하겠습니다.’

회계의 동부도위 장광도 공융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우번은 전에는 비평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원래 바탕이 아름다운 보배와 같으니 갈고 닦을수록 더욱 빛나게 되어 아무도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우번(虞翻)역의 특징

우번의 역에서 가장 특색이 있는 내용은 괘변설과 납갑설이다.

괘변설과 관련해서는 배합괘의 입장에서 역의 의미를 접근하는 방통(旁通)설과 취상(取象)설이 있다. 우번이 말하는 괘변(卦變)설의 요지는

첫째 역의 기본 8괘에서 6자녀 괘들은 하늘 건(乾☰) 땅 곤(坤☷)이 변해 이루어졌다는 설이다.

둘째 12벽괘(辟卦)가 변하여 잡괘가 된다는 설이다. 즉 건(乾☰)·곤(坤☷) 2괘가 10벽괘를 낳고 다시 10벽괘가 변하여 나머지 52괘가 되면서 64괘를 형성하게 된다는 논리다.

주역집해의 주석 한 구절을 참고하자.

“건(乾☰)이 곤(坤☷)을 밀어냄을 궁리(窮理)라고 하고, 곤(坤☷)이 건(乾☰)을 변화시키는 것을 진성(盡性)이라고 한다.” 다시 궁리의 과정은 하나의 양이 회복되어 자라나는 지뢰복(地雷復䷗)으로부터택천괘(澤天夬䷪)까지의 벽괘(辟卦)에 해당하고, 하나의 음(陰)이 자라나서 산지박(山地剝䷖)으로 이르는 변화를 진성(盡性)으로 보았다.

우번의 괘변설은 이지재가 괘변도로 그려 그 입장을 계승하였고 주희는 이지재의 괘변도를 자기 자신의 주역본의에 수록하여 역을 해석하는 하나의 주제로서 소개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바 그대로다. 물론 괘변설은 모순이 많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고할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본인의 입장에서 역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학문이므로 어디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했다고 보는지 그점은 역의 본질을 이해하게 하는 참고 자료로 삼을만 하다고 본다.

우번역(虞翻易)의 특징 2 -방통(旁通)

방통설과 관련된 해설은 배합괘(配合卦)와 관련된 괘상의 이해에서 소개한다.

방통은 건괘 문언전에 근거를 두고 있다. “6효가 발휘하여 두루 그 뜻을 통한다.(六爻發揮 旁通精也)

여기서 방통의 의미는 음(陰)이 양(陽)되기도 하고 양(陽)이 음(陰)되기도 하는 변화의 형태다. 그때 그 변화에서 음이 양되고 양이 음이 되면 이는 서로 대립하는 괘상이 되지만 우변은 이것이 서로 통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여 방통설을 주장하였다.

먼저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중지곤(重地坤䷁)에서 습감(習坎䷜)으로 변한 역림(易林)의 해석을 소개하기로 한다.

중지곤(重地坤䷁)에서 습감(習坎䷜)으로 변한 괘상의 의미를 두고 초공은 아래와 같이 단정지어 해석한다.

“제나라의 동곽이 사양개를 낙양에 시집보내니 준량들이 아름다움을 좋아해 중매의 이익이 배가 더 된다.” 고 하였다.

왜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될까? 주해를 보면 변한 습감(習坎䷜)에서 아래의 호괘(互卦) 진(震䷲)과 배합괘(配合卦) 중화리(重火離䷄)를 참고한 결과다. 습감(習坎䷜)의 이효(二爻)와 삼효(三爻), 사효(四爻)의 조합은 우뢰 진(震䷲)이다. 진(震䷲)은 후천 8괘에서 동방에 자리 잡고 있는 괘상이다. 또 습감(習坎䷜)은 중화리(重火離䷄)와 더불어 방통의 관계다. 그러므로 방통괘(旁通卦)인 중화리(重火離䷄)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그 내호괘는 손(巽䷸)이다. 손(巽䷸)은 가지런해지는 제(齊)다.(근거는 설괘전)

습감(習坎䷜)의 외호괘(外互卦)는 간(艮䷳)이다. 간(艮䷳)은 성곽[郭]이 되고, 감(坎䷜)은 다시 수레가 되고 청노(靑盧)가 된다. 그 까닭에 제나라의 동곽이 사양개를 시집보낸다는 앞의 문장에서 동제곽노(東齊郭盧)가 된다.

즉 艮은 都, 震은 嫁, 坎은 물도 되고 河洛도 되는 까닭에 嫁于洛都다. 한편 坎은 中男도 되고, 美好도 된다. 坎과 방통인 離는 호괘를 주목하는데 외호괘가 兌다. 兌는 巫가 되고 중매하는 媒象도 된다. 나머지 巽은 이익이다. 종합하면 이는 준량들이 아름다움을 좋아해 중매의 이익이 배가 더 된다는 俊良美好 媒利過倍다.

초공의 역 해석은 離와 坎의 상호 旁通卦에 근거하여 그 해석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방통괘에 주목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의 한 명이 바로 우변이다.

우변은 역의 의미를 풀이하면서 水地比와 火天大有가 서로 방통의 관계이고

風天小畜과 雷地豫가 방통하며, 天澤履와 地山謙이 방통하고 地水師와 天火同人이 방통한다고 본다. 곧 우번이 말하는 방통의 의미는 배합괘끼리 서로 통한다는 뜻이다.

그 까닭을 그의 설명을 통해 들어보자. 보기는 重火離의 괘사인 利亨貞의 해석이다. 그는 중화리의 괘사를 해석하면서 습감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坤의 이효와 오효가 乾으로 가서 重火離는 坎과 방통한다. 효에 있어서 天山遯 초효와 오효가 서로 변한 것으로 음유가 나란히 중정하니, 올바름에 이로워 형통한다.”

벽괘설에 따르면 重火離는 水雷屯가 변했다. 수뢰둔의 초효와 오효가 서로 변하면 중화리가 된다. 이때 重火離의 두 음효는 모두 중위에 거처하기 때문에 올바름에 이로워 형통한다고 말한다. 즉 중지곤괘의 이효와 오효가 중천건의 이효와 오효의 자리에 거처하면 중화리가 되는데, 중화리와 상대가 되는 괘는 습감이다. 따라서 우번은 습감이 어디에서 변했느냐를 따지고 그에 따라 괘상을 해석하는데 적용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결국 요지는 방통괘다.

방통괘의 적용은 한나라 이후 당나라의 상수학자들에 의해 괘상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근거로서 어김없이 받아들여졌다. 예컨대 雷火豐과 그 방통의 관계에 있는 風水渙의 효사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적용되는 예도 그 중의 하나이다.

먼저 두 괘의 관련되는 효사를 소개하자.

뇌화풍에서 보면 구사 효에 遇其夷主라는 구절이 있다.

반면 뇌화풍의 방통괘인 풍수환괘 육사에도 匪夷所思라는 구절이 있다.

앞과 뒤에서 夷자가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배합괘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하게 있다.

뇌화풍은 아래가 불 위가 우뢰다. 또 풍수환은 아래가 물, 위가 바람이다. 이들 괘상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배합괘의 관계다. 그러므로 두 구절에 모두 夷자가 들어 있는 것은 서로 괘상이 상반되는 점에서 그 근거가 찾아지게 되어 있다.

괘상의 이해는 반드시 배합괘도 참고해야 한다. 1

잡괘전에서는 감(坎)괘를 아래의 하(下)로 풀이하고 이를 위라는 상(上)이라고 하였다. 물은 흘러내리고-윤하(潤下)- 불은 타오른다-염상(炎上)-고 하는 성질에 바탕을 둔 풀이다.

序卦傳에서도 그 까닭에 困괘의 다음은 우물 井괘로 받게 되었다고 괘의 차례를 풀이한다. 위에서 궁색하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우물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잡괘전의 坎下離上이 그대로 반영된 설명이다.

반면 참동계에서는 坎과 離를 64괘 번역의 근원으로 이해한다.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어 건곤의 위치가 설정되어, 역은 그 가운데서 음양 2기가 배합하여 조화를 부리게 된다. 천지는 乾과 坤이다.(62괘의 상이 출입하는 문호가 건곤이다.) 위를 설정함은 음양배합의 자리를 설정한다는 뜻이다.

易은 坎離를 말한다. 따라서 坎은 乾의 1호가 坤에 들어간 것이고 離는 坤의 1호가 乾에 들어간 것으로서 건곤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坎離란 건과 곤의 두 번째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작용은 정해진 본체가 없이 건과 곤의 각 여섯 효의 빈자리를 위와 아래로 오르고 내리면서 일정한 장소가 없이 왕래하고 일정한 방향이나 법도가 없이 상하로 오르고 내린다.

坎과 離의 작용은 몰래 숨어서 드러나지 않으면서 강유가 번역하거나 기우가 생기는 등 여섯 효의 자리에서 활발하게 변화한다. 그리하여 감리의 작용이 64괘에 나타나서 만물의 소장, 만사의 길흉 등 일체를 포괄하여, 진퇴존망의 기미를 정하여 易道の 기강이 된다. 모두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물이 인간의 소용에 달는 것은 모두 물의 근저에 텅빈 허무가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6효의 소멸과 성장을 미루어 헤아리면, 거기에는 여러 괘의 형체가 있음을 볼 뿐이고, 坎離는 없어져 볼 수가 없는 법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위백양은 坎과 離가 역의 구체적인 작용을 가져오는 형태로 이해하면서 수레의 바퀴 축에 해당한다고 묘사한다.

乾괘와 坤괘는 주역의 62괘 상이 드나드는 문호(門戶)요, 여러 괘의 부모(父母)이다. 감괘(坎卦)와 이괘(離卦)는 주변의 성곽이다. 건곤(乾坤)과 감리(坎離)의 관계는 차바퀴의 바퀴통과 바퀴 축처럼 본체와 작용의 관계에 있다. 그로 인해 암컷인 음(牝陰)과 수컷인 양(牡陽)인 진(震)태(兌)손(巽)간(艮) 4괘가 이루어지니, 마치 건곤은 풀무상자요 감리는 바람통과 같다.

흔히 자연물로 유추할 때 감(坎)은 달로 보고 이(離)는 해로 본다. 그것은 감(坎)이 음에 둘러 쌓인 양으로 양이면서도 음이기 때문에 그 점이 강조된 결과다. 반면 이(離)는 음이면서도 양이다. 이 또한 괘상의 성격이 음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괘상의 모든 이해가 이처럼 복합적이다. 또 괘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배합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우번의 역설은 이정조가 채집한 주역집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불어나고 줄어드는 소식의 의미를 우번은 乾과 坤의 작용으로 분류하되,

‘乾은 늘어나 가득차고 坤은 줄어들어 빈다.’ 고 하였다.

그의 역설은 ‘消息’의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역집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하늘인 건과 땅인 곤의 작용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한다.

또 하나 우변의 특징인 納甲과 오행 육친의 설은 다음과 같다.

손괘 九五 : 先庚三日 後庚三日(앞 경의 날 3일, 뒤 경의 날 3일)에 대해 우변은 震이 庚을 받아들이므로 離가 날이 된다고 하였다.

雷澤歸妹 彖傳 : 천지의 대의다.(天地之大義也)는

‘乾은 壬을 받아들이고, 坤은 계를 받아들이므로 해와 달이 북쪽에서 만난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계사전에서 “8괘가 列을 지으니 象이 그 가운데 있다.(8卦成列象在其中矣)”는 우변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乾과 坤은 東에, 艮과 兌는 南에, 震과 巽은 西에. 坎과 離는 가운데 자리한다.”

즉 乾과 坤이 東에 있다는 의미는 納甲에서 乾은 甲을 받아들이고, 坤은 乙을 받아들여 갑과 을이 동쪽의 木에 해당한다는 뜻이고,

艮과 兌가 南에 자리한다는 뜻은 艮은 丙을, 兌는 丁을 받아들이므로 丙과 丁이 남쪽인 火가 된다는 의미다.

震과 巽이 서쪽에 있다는 것은 震이 庚을 받아들이고, 巽이 辛을 받아들여 庚과 辛이 서쪽의 金이 된다는 말이다.

坎과 離도 마찬가지다. 坎은 戊를 離는 己를 받아들여 戊와 己가 중앙의 土가 된다.

우변의 역을 이해하는데는 삼국지의 우변전 주석인 우변별전에 소개된 순상과 마옹 정현 송충의 역학에 관한 논평도 참고할만하다.

“한대 초기 이래로 해내의 역을 공부하는 영재들 가운데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영제 시대에 이르러 영천의 순상이 역을 안다고 하여 그의 주석을 읽어 봤으나 속유들보다 더 엉뚱한 해석도 있었다. 특히 서남쪽에서는 친구를 얻고 동북쪽에서는 친구를 잃는다는 구절은 그 의미를 거꾸로 해석하여 이해할 수 없었다.”

“남군 태수 마옹은 준재라고 이름이 나 있지만 그가 해석한 것은 순상의 해석만 못하다.”

“북해의 정현 남양의 송충도 각각 주석을 냈지만 송충은 정현보다 조금 못하다.”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그만큼 자기 자신의 역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했던 우변의 면모를 엿볼 수가 있다.

옛적에 복희씨가 10언의 가르침을 지으셨다고 함은 건(乾☰)·곤(坤☷)·진(震☳)·손(巽☴)·감(坎☵)·이(離☲)·간(艮☶)·태(兌☱)·소식(消息)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산지박(山地剝☶) 단전에 ‘군자가 소식영허(消息盈虛)의 이치를 숭상한다’고 하였다. 역위에서도 ‘성인은 음양이 일어나 불어나고 녹음을 인하여 건곤(乾坤)을 세워서 천지를 거느렸다’고 하였다. 이때의 소식(消息)이란 성인이 패상을 세우고 효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근본이니 단전과 상전을 매다신 뜻이다. 한나라 사람들의 역설에는 소식영허의 이치로 패를 해석함이 매우 많았으니 맹희, 순상, 정현 등 이외에도 우변의 역설에 더욱 상세하다. 식(息)은 불어난다는 장(長)의 뜻이다. 양(陽)이 점점 불어나 삼효(三爻)에 이르면 지천태(地天泰☵)가 된다. 그 중 이효(二爻)는 자리가 어긋나 있으므로 변해서 바르게 되면 패상이 이(離☲)를 이룬다. 여기서 이(離☲)는 해가 된다는 해설은 설괘문의 뜻이다. 지천태(地天泰☵)의 위 소성패는 땅인 곤(坤☷)으로 어두움이니 저녁 夕이 된다.

참고 : 아래의 패상은 삼효로 끝난다. 그러므로 날을 마친다는 종일(終日)이다. 삼효로 불어나 지천태(地天泰☵)를 이루고 다시 이는 천지비(天地否☷)로 돌아가 반복되므로 乾으로서 乾과 교차하면서 날을 마치도록 군세고 군세게 노력한다고 하였다. 우변의 주석에서 重雷震 六五 효를 설명하면서 厲는 위태롭다는 危라고 했으니 자세한 해설은 그곳을 참고하라. 이효가 변해 삼효 중심의 내호패 坎은 두려움이 된다. 지천태(地天泰☵)와 천지비(天地否☷)의 사괘는 양의 도가 위태로우므로 저녁에 두려운 듯하면 위태롭다고 하는 석척약(夕惕若) 려(厲)다. 자리를 바르게 함으로 허물이 없다. 한 효의 뜻을 두고 군주와 신하에 비유함은 제후국의 자리에서 보면 군주가 되지만 천자국의 자리에서 보면 신하가 되는 이치³⁶⁾다. 즉 구삼이

36) 효는 자리에 따라 의미하는 개념이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국가	인간	동물	가족
上爻	上王 國師	팔	앞발	할아버지
五爻	임금	머리	머리	아버지
四爻	재상	몸통	몸의 앞부분	형 언니
三爻	제후	넓적다리	몸의 뒷부분	동생
二爻	선비	정강이	뒷발	어머니

제후국으로 보면 군주가 되고 천자 국으로 보면 신하가 된다. 대개 궤에는 안과 밖이 있다. 그러므로 한 효에 군주와 신하가 다투어 나타난다. 박아(博雅)에 ‘해는 군주의 상’이라고 하였다. 해는 양(陽)을 주장하고 군주는 陽이다. 그러므로 해로서 군주에 비유하였다. 여기서는 3효가 아래 궤상의 맨 끝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내괘의 군주가 된다. 위로 천자가 속한 건(乾☰)을 잇고 있으므로 제후의 건(乾☰)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굳세고 굳세다는 건건(乾乾)이다. 저녁은 음(陰)을 주장하고 신하는 음(陰)이다. 그러므로 저녁으로서 신하에 비유하였다. 계사하전에 삼효(三爻)와 오효(五爻)는 공(功)이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삼효(三爻)는 오효(五爻)를 섬기는 점에서 보면 신하가 된다. 신하는 지나치게 강해서는 안 되므로 반드시 유순한 도리를 속히 닦아서 양의 굳셈으로 행하면서도 위태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곧 허물이 없게 되는 이치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효는 기운의 변화로서 나타낸다고 함은 9와 6³⁷⁾의 변화를 뜻한다. 상징을

初爻	백성	발	꼬리	손자
----	----	---	----	----

37) 주역 삼천양지(參天兩地)의 수

우주 만물은 수에 의지하여 볼 때 오직 1부터 10까지의 열 가지 수의 안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설괘전에 나오는 역의 개념은 모조리 10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 가운데 만물을 낳는 형이상학적인 본질의 수 1부터 5까지를 놓고 보면 계사전에서 말하는 삼천양지(三天兩地) 수다.

① 삼천(三天) - 하늘의 수 1, 3, 5를 합하면 9다. 이는 태양(太陽)의 수다. 양지(兩地) - 땅의 수 2, 4를 더하면 6이 된다. 이는 태음(太陰)의 수다.

② 기본이 양(陽)은 3, 음(陰)은 2이므로 $3 \times 2 = 6$ 이 된다. 이는 궤상의 6획 궤다.

③ 기본이 양(陽)은 3, 음(陰)은 2이므로 3획이 모두 양에 속하는 하늘 건(乾☰)은 $3 \times 3 = 9$ 로 태양(太陽)의 수다.

기본이 양(陽)은 3, 음(陰)은 2이므로 3획이 모두 음(陰)인 땅 곤(坤☷)은 $3 \times 2 = 6$ 이니 태음(太陰)의 수다.

④ 주역이 9, 6획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같은 음양(陰陽)이라도 7과 8은 변하지 않는 수이지만 9와 6은 변하는 수이기 때문이다. 즉 변하는 것이 역이라

龍으로 대신해 드러냈다고 함은 중지곤(重地坤䷁)의 오효(五爻)를 모두 용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효(三爻)는 인도(人道)에 해당하는 자리이니 군자로 대신하여 인사(人事)와 결부시켰다. 삼효는 지천태(地天泰䷊)로부터 왔다고 함은 陽이 불어나 三爻까지 이르면 지천태(地天泰䷊)가 된다. 정월의 때이니 양의 기운이 땅 위로 처음 나와 동물에 접하는 때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어 한 패의 주인으로 자리 잡은 때다. 지천태(地天泰䷊) 상전(象傳)에 천지의 도를 마름질하여 완성하고 천지의 마땅한 이치를 도와 전개한다고 했으니 그 뜻이 바로 이곳의 九三에 있다. 그러므로 陽이 九三효에 있으니 정월의 때이고 지천태(地天泰䷊)³⁸⁾로부터 왔다고 하였다.

이처럼 군자의 말은 바 소임과 책임이 무겁고 크므로 생각을 깊고 멀리 하며 조석으로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물러나 근심하여 아름다운 모임의 차례에 들지 못한다’고 함은 형통함을 말한다.

‘굽어 두려워함으로 마땅한 이치의 조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함은 이로움을 말한다.

반복하기를 하늘의 법도로서 하되 처음에 피하고 끝에 돌이킨다는 구절에서 처음의 始는 건원(乾元)의 元에 해당한다. 끝의 終은 끝나는 貞을 나타내는 말이다.

군자가 이 네 가지 덕을 닦아 매사에 힘쓰므로 날을 마치도록 굳세고 굳세게 하는 종일건건(終日乾乾)이 된다. 그리고 오직 문왕만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에 있어서 족히 이와 같았다. 3효는 중덕(中德)을 얻지 못했고 위로는 너무 높이 올라간 상구와 호응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허물이 있는 자리다. 그러나 (양이 양자리의) 바름³⁹⁾을 얻어 능히 아침에도 굳세고 저

는 이치를 9와 6은 보여준다.

38) 벽괵설로 볼 때 양이 구삼(九三) 효까지 자랐다면 지천태(地天泰) 괵다. 중천건(重天乾)괵 구삼(九三) 효가 지천태로부터 왔다는 말은 바로 이를 뜻한다. 나머지 벽괵설에 대해서는 앞쪽의 맹희 주석에서 다루었다.

39) 괵상과 괵사 효상과 효사 및 괵상의 자리

주역의 기본 8괵는 서로 낱낱의 관련 아래 6획괵인 대성괵를 이루는 데 그

덕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함으로 허물이 없게 된다. 계사상전에 허물이 없다는 것은 과실을 잘 보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위의 주석에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근심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고 허물을 잘 보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문왕은 서백의 제후 신분이었다. 그덕의 문명함이 천하에 드러나 빛났으므로 비렴(飛廉)이 주왕에게 참소하는 화를 입게 되었다. 이에 주왕이 꺼리는 바가 있어 유리옥에 유폐시키는 환란을 무릅써야 했다. 마침내 그 후 나라로 다시 돌아와서는 더욱 유순한 덕을 닦아 오히려 복되게 하는 이치를 생각하셨으므로 이로써 허물이 없게 되었다. 대학에 군주된 사람은 어진 데 그치고 신하된 사람은 공경함에 그친다고 하였으니 실은 본 조를 얻은 뜻에 통한다. 그러므로 순상의 설과 더불어 서로 합치되는 말이다.

구 사 ^{혹 약 제 연 무 구}
九四, 或躍在淵, 无咎.

구사는 혹 뛰어 오르나 못에 있으면 허물이 없다.

최경(崔憬)⁴⁰의 풀이

것이 8×8=64라는 숫자의 64괘다. 이 64괘는 아득한 고대 중국의 복희씨가 처음 고안했다고 하는데 그 낱말의 괘에는 그 괘만의 고유한 부호의 조합(괘상:卦象)이 있고 그 괘상에는 그 괘의 의미와 성질을 판단해주는 말이 그 그림의 아래 붙어 있다. 이를 문왕이 붙였다고 하는 괘사(卦辭)라고 일컫는다.

반면 하나의 괘상은 여섯괘의 음 혹은 양의 부호가 합성하여 이루어져 있으므로 문왕이 붙였다는 여섯획의 부호에 대한 의미와 성질을 판단하는 괘사와 달리 낱말의 효사에 대해 그 의미와 길흉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효에 대한 말이 있다. 이것이 곧 효사(爻辭)이다.

이때 효사를 명칭은 아래로부터 위의 여섯 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상효까지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로 그 자리를 구분하는데 어떤 효의 자리가 몇 번째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양의 자리 혹은 음의 자리로 구분한다. 즉 초(1), 3, 5효의 자리는 양의 자리이고 2, 4, 상(6)의 자리는 음의 자리이다. 그래서 그 효사가 양의 자리에 양효가 음의 자리에 음효가 오면 자리가 올바르게 當位 혹은 得位했다고 말하고, 음의 자리에 양효가 양의 자리에 음효가 오면 자리가 바르지 않아 失位 했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효사의 내용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자리가 당위이면 길하고 당위가 아닌 失位면 흉하다.

40) 최경에 대하여

그의 생애는 고증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그의 저술은 이정조가 인용한 『주역집해』에 두루 인용되고 있다. 그곳의 자료에 따르면 그의 저술로는 『주역탐현』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정조는 그의 견해를 새로운 뜻이라고 보았는데, 그 가운데 공영달의 주석을 끌어와 평론을 가한 것이 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볼 때 최경은 당대의 인물로 공영달보다는 뒤 시대에 해당하고, 이정조보다는 앞 시대에 활동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정도다.

『주역집해』에 실린 문장의 분위기를 참고하면 『주역탐현』은 공영달의 주석서가 왕필 역학에 의존해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지녔다. (알려져 있다시피) 왕필은 괘상을 경시하여 취상설(取象說)에 찬성하지 않았는데, 최경의 역학은 왕필에 반대하는 관점에서 있었다. 『주역집해』의 성격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역학은 경향 자체가 상수(象數) 학파에 속했다. 그는 취상설(取象說)을 극력 주장하면서 괘기설(卦氣說)과 호체설(互體說)을 강론하였다. 그 점에 있어서 최경의 설은 이정조에 의해서 특별히 중요시되고 인용하는 대목도 무척 많다.

그가 보여준 역학 해석의 특징은 괘상이 주역의 근본이라고 주장하는 점이다. 『주역집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괘변설(卦變說)과 납갑설(納甲說) 따위로 역을 강론하지 않는다. 다만 의리 역학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역학을 연구하는 중심은 의리에 두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괘상을 통해 역의 이치를 연구할 것을 강조한다.

왕필파 즉 공소(孔疏)로 대표되는 관방역학에서 괘상을 버리고 역의 깊은 이치만을 전문적으로 서술하려는 방법과는 아주 대조를 이루는 연구 자세였다.

그러므로 그는 계사전에서 말하는 역이란 상이라는 구절에 대해서 “위로 취상(取象)을 밝히기를 기물을 제작하는 뜻을 가지고 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상에 관하여 거듭 해석하였다. 그 뜻은 역이란 만물을 형상한다는 말이다. 상(象)이란 곧 형상을 의미하는 상(象)이다.”

곧 최경에 의하면 주역의 근본은 괘상이다.

“역(易)이란 책은 삼재(三才)를 밝혀서, 넓어 뒤덮지 않는 것이 없고, 거대하여 포함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두루 갖추어서 만물의 상이 있다는 말이다.”

또 최경은 괘기설을 취하여 괘명의 의의를 해석하는 입장이었음을 강학위(康學偉)는 밝히고 있다.

“帝(상제)가 나온다는 것은 하늘의 왕기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춘분(春分)에 이르면 진(震☳)이 왕이어서 만물이 출생한다. 입하(立夏)에는 손(巽☴)이

말하자면 군자가 덕에 나아가 업을 닦고 때에 미치고자 함이다. 마치 용(龍)이 스스로 하늘을 향해 도약하기를 시험하되 의심하여 못에 있는 것이다. 오르고 내리며 나아가고 물러감이 사사로운 뜻을 쫓아 무리를 떠남이 아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

간보(干寶)의 풀이

양의 기운이 사효(四爻)에 있으니 2월의 때다. 뇌천대장(雷天大壯䷡)으로부터 왔다. 사효(四爻)는 가운데가 비었다. 뛰어오른다고 함은 잠시 일어난다는 말이다. 이미 편안하지 않은 땅이고 능히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한다. 사효(四爻)는 초효(初爻)와 호응관계이고 못은 초구 甲子를 일컬으니 용이 말미암아 오르는 바다. 혹이라고 함은 의심함이다. 이는 무왕이 맹진에서 병사를 일으키되, 피로서 맹약을 맺고 물러나는 효다. 유순함을 지키면 하늘과 사람이 응해 음에 거슬리고, 권도에 통하면 조리로 떳떳한 가르침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성인이 부득이하게 행했으니 그로 인해 그 말이 의심스럽다.

최경(崔憬) 풀이의 해설

이는 모두 문언(文言)의 뜻을 쫓아 효사를 해석한 관점이다. 九三이 굳세게 하고 두려워함은 덕에 나아가 업을 닦음이다. 九四가 혹 도약하면 때에 미치고자 함이니 스스로 시험함이다. 4효가 변해 바르게 되면 위의 패상이 손(巽䷸)을 이룬다. 설패전에 손(巽䷸)은 나가거나 물러가는 진퇴(進退)가 되고 과단성이 없음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혹이 된다. 또한 龍이 스스로 시험하고자 하여 위의 5효로 도약함과 같으며 또 의심하여 물러가 초효에 거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르고 내림이 간사함이 되지 않으며, 나가고 물러감이 무리를 떠남이 아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

왕이어서 만물이 정제된다. 하지(夏至)에는 이(離䷄)가 왕이어서 만물이 서로 보게 된다. 입추(立秋)에는 곤(坤䷁)이 왕이라서 만물이 발육을 다 한다. 추분(秋分)에는 태(兌䷹)가 왕이라서 만물이 기뻐한다. 입동(立冬)은 건(乾䷀)이 왕이라서 만물이 돌아온다. 입춘(立春)은 간(艮䷳)이 왕이어서 만물이 끝마침을 하고 시작을 다시 한다. 천하를 두루 돌아 임금 노릇을 하므로 제(帝)라고 한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양이 불어나 사효에 이르면 때가 2월에 해당한다. 패상은 뇌천대장(雷天大壯䷡)이 되니, 뇌천대장(雷天大壯䷡)으로부터 온 게 된다. 삼효(三爻)와 사효(四爻)는 삼재(三才)⁴¹⁾로 보면 여섯 효의 가운데 자리다. 삼효(三爻)는 땅에서 가깝고 인도에 속하는 자리다. 사효(四爻)는 위로 하늘도 아니고, 아래로 땅도 아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사람도 아니라고 했으므로 가운데 비어 있다. 뇌천대장은 사효가 진(震䷲)의 패상이다. 설패전에 진(震䷲)은 다리(足)가 된다고 하였고, 또 진(震䷲)은 움직임(動)이라고 하였다. 뛰어오름이 잠시 일어난다는 말은 다리로 움직이는 뜻이 있음을 말한다. 아래로 땅에 있지 않고 위로 하늘에 있지 않으므로 이미 땅에 편안하지 않고 능히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한다고 하였다. 호응관계로 보면 사효는 초효(初爻)와 짝이다. 못은 초효 갑자(甲子)를 말한다⁴²⁾고 함은 자(子) 수(水)가 못에 있기 때문이다. 지지(地支)의子是 11월 동지의 패다. 때에 물 만물이 모두 움직인다. 움직임이 지극한 뒤에 열린다. 못은 또 물이 된다. 그러므로 용의 말미암아 오르는 곳이라고 하였다. 혹이라는 표현은 의심하

41) 대성패와 천지인 삼재

팔괘의 본체 중심		대성패의 작용 중심	
하늘	上爻	上爻	하늘
사람	五爻	五爻	하늘
땅	四爻	四爻	사람
하늘	三爻	三爻	사람
사람	二爻	二爻	땅
땅	初爻	初爻	땅

42) 팔괘가 주장하는 계절의 기운을 나타내는 도표

괘명	艮	震	巽	離	坤	兌	乾	坎
방위	丑 艮 寅	甲 卯 乙	辰 巽 巳	丙 午 丁	未 坤 申	庚 酉 辛	戌 乾 亥	壬 子 癸
기능	濕化 주장.	動化 주장.	風化 주장.	暑化 주장.	형체를 이룸.	燥化 주장.	만물을 날음.	寒化 주장.
관련 패상 배당	艮頤遯咸 旅漸小過 謙	震恒无妄 隨噬嗑益 屯復	巽家人姤 大過鼎蠱 井升	離晉同人 革豐既濟 賁明夷	坤臨否萃 觀豫剝比	兌夬履睽 中孚歸妹 損節	乾訟大有 小畜大壯 大畜需泰	坎蹇困未 濟渙解蒙 師

는 말이라고 함은 문언전의 해설이다. 무왕이 맹진에서 병사를 일으켜 피로써 맹약하고 물러가니 마땅히 형세가 이효의 뜻에 해당한다. 유순함을 지키면 하늘과 백성의 호응에 어긋나므로 물러나고자 하나 물러나지 못한다. 권도에 통하면 뒤흔든 법도의 가르침에 어긋나므로 나가고자 하나 나가지 못한다. 나가고 물러남이 둘 다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포악함을 치는 길로 나서게 되므로 의심스러워 결단하지 못한다. 그 바라는 바가 紂의 허물을 돌이켜 스스로 새로워짐을 바라는 것이니 뜻의 견고함을 헤아릴만하다.

구오, 飛龍在天, 利見大人.

구오는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봄이 이로우리라.

정현(鄭玄)의 풀이

오효(五爻)는 삼재(三才)에 있어서 천도(天道)가 된다. 하늘이란 청명하여 형체가 없다. 용이 있음에 나는 괘상이다.

우번(虞翻)의 풀이

사효(四爻)가 이미 변했다면 오효(五爻)는 괘상이 이(離☲)다. 이(離☲)는 나는 게 된다. 오효(五爻)는 하늘에 있으므로 나는 용(龍)이 하늘에 있어서 대인을 봄이 이로운 게 된다. 만약 포희씨가 하늘의 상을 보고 8괘를 지으심에 물을 갖추어 솜에 이르러 천하를 이롭게 하신 때다. 그러므로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고 하였고, 천하 사람의 이로운 바가 되는 것이다.

간보(干寶)의 풀이

양이 구오(九五)에 있으니 삼월(三月)의 때이고, 택천괘(澤天夬☱)로부터 왔다. 오효(五爻)는 자리가 하늘이 되므로 나는 용이라고 하였다. 이는 무왕이 주왕을 쳐서 자리를 바로 하는 효다. 성스런 공에 이미 나아가 만물이 우러러봄으로 대인을 봄이 이롭다고 하였다.

정현(鄭玄) 풀이의 해설

여섯 효 가운데 오효(五爻)와 상효(上爻)는 하늘의 자리다. 위로 부상하는 것은 기운이 된다. 그 기운은 청명하여 형체가 없다. 설문에 용은 춘분(春分)에 하늘로 오른다고 하였다. 사효는 소식에서 2월이 된다. 절기로는 춘

분의 때이니 이미 도약하여 스스로 시험하는 형세가 있다. 오효(五爻)는 날라서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형상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사효는 자리가 어긋나 있다. 변해서 바르게 되면 오효의 호괘가 離다. 그 離가 나는 게 된다고 함은 설괘전에 離는 썩이 된다고 했으니 괘박의 동림에 離는 朱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離에 나는 새의 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난다는 飛가 된다. 오효는 하늘의 자리에 있다. 곧 정씨가 말하는 오효가 하늘의 자리가 된다는 뜻으로 통하는 말이다. 문언전에 대한 우번의 주석에 보면 해가 솟아 만물을 비추면 만물이 모두 서로 보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봄이 이롭다는 말이 된다. 또 계사전의 주석에 문왕이 경을 쓰심에 포희씨를 중천건(重天 乾䷀) 오효에 결부시켰다. 포희는 곧 태호씨다. 가어(家語) 오제덕(五帝德)에 태호는 木의 덕에 짝이 된다고 하였다. 좌전 소공 17년에 태호씨가 용(龍)으로서 버리를 삼으므로 용사(龍師)가 되는 용으로 이름하였다. 포희씨가 대개 목덕(木德)으로 왕노릇을 했으므로 용으로서 관직 등에 기틀을 삼았다. 월령에 “계춘의 달은 임금이 태호씨다.” 때는 택천쾌(澤天夬䷪)이고 자리는 군주가 된다. 오제(五帝)로 보면 맨 앞이 되고 8괘에 있어서는 처음 열리는 때가 된다. 그러므로 포희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왕일(王逸)은 천문주(天問注)에서 복희씨가 처음 8괘를 그리고 도덕을 닦아 행하여 만민의 위에 임금으로 올랐다고 했으니 그 말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상전에 대인이 짓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상을 보아 8괘를 지었다고 하였다. 계사하전에 노끈을 꼬아 그물을 만들어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으니 이는 중화리(重火離䷄)에서 취해왔다고 하였다. 사효가 변하면 괘상은 이(離䷄)다. 따라서 물을 갖추어 씬에 미쳐 천하를 이롭게 한다고 하였다. 문언에 성인이 일어나심에 만물이 우러러본다고 했으니 이는 나는 용이 하늘에 있어서 천하를 이롭게 하는 바를 말함이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양(陽)이 불어나 오효(五爻)에 미치면 괘가 택천쾌(澤天夬䷪)가 되고 달에

있어서는 진(辰)이 된다. 象에 있어서 진(辰)은 용(龍)에 속한다. 오효는 삼재(三才)로 보면 하늘 자리가 되므로 나는 용이 하늘에 있는 상이다. 오직 무왕(武王)이 주(紂)를 쳐서 자리를 바르게 하는 상황과 일치한다. 성스런 공이 이미 위에 미쳤으므로 만물이 아래로부터 본다. 이른바 성인이 일어나심에 만물이 우러러본다고 함은 곧 대인을 봄이 이로운 뜻이다. 양웅이 ‘용의 잠기고 너무 높음은 중을 얻지 못함이다. 중(中)을 지나면 두렵다. 중에 미치지 못하면 뛰어 오른다. 이효와 오효는 그 중이 된다. 그러므로 바라봄이 이로운 점이 된다’고 하였다.

상 구 항 룡 유 회
上九, 亢龍有悔.

상구(上九)는 끝까지 오른 용이니 뉘우침이 있을 것이다.

왕숙(王肅)의 풀이

끝까지 올라 높아진 것이 亢이다.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날 줄은 모르므로 뉘우치게 된다.

간보(干寶)의 풀이

양(陽)이 상구(上九)에 있으니 4월의 때다. 亢은 지나치다는 뜻이다. 중천건(重天乾䷀)의 괘상은 이미 갖춰졌다. 윗자리에서 이미 마쳤다. 하늘의 만물을 복돋움이 추위와 더위로 서로 알려준다. 성인의 세상을 다스림이 위와 덕행이 가지런하다. 무공은 이미 이루어져 이치의 마땅함이 창을 거둠에 있다. 가득 찼음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뉘우침에 이른다.

참고

인간의 일로 이를 생각한다면 결(桀)왕이 남소(南巢)에서 쫓겨나고 탕 임금에게 부끄러운 덕이 있는 바로 그런 경우다.

왕숙(王肅) 풀이의 해설

양(陽)의 강한 효로서 맨 위의 자리에 거처하여 너무 높이 치우쳐 올라갔다. 그러므로 끝까지 높이 올라갔다고 말한다. 구사(九四)가 위 괘상의 아래 자리에 위치하여 나아가고 물러갈 줄을 안다고 할 수 있으나 상구(上九)는 윗 괘의 윗자리에 위치해 있으므로 나갈 줄만 알고 물러갈 줄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다. 나아가고 물러갈 줄을 안다면 이는 허물이 없다. 그

러나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갈 줄을 모른다면 뉘우침이 있기 마련이다. 계사상전에 ‘움직여 허물이 없음은 뉘우치는 데 있다’고 했으니 마땅히 변해 바르게 됨을 밝힌 말이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양이 불어나 상호에 이르면 순전한 양효(陽爻)만의 중천건(重天乾䷀)이 되니, 4월의 괘상이다. 항(亢)이 지나치다는 것은 양이 지나쳐 높음을 말한다. 중천건(重天乾䷀)의 괘상이 이미 갖춰져 윗자리까지 이미 마쳤다. 계사하전에 易이 다하면 변(變)하고 변하면 통(通)하며 통하면 오래간다고 하였다. 만약 다했으면서도 변할 줄을 모른다면 가득 찬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늘의 만물을 냄이 찬 것이 가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온다. 추위와 더위가 서로 교차하지 않으면 만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성인의 세상을 다스림이 너그로우면서도 동시에 사납고 사나우면서도 또한 너그럽다. 덕과 위외가 서로 가지런하지 않으면 세상이 결코 다스려지지 않는다. 선공 12년 좌전에 무릇 문은 창에 그치면 무(武)가 될 뿐이라고 하였다. 만약 무공이 이미 이루어지고도 창을 거두어 들이는 이치의 마땅함을 알지 못하면 가득 찬 형세가 오래 가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뜻을 자랑하고 궁색함이 많은 데 따른 뉘우침을 결코 피해가지 못한다.

우안(愚案)

서경(書經)에 가득 채움은 손해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가어(家語)에도 ‘공자가 주나라의 묘를 보니 기울어져 있는 그릇이 있었다. 자로로 하여금 공자는 물을 부어 시험해 보게 하였다. 그 그릇은 가득차면 엎어지고 알맞으면 바로 서며 텅 비면 기울어졌다.’고 말한다. 우씨는 계사전 주석에서 중천건(重天乾䷀)은 가득 차면 움직여 기울게 되므로 뉘우침이 있다고 했으니 곧 이들이 모두 여기에서 하는 말과 같은 뜻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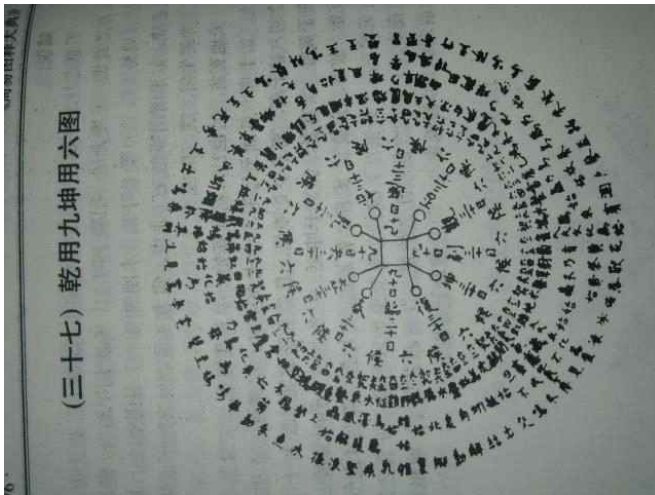
참고

상서 중휼지고(仲虺之誥)에 성탕이 걸을 남소에서 내치실 때 오직 부끄러워하는 마음 뿐이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대가 오는 세상을 두려워하여 台로써 구실(口實)을 삼는다고 했다. 신하로서 임금을 치고 높아서 뉘우침

이 있는 과상이다. 다만 홀로 탕 임금을 예로 든 것은 아래 사람이 위사람을 내치는 시작이 탕 임금이었기 때문이다.

용 구 見羣龍無首 吉.

구(九)를 씀(用九)⁴³⁾⁴⁴⁾은 여러 마리의 용을 보되 앞장서지 않으면(無首)



43) 건용구(乾用九) 곤용육도(坤用六圖)

원 안의 과상은 12벽과설 가운데 변화의 마디를 이루는 과상이고, 안에서 첫 번째 숫자들은 해당 과상의 효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 계절의 변화가 보여주는 특징적인 현상들이다.

주역의 변화를 수로 나타낼 때 九와 六으로 표시한다.

양이 九에 이르면 변한다. 음이 六에 이르면 변한다.

九가 변하면 팔을 거쳐 六으로 가고 六이 변하면 칠을 거쳐 九로 간다.

하늘의 운행은 地雷復으로부터 90일이면 地天泰 上六에 이르고

雷天大壯으로부터 90일이면 重天乾 上九에 이른다.

또 天風姤로부터 90일이면 天地否 上九에 이르고

風地觀으로부터 90일이면 重地坤 上六에 이른다.

이는 모두 360일로 陽의 候가 된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復과	臨과	泰과	大壯	夬과	乾과	姤과	遯과	否과	觀과	剝과	坤과	復과
子月	丑月	寅月	卯月	辰月	巳月	午月	未月	申月	酉月	戌月	亥月	子月
대설	소한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로	한로	입동	대설
동지	대한	우수	춘분	곡우	소만	하지	대서	처서	추분	상강	소설	동지

황중	대려	태주	협중	고선	중려	유빈	임중	이측	남려	무역	응중	황중
玄枵	星紀	析木	大火	壽星	鶉尾	鶉火	鶉首	實沈	大梁	降婁	娵訾	玄枵
북방 7수		동방 7수			남방 7수			서방 7수			북방 7수	
·危·虛·女·牛·斗		箕·尾·心·房·氏·亢·角			軫·翼·張·星·柳·鬼·井			參·觜·畢·昴·胃·婁·奎			壁·室·危·虛·女·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36은 9이니 음(陰)의 후(候)가 된다. 36에서 6은 12월을 쌓아 72후(候)다.

이처럼 九와 六의 변화는 무궁하여 순환 반복하면서 끝이 없다.

이로써 건(乾)은 용구(用九)로써 그 책수(策數)도 九이고,

곤(坤)은 용육(用六)으로써 그 책수(策數)도 또한 六이다.

태현에서도 건곤의 용을 밝혀 놓고 있는데 천현삼(天玄三)에 말하기를 ‘중선 중(中羨从)’ 이라고 하고, 인현삼(人玄三)에 말하기를, ‘함침성(咸沈成)’ 이라고 하였다.

머리에는 각기 구(九)가 있으니, 구구(九九)는 팔십일(八十一)이고, 동지에서 시작하여 대설에서 끝난다. 음양은 이처럼 서로 응해 구변(九變)으로 두루한다.

44) 용구(用九)의 개념 풀이

용구의 개념에 대해선 여러 견해가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중천건 의 여섯 효가 모두 변해 중천건의 배합괘인 중지곤으로 변했음을 뜻하고(주희) 다른 하나는 용구는 양이 변하는 用九이지 用七이 아니라는 설이다.(구양수 정이가 이렇게 주장하고 주자도 역시 그 의미를 포함해 말하고 있다.) 세 번째는 마왕퇴의 백서에서 쓸 용(用)자가 멀 형(適)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아 형은 통할 통(通)이므로 점을 쳐서 얻은 구가 모두 양이 나오면 용구의 효사로 점을 치라는 가르침이라고 하였다.

참고로 여기에 대한 구양수 및 주희 등의 견해를 대략 소개해 본다.

① 건괘에는 여섯 효의 뒤에 用九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9를 가지고 효에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다. 건괘의 효는 9와 7이다. 9는 변하고 7은 변하지 않는다. 역의 도리는 그 변함을 점치는 데 있으므로 그 점치는 바를 가지고 효에 이름 붙이는 것이지, 여섯 효가 모두 9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用九라는 것은 7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해석한 글귀다. 점서의 때에 7은 항상 많고 9는 늘 적으며 양이 변하는 9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여러 마리 용을 보니 머리가 없다’ 에서 머리는 앞이고 주인이다. 양이 변하여 가득 차면 변해 다른 것으로 간다. 그러므로 ‘머리가 없다’ 고 한다. 무릇 사물은 가득 채워지면 바뀌어 변하지 않는 게 없다. 또 변하면 통한다. 그러므로 길하다고 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그러므로 하늘

의 덕은 머리일 수 없고 이것이 하늘의 법칙을 본다고 하는 공자의 풀이이다.
(歐陽修의 易童子問)

②무릇 점을 쳐서 양효를 얻을 때는 모두 9를 이용하고 7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개 모든 괘의 192개 陽爻의 한결같은 예이다. 건괘는 순양으로 맨 처음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用九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며, 성인은 이것에 의하여 문사를 연계하였다. 그래서 이 건괘에 마주쳐서 여섯 효가 변하는 때에는 이 用九의 효사에 의하여 점치게 한 것이다. 대개 여섯 양이 모두 변하여 剛이면서도 柔(순하고 부드러움)할 수 있는 것이 길의 도리이다. 춘추전에 건(乾)이 곤(坤)으로 변하는 것을 두고 ‘여러 마리 용을 봄에 머리가 없으니 길하다’고 하였다. 이는 대개 순곤(純坤)의 괘상을 두고 ‘암말의 바르고 한결같은 도리는 앞장서면 미혹하고 뒤 따르면 복을 얻는다. 동북(東北)에서 친구를 잃는다’고 한 말이 바로 이런 뜻이다.(주희의 本義)

※ 구양수와 주희 설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나. 상병화의 설을 참고해 보자.

● 용구(用九)와 용육(用六)은 실시법의 방식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점사가 아니다. 또한 오로지 점을 칠 때에 마주치는 하나의 효를 두고 말한 것이지, 중천건괘의 여섯 효가 변했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점을 쳐서 3변하여 효가 얻어지는 데(계사상전 제 9장 참고) 손에 끼우고 있는 책수를 헤아려 보면 7,8,9,6 가운데 어떤 하나가 나오게 마련이다. 이때 7,9는 양이고 8,6은 음이다. 다시 7은 소양 8은 소음으로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9는 노양, 6은 노음으로 이것은 변화한다. 그러므로 9를 가지고 양효를 대신하고 6으로 음효를 나타낸다. 용구에서 여러 마리 용을 봄에 머리가 없다고 하고 用六에서 ‘항구하여 올곧음이 이롭다’고 한 것은 9와 6이 반드시 변한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한 것이다. 9는 어째서 반드시 변하는가 하면 그것은 양이 과도하면 항이고, 항은 흉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즉 못용을 봄에 머리가 없다. 는 식으로 되면 길하게 된다. 머리가 없다는 것은 음이다. 또 6은 어째서 변하는가 하면, 그것은 음이 극하면 소멸되고 소멸되면 지속되지가 않으니, 만일 양과 같은 健의 자세를 지녀 고집한다면 이롭게 되기 때문이다. 영구히 올곧음은 양이다. 반면 주자는 무릇 점을 쳐 양효를 얻을 때는 모두 9를 이용하고 7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고 음효를 얻을 때는 모두 6을 이용하고 8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 해석은 옳바르다. 그러나 주자는 또 이괘가 나와서 여섯 효가 모두 변하면 이 괘사에 의하여 점을 친다고 하였다. 이것은 잘못이다. 용구와 용육은 오로지 3변하여 하나의 효를 이루는 것을 가리키는 데 불과하다. 이것을 여섯 효가 모두 변하는 것의 점사로 본다면, 그 나머지 62괘에서도 모두 6효 변의 점사가 있어야 하는데 왜 건곤 괘외에는 없는가? 또한 역은 1효 변 2효 변 3효 변 4효 변 5효 변의 점에

길하리라.

유환(劉瓛)의 풀이

전체 6호가 순전한 양이다. 그러므로 구를 쓴다는 용구(用九)다.

왕필(王弼)의 풀이

구(九)는 하늘의 덕이다. 능히 하늘의 덕을 쓰므로 여러 마리를 용을 본다는 뜻이 된다. 무릇 강건함으로서 사람의 머리가 되면 사물의 더불어 하지 못할 바다. 유순함으로서 바르지 못하면 아침하고 사특한 도로 기운다. 그러므로 중천건(重天乾䷀)은 길함이 앞장서지 않는 데 있고 중지곤(重地坤䷁)은 길이 바르게 하는 데 있다.

유환(劉瓛) 풀이의 해설

건작도에 “양이 움직여 나감은 7이 변하여 9로 가고 음이 움직여 물러남은 8이 변하여 6으로 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9는 양효의 변하는 수가 되고, 6은 음효의 변하는 수가 된다. 무릇 패가 모두 9와 6이 있되 오직 중천건과 중지곤 2패만이 용구와 용육의 개념이 성립됨은 중천건이 순전한 양효로서 변하고, 중지곤은 순전한 음효로서 변하기 때문이다. 대개 중천건은 오직 용구인 까닭에 능히 변하고 중지곤은 오직 용육인 까닭에 능히 바뀐다(化). 이는 양이 變하고 음이 化하면서 주역의 전체 64패 384호를 이루는 근본이 되니 이는 모두 용구와 용육의 개념이 된다. 따라서 2패에서만 특별히 用九와 用六으로 그 작용이 설명되고 있다. 또 여섯 양이 모두 변하는 까닭에 용구라고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이는 뒷날의 선비들에게서 나타나는 해석상의 방법이다. 물론 춘추전에 蔡墨이 중천건(重天乾䷀)이 중지곤(重地坤䷁)으로 가면 여러 마리 용(龍)을 보게 됨이니 앞장서지 않으면 길하다는 개념을 말하고 있으니, 이는 여섯 효가 변하면 중지곤(重地坤䷁)이 된다는 해석으로 그 또한 옛적 주역의 뜻풀이 방식에 연유하지 않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가 6호 변의 점에 대해서만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것은 웬일인가. 그렇다면 점치는 법례로서는 온당치가 못하다. 그러니 주자의 설은 잘못임이 분명하다.(상병화)

이상 세 사람의 견해는 廖名春 등의 주역철학사 주해 부분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다.

는 것은 아니다.

왕필(王弼) 풀이의 해설

九는 양이다. 양은 하늘의 덕이 된다. 그러므로 하늘의 덕이라고 하였다. 성인이 건원(乾元)을 몸에 지녀 능히 하늘의 덕으로서 하면 여러 마리 용을 보게 되는 뜻이다. 강건함으로서 사람의 머리가 되고자 하면 만물의 반드시 꺼리는 바다. 유순함으로서 바르지 않으면 간사함이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바가 된다. 중천건(重天乾䷲)의 길함이 머리가 되어 앞장서지 않는데 있다고 함은 강건함으로서 머리가 되어 앞장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지곤(重地坤䷁)의 이로움이 영구히 바르게 하는 데 있음은 유순함으로서 바르지 않음을 경계하는 말이다. 또 중천건(重天乾䷲)은 머리가 되고 변하면 머리가 없는 无首가 된다. 곧고 바름은 貞의 개념이 된다. 중지곤(重地坤䷁)이 변하여 중천건(重天乾䷲)을 이루니, 굳세다면 능히 영구하다. 그러므로 영구히 바르다는 永貞이 된다. 중천건(重天乾䷲)의 강함이 변하면 중지곤(重地坤䷁)이 된다. 그렇다면 유순함으로 바뀌는 것이다. 중지곤의 유순함은 변하면 중천건(重天乾䷲)이 된다. 곧 굳센 덕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천건(重天乾䷲)은 길함이 머리가 없는데 있고, 중지곤(重地坤䷁)은 이로움이 영구히 곧은데 있다. 나머지 자세한 설명은 중지곤(重地坤䷁)의 用六에 나온다.

단 彖
象曰,

단전에 말한다.

유환(劉瓛)의 풀이

단(彖)은 판단한다는 단(斷)이니, 한 쾌의 재질(才質)을 판단한다는 뜻이다.

유환(劉瓛) 풀이의 해설

주역 정의에 여러 사람의 견해를 인용하되, 장(莊)씨가 판단한다는 단(斷)은 한 쾌의 뜻을 판단해 정한다는 뜻이라고 말하였다. 거기에 한 쾌의 재질을 판단한다는 뜻은 계사하전의 彖은 才의 뜻이라고 함에 근거함이니 한강백의 해설을 빌리면 재질이란 곧 바탕이 되는 덕이라는 뜻으로 하나

의 패상을 이루는 재덕을 말한다고 하였다.

대재건원
大哉乾元!

거룩하다, 乾元이여!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양(陽)을 일컬어 대(大)라고 표현한다. 중천건(重天乾䷒)은 여섯 효가 모두 양효(陽爻)이므로 큰 대(大)로 묘사하였다. 중천건(重天乾䷒)은 효가 모조리 순수한 양(陽)이고, 여러 패들이 생겨나는 근원이 되니 하늘의 상이다. 중천건(重天乾䷒)이 시작됨을 보면 하늘의 덕을 알 수가 있다. 오직 하늘만이 크다. 또 중천건(重天乾䷒)만이 이를 법 받았으므로 단전의 해설이 크다는 뜻의 거룩함이 되는 것이다. 건원(乾元)의 원(元)이란 기운의 시작이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지천태(地天泰䷊)와 천지비(天地否䷋) 두 패를 보면 모두 효의 오고 감을 대소로서 해설한다. 즉 양을 대(大), 음을 소(小)라 일컬었으므로 여기서 大란 양을 두고 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중천건(重天乾䷒)의 전체 여섯 효가 순양(純陽)인 점이 대(大)라 일컫는 까닭이 되는 것이다. 중천건(重天乾䷒)은 순양의 패가 되고, 또 양괘(陽卦)의 시작이다. 건작도(乾鑿度)에서도 역은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대개 주역의 64괘 384효가 모두 중천건(重天乾䷒)의 한 양이 시작되므로 여러 패의 시작되는 바라고 하였다. 중천건(重天乾䷒)이 하늘의 상이라고 함은 하늘에 있어서 상을 이룬다고 하는 재천성상(在天成象)이 되기 때문이다.

중천건(重天乾䷒)의 시작은 곧 하늘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건작도(乾鑿度)에 태초는 기운의 시작이라고 했으니 태초는 곧 중천건(重天乾䷒)의 乾元이다. 따라서 건원(乾元)의 원이란 기운의 시작이다. 하휴의 공양전⁴⁵⁾에 원이란 기운이니 하늘과 땅의 시작이라고 하였다. 이는 단전에서 말하는 거룩하다 건원(乾元)이여 만물이 힘입어 비롯된다고 하는 뜻에 통하는 말이다.

45) 춘추전에는 주석서가 세 종류가 있다. 좌씨전 · 공양전 · 곡량전이 그들이다.

만물자시
萬物資始⁴⁶⁾,

46) 건지대시도(乾知大始圖) 곤작성물도(坤作成物圖)

계사(繫辭) 상 1장에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건과 곤이 정해지고 낮고 높음으로서 펼쳐지니 귀천이 자리잡되 건은 크게 시작하고 곤은 만물을 이루어 짓는다고 하였다. (天尊地卑, 乾坤定矣. 卑高以陳, 貴賤位矣. --- 乾知大始, 坤作成物.)

이 구절의 의미를 구궁도에 입각한 십이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

아래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양(一陽)은 자(子)에서 생겨나고 이양(二陽)은 축(丑)에 있으며, 삼양(三陽)은 인(寅)에 있다. 사양(四陽)은 묘(卯)에 있으며 오양(五陽)은 진(辰)에 있고 육양(六陽)은 사(巳)에 있다.

그래서 건(乾)의 자리는 서북(西北) 방에 있게 되면서 자(子)의 앞이 된다.

그러므로 개념이 곧 건은 크게 시작함을 주장하는 건지대시(乾知大始)가 된다.

건(乾)을 아버지로 말하면 아버지의 도(道)로부터 천지(天地)가 시작되는 이치와 같다.

한편 일음(一陰)은 오(午)에서 생겨나고, 이음(二陰)은 미(未)에 있으며 삼음(三陰)은 신(申)에 있다. 사음(四陰)은 유(酉)에 있으며 오음(五陰)은 술(戌)에 있고 육음(六陰)은 해(亥)에 있다.

그래서 곤(坤)의 자리는 서남방(西南方) 신(申)이 되고 정추(正秋)의 때에 만물이 이루어지니 지지(地支)로는 유(酉)다.

이는 곧 신(申)에서 만물을 짓고 유(酉)에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곤(坤)이 만물을 낳아 이룬다는 곤작성물(坤作成物)이 된다.

巳 辰	午(陰生於午)	未(坤作成物)
卯 寅		申 酉
丑	乾知大始 子(陽生於子)	戌 亥

참고 자료 張理의 大易象數鉤深圖

설괘(說卦) 팔방(八方)의 도(圖)

만물이 힘입어 비롯하나니,

巽 $\equiv 3 \times 2 + 2 = 8$	離 $\equiv 3 \times 2 + 2 = 8$	坤 $\equiv (二 \text{ 含 } 六)$
震 $\equiv 3 + 2 \times 2 = 7$		兌 $\equiv 3 \times 2 + 2 = 8$
艮 $\equiv 3 + 2 \times 2 = 7$	坎 $\equiv 3 + 2 \times 2 = 7$	乾 $\equiv (一 \text{ 含 } 三)$

소성괘를 바탕으로 살피면 건(乾)은 삼획(三劃)으로 하늘을 삼는다. 이는 하나가 셋을 포함하고 있는 이치다.

곤(坤)은 여섯 획으로서 땅을 삼는다. 셋이 짝으로 六이 되는 이치다.

수(數)로써 보면 하늘은 일(一) 땅은 이(二)가 근본이 된다.

획(劃)으로 보면 하늘은 기(奇) 땅은 쌍획(雙劃)이 된다.

곧 역(易)의 묘한 이치는 하나가 셋을 포함하고 둘이 여섯을 포함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처럼 건(乾) 일(一)이 셋을 포함하는 까닭에 하늘이 땅에게서 구해 삼남(三男)이 되는데 이들은 모두 기수(奇數)다.

곤(坤) 이(二)가 여섯을 포함하는 까닭에 땅이 하늘에게 구해 낳는 삼녀(三女)가 모두 짝수다. 이는 천지(天地)가 생성되는 근본적인 이치다. 어찌 묘하지 않은가?

팔괘(八卦)에서 진(震)은 우레다. 우레는 땅 아래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일양(一陽)이 아래에 있는 상이다.

감(坎)은 물이다. 물은 땅 가운데에 모여 있다. 그러므로 일양(一陽)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간(艮)은 산이다. 산은 땅 위에 솟아나 있다. 그러므로 일양(一陽)이 위에 위치해 있다.

한편 양은 움직이고, 음은 고요한 성질이 있다. 그러므로 움직임의 뜻이 되는 것은 진(震)이다.

고요함으로 기본이 되는 것은 산이 멈춰 있으므로 바로 산에 해당한다.

움직임이 안에 있는 것은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다. 그러므로 혹 흐르기도 하고, 혹 멈춰 있기도 하며, 혹 움직이며 혹 고요하다. 이것은 감이 물이 되는 이유다.

손(巽)은 목(木)이 된다. 나무는 땅 아래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음이 또한 아래에 있다.

이(離)는 불이다. 불은 나무 가운데서 생긴다. 그러므로 하나의 음(陰)이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

순상(荀爽)의 풀이

나누면 64괘 1만 1천 5백 20책⁴⁷⁾이 됨이니 모두 중천건괘에서 비롯됨을 받는다. 책(策)⁴⁸⁾은 중천건괘에서 비롯됨을 취하니, 만물이 하늘에 근본하

태(兌)는 못이다. 못은 땅 위에 고여 있는 물이므로 하나의 음이 위에 있다.

한편 음은 유순하고 양은 성질이 굳세다. 그러므로 木은 처음 자랄 때 연약하나 나중에는 강해지면서 陽이 뒤를 차지하고 있다.

양(陽)은 밝고 음(陰)은 어둡다. 그러므로 불은 밖이 밝고 안은 어두운 모습으로 陽은 밖에 있다.

양은 건조하고 음은 윤택하다. 그러므로 못은 밖이 윤택하고 안은 건조하면서 양(陽)이 안에 위치해 있다.

혹 묻는다. 못이 어떻게 안이 건조한가?

답한다. 안이 건조하므로 못은 금(金)을 낳고, 밖이 윤택하므로 물이 모여 있다. 그리고 그 까닭에 금(金)은 물을 낳게 된다. 토(土)가 금(金)을 낳는 것이니 곧 못을 보고서 이를 알 수가 있다. 성인이 어찌 오행의 이치를 구차하게 말했겠는가?

자료 張理의 大易象數鉤深圖

47) 건곤(乾坤)의 책수(策數)

건(乾)의 노양과 곤(坤)의 노음으로 하늘의 운행도수가 구성되어졌을 때,

건의 책수는 $36 \times 6 = 216$ 이 된다. (36의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가. 일년 사계절의 운행이 늙은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계절은 4에 해당하고 늙은 양은 그 해당하는 기운의 숫자가 9에 해당하기 때문에 $4 \times 9 = 36$ 이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치로 곤의 책수는 $24 \times 6 = 144$ 가 된다.

따라서 노음과 노양의 배합괘를 하나의 단위로 볼 때 일년 운행의 건곤 책수는 $216 + 144 = 360$ 으로 지구의 운행 궤도에 해당하게 된다. 이를 서경에서 일년은 삼백육십오일이며 윤달이 있음으로써 사철이 일년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주역의 괘상이 전체 384효($64 \times 6 = 384$)가 되는 이치에도 합해진다. 이는 양효와 음효가 반반씩 나누어져 전체 효상을 이루고 있으므로 늙은 양의 책수인 36과 늙은 음의 책수인 24를 각각 곱하면 $192 \times 36 = 6912$, $192 \times 24 = 4608$ 이고 두 편의 책수를 합하면 $6912 + 4608 = 11520$ 이라는 숫자의 책수가 계산된다.

48) 설시에서의 천책(天策)과 지책(地策) 및 인책(人策)

괘를 뽑기 위해 산대를 조작할 때 하늘을 의미하는 양(陽)의 수를 천책(天策), 땅을 의미하는 음(陰)의 수를 지책(地策)이라고 하며 거기에 사람을 의미하는 인책(人策)을 곱들여 만물의 수 11520이라는 숫자가 생겨나는데 이들은 모

여 생겨나는 바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정현의 주석에 힘입는다는 資는 의지한다, 혹은 취한다는 取라고 하였다. 계사상전에 중천건(重天乾䷱)의 책수가 216이요, 중지곤(重地坤䷁)의 책수가 144라고 하였다. 두편의 책수가 11,520이니, 이는 일체 만물의 가지 수에 해당하는 수다. 이들은 모두 중천건(重天乾䷱)의 한 양(陽)으로부터 비롯됨이니 중천건(重天乾䷱)으로부터 비롯됨을 취함이 마치 만물의 생겨남이 하늘에 근본하다는 앞의 해설 그대로다. 설문에서도 이를 두고 오직 태초의 시작에 도는 하나에서 서고 천지로 전개되어 나누어지며 만물을 이룬다고 하였다. 여람(呂覽) 논인(論人)편에도 “무릇 형체를 가진 만물은 하나를 얻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동자(董子)에도 원은 만물의 근원이 된다고 하였고, 하휴의 공양전 주석에도 원이란 천지의 비롯됨이라고 하였으니 이들이 모두 다름 아닌 이곳 단전의 해설로 통하는 말들이다.

내 통 천
乃統天.

이에 하늘을 거느렸도다.(하늘에 줄기했도다.)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중천건(重天乾䷱)의 덕이 됨은 하늘의 법도를 거느려 계승했음이니 하늘과 더불어 그 변화에 합한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계사상전에 잇는 자 선하다고 하였다. 우번은 그곳의 주석에서 잇는다는 계(繼)는 실마리 즉 큰 줄기라는 뜻의 통(統)이라고 하였다. 맹자에 군자가 창업(創業)하여 실마리를 드리움(垂統)에 잇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큰 줄기 통(統)이 잇는다는 계(繼)와 일치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중천건(重天乾䷱)의 덕이 하늘의 법도를 거느려 이었다고 말한다. 곧 이는 구가역의 주석에서 말하는 오직 하늘만이 크고 또 중천건(重天乾䷱)만이 이를 법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이다. 정씨가訓에서 統은 근본 本이 된다고 하였다. 중천건(重天乾䷱)은 능히 하늘의 법칙을 계승 두 주역 上下經 두편의 책수가 된다고 계사상 9장에서 말하고 있다.

했다고 하면 옳겠지만 중천건(重天乾䷀)이 하늘의 근본이 된다고 하면 이는 옳지 않다.

운행우시 품물유형
雲行雨施, 品物流形.

구름이 가고 비가 내려 만물이 형체를 갖춘다.

(이는 元亨利貞의 亨通함에 대한 해석이다.)

우변(虞翻)의 풀이

이미 수화기제(水火既濟䷾)를 이루었다. 위로 坎은 구름이 되고, 아래의 坎은 비가 된다. 그러므로 구름이 가고 비가 내린다는 뜻이 된다. 중천건은 구름과 비로서 중지곤의 온갖 형상을 갖추게 하므로 만물이 변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만물이 형체를 갖춘다는 해설이 나온다.

우변(虞翻) 풀이의 해설

이효(二爻)와 사효(四爻)는 모두 자리가 어긋나 있다. 변해서 중지곤(重地坤䷁)이 되면 두개의 감(坎☵)을 이룬다. 위의 감(坎☵)은 구름이 되니 마치 수천수(水天需䷄)의 감(坎☵)과 같고, 물이 위에 있으면 구름의 형상이다. 아래의 내호괘 감(坎☵)은 비가 되니 마치 뇌수해(雷水解䷧)의 감(坎☵)과 같다. 이는 곧 물이 아래에 있어서 비를 형상하는 이치다. 무릇 만물은 하늘에서 기운을 내려 받고, 땅에서 형상을 부여받는다. 구름이 가고 비가 뿌려지면 중지곤(重地坤䷁)이 중천건(重天乾䷀)의 기운을 품 받아 형상을 이룬다. 중지곤(重地坤䷁)의 형상을 부여받음은 形체가 된다. 계사상전에 坤은 만물의 모양을 바꿔 이룬다(化成)고 했으므로 만물화성(萬物化成)이다. 설문에 品은 여러 가지의 무리에 해당하는 중서(衆庶)라고 하였다. 설괘전에 坤(坤☷)은 무리가 된다고 했고, 이를 놓고 보면 품물은 곧 여러 가지의 만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만물이 형체를 갖춘다는 품물유형(品物流形)이다.

대명종시
大明終始,

대명이 끝과 시작을 이룸⁴⁹⁾에(시작과 끝을 크게 밝히면)

49) 대명이 이루는 끝과 시작에 대해서는 흔히 천문에서 하늘의 28수(宿)와

12차(次) 12진(辰)으로 이를 구체화시킨다.

○ 황도 28수의 의미와 절기(斗柄)

절기의 변화에 따라 태양의 위치도 달라진다. 이를 두고 옛사람들은 황도 28수의 별자리로 표시하였다.

절기의 변화에 따라 땅 위를 가리키는 두병의 위치(북두칠성의 손잡이)도 역시 달라진다. 옛사람들은 그것을 천간지지의 12지지로 대신하였다.

그러나 태양의 위치를 염두에 두거나 두병의 위치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일년 24절기의 변화는 결국 음양 소장의 이치를 벗어나 있지 않으므로 황도 28수의 명칭과 12지지의 의미 또한 그 개념 안에 음양 소장의 이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태양의 위치를 나타내는 황도 28수의 별자리가 음양 소장의 이치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 점을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기로 하자.

	주천 28수의 명칭	참고
북방 현무 7수	벽(壁), 실(室), 위(危), 허(虛), 여(女), 우(牛), 두(斗)	오행상 수성의 작용이 왕성한 계절
동방 청룡 7수	기(箕), 미(尾), 심(心), 방(房), 저(氏), 항(亢), 각(角)	오행상 목성의 작용이 왕성한 계절
남방 주작 7수	진(軫), 익(翼), 장(張), 성(星), 유(柳), 귀(鬼), 정(井)	오행상 화성의 작용이 왕성한 계절
서방 백호 7수	삼(參), 자(觜), 필(畢), 묘(昴), 위(胃), 루(婁), 규(奎)	오행상 금성의 작용이 왕성한 계절

○ 황도 28수와 365원도

	동방 7숙							남방 7숙							서방 7숙							북방 7숙						
28수	箕	尾	心	房	氏	亢	角	軫	翼	張	星	柳	鬼	井	參	觜	畢	昴	胃	婁	奎	壁	室	危	虛	女	牛	斗
도수	11	18	5	5	15	9	12	17	18	18	7	15	4	33	9	2	16	11	14	12	16	9	16	17	10	12	8	26
12진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析木		大火		壽星		鶉尾		鶉火		鶉首		實沈		大梁		降婁		娵訾		玄枵		星紀					
오행	목				토		화			토			금				토			수				토				

※ 1. 황도 운행 도수의 전체 합은 365도다.

2. 12진의 구간과 28수의 구획은 도표상 일치하지 않는다. 예컨대 寅방은 28수에서 두(斗)의 말에서 시작하여 미(尾)의 2/3부분에서 끝난다. 묘(卯)는 미(尾)의 2/3부분에서 시작하여 저(氐)의 3/4 지점에서 끝난다. 또 辰은 저(氐)의 3/4 지점에서 시작하여 軫의 1/3 지점에서 끝난다. 나머지 모든 12진과 28수의 구획이 모두 이와 같다. 곧 황도 운행의 좌표에서 볼 때 12진의 구획선과 28수의 별자리가 서로 명확하게 일치하는 구간은 한 곳도 없다. 이는 하늘에서 해가 움직이는 길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별들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놓여 있지 않다는 뜻이며 위 도표에서 밝히고 있듯이 28수의 낱별자리가 보여주는 간격은 서로 일정하지 않고 매우 불규칙하다.

3. 태양의 위치는 정확하게 해마다 어느 지점을 어느 시점에 통과한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약간의 세차를 보인다. 그러므로 반드시 24절기는 태양이 지나가는 지점을 고려하여 약간 손질되어져야 하며 이것이 19세 7윤의 법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된다.

4. 이들 28수와 12진의 관계를 밝힘에 있어 그 명칭은 둔갑과 태을 및 육임이 서로 제각각 다르다.

육임의 십이지장은 해가 규의 말에서 위의 초에 오는 亥인 추자의 때에는 登明, 戌에는 天魁라고 일컬었다. 이들 명칭을 옛 사람들은 습神이라 불렀고 혹은 태양과궁(太陽過宮 태양이 지나가는 별자리라는 뜻)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책력에서 만날 수 있는 12지지의 간지와는 차이가 난다.

곧 우리가 책력에서 표시하는 12지지는 북두칠성의 손잡이가 가리키는 땅위의 지점을 주목하여 月建으로 삼는데 비하여 여기서 말하는 합신습神 혹은 태양과궁太陽過宮의 의미는 하늘에서 땅 위의 절기에 맞추어 위치한 별자리의 지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책력은 인월이나 합신은 亥에 있고 책력의 卯월은 합신의 戌에 있다. 마찬가지로 태양과궁도 정월 태양은 추자궁(28수의 奎星 초반)까지 운행하며 2월 태양은 강루궁(28수의 胃星 중반)까지 운행한다. 즉 합신과 태양과궁의 이론은 서로 일치한다.

다만 시대별 력에 따라 종종 이들 합신과 태양과궁의 지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태양과궁의 이론은 실제 하늘에서 운행하는 해의 위치를 근거로 이야기되는 데 비하여 합신은 단순히 일반적인 논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 12차에 대하여

다시 해와 달의 움직임이 한 해 동안 하늘에서 12번 만나는 현상을 두고 천문

에서는 12次(차)라고 일컫는다.

12차는 동방 청룡 자리의 명칭은 壽星(수성) 大火(대화) 析木(석목)이다.

북방 현무 자리의 명칭은 星紀(성기) 玄枵(현효) 娵訾(취자)다.

서방 백호 자리의 명칭은 降戩(강루) 大梁(대량) 實沈(실침)이다.

남방 주작 자리의 명칭은 鶉首(순수) 鶉火(순화) 鶉尾(순미)다.

그 명칭들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壽星(수성)이다.

3월에 해와 달이 만나는 자리다. 3월은 만물이 땅에서 나오는 때이므로, 봄 기운이 퍼져 만물의 목숨이 시작됨을 나타낸다.

둘째 大火(대화)다.

2월에 해와 달이 만나는 자리다.

동방 청룡의 심장에 해당한다. 성질이 불같다는 뜻에서 화성이라고 한다. 동방은 오행상 목의 기운이고 불은 나무의 心에서 나오므로 명칭이 大火(대화)가 되었다.

셋째 析木(석목)이다.

동방 목의 끝자락에 해당한다. 천체의 운행하는 방향에서 보아 북방의 수에서 넘어 오므로 북방 수의 첫 번째 별자리인 斗宿와 이곳에서 기운이 갈린다고 하여 명칭이 析木(석목)이다.

넷째 星紀(성기)다.

만물을 거느려 버리가 된다는 뜻이다. 만물의 생육에서 시작과 끝을 나누는 기준점 노릇을 하므로 명칭이 星紀(성기)로 붙었다. 때는 12월이다.

다섯째 玄枵(현효)다.

11월이 되어 해와 달이 만나는 자리다. 그때는 음기가 매우 성해지면서 만물이 땅으로 돌아간다. 한자의 뜻풀이를 보더라도 玄은 검다는 뜻으로 북방 겨울의 물기운을 뜻하고 枵(효)는 죽는다는 뜻이므로 모든 만물이 텅비어 공허해졌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娵訾(취자)다.

娵訾(취자)는 한탄하는 모양을 나타낸다. 음기가 왕성해지면서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양기의 한탄함이니 10월의 때다.

일곱째 降戩(강루)다.

때는 9월이다. 降(강)은 내려온다는 뜻이고, 戩(루)는 굽힌다, 혹은 뒤바뀐다는 뜻이다. 곧 양기가 쇠하고 음기가 자라나면서 만물이 시드는 때다.

여덟째 大梁(대량)이다

8월에 해와 달이 만나는 자리다. 大梁(대량)의 梁(량)은 딱딱하다는 뜻이

다. 8월에는 처음 흰 이슬이 내려 만물이 경직된다. 그래서 명칭이 大梁(대량)이다.

아홉째 實沈(실침)이다.

때는 7월이다. 그때는 양기운이 결실을 맺으면서 음기에 의해 안으로 가라앉는다. 그러므로 명칭이 實沈(실침)이다.

열 번째는 鶉首(순수)다.

하늘의 28숙 별자리로 보면 井(정)과 鬼宿(귀수)에 해당하는 주작의 머리부분이다. 그때는 양이 기운이 여전히 위로 타오르는 때다. 그러므로 명칭이 새의 머리를 뜻하는 鶉首다. 鶉은 메추라기이고 首는 머리다. 때는 6월이다.

열한 번째는 鶉火(순화)다.

때가 5월이니 양기가 비로소 왕성해진다. 이때는 화성이 저녁에 남쪽하늘의 중천에 자리하므로 불화자를 써서 명칭을 붙였고 메추리 鶉은 여기서도 양기가 위로 타오름을 상징한다.

열두번째는 鶉尾(순미)다.

남방의 별자리는 양기가 왕성하게 타오르는 때로 별자리의 모양은 주작이다. 그 가운데 해가 만나는 자리는 翼宿(익수)과 轸宿(진수)이 되는데 그 자리는 남방 주작의 꼬리에 해당하므로 명칭이 鶉尾(순미)다.

방위	12차의 명칭	별자리(숙)	12辰(진)	斗柄(두병)
동방청룡	壽星(수성)	角(각), 亢(항),	辰(진) 3월	酉(유)
	大火(대화)	氏(저), 房(방), 心(심),	卯(묘) 2월	戌(술)
	析木(석목)	尾(미), 箕(기)	寅(인) 1월	亥(해)
북방현무	星紀(성기)	斗(두), 牛(우),	丑(축) 12월	子(자)
	玄枵(현효)	女(여), 虛(허), 危(위),	子(자) 11월	丑(축)
	娵觜(취자)	室(실), 壁(벽)	亥(해) 10월	寅(인)
서방백호	降婁(강루)	奎(규), 婁(루),	戌(술) 9월	卯(묘)
	大梁(대량)	胃(위), 昂(묘),	酉(유) 8월	辰(진)
	實沈(실침)	畢(필), 觜(자), 參(삼)	申(신) 7월	巳(사)
남방주작	鶉首(순수)	井(정), 鬼(귀),	未(미) 6월	午(오)
	鶉火(순화)	柳(류), 星(성), 張(장),	午(오) 5월	未(미)
	鶉尾(순미)	翼(익), 轸(진)	巳(사) 4월	申(신)

하늘 28수(宿) 12차(次) 12진(辰)과 육효(六爻) 점

예기에 의하면 해가 움직이는 길목에 따라 靑龍 朱雀 句陳 騰蛇 白虎 玄武로 일컬어지는 六神이 등장한다. 이를 육임에서도 수용하고 있으니 육임의 12신장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만물의 생장수장의 이치 즉 12지지에 준하여 생각

하면 된다.)

정월에는 양기가 바야흐로 확립되고, 만물이 다시 돌아오게 되니 등명이라고 칭했다.

2월은 사물이 뿌리와 싹을 내리므로 天桴라고 한다.

3월은 꽃과 잎이 뿌리에서부터 자라나니 從桴다.

4월은 양기가 극점에 달하니 점점 쇠퇴해지게 되어 있으므로 傳送이다.

5월은 초목이 무성하여 처음 자라나는 것을 능가하였기에 勝先이다.

6월은 만물이 여전히 매우 무성하므로 小吉이다.

7월은 각종 곡물이 열매를 맺어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지탱해 가므로 太一이라고 부른다.

8월은 작물의 가지가 단단해지니 天岡이다.

9월은 수목이 장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목이 되니 太衝이다.

10월은 만물이 모두 생장을 완성하여 공적을 쌓으므로 功曹다.

11월은 북두칠성의 자루가 다시 子位를 가리키고 상제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므로 大吉이다.

12월은 맛난 술을 담아 신령에게 제사지내므로 神后라고 부른다.

이상은 육임의 명칭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다. 송대의 심괄은 다소 시각을 달리하여 이를 해석하고 싶어 한다. 참고가 된다고 보아 여기에 그 내용을 소개한다.

등명은 정월에 세 양이 생겨나 천하 만물이 광채를 발하므로 등명이라고 한다.

천괴는 斗口상의 첫 번째 별로 이 첫 번째 별이 戌位에 도달하므로 천괴라고 하였다.

종괴는 斗口상의 두 번째 별인데 이 두 번째 별이 酉位에 도달하므로 종괴라고 불렀다.

전송은 4월의 양기가 극점에 도달했다가 점점 쇠퇴하면서 음기가 바야흐로 자라려고 하므로 음을 맞이하고 양을 보낸다는 뜻에서 전송이다.

소길은 하지의 기상이니 양기가 가고 음기가 오는 것이다. 따라서 소인의 날이 점점 좋아지니 소인이 길하여 결혼과 술 먹고 밥 먹는 등의 일을 상징하는 말이다.

승선은 군주가 북쪽에 앉아 남쪽을 향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니, 만물이 이 시기에 모두 성장하기 시작하여 무성함이 그 극에 달하는 까닭이다.

순상(荀爽)의 풀이

태일은 태미원이 있는 방위가 태일성이 있는 곳에 있게 된다.

천강은 북두칠성의 자루가 가리키는 방위의 별이다.

태충은 일월과 오성이 출입하는 문으로 천정의 요충이다.

공조는 시월에 매 해의 일들이 완성되어 공로로 심사한다는 것을 말한다.

대길은 동지의 기상으로 음기가 가고 양기가 온다는 것으로 군자의 날이 점점 좋아지니 대인의 길조이므로 문무 대신의 일을 상징한다.

십이월신장은 북방의 중앙에 위치하는데 이는 상제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신후는 황제와 군주의 칭호이다. 이것은 하늘의 십이신장이므로 모두 하늘의 사정으로써 이름을 정한 것이다.

심괘의 설명이 반드시 올바른 개념에 해당한다고 수궁하기는 어렵지만 천체의 움직임에 근거하여 육임의 십이신장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육효(六爻) 점(占)의 길흉을 판단하면 된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도표로서 대신한다.

	점치는 날의 일간					
	甲乙	丙丁	戊	己	庚辛	壬癸
상효	玄武	靑龍	朱雀	句陳	螣蛇	白虎
5효	白虎	玄武	靑龍	朱雀	句陳	螣蛇
4효	螣蛇	白虎	玄武	靑龍	朱雀	句陳
3효	句陳	螣蛇	白虎	玄武	靑龍	朱雀
2효	朱雀	句陳	螣蛇	白虎	玄武	靑龍
초효	靑龍	朱雀	句陳	螣蛇	白虎	玄武

그 역할과 육신이 보여주는吉凶의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룡은 희신이다 용신에 임하면 대길하다고 보며, 음주 가무의 신이다.

주작은 구설시비, 말썽을 부리는 신이다. 그러나 육임에서 소식점이나 연론방송 등 火의 속성인 말에 관련된 분야의 점이라면 길신이 된다. 그 밖의 인간사에서는 흉신이다.

구진은 토지매매와 관련된 점에서 매매가 속히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밖에 있어서는 용신에 구진이 임하면 모든 일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만사가 통하지 못한다.

등사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괴이한 일이나 놀랄 일이 있게 된다고 보는 흉신이다. 등사가 점에 있어서 발동하면 일이 꼬이거나 성가신 일이 생긴다고 믿는다.

중천건(重天乾䷀)은 습감(習坎䷜)에서 일어나 중화리(重火離䷄)에서 끝난다. 중

백호는 투쟁과 송사, 질병에 관한 흉신이다.

현무는 음란한 신에 해당한다. 도적 혹은 사기 실물 등의 손재수가 생겨난다는 흉신이다.

주천 28수의 일반적인 의미

	28 수 명칭	陰陽 消長에 입각한 개념의 해설
북 방 현무 7수	벽(壁)	벽(壁)은 하늘이 열린다는 벽(闢)의 개념이다. 하늘의 생기가 열림을 뜻한다.
	실(室)	실(室)은 영실(營室)로 양기(陽氣)를 수태하여 생성됨과 동시에 동쪽으로 옮겨감을 뜻하는 말이다.
	위(危)	위(危)는 괴멸(壞滅)을 의미한다. 양기가 이곳에 이르러 소실된다.
	허(虛)	허(虛)는 허와 실에 해당하는 말이다. 겨울철의 공허함 속에서 양기가 양성됨을 뜻한다.
	여(女)	여(女)는 수녀(須女)다. 음양의 두 기운이 아직 나뉘지 않아 서로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우(牛)	견우(牽牛)로 양기가 만물을 견인하여 이끌어낸다는 뜻이다. 소가 양기의 도움을 받아 만물을 이끄는 이치다.
	두(斗)	두(斗)는 남두(南斗)다. 해와 달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일년의 시작과 끝의 표식에 해당한다.

동방 청룡 7수	기(箕)	기(箕)는 기(基)의 뜻으로 만물의 기초다.
	미(尾)	미(尾)는 만물이 처음 태어나 힘이 약하다. 꼬리처럼 작고 가늘다는 뜻이다.
	심(心)	심(心)은 조짐 혹은 싹에 해당하는 아(芽)다. 초목의 싹이 처음 나왔음을 뜻한다.
	방(房)	방(房)은 만물의 문이 이미 열려 있음을 나타낸다.
	저(氏)	저(氏)는 나온다. 초목의 생장에 비유하였다.
	항(亢)	항(亢)은 亢奮이다. 생장의 속도를 나타낸다.
	각(角)	각(角)은 초목이 뿔처럼 갈라졌음을 뜻한다.

남방 주 작 7수	진(軫)	진(軫)은 繁이다. 초목이 무성해졌음을 나타낸다.
	익(翼)	익(翼)은 날개를 뜻한다. 만물이 날개를 가진 듯한 모습이다.
	장(張)	장(張)은 열렸다는 개(開)다. 만물이 장대해진다는 의미다.
	성(星)	성(星)은 일곱 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다. 양의 기운이 완성되어 양이 가득한 7에 이르렀음을 뜻한다.
	유(柳)	유(柳)는 주(注)다. 초목이 쇠약해지기 시작, 양기가 약해지기 시작했다.
	귀(鬼)	귀(鬼)는 음의 기운으로 돌아간다. 음기가 서서히 길어지기 시작한다.
	정(井)	정(井)은 샘이다. 음기가 샘에서 솟아 나오듯 한다.

서방 백 호 7수	삼(參)	삼(參)은 참험(參驗)이다. 만물을 모두 참험하여 알아볼 수가 있다.
	자(觜)	자(觜)는 사물의 뾰족한 끝인 부리(취嘴)다. 만물이 양육의 기를 잃고 탄식함을 뜻한다.
	필(畢)	필(畢)은 마친다는 종(終)이다. 초목이 종말을 맞이했음을 뜻한다.
	묘(昴)	묘(昴)는 머문다는 류(留)다. 만물이 이루어져 계류된다는 뜻이다.
	위(胃)	위(胃)는 위장이다. 음식으로 위장으로 들어가듯 양기가 안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루(婁)	루(婁)는 만물이 말라 시든다는 위(萎)다. 만물이 생기를 잃는다는 뜻이다.
	규(奎)	규(奎)는 멧돼지다. 만물을 삼켜 거둠을 뜻한다.

24절기와 28수의 관계

동지와 하지는 음양의 기운이 새롭게 돌아와 만나는 절기다.

동지는 음이 지극해져 양이 돌아와 만나는 때다.

하지는 양이 지극해져 음이 아래서 자라나며 가득 채워진 양과 만나게 되는 때다.

동지에는 두병은 자방을 가리키고 태양은 28수의 미(尾)의 자리에 위치한다.

하지에는 두병은 오를 가리키고 태양은 28수의 삼(參)의 자리에 위치한다.

역의 궤상으로 나타내면 동지는 지뢰복이 되고, 하지는 천풍구가 된다.

춘분과 추분은 음양의 두 기운이 분리할 때다.

춘분에는 북두칠성의 두병이 묘방(卯方)을 가리키고 태양은 28수 벽(壁)의 자리에 위치한다.

추분에는 북두칠성의 두병이 유방(酉方)을 가리키고 태양은 28수 익(翼)의 자리에 위치한다.

역의 궤상으로 보면 춘분은 뇌천대장괘이고 추분은 풍지관괘이다.

월별로 나타내면

동지는 11월이고 하지는 5월 후반이다.

춘분은 2월이고 추분은 8월 후반이다.

밤낮의 길이로 따지면 동지는 밤의 길이가 일년 중 가장 길고

하지는 낮의 길이가 일년 중 가장 길다.

춘분과 추분은 밤낮의 길이가 각각 50각으로 서로 같다.

동지에 해가 뜨는 시간은 진(辰)시 초각이고, 해가 지는 시각은 신(申)시 사각이다. 그래서 밤은 59각, 낮은 41각으로 음기가 가장 왕성한 때이다.

하지는 해가 뜨는 시간이 인(寅)시 4각이고, 해가 지는 시각은 술(戌)시 초각이다. 그래서 낮은 59각, 밤은 41각으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때이다.

춘분에는 해가 묘시 초각에 뜨고, 해가 지는 시각은 유시 초각이지만 이때부터 낮은 서서히 길어지고 밤은 차츰 짧아진다.

추분에는 춘분과 음의 기운이 더욱 왕성해지는 절기이지만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은 춘분과 서로 같다.

이상의 이지와 이분의 절기 이외에도 주천 28수와 절기의 순환을 서로 알기 쉽게 도표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주천 28수	정(井), 귀(鬼), 유(柳), 성(星), 장(張), 익(翼),	각(角), 항(亢), 저(氐), 방(房), 심(心), 미(尾),	두(斗), 우(牛), 여(女), 허(虛), 위(危), 실(室),	규(奎), 루(婁), 위(胃), 묘(昴), 필(畢), 자(觜),
-----------	---	---	---	---

	진(軫),				기(箕),				벽(壁)				삼(參)											
24 절기	소한 절	대한	입춘 절	우수	경칩 절	춘분	청명 절	곡우	입하 절	소만	망종 절	하지	소서 절	대서	입추 절	처서	백로 절	추분	현로 절	상강	입동 절	소설	대설 절	동지
월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 지지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		자(子)	
12차	현효 玄枵		추자 媿紫		강루 降婁		대량 大梁		실침 實沈		순수 鶉首		순화 鶉火		순미 鶉尾		수성 壽星		대화 大火		석목 析木		성기 星紀	

※ 1) 12차는 하늘에서 해당 절기에 해와 달이 만나는 자리를 나타낸다.

2) 주천 28수는 입춘 후반에 유(柳), 성(星) 2수가 남쪽 하늘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각(角), 항(亢) 2수는 동쪽 하늘의 한 가운데,

자(紫), 삼(參) 2수는 서쪽 하늘의 한 가운데,

우(牛), 여(女) 2수는 북쪽 하늘의 한 가운데 위치하는 것을 보고 그 모양에 근거하여 주천 이십 팔수의 별자리 명칭이 붙여졌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 의미는 음양의 변화에 의한 만물의 생장수장과 결부되어 있다.

3) 옛날의 시간 단위는 하루가 백각, 1각이 60분이었다.

4) 주천 28수는 사방에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그것들의 도수를 모두 합하면 365.25도가 된다.

5) 태양의 주위를 지구는 매일 1도씩 움직인다. 이를 동지에서 다음 해 동지까지 움직임을 하늘의 도수로 나타내면 일 년의 운행 주기는 365.25도다.

6) 북방의 7수를 서로 연결하여 그 형상을 유추하면 현무를 닮았으므로 북방의 7수가 북방 현무 칠수가 된다. 마찬가지로 동방의 7수는 청룡의 모양, 남방은 주작의 모양, 서방의 7수는 백호에 해당한다.

○ 12차 명칭의 배경

주역에 “물과 불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혹은 배척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다. 우주의 공간에서 보면 불은 태양이고 물은 은하와 달을 상징한다. 지구상의 모든 변화는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나타나므로 이것의 의미가 곧 물과 불이 서로 배척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천체의 움직임에서 보면 태양의 궤도를 황도라고 일컫고 은하의 움직임은 물의 궤도가 되는데 이들 움직임의 자리는 별들의 위치에 근거하여 파악한다. 그때 그 궤도를 하나의 동심원으로 대신해 놓고 보면 하늘의 중심부는 지구상의

적도와 같고 태양의 궤도는 계절에 따라 위치를 바꾸어가며 일정하게 전개된다.

예컨대 여름에는 북쪽, 겨울에는 남쪽으로 돌면서 활 모양의 반쪽 곡선을 각기 이루는데 태양이 북쪽으로 돌 때는 춘분에 강루의 위치에서 시작하여 하지에 순수의 위치에서 최고에 달하며 추분에 수성의 위치에서 끝난다. 남쪽으로 돌 때는 추분에 수성의 위치에서 시작하여 동지에 성기의 위치에서 최고에 달하며, 춘분에 다시 강루의 위치에서 끝난다.

한편 은하는 태양과 서로 교차하면서 봄에는 북쪽, 가을에는 남쪽으로 돈다. 북으로 돌 때는 하지에 순수의 위치에서 시작하여 춘분에 강루의 위치에서 최고에 달하며 추분에 수성의 위치에서 끝난다. 이때 궤도는 적도가 되며 황도는 안쪽에 위치하여 최고점과의 거리는 각각 64도에 달하며 은하는 외부에서 최고점과의 거리가 각각 22도에 달한다.(星土坂開圖의 해설)

앞의 설명에서 보면 물기운과 불기운의 반복은 순수의 위치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나타난다. 순수의 자리에서 불기운이 왕성하기 시작하면 물기운은 자절로 분산되고, 강루의 위치에서 기운이 약해지면 물기운은 다시 뭉쳐진다. 그 움직임의 방향은 지구에서 하늘을 바라보아 태양의 움직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은하는 상대적으로 동쪽에서 서쪽의 반대 방향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자 하면 앞의 설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늘의 천체 현상을 취급할 때마다 언급되어 28수와 12차의 명칭이 어떤 근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씌어지고 있는지 먼저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앞서 다룬 28수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동방 창룡에 해당하는 수성 대화 석목으로부터 남방 주작의 순수 순화 순미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다음은 그들 자리의 성격을 하늘의 28수와 결부시켜 작성한 내용의 도표이다.

	동방 창룡						북방 현무						서방백호						남방 주작								
28수	角	亢	氏	房	心	尾	箕	斗	牛	女	虚	危	室	奎	婁	胃	昂	畢	井	鬼	柳	星	張	翼	轸		
	2	4	4	4	3	9	4	6	6	4	2	3	2	16	3	3	7	8	3	7	8	4	6	7	6	22	4
12차	壽星		大火		析木		星紀		玄枵		娵觜		降婁		大梁		實沈		鶉首		鶉火		鶉尾				
12지	辰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이들 내용의 뜻은 대략 다음과 같다. 계절에 따라서 나타나는 해와 달의 움직임을 60년을 주기로 일정하게 되풀이되는데 그 자리를 별자리로 대체시키면 앞의 28수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 28수의 별자리는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들만을 열거하여 나타냈을 뿐 동궁이 46개의 별자리로 354개가 되고

남궁은 42개의 별자리로 576개이며 서궁은 54개로 707개, 북궁은 65개의 별자리로 815개이다. 이는 중국 고대의 천문도에 집성된 하늘의 천문체계에 근거할 때의 숫자다. 그러므로 28수라고 하면 그들 동서남북의 각 궁을 대표하는 별자리들을 일컫고 그 모양이 동쪽은 용, 남쪽은 주작, 서쪽은 백호, 북쪽은 거북인 현무를 닮은 모양으로 파악하였다.

12차에 대한 해설은 28수와 연관된 별 계통의 12차에 속하는 천문 구획도이다. 목성은 대략 12년에 걸쳐 천체를 한바퀴 돌아 제자리로 온다. 이 목성의 운행 주기를 기준으로 12지로 하늘의 방위를 나누어 표시하되 천상을 12등분하고 목성이 그중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12지 표시 연도의 어느 해에 해당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앞 도표에 적시된 12차이다.

도표에서 보면 수성은 角宿와 亢宿 氐宿의 일부 별들이 합쳐져 壽星이라고 일컫고 12지에서는 진에 속한다. 이들 내용 중 鶉火를 예로 들어 사기 천관서와 그 구절의 해설을 다루고 있는 사기정의의를 잠시 참고해보자.

○ 사기정의에 의한 순화의 해설

柳宿의 여덟 별, 星宿의 일곱별, 張宿의 여섯 별을 합쳐 鶉火라고도 한다. 이들은 12진의 방위에서는 午에 위치한다. 이 설명은 사기 천관서의 남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주석이다. 그들 내용들을 요약하여 그것이 상징하는 모양을 28수에서 구체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

28수	角宿	亢宿	氐宿	房宿	心宿	尾宿	箕宿	斗宿	牛宿	女宿	虛宿	危宿	室宿	壁宿	奎宿	婁宿	胃宿	昂宿	畢宿	觜宿	參宿	井宿	鬼宿	柳宿	星宿	張宿	翼宿	轸宿
수	2	4	4	4	3	9	4	6	6	4	2	3	2	2	16	3	3	7	8	3	7	8	4	6	7	6	22	4
	각은 청룡의 뿔로 天門이다.	항은 청룡의 목으로 朝廷이다.	저는 청룡의 가슴이니 行宮이다.	방수는 청룡의 배이니 宮과 마굿	심수는 청룡의 심장이니 皇帝	미수는 청룡의 꼬리이니 后宮이다.	기수는 청룡의 배설물이니 后宮이	두수는 뱀의 몸체이니 量斗이다.	우수는 뱀의 몸체이니 倉용소의	여수는 뱀의 몸체이니 女職工	허수는 거북의 몸체이니 祠廟다.	거북의 몸체이니 宗廟무덤페허다.	실수는 거북의 몸체이니 直壁이	벽수는 거북의 몸체이니 벽고다.	백호의 꼬리백호혹은 식량고다.	누수는 백호의 몸체이니 개제사용	위수는 백호의 위장이니 평이다.	묘수는 백호의 몸체이니 답것대장	필수는 백호의 몸체이니 各중수렵	자수는 백호의 머리니 不월이다.	삼수는 백호의 가죽이니 흰기운다.	정수는 주조목의 부목이니 昌목이	귀수는 주조목의 부목이니 昌목이	유수는 주조목의 부목이니 昌목이	성수는 주조목의 부목이니 昌목이	장수는 주조목의 부목이니 昌목이	익수는 주조목의 부목이니 昌목이	진수는 주조목의 부목이니 昌목이

			간				다		머	이				犧	식	도						宰	접		
			이					리	다			다	다	이	이	구			다			다	객	이	다
			다					다						다		다									

사기 천관서 남궁은 주조의 형상으로 권 성좌와 형성좌로 이루어져 있다. 형성좌는 태미원이라고도 한다.

모전에 보면 순은 조이다. 조와 연은 탐욕스럽고 잔악한 새라고 하였다. 설문해자에도 수리에 해당하는 鷩(저수리 단)이 雕(수리 조)라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일본의 하야시 미나모는 12차의 명칭 중 하나인 鵠(메추라기 순)을 메추라기가 아닌 수리를 나타내는 용어로 해석한다. 즉 남방 7수의 주조 유수는 수리의 부리, 성수는 수리의 목으로 보고자 한다. 즉 12차에 해당하는 별자리의 명칭은 28수와 달리 그 개념이 천체의 12지지에 속하는 영역에 자리잡은 별자리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를 말해 주는 내용이다. 예컨대 순화를 참고한다면 유수 성수 장수 익수의 불같은 색상의 뱀길을 지닌 검독수리의 머리 부분을 상징하는 용어가 바로 앞 12차의 명칭임을 알게 하는 해설이다. 또 이는 별자리의 명칭 자체가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상징물이다. 그 증거로 우리는 춘추 좌씨전의 한 구절을 예로 들 수 있다.

진나라의 平公이 士弱에게 송나라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사약의 대답이 곧 순화 대화는 불을 관장하는 화정의 신과 관련이 깊고 유수와 심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 불을 관장하던 관직(火正)은 심수를 제사지낼 때 함께 제사를 받거나 혹은 유수의 제사를 함께 받으면서 불의 출납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柳수를 鵠火라 하였고, 心수를 大火라 하였습니다.”

곧 이 구절을 근거로 볼 때 12차의 명칭은 동서남북의 별자리를 대신하면서도 청색 적색 백색 흑색의 방위가 지니는 특징을 그대로 자연의 사물에서 따와 이름 붙였고 그것이 곧 하늘의 네 방위를 중심으로 뚜렷한 구획이 이루어지게 된 연유다. 그러므로 나머지 명칭들도 이를 근거로 유추해 보면 그 의미를 대체로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 해와 달이 만나는 때와 자리를 진(辰)으로 나타내는 이유

시경 빈풍 7월장에 보면 “해는 1년에 하늘을 한 번 돌고 달은 29일 여에 하늘을 한번 돌아 해와 달이 1년에 12번 만나는 데 그날은 음력 초하루가 된다”고 하였다.

좌전에 보면 이곳의 시경에서 말하는 해와 달이 만나는 것을 辰(진)이라고 한다 하였다. 또 해와 달이 만나는 때에 북두칠성의 손잡이 부분은 어느 곳을

建이라고 하여 辰(진)과 建(건)이 서로 합치하는 것이 마치 안팎으로 일정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해와 달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명칭을 십이지지의 辰으로 굳이 이름 붙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심괄의 몽계필담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이하의 심괄의 설명이다.)

“십이지는 십이진이라고 불리며, 一時를 一辰이라고 부르며, 一日도 一辰이라고 부른다. 또 해와 달과 별을 총칭하여 삼진이라 일컫고 북극성을 北辰이라고 하여 대화를 대진이라고 부른다.

오대행성 중에는 辰星이 있고 오행에 부합되는 계절을 五辰이라고 부른다.

이상의 것들은 모두 辰(진)이 들어간다. 나의 조사에 의하면, 자 축에서 술 해를 십이진이라고 부르며, 좌전에서는 해와 달이 서로 만나는 것을 진이라고 한다 했으니, 일년 중에 태양이 달과 열두 번 만나게 되니 바로 십이진인 것이다.

태양과 달의 운행은 동방에서 창룡칠숙의 각숙과 항숙은 辰(진)에서 시작된 다. 그러므로 처음 시작되는 방위로써 그 이름을 삼는다.

子 丑 戌 亥의 달이 辰이라고 불리면, 十二支와 十二時は 모두 子 丑 戌 亥이고, 그것들을 辰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一日을 一辰이라고 부르는 것은 十二支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이다. 甲乙丙丁 등의 십간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을 금일이라고 부르고, 子丑寅卯 등의 십이지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을 금진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간지를 사용하여 기록한 일자를 日辰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와 달과 별 이 셋을 삼진이라고 하는 까닭도 그 삼자가 진시에 동시에 출현하기 때문이니 그 명칭도 당연히 三辰이라고 일컫게 되는 것이다.

별에도 세 종류가 있다. 하나는 경성으로 북극성이 그것들의 우두머리이다. 두 번째는 속성으로 대화가 그것들의 우두머리이다. 세 번째는 행성인데, 진성이 그것들의 우두머리이다. 그러므로 그 명칭도 모두 진이라고 부른다. 북진은 자신의 위치에 항상 머물고 많은 별들이 그를 중심으로 에워싸고 있다. 그러므로 경성의 우두머리가 된다. 대화는 천체의 좌차이므로 속성의 우두머리가 된다. 진성은 태양의 이웃으로 태양에서 떨어진 거리가 一辰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대 행성의 우두머리가 된다.

오행과 배합되는 계절을 오진이라고 부르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각 한 계절을 주관하므로 네 계절을 각각 오행에 귀속시켜 말한다. 그러면 춘하추동이 비록 목화금수에 속하지만 3 6 9 12월은 각각 18일씩 토에 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계절에 의거해서만 오행을 말할 수가 없고 반드시 달로써 말해야 한다. 즉 열두 달은 12진이라고 불리고, 오행과 배합되는 계절은 오진이 되는 것

이다.

○ 천문과 지호 및 음양오행의 발단 - 각진(角軫)숙과 규벽(圭壁)숙의 진(辰)

내경 소문에 오운 육기의 언급이 나온다.

거기에 보면 갑(甲)과 기(己)는 토운(土運)이 되고,

을(乙)과 경(庚)은 금운(金運), 병(丙)과 신(辛)은 수운(水運),

정(丁)과 임(壬)은 목운(木運), 무(戊)와 계(癸)는 화운(火運)이라 하였다.

이 역시 하늘의 오대 행성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표시의 반영이다.

나는 여기에 대해 설명할 때 오운 육기에 대한 해설에서 세 가지의 이론이 있음을 밝혔다.

여기서는 소문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의미를 잠시 살피기로 한다.

「소문 오운대행론에서 황제가 기백에게 오운의 발단에 대해 말한 것이 있다.

거기에서 기백은 태시천원문에서 말한 戊己之分에 운기가 시작된다는 구절을 끌어와서 ‘이른바 무기분은 奎壁宿과 각진숙角軫宿을 가리키며, 그것은 바로 천지의 문호’라고 하였다. 왕례의 주에서는 둔갑경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六戊는 天門이고, 六己는 地戶’라 하였다.

천문은 戌亥의 사이에 있으며, 규벽숙의 위치에 상당한다. 지호는 辰巳의 사이에 있으며, 각진숙의 위치에 상당한다. 무릇 음양은 모두 辰에서 시작된다. 그 까닭은 이미 다루었거니와 오행도 角軫宿에서 시작하니, 역시 진(동방 7숙의 마지막 십이지지가 辰이기 때문임)에서 시작한다. 갑년과 기년 무기검천지기는 각진숙을 지나므로 토운이다. 각숙은 진에 속하고 진숙은 사에 속한다. 또 갑년과 기년은 무진과 기사를 얻고, 그들의 천간은 모두 토에 속한다. 그러므로 운기가 토운이다. 그 밖의 경우도 모두 이와 같다. (아래 도표 참고)

	壁 癸 甲 乙 북방칠숙(室 危 虛 女 牛 斗) 亥 子 丑 乙亥 甲子 乙丑	
奎 辛 壬 서방칠숙(參 觜 畢 昴 胃 婁) 申 酉 戌		角 丙 丁 동방칠숙(箕 尾 心 房 氏 亢) 寅 卯 辰

壬申 癸酉 甲戌		丙寅 丁卯 戊辰
	軫 戊 己 庚 남방칠숙(翼 張 星 柳 鬼 井) 巳 午 未 己巳 庚午 辛未	

乙년과 庚년에는 庚辛素天之氣가 각진숙을 지나므로 金운이 되며, 즉 庚辰과 辛巳이다. 또 병년과 신년에는 壬癸玄天之氣가 角軫宿을 지나므로 水운이 되며, 즉 壬辰과 癸巳이다. 정년과 임년에는 甲乙蒼天之氣가 각진숙을 나므로 木운이 되며, 즉 甲辰과 乙巳이다. 또 무년과 계년에는 丙丁丹天之氣가 角軫宿을 지나므로 火운이 되며, 즉 丙辰과 丁巳이다.

소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규벽숙과 각진숙이 바로 천지의 문호라는 구절에서 발단하였다.

무릇 모든 運이 각진숙角軫宿에 오면 기가 규벽숙奎壁宿에서 호응하며, 기와 운은 늘 천지의 문호에 함께 머무른다. 그러므로 토자리 아래에는 풍기가 그것을 잇는다. 이는 바로 甲년과 己년에 무기토가 각진숙에 오면 갑을목은 규벽숙에 있게 된다. 奎宿은 戌에 속하고 壁宿은 亥에 속하며 甲年과 己年은 甲戌과 乙亥를 얻는다. 아래도 모두 이와 같다.

金 자리 아래에는 火氣가 있다는 乙년과 庚년 그리고 庚辛金이 각진숙角軫宿에 도달하면 丙丁火는 규벽숙奎壁宿에 있게 된다.

水 자리 아래에는 토기가 이를 잇는다는 병년과 신년 그리고 임계수가 각진숙角軫宿에 도달하면 戊己土는 규벽숙奎壁宿에 있게 된다.

또 風 자리 아래에는 金기가 이를 잇는다는 丁年과 壬년 그리고 甲乙 木이 각진숙角軫宿에 도달하면 庚辛金이 규벽숙奎壁宿에 있게 된다.

또 相火의 아래에는 水氣가 이를 잇는다는 戊年과 癸年 그리고 丙丁火가 각진숙角軫宿에 도달하면 임계수가 규벽숙奎壁宿에 있게 된다.

이상은 왜 십간의 오행 배합이 갑기토 을경금 병신수 정임목 무계화의 개념이 성립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설명이다.

참고로 회남자 천문훈에 근거한 24절기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동지 指子 冬至 音比黃鍾 加十五日

指癸 小寒 音比應鍾 加十五日

指丑 大寒 音比無射 加十五日
 指報德之維 則越陰在地 故曰 距日冬至四十六日 而立春 陽氣凍解 音比南呂 加十五日
 指寅 雨水 音比夷則 加十五日
 指甲 雷驚蟄 音比林鍾 加十五日
 춘분 指卯 中繩 故曰 春分則雷行 音比蕤賓 加十五日
 指乙 清明風至 音比仲呂 加十五日
 指辰 穀雨 音比姑洗 加十五日
 指常羊之維 則春分盡 故曰 有四十六日而立夏 大風濟 音比夾鍾 加十五日
 指巳 小滿 音比太簇 加十五日
 指丙 芒種 音比大呂 加十五日
 하지 指午 陽氣極 故曰 有四十六日而夏至 音比黃鍾 加十五日
 指丁 小暑 音比大呂 加十五日
 指未 大暑 音比太簇 加十五日
 指背陽之 則夏分盡 故曰 有四十六日而立秋 涼風至 音比夾鍾 加十五日
 指申 處暑 音比姑洗 加十五日
 指庚 則白露降 音比仲呂 加十五日
 추분 指酉 中繩 故曰 秋分雷戒 蟄蟲北鄉 音比蕤賓 加十五日
 指辛則寒露 音比林鍾 加十五日
 指戌則霜降 音比夷則 加十五日
 指躔通之維 則秋分盡 故曰 有四十六日而立冬
 草木畢死 音比南呂 加十五日
 指亥 小雪 音比無射 加十五日
 指壬 大雪 音比應鍾 加十五日

위 글에서 指子 冬至란 子方을 가르키는 때가 동지라는 뜻이다. 다만 指子란 천문도상의 子方이 아닌 실제로 천문을하는 과정에서 선기옥형상에 표시된 좌표를 가르키는 것을 指라고 한다. 축이나 나머지 12지지도 마찬가지다.

이는 태양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지구축의 기울기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계절에 따라 태양의 높이는 그 자리가 달라진다. 즉 赤緯값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춘추분점(적위0°)을 기점으로 잡아 그 변화는 23.5°씩 차이가 난다.

하지 때는 적위+23.5°에 위치하고 동지 때는 -23.5°에 위치한다.

그사이에 있는 절기들의 적위값 47°를 12등 분하여 24절기 및 올려로서 나타낸 값이다.

참고로 하늘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좌표는 명칭이 지평환이다. 그 지평환은 북극성에 고정되어 있고 동그런 사유환은 해의 움직임을 따라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심괄은 북극성의 관찰이 계절에 따라 벗어난 경우를 그의 저술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때 아래의 좌표 위에서는 지침계가 달려 있어 돌아가면서 방위각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사유환에는 단순히 하나의 원만 돌아가게 되어 있지 않고 적도의 위치를 읽게 해주는 적도환 및 여타의 장치들이 곁들여 있어서 현재의 지구 움직임과 하늘의 별자리가 절기에 맞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이들 움직임이 어긋나거나 할 때는 그 좌표상의 오차에 근거하여 불가불 책력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말하자면 19세 7윤의 세차법이다.

○ 일년의 운행 도수를 나타내는 28개의 별자리와 주역

일년 365일의 운행 도수를 옛 역법에서는 항상 28개의 별자리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것은 전통적인 그동안의 관례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은 모순이 없지도 않다.

해와 달 및 지구의 운동을 360도의 원으로 나타낼 때 이를 별자리의 명칭으로 대신하자고 하면 그 별자리와 별자리의 상호 간격이 일정해야 할텐데 실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어떤 별자리는 간격이 고작 1도에 지나지 않는가 하면 어떤 별자리는 33도나 되어 그 폭이 서로 일정하지가 못하다. 그 까닭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구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해가 같은 해마다 일정한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 그 길위에 나타나는 별자리의 숫자는 앞에서 말했듯이 28개의 별자리들 뿐이다. 이것을 역법에서는 距度星(일정하게 떨어져 있는 별이라는 뜻)이라고 일컫는다. 즉 하늘의 별자리 28宿은 해가 운행하는 360도를 일정하게 분배하여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해가 지나가는 자리에 해당하는 별자리로서 황도를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동서남북의 방위에 입각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해보면 묘하게도 7개씩 속하게 되고 이는 지구의 따뜻한 양기운 7의 숫자(젊은 少陽)에도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사실 역의 과상도 중천건괘 중지곤괘 등과 같이 이쪽에서 보건 저쪽에서 보건 그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도전괘 8개를 제외하고 나면 도전괘는 하늘의 별자리 28속에 해당하는 56개의 과상이 전부다.($56 \div 2=28$)

이로써 보면 지구상의 음양 변화를 도식화시켰다고 할 수 있는 주역의 이론

체계는 곧 하늘에서 운행하는 해의 움직임을 대신하는 내용임을 쉽게 알 수가 있다.

○ 하늘의 28수는 어떻게 현실 상황에 적용되어질까

선양공이 진나라의 패망을 예견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문헌상의 기록을 참고할만하다.

“무릇 각성이 이른 아침 동쪽에서 출현하면 雨水가 희소해집니다. 天根星이 추운 절후의 이른 아침에 출현하면 하천의 물이 마릅니다. 氐星이 이른 아침에 출현하면 초목이 점차 말라비틀어지게 됩니다. 房星이 출현하면 차가운 바람이 곧 불어닥치게 됩니다. 이에 사람들은 미리 방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선왕들은 말하기를, ‘우수가 희소하니 도로를 정비하고, 하수가 마르니 교량을 정비하고, 초목이 시들어 떨어지니 양식을 충분히 저장하고, 차가운 서리가 내리니 겨울옷을 준비하고, 차가운 바람이 부니 성곽과 궁실을 정비하라고 하였습

니다. 하나라의 역법에서는 또 ‘9월에 도로를 정비하고 10월에 교량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백성들을 각성시키기를, 수확과 탈곡을 마쳤으면 흙을 쌓고 고르는 기구를 준비하여 定星이 하늘 한 가운데 나올 때 흙을 날라 집을 짓기 시작한다. 대화성이 바로 동쪽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농구를 갖춰 司里가 있는 곳으로 가 모인다.’ 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왕이 재물을 허비하지 않고 천하의 사람에게 널리 은덕을 베푸는 이유입니다. 지금 진나라는 대화성이 이른 아침에 출현했는데도 도로에는 이를 닦는 사람이 없어 길이 막혀 있고, 경작지에서 거둔 수확물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못에 독을 쌓지 않고, 하천 위에는 교량을 설치하지 않았으니 이는 선왕들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선양공의 예견대로 주정왕 8년 진나라의 군주는 하징서에게 피살되었다. 또 주양왕 9년 초장왕이 진나라로 쳐들어갔다. 천체의 변화로 현실의 상황을 짐작해보는 하나의 좋은 자료라고 여겨 여기에 해당 자료를 발췌하여 소개했다.

○ 해와 달의 일식과 월식

해와 달은 서로 운행을 하면서 매월 한 번씩 서로 일직선상의 지점에서 만나게 되고(지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란하게 마주보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해가 달에 가려 보이지 않는 일식과 달이 지구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는 월식은 매번 일정하지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지구와 달 및 해의 움직임이 타원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 심괄은 그 까닭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황도(해가 움직이는 길)와 백도(달이 움직이는 길)는 두 개가 서로 중첩되

지만 약간 일그러진 형태의 원(일종의 타원형)과 같아서 동일한 황경도 상에서 서로 만나면 일식이 발생하며, 동일한 황경도 상에서 서로 마주보면 월식이 발생한다. 물론 같은 황경도 상에 서로 함께 위치하지만 백도와 황도는 서로 겹치는 것이 아니어서(멀고 가까운 차이,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지 않지만 지구에서 보아 황도와 백도는 서로 겹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자연히 서로 침범하지도 않는다.

또 같은 황경도 상에서 함께 있으며 또 황도 백도의 교점에 접근하기에 해와 달이 서로 만나면 서로를 덮게 된다. 바로 그 교점 위에 있게 되면 온전한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고 바로 그 교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면 그 교차하는 정도에 따라 부분적인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것이다.

일식 때에는 만약 달이 남에서 북까지 황도를 지나면 서남에서부터 식이 생겨 동북에서 다시 동글어지고, 만약 북에서 남으로 황도를 지나면 서북에서부터 식이 생겨 동남에서 다시 동글어진다. 그리고 태양은 교점의 동쪽에 있을 때에는 북쪽이 식을 당하고 태양이 교점의 서쪽에 있으면 남쪽이 식을 당한다. 전식은 정서에서 시작하여 정동에서 다시 동글어진다. 월식 때 만약 달이 남에서 북으로 황도를 지나면 동남에서 시작하여 식이 되어 서북에서 다시 동글어지며, 만약에 북에서 남으로 황도를 지나면 동북에서 식이 시작되다가 서남에서 다시 동글어진다. 그리고 달은 교점의 동쪽에 있으면 남쪽이 식을 당하고, 달이 교점의 서쪽에 있으면 북쪽이 식을 당한다. 온전한 월식은 정동에서 시작하여 정서에서 다시 동글어진다.

황도와 백도의 교점은 매월 서쪽으로 일도쯤 넘게 이동하며, 249개의 교점을 지나면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간다. 서양의 역법에서 말하는 羅睺와 計度の 개념 역시 이를 나타내는 말이다. 황도와 백도의 교차하는 처음을 나후라 하고, 교차하는 중간을 계도라고 한다.

○ 역법가들에 의해 제기된 일귀와 각루

방법은 20 수종이나 된다. 그러나 이들 방식이 온전히 천체의 운행에 부합하지 못하여 늘 논란이 많았다. 이들 방식 심괄이 제시한 희령귀루의 관점은 음미할 만한 측면이 많다.

그는 혼의와 혼상을 병행하여 사용해 그 결과를 검정하고 수치를 고찰하면서 각루를 조작한 것이 십여 년이 되고서야 실제에 맞는 초보적인 수치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작성한 책이 네 권으로 된 희령귀루다.

여기서 그는 두 가지 점을 스스로 탁월하다고 여겨 몽계필담에 소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겨울에 보여주는 물의 흐름과 여름에 보여주는 물의 흐름이 유

속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천체 운행의 문제와 결부시키는 항목이다.

이치상 동지 전후에는 태양의 운행이 신속해지고 천상의 운행도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 태양은 이미 규표의 그림자를 벗어나 있게 되므로 하루에 백각이 넘게 된다.

하지 전후에는 태양의 운행이 느려지면서 천상의 운행이 하루가 지나도 태양은 규표의 원래 그림자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하루는 백 각이 못 된다.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서 귀영과 각루를 다시 검토해 보니 틀리지 않았다.

둘째, 태양의 운행이 느리고 빠름과 그 시간의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루의 시간 내에서 갑자기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역법에서도 전체적인 천체의 운동을 고려하여 절기내의 장단 평균치를 각각 분으로 구분하여 손익을 합산했는데, 절기의 초에는 하루 길이의 차액과 증감량은 모두 같았지만 다음 절기로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그 차이량이 변하여 마치 황도에 각이 생겨더 이상 동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하여 역지로 수치에 근거하여 추산하더라도 형상과 수치가 기존의 황도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무릇 모든 사물들은 그 고정적인 형상이 있고, 모든 형상들은 실제에 부합되는 수치가 있다. 方形, 圓形, 正, 斜 등은 모두 고정적인 형상이며, 곱하고 나누는 등의 연산을 통해 그 어떤 수정이 없이 완전히 서로 부합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실제에 부합하는 수치가 된다. 심괄에 의하면 이런 방법은 능히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언어로써 표현할 길은 없다고 말한다.

어쨌든 그에 의하면 황도가 하늘 위를 옮겨가는 자취는 원형이며, 원이라는 형체는 그것의 궤적에 따라 운행하면 차고 줄어드는 균형을 이룬다고 말한다. 이것의 나타난 것이 곧 태극의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원규로서 척도를 잴 수가 없게 된다.

또 운행의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는 바가 있는데 빠르고 느림이 없다면 기울고 가득 차는 盈縮의 이치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심괄의 생각이다. 분명 맞는 추론이라 할 수 있다.

대신 원형의 법도에 근거하여 추산해서 실제로 운행되는 수치와 비교하여 차액을 계산하면 그 수치는 언제나 때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그들 서로간을 더하여 총수를 구하고, 둘로 나누어 그 차액을 구한 뒤, 그 총수와 차액을 합치게 되면 태양의 운동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이 생겨나게 된다.

그때 매초 매각 사이에 늘어나고 줄어드는 증감은 모두 서로 같지 않지만 일치되는 점은 하나의 차액만 사용하면 순환 왕복을 능히 할 수 있으며, 전체적

지곤(重地坤䷁)은 중화리(重火離䷄)에서 일어나 습감(習坎䷜)에서 끝난다. 중화리(重火離䷄)와 습감(習坎䷜)은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의 一家⁵⁰⁾이면서 음양(陰陽)의 곳간(府)이다. 그러므로 시작과 끝을 크게 밝힌다는 대명종시(大明終始)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중지곤(重地坤䷁) 이호(二爻)와 오호(五爻)가 중천건(重天乾䷀)으로 가면 중화리(重火離䷄)가 되고, 중천건(重天乾䷀) 이호(二爻)와 오호(五爻)가 중지곤(重地坤䷁)으로 가면 습감(習坎䷜)이 된다. 습감(習坎䷜)과 중화리(重火離䷄)는 천지의 기운이 사귀 패상이다. 동시에 이들은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의 중(中)을 얻었다. 습감(習坎䷜)은 본래 중천건(重天乾䷀)의 기운에 근본한다. 그러므로 중천건(重天乾䷀)은 습감(習坎䷜)의 일양에서 일어나고 중화리(重火離䷄)의 2양에서 끝난다고 하였다. 중화리(重火離䷄)는 중지곤(重地坤䷁)의 기운에 근본한다. 그러므로 중지곤(重地坤䷁)이 중화리(重火離䷄)의 1

으로 이를 살펴보면 그것의 오차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여기서 심괄이 주목하는 부분은 원형법의 정묘함이다. 과거에 역법을 논하는 사람들은 이를 몰라서 많은 오류가 있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즉 하루 해의 길고 짧은 시간의 차이를 원형에 비추어서 계산해 내고 반복적으로 집산하여 진행하게 되면 주된 기준과 보조적인 기준이 생겨나는데 그것의 운행에 근거하여 매일 길이의 변화를 추산해 낼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거리상으로 북극에서 떨어진 도수를 구해내면, 합쳐지고 떨어져 나간 것이 거짓이 없으며, 마치 원규를 운행시키는 것과 딱 맞아떨어지는데, 이는 심괄의 말처럼 산술에 정통해야 판단할 수 있는 수치라고 여겨진다. 이 방면의 자세한 내용은 심괄의 ‘희녕역주의’를 참고하면 되리라고 믿는다.

또 주역은 이와 같은 산술 방법에 의존하여 천도 운행의 자취를 판단해낸다고 볼 때 그 차이가 생겨나는 흐름을 패상으로 보여주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주역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0) 주역의 건곤(乾坤)과 감리(坎離)

건곤(乾坤)은 천지(天地) 상하(上下)의 중심이 되고 감리(坎離)는 천지(天地) 동서(東西)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음양의 본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선천에서는 건(乾)과 곤(坤)이 날줄[經]이 되고 작용을 위주로 나타내는 후천에서는 감리(坎離)가 건곤(乾坤)을 대신하는 날줄[經]이 된다.

음에서 일어나 감의 2음에서 마친다. 중천건(重天乾䷱)이 습감(習坎䷜)의 가운데 붙어 있으므로 습감(習坎䷜)과 중화리(重火離䷄)가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의 一家가 되고 음양의 공간이 된다. 또 습감(習坎䷜)이란 중지곤(重地坤䷁)이 중천건(重天乾䷱)의 패상을 내려 받아 달이 된 것이다. 중화리(重火離䷄)란 중천건(重天乾䷱)이 중지곤(重地坤䷁)의 상을 머금어 해가 되었다. 해와 달이 합하여 밝은 명이 됨으로 단전의 해설이 대명종시(大明終始)다. 건착도(乾鑿度)에 중화리(重火離䷄)는 해가 되고, 습감(習坎䷜)은 달이 되니, 해와 달의 법도는 음양(陰陽)의 조리이며 만물의 끝과 시작이 되는 바라고 했으니 곧 이곳의 뜻에 해당하는 말이다.

육 위 시 성
六位時成,

6위가 때로 이루어지나니

순상(荀爽)의 풀이

6호가 때를 따라 중천건(重天乾䷱)을 이룬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본문의 육위(六位)는 6호를 말한다. 12월 소식(消息)의 이치로서 말하였다. 중천건(重天乾䷱)은 자(子)에서 비롯하여 술(戌)에서 이루어진다. 중지곤(重地坤䷁)은 미(未)에서 시작하여 사(巳)에서 마무리된다. 또한 6호가 때를 따라 중천건(重天乾䷱)을 이룬다. 말하자면 중천건(重天乾䷱)을 이름이니 6호가 때를 따라 중지곤(重地坤䷁)을 이름은 그 가운데 있다.

시 승 육 룡 이 어 천
時乘六龍以御天.

때로 여섯용을 타고서 하늘을 말 몰 듯 한다.

후과(侯果)의 풀이

대명(大明)은 해다. 육위(六位)는 천지의 4시다. 6호가 저를 본받아 일어나기 때문이다. 대명이 낮과 밤으로서 끝과 시작이 된다. 여섯 자리가 서로 돌아가 드러나며 때를 이름이 되는 것이다. 중천건(重天乾䷱)이 6기를 타고서 변화를 나타내되, 사시의 운행을 이루면서 천지를 거느려 말 몰 듯 함으로 때로 6용(龍)을 타고서 하늘을 말 몰 듯한다고 하였다. 건착도(乾鑿

度)에 해와 달은 만물의 끝과 시작이 된다고 했으니 이 구절의 뜻은 그곳의 해설로 미루어 생각해도 된다.

후과(侯果) 풀이의 해설

예기(禮記) 예기(禮器)편에 대명(大明)은 동쪽에서 나온다고 하되, 정씨는 이곳의 주석에서 대명(大明)은 해라고 하였다. 달을 말하지 않고 해를 들어 달을 포함하는 뜻이 있다. 계사하전에 육허(六虛)에 두루 한다고 하였다. 우번은 그곳의 주석에서 육허(六虛)는 곧 여섯 자리라고 하였다. 6 자리로서 천지의 사시를 삼는 것은 위로 하늘과 아래의 땅이 사시가 운행하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6효의 괘가 곧 저 여섯 자리를 본받아 생겨나기 때문이니 이른바 계사하전의 육허(六虛)에 두루 한다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대명이 흘러 움직이며 그치지 않으므로 주야(晝夜)로서 끝과 시작이 된다. 6자리가 서로 마주 서면서 상대하여 공을 이루므로 서로 쳐들려 때가 이루어짐이 된다. 돌아가며 드러난다고 해석한 게(揭)는 들린다는 거(擧)와 같으니, 거(擧)는 상대적인 개념에서 하는 말이다. 설괘전에 건(乾䷀)은 임금으로서 한다고 했고, 또 건(乾䷀)은 임금이 된다고 하였다. 사람으로서 임금됨이 6효의 양기를 타고서 변화에 맞추어 덕을 닦고 사시의 운행에 맞게 천지를 거느려 말을 몰 듯 하므로 때로 6용을 타고서 하늘을 말 몰 듯 한다고 하였다. 끝에서 건작도의 해와 달이 만물의 끝과 시작이 된다는 구절로서 그 뜻을 밝혔다. 그러므로 해를 들어서 달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우안(愚案)

중천건(重天乾䷀)은 그 비롯됨이 하늘에 줄기하고 있음은 그 본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용을 타고 하늘을 말 몰 듯 함은 그 작용을 두고 하는 말이다. 괘상이 한 획에서 비롯되므로 건원(乾元)이라고 하였다. 육효(六爻)에서 작용이 두루 함으로 육용(六龍)이라고 하였다. 그 본질을 치켜세우지 않음은 중천건의 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고 그 작용을 말하지 않음은 중천건의 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乾道變化, 各正性命, 保合太和, 乃利貞.

건의 도가 變하고 化함에 각기 성명(性命)을 바로 하나니, 크게 화함(化)을 보전해 합하여 이에 이롭고 바르다.(바르게 함이 이롭다.)

우안(愚案)

건원(乾元)은 도가 된다. 그러므로 건의 도(乾道)다. 계사상전에 먼저 음양의 작용을 일컬어 도라고 한다고 하고 끝맺으면서 음과 양의 작용을 예측하지 못함을 신(神)이라고 한다고 했다. 한강백은 그곳의 주석에서 신(神)이란 변화의 지극함이라고 했으므로 건도 변하고 화한다고 하였다. 계사전에 또 변화의 도를 아는 것은 신의 하는 바를 아는 것일 거라고 하였다. 우번은 그곳의 주석에서 양에 있어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變이 되니, 중천건(重天乾䷑) 이효(二爻)가 변해 중지곤(重地坤䷁)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음(陰)에 있어서 나타나는 움직임을 화(化)라고 하니, 중지곤(重地坤䷁) 오효(五爻)가 중천건(重天乾䷑)으로 감을 일컫는다고 하였다. 대개 중천건(重天乾䷑)으로서 중지곤(重地坤䷁)을 거느림이니 중천건(重天乾䷑)은 變를 주장하고 중지곤(重地坤䷁)은 化를 주로 하기 때문이다.

중용(中庸)에서 하늘이 명(命)한 것을 일컬어 성(性)이라고 한다 했으니, 건은 하늘이 됨은 성품 또한 중천건(重天乾䷑)을 일컫는 말이다. 중지곤(重地坤䷁)이 중천건(重天乾䷑)에 얹드려 초효(初爻)에 있으면 바람 巽이 된다. 중풍손(重風巽䷸) 상전(象傳)에 군자가 이를 보고서 命을 펼쳐 일을 행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命이 바람 곧 巽에 통하는 말이다. 중천건(重天乾䷑)으로서 중지곤(重地坤䷁)으로 변하고, 중지곤(重地坤䷁)으로서 중천건(重天乾䷑)으로 화한다면 위가 물, 아래가 불인 수화기제(水火既濟䷾)로 정해진다. 이는 6효가 모두 자리가 바르므로 강과 유가 모두 자리가 마땅하다. 그러므로 각기 성과 명을 바르게 한다고 함이 되고, 6효가 모두 합하므로 음과 양이 덕을 합한다. 따라서 크게 화함(化)을 보전해 합한다는 保合太和다. 和는 곧 이로움이다. 중천건(重天乾䷑)에서 이로움을 말하지 않으므로 대화(大和)라고 표현하였다. 모두 이롭고 바르게 한다는 구절의 뜻을 해석한 문구다. 그러므로 이에 이롭고 바르다.

수출서물 만국함녕
首出庶物, 萬國咸寧.

만물에서 으뜸으로 나옴이니 만국이 모두 편안하다.

유환(劉瓛)의 풀이

양의 기운은 만물의 시작되는 바가 된다. 그러므로 만물에서 으뜸으로 나온다는 수출서물(首出庶物)이다. 임금을 세움에 천하가 모두 평안하다. 그러므로 만국이 모두 편안하다고 하였다.

유환(劉瓛) 풀이의 해설

설괘전에 건(乾☰)은 머리(首)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首다. 중천건(重天乾☰) 초효(初爻)가 불어나면 우뢰 진(震☳)이다. 설괘전에 상제(上帝)는 진(震☳)에서 나온다고 했으므로 나온다는 出이다. 계사하전에 건(乾☰)은 양물(陽物)이고 곤(坤☷)은 음물(陰物)이라고 하였다. 이는 곧 이곳에 적힌 물(物)의 뜻이 음양(陰陽)을 총칭하는 개념이 된다는 증거다. 우번은 비(賁䷖)괘 상전에 대한 주석에서 곤(坤☷)은 만국이 된다고 하였다. 곤(坤☷)은 땅이 되고 땅에는 구주(九州)가 있으므로 만국이 된다고 하였다. 중지곤(重地坤☷)은 바름을 편안히 여기면 길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안녕함이 된다. 양(陽)은 진(震☳)에서 나오고 음(陰)이 고요하므로 만물에서 으뜸으로 나옴이니 만국이 모두 편안하다고 하였다.

象曰,

상전에서 말한다.

이정조(李鼎祚)의 풀이

상전(象傳)이란 본뜻다는 象이다. 그 법을 본 떠 괄효의 덕을 본뜻음을 말한다.

이정조(李鼎祚) 풀이의 해설

계사전에 본뜻다는 상(象)이란 象이라고 하였다. 또 상이란 이를 본뜻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이란 본뜻다는 象이라고 하였다. 또 8괘가 열을 이름에 상은 그 가운데 있다고 했고, 8괘는 상으로서 알려준다는 구절도 있다. 곧 괄효(卦爻)의 덕을 법 받고 본뜻음을 취해온 말이 상의 뜻이다.

^{천 행 건}
“天行健,

“하늘의 운행이 굳건하니”

하타(何妥)의 풀이

천체가 굳세지 않으나 능히 그 덕이 굳세다. 마치 땅이 유순하지 않으나 능히 하늘을 받드는 기세가 유순함과 같다. 그 까닭에 중천건(重天乾䷲)의 덕은 괘가 홀로 이름을 바꾸어 굳세다는 이미지로 대신하고 있으니, 이는 송충이 말하는 다음의 이치 그대로다. (중천건重天乾䷲은 행하는 덕이)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아서 굳세다는 명칭으로 중천건(重天乾䷲)의 이름을 대신하여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자세히 알게 한다. 그러나 나머지 괘들은 이처럼 뜻을 상세히 하고자 괄명을 바꾸어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산지박(山地剝䷖) 단전에 보면 군자가 소식영허(消息盈虛)의 이치를 숭상하니 하늘의 행해짐이라고 하였다. 지뢰복(地雷復䷗) 단전에 그 도를 반복하니 7일에 와서 회복됨은 하늘의 운행하는 이치라고 하였다. 대개 중천건(重天乾䷲)의 一 陽이 艮에서 坤으로 바뀌어 산지박(山地剝䷖)으로 다하고, 지뢰복(地雷復䷗)은 중지곤(重地坤䷁)으로부터 우뢰로 나와 하나의 양이 다시 돌아와 회복된다. 모두 하늘의 一양이 그 사이에 오가면서 운행하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중천건(重天乾䷲) 상전에서 하늘이 운행한다고 하였으니 설괘전에서 말하는 乾이란 곧 굳세다는 뜻과 일치한다. 이로써 보면 하늘의 운행이 굳세다는 말은 그 뜻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된다. 다만 천지의 굳세고 유순함은 그 의미가 이치의 설명에 맞춰져 있을 뿐 형상에 근거한 해설은 아니다. 그러므로 하타는 앞에서 천체가 굳세지 않으나 능히 그 덕이 굳세고, 땅이 유순하지 않으나 능히 하늘을 받드는 기세가 유순하다고 하였다. 중천건(重天乾䷲)만이 홀로 굳세다는 의미로 괄명을 대신한다는 말은 하늘의 운행 도수와 관련된 말이다. 즉 하늘의 하루의 밤과 낮을 도는 데 변하는 운행도수가 1도를 지나가므로 이를 두고 하늘의 운행이 낮과 밤으로 게으르지 않아서 굳세다는 송씨의 개념을 빌려오고 있을 말한다. 나머지 괘들은 그 의미를 해석함에 괄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함은 오직 중천건(重天乾䷲)을 다른 괄상들과 달리 우러러보지 않으면 안되는 데 있음을 주목하는 공씨의 말과 일치한다.

군 자 이 자 강 불 식
君子以自強不息.

군자가 보고서 스스로 굳세어 쉬지 않느니라.

우번(虞翻)의 풀이

군자는 3호를 일컫는다. 중천건(重天乾䷀)은 성질이 굳세므로 강하다. 하늘의 운행이 하루 낮 하루 밤에 1도를 돌아 움직이므로 스스로 굳세어서 쉬지 않는다. 노자에 보면 스스로 이기는 자가 굳세다고 하였다.

간보(干寶)의 풀이

군자는 곧 현명한 사람의 뜻이다. 굳세게 힘쓰고 노력하여 덕을 닦고자 한다. 반드시 지위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요임금과 순임금은 하루 이틀에 만가지 기틀이 생겨난다고 경계하셨고, 문왕은 해가 기울도록 밥을 먹을 여가도 내지 못했다. 중니는 밤새도록 잠자리에 들지도 못했고, 안자는 그만 그쳐 쉬고자 하고자 해도 그러지를 못했다. 그 밖의 사람이야 어지러운 마음으로 힘을 들이지 않아서는 더욱 안 된다. 그러므로 스스로 힘쓰기를 쉬지 않음이 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군자는 3호를 일컫는다는 뜻은 3호가 곧 사람의 자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늘의 도리를 본받아 행하는 군자의 도리를 말함이니 날을 마치도록 굳세게 하고 굳세게 행하는 덕이 있다. 설패전에 있는 우번의 주석을 보면 뜻을 굳세고 정밀하게 가져 행동을 쉬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중천건괘가 굳센 까닭에 굳센 의미를 지닌다는 관점이다. 하늘의 운행도수를 보면 일년에 365도 1/4을 운행한다. 이는 하루 낮 하루 밤의 운행 도수가 1도에 해당하는 수치이므로 앞의 주석에서 하늘이 하루 낮 하루 밤에 1도를 돌아 움직인다고 하였다. 하늘은 오직 굳센 까닭에 강하고 강한 까닭에 쉬지 않는다. 스스로 이기는 자가 굳세다는 노자의 문구는 곧 노자 도덕경의 구절이다. 또 사기 商君전에 스스로 이기는 것을 굳세다고 말한다고 하였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군자는 위 아래의 효사에 통하는 말이다. 묻고 배워 덕을 넓히는 일에 힘

써 굳세게 함이니 그 의미가 덕을 넓힘에 있을 뿐 자리에 연연하기 때문이 아니다. 고요모(皋陶謨)에 전전공공하소서. 하루 이틀에 만(萬)가지 기(幾)들이 생겨난다고 하셨으니 요순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무일(無逸)에 보면 탐욕과 안일로써 나라를 다스리지 말게 하시고, 조심하고 두려워 하시오. 하루 이틀 사이에 만 가지 기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침으로부터 해가 기울 때까지 식사를 하실 겨를도 없었다고 함은 문왕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논어에 내 일찍 날을 마치도록 밥 먹는 것도 알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깊이 생각을 놓지 못했다고 했으니 중니를 일컫는 말이다. 또 그쳐 그만두고자 하나 능히 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나의 재주를 굳게 하게 하면서 그래도 또한 앞에 우뚝 새로운 지표를 세워 놓는다⁵¹⁾고 했으니 안자(顏子)를 일컫는 말이다.

이상은 모두 옛 성현들의 스스로 힘써 쉬지 않는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밖의 술한 서민이나 일반 백성들이야 모두 그보다 더욱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니 스스로 힘써 쉬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서민은 하늘의 굳센 덕을 본받고자 하여 군자의 기틀을 성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악기에 나타나 쉬지 않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였다. 중용에 지성스러움은 쉬지 않는다고 하였다. 군자가 하늘의 운행을 법받아 엄숙하고 공경스러움(莊敬)으로 날마다 힘쓰는 까닭에 능히 스스로 힘써 쉬지 않음이 또한 하늘과 같아야 한다.

잠 용 물 용 양 재 하 야
“潛龍勿用”, 陽在下也,

잠겨 있는 용(龍)은 쓰지 말라고 함은 양(陽)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요.⁵²⁾

51) 이 구절은 논어의 자한(子罕) 편에서 인용하고 있다. 안자가 스승의 덕을 기리면서 탄식해 말하기를 선생님의 덕은 우러러보니 더욱 높으며, 뚫어보니 더욱 굳으며, 앞에 있는 듯 하다가도 홀연히 뒤에 있다고 했다. 동시에 사람들을 잘 이끌어 글을 넓게 하시고 예의 기틀을 잡아주신다고 했으니 중천건의 과상에서 힘쓰고 힘써야 함을 그 예로서 보여주신 인용문이다.

52) 여기서부터 소상(小象) 전이다. 다른 과에서는 효사 아래에 소상 전을 붙였으나 건괘는 편지를 달리하고 있다. 문왕의 과 단사(彖辭)와 주공의 효 단사를 열거하고 공자의 단전과 상전, 문언전의 차례를 취하였다.

순상(荀爽)의 풀이

일이 처음 드러나는 기미는 자리가 낮다. 비록 양(陽)의 덕이 있으나 잠겨서 감추어져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하나의 양(陽)이 초효(初爻)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일이 처음 드러나는 기미(氣微다. 그 효는 아래에 있으므로 자리가 낮다. 계사하전에 용과 뱀의 칩거함은 몸을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했으니 지뢰복(地雷復䷗)의 형상이 있다. 비록 양의 기운이 있으나 잠겨 감추어져 아래에 있고 숨어서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쓰지 말라는 물용(勿用)이다.

현 룡 제 전, 덕 시 보 야
“見龍在田”, 德施普也,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고 함은 덕을 널리 베풀어요.

순상(荀爽)의 풀이

나타난다는 현(見)은 그 자리에 나타나 거처함이다. 밭은 곤(坤䷁)을 말한다. 이효(二爻)가 마땅히 중지곤(重地坤䷁)의 오효(五爻)로 올라가야 한다. 그러므로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고 말한다. 대인은 천자를 말한다. 높은 자리에 나타난 거처하고 있는 효다. 여러 음(陰)에 임하여 커나가고 있고, 덕을 아래로 베풀어 보이므로 덕의 베풀음이 두루한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자리는 이효(二爻)다. 양(陽)이 이효(二爻)에 나타나 있음을 말한다. 또 이효(二爻)는 땅 위가 됨으로 밭이라 일컬었다. 양(陽)이 불어나 이효(二爻)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밭은 곤(坤䷁)을 말한다. 순씨는 역(易)을 해설함에 중천건(重天乾䷀)은 올라가고 중지곤(重地坤䷁)은 내려간다는 건곤승강설(乾坤升降說)로 흔히 그 뜻을 풀이한다. 대개 중천건(重天乾䷀)은 양을 주장하고 양(陽)은 움직여 나아가므로 올라간다. 곤은 음이 주장하므로 음(陰)은 움직여 물러가는 까닭에 아래로 내려간다. 이효가 중을 얻었으면 임금의 덕이 있다. 마땅히 중지곤(重地坤䷁)의 오효(五爻)로 올라가 자리 잡을 만한 덕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효(二爻) 밭으로부터 올라가므로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는 말이 된다는 해설이다. 오효(五爻)는 임금의 자리다.

그러므로 대인은 천자를 일컫고, 지존의 자리에 나타나 거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효(二爻) 양(陽)은 오효(五爻)의 자리로 올라가 거처하면서 여러 음(陰)에게 임하여 자라나게 하니 수지비(水地比䷇)에서 만국에게 친하는 뜻이 있는 형상이다. 풍뢰익(風雷益䷩) 단전(彖傳)에서 양(陽)이 베풀고 음(陰)이 낳는다고 하였다. 양(陽)은 주로 베풀고 또 덕이 된다. 그러므로 아래로 덕이 베풀어지는 형상이 있다. 아래 문언(文言)에 세상을 선하게 하고도 뽐내지 않으니 덕이 두루 하여 감화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덕이 베풀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終日乾乾”, 反復道也,

종일토록 힘쓰고 힘쓴다고 함은 반복하기를 도로써 함이요.

우번(虞翻)의 풀이

삼효(三爻)에 이르면 괘상이 지뢰복(地雷復䷗)이다. 그러므로 천지비(天地否䷋)와 지천태(地天泰䷊)는 그 유형이 반대되는 괘상임을 말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중천건(重天乾䷀)의 양(陽)이 삼효(三爻)까지 붙어나면 위가 지뢰복(地雷復䷗)의 형상이다. 이는 괘상이 전체적으로 지천태(地天泰䷊)가 된다. 지천태(地天泰䷊)와 반대가 되는 괘상은 천지비(天地否䷋)다. 오직 하늘의 건(乾䷀)으로서 건(乾䷀)을 계승하면 지뢰복(地雷復䷗)의 괘상으로 움직이는 셈이다. 그러므로 지뢰복(地雷復䷗)의 도(道)로 돌아옴이 항상 지천태(地天泰䷊)라고 할 수 있고 천지비(天地否䷋)가 되지 않는다. 천지비(天地否䷋)와 지천태(地天泰䷊)가 그 유형이 서로 상반된 관계라는 구절은 잡괘전을 인용하는 내용이다.

“或躍在淵”, 進无咎也,

혹 뛰어오르나 못에 있다고 함은 나아감이 허물이 없다는 것이요.

순상(荀爽)의 풀이

중천건(重天乾䷀)이란 임금의 괘다. 사효(四爻)는 음(陰)의 자리다. 그러므로 위로 뛰어 오효에 거처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중지곤 초효로 내려가

거처하고자 하여 양의 바른 자리를 구하게 된다. 그것이 곧 못의 개념이니 못이란 다름 아닌 땅 아래를 일컫는 말이다. 양의 성질은 그 바탕이 즐겨 나가고자 한다. 따라서 나감에 허물이 없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설괘전에 건(乾☰)으로서 임금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천건(重天乾☰)은 임금의 괘가 된다. 계사상전에 하늘의 수는 3이고 땅의 수는 4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4는 음(陰)의 자리가 된다. 사효(四爻)는 오효(五爻)를 섬기므로 위로 뛰어 오효(五爻)에 거처하고자 한다. 사효(四爻)는 초효(初爻)와 호응하는 자리이다. 또 아래로 내려와 땅의 초효(初爻)에 거처하고자 한다. 대개 사효(四爻)는 양(陽)이 바르지 못한 자리이고 초효(初爻)와 오효(五爻)는 모두 바른 자리다. 그러므로 양(陽)이 바름을 구해 간다고 하였다. 건작도(乾鑿度)에 양(陽)은 움직여 나가고자 한다고 했으므로 양의 성질은 그 바탕이 즐겨 나가고자 함이 된다. 나가서 바른 자리를 얻고 중(中)을 얻으므로 허물이 없다.

비룡재천, 대인조야,
“飛龍在天”, 大人造也,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고 함은 대인의 일함이요.

순상(荀爽)의 풀이

난다는 뜻은 구속당하는 바가 없음에 비유하는 말이다. 하늘은 모든 일에 머리가 되어 일체를 마름질하는 역할을 한다. 대인은 법을 만들어 하늘의 자리에 나타나 거처하는 존재다. 성인이 일어나심에 만물이 우러러본다고 했으니 이 구절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초효(初爻)와 삼효(三爻)는 마땅한 자리를 차지했으나 중(中)이 되지 못한다. 이효(二爻)는 중(中)을 얻었으나 바르지 못하다. 사효(四爻)는 위에서 중(中)도 얻지 못했고 자리가 바르지도 못하다. 모두 거리끼는 바가 있다. 반면 오효(五爻)는 지존의 자리이고 또한 중(中)으로 자리가 바르다. 그러므로 거리끼는 바가 없어서 나는 용의 자리라고 말하게 된다. 만사가 모두 하늘에 지어져 비롯되므로 하늘은 모든 일에 머리가 되어 일체를 마름

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성인은 하늘을 법으로 삼아 세상의 법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대인은 법을 만든다고 하였다. 계사상전에 하늘은 상을 드리우고 성인이 이를 법칙으로 삼는다고 하셨으니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늘의 자리는 오효(五爻)다. 하늘의 자리에 나타나 거처하는 자는 성인이다. 문언(文言)에서 성인이 일어나심에 만물이 우러러본다고 하였다. 석고(釋詁)에 지을 작(作)은 지을 조(造)이고 할 위(爲)라고 하였다. 이는 지을 작(作)이 지을 조(造)와 뜻이 같음을 말한다. 지을 작(作)은 복희씨가 역의 8괘를 지었음을 뜻한다. 성인이 일어나신다는 성인작(聖人作)은 곧 대인이 짓는다는 대인조(大人造)의 뜻이다. 만물이 우러러본다는 만물도(萬物覩)의 뜻은 대인을 봄이 이롭다는 이견대인(利見大人)이다. 그러므로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풀이하였다.

항룡유회, 영불가구야
“亢龍有悔”, 盈不可久也,

끝까지 올라간 용이니 뉘우침이 있다는 것은 가득함은 오래 갈 수 없다는 뜻이요.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양(陽)은 마땅히 오효(五爻)에 거처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은 맨 윗자리가 되므로 가득 찼다는 영(盈)이 된다. 높아서 지극하면서 자리를 잃었으므로 마땅히 아래의 중지곤(重地坤䷁) 삼효(三爻)로 내려가야 하므로 가득함은 오래갈 수 없다고 하였다. 만약 임금으로 본다면 태상황(太上皇)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내려가 중지곤(重地坤䷁) 삼효(三爻)로 간다면 굽혀 제후가 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뉘우침이 있게 되는 자리라고 하였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양(陽)이 오효(五爻)에 거처한다면 중(中)을 얻음이 되고 마땅한 지위를 얻음이 된다. 나아가 위에 거처하면 너무 높다. 그러므로 가득한다는 영(盈)이 된다고 하였다. 양(陽)인 구(九)로서 맨 위에 거처한다면 너무 높아서 지극하다. 양(陽)으로서 음(陰)에 거처함은 자리를 잃음이 된다. 상효(上爻)는 삼효(三爻)와 호응관계다. 너무 높아 지극하다면 마땅히 아래로 내려가 중지곤(重地坤䷁) 삼효(三爻)로 가야한다. 납갑(納甲)설로 말하면 달

이 15일에 이르러 건(乾☰)이 갑(甲)에서 가득 찼다가 16일에 신(辛)으로 물러가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가득 찬 것은 오래갈 수 없다고 하였다. 자리를 잃고 위에 너무 높이 있으므로 태상황(太上皇)과 같은 처지라고 하였다. 효(爻)의 자리가 삼효(三爻)면 삼공(三公)이 된다. 그때 삼공(三公)은 제후(諸侯)와 같은 자리이고 또 내려와 중지곤(重地坤☷)의 마땅한 삼효(三爻) 자리로 내려온다면 호괘 진(震☳)은 제후가 되므로 곱혀 제후가 된다고 하였다. 가득함은 오래 갈 수 없으므로 뉘우침이 있다.

용구(用九), 천덕불가위수야.
“用九”, 天德不可爲首也.

用九는 하늘의 덕은 머리가 되어서는(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송충(宋衷)의 풀이

용구는 여섯 효의 자리가 모두 9다. 그러므로 여러 마리의 용을 본다고 하였다. 순양(純陽)은 곧 하늘의 덕이다. 만물의 시작에 능히 앞장서서는 안 되므로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앞서는 자는 흉하다. 따라가는 자는 길하다. 그러므로 머리가 되지 않아야만 길하다.

송충(宋衷) 풀이의 해설

여섯 효(爻)의 자리가 모두 양인 구(九)다. 그러므로 구(九)를 쓴다는 용구(用九)다. 여섯 자리가 모두 용의 상을 취하고 있으므로 여러 마리 용(龍)을 본다고 하였다. 중천건(重天乾☰)은 순양의 괘로 성질이 굳세다. 춘추(春秋)전에 굳셈은 하늘의 덕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곧 하늘의 덕이다. 문언에 중천건(重天乾☰)의 건원(乾元) 용구(用九)라고 했으니 하늘의 덕은 곧 중천건(重天乾☰)의 乾元이다. 위대하구나 건원이여, 만물이 힘입어 비롯된다(大哉乾元 萬物資始)고 했으므로 만물의 시작은 능히 앞장서서는 안 된다. 양(陽)이 부르면 음(陰)이 화답하고, 남자가 움직이면 여자가 따른다. 이는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의 두 가지 괘상이 작용하는 근본 이치다. 그 까닭에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앞섬에 지나치게 굳세면 흉하다. 따름에 유순함으로서 강을 건너게 하므로 길하다.

안(案)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의 묘함은 두 괘의 작용에 있다. 오직

천도(天道)의 변화는 그 실마리를 예측하지 못하므로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문언⁵³⁾曰,

53) 십익(十翼)의 한 범주 문언(文言)

십익(十翼)이라는 용어는 위서(緯書)에서 비롯되었다. 사마천의 사기에도 “공자가 만년에 역경을 좋아하여 단사(彖辭)를 차례대로 지어서 붙였고 상사(象辭) 설괘(說卦) 문언(文言)을 지어 붙였다”고 하였으나 십익이란 명칭은 있지 않았다.

위서(緯書)는 서한 말엽에 나온 책이다. 그 중 건척도(乾鑿度)에 “공자가 눈물을 흘리며, ‘천명인지 운명인지? 봉황새도 오지 않고 하수에서 도서도 나오지 않으니, 슬프다. 하늘의 명이다.’고 하며, 한탄한 뒤에 뜻을 안정시키고 읽기를 그만두었으며, 50세에 이르러서 십익을 연구하여 지었다.”고 하였다.

대개 역경이 두편인데, 공자가 저술한 것이 또한 10편이므로, 반고의 예문지에 “역경이 12편이다.”고 한 것이다.

또 예문지에, “역의 6호를 거둬서 상 하편을 썼고 공자가 단(彖) 상(象) 계사(繫辭) 문언(文言) 서괘(序卦) 등 10편을 만들었다.”고 하였고 또 비직전에, “10편에 밝았는데, 장구가 없으므로 다만 단(彖) 상(象) 계사(繫辭) 등 10편과 문언(文言)을 가지고 상하경의 뜻을 해설했다.” 하였는데, 공자의 글이 처음에는 경 안에 편입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의 글로 있었고, 또한 책의 편수가 무거워 10편으로 나누되 계사 같은 것은 반드시 3~4편이 되어야 하므로, 단(彖) 상(象) 등과 합하여 10편의 수가 된 것이 아닌지?

비직전으로 본다면 문언이란 것은 단(彖) 상(象) 계사(繫辭)를 통합한 이름인 듯하고, 예문지로 본다면 또한 따로 그 글이 있는 듯하니, 이 역시 알 수 없다.

정씨 이래로 각기 그 해설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 분류법이 달랐다. - 성호 이익

○ 여기서 문언(文言)이란 뜻은 다른 문구로 예를 삼아 그 괘의 괘사(卦辭)를 붙인 것, 그 괘를 설명한 것, 그 괘를 차례 지은 것, 그 괘를 섞어 놓은 것이니, 생각건대 모두 다 그 말을 이치에 맞게 꾸민 것이다.

예기에, “거상 중에는 말을 문식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말에 있어 문식하는 것이 곧 문언이다. 계사에는, “그 말이 문식되고 그 언사가 곡진하여 맞는다.”고 하였으니 곧 문언이란 말의 주석이다. 문언은 당초에 따로 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계사 안에 있었던 것인듯하다.

즉 계사 상의 8장과 계사 하의 5장이 문언과 같은 예의 것인데, 이 두 장은

유환(劉瓛)의 풀이

문장에 의지하여 그 이치를 말하므로 문언(文言)이라고 하였다.

요신(姚信)⁵⁴의 풀이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은 문호(門戶)가 된다. 문은 중천건(重天

여러 괘를 섞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사 속에 있는 것이고, 지금의 이른바 문언은 건괘 곤괘의 12효가 구비되었기 때문에 바로 괘 밑에 가자다 넣고 지금의 문언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다. 지금의 계사 상전의 8장 안에 오히려 향룡이란 한마디가 있으니, 이를 증명할 수 있다. - 성호 이익

54) 요신(姚信)에 대하여

위오촉(魏吳蜀) 삼국시대에 동우(董遇)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요신(姚信)은 오나라의 무강인이지만 吳志에는 전기가 없다. 육적전의 주에 그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가 있고 아래의 주역 요씨 주 운운이 그곳에 소개된 내용이다.

맹희의 역학을 배웠고 천문역수에 정통한 학자였다. 그의 저술은 역주 10권이 있었다고 하나 전하지 않는다. 주역요씨주(周易姚氏注) 한 권은 청나라의 마국한이 그의 설들을 채록하여 모은 것이다.

『옥함산방집일서』의 주역 요씨 주 1권에 실린 40여 구절 가운데 참고할 만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산경의 ‘명겸정길(鳴謙貞吉)’에 관한 해석이다.

이를 그는 호체로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풍지관 단전에서 말하는 ‘貞 小亨’의 의미는 우변의 괘변을 말한다고 하였다.

또 천지의 수에 관해서도 언급하는 그 내용은 姚信과 같다. 곧 천지의 수가 55인데 그 가운데 여섯은 6획의 수를 상징하므로 그것을 덜어내고 49만을 서법에 쓴다는 내용이다.

또 천문역수에 정통하던 요신(姚信)은 현천(昕天)의 설을 주장했다. 현천(昕天)의 현(昕)은 음을 현으로 읽는다. 그가 말하는 현천(昕天)은 해의 궤도가 적도의 남북으로 드나들어 해가 비치는 곳은 낮이 되는 것이다. 해의 궤도가 북쪽으로 당기게 되면 적도 이북에 있는 사람은 낮이 길고 밤이 짧으며, 적도 이남에 있는 사람은 이와 반대로 낮이 짧고 밤이 길게 된다. 또 해의 궤도가 남쪽으로 당기게 되면 적도 이북에 있는 사람은 낮이 짧고 밤이 길며, 적도 이남에 있는 사람은 이와 반대로 낮이 길고 밤이 짧다는 내용이다.

서경의 주석을 모아 놓은 서집전에 “하늘에 관한 학설이 3가지 있다.”고 하였다. 그 내용은 혼천, 개천 선야설인데 이아(爾雅)의 소에서는 여섯 가지로 나누어 소개한다. 姚信의 현천(昕天)설은 그 가운데 4번째 주장이다.

乾(䷀)과 중지곤(重地坤䷁)을 설명한다. 62괘가 모두 마찬가지다.

유환(劉瓛) 풀이의 해설

효상에 의지하여 그 이치를 말한다. 공씨(孔氏)가 두 괘의 경문을 해석하므로 문언(文言)이라고 일컫는다고 하는 바로 그 말이다.

요신(姚信) 풀이의 해설

공씨가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은 역의 문(門)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 나머지 모든 괘 및 효도 모두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으로부터 나온다. 의리가 심오하므로 특별히 문언(文言)을 지어서 뜻을 풀이해 보이셨다고 했으니 곧 요신의 시각이다.

원자, 선지장야
元者, 善之長也,⁵⁵⁾

55) 원형이정(元亨利貞)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

“목강이 동궁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처음 주역점(筮占)을 쳤다. 艮의 8을 만났다. 사가 이르길 이것은 艮괘가 隨괘로 변한 것이니 隨는 그것이 빠져나간다(出) 뜻입니다. 빨리 빠져 나가십시오. 목강이 말하기를 죽는다는 괘이다. 주역에서 수는 크게 형통하고, 곧음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다고 하였다. 元은 體의 자라남이다. 亨은 아름다움의 모임이다. 利는 의로움의 조화이다. 貞은 일의 근간이다. 어짊을 몸에 지니면 사람의 으뜸이 될 수 있으며, 덕을 아름답게 여기면, 충분히 예에 합치할 수 있고, 만물을 이롭게 하면 충분히 의로움을 조화시킬 수 있고, 올바름을 굳게 지키면 충분히 일의 줄기를 세울 수 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네가지 덕을 갖춘 사람은 속일 수 없다. 또 그래야만 수괘를 얻었을 때 재앙이 없다. 그러나 나는 부인이면서 이번의 亂에 참여하였다. 본래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어질지 못하니 元이라 일컬을 수 없다. 국가를 평안히 하지 않았기에 亨이라 할 수 없고, 일을 만들어 자신을 해롭게 하였으므로 利라 할 수 없으며, 자리를 버리고 음란하게 하였으므로 貞이라 할 수 없다. 네 가지 덕을 가지고 있다면 따라가도 허물이 없겠지만 나는 그것을 이렇듯 모두 가지고 있지 않으니 어찌 따라가겠는가? 나는 악을 취하였으니 허물을 없앨 수 있겠는가? 반드시 여기서 죽을 것이니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는 양공 9년 조에 나온다. 노나라의 목강이 평하되어 동궁으로 나갈 때의 기록이다. 그때 점괘가 重山艮에서 澤雷隨로 변한 艮之隨를 얻는데 대한 뜻 풀이다. 사관은 澤雷隨에 나간다는 출의 뜻이 있다고 하여 그녀가 즉시 나가게 되리라고 추리한 것이다. 그러나 목강은 다르게 받아들인다. 덕이 있는 사람만이 길한 괘를 얻어 길할 수 있고 덕행이 나쁜 사람은 점한 바가 길하다 해도 그 흥

원(元)은 선(善)의 어른이다.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중천건(重天乾䷀)은 임금의 패다. 여섯 효(爻)가 모두 임금에 해당된다. 시

한 처지를 뒤바꿀 수 없다고 보았다. 자신은 네 가지 덕이 하나도 없고 악만 가득하니 길패를 얻었다 해도 아무 보탬이 없어 반드시 동궁에서 죽을 것이라는 점괘의 해석이다. 여기서 좌전의 기록은 원형이정을 하늘의 네 가지 덕으로 바라보는 건문언전의 설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 기록을 통해 제기되는 논점.

1. 주역의 점괘와 점을 치는 사람의 덕이 어떤 상관관계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를 엿보게 한다. 즉 주역의 어떤 패상이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덕이 그 패상에 일치하는 쪽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강조하여 사실상 주역의 해석에 있어서 그 덕을 중요시하는 입장이 예부터 있어 왔음을 짐작하게 한다.(소공 12년의 기록도 마찬가지로 중지곤괘에 적힌 남괴와 자복혜백의 대화를 참고할 것)

2. 역(易)의 십익전(十翼傳)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성립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기록의 하나다.

그동안 십익전의 성립연대와 작자에 대해서는 한나라 이후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왔다. 그 관점은 대략 4가지인데,

첫째, 십익전 모두를 공자가 직접 지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그 주장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동한의 반고(班固)와 정현(鄭玄), 당나라의 육덕명(陸德明), 안사고(顔師古) 등이 있다.

둘째, 십익전 중 단전과 상전만 공자가 지었고 나머지는 공자의 제자나 후학들이 지었으리라는 주장이다. 송나라 때의 구양수(歐陽脩)가 대표적이다.

셋째, 십익전은 결코 공자의 저술이 아니며 전국시대 말기나 서한의 소제 및 선제 때에 지어졌거나 아니면 좀 더 뒤에 엮여졌으리라고 보는 관점이다. 송나라의 조여담(趙汝談), 청나라의 최술(崔述), 료평(廖平), 강유위(康有爲) 등이 있다.

넷째, 십익전은 공자의 저술이지만 그 중에 앞사람들의 가르침을 정리한 구절도 있고 문인제자들이 평소 공자의 강술을 기록한 부분도 있어서 논어의 상황과 비슷하여 전체적으로는 공자의 견해이지만 여기에 뒷사람이 함부로 끼워 넣은 것도 있고 문장이 탈락하거나 잘못 뒤바뀐 것도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중천건은 전체적인 문장의 구성은 문왕의 패 단사 및 주공의 효 단사 패사와 효사에 대한 공자의 단전과 상전 외에 특별히 문언전(文言傳-모두 6절)을 덧붙이고 있다.

작되면서 크게 통하고, 임금의 덕으로 모여 합하므로 원(元)은 선(善)의 어른이 된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설괘전에 건(乾☰)은 임금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천건(重天乾☰)은 임금의 패라고 하였다. 대아(大雅)에 능히 어른이 되고 능히 임금이 된다고 했으니 임금은 곧 어른의 뜻으로 통한다. 주어(周語)에 태자진(太子晉)이 옛적의 백성에게 어른이 된 자라는 구절에서 어른 장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위소(韋昭)는 그곳의 주석에서 어른 장(長)은 임금 군(君)과 같다고 하였다. 아래의 전에 사람에게 어른이 됨은 어진 덕행을 몸에 지님을 말한다고 했으므로 임금의 패로서 중천건(重天乾☰)의 원(元)을 해석하였다. 여섯 효가 모두 양이다. 그러므로 여섯 효(爻)가 모두 임금에 해당된다. 시작됨에 크게 형통하고 임금의 덕으로 모여 합당하니 대개 아름다운 모임에 합당하게 하여 건원(乾元)의 선(善)함을 밝혔다. 계사상전에 잇는 자는 선(善)이라고 하였다. 우번(虞翻)은 그곳의 주석에서 잇는다는 계는 거느린다는 통(統)이니, 중천건(重天乾☰)이 능히 하늘을 거느려 만물을 내므로 잇는 자는 선이라고 하였다. 이는 중천건(重天乾☰)이 일만 가지의 선(善)을 거느리되 건원(乾元)이 중천건(重天乾☰)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임금 된 자가 중천건(重天乾☰)의 원(元)덕을 몸에 지니면 하늘을 계승하여 지극한 법도를 세울 수 있으므로 원(元)이란 선(善)의 어른이라고 하였다. 서경 소고(召誥)에 오직 왕의 위상은 원(元)의 덕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바로 같은 뜻이다. 또 지뢰복(地雷復䷗)으로부터 중천건(重天乾☰)에 이르기까지 선(善)을 쌓음이 되니 처음에는 자에서 불어난다. 중천건(重天乾☰)은 만물에 머리가 되어 나오므로 어른도 된다.

형 자 가 지 회 야
亨者, 嘉之會也,

형은 아름다움의 모임이요,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통한다(通)는 뜻은 양이 합하여 중천건(重天乾☰)이 됨을 말한다. 일체 선(善)이 서로 이어져 가므로 아름다움의 모임이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자하(子夏)전에 형(亨)은 곧 통한다는 통(通)이라고 하였다. 춘관(春官) 대종백(大宗伯)에 가례(嘉禮)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주석에서 가(嘉)는 선(善)이라고 하였다. 우공에서 웅저(濼沮)가 회동한다고 하여 회동의 의미를 정(鄭)은 주석에서 웅수(雍水)와 저수(沮水)가 서로 만나 합해짐이라고 하였다. 이는 이곳에 나오는 회(會)자가 뜻이 합해진다는 데 있음을 알 게 한다. 6효가 모두 양(陽)으로 합하여 중천건(重天乾䷲)이 된다. 중천건(重天乾䷲)은 양(陽)이 선함이 되므로 이는 많은 선이 서로 이어서 중천건(重天乾䷲)을 이루는 형상이다. 양(陽)은 열어 통하게 함을 주장함으로 아름답게 합해진다는 가회(嘉會)다. 일체의 선이 서로 잇는다는 말은 대개 건원(乾元)의 선에 합하여 아름답게 합해짐을 분명하게 밝힘이다. 또 중천건(重天乾䷲)으로서 중지곤(重地坤䷁)에 통하므로 아름다움은 합하는 바가 아름답다. 그러므로 형통하다는 뜻은 아름다움의 모임이다.

이 자 의 지 화 야
利者, 義之和也,

이(利)는 의(義)의 화(和)함이요.

순상(荀爽)의 풀이

음(陰)과 양(陽)은 서로 화답한다. 각기 그 마땅함을 얻은 연후에 이롭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중용에 의(義)란 마땅하다는 의(宜)라고 하였다. 순자(荀子) 왕제(王制)에 의(義)는 분수에 맞추어 서로 응함이 법칙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시(四時)에 맞는 차례가 되고 만물을 재단하며 아울러 천하를 이롭게 하니 다른 까닭은 없다. 분수의 마땅함을 얻었을 뿐이다. 음과 양이 서로 화답하여 각기 그 마땅함을 얻음도 또한 이 뜻과 일치한다. 분수에 마땅하면 서로 잘 어울리므로 이(利)는 의(義)의 화(和)함이다. 설문에 이로울 이(利)는 섬(銛-가래섬)이라고 하였다. 칼 도변이다. 서로 합당해진 연후에 이롭다. 역에서 이자(利者), 의지화야(義之和也)라고 하였다. 대개 날카로울 이는 칼 도(刀)변에 속하므로 나누어지는데 뜻이 있다. 서로 이렇듯 나누어지는 까닭에 능히 만물을 재단하고 서로 마땅함을 얻게 되니 각기

그 마땅함을 얻었다면 서로 합당해진다. 이(利)는 또 벼 화(禾)로부터 유래하였다. 설문에 벼 화(禾)는 2월에 처음 싹을 틔운다. 8월에 열매가 익으므로 때의 중(中)을 얻고 있다고 했으니 이는 이로움이 중화(中和)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음(陰)과 양(陽)이 서로 합당하여 그 마땅함을 얻은 연후에 매사는 이롭다.

정 자 사 지 간 야
貞者, 事之幹也.

정(貞)은 일의 근간이니,

순상(荀爽)의 풀이

음(陰)과 양(陽)은 바르면서 자리가 마땅하면 만사에 있어서 근간이 될 수 있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지수사(地水師䷆) 단전(彖傳)에 정(貞)은 바를 정(正)이라고 하였다. 여섯 효(爻)가 모두 바르면 음(陰)과 양(陽)이 바르고 자리가 마땅하다. 대대례(大戴禮) 보부편(保傅篇)에 역을 이끌어와 근본을 바르게 하면 만사가 다스려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일만 가지 일에 있어서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설군(薛君) 한시장구(韓詩章句)에 간(幹)은 바르다는 정(正)으로 풀이하였다. 시고(詩詁)에 나무가 겹으로 뻗어나온 게 가지가 되고 바르게 뻗어나온 것은 줄기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줄기 간(幹)에 바를 정(正)의 뜻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바르게 하는 정(貞)은 일의 줄기가 된다.

군 자 체 인 족 이 장 인
君子體仁足以長人,

군자가 인(仁)을 몸에 지녀 행함이 남의 우두머리가 될 만하며

하타(何妥)의 풀이

이 구절은 성(性)이 하늘을 본받았음을 밝히고 있으니 오상(五常)⁵⁶⁾의 도

56) 중천건 네 가지 덕에 바탕을 둔 오상(五常) 등의 개념

重天乾卦 四德	元	亨	利	貞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방위	東	西	南	北	中央

리에 합당하다. 인(仁)은 오행상 목(木)이 되고 목은 봄의 기운이다. 그러므로 원(元)을 4덕의 머리에 배당한다. 군자가 仁을 몸에 지녀 행하므로 (君子體仁) 사람들의 어른이 되는 뜻이 있다.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성인은 군자를 말한다. 오상(五常)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다. 이 5가지는 사람의 덕이다. 원형이정(元亨利貞)은 하늘의 덕이다. 이는 성인이 하늘의 원형이정(元亨利貞)을 법 받아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덕에 합함을 말한다. 중천건(重天乾䷀) 초효(初爻)가 진(震䷲)으로 나오면 우뢰 진(震䷲)은 동방 목(木)에 속한다. 설문에 목(木)은 동방의 오행이라고 하였다. 예기 월령(月令) 편에 모일 입춘(立春)은 성대한 덕이 목(木)에 있다고 하였다. 무릇 과실의 핵 가운데 생기가 있는 것을 인(仁)이라고 한다. 이는 인(仁)이 목(木)이 되고 목은 봄에 자라난다. 육서정위(六書正譌)에 원(元)은 그로부터 사람을 쫓는다. 사람이 어질면(仁) 모두 그를 쫓는다. 하늘에 있어서는 원(元)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仁)이 된다. 그러므로 인(仁)은 원(元)과 짝이 되고 4가지 덕의 머리가 된다. 인(仁)을 몸에 지님은 인(仁)으로서 본질을 삼음을 말한다. 사람에게 어른이 됨은 군자와 같다. 좌전 양공 9년에 원이란 몸의 우두머리라고 하였다. 원(元)은 머리가 된다. 그러므로 몸의 우두머리다. 진(震䷲)은 인(仁)이 된다. 또 제후가 된다. 따라서 군자가 인을 몸에 지녀 사람들에게 어른이 되는 뜻이 있다. 또 예운(禮運)에 어질다는 인(仁)이란 마땅한 이치의 근본이고 유순함의 본체이다. 얻는 자는 존엄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어진 덕을 몸에 지님은 사람들에게 어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가 회 족 이 합 레
嘉會足以合禮,

모임을 아름답게 함이 족히 예에 합하며

하타(何妥)의 풀이

五行	木	火	金	水	土
五常	仁	禮	義	智	信

예(禮)는 사귀어 만남에 있어서 모여 통하는 법도가 된다. 그러므로 형통함에 짝하였다. 오레에 길흉빈군가(吉凶賓軍嘉)가 있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으로서 예에 합한다.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계사상전에 그 모여 통함을 보아서 그 법도가 되는 禮를 행한다고 하였다. 이는 예가 사귀어 만남에 있어서 모여 통하는 법도가 되는 근거다. 따라서 그 뜻을 취하여 형통함에 짝을 지우고 있다. 오레에 길흉빈군가(吉凶賓軍嘉)가 있다. 춘관(春官) 대종백(大宗伯)에 가례(嘉禮)로서 만민을 친한다고 하였다. 그 글의 주석에 따르면 가례(嘉禮)는 상하에 통하는 까닭에 나머지 4례와 구별하여 말하고 있다고 하였다. 덧붙인다면 춘관(春官)은 길례(吉禮)에 시작되고 가례(嘉禮)에서 끝을 맺는다. 의례(儀禮)는 곧 가례의 관혼(冠婚)에서 시작되고 길례의 유사철(有司徹)에서 마치게 된다. 대개 백성을 이룬 뒤에 신에 힘을 이룬다. 그러므로 5례에서 오직 아름답게 합한다는 의미만 언급하는 것은 곧 의례가 관혼에서 시작되는 뜻으로 통한 결과다. 또 중천건(重天乾䷀)은 아름다운 이치로서 중지곤(重地坤䷁)과 서로 합하여 통한다. 양(陽)은 아름다움이 되고 곤(坤䷁)은 예가 된다. 그러므로 (형통함이) 아름답게 만나 예(禮)에 합하는 뜻이 된다.

이 물 족 이 화 의
利物足以和義,

만물을 이롭게 하는 데는 족히 의리에 합당하게 화합하며,

하타(何妥)의 풀이

이로울 이(利)는 재단해 이롭이다. 군자가 이와 같은 이로움을 몸에 지녀 만물을 이롭게 하니 족히 오상의 마땅한 이치에 합할 수 있다.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설문에 이로울 利는 칼로부터 유래한다고 했으니 뜻이 예리한 날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재단하여 이롭게 주장한다. 군자가 이와 같은 자연의 날카로움을 몸에 지녀 만물을 재단해 이루므로 족히 오상의 마땅한 이치에 합할 수가 있다. 주어(周語)에 마땅함을 말함은 반드시 이로움에 미쳐야한다고 하였다. 위(韋)는 그곳의 주석에서 능히 사람을 이롭게 한 뒤에 마땅함

이 된다고 하였다. 여씨춘추(呂氏春秋)에도 마땅함의 큰 것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로움은 만물을 이롭게 함이 된다. 또 중천건(重天乾䷀)에서 정기(精氣)는 물(物)이 된다고 하여 물(物)로 일컫고, 땅은 고요함에 이치가 마땅함이 된다고 하였다. 중지곤(重地坤䷁)이 와서 중천건(重天乾䷀)을 이룸은, 설괘전에서 말하는 도덕에 화순하여 마땅한 이치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만물을 이롭게 함은 족히 마땅한 이치로 호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貞固足以幹事.

정고(貞固)함이 족히 일의 근간이 될 수 있으니

하타(何妥)의 풀이

정(貞)은 믿을 신(信)의 뜻과 통한다. 군자의 행실이 바르고 올곧으므로 일을 맡겨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논어에서도 일을 공경하게 하면 믿을 만하다고 했으므로 일을 맡겨 근간이 될 수 있다면 믿음직하여 신(信)과 짝을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안(案)

이는 해석이 잘못됐다. 무릇 하늘에 있어서 象을 이루는 것은 중천건(重天乾䷀)의 원형이정(元亨利貞)이다. 말하자면 하늘이 사시로 운행함에 있어서 만물을 생성한다. 땅에 있어서 형체를 이루는 것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다. 이는 군자의 법 받는 오상(五常)이 사람을 교화하게 되는 이치다. 원(元)은 선(善)의 어른이 됨으로 능히 인(仁)을 몸에 받아 지닌다. 인(仁)은 봄에 발생함을 주장한다. 이는 동방 목(木)의 기운이다. 형통함은 아름다운 모임이 되니 족히 예(禮)에 합한다. 예(禮)는 여름의 자라남을 주장하니 남방의 화(火)기운이다. 이로움은 만물을 마땅하게 하니 족히 마땅한 이치로 호응함이 된다. 마땅한 의리는 가을의 성숙함으로 통하므로 서방의 금(金)기운이다. 정(貞)은 일의 근간이 되니 지혜로움과 짝이 된다. 지혜로움은 겨울에 갈무리함과 통하니 북방의 수(水)기운이다. 그러므로 공자가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숭상한다고 하였다. 곧 그 이치가 이로서 너무나 분명하게 증명이 된다. 신(信)을 말하지 않은

것은 신(信)은 토(土)의 기운이어서 임금에게 통합되어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풍택중부(風澤中孚䷼)에서 (임금이 행하는 덕의) 믿음이 돼지와 물고기에까지 미친다고 했으니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머리로 만물에 나와 4시가 어긋나지 않음을 두고 말한다면 중천건(重天乾䷀)의 상이다. (반면)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실어 오행이 서로 살아나는 이치는 땅의 공이다. 땅의 기운은 가운데 중궁에 자리 잡아 일 년의 사계절을 나누어 주관함으로 또한 임금 된 자가 황극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이치와 통한다. 즉 수(水)·화(火)·목(木)·금(金)의 기운은 토(土)의 기운이 아니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인의예지(仁義禮智)도 참된 군자가 아니면 넓혀지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덕이 임금에게 통합된다고 여겨 중천건(重天乾䷀)을 말하면서도 믿을 신(信)을 덧붙이지 않은 까닭이 숨어 있다.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이는 곧다는 정(貞)으로서 믿을 신(信)에 짝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말하자면 곧고 바르다면 일을 맡길 수가 있으므로 논어에서 말하는 일을 공경히 함에 믿을 수 있다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음이 그 증거다.

이정조(李鼎祚) 풀이의 해설

이(李)는 정(貞)으로서 지혜에 결부시켰다. 그러므로 이는 해석이 틀리다고 하였다. 하늘에 있어서 상을 이룸이 중천건(重天乾䷀)의 원형이정(元亨利貞)이라고 함은 중천건(重天乾䷀)이 곧 하늘이다. 원형이정(元亨利貞) 곧 사시(四時)를 뜻하므로 하늘이 사시로 운행됨에 만물을 이룬다고 하는 풀이가 있게 되었다. 땅에 있어서 형체를 이룬다고 함은 사람이 태어나 형체를 이룸은 곧 인의예지신의 다섯 가지 떳떳한 도리가 있음을 말한다. 임금으로서 마땅히 오상의 떳떳한 도리를 범 받아 백성들을 교화함이니 하늘에 있어서는 元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仁)이 된다. 때에 있어서는 봄이 되고 오행으로 보아서는 동방의 목(木)이 된다. 하늘에 있어서는 형통함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禮)가 된다. 때에 있어서는 여름이 되고 오행으로 보아서는 남방의 화(火)가 된다. 하늘에 있어서는 이로우미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의(義)가 된다. 때에 있어서는 가을이 되고

오행으로 보아서는 서방의 금(金)이 된다. 하늘에 있어서는 정(貞)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혜가 된다. 때에 있어서는 겨울이 되고 오행으로 보아서는 북방의 수(水)가 된다.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즐긴다는 구절을 인용하여 곧다는 정(貞)이 곧 지혜가 되어 물에 속함을 밝히고 있다. 계사상전에 괘의 덕은 방정해서 지혜롭다고 하였다. 바르고 곧아서 견고한 것이 말하자면 지혜다. 설문에 견고할 고(固)는 4방이 막혀 있다고 하였다. 입구에서 유래했으니 옛 소리다. 입구는 옛적의 둘레 위(圍)자다. 계사상전에 천지의 조화를 범주로 둘러싸서 지나치지 않는다고 했으니 구가(九家)의 주석에 따르면 둘러쌓는다는 위(圍)는 두루 주(周)와 같다고 하였다. 또 지혜는 만물에 두루하고 도는 천하를 건너게 한다는 구절에서 지혜의 두루함은 곧 바르고 견고하다는 정고(貞固)로 지주(智周)를 풀이하고 도제천하(道濟天下)는 족히 일을 주관할 수 있다는足以幹事로 그 의미를 풀이한다. 믿음을 말하지 않은 것은 대개 중천건(重天乾䷀) 자체가 믿음의 뜻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설괘에 건(乾䷀)은 하늘이 되고 임금이 된다고 하였다. 계사상전에 하늘의 수 5는 토(土)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은 토(土)를 주장하여 임금에게 통합된다고 말하였다. 風澤中孚卦 彖傳에서 믿음이 돼지와 물고기에까지 미친다고 하였고 또 같은 괘에서 이로움으로서 곧게 하니 이는 하늘에 호응하는 이치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임금의 도리가 돼지와 물고기에까지 미쳐서 위로 하늘에 호응함이니 하늘 곧 중천건(重天乾䷀)의 괘상이다. 다시 말해 중천건(重天乾䷀)의 괘상에 믿음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하늘이 위에서 운행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차례가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늘이 보여주는 질서에 대한 믿음이 된다. 그러므로 만물에 있어서 머리로 나옴에 4시가 어긋나지 않음이 곧 중천건(重天乾䷀)의 괘상이다. 토(土)는 아래에서 싣고 수화 목금의 기운이 어긋남이 없으니 이는 토가 보여주는 믿음이다. 따라서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어 오행이 서로 살리는 현상은 땅의 공덕이 된다. 하늘의 5는 무토(戊土)가 되니 중궁에 거처한다. 홍범에 5는 황극(皇極)이니 오직 황(皇)이 극(極)을 건립한다고 했으니 또한 중궁(中宮)에 거처한

다. 그러므로 토(土)의 기운은 가운데 거처하여 사계절의 왕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마치 황극(皇極)이 중궁(中宮)에 거처하여 사방을 운행하는 이치와 통한다. 수화목금(水火木金)은 모두 토(土)에서 나온다. 인의예지(仁義禮智)는 모두 임금에게 갖추어져 있다. 믿음은 이미 중궁에 거처하여 임금에게 귀속된다. 그러므로 먼저 중천건(重天乾䷀)을 말하여 원형이정(元亨利貞)의 덕을 거느렸으니 반드시 믿음을 거듭 말하여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마무리를 삼을 까닭이 없다고 보았다. 또 곧다는 정(貞)은 바르다는 정(正)의 뜻이다. 6효가 모두 바르게 제 자리를 차지한다면 수화기제(水火既濟䷾)로 바르게 정해진다. 중지곤(重地坤䷁)은 일이 되고 중천건(重天乾䷀)에서 중지곤(重地坤䷁)을 거론함은 중지곤(重地坤䷁)이 지혜로서 감을 감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곧다는 정(貞)으로서 지혜에 짝을 맞추는 죽히 일의 근간이 될 수가 있다.

군자행차사덕자 고완건원형리정
君子行此四德者, 故曰“乾, 元, 亨, 利, 貞.”

군자는 이 네 가지 덕을 행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건(乾䷀)은 크게 선하고 형통하고 이롭고 곧다고 한 것이다.

간보(干寶)의 풀이

지아비는 순양(純陽)이니 하늘의 정기가 된다. 4가지 행(行)은 군자의 아름다운 덕이다. 이는 중천건(重天乾䷀)이 패의 머리로서 중천건(重天乾䷀)의 패사가 곧 경의 전체 편목에 해당함을 드러냈으니 도의(道義)의 문을 밝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마치 이는 춘추(春秋)에 오시가 갖추어진 것과 같다. 그러므로 부자께서 뜻을 거기에 맞추어 그를 음미하게 하셨다. 따라서 이 글을 보는 자들은 인을 몸에 지녀 자기를 바르게 함이 만물을 감화시키는 바가 된다. (천지의) 운행을 보아 때를 아는 것은 하늘에 순응하는 바다. 기물을 씌울 때의 마땅함을 따름이니 백성을 이롭게 하는 바다. 바름을 지켜 사업을 한결같이 이롭고 풍속을 아름답게 만드는 바다. 어지럽다면 법도가 잘못되어 가르침이 음란해진다. 거슬린다면 때를 어긋나게 함이고 그 공이 막힌다. 어긋나면 씌울 방해하여 그 사업이 황폐해진다. 이를 잊는다면 바름을 잃게 되어 그 관직이 무너져 손상된다. 위의 네 가

지 덕은 문왕이 그로 말미암아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근거가 되었다. 반면 상(商)나라의 주왕(紂王)은 그로 말미암아 패망하는 허물의 근거가 되었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중천건(重天乾䷀)의 괘상은 모든 효가 순양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정기가 된다. 사람이 이를 내려 받아서 네 가지 덕을 완성하게 됨으로 네 가지 행은 곧 군자의 아름다운 덕이 된다. 계사상전에 성품을 이루어 보존하여 지킴이 도의의 문이라고 하였다. 대개 이는 仁義禮智의 성품이니 중천건(重天乾䷀)의 원형이정(元亨利貞)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중천건(重天乾䷀)이 괘의 머리가 되어 네 가지 괘사로 품목을 이루어 말이 붙여졌다. 이는 중천건(重天乾䷀)의 4가지 덕이 도의(道義)의 문이 되고 사람의 성품 또한 이로부터 비롯됨을 분명하게 하는 말이다. 한서(漢書) 왕부(王褒)전에 성스러운 군주가 어진 신하를 얻는다는 계송에서 춘추에 오시의 요점을 법 받는다고 하되, 그 주석을 보면 풀이가 이렇게 되어 있다. 元이란 기운의 시작이다. 봄은 사시의 시작이다. 왕은 명을 받는 처음이다. 정월은 정치를 베푸는 한해의 시작이다. 公은 곧 지위의 으뜸이니 한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였다. 이는 역의 첫 머리에 원형이정(元亨利貞)의 네 가지 덕이 갖추어져 있는 것과 같고, 춘추(春秋)의 책 머리에 5시를 갖추어 언급하는 맥락과 서로 통하는 뜻이 있으니, 이는 모두 성인께서 특히 염두에 두신 바 세상의 근본 이치가 된다. 논어에도 인을 말씀하심에 자기를 말미암는다는 뜻으로 이야기하셨으니 이는 곧 어진 덕을 몸에 지녀 자기를 바르게 함으로서 만물을 감화시킬 수가 있으니 이는 사람들에게 어른이 되는 바로 그 이치다. 운행한다는 운(運)은 모인다는 회(會)와 같다. 예기(禮記)를 보면 예(禮)는 때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니 변통함에 때를 좇음은 예(禮)의 형통함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운행을 보아 때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고요모(皐陶謨)에 하늘이 오례(五禮)를 지어보였다고 했으니 하늘에 순응함은 곧 예(禮)에 합하는 것이다. 계사하전 12장에 대개 취함은 이로움이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기물을 씀이 마땅함을 따름이 된다. 중용

(中庸)에서 보면 마땅한 이치의 의(義)란 마땅하다는 의(宜)라고 하였다. 그 까닭에 백성을 이롭게 함은 마땅하게 호응하여 어울림이다. 지수사괘 단전에 곧을 정(貞)은 바를 정(正)의 뜻이라고 하였다. 한편 업(業)은 사업(事業)이다. 중지곤(重地坤䷁)에서 사업을 펼친다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 말의 뜻에 해당하는다. 바름을 지켜 사업을 한결같이 이루는 까닭에 풍속을 아름답게 다지게 되는 것이니 정고(貞固)함이 족히 일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예(禮)는 곧 본체다. 이것이 어지러워진다면 인(仁)의 본체가 무너져 손상될 것이므로 그 가르침이 반드시 음란하여 어지러운 데로 이르게 된다. 거스른다면 예(禮)의 때에 어긋나게 되므로 그 공이 반드시 막혀 통하지 못하는데 이르게 될 것이다. 어긋나면 마땅한 의리를 방해하여 그 사업이 반드시 황폐함에 이를 것이고, 이 도리를 망각한다면 바른 이치를 상실하여 관직의 역할이 뒤집혀 패망하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반면 이 네 가지 덕이 갖추진다면 흥할 것이므로 네 가지 덕은 문왕이 말미암아 나라를 일으켜 세운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반대로 이 네 가지 덕이 갖추지지 못해 허물을 짓는다면 필경 패망하게 될 것이므로 네 가지가 갖추지지 못한 허물로 인해 상나라의 주왕이 나라를 잃어버린 예로서 설명하였다. 이로서 군자는 날을 마치도록 굳세고 굳세게 하여 이 네 가지 덕을 반드시 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

초 구 왕 감 풍 물 용 하 위 아
初九曰“潛龍勿用”，何謂也？

잠용물용은 무슨 뜻인가?

하타(何妥)의 풀이

부자께서 짐짓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다. 다음에 오는 다섯 가지 괘사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부자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형식을 빌려 그 뜻을 풀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래의 다섯 효(爻)가 모두 마찬가지다.

자 왕 용 덕 이 은 자 아
子曰，“龍德而隱者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용덕을 가지고 숨어 있는 자니

하타(何妥)의 풀이

이는 바로 답하심이니 성인에게는 숨거나 드러남에 용의 덕이 있다. 지금 효가 초구(初九)이기 때문에 맨 밑의 아래 땅의 자리다. 숨어서 드러나지 못하므로 써서는 안 된다는 물용(勿用)이다.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설문에 용은 능히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다고 하였다. 이는 용(龍)이 능히 숨고 능히 드러날 수 있음을 뜻한다. 성인은 능히 숨고 능히 드러나는 용(龍)의 덕이 있는 이다. 지금은 자리가 초구(初九)이므로 마땅히 숨는 때다. 숨는 까닭에 쓰지 않는다는 물용(勿用)이다.

안(案)

초효(初爻)가 변하면 바람 손(巽≡)이 된다. 계사하전에 손(巽≡)은 일컬어 숨는데 맞다고 하였다. 성인에게 용(龍)의 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숨어서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용(龍)의 덕이 있으나 숨는 자라고 하였다.

불역호세
不易乎世,

세상을 따라 변하지 않으며(세상을 바꾸지 않으며)

최경(崔憬)의 풀이

마땅히 잠겨 있어야 할 때를 당하여 세상을 따라 변하지 않으나 행동은 용(龍)의 덕이 있음을 말한다.

최경(崔憬) 풀이의 해설

조기(趙岐)의 맹자 주석에 역(易)은 다스린다는 치(治)라고 하였다. 마땅히 잠겨서 숨어 있으면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나 때에 맞춰 도를 행을 말한다. 또 왕필 주석에서는 세속의 옮겨가고 변해가는 바가 되지 않음을 말한다고 하였다. 우(虞)씨의 수뢰둔(水雷屯䷂) 단전(彖傳) 주석에서도 초효(初爻)는 강해 뽑기에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의미가 불역(不易)이다. 곧 뜻이 확고하여 뽑을 수 없다는 확호기불가발(確乎其不可拔)의 의미다.

우안(愚案)

진(震☳)은 장자(長子)이니 세상을 계승하는 세(世)가 된다. 초구(初九) 양(陽)이 앞드려 움직이지 않음은 진(震☳)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므로 불역호세(不易乎世)다.

불 성 호 명
不成乎名,

명성을 이루려 하지 않아(이름을 이루지 않아서)

정현(鄭玄)의 풀이

마땅히 숨어야 할 때다. 세속을 쫓아 스스로 뛰어나고자 하지 않아 이름을 이를 바가 없다.

정현(鄭玄) 풀이의 해설

때가 마땅히 숨어야 할 때다. 굽어보고 우러르면서 세속을 쫓아 스스로 우뚝하게 서고자 않는다. 그러므로 이름을 이루는 바가 없다.

안(案)

건(乾☰)은 선(善)이 된다. 양(陽)이 삼효(三爻)까지 쌓여야 한다. 선(善)이 쌓이지 않으면 족히 이름을 이루지 못한다. 계사하전에 그 초(初)는 알기에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불성호명(不成乎名)이다.

둔 세 무 민
遯世无悶,

세상에 은둔해도(피해 살아도) 근심하지 않으며

최경(崔憬)의 풀이

도는 비록 행해지지 못하나 이치에 통해 있어 근심하지 않는다.

최경(崔憬) 풀이의 해설

진(震☳)은 世가 된다. 진(震☳) 양(陽)은 숨어 있는 초효(初爻)이므로 세상에 은둔한다는 둔세(遯世)다. 그래서 도는 행해지지 못하나 마음으로 이치에 통해 있으므로 근심이 없다. 곧 중용에서 말하는 둔세이무민(遯世而无悶)이다. 여기서 둔세(遯世)는 앞의 불역세(不易世)를 이어서 하는 말이다.

불 견 시 이 무 민
不見是而无悶,

남이 옳게 여기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

최경(崔憬)의 풀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옳다고 봐주지 않으나 자기는 도에 어긋나지 않음을 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않는다.

최경(崔憬) 풀이의 해설

지뢰복과 중지곤의 오효(五爻) 음(陰)은 위에서 함께 어지럽다. 하나의 양(陽)이 아래에서 잠겨 있으므로 옳게 봐주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봐주지 않으나 자기 자신은 도에서 어긋나지 않았음을 안다. 그러므로 근심함이 없다. 곧 논어에서 말하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거나 노여워하지 않는다는 인부지이불온(人不知而不慍)이다. 옳게 봐주지 않는 불견시(不見是)는 불성호명(不成乎名)의 뜻을 계승한 말이다. 초효(初爻) 진(震≡)은 즐거움이 된다. 그러므로 모두 근심하지 않는다는 무민(无悶)이라고 하였다.

낙 즉 행 지, 우 즉 위 지,
樂則行之, 憂則違之,

(도에 맞아) 즐거우면 행하고 근심스러우면 떠나가서

우번(虞翻)의 풀이

양(陽)이 초효(初爻)에서 나옴은 진(震≡)이 되고 괘상이 지뢰복(地雷復䷗)이다. 진(震≡)은 즐거움이 되니, 진(震≡)은 동방(東方) 목(木)이다. 때로는 봄이 된다. 춘추(春秋) 계로에 춘(春)은 꿈틀거린다는 준(蠱)이니 꿈틀거리고 꿈틀거림이 기빠 즐거워하는 모양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즐거움이 된다. 행(行)이 됨은 설패전에 진(震≡)은 움직임이라고 하였다. 또 발이 되고 발길질이 된다고 하였다. 위소(韋昭)의 국어(國語) 주석에도 진(震≡)은 작족(作足)이라고 했으니 행(行)이 되고 이로써 즐거우면 행한다고 하였다. 곤(坤≡)은 죽음으로 근심스럽다고 함은 달은 삼십일에 곤(坤≡)에서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미 죽어 백(魄)이 되므로 곤(坤≡)은 죽음이 된다. 소공 26년 좌전에 죽음은 악물(惡物)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곤(坤≡)은 죽음으로 근심스럽다고 하였다. 양(陽)이 중지곤(重地坤䷁) 가운데 숨으니 세상에 은둔하되 근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근심스러우면 어긴다.

확 호 기 불 가 발 잠 룡 야
確乎其不可拔, ‘潛龍也.’

뜻이 확고하여 뽑을 수 없는 것이 잠겨 있는 용이다.

우번(虞翻)의 풀이

확(確)은 굳센 모양이다. 중천건(重天乾䷀)은 굳세어도 초(初)에 잠겨 있고 중지곤(重地坤䷁)은 위라도 어지럽다. 군자는 이를 쓰지 않는다. 숨어서 아래 자리에 있으니 뜻이 확고하여 뽑을 수 없음이 잠겨 있는 용의 기상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계사하전에 무릇 건(乾䷀)은 굳세어 확연하니 사람에게 쉬움으로써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는 초효(初爻) 강(剛)으로써 하는 말이다. 마씨가 그곳의 주석에서 확연하다는 확(確)은 굳센 강(剛)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확은 굳센 모양이다. 중천건(重天乾䷀)의 양(陽)이 처음 움직임은 강(剛)이 중지곤(重地坤䷁)의 초효(初爻)에 앞드려 있다. 중지곤(重地坤䷁)은 군자의 도에 어긋나고 위에서는 어지러움을 볼 수 있다. 군자는 숨어서 쓰이지 않을 때다. 태풍대과(澤風大過䷛)에서 들보기둥이 휘어진다고 했으니 이를 두고 단전(象傳)에서는 근본과 끝이 약함이라고 하였다. 초효(初爻)는 본(本)이 된다. 상효(上爻)는 말(末)이 된다. 두 효(爻)가 모두 유(柔)하므로 꺾이는 요(撓)다. 굳세다면 뽑기에 어렵다. 뽑는다는 발(拔)은 정(鄭)이 옮긴다는 이(移)라고 하였다. 잠겨 있는 용이지만 지극히 굳센 뜻이 있다. 이로써 뜻이 확고하여 뽑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구 이 왕 현 룡 재 전 이 건 대 인 하 위 야 자 왕 용 덕 이 정 중 자 야
九二曰“見龍在田, 利見大人”, 何謂也? 子曰, “龍德而正中者也.”

구이에 말하기를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대인은 용의 덕으로 바르게 알맞게 하는 자이니,

우번(虞翻)의 풀이

중(中)은 아래의 가운데다. 이효(二爻)는 양(陽)의 자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능히 바르고 알맞은 정중(正中)⁵⁷⁾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이효(二爻)는 아래의 가운데다. 그러므로 중(中)이라고 하였다. 이효(二爻)는 양(陽)의 자리가 아니므로 자리가 바르지 않다. 마땅히 변해 바르게 가야 한다. 변하면 바르게 되므로 하는 말이 정중(正中)이다.

용 언 지 신
庸言之信,

평상시의 말을 미답게 하고

순상(荀爽)의 풀이

이효(二爻)는 거처함이 중화(中和)이니 중지곤(重地坤䷁)에 응한다. 그러므로 미답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구가설괘(九家說卦)에 건(乾☰)은 말이 된다고 하였다. 양(陽)이 불어나 이효(二爻)에 이르면 호괘(互卦) 진(震☳)은 또한 말이 된다. 이효(二爻)는 중화(中和)의 자리이므로 위로 중지곤(重地坤䷁) 오효(五爻)와 호응한다. 이효(二爻)와 오효(五爻)가 서로 미더우므로 미답다는 신(信)이다. 이효(二爻)는 괘상이 감(坎☵)이다. 감(坎☵)은 미더움이 있다. 단전(彖傳)에 험함을 행하되 믿음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형상시의 말에 반드시 미답다.

용 행 지 곤
庸行之謹,

평상시의 행동을 삼가서

57) 주역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윗 괘의 중과 아래 괘의 중에 해당하는 九五와 六二의 呼應이다. 전체 64괘 가운데서 두 효가 서로 음양으로 호응하는 예는 水雷屯, 水地比, 天地否, 天火同人, 澤雷隨, 風地觀, 天雷无妄, 澤山咸, 天山遯, 風火家人, 水山蹇, 風雷益, 澤地萃, 澤火革, 風山漸, 水火既濟로 모두 16卦象이다. 그러나 괘를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이와 같은 형태의 호응 관계를 긍정적인 형태로만 해석하지 않는다.

반면 주역에서는 정중(正中)과 중정(中正)의 개념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예컨대 重天乾卦에서 보면 구이는 아래괘의 中이지만 正은 아니다. 또 구오는 윗괘의 中이면서도 자리도 正이다. 따라서 주역에서 정중과 중정의 의미는 서로 같지 않다.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양(陽)으로써 음(陰)의 자리에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삼간다는 근(謹)이다. 용(庸)은 떳떳함이다. 일컨기를 말미 항상 미덥고 행동을 항상 삼간다는 뜻이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양(陽)이 이효(二爻)까지 불어나면 호괘 진(震☳)은 작족(作足)이 되니 움직임이 된다. 양(陽)으로써 음(陰) 자리에 위치함은 자리가 바르지 못하다. 감(坎☵)은 하나의 양(陽)이 두 음(陰)의 사이에 빠져 있으니 거동이 불가불 삼가지 않을 수 없다. 습감(習坎☵)의 상전(象傳)에 덕행을 항상 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행동을 항상 삼가는 용행지근(庸行之謹)이다. 용(庸)은 떳떳함이라고 했으니 석고(釋詁)의 인용이다. 우번(虞翻)이 말하기를 감(坎☵)은 항상 상(常)이 된다고 하였으니 항상 믿음직하고 행위를 항상 삼감이니 모두 감(坎☵)의 象이다. 감(坎☵)에서 양(陽)에 해당하는 이효(二爻)는 곧 중천건(重天乾☰) 이효(二爻)다.

한 사 존 기 성
閑邪存其誠,

사특한 것을 막고 지성스러움을 보존하며,

송충(宋衷)의 풀이

한(閑)은 막는다는 방(防)이다. 사특함을 막고 진실함을 보존함이다. 이효(二爻)는 자리가 바르지 않다. 그러므로 사특함을 막는다는 뜻으로 말했다. 능히 중(中)에 처해 화(和)함으로 진실함을 보존한다는 개념으로 말했다.

송충(宋衷) 풀이의 해설

설문에 막는다는 한(閑)은 가로막는다는 란(闌)과 같다고 하였다. 문 가운데 나무가 있다. 나무로써 문을 막음은 개념이 방란(防闌)이다. 그러므로 한(閑)을 막는다는 방(防)이라고 하였다. 이효(二爻) 양(陽)이 음(陰)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가 바르지 않다. 효가 바르지 않다면 사특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특함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효(二爻)가 중(中)을 얻었으므로 능히 중화(中和)의 도리에 거처할 줄 아는 자다. 중용(中庸) 서두에

중화(中和)에 대해 말하면서 끝이 지성(至誠)으로 귀납되고 있다. 이효(二爻)가 중화(中和)에 처했으므로 여기서도 지성스러움을 보존한다는 존성(存誠)이다.

선 세 이 불 벌
善世而不伐,

세상을 좋게 하고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으며,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양(陽)이 올라가 오효(五爻) 자리에 머물면 위치가 윗 괘의 중(中)이 된다.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덕으로써 천하를 이롭게 하게 된다. 이때 자기의 이롭게 행한 바를 말하지 않으니 이것이 곧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 본문의 불벌(不伐)이다. 그러므로 노자에서는 최상의 덕은 덕으로 여기지 않는 법이니 그로 인해 비로소 덕이 있다고 하였다. 이곳의 뜻은 바로 그 말과 같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이효(二爻)에는 군자의 덕이 있다. 위로 오효(五爻)와 더불어 호응하는 효다. 양(陽)이 올라가면 중지곤(重地坤䷁) 오효(五爻)와 사귀다. 오효(五爻)는 윗 괘 가운데의 자리이므로 능히 아름다운 덕으로써 천하를 이롭게 함이 된다. 중지곤(重地坤䷁) 오효(五爻) 자리의 양(陽)은 이효(二爻)에서 올라와 사귀면서 만물을 이롭게 하는 덕이 시작되었으므로 처음 시(始) 자가 본문에서 함께 사용되었다. 이로운 바를 말하지 않음은 자랑하지 않는 불벌(不伐)이다.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덕불덕(上德不德) 시이유덕(是以有德)의 문구는 노자 도덕경 속의 문구이니 자랑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자 함에 있다.

안(案)

건(乾䷀)은 선(善)이 된다. 양(陽)이 불어나 이효(二爻)까지 이르면 호괘(互卦)가 진(震䷲)이니 이는 세(世)가 된다. 다시 태(兌䷹)는 패상이 훼손(毀折)의 뜻이 있고 건(乾䷀)의 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불벌(不伐)이 된다.

덕 박 이 화 화
德博而化(和).

덕이 넓어 교화됨이니,

순상(荀爽)의 풀이

거처가 중지곤(重地坤䷁)의 오효(五爻)가 되므로 덕이 넓은 덕박(德博)이다. 위와 아래에서 나머지 여러 음(陰)이 순종하는 까닭에 만물이 교화가 된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이효(二爻)가 올라가 중지곤(重地坤䷁)의 오효(五爻) 자리를 차지하면 그때의 땅이 되는 중지곤(重地坤䷁)은 그 도가 넓고 두루 미친다. 그러므로 본문의 표현이 덕박(德博)이다. 중지곤(重地坤䷁)이 중천건(重天乾䷀)의 배푸는 덕을 받들어 만물을 북돋워 이루어지게 하니 이는 여러 음(陰)이 하나의 양(陽)을 쫓아 따르는 바가 된다. 그러므로 교화가 되는 화(化)다.

우안(愚案)

건(乾䷀)은 덕(德)이 된다. 이효(二爻)는 삼재(三才)로 보아 자리가 땅의 도다. 중용(中庸)의 말에 땅의 도는 두루(博)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덕박(德博)이다. 양(陽)이 변해 음(陰)으로 되면 이효(二爻)에서는 움직임이 바름을 얻음이 되고 그때 중지곤(重地坤䷁)과 사귀는 괘상이 중천건(重天乾䷀)이므로 교화가 되는 화(化)다.

역왕현룡제전 이견대인 군덕야
易曰‘見龍在田，利見大人’，君德也。”

역에 이르기를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고 하였으니, 이는 군주의 덕이다.

우번(虞翻)의 풀이

양(陽)이 처음 음(陰)과 만나면 마땅히 오효(五爻)로 올라가 군주가 된다. 그러나 때를 쫓아 이효(二爻)에 그치면 마땅히 천하를 이롭게 한다. 그 덕은 곧고 방정하며 동시에 커서 덕에 이롭지 않음이 없다. 본문에서 분명하게 군자의 덕이라고 말했으니 땅의 수가 이효(二爻)에서 비롯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문 가운데 역왕(易曰)을 덧붙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이효(二爻)는 음(陰)의 자리다. 양(陽)이 불어나 이효(二爻)까지 미치면 이는 양(陽)이 비로소 음(陰)에게 감동한 때다. 곧 이효(二爻)는 오효(五爻)와 서로 호응하는 자리이고 양(陽)은 올라가 주장하게 되므로 마땅히 이효(二爻)의 양(陽)이 땅 패의 오효(五爻)로 올라가 군주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때에 맞춰 이효에 그쳐 있으므로 이미 천하를 이롭게 하는 덕이 거기에는 있다. 또 중천건(重天乾䷀) 이효(二爻)는 중지곤(重地坤䷁) 이효(二爻)와 짝으로 통하므로 중지곤(重地坤䷁) 육이(六二) 효사(爻辭)에서 곧고 방정하며 커서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음을 말했다. 반면 받은 땅의 표면이므로 곧고 방정하며 큰 상(象)이 있다. 그러므로 육이(六二) 효(爻)는 사람을 양육하는 덕이 있으면서 천하가 이롭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는 이효(二爻)에서 말하는 대인의 뜻이다. 비록 자리가 아래이긴 하지만 사실은 군자로서의 어진 덕이 있는 효다. 계사 상전에 일(一)은 하늘의 수이고, 이(二)는 땅의 수라고 하면서 땅의 수는 이(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으니 초효(初爻) 양(陽)은 자리가 바르므로 변하지 않고, 이효(二爻) 음(陰)의 자리는 바른 자리가 못되므로 마땅히 변해야 한다. 곧 변해 바뀌는 시작은 이 효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 가운데 역왈(易曰)을 덧붙였다는 게 앞 우변의 시각이다.

구삼왕 군자종일건건 석척약 려무구 하위야 자왕 군자진덕수업
九三曰“君子終日乾乾，夕惕若，厲无咎”，何謂也？子曰，“君子進德修業⁵⁸⁾。

58) 덕을 중시하는 의리역설

점에 있어서는 그 점괘에 걸맞는 덕이 뒤따라야만 한다.

공자는 점서의 기능에 머물러 있던 역을 사람의 덕을 기르는 매개체로서 역의 특징을 발전시켰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공자는 늘그막에 역을 좋아하였다. 고 적고 있다.

또 마왕퇴에서 출토된 백서 요편에도 “선생께서는 늘그막에 역을 좋아하셔서 평소에는 자리에 두고 계시다가 길을 가실 때는 책 자루에 역을 넣어 다니셨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역에 매료되어 살아가시던 공자의 의중은 천지자연의 이치에 입각한 도덕 수양의 매개체로 역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었다.

논어 자로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언급되어 있다.

"점을 할 것도 없을 만큼 (덕이 항상해야 한다는 말은) 정말 틀림이 없

구삼에 말하기를, '군자가 종일토록 힘쓰고 힘써 저녁에(까지도) 두려워하면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덕을 진전시키고 업을 닦으니,

우번(虞翻)의 풀이

건(乾☰)은 덕(德)이고, 곤(坤☷)은 업(業)이다. 건(乾☰)이 곤과 사귀어 통함은 덕을 진전시키고 업을 닦음이다.

송충(宋衷)의 풀이

업(業)은 일이다. 삼효(三爻)는 삼공(三公)이다. 군자가 삼공(三公)의 자리다.”

사람의 덕은 향구하여야 한다.(뇌풍항 구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국 사람들 사이에 전해오는 말에 이런 구절이 있다.

사람으로서 한결 같이 그 뜻을 고수하지 않으면 썩도 蠹도 될 수 없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 덕을 향상하게 하지 않으면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

춘추시대 선공 12년이었다.(지수사괘 초육)

晉의 군대가 鄭을 구하러 나섰을 때 정나라가 이미 초와 화평을 맺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군대를 인솔하던 桓子(荀林父)가 바로 군사를 되돌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체자는 환자의 말을 쫓지 않고 자기가 이끌던 휘하의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넜다.

그때 체자의 무모함을 지장자는 지수사 初六 효에 근거하여 이렇게 비난하였다.

“이 군사는 위태롭다. 주역에 있기를 군대가 전쟁에 나갈 때는 율령으로써 해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뜻이 좋더라도 흉하다고 하였다.

이는 체자가 율령을 어긴 출진이니 필연코 실패하여 화를 불러들이리라는 혹평이다.

역에 이르길 “처음으로 돌아가 바른 도를 따라 나아가면 무슨 재앙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춘추는 진목공을 어질다 하였는데, 그가 능히 과거의 잘못을 고쳐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순자 대략) (풍천소축 초구)

2)돌아가 올바른 길로 말미암으니 무슨 재앙이 있겠는가. 길하다. 하였다. 근본으로 돌아가 시종일관 다름이 없으면 끝내 기쁨만 있게 된다는 뜻이다.(有始覽, 務本편)

를 차지했으니 덕을 진전시키고 업을 닦는 바라고 하였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양(陽)이 불어나 삼효(三爻)까지 미치면 지천태(地天泰䷊)를 이룬다. 지천태(地天泰䷊)는 안이 건(乾☰)이고, 밖이 곤(坤☷)이다. 상계(上繫)의 건(乾☰)은 쉽게 주장한다는 구절로 미루어보면 그것을 오래 지속하면 어진 사람의 덕이다. 다시 곤(坤☷)이 간단하게 능(能)한다는 구절을 말미암아 살피면 가히 커질 수 있을 것이니 어진 사람의 사업이다. 또 역은 성인의 덕을 숭상하여 업을 넓힘이니 주장함은 높고 예는 낮되 높음은 하늘을 본받고 낮음은 땅을 법 받는다고 했으니 이는 건(乾☰)과 곤(坤☷)을 말한다. 그러므로 건(乾☰)은 덕이 되고, 곤(坤☷)은 업이 된다. 건(乾☰)으로서 곤(坤☷)에 통함은 그 뜻이 하늘과 땅이 사귀어 지천태(地天泰䷊)가 되는 것이다. 높음은 하늘을 본받는다면 이는 덕을 진전시킴이다. 낮음은 땅을 법 받는다면 이는 업(業)을 닦는 일이다.

송충(宋衷) 풀이의 해설

중지곤(重地坤䷁)은 사업을 펼쳐 보인다. 그러므로 업은 일이 된다. 삼효(三爻)가 삼공(三公)이 된다고 함은 건착도(乾鑿度)의 인용구다. 군자로서 삼공의 자리를 차지했다면 무엇보다도 귀함이 덕을 진전시키고 업을 닦는 일이다.

충신(忠信) 소이진덕야
忠信，所以進德也，

충(忠)·신(信)이 덕을 진전시키는 바요

적현(翟玄)의 풀이

오효(五爻)에 대한 충(忠)이다. 그 까닭에 덕을 닦음이 된다.

최경(崔憬)의 풀이

사람에게 충성스러움을 미루어보면 사물에게도 미답다. 그러므로 그 덕이 날로 새롭다.

적현(翟玄) 풀이의 해설

건착도(乾鑿度)에 말하기를 삼효는 삼공이 되고 오효(五爻)는 천자가 된다고 하였다. 삼효(三爻) 신하가 오효(五爻)를 섬기므로 오효(五爻)에 대

한 충이다. 그 까닭에 덕을 닦음이 되는 것이다.

최경(崔憬) 풀이의 해설

사람이 남에게 능히 충직하다면 사물에게도 미덥다. 따라서 덕이 날로 새롭다.

우안(愚案)

충(忠)과 신(信)은 안의 일이다. 삼효(三爻)는 건괘로 보아도 끝이면서 안에 있다. 그러므로 충(忠)과 신(信)은 덕을 진전시키는 바다. 삼효(三爻)는 건의 윗자리이므로 높다는 숭(崇)이다. 높은 까닭에 덕은 나아감을 말한다. 논어에서도 충(忠)과 신(信)을 주장한다고 했으니 그 까닭에 덕을 높이는 바다. 이는 바로 그 뜻이다. 또 살핀다면 곤(坤☷)이 乾卦 二爻로 와 이(離☲)를 이루면 이(離☲) 가운데 효는 충이 된다. 반면 건(乾☰) 二爻가 곤(坤☷)으로 가서 감(坎☵)을 이루면 감(坎☵)의 미더움(孚)은 믿을 신(信)이 된다. 삼효(三爻)는 초효(初爻) 및 이효(二爻)와 함께 이(離☲)·감(坎☵)이 된다. 이는 건(乾☰)이 마무리되는 궤다. 그러므로 덕을 진전시키는 바라고 하였다.

수 사 업 기 성 소 이 거 업 약
脩辭立其誠, 所以居業也.

말을 닦고 그 지성스러움을 세움이 업에 거처하는 바다.

순상(荀爽)의 풀이

말을 닦음은 날을 마치도록 설 새 없어야 하는 종일건건(終日乾乾)을 말한다. 지성스러움을 닦은 저녁에 두려워함을 말한다. 사업에 거처함은 삼효(三爻) 자리이기 때문이다.

적현(翟玄)의 풀이

삼효(三爻) 자리이니 그 교화하는 율령(律令)을 알리고 진실한 믿음을 세워 백성들이 공경히 따르게 한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종일토록 굳세게 하는 까닭에 닦는다는 수(修)로 말했다. 두렵고 위태롭게 여기는 까닭에 지성스럽다고 하였다. 정(鄭)이 말하기를 삼효(三爻)는 간(艮☶)이 된다고 하였다. 우(虞)도 간(艮☶)은 거처함이 된다고 하였다. 대

개 간(艮≡)이 위 건(乾≡) 삼효(三爻)로부터 왔으므로 간(艮≡)은 문궐(門闕)로 거쳐함이 된다. 그러므로 업에 거쳐함은 삼효(三爻)에 거쳐함을 말한다.

적현(翟玄) 풀이의 해설

업에 거쳐한다는 거업(居業)으로써 삼효(三爻)에 거쳐하는 뜻을 삼은 곧 순상(荀爽)의 지론이다. 밖으로 그 교화하는 율령을 닦고, 안으로 지성스러운 믿음을 세운다면 백성들이 공경하여 따르지 않음이 없게 된다. 이는 업(業)에 거쳐하는 일이다.

우안(愚案)

삼효(三爻)가 움직여 곤(坤≡)으로 가면 호괘 진(震≡) 소리(聲)는 말(辭)이 된다. 감(坎≡) 미더움은 지성스러움이 된다. 그러므로 말을 닦고 지성스러움을 세운다고 하였다. 곤(坤≡)은 업(業)이 되고 패상 간(艮≡)은 그치게 되어 거쳐함이 된다. 이는 곤에 통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업에 거쳐하는 바가 된다.

지 지 지 지 가 여 기 약
知至至之，可與幾⁵⁹⁾也，

59) 도에 대한 유교와 불교의 차이점

이 구절의 기(幾)는 곧 불교에서 강조하는 마음이 처음 움직이는 자리의 개념이다. 참고로 기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불교와 역의 차이점을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역의 시각

하늘의 이치를 본받으려는 자세 위에 필연코 서 있어야 한다.

만물을 낳고 자라나게 하며 열매로 거두어 길러 세상을 이익 되게 하는 이치가 곧 하늘의 이치이다.

▷ 불교의 시각

마음이 처음 움직일 때의 순간을 철저히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는 유가의 기미에 해당한다. 또 그 마음의 지향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보살도를 강조한다는 점이 유교에서 강조하는 하늘의 이치와 동일하다. 다만 이는 세간적인 의미에서의 관점이고 출세간적인 의미라면 다음과 같은 선의 낙처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대해 종고가 원오에게서 법을 구할 때의 일이다.

원오가 어느 날 대중을 상대로 상단 법문을 하였다. 그때 법문의 내용은 삼

이를 데를 알아 이르는지라 더불어 기미할 수 있으며

적현(翟玄)의 풀이

오효(五爻)에 이를 줄을 알고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히 더불어 기미(幾微)를 행하는 일이다.

세제불의 출신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논한 운문의 동산수산행(東山水上行)에 대한 자신의 평이었다. 원오의 이야기로는 훈풍(薰風)이 남으로부터 오니 전각(殿閣)에 미량(微涼)이 난다고 하였다.

대해는 그 말뜻에 막혀 앞뒤 경계가 끊어졌다. 종고는 문을 닫아걸고 그 의미와 씨름하였다. 결국 그의 의구심은 등나무가 소나무를 의지한다는(如藤依樹) 구(句)에 의해서 풀렸다.

원오스님이 어떤 사문에게 이렇게 물었다.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이 등나무가 소나무를 의지함과 같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오조법연 화상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有句無句 如藤倚樹)

본뜰래야 본뜰 수 없고 그릴래야 그릴 수 없다고 하셨다.(描也描不就 畫也畫不就)

그래서 스님께서는 어떻게 물으셨습니까?

"나무가 넘어가고 등나무가 말라 죽을 때는 어떠합니까?"(樹倒藤枯時如何)

라는 질문이었다. 오조께서는 거기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셨다.

서로가 의지해 따르느니라.(相隨來也)

종고는 거기에서 크게 깨달았다.

즉 종고가 문제 삼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깥 경계의 문제가 아니었다.(무엇을 어떻게 깨달았느냐를 말하자는 게 아님) 오직 자기 마음의 문제였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의 변하지 않는 존재로 믿고 싶어 하는데서 비롯되는. 종고가 결국 거부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존재론적인 시각이었다. 그래서 문제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바깥 경계를 대해-자기 자신까지를 포함해서-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마음의 기미 즉 조짐의 문제였다.(識心初動, 照顧腳下)

다만 유교는 그때 문제 삼는 조짐이 선과 악의 갈림길에 맞추어진다. 불교의 선이 선과 악의 분별조차도 하나의 존재론적인 시각으로 여기고 있다면 유교는 그 같은 존재론적인 시각의 긍정적인 활용을 적극 기대하는 입장이다.

만물을 이롭게 하고 만물에게 도움이 되는 이치에서의 존재론적인 시각의 수용이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근거하고 있어야 하며 무엇을 지향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미의 자각이다. 그러나 불교는 이와 같은 시각조차도 존재론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보아 철저히 부정한다. 그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면 조사도 죽인다.

적현(翟玄) 풀이의 해설

양(陽)이 오효(五爻)에 있다면 자리가 가운데를 얻는다. 초효(初爻)와 삼효(三爻)는 자리는 바르나 중(中)을 얻지 못했다. 삼효(三爻)가 오효(五爻)에 이름은 중(中)을 얻음이 된다. 그러므로 오효(五爻)에 이를 줄을 알고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삼효(三爻)는 초효(初爻)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더불어 기미를 행하는 일이 된다.

우안(愚案)

유환(劉瓛)이 이를 지(至)는 끝이라는 뜻의 극(極)이라고 하였다. 장씨(莊氏)도 극(極)은 곧 지(至)라고 하였다. 삼효(三爻)가 아래 괘의 맨 위가 되므로 이는 지극함이 된다. 계사하전에 기미를 앎은 신령스러운 것이라고 하였다. 그곳의 주석에서 우변은 기미에 대해 양(陽)을 말하며 양(陽)이 지뢰복(地雷復䷗)의 초효(初爻)에 있으므로 기미(幾微)라고 일컫는다고 하였다. 또 기미(幾微)란 움직임의 미세함이라고 하였다. 우변은 또 그곳의 주석에서도 양(陽)이 처음 나타나 진(震䷲)을 이루므로 움직임의 미세함이라고 하였다. 안으로 괘상이 건(乾䷀)이다. 건(乾䷀)은 양(陽)이다. 초효(初爻) 양(陽)이 이미 움직이면 반드시 삼효(三爻)에 이른다. 그러므로 이를 데를 알아 이르니 더불어 기미와 함께 한다고 하였다.

지 종 종 지 가 여 존 의 야
知終終之，可與存義也。

마칠 줄을 알아 마치는지라 의리를 보존할 수 있다.

요신(姚信)의 풀이

끝을 아는 자는 시작도 알 수 있다. 끝은 아래에서 삼효다. 의리(義)는 마땅하다는 의(宜)와 같다. 보존하고 없어지는 것을 아는 것은 군자의 마땅함이다.

최경(崔憬)의 풀이

군자는 문왕에 비유한 말이다. 문왕은 덕에 나아가 사업을 펼쳤다. 그 까닭에 95세에 이르러 그 음덕을 무왕에게 이어가게 할 수 있었다. 95세에 이르도록 나아가 닦고 뜻에 합할 수 있었으므로 말하기를 이를 데를 알아 이르렀다 하고 더불어 미세함을 함께 말했다.

천하가 주나라로 돌아갈 것을 알아 삼분의 이로서도 은(殷)을 섬겨 복종했으니 신하의 도리로 마친 것이다. 그 뜻이 덕을 진전시키는 업을 닦음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마칠 줄을 알아 마침이니 더불어 마땅한 이치를 보존했다고 하였다.

요신(姚信) 풀이의 해설

계사상전에 시작을 근원하여 끝을 돌이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끝을 알면 시작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삼효(三爻)가 아래 건(乾☰)의 위에 위치하므로 끝은 삼효(三爻)를 말한다고 하였다. 마땅하다는 의(義)는 마땅하다는 의(宜)와 같다는 언급은 중용(中庸)의 글귀다. 삼효(三爻)가 상효(上爻)와 더불어 호응하니 위에서 보존할 줄은 아나 없어짐은 알지 못한다. 삼효(三爻)가 건(乾☰)의 마지막으로 끝이 되니 항(亢)에 이르지 않는다. 보존하고 없어짐을 아는 것은 군자의 마땅함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마칠 줄을 알아 마침은 더불어 마땅한 이치를 보존함이다.

우안(愚案)

계사상전에 성성존존(成性存存) 도의지문(道義之門)이라는 구절이 있다. 우(虞)는 그곳의 주석에서 마칠 줄을 알아 마침이니 마땅한 이치를 보존한다. 건(乾☰)은 도(道)의 문이 되고 곤(坤☷)은 마땅함의 문이 된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양(陽)은 도(道)의 문이 있고 음(陰)은 의리의 문이 있다고 하였다. 건작도(乾鑿度)에서 땅은 고요하나 이치로 말하면 의(義)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곤(坤☷)이 의(義)가 된다는 근거다. 기미(幾微)는 건(乾☰)에 속하니 양(陽)이 안에 있음이 된다. 의(義)는 坤에 속하니 陰은 밖에 있음이 된다. 중천건 삼효는 곧 지천태 삼효다. 건에서 나와 곤(坤☷)으로 들어간다면 마침내 위에서 호응한다. 곤(坤☷)으로써 건(乾☰)의 성(性)을 이루어 중천건의 원(元)이 항상 보존된다. 그러므로 더불어 마땅함을 보존한다고 하였다. 곧 위의 덕업(德業)을 계승함이 건(乾☰)으로서 곤(坤☷)에 통하는 뜻이 된다.

최경(崔憬) 풀이의 해설

이는 문왕이 구삼(九三) 효의 뜻에 해당한다는 시각이다. 무왕(武王)은 구

오(九五) 나는 용이다. 구오(九五)의 높은 자리에 위치하여 가정을 교화하고 국가를 위한 기미가 실로 덕에 나아가 업을 닦아 국가의 기틀을 다졌으므로 이를 데를 알아 이름이니 가히 기미와 함께 한다고 보았다. 삼효(三爻)로서 오효(五爻)를 섬겼다고 함이 곧 적현(翟玄)이 풀이한 뜻이었다. 은(殷)나라 주왕은 높이 올라간 항용(亢龍)이니 상구(上九)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때 천하가 모두 주(周)나라로 돌아가 三分의 二에 이르렀으나 은나라 주왕을 받들어 섬겼다. 이는 신하의 도리에서 머물렀음이니 군주를 섬기는 마땅함을 잃지 않음이다. 오직 덕에 나아가 업을 닦으면서 제후의 직분에만 충실했으니 마침 줄을 알아 마침에 더불어 마땅한 도리를 보존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삼효(三爻)로서 상효(上爻)에 호응했다고 함은 요신(姚信)의 시각이다.

是故居上位而不驕,

이런 까닭에 높은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우변(虞翻)의 풀이

하늘의 도(道)인 삼재(三才)다. 초효(初爻) 건(乾☰)이 삼효(三爻)에 이르면 건(乾☰)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본문의 상(上)이 된다. 저녁에 두려운 듯이 하면 위태롭지만 허물이 없어지는 이치에서 교만하지 않는다.

우변(虞翻) 풀이의 해설

계사대전에서 하늘의 도도 있고 사람의 도도 있으며 땅의 도도 있다고 했으니 삼효(三爻)에는 삼재(三才)가 모두 갖춰져 있다. 초효(初爻)부터 삼효(三爻)에 이르면 하늘 꽤 건(乾☰)이 성립된다. 하늘의 도(道)는 그래서 맨 위가 된다. 저녁에 두려운 듯이 한다는 구절은 자리가 높을수록 마음은 더욱 낮추게 되므로 교만하지 않는다.

在下位而不憂,

아랫자리에 있어도 근심하지 않는다.

우변(虞翻)의 풀이

아래 자리는 초효(初爻)를 말한다. 초효(初爻)는 잠겨 있는 자리이니 근심

스러우면 등진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않음이 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아래 자리를 초효(初爻)라고 함은 삼효(三爻)가 아래로부터 불어나기 때문이다. 잠겨서 아래에 있는 자리다. 세상에서 물러나 있어도 민망해 하지 않으며 옳다고 봐주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는다. 때가 비록 곤궁하나 마음은 스스로 형통하다. 이로써 근심스러우면 등지므로 근심하지 않는다.

故乾乾因其時而惕，雖危无咎矣。”

그러므로 힘쓰고 힘써 때에 따라 두려워하면 비록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는 것이다.

왕필(王弼)의 풀이

척(惕)은 두려워하고 걱정스러워함(愴·惕)이다. 일의 지극함에 처하여 때를 잃으면 폐하여지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없어지게 되므로, 굳세고 굳세게 해서 그 때에 따라서 두려워하면 위태롭더라도 허물은 없다.

왕필(王弼) 풀이의 해설

서경(書經) 경명(問命)편에 출척유려(愴惕惟厲)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척(惕)은 두려워하고 걱정스러워함(출척·척惕)이라고 하였다.

일의 지극함에 처했다고 함은 위의 지극함에 처했음을 말한다. 때를 잃으면 덕업(德業)이 폐해지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없어지게 된다. 때가 이를테를 알고 마칠 것을 아는 것이니 위와 아래에 있을 때다. 굳세고 굳세게 하면서도 그 때에 맞춰 두려움을 더함으로 비록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

九四曰“或躍在淵，无咎”，何謂也？子曰，“上下无常，非爲邪也，

구사(九四)에 말하기를 ‘혹 뛰어오르거나 연못에 있으면 허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르고 내림에 일정함이 없는 것이 간사함이 되지 않으며,

순상(荀爽)의 풀이

중천건(重天乾䷀)은 군주괘다. 사효(四爻)는 신하의 자리다. 그러므로 위

의 오효(五爻)로 뛰어 오르하고자 한다. 아래는 마땅히 중지곤(重地坤䷁) 초효(初爻)다. 양(陽)이 바른 자리를 얻었으므로 오르고 내림에 항상하게 하고 있지 않지만 간사함이 되지 않는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중천건(重天乾䷀)이 군주괘가 되므로 중천건(重天乾䷀)은 군주괘라고 하였다. 사효(四爻)는 삼정승(三政丞)의 자리다. 그러므로 사효(四爻)는 신하의 자리다. 사효(四爻)는 오효(五爻)에 가까우므로 위의 오효로 뛰어오르고자 한다. 사효(四爻)는 호응관계가 초효(初爻)에 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아래의 곤 초효(初爻)에 머물러야 한다. 사효(四爻) 양(陽)은 중(中)도 아니며 바르지도 않다. 그러므로 간사하다는 의미와 결부시켰다. 위로 오효(五爻)는 중(中)을 얻었고 아래로 초효(初爻)는 정(正)을 얻고 있다. 그러므로 오르고 내림에 항상함이 없으며 간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진 퇴 무 항 비 리 군 야
進退无恒, 非離羣也.

나아가고 물러감에 항상함이 없는 것이 동류(同類)를 떠남이 아니다.

순상(荀爽)의 풀이

나아감은 오효(五爻)로 나아감을 말한다. 물러감은 호응하는 관계의 초효(初爻)에게 감을 말한다. 그러므로 나아가고 물러감에 항상함이 없는 것이 동류(同類)를 떠남이 아니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사효(四爻)가 변하면 위 소성(小成)괘는 손(巽䷸)이 되니 이는 나아가고 물러가는 진퇴(進退)의 뜻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건(乾䷀) 양(陽)이다. 계사상전에 만물은 무리로써 나누어진다고 하되, 이를 우변은 주석하기를 건(乾䷀) 물(物)은 움직여 행해지므로 무리로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나아가 오효(五爻)를 돕거나 물러나 초효(初爻)와 응하더라도 양(陽)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리를 떠남은 아니다. 하씨가 말하기를 나아가고 물러감이 항상 함이 없는 것은 때가 그렇게 하게 하기 때문이다. 구차하게 무리를 떠나고자 함이 아니라고 했으니 이것도 의리상 서로 통한다.

항상 함이 없다는 무상(無常)과 무항(無恒)은 혹 뛴다는 혹약(或躍)에 대한 해석이다.

군자진덕수업 욕급시야 고무구.
君子進德修業，欲及時也，故‘无咎’.”

군자가 덕에 나아가고 업을 닦음은 때에 미쳐 道를 펴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는 것이다.

최경(崔憬)의 풀이

지극한 공인은 때에 미쳐 사람을 구제하고자 하므로 허물이 없다.

최경(崔憬) 풀이의 해설

삼효에서 이미 덕에 나아가 업을 닦았다. 사효에서는 때에 미치고자 함을 말했으니 삼효에서 이미 쌓은 덕에 입각하여 마음을 지극히 공평하게 하여 때에 미쳐 사람을 구제하고자 하므로 허물이 없다.

혹 뛰어 연못에 있음은 스스로 시험한다는 뜻이라고 했으니 스스로 때에 미쳐 덕을 배울 수 있는지 시험해봄을 뜻한다.

01乾卦17, 九五曰“飛龍在天，利見大人”，何謂也？子曰，“同聲相應，同氣相

求，水流濕，火就燥，雲從龍，風從虎，聖人作而萬物覩，本乎天者親上，本乎

地者親下，則各從其類也.”

구오에 말하기를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같은 소리는 서로 호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하여, 물은 습한 데로 흐르고 불은 건조한 곳으로 나아가며,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 그리하여 성인이 나옴에 만물이 우러러본다. 하늘에 근본한 것은 위를 친하고 땅에 근본한 것은 아래를 친하니, 각기 그 류를 따르는 것이다.”

우번(虞翻)의 풀이

진(震☳)과 손(巽☴)을 말한다. 포희(庖犧)씨가 변화를 보고 팔괘(八卦)를 그으셨다. 우리와 바람은 서로 부딪침으로 호응한다.

장번(張璠)의 풀이

하늘은 양(陽)이다. 임금도 양(陽)이다. 우리와 바람은 하늘의 소리다. 호령하는 자는 임금의 소리다. 임금과 더불어 천지가 서로 호응하여 합당한 덕이 일치하여 움직이되 동정(動靜) 간에 있어서 서로 어기지 않는다.

우변(虞翻) 풀이의 해설

설괘전에 천지정위(天地定位)라고 하였다. 우변은 그곳의 주석에서 이는 건(乾☰)과 곤(坤☷)을 말하되 오효(五爻)는 귀하고 이효(二爻)는 천하므로 자리가 정해진다고 하였다. 전(傳)에서 오효(五爻)는 이효(二爻)와 더불어 서로 호응한다. 그러므로 그 뜻을 미루어 넓혀서 서로 호응하는 이치를 말하고 있다. 또 뇌풍상박(雷風相薄)은 진(震☳)과 손(巽☴)을 말한다. 같은 소리끼리는 서로 호응함으로 서로 부딪친다고 하였다. 우리와 바람은 진(震☳)과 손(巽☴)을 말한다. 같은 소리는 서로 호응함으로 서로 부딪친다고 하였다. 또 관변어음양이입괘(觀變於陰陽而立卦)라고 하였다. 우변은 그곳의 주석에서도 설괘는 하늘의 도를 세우는 걸 말해 음(陰)과 양(陽)이다. 양(陽)이 변하면 진(震☳)·감(坎☵)·간(艮☶)을 이룬다. 음(陰)이 변하여 손(巽☴)·이(離☲)·태(兌☱)를 이룬다. 그러므로 괘를 이룬다고 하였다. 진(震☳)은 우리가 되고, 손(巽☴)은 바람이 된다. 우리와 바람은 서로 부딪친다. 그러므로 동성상응(同聲相應)이다. 진(震☳)은 경(庚)을 받아들이고 손(巽☴)은 신(辛)을 받아들인다. 경(庚)과 신(辛)이 금(金)으로 서로 합함을 얻으므로 상응함을 말한다.

장변(張璠) 풀이의 해설

하늘과 더불어 임금은 모두 양(陽)이다. 우리와 바람은 호령함과 더불어 모두 소리다. 교특생(郊特牲)에 무릇 소리는 양(陽)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리는 양을 말한다. 하늘과 사람은 하나의 이치다. 그러므로 임금과 천지는 상응한다. 진(震☳) 양은 움직임에 속하고 손(巽☴) 음은 고요함에 속한다. 그러므로 덕이 합하여 일치한다. 동정(動靜) 간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는다.

동 기 상 구
同氣相求,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하며,

우번(虞翻)의 풀이

간(艮≡)과 태(兌≡)를 말한다. 산과 못은 기운을 통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서로 구한다.

최경(崔憬)의 풀이

땅(方諸)은 달과 더불어 음기(陰氣)를 떠는 게 같다. 서로 감응하면 물이 생겨난다. 양수(陽燧)는 해와 더불어 양기(陽氣)를 떠는 게 같다. 서로 감응하면 불이 일어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간(艮≡)은 산이 되고, 태(兌≡)는 못이 된다. 산과 못은 기운을 통한다고 했으므로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함이 된다. 이는 간(艮≡)이 병(丙)을 받아들이고 태(兌≡)가 정(丁)을 받아들여 병(丙)과 정(丁)이 서로 불에 합하는 이치를 말한다. 그러므로 서로 구한다.

최경(崔憬) 풀이의 해설

주례(周禮) 추관(秋官) 사환씨(司烜氏)에 부수(夫遂)를 쥐고서 불을 해에서 취한다고 하였다. 감(鑒)으로서 물을 달에서 취한다고 하였다. 주석에 부수(夫遂)는 양수(陽燧) 즉 부싯돌을 뜻한다고 하였다. 풀이하면 나무에서 불을 취함이 부수(夫遂)다. 불은 해에서 취하므로 이름이 양수(陽燧)다. 동(銅)으로서 한다. 감(鑒)에 관하여 보면 방제(方諸)의 뜻이라고 하였다. 풀이하면 감(鑒)은 거울이다. 물을 취할 수가 있다. 바야흐로 땅을 본뵈므로 방제(方諸)라고 하였다. 주석에서 또 해는 태양의 정(精)이다. 그러므로 밝은 불을 취한다. 달은 태음의 정(精)이다. 그러므로 맑은 물을 취한다고 하였다. 대개 방제(方諸)와 양수(陽燧) 및 해와 달은 음양의 기운이 서로 같다. 음양(陰陽)이 서로 감응하면 물과 불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한다는 뜻으로서 밝혔다.

수류습,
水流濕,

물은 습한 데로 흐르며

순상(荀爽)의 풀이

양(陽)이 움직여 곤(坤≡)으로 가면 감(坎≡)이 된다. 중지곤(重地坤≡)이란

순수한 음(陰)이다. 그러므로 축축한 습(濕)이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양(陽)이 움직여 중지곤(重地坤䷁)으로 간다고 함은 중천건(重天乾䷀) 이효(二爻)가 중지곤(重地坤䷁)의 오효(五爻) 자리로 올라감을 말한다. 감(坎☵)이 된다고 함은 하늘의 수(數) 1이 수(水)를 낳고 땅의 수 6이 이를 이룸을 말한다. 중지곤(重地坤䷁)이 순수한 음(陰)이므로 축축한 습(濕)이 된다고 함은 설문에 습(濕)은 물로 인한다. 1은 덮는 바다. 덮어서 흙에 있으므로 축축하다고 되어 있다. 중지곤(重地坤䷁)은 토가 된다. 토는 순수한 음이고 감(坎☵) 수(水)는 흘러 중지곤(重地坤䷁)으로 흐른다. 그 까닭에 흙을 적서 축축하게 된다.

화 취 조
火就燥,

불은 마른 데로 나아가고

순상(荀爽)의 풀이

음(陰)이 움직여 중천건(重天乾䷀)으로 가면 重火離를 이룬다. 중천건(重天乾䷀)은 순수한 양이다. 그러므로 마르다고 말한다.

우번(虞翻)의 풀이

重火離는 위로 올라가고 習坎은 아래로 흘러 내린다. 반면 물과 불은 서로 싫어하지 않는다.

최경(崔憬)의 풀이

물을 흘러가게 하면 먼저 낮아 축축한 곳으로 흐른다. 그러나 불은 오히려 마른 데로 옮겨 붙는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陰이 움직여 중천건(重天乾䷀)으로 감은 重地坤 오효가 하강하여 중천건(重天乾䷀) 이효(二爻)로 감을 말한다. 불이 됨은 땅의 수 2가 불을 낳고 하늘의 수 7이 이를 이룬다. 중천건(重天乾䷀)이 순양(純陽)이므로 마르다고 함은 설문에 건조함은 乾이라고 하였다. 역위건곤착도(易緯乾坤鑿度)에 건(乾☰)이란 건천(乾天)이라고 하였다. 정은 그곳의 주석에서 옛적의 건(乾)자는 바깥 말라서 양(陽)이 지극했을 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었다. 건

조함의 건(乾)이 건(乾)을 쫓는다고 함은 건(乾☰)이 순수한 양(陽)이므로 건조함을 주장한다. 불 이(離☲)는 하늘로 나아가니 그 까닭에 타올라 건조해진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감(坎☵)은 물이 된다. 이(離☲)는 불이 된다. 불은 움직여 위로 타오르고 물은 움직여 아래로 흘러내린다. 싫어한다는 역(射)은 싫어한다는 염(厭)과 뜻이 같다. 벌려 서서 서로 싫어하지 않으므로 물은 습한 데로 흘러내리고 불은 마른 데로 나아간다. 감(坎☵)은 무(戊)를 받아들이고 이(離☲)는 기(己)를 받아들이나. 무(戊)와 기(己)가 서로 얻어 토(土)에 합한다고 함이 바로 이 뜻이다.

최경(崔憬) 풀이의 해설

물을 흘러가게 하면 먼저 낮아 축축한 곳으로 흐른다고 함은 물을 밑의 습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면 쉽게 흘러가게 됨을 뜻한다. 그러나 불은 오히려 마른 데로 옮겨 붙는다고 함은 말라서 건조한 데를 만나면 불이 더욱 쉽게 타오른다는 뜻이다.

雲從龍

구름은 용을 따르고

순상(荀爽)의 풀이

용은 왕에 비유되는 것이니 중천건 이효가 중지곤 오효로 가면 坎이 됨을 말한다.

우번(虞翻)의 풀이

중천건(重天乾☰)은 용(龍)이 되고 구름은 하늘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용(龍)을 따른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창룡(蒼龍)은 동방(東方)에 거처한다. 상제(上帝)가 진방(震方)에서 나온다고 했으므로 진(震☳)은 용(龍)이 되고 그러므로 왕에 비유된다. 양(陽)은 위로 오르는 성격이 있으므로 중천건(重天乾☰) 이효(二爻)가 중지곤(重地坤☷)의 오효(五爻)로 올라가면 감(坎☵)이 된다. 감(坎☵)이 올라가 위에 있

으면 구름이 된다. 수천수(水天需䷄) 상전(象傳)에 구름이 하늘에 올라가 있다고 했다. 이를 물이라고 일컫지 않고 구름이라 일컬으니 감(坎䷜)이 구름이 됨을 알게 한다. 좌전 소공 29년에 용은 물에 사는 생물(水物)이라고 하였다. 감(坎䷜) 수(水)가 하늘에 올라가 구름이 되므로 구름은 용을 쫓는다고 하는 것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자하(子夏)전에 용(龍)은 양(陽)을 상징하는 바가 된다고 했으므로 중천건(重天乾䷀)은 용(龍)이 된다. 건(乾䷀)은 하늘이 되니 내경에 구름은 하늘에서 나오는 기운이라고 했으므로 구름은 용(龍)을 쫓는 게 된다.

풍종호
風從虎

바람은 호랑이를 쫓으며

순상(荀爽)의 풀이

호랑이는 나라의 임금에 비유된다. 중지곤(重地坤䷁) 오효(五爻)가 중천건(重天乾䷀) 이효(二爻)로 가면 손(巽䷸)이 되어 삼효(三爻)를 쫓는다. 삼효(三爻)는 아래 괘상(卦象)의 가장 위가 되는 임금 자리다. 그러므로 나라의 임금에 비유된다.

우번(虞翻)의 풀이

중지곤(重地坤䷁)은 호랑이가 된다. 바람은 땅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호랑이를 쫓는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백호(白虎)는 서방에 거처한다. 설문에 호랑이는 서방(西方)의 짐승이라고 하였다. 대개 호랑이가 금기(金氣)에 감응하여 태어나고 금성(金星)은 해에 붙어서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임금에 비유된다. 음(陰)은 내려움을 주장하니 중지곤(重地坤䷁) 오효(五爻)가 중천건(重天乾䷀)의 이효(二爻)로 내려온다. 그때 내호괘(內互卦) 이(二)·삼(三)·사효(四爻)는 손(巽䷸)이 되므로 삼효(三爻)를 쫓는다고 하였다. 삼효(三爻)는 아래괘의 맨 윗자리이므로 나라의 임금에 비유하였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경방(京房) 역전(易傳)에 중지곤(重地坤䷁)은 호랑이의 형벌 형(刑)이 된다고 하였다. 고유(高誘)는 그곳의 주석에서 회남의 구절을 인용하여 호랑이는 땅의 동물이다. 중지곤(重地坤䷁)은 땅이 되므로 호랑이가 된다고 하였다. 또 월령에서 중동(仲冬)의 달에 호랑이는 처음 사귄다 했다. 춘추(春秋) 고이우(考異郵)에 호랑이는 7월에 나온다고 했다. 이는 지뢰복(地雷復䷗)에서 사귀어 천풍구(天風姤䷫)로 나온다고 하였다. 천풍구(天風姤䷫)의 일음(一陰)은 중지곤(重地坤䷁)으로부터 오므로 중지곤(重地坤䷁)은 호랑이가 된다. 천풍구(天風姤䷫)는 아래의 괘상이 손(巽䷸)이므로 손(巽䷸)은 목(木)도 되고 바람도 된다. 관로 별전에 호랑이는 음정(陰精)으로 양(陽)에 거처하니 나무에 의존하여 길게 운다(장소長嘯). 움직임은 바람 같아 두 기운이 서로 감응하므로 능히 바람을 옮긴다. 대개 호랑이는 손(巽䷸) 목(木)에 의지하여 바람이 나온다. 마치 용이 감(坎䷜) 수(水)에 거처하여 구름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감의 구름은 하늘의 기운이다. 손(巽䷸) 바람은 땅의 기운이다. 홍범에 바람을 말하되, 정(鄭)은 그곳의 주석에서 바람은 땅의 기운이다. 내경에도 바람은 땅의 기운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바람은 호랑이를 쫓는다고 하였다. 하늘과 땅이 자리를 정한 까닭에 구름과 용, 바람과 호랑이가 각기 부류로서 서로 쫓는다. 이는 포희씨가 하늘의 상을 법 받고 변화를 살핌이니 6자리의 나열됨은 강(剛)과 유(柔)가 마찰하는 바다. 초효(初爻) 진(震䷲)과 이효(二爻) 손(巽䷸)은 자리가 바르다. 그러므로 같은 소리가 서로 응한다. 오효(五爻) 간(艮䷳)과 상효 태(兌䷹)는 하늘의 자리에서 바르다. 그러므로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한다. 삼효(三爻)의 바람은 감(坎䷜)으로 내려오니 물은 습한 데로 흐른다. 사효(四爻)의 바람은 이(離䷄)로 오름이니 불이 마른 데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늘의 높음은 오효(五爻)에서 바르니 감(坎䷜)의 괘상은 건(乾䷀)에서 이루어져 구름이 용(龍)을 따른다. 땅의 낮음은 이효(二爻)에서 바르므로 이효(二爻) 손(巽䷸)의 자리는 바람이 호랑이를 쫓음이다. 이는 삼천(三天) 양지(兩地)의 수이니 만물의 근본이다.

성인작이만물도
聖人作而萬物觀,

성인이 일어나심에 만물이 우러러보나니

우번(虞翻)의 풀이

도(觀)는 본다는 견(見)이다. 성인은 곧 포희씨다. 덕이 중천건(重天乾䷱)의 오효(五爻)에 합하여 팔괘(八卦)를 지어보이셨으므로 신명의 덕에 통하고 만물의 정(情)에 류(類)로 하셨다. 오효(五爻)가 움직여 이(離䷄)를 이룸은 해가 나와 만물을 비춤이니 모두가 서로 볼 수 있어서 성인이 일어나심에 만물이 우러러본다고 하였다.

육적(陸績)의 풀이

양(陽)의 기운이 오효(五爻)에 이르렀다. 만물이 무성해졌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이 천자의 자리에 있음에 비유하였다. 공(功)이 이루어지는 일을 마무리하면 만물이 모두 볼 수 있게 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문장에서 볼 도(觀)는 견(見)과 같다. 그러므로 볼 견(見)이라고 하였다. 포희씨가 처음 팔괘(八卦)를 그으셨으므로 성인은 포희씨임을 안다. 태호(太昊)는 목(木) 기운의 덕으로서 천하에 왕 노릇을 하셨다. 그러므로 덕이 중천건(重天乾䷱)의 오효(五爻)에 합함을 안다. 지을 작(作)은 짓는다는 조(造)의 뜻이다. 성인이 지음은 곧 상전(象傳)에 대인(大人)이 지음이다. 곧 계사하전에 처음 팔괘(八卦)를 지어 신명(神明)의 덕에 통하게 하고 만물의 정(情)을 류(類)로서 구분 지었다고 했으니 바로 그 말의 뜻이다. 구가역(九家易)에 말하기를 숨어 감춰져 있음을 신(神)이라고 일컫는다고 하였다. 밝게 나타나 있음을 밝다는 명(明)이라고 하였다. 또 64괘에 무릇 11520 가지의 책(冊) 수(數)가 있으니 책(冊)이란 하나의 사물을 분류하는 단위다. 팔괘(八卦)가 이미 지어지면 음양(陰陽)의 덕이 이를 말미암아 통한다. 만물의 정은 이 유형을 말미암는다. 오효(五爻)가 움직여 이(離䷄)를 이루면 이(離䷄)는 해가 되고 해가 나오면 만물을 모두 볼 수 있다. 설괘전에 이(離䷄)에서 서로 보게 된다고 했으니 그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성인이 팔괘(八卦)를 지으심에 만물을 모두 볼 수 있다면 곧 나는 용이 하늘에 있어서 대인(大人)을 봄이 이롭다는 뜻이다.

육적(陸績) 풀이의 해설

오효(五爻)는 양기(陽氣)가 정대하게 무성한 때이다. 마치 성인이 천자의 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 공(功)이 이루어져 예(禮)가 제정되고 다스림이 정해져 악(樂)을 지음이니 만물이 모두 그 밝은 법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이 일어나심에 만물이 우러러 본다고 하였다.

본 호 천 자 친 상
本乎天者親上,

하늘에 근본한 자는 하늘을 친하고

순상(荀爽)의 풀이

중천건(重天乾䷀) 구이(九二) 효(爻)를 말한다. 본래 중천건(重天乾䷀)에서 나왔으므로 하늘에 근본 한다고 말한다. 중지곤(重地坤䷁) 오효(五爻)에 거처하고 있으므로 위와 친(親)한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양(陽)은 올라가고 음(陰)은 내려온다는 양승(陽升) 음강(陰降)의 이치로 하는 말이다. 중천건(重天乾䷀) 구이(九二) 효(爻)는 자리가 어긋나므로 마땅히 위로 올라가야 한다. 그때의 위로 오르는 양효(陽爻)는 중천건(重天乾䷀) 이효(二爻)에서 나오므로 중천건(重天乾䷀)에 근본 한다. 건(乾䷀)은 하늘이 됨으로 하늘에 근본 한다고 하였다. 올라가 중지곤(重地坤䷁) 이효(二爻)에 거처한다면 오효(五爻)는 윗 자리다. 그러므로 위를 친(親) 한다고 하였다.

본 호 지 자 친 하
本乎地者親下,

땅에 근본한 자는 아래를 친하게 여긴다.

순상(荀爽)의 풀이

중지곤(重地坤䷁) 육오(六五)를 말한다. 중지곤(重地坤䷁)에서 나오므로 땅에 근본 한다고 한다. 내려와 중천건(重天乾䷀)의 이효(二爻) 자리에 거처하므로 아래를 친(親)한다고 말한다.

최경(崔憬)의 풀이

동물은 하늘의 움직임을 친하고 식물은 땅의 고요함과 친함을 말한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중지곤(重地坤䷁) 육오(六五)는 자리가 마땅하지 않다. 그러므로 내려오게 되니 이것이 곧 중지곤(重地坤䷁) 오효에서 나옴이고 중지곤(重地坤䷁)에 근본 한다는 뜻이다. 곤(坤䷁)은 땅이 되므로 땅에 근본 한다고 하였다. 내려와 중천건(重天乾䷀) 이효(二爻)에 거처한다면 이효(二爻)는 아래 자리이다. 그러므로 아래를 친 한다고 하였다.

최경(崔憬) 풀이의 해설

장씨(莊氏)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얹혀 쌓여 2기운이 어울려 합해짐에 만물을 함께 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만물의 본체는 하늘의 기운 쪽에 치우쳐 형성된 무리와 땅의 기운 쪽에 치우친 부류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례(周禮) 대종백(大宗伯) 편에 하늘이 낳는 게 있고 땅이 낳는 게 있다고 하였고, 대사도(大司徒)에 동물과 식물은 본래 하늘의 기운을 내려 받은 것은 움직이는 동물들로 령(靈)을 함유하고 있는 무리들이라고 하였다. 하늘의 성질은 옮겨가고 움직이는 데 있으니 신령스러움을 머금은 사물도 또한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이는 위를 친 하는 본보기다. 본래 땅에서 기운을 받은 자는 식물처럼 인식작용이 없다. 땅의 본체는 엉기고 막혀 있으니 식물도 또한 움직여 옮겨가지 않는다. 이는 아래와 친 하는 본보기다. 여기까지는 최씨의 견해다.

안(案)

진(震䷲) · 간(艮䷳) · 감(坎䷜)은 모두 건(乾䷀)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하늘에 근본 한다고 말한다. 이는 하늘과 더불어 친해 위와 친하다고 할 수 있다. (巽䷸) · 이(離䷄) · 태(兌䷹)는 모두 곤(坤䷁)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땅에 근본 한다고 말한다. 이는 땅과 더불어 친하여 아래와 친하다고 할 수 있다. 대개 건(乾䷀)의 도(道)는 남자를 이룬다 했으니 3남이 모두 건(乾䷀)인 아버지와 친하다. 곤(坤䷁)도는 여자를 이룬다 했으니 3녀는 모두 곤(坤䷁)인 어머니와 친하다. 하늘은 높으므로 위가 되고 땅은 낮으므로 아래가 된다. 표기(表記)에 아버지는 존엄하여 친하지 못하나 어머니는 친하나 존엄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상하의 분별이 있게 된다. 우변의 견해다.

즉 각 종 기 류 야
則各從其類也.”

각기 그 무리를 따른다.

우번(虞翻)의 풀이

방소에는 같은 부류로 모이고 사물은 무리로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方以類聚, 物以羣分] 하늘의 도가 변하고 화함에 각기 성(成)과 명(命)을 바르게 하게 된다. 부류에 부딪쳐 자라나므로 각기 그 류(類)를 따른다고 하였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방소에는 같은 부류로 모이고 사물은 무리로서 나누어진다고 함은 계사상전의 인용구다. 우번은 그곳의 주석에서 곤(坤☷)은 방정하여 도가 고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류(類)로서 모인다. 하늘에 근거한 사물은 움직여 행한다. 그러므로 같은 무리끼리 나누어진다. 중천건(重天乾☰)의 도는 위에서 변하고 화하며 아래에서 성(性)과 명(命)이 각기 바르게 된다. 다만 그 류(類)가 각기 달라지는 것이다. 류(類)에 부딪쳐 자라남은 계사전 본문에 근거하는 말이다. 우번(虞翻)은 그곳의 주석에서 부딪친다는 측은 움직임이라고 하였다. 대개 하늘에 근본 하는 것은 양효(陽爻)고 땅에 근본하는 것은 음효다. 중천건(重天乾☰)은 위가 되고 중지곤(重地坤☷)은 아래가 된다. (그 가운데) 중천건(重天乾☰)에서는 오효가 바른 자리다. 나머지 384효들이 모두 이를 힘입어 비롯되면서 불어나고 소멸한다. 그러므로 각기 그 부류를 따른다고 하였다.

01乾卦18, ^{상 구 완 항 룡 유 회}上九曰“亢龍有悔”, ^{하 위 야 자 완}何謂也? ^{귀 이 무 위}子曰, “貴而无位

상구에서 말하기를 너무 올라간 용이니 뉘우침이 있다고 함은 무슨 뜻인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귀하나 지위가 없으며

순상(荀爽)의 풀이

윗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귀하나 바른 자리가 못되므로 지위가 없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여섯 효의 맨 윗자리에 처해 있으므로 귀하다. 우씨가 덧붙인 주석에 보

면 하늘은 높은 까닭에 귀하다고 한 뜻도 바로 이 맥락이다. 양으로서 음 자리에 거처하고 있으니 바른 자리가 못 된다. 자리가 어긋나 있다면 바른 자리가 못된다. 그러므로 지위가 없다.

고 이 무 민
高而无民

높으나 백성이 없으며

하타(何妥)의 풀이

이미 구오인 제왕의 자리를 지나쳤으므로 백성이 없다. 무릇 천하의 백성이 왕의 신하 아닌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이미 왕의 자리가 아니면 백성이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는다.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끝의 가장 높은 것을 亢이라고 한다. 상육은 끝의 가장 높은 자리이므로 효가 높다고 하였다. 무릇 천하의 백성이 왕의 신하 아닌 사람이 없다는 구절은 詩經 北山에 나오는 시문이다. 사람들이 돌아가 귀의하는 대상을 왕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리가 구오의 지존 자리가 아니므로 백성이 없다. 구가역에 마치 태상왕에 해당한다고 하는 해설과 뜻이 통한다.

현 인 제 하 위
賢人在下位

어진 사람이 아래에 있어도

순상(荀爽)의 풀이

상효(上爻)는 삼효(三爻)와 호응하는 관계다. 삼효(三爻)의 양(陽)은 덕이 바르다. 그러므로 어진 사람이라고 하였다. 소성(小成)괘로 보면 자리가 아래에 있는 괄상(卦象)이다. 그러므로 아래 자리에 있다고 하였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상효(上爻)는 삼효(三爻)와 더불어 대적하는 호응관계다. 삼효(三爻) 양(陽)은 덕이 바르게 거처하여 호칭이 군자가 된다. 그러므로 어진 사람이라고 하였다. 삼효(三爻)는 상효(上爻)와 더불어 같은 소성괘가 아닌 별도의 괄상이고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아래 자리에 있다고 하였다. 위의 전(傳)에서 아래 자리에 있어도 근심하지 않는다고 함이 이것이다.

이 무 보
而無輔

보좌함이 없으니

순상(荀爽)의 풀이

두 개의 양(陽)은 호응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도움이 없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음(陰)과 양(陽)이 서로 호응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도움이 있다. 삼효(三爻)와 상효(上爻)는 두 효가 모두 양(陽)으로 대적하는 관계다. 이는 호응 관계에 놓여 있으면서도 호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곧 호응함이 없으므로 도움이 없다.

시 이 동 이 유 회 양
是以動而‘有悔’也.”

이로서 움직임에 뉘우침만 있게 된다.

순상(荀爽)의 풀이

올라가 지극하면 당연히 내려오게 된다. 그러므로 뉘우침이 있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올라가 지극하면 당연히 내려오게 된다는 뜻은 곧 우변이 계사전의 주석에서 중천건(重天乾䷀)은 가득차면 움직여 기울어지므로 뉘우침이 있다고 하는 말이다. 또 회남(淮南) 무칭편(繆稱篇)에 위에서 움직이나 아래에서 호응하지 않으므로 뉘우침이 있다고 하였다. 두 개의 양(陽)이 서로 맞서서 대응함을 말한다.

잠 룡 물 용 하 야
“潛龍勿用”，下也

잠겨 있는 용이니 쓰지 말라고 함은 아래가 되기 때문이다.

하타(何妥)의 풀이

이는 제 문언(文言) 2장이다. 사람의 일로 그 뜻을 밝혔다. 옛적 순임금이 농사짓고 고기 잡으며 살면서 낮고 천한 신분으로 아직 나라에 쓰이지 못하던 때와 같으니 아래라고 하였다.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이 장은 인사(人事)의 문제로 그 뜻을 밝혔다고 보고 있다. 사기(史記)에

순임금이 역산(歷山)에서 밭 갈고 지내시니 역산의 사람들이 모두 밭이랑을 양보하였고, 뇌택(雷澤)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활하시니 뇌택(雷澤)의 사람들이 모두 거처를 양보하였다. 이는 순임금의 몸이 비천하고 낮은데 처해 있을 때의 일이니 바로 잠겨 있는 용이니 쓰지 말라고 하는 효사의 본보기다.

현 룡 제 전, 시 사 야
“見龍在田”, 時舍也

드러난 용이 밭에 있음은 때로 그침이다.

하타(何妥)의 풀이

이는 부자께서 수사(洙泗)에서 머물던 때의 일이니 사업과 기예를 열어 넓히고 문도를 가르치던 때의 일과 같으니 스스로 통하나 그쳐 있지 아니하면 그 누가 이와 같을 수 있었겠는가.

우번(虞翻)의 풀이

이효(二爻)는 왕의 자리가 아니다. 때에 잠시 그쳐 있다.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맹자에 공자는 성인이다. 도가 천하에 행해지지 못하심에 가르침을 수사(洙泗)에서 베풀어 오는 후학들의 눈을 열어주고자 했으니 때에 그쳐 있어야 될 때를 당해 그쳐 있던 본보기다. 사(舍)는 사(捨)와 같으니 뜻이 놓아둔다는 치(置)와 같다. 통하나 그쳐 있다는 뜻은 나감에 초에 있어서는 통하나 오효(五爻)를 대해서는 그쳐 있다. 이는 비록 통하나 그쳐 있음을 말한다. 마치 남사(南史)에 하점(何點)이 당시에 통하나 그쳐 있는 자라 일컬어졌다고 하니 바로 그 예다. 그러므로 스스로 통하나 그쳐 있는 자가 아니면 뉘라서 능히 이와 같겠는가.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이효(二爻)는 비록 중(中)을 얻었으나 자리가 바르지 못하다. 자리가 또한 바르지 못하다면 마땅히 중천건(重天乾 ䷀) 이효(二爻)가 중지곤(重地坤 ䷁)의 오효(五爻)로 내려와 오르게 되어 있다. 밭에 있음은 이효(二爻)에 잠시 그쳐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사(舍)는 읽는 음이 월령의 명전사동교(命田舍東郊)의 사(舍)와 같다. 맹자에서는 출사우교(出舍于郊)라 하여 이곳에

서와 같은 사(舍)자의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終日乾乾”，行事也，

날을 마치도록 굳세고 굳세게 힘쓴다고 함은 일을 행함이요，

하타(何妥)의 풀이

이 구절은 문왕이 서백 제후의 때를 당하여 신하 나라의 우두머리로 있으면서 반드시 위를 섬기고 아래를 거느리는 때의 상황이니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행사(行事)다.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삼효(三爻)가 아래 소성(小成)괘의 맨 윗자리다. 그러므로 건작도(乾鑿度)에서 삼효(三爻)는 삼공(三公)이 된다고 하였다. 춘관(春官) 대종백(大宗伯)에 구명작백(九命作伯)이라는 구절이 있으니 그곳의 주석에 보면 상공은 공덕이 있는 자다. 명을 내려 二伯을 삼으니 오후(五侯) 구백(九伯)을 정벌한 자다. 사기(史記)에 주(紂)가 문왕에게 활과 화살 및 부월(斧鉞)을 내려 정벌을 명하면서 서백을 삼았다고 되어 있다. 이는 제후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음을 말한다. 위로 향룡유회(亢龍有悔)의 상효(上爻)와 호응하는 자리이고 아래로 초효(初爻)와 이효(二爻)의 양(陽)에게 임해 있으니 위를 섬기고 아래를 거느리는 자리로 일삼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효사가 행사(行事)다. 지천태(地天泰䷊) 삼효(三爻)는 곤(坤䷁)에 통한다. 호괘(互卦) 진(震䷲)은 행(行)이 되고 곤(坤䷁)은 일(事)이 된다. 그러므로 일을 행한다는 행사(行事)다. 위를 섬기고 아래를 거느리는 일은 밖으로 굳세고 두려워함이 없다. 덕에 나아가 업을 닦을 뿐이다.

“或躍在淵”，自試也，

혹 뛰나 못에 있다고 함은 스스로 시험함이요，

하타(何妥)의 풀이

그 도에 나가고자 함은 마치 미혹하여 의심하는 것과 같다. 이는 무왕이 군사를 일으켜 움직임을 당하여 세상의 물정을 다시 살피고 돌아봄과 같다.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사기(史記)에 무왕이 군사를 일으킴에 맹진에 이르자 제후들이 기약하지 않았으나 모여든 자가 8백이었다. 제후들은 모두 주(紂)를 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무왕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의 명을 알지 못하겠다. 옳지 않다고 하며 돌아갔다. 대개 사효(四姣)는 오효(五姣)에 나아가 거처함이 의혹이 있다. 그러므로 군사를 일으킴에 살림이 있다. 스스로 세상의 물정을 시험 삼아 돌아보는 것이다.

비룡제천 상치야
“飛龍在天”, 上治也,

나는 용이 하늘에 있음은 위의 다스림이요,

하타(何妥)의 풀이

이 구절의 뜻은 요순(堯舜)이 면류관을 쓰고 세상을 다스리던 때에 해당한다. 성인의 덕으로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때다.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계사하전에 황제와 요순씨가 의상을 드리움에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하였다. 성인의 덕으로서 구5의 높은 지위에 거처하여 위자리에 있으면서 천하를 다스리는 상이다.

항룡유회 궁지재야
“亢龍有悔”, 窮之災也,

항룡이니 뉘우침이 있다는 것은 궁극함의 재앙이요,

안(案)

이는 결(桀)과 주(紂)가 자리에 맞는 덕을 잃어버렸을 때다. 너무 높아 교만하고 가득 찼으므로 뉘우쳐 한탄함에 이르게 되니 재앙이 정수리까지 가득 차 넘어짐을 말한다.

이정조(李鼎祚) 풀이의 해설

사기(史記)에 하(夏)나라의 결(桀)은 베푸는 정치가 포악하고 거칠며 음탕하여 탕(湯)임금이 군사를 일으켜 정벌했다고 하였다. 좌전에 상(商)나라의 주(紂)는 포악하여 왕통이 주나라로 옮겨가게 되었다고 했다. 이처럼 결(桀)과 주(紂)가 지위를 잃었음은 시서에 더욱 상세하다. 오직 너무 지

나치게 교만하고 가득 차 넘치게 행동함으로 인함이니 궁극에 이른 재앙이 뉘우침에 이르게 된 것이다. 가득 찬 것은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이다.

안(案)

이씨는 상구(上九) 효사에서 탕 임금에게는 부끄러워하는 덕이 있었음을 가지고 그 뜻을 해석했으니 이는 성인께서 말씀하신바 사람에게 양(陽)의 굳센 덕이 있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행동하면 뉘우침을 초래한다는 뜻과 통한다.

문언(文言)전에서 다시 결(桀)과 주(紂)의 지위를 잃게 된 고사로 이를 해석한 것이다.

이를테면 성인도 그렇거늘 성인도 아니면서 자리만을 믿고 너무 지나치게 행동한다면 필경 재앙을 초래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말에는 이처럼 각기 마땅함이 있으니 다른 뜻은 결코 아니다. 또 중천건(重天乾䷀)처럼 굳센 덕은 비록 올라감이 너무 지극하여 뉘우침에 이르더라도 어찌 결과 주와 같을 수야 있겠는가. 그러므로 지나치면 매사가 반드시 재앙이 있다. 역으로 점치는 자는 이를 경계로 삼아야 하니 마땅히 나아가고 물러나며 있고 없음을 잘 알아 바른 도리를 잃지 않아야 한다.

건 원 용 구 천 하 치 야
乾元“用九”，天下治也.

건원(乾元)의 용구(用九)는 천하가 다스려짐이다.

안(案)

이는 삼황오제께서 예의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의 일이니 소매를 내려뜨리고 있으면서 아무런 함도 없으나 천하가 다스려지는 때이다.

왕필(王弼)의 풀이

이 일장은 오로지 사람의 일로서 뜻을 밝히고 있다.

구(九)는 양(陽)이다. 양(陽)은 굳세고 곧은 물건이다. 무릇 굳세고 곧으며 선하고 유순한 이치를 오로지 베푸는 능력은 천하의 지극한 다스림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건원(乾元)“용구(用九)” 라면 천하가 다스려지는 때다. 무릇 만물의 움직임을 안다면 그렇게 되는 까닭을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다. 용(龍)의 덕이 됨은 망령됨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잠겨서 쓰지 않음은 하필 아래에서 잠겨 있을 때만의 말이 되겠는가. 나타나 발에 있음은 반드시 때에 그쳐 있음에만 통하겠는가. 효(爻)로서 사람을 삼고 자리로서 때를 삼았음이다. 사람이 망령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때를 모두 알 수 있다. 문왕의 명이 때라면 그 주장함을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중니께서 먼 길을 떠나는 때라면 그 나라에 대해서 가히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왕필(王弼) 풀이의 해설

춘관(春官) 외사(外事)에 「장삼황오제지서(掌三皇五帝之書)」에 대해서 말하되 주석을 보면 삼황지서(三皇之書)는 삼분(三墳)을 일컫는다고 했고, 오제지서(五帝之書)는 오전(五典)으로 보았다. 삼황오제(三皇五帝)는 해설이 한결같지 않다. 공안국의 상서서(尙書序)에서는 복희(伏羲) 신농(神農) 황제(黃帝)의 서(書)를 삼분(三墳)이라고 하였다. 또 소호(少昊) 전욱(顓頊) 고신(高辛) 당(唐) 우(虞)의 서(書)를 오전(五典)이라고 하였다. 반드시 황제를 구분하지도 않았고 삼(三) 오(五)의 수에 스스로 맞게 했을 뿐이다.

건(乾☰)은 하늘이다. 원(元)은 시작이다. 구(九)는 양(陽)이 변하는 수다. 변화하는 뜻이 있다.

삼황오제(三皇五帝)는 하늘의 운행이 처음 열리는 때를 당하여 여러 사물의 머리로 나옴에 예의와 사양함이 있고 정벌하고 살육함이 없었다. 대개 피함이 없었으나 행해지면서 천하가 모두 감화되었다. 그러므로 소매를 드리우고 있음에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하였다.

왕필(王弼) 풀이의 해설

정의(正義)에 따르면 이 일장은 오로지 사람의 일로써 밝혔다고 하였다. 아래에서는 양기(陽氣)가 잠기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또 마침내 하늘 덕에 자리함이라고 하였으며, 또 용구(用九)는 이에 하늘의 법칙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일장에서는 다만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했으니 이는 모두 사람의 일로써 나타낸 설명이다.

굳세고 곧으며 선하고 유순한 이치를 오로지 베푸는 능력은 천하의 지극한 다스림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고 함은 건원(乾元) 용구(用九)가 중천건(重天乾䷱)의 변화하는 여섯 효가 모두 양(陽)이므로 굳세고 곧음으로 온전하게 베풀어진다.

멀리 착하고 유순함에 노닐은 선하고 유순함에 노니는 사람이다. 선함은 능히 유순함에 빠진다. 모양은 공손하고 마음으로 어기는 사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악을 알기에 쉽지 않다. 이는 순수한 양(陽) 구(九)로서 작용함이니 굳세고 곧은 이치로 움직임이요, 나머지 음의 작용이 없다. 선하고 유순한 사람은 요임금이 오히려 병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천하의 지극한 이치가 아니면 능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01乾卦20, “^{잠 룡 물 용}潛龍勿用”, ^{양 기 잠 장}陽氣潛藏,

잠겨 있는 용이니 쓰지 말라고 함은 양의 기운이 잠기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요,

하타(何妥)의 풀이

이는 제 삼절이다. 천도(天道)로써 그 뜻을 밝혔다. 마땅히 십일월(十一月)에 해당하니 양기가 비록 움직이나 아직 땅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잠겨 있는 용이다.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이 장은 천도(天道)로서 효사를 밝혔다는 주장이다. 하나의 양(陽)이 처음 불어나니 진(震䷲)의 체에 해당하고 지뢰복(地雷復䷗)이다. 초효(初爻) 양(陽)은 십이지지의 자(子)⁶⁰에서 바르다. 十一月괘에 해당한다. 진(震䷲)은

60) 납갑의 일종이다. 납갑과 달리 납지는 각괘의 육효에 배합하여 사용하였다. 뒷사람들에 의하면 이를 두고 경씨 효진이라 일컫는데 그것은 경방이 천간은 8괘에 배합을 하고 지지는 각괘의 육효에 배합했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그 배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乾의 初爻를 坤에 배합하면 震이 되므로 震의 초효는 子와 배합하고

乾의 二爻를 坤에 배합하면 坎이 되므로 坎의 초효는 寅이 된다.(그 까닭은

움직임이다. 우리가 땅 가운데 있음이니 복(復䷗)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양기(陽氣)가 비록 움직이나 아직 땅 가운데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용(龍)이 되고 땅 아래에 잠겨 있으므로 양기잠장(陽氣潛藏)이다.

현룡재전, 천하문명,
“見龍在田”, 天下文明,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는 것은 천하가 문명(文明)함이요,
안(案)

양기(陽氣)는 땅에서 위로 자라난다. 그러므로 현룡재전(見龍在田)이다. 온

주역 8괘는 乾坎艮震은 陽의 4궁이며 巽離坤兌는 음의 4궁으로 12지지의 배합에도 陽은 陽 陰은 陰의 원리에 따라 적용을 하기 때문이다. 즉 12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子 寅 辰 午 申 戌은 陽宮에, 음도에 해당하는 丑 卯 巳 未 酉 亥는 陰宮에 차례대로 그 순서를 따라 배합한 결과이다. 대신 이것은 하괘에 해당하는 배합원칙이며 상괘는 앞의 원칙이 적용되는 6지지의 글자에서(陽이면 양의 6地支 陰이면 음의 6地支) 3자리를 건너뛴 다음이 해당 글자가 된다. 初爻의 지지가 子였다면 子가 양이므로 3자리를 건너 뛴 午, 초효가 寅이었다면 寅이 陽이므로 寅으로부터 陽의 3자리를 건너뛴 申, 初爻가 辰이었다면 辰도 陽이므로 辰으로부터 양의 3자리를 건너뛴 戌이 되는 식이다. 이는 음(陰)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말한 대로 음은 12지지 중의 丑 卯 巳 未 酉 亥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초효(初爻)가 丑이었다면 未, 卯였다면 상괘 초효는 酉, 巳였다면 亥, 未였다면 丑이 된다. 이렇게 건과 곤을 부모괘로 해서 서로 배합을 하고 나서 그 짝을 맞춘 자리가 아래로부터 몇 번째인가를 살펴 陽道면 양도의 해당 12지지를, 陰道면 음도의 해당 12지지를 주역 8괘의 각 爻에 배합하고 난 뒤의 전체 내용을 중복된 감이 있더라도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괘효	8괘	乾	震	坎	艮	坤	兌	離	巽
바깥괘 상괘	상효	戌	戌	子	寅	酉	未	巳	卯
	5효	申	申	戌	子	亥	酉	未	巳
	4효	午	午	申	戌	丑	亥	酉	未
안괘 하괘	3효	辰	辰	午	申	卯	丑	亥	酉
	2효	寅	寅	辰	午	巳	卯	丑	亥
	초효	子	子	寅	辰	未	巳	卯	丑

이와 같은 납지의 내용을 주역의 본문 해석에 받아들여 적용한 이는 동한의 정현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다.

갓 초목이 싹을 틔워 씨앗이 벌어지므로 문명(文明)이다.

공영달(孔穎達)의 풀이

선유(先儒)는 구이(九二)로써 태주(太簇)의 달을 삼았다. 양기(陽氣)가 땅에 나타나면 구삼(九三)은 건진(建辰)의 달이 되고, 구사(九四)는 오(午)월, 구오(九五)는 신월(申月), 상구(上九)는 술월(戌月)이 된다. 여러 음(陰)이 이미 무성함에 상구(上九)는 때와 더불어 지극하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선유의 주장은 이 설명에서 다소 이치에 어긋난 듯하다. 이것은 중천건(重天乾䷀)의 양기(陽氣)가 점차 자라남이 흡사 성인이 점점 나아감과 흡사함이니, 십일월(十一月)의 뒤에 근거함이 마땅해서 사월이 이미 와 있다. 이 구이(九二) 효(爻)는 축월(丑月)과 인월(寅月)의 사이다. 때에 땅의 씨앗들이 싹을 틔워 물이 발생하는 것들은 양기(陽氣)가 이미 발현하는 뜻에 통한다. 다만 음양(陰陽)의 두 기운이 함께 한해의 공을 이루므로 음(陰)이 일어나는 때에 양(陽)이 있다. 양(陽)이 발생하는 달에 오히려 음기(陰氣)도 있다. 소이로 육률(六律) 육여(六呂)는 음양(陰陽)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 상(象)을 취해 뜻을 논함이 이와 더불어 다르지 않다.

공영달(孔穎達) 풀이의 해설

안의 구이(九二)는 인(寅)에서 바르니, 정월(正月)의 패다. 월령(月令)에 맹춘(孟春)의 달에는 땅의 기운이 위로 오른다고 하였다. 토(土) 가운데서 양기가 위로 땅에서 뻗쳐오르므로 밭에 용이 나타난 상이 있다.

또 초목이 싹터 움직인다고 했으니 온갖 초목이 모두 싹을 틔워 꺾질을 벗는다. 따라서 천하가 문명한 상이 있다.

종 일 건 건 여 시 해 행
“終日乾乾”，與時偕行，

군자가 종일토록 힘쓰고 힘쓴다는 것은 때에 따라 함께 행하는 것이요,

하타(何妥)의 풀이

이는 삼월(三月)에 해당한다. 양기(陽氣)가 점점 자라나 만물이 장차 무성해진다. 하늘의 운행과 더불어 행한다.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양이 구삼(九三)까지 자랐다면 12지지의 진(辰)이다. 삼월(三月)의 패다.

월령(月令)에서 ‘계춘(季春)의 달에는 생기가 바야흐로 왕성하니 양기가 바야흐로 폭포처럼 흘러넘친다’고 하였다. 곧 양기가 점점 자라나 만물이 무성함을 말한다. 하늘의 운행이 쉬지 않아 양기가 실로 무성하다. 곧 하늘의 운행이 모두 활발해져 쉬지 않는 이치다. 또 밖의 호괘 진(震☳)은 움직임이 된다. 그러므로 하늘이 운행하는 때와 더불어 행한다고 하였다.

“^{혹 약 제 연}或躍在淵”, ^{건 도 내 혁}乾道乃革,

혹 뛰어오르거나 못에 있다는 것은 건도(乾道)가 이에 변혁함이요,
하타(何妥)의 풀이

이는 오(五)⁶¹월에 해당한다. 미세한 음이 처음 일어난다. 양이 장차 바뀌어 변하므로 이에 변혁한다고 하였다.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구사(九四)는 오(午)에서 바르니 오월(五月)의 괘다. 오월(五月)은 천풍구(天風姤☵)가 된다. 하나의 음(陰)이 처음 생겨나 중천건(重天乾☰) 양(陽)이 바뀌어 변한다. 그러므로 이에 변혁한다고 하였다. 이는 소식(消息)의 이치로써 하는 말이다. 또 효진으로 중천건(重天乾☰)은 사효(四爻)가 오(午)에서 바르다. 중지곤(重地坤☷)은 초효(初爻)가 미(未)에서 자리가 바르다. 이는 양(陽)이 바야흐로 성함에 음(陰)이 곧 생겨남이니 중천건(重天乾☰)의 도(道)는 장차 변하므로 이에 변혁한다고 하였다.

우안(愚案)

중천건(重天乾☰)은 오직 이효(二爻)와 상효(上爻) 및 상효(上爻)의 자리가 바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효(二爻)와 상효(上爻)가 이미 변했다면 택화혁(澤火革☱)이 된다. 사효(四爻)는 혹 뛰어보니 또한 장차 변하게 되어 있다. 이들이 모두 바른 자리를 쫓아 변하면 괘상이 수화기제(水火既濟☵)로 정해진다. 그런데 택화혁(澤火革☱) 괘사도 원형이정(元亨利貞)이다. 중천건(重天乾☰)과 더불어 괘덕이 일치한다. 그러므로 구사에서 건도(乾道)가 이에 변혁한다고 그 뜻을 펼쳐보였다. 사효(四爻)로서 안팎이 변화하는 때에

61) 아래의 해설을 통해 알게 하듯 효진설과 결부되어 있다. 효진설은 주석 14)(16~17쪽)에서 다루었다.

있으면서 장차 변화되 변하기 전은택화혁(澤火革䷰)이다. 그러므로 본문이 건도내혁(乾道乃革)이다.

비룡재천, 내위호천덕,
“飛龍在天”, 乃位乎天德,

나는 용이 하늘에 있음은 마침내 하늘의 덕에 자리함ियो,
하타(何妥)의 풀이

이는 마땅히 칠월(七月)에 해당한다.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 하늘의 공로가 크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늘의 덕이라고 하였다.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구오(九五)는 신(申)에서 바르다. 칠월(七月)의 패다. 회남자에 춘기가 펼쳐짐에 백초(百草)가 싹튼다고 하였다. 정추(正秋)를 당해 온갖 과실들이 결실을 맺는다. 이는 칠월(七月)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 하늘의 공이 크게 이루어지는 때다. 그러므로 하늘의 덕이라고 하였다. 양(陽)이 구오(九五)에 이르면 이에 그 자리를 얻는다. 그러므로 하늘의 덕에 자리한다고 하였다.

항용유회, 여시해극,
“亢龍有悔”, 與時偕極,

높이 올라간 용이니 뉘우침이 있음은 때와 더불어 너무 지극함ियो,
하타(何妥)의 풀이

이는 구월(九月)에 해당한다. 양기(陽氣)가 크게 쇠해 장차 지극해 다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때와 더불어 너무 지극하다고 하였다.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상구(上九)는 술(戌)에서 바르다. 구월(九月)의 패다. 술(戌)은 소식(消息)에서 산지박(山地剝䷖)이다. 산지박(山地剝䷖)은 하나의 양(陽)이 맨 위에서 타고 있으므로 양기(陽氣)가 크게 쇠하여 장차 지극해 다해지고자 하는 상이다. 광아(廣雅)에 항(亢)은 극(極)이 된다고 하였다. 이아(爾雅) 석천(釋天)에 달이 계(癸)에 있음을 두고 극(極)이라고 하였다. 계(癸)는 십간(十干)의 끝이다. 그러므로 극(極)은 다한다는 진(盡)의 뜻이 있다. 이때 양기(陽氣)는 장차 다하려 하니 마땅히 때와 더불어 너무 지극함이 된다.

건원(乾元)“용구(用九)”,乃見天則.

건원(乾元)의 용구(用九)는 이에 하늘의 법칙을 볼 수 있다.

하타(何妥)의 풀이

양기(陽氣)가 사라져 감은 하늘 기운의 뗏뗏함이다. 하늘의 운행 법칙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왕필(王弼)의 풀이

이 일장(一章)은 온전히 천기(天氣)의 운행으로서 밝혔다. 구(九)는 굳세고 곧은 물건이다. 오직 중천건(重天乾䷲)의 작용만이 이를 보여준다. 이처럼 순수한 강(剛)으로써 돌아가는 하늘의 이치를 살피면 하늘의 법칙을 볼 수가 있다.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이아(爾雅) 석고(釋詁)에 의하면 칙(則)은 뗏뗏하다는 상(常)이라고 하였다. 음(陰)이 자라나면 양(陽)이 사라진다. 이는 하늘의 기운이 변해가는 자연스럽고 뗏뗏한 법칙이다. 그래서 정(貞)이 되면 아래에서 원(元)이 일어나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육효(六爻)가 다해 변함에 중천건(重天乾䷲)의 원(元)이 절로 있게 된다. 중천건(重天乾䷲)은 오직 패상이 원(元)이다. 이에 능히 중천건(重天乾䷲)은 용구(用九)가 된다. 용구(用九)란 양(陽)을 쓰는 것이다. 예기(禮記) 악기(樂記)에 하늘은 양(陽)을 잡고 드러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양(陽)은 하늘의 법칙이 된다. 용구(用九)가 되므로 하늘의 운행 법칙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왕필(王弼) 풀이의 해설

이는 천기(天氣)가 사라지고 자라나는 이치로써 효상을 밝힌 말이다. 구(九)는 양수다. 그러므로 굳세고 곧은 물건이라고 하였다. 중천건(重天乾䷲) 원(元)을 본체로 하므로 오직 중천건(重天乾䷲)의 작용만이 능히 이를 보여준다. 하늘은 순수하고 굳세다(剛). 그러므로 그 작용이 순수하고 굳세다면 하늘의 법칙을 가히 볼 수 있다.

건원(乾元)“용구(用九)”,乃見天則.

건원(乾元)은 시작하여 형통한 것이요,

우번(虞翻)의 풀이

중천건(重天乾䷀)은 처음 열려 통한다. 양(陽)으로써 음(陰)에 통하므로 처음 통함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크구나 건의 원이여! 만물이 힘입어 비롯한다(大哉乾元 萬物資始)고 했으니 시작은 곧 원(元)이다. 음양(陰陽)이 변하지 않으면 능히 기운을 서로 통하지 못한다. 중천건(重天乾䷀)이 처음 중지곤(重地坤䷁)과 사귀어 양(陽)으로써 음(陰)과 통하니 그를 지칭해서 처음 통한다고 하였다.

“利, 貞”者, 性情也.

이(利)와 정(貞)은 건(乾䷀)의 성정(性情)이다.

간보(干寶)의 풀이

베풀고 교화하여 만물을 이롭게 함이 성(性)이 되며, 순수하고 한결같이 만물의 정을 바르게 함을 볼 수 있다.

왕필(王弼)의 풀이

건원(乾元)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만물의 시작에 능히 통할 수 있으며 정(情)을 성(性)으로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바름을 오래 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까닭에 건원(乾元)이라야 시작하여 형통하고 정을 성으로 변화시켜야 이롭고 바른 것이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맹자에 ‘천하를 성으로써 말한다면 짐짓할 따름이니 짐짓으로 해석한 까닭에 이로움으로써 근본 한다는 뜻이다(天下之言性也則故而已矣 故者 以利爲本)’고 하였다. 그러므로 간보가 베풀고 교화하여 만물을 이롭게 함이 성(性)이 된다는 구절을 앞에서 끌어오고 있다. 뇌천대장(雷天大壯䷡) 단사(彖辭)에서도 ‘바르고 큼에 천지의 정(情)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순수하고 한결같이 만물의 정을 바르게 함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이(利)와 정(貞)으로써 성(性)과 정(情)의 뜻과 짝이 되게 한 것이다. 요약하면 성(性)이 이(利)고, 정(貞)도 또한 이(利)며, 성(性)도 바르고(正)

정(貞)도 바르므로(正) 이정(利貞)이란 성정(性情)이라고 하였다.

왕필(王弼) 풀이의 해설

정의(正義)에 말하기를, 건(乾☰)의 원기(元氣)는 그 덕이 넓고 크다. 그러므로 능히 두루 만물의 시작에 통한다. 만약 나머지 패의 원덕(元德)은 모름지기 능히 만물을 처음 생겨나게 하더라도 모든 만물에 두루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건원이 되지 않는다. 어찌 능히 만물의 시작에 통하겠는가. 성(性)은 하늘의 기운 그대로의 바탕이니 사특하지 않다. 정(情)은 성(性)의 하고자 함과 같다. 그럼에도 만약 능히 성(性)이 정(情)을 절제하지 못해 그 정(情)이 성(性)과 같게 하지 못한다면 능히 그 성(性)을 오래 행(行)함이 되지 못할 것이다.

우안(愚案)

단사(彖辭)에 중천건(重天乾☰)의 도(道)가 변(變)하고 화(化)함에 각기 성(性)과 명(命)을 바르게 한다고 하였다. 곧 이는 건원(乾元)이 시작하여 형통함이다(乾元者 始而亨者也). 대화(大和)를 보존해 합하여 이에 이롭고 곧다(保合大和 乃利貞) 하였으니 이는 곧 이(利)와 정(貞)이 건(乾☰)의 성정(性情)이다(利貞者 性情也). 여기서 성명(性命)으로 말하지 않음은 이미 시작해 형통함이 곧 성명(性命)이기 때문이요, 저기서 성정(性情)으로 말하지 않음은 대화(大和)를 보존해 합함이 곧 성정(性情)이기 때문이다.

성(性)은 명(命)에 근원하므로 원형에 속하며, 성(性)의 움직임은 정(情)이 된다. 그러므로 이정(利貞)에 속한다. 말이 만약 서로 섞여 있음에 주목하면 뜻은 실제 서로 속에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를 아울러 논한다면 성의 원류인 체용의 개념이니 그 ‘하나로써 이를 꿰는 게(一以貫之)’ 된다.

乾始能以美利利天下,

건(乾☰)의 시작이 아름다운 이로움으로써 천하를 이롭게 하되

우번(虞翻)의 풀이

아름다운 이로움(美利)은 구름이 가고 비가 뿌려져 온갖 만물이 형체를 갖춘다는 구절과 같다. 그러므로 천하를 이롭게 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계사상전에 ‘건은 크게 시작함을 주장한다(건지대시乾知大始)고 하였다. 그러므로 덧붙이는 말이 건시(乾始)니 이는 대재건원만물자시(大哉乾元萬物資始)와 일치한다. 석고(釋詁)에 가(嘉)는 아름다울 미(美)요, 형(亨)은 아름다움(嘉)의 모임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름다울 미(美)자를 여기서 사용하였다. ‘구름이 가고 비가 뿌려짐은 온갖 만물이 형체를 흘린다’고 함은 장(莊)씨 형(亨)의 덕(德)을 풀이했다고 하였다. 형(亨)은 통(通)함이다. 변해서 통하게 하여 이로움을 다하니 그 뜻은 아름다운 이로움이 곧 구름이 가고 비가 뿌려져 온갖 만물이 형체를 갖추지면서 천하가 이로워짐을 알아야 한다.

우안(愚案)

경문에서 말 이을 이(而)자는 정본을 따른다면 내(耐)자의 오자다. 다른 책에서는 또 능(能)으로 써어있기도 하니 대개 옛적에는 능(能)자가 모두 내(耐)자로 사용되었다. 예운(禮運)에서는 짐짓 성인이 천하로써 일가를 삼는다고 하면서 이~위 구 앞에 내(耐)자를 덧붙이되 주석에 따르면 내(耐)는 옛의 능(能)과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악기에서도 ‘고성인불내무악(故聖人不耐無樂), 악불내무형(樂不耐無形). 형이불위도(形而不爲道)불내무난(不耐無亂)’이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때의 내(耐) 역시 능(能)과 같은 글자로 주석되어 있다. 송기(宋祁)의 한서(漢書) 고제기(高帝紀) 주석에도 옛적에 능(能)자는 대체로 내(耐)로 기술하고 있다고 했다. 후세에 삼족(三足)의 능(能)함으로 능(能)의 뜻을 삼았으므로 지금 사람들은 능(能)자를 활용하고 내(耐)를 쓰는 일이 없어졌다. 이에 근거해 보면 말 이을 이(而)자는 당연히 내(耐)에서 마디 촌(寸)이 탈락한 오자임이 분명하다. 그 까닭에 앞의 문장에서 시작하여 형통하다는 시이형(始而亨)은 말 이을 이(而)로 썼다. 능(能)은 금서(今書)고 말 이을 이(而)는 고본(古本)이다. 따라서 고본을 쫓자면 당연히 이(而)는 내(耐)가 되어야 한다. 다만 취지가 앞서 말한 대로니 천택리(天澤履䷉)의 묘이시(眇而視) 파이리(跛而履) 구(句) 역시 마찬가지다.

불언소리^대의제^제
不言所利⁶²), 大矣哉!

굳이 이로운 것을 말하지 않았으니, 크구나 (건의 덕이여!).

우번(虞翻)의 풀이

하늘이 무슨 말을 하겠는가! 사시가 펼쳐짐에 만물이 자랄 뿐이다. 그러므로 이로우미란 크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논어의 문장을 끌어와 이로운 바를 말하지 않는다는 구절을 해석하였다. 이로운 바를 말하지 않는다면 바른 도리는 그 가운데 있다. 크다는 이로우미 크다는 것을 부연한 말이다. 이는 실제 원(元)의 대(大)니 이 장에서 건원(乾元)의 덕(德)을 거듭 해석하고 있다.

대 제 건 호 강 건 중 정 순 수 정 야
大哉乾乎! 剛健中正, 純粹精也,

위대하구나 건(乾☰)의 덕이여 강건하고 중정하고 순수함이 정함이요,

최근(崔觀)의 풀이

섞이지 않음을 순(純)이라 일컫고, 변하지 않음은 수(粹)다. 말하자면 중천건(重天乾☰)의 정(情)이 순수(純粹)하므로 강건중정(剛健中正)한 네 가지의 덕이 있다.

최근(崔觀) 풀이의 해설

섞이지 않음을 순(純)이라고 했으니 오로지 유일함을 뜻하고, 변하지 않음을 수(粹)라고 했으니 오래 감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순(純)은 곧 성(誠)이고 수(粹)는 쉬지 않는 불식(不息)이니 정은 지성(至誠)스럽되 쉽이 없다. 중천건(重天乾☰)은 오직 지성(至誠)⁶²⁾스러우면서 휴식이 없다. 그 까닭

62) 하늘이 보여주는 세 가지의 궁극적인 이로우미의 마지막 결구다. 첫째의 이로우미 되는 아름다운 이로우미(美利)으로서 둘째의 이로우미인 천하를 이롭게 하되(利萬物) 마지막 세 번째의 이로우미인 앞의 이로운 바를 굳이 들춰내어 말하지 않는 바로 이 구절의 不言所利다.

63) 중용의 성(誠)과 경(敬)

성은 경과 더불어 주역의 본질적인 이치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중용의 핵심 사상이다. 그러므로 중용에 대한 이해는 역의 이치에 바탕을 둔 하늘의 성(性)과 도(道)를 하나의 가르침으로 꿰뚫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렇듯이 이 책은 첫머리에서부터 내세우는 요지가 하늘이 땅을 통해

에 능히 강건중정(剛健中正)한 덕이 있다.

우안(愚案)

대재건호(大哉乾乎!)는 위의 맥락을 잇는 말이다. 잡괘전에서 중천건(重天乾䷱)은 곧세다고 했으니 그 본체로 하는 말이고 설괘전에서는 중천건(重天乾䷱)을 건(健)이라고 했으니 그 작용으로 하는 말이다. 사효(四爻)는 위이면서 중(中)도 아니고 바르지도 않다. 반면 이효(二爻)는 중(中)이나 바르지도 않다. 또 초효(初爻)와 삼효(三爻)는 바르나 중(中)이 아니다. 중(中)이면서 또한 바른 효는 오직 오효(五爻)일 뿐이다. 한편 괘에서 강건(剛健)은 여섯 효 모두를 두고 하는 말이며 중정(中正)함은 구오(九五)에 국한된 기술이다. 또 섞이지 않아 순(純)이라고 함과 변하지 않은 수(粹)는 각기 강(剛)과 건(健)에 해당하는 체(體)와 용(用)의 개념이다. 그 뒤의 정(精)은 강건(剛健)함을 통합한 중정(中正)의 개념이다. 그런 즉 강건중정(剛健中正), 순수정야(純粹精也)의 개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구오(九五)가 해당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대개 구오(九五)는 중천건(重天乾䷱)의 주인이 된다. 이 절은 오로지 구오(九五)를 해석하되 다음 구절 육효발휘(六爻發揮), 방통정야(旁通情也)는 여섯 효를 큰 줄기로 삼아 언급한 말이다.

육 효 발 휘 방 통 정 야
六爻發揮，旁通情也，

육효로 발휘함은 정을 사방으로 통함이요,

육적(陸績)의 풀이

중천건(重天乾䷱)의 여섯 효(爻)가 펼쳐지며 변해 움직임이니 중지곤(重地坤䷁)에 겹으로 통한다. 이처럼 역의 64괘는 중지곤(重地坤䷁)이 와서 중천건(重天乾䷱)에 들면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그 뜻이 육효발휘(六爻發揮), 방통정야(旁通情也)다.

만물에게 부여한 性에서부터 문장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성(性)을 따르는 것이 도(道)이고 도를 닦는 가르침이 곧 교(敎)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결같이 의존해야 하는 바가 바로 역에서 말하는 하늘의 높은 덕이 되는데 이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점에서 기술하면 경(敬)이 되고 중천건의 쉼 새 없는 운행 측면에서 표현하면 바로 至誠이다.

육적(陸績) 풀이의 해설

설괘에 강(剛)과 유(柔)를 발휘하여 조가 생겨난다고 하였다. 우변은 그곳의 주석에서 펼쳐져 움직인다는 발동(發動)은 휘변(揮變)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펼쳐지며 변해 움직인다는 개념에서 발휘변동(發揮變動)이라고 하였다. 방통(旁通)⁶⁴은 곧 반대가 되는 괘다. 음(陰)과 양(陽)이 서로 통함을 뜻하니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 수뢰둔(水雷屯䷂)과 화산려(火山旅䷷) 산수몽(山水蒙䷃)과택화혁(澤火革䷰)의 예 등이 거기에 속한다. 이를 미루어 나머지 육십사괘도 모두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해석한 육적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양자 법언의 방통에 관한 이 괘의 주석에서도 그 뜻은 만 가지 변화에 호응하되 그 바른 도리를 잃지 않음은 오직 방통일 것이라고 하였다. 계사하전도 마찬가지다. 길흉(吉凶)으로써 정(情)이 옮겨간다는 구절이 있으니 옮겨간다는 천(遷)은 통한다는 통(通)과 뜻이 일치한다. 오직 음(陰)과 양(陽)의 효(爻)가 변하면서 길흉의 정이 드디어 옮겨감이니 이는 이곳의 방통정(旁通情)이다.

시 승 육 룡
時乘六龍,

때로 육룡을 타고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때의 원기가 왕기로서 움직임을 말한다. 여러 효를 밟아 건너면서 변해 나감이니 이것이 승육룡(乘六龍)이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왕(王)이니 하물며 거슬리겠는가! 성하다. 이를 때의 원기가 왕으로서 움직인다고 했으니 월령의 다음과 같은 뜻이다. 그곳에 성한 덕이 목(木)기운에 있으면 봄의 기운이고 화(火)의 기운에 있으면 여름의 기운이며 金

64) 역의 大成卦인 六劃卦는 그 성격에 따라 倒轉卦 配合卦 互卦 錯綜卦 등의 개념으로 구분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도전괘는 하나의 특정한 과상을 반대편에서 뒤집어 바라보아 생겨나는 과상이다. 예컨대 지뢰복괘는 산지박, 지택림은 풍지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의 기운에 있으면 가을의 기운, 水에 있으면 겨울의 기운이라고 하였다. 이 움직임이 바로 중천건(重天乾䷱) 순양(純陽)의 기운으로서 때를 타고 여섯 효를 밟아 나가므로 때로 육용을 타고 움직이는 시승육룡(時乘六龍)이다.

이 어 천 야
以御天也,

하늘이 행해지게 하니,

순상(荀爽)의 풀이

어(御)는 행(行)이다. 양(陽)이 올라가고 음(陰)이 내려옴이니 천도(天道)가 행해진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설문에 어(御)는 말을 부린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이를 움직인다는 행(行)으로 뜻을 풀이함은 말을 명에하고 움직여 가게 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도를 세워 음(陰)과 양(陽)이라고 하되 양(陽)은 상승하고 음(陰)은 하강한다. 그러므로 순상(荀爽)은 천도(天道)가 행해진다고 하였다.

운 행 우 시 천 하 평 야
雲行雨施, 天下平也.

구름이 다니고 비가 내려 천하가 화평하다.

순상(荀爽)의 풀이

중천건(重天乾䷱)이 중지곤(重地坤䷁)으로 올라감은 구름이 가는 운행(雲行)이다. 중지곤(重地坤䷁)이 중천건(重天乾䷱)으로 내려옴은 비가 뿌려지는 雨施다.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 2괘는 서로 사귀어 바르면 패상이 수화기제(水火既濟䷾)다. 음양(陰陽)이 화합하여 고르게 되면서 바름을 얻는 까닭에 이어지는 문구가 천하평(天下平)이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수화기제(水火既濟䷾)는 지천태(地天泰䷊) 건(乾䷀) 이 효(二爻)가 중지곤(重地坤䷁) 오효(五爻)로 올라가 감(坎䷜)이 된 사괘이다. 위에 있는 감(坎䷜)은 구름이 되므로 중천건(重天乾䷱)이 중지곤(重地坤䷁)으로 올라감은 구름이 가는 운행(雲行)이고, 중지곤(重地坤䷁) 오효(五爻)가 중천건(重天乾䷱) 이 효(二

爻)로 내려와 사귀면 호괘가 감(坎☵)이다. 아래의 감(坎☵)은 비가 된다. 그러므로 중지곤(重地坤☷)이 중천건(重天乾☰)으로 내려옴은 비가 뿌려지는 우시(雨施)라고 하였다.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은 2괘가 방통(旁通)이다. 이는 두 개의 괘상이 서로 사귀어 바르게 되는 수화기제(水火既濟☵☲)다. 이에 수화기제(水火既濟☵☲) 단전에서도 강유(剛柔)가 바르고 자리가 마땅하므로 음(陰)과 양(陽)이 화(和)하여 고르고 바름을 얻었다고 하였다. 춘추(春秋) 원명포에서도 음양(陰陽)이 모이면 구름이 되고 음양(陰陽)이 호응하여 어울리면 비가 된다고 하였다. 설문에서도 비는 물이 구름을 따라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구름은 용을 쫓는지라 용을 탔다는 승룡(乘龍)이며, 용을 탔다면 구름이 행해짐이다. 그리고 구름이 행해진다면 이는 비가 내리는 것이다. 이처럼 구름이 가고 비가 뿌려진다면 천하가 그 은택으로 윤택함을 힘입게 된다. 그러므로 뒷 구에서 하는 말도 당연히 천하평(天下平)이다.

군자이성덕위행
君子以成德爲行,

군자는 덕을 이름을 행실로 삼으니,

간보(干寶)의 풀이

군자의 행함은 그치고 움직임이 우러러 볼만하고 나가고 물러남에 법도 있다. 오직 덕을 이루고자 할 뿐 구차하게 행하는 바가 없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간보(干寶)의 앞 절은 효경(孝經) 좌전(左傳)과 말이 흡사하나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 뜻은 오직 덕을 이루고자 한다는 있으니 그 까닭에 구차하게 행하지 않는다. 대개 초효(初爻)가 불어나면 괘상이 진(震☳)이니 움직임이 된다. 그러므로 움직임이 오직 덕을 이루고자 함일 뿐 구차하게 행하는 바가 없음이 된다.

일가견지행야
日可健之行也.

날로 볼 수 있는 것이 행실이다.

우번(虞翻)의 풀이

초효(初爻)를 말한다. 중천건(重天乾䷀)은 군자다. 양(陽)이 나와 이루어짐은 상덕(上德)이 된다. 구름이 가고 비가 뿌려짐은 이(離䷄)를 이룸을 말한다. 날로 새로워짐이 최상의 덕이라 할 수 있으니 날로 그 행해짐을 볼 수가 있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초효(初爻)를 말한다고 함은 초구(初九)를 말함이다. 중천건(重天乾䷀)을 군자라고 함은 양(陽)이 곧 덕이 되는 까닭에 군자라고 하였다. 초효(初爻) 양(陽)은 원(元)이다. 元은 善의 어른이라고 하였다. 우번은 중지곤(重地坤䷁) 문언(文言)전의 주석에서 초효(初爻) 중천건(重天乾䷀)은 선을 쌓는다는 적선(積善)이 된다고 하였다. 순자 권학(勸學)편에서도 선을 쌓는 것은 덕을 이룸이라고 하였다. 이는 양이 중지곤(重地坤䷁) 초효(初爻)로 나옴에 이것이 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쌓여 덕을 이루므로 양(陽)이 나와서 이루어짐은 상덕(上德)이 된다고 하였다.

운행우시(雲行雨施)는 수화기제(水火既濟䷾)를 말한다. 곧 이(離䷄)를 이룬다는 것은 수화기제(水火既濟䷾) 외호괘(外互卦)가 이(離䷄)가 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離䷄)는 해가 되므로 날로 새로워짐이 상덕(上德)이다. 또 이(離䷄)에서는 서로 본다고(상견호리相見乎離) 했으므로 날로 볼만한 것이 행(行)이다.

“潛”之爲言也，隱而未見，行而未成，是以君子弗用也。

잠겼다는 말은 숨어서 나타나지 않음이요, 행실로 이루어지지 못함이다. 이 때문에 군자는 쓰지 않는 것이다.

순상(荀爽)의 풀이

숨어서 나타나지 않음은 자리가 초효(初爻)임을 말한다. 행실로 이루어지지 못함은 중지곤(重地坤䷁) 사효(四爻)로 감을 말한다. 그곳으로 가서 양(陽)이 음(陰)의 자리를 차지하므로 군자가 되지 못한다. 중천건(重天乾䷀)은 군자의 패다. 군자가 되지 못한다면 쓰지 않는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오로지 잠겼다는 말의 뜻을 해석했다. 그러므로 문장의 처음부터 ‘잠’지위

언(‘潛’之爲言)이다. 자리가 초효(初爻)이므로 숨어서 나타나지 못한다. 초효(初爻)와 사효(四爻)는 호응 관계로 초효(初爻)는 움직여 사효(四爻)로 가는데 사효(四爻)는 자리가 음(陰)이다. 초효(初爻) 양(陽)이 양(陽)으로써 음(陰)자리를 가서 머무는 까닭에 군자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건(乾☰)은 군자의 패라고 함은 (설괘전에서) 건이군지(乾以君之)라고 했기 때문이다. 군자가 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쓰지를 않는다.

우안(愚案)

초효(初爻)에 엮드려 있다면 손(巽☴)이다. 손(巽☴)은 일컬어 숨는다고 하므로 은이미현(隱而未見)이다. 초효(初爻)가 불어나 진(震☳)이 되면 이는 움직이는 행(行)이다. 춘추(春秋) 원명포(元命包)에서도 양(陽)은 일(一)에서 일어나 삼(三)에서 이룬다고 하였다. 지금 양(陽)이 초효(初爻)에 있으므로 움직이나 이루지 못했다. 잠용(潛龍)은 군자를 형용한다. 그러므로 군자라도 쓰지 않는 불용(弗用)이다.

군자학이취지 문이변지
君子學而聚之，問以辯之，

군자가 배워서 지식을 모으고 물어서 분별하며

우번(虞翻)의 풀이

이효(二爻)를 말한다. 양(陽)이 이효(二爻)에 있음은 태(兌☱)가 입이 되고 진(震☳)은 말이 되어 강론(講論)이 된다. 곤(坤☷)은 文이 되므로 학이취지(學而聚之)다. 문이변지(問以辯之)는 태(兌☱) 상전(象傳)이 근거가 되니 그곳에서 군자가 보고서 벗들과 강습한다(군자이붕우강습君子以朋友講習)는 구절이 있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구이(九二) 효(爻)의 설명이다. 양(陽)이 불어나 이효(二爻)에 있다. 태(兌☱)를 이루었으니 호괘(互卦)는 진(震☳)이다. 태(兌☱)는 입이 된다고 함은 설괘전의 말이다. 진(震☳)은 잘 우는 울음소리가 되고 말이 된다고도 했으니 입이면서 말을 하고 있다면 강론함이 된다. 地澤臨의 바깥 괘상은 곤(坤☷)이니 곤(坤☷)은 문(文)이 된다고 함은 설괘전의 문구다. 학이취지(學以聚之)는 문(文)에서 두루 배운다는 뜻이다. 문이변지(問以辯之)는 태

(兌☱) 상전(象傳)의 군자가 보고서 벗들과 강습한다(君子以朋友講習)는 구절이 있으니 바로 그 뜻이라는 입장이다. 중용(中庸)에서 공자가 애공(哀公)에게 말하기를 널리 배우고 자세하게 묻고 밝게 분별한다고 했으므로 배우고 묻는 것은 군자의 덕이 됨을 알 수 있다.

寬以居之, 仁以行之.

너그러움으로써 거처하고 어짊으로써 행하나니,

우변(虞翻)의 풀이

진(震☳)은 너그러운 인(仁)이 되고 행(行)이 된다. 거처하기를 너그럽게 하고 행함이 어진 것을 말하니 덕이 두루하여 교화됨이다.

우변(虞翻) 풀이의 해설

진(震☳)은 동방의 기운이니 봄을 주관하여 원(元)이 된다. 그러므로 너그러운 인(仁)이 된다고 하였다. 진(震☳)은 발이니 행함이 된다. 거처함이 너그러움은 두루 하다는 박(博)을 말한다. 행함이 어질다는 것은 교화됨을 말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하기를 덕이 두루 하여 교화된다고 하였다. 상서(尙書) 중궤(仲虺)편에서 탕(湯)임금을 일컬어 능히 너그럽고 능히 어질다(克寬克仁)고 했으니 군자의 덕임을 알 수 있다.

易曰“見龍在田, 利見大人”, 君德也.

역에 이르기를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고 하니, 이는 군자의 덕이다.

우변(虞翻)의 풀이

거듭 군자의 덕을 언급함은 대인은 세상을 좋게 하고도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로 군자의 덕이 있게 되면 하늘보다 뒤에 하더라도 하늘의 때를 받들게 되므로 자세하게 하는 말이다.

우변(虞翻) 풀이의 해설

이효(二爻)에서 세상을 좋게 하는 덕이 있음에도 스스로 이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거듭 군자의 덕으로서 칭송하였다. 초효(初爻)가 불어나면 진(震☳)이고 이효(二爻)까지 불어나면 태(兌☱)다. 효가 건(乾)

☰의 초(初)에서 시작되므로 건(乾☰)은 선천(先天)이 된다. 또 상제(上帝)는 진(震☳)에서 나옴으로 진(震☳)은 후천(後天)이 된다. 이효(二爻)는 마땅히 진(震☳) 봄과 태(兌☱) 가을에 해당하므로 하늘보다 뒤에 해도 하늘의 때를 받들이 된다고 하였다. 이효(二爻)는 초효(初爻)보다 뒤다. 그러므로 말이 상세하다. 하늘의 때를 받들어 유순하게 행함을 밝힌 말이다.

구삼중강이불중
九三重剛而不中,

구삼은 거듭된 강함으로 중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우번(虞翻)의 풀이

건(乾☰)으로써 건(乾☰)과 사귀므로 거듭 강하다. 또 자리는 이효(二爻)와 오효(五爻)가 아니다. 그러므로 불중(不中)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건(乾☰)은 강(剛)하고 곤(坤☷)은 유(柔)하다. 안의 건(乾☰)이 바깥의 건(乾☰)과 사귀므로 의미가 중강(重剛)이다. 위로는 건(乾☰)의 오효도 아니고 아래로는 곤(坤☷)의 이효도 아니다. 그러므로 불중(不中)이다.

상불재천 하불재전
上不在天, 下不在田,

위로는 하늘에 있지 않고 아래로는 밭에 있지 않다.

하타(何妥)의 풀이

위로는 오효(五爻)에 미치지 못하므로 하늘에도 있지 않고, 아래로는 이미 이효(二爻)를 지났으므로 밭에도 있지 않다. 이때를 당해서 실로 위태로운 재앙이 된다.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구오(九五)에서 나는 용(龍)이 하늘에 있다고 하였다. 위로 오효(五爻)에 미치지 못하므로 하늘에 있지 않다. 아래로 이미 이효(二爻)를 지났으므로 밭에도 있지 않다. 거듭 강함으로써 중(中)이 아닌 때에 처해 있으니 어찌 위태로워 재앙이 되지 않겠는가.

고건건인기시이척 수위무구의
故乾乾因其時而惕, 雖危无咎矣.

그러므로 굳세고 굳세어 때에 따라 두려워하면 비록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을 것이다.

하타(何妥)의 풀이

위태롭고 두려운 땅에 처했으나 능히 굳세고 굳세어 위태로움을 생각하니
이는 허물이 없음이 된다.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위태롭고 두려운 자리이지만 능히 때에 두려워한다. 양자(楊子)에서 말하는 지나치면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바다. 두렵게 여기는 까닭에 허물이 없다. 법언에서 정사를 베풀어 대중을 이끌어 감에 중화(中和)보다 숭상할 게 없다고 하였다. 또 천하를 담는 질그릇의 귀함은 화(和)에 있다고 하였다. 용이 잠겨있거나 너무 올라가 있음은 그 중(中)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지나치면 두려워하고 중(中)에 미치지 못했으면 도약한다. 이는 중(中)에 가까워지고자 함이다. 대개 삼효(三爻)와 사효(四爻)는 중(中)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음을 함께 말했다.

구 사 중 강 이 불 중
九四重剛而不中,

구사는 거듭된 강함으로 중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안(案)

삼효(三爻)는 자리가 아래 괘의 위이고, 사효(四爻)는 자리가 위 괘의 맨 아래다. 모두 중(中)을 얻지 못한 자리가 되므로 거듭 강(剛)하나 중(中)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정조(李鼎祚) 풀이의 해설

사효(四爻)는 바깥 건(乾☰)의 괘상에 속해 있으면서 안의 건(乾☰) 괘상과 사귀고 있다. 그러므로 둘다 중강(重剛)이 된다고 하였다. 사효(四爻)가 중(中)을 차지 못한 점도 삼효(三爻)와 더불어 마찬가지다.

상 불 재 천 하 불 재 지 중 불 재 인
上不在天, 下不在田, 中不在人,

위로는 하늘에도 있지 않고 아래로는 밭에도 있지 않고 가운데로는 인간에도 있지 않다.

후과(侯果)의 풀이

계사하전에 의하면 역에는 하늘의 도(道)도 있고, 땅의 도(道)도 있으며 사람의 도(道)도 있으니 삼재(三才)를 겸하여 둘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개의 효(爻)가 하나의 재질을 이루고 있음을 말한다. 초효(初爻)가 이효(二爻)와 겸해 땅이 되고, 삼효(三爻)는 사효(四爻)와 더불어 사람이 되며 오효(五爻)는 상육(上六)과 더불어 하늘이 되는 자리다. 사효(四爻)는 대신 자리가 바르지 않으므로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하였다.

후과(侯果) 풀이의 해설

이는 계사하전을 인용하여 가운데로는 사람에게도 있지 않다는 뜻을 해석한 말이다. 삼효(三爻)와 사효(四爻)는 가운데 있으니 사람의 자리다. 그러나 삼효(三爻)는 자리가 바르지만 사효(四爻)는 자리가 바르지 못하다. 그 까닭에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본문 구절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공소(孔疏)에서도 삼효(三爻)와 사효(四爻)는 모두 인도(人道)의 자리라고 하였다. 다만 사람은 땅에 가깝고 위 하늘로부터는 멀다. 효(爻)로 보면 구삼(九三) 효는 이효(二爻)에 가까우니 이는 땅에 가깝다. 그러므로 삼효(三爻)를 두고서는 사효(四爻)와 같이 중불재인(中不在人)이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구사(九四)는 하늘에 가깝고 땅으로부터는 멀다. 이는 사람의 거처할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설명하는 말 가운데 중불재인(中不在人)이라고 하였다.

고 혹 지 혹 지 자 의 지 야 고 무 구
故“或”之。 “或”之者，疑之也，故无咎。

그러므로 혹(或)이라고 하였으니, 혹(或)이란 의심하는 말이므로 허물이 없는 것이다.

우번(虞翻)의 풀이

그 자리가 아니므로 의심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사효(四爻)는 자리가 바르지 않다. 그러므로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하였다. 뛰어 오효(五爻)로 나가고자 하나 호응이 아래의 초효(初爻)에 있다. 마치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의심한다.

부^부 대^대인^인자^자,
夫 ‘大人’者,

무릇 대인이란

건작도(乾鑿度)의 풀이

성스러워 밝은 덕이 갖추어져 있을 때 대인(大人)이라고 한다.

건작도(乾鑿度) 풀이의 해설

건작도에 의하면 역에는 군(君)의 호칭이 다섯 가지⁶⁵⁾가 있다고 하였다. 그 가운데 대인(大人)은 성스럽고 밝은 덕이 갖추어진 사람이다. 회남(淮南) 태주(泰族)에서도 대인은 천지와 더불어 덕이 부합하며, 귀신과 더불어 신령스러움을 합하며, 사시(四時)와 더불어 믿음을 합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은 하늘의 기운을 품고 하늘의 마음을 품에 안았으며 중(中)을 잡고 화(和)를 포함하니 묘당(廟堂)에 아래하지도 않고 사해(四海)보다 넘치지도 않되 만물을 변해 옮겨가게 하니 그로 인해 백성들은 교화되어 선으로 옮겨 가게 됨이 자기에게 있어서 성품과 같아 능히 교화함이 신령스럽다고 하였다. 여기서 이른바 중(中)을 잡고 화(和)를 포함함은 구오(九五)의 대인(大人)처럼 성스러워 밝은 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 그 뉘가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여^여천^천지^지합^합기^기덕^덕,
與天地合其德,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이 합하며

순상(荀爽)의 풀이

하늘과 더불어 덕을 합함은 자리가 오효(五爻)다. 땅과 더불어 덕을 합함은 자리가 이효(二爻)다.

65) 덕을 갖춘 사람에 대한 주역에서의 다섯 가지 호칭

첫째가 帝니, 하늘 상제를 일컫는 말이다.

둘째는 王이니 아름다운 행실을 지닌 자다.

셋째는 天子이니 벼슬자리의 호칭이다. 8

넷째는 大君이니 위와 더불어 행함이 매우 기특한 호칭이다.

다섯째는 大人이니 성스럽고 밝은 덕이 갖추어진 사람을 의미한다. 문채를 변하게 하여 이름을 드러낸다.

안(案)

어루만져 양육함에 사사로움이 없으니 하늘이 덮고 땅이 싣는 덕과 같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오효(五爻)는 하늘의 자리다. 그러므로 하늘과 더불어 덕을 합함이 자리가
오효(五爻)라고 하였다. 이효(二爻)는 땅의 자리가 된다. 그러므로 땅과 더
불어 덕을 합함은 자리가 이효(二爻)라고 하였다. 이효(二爻)와 오효(五
爻)로서 대인(大人)의 뜻을 포괄하고 있다.

이정조(李鼎祚) 풀이의 해설

공소(孔疏)에 장씨(莊氏)의 설을 인용하여 덮고 싣는다는 뜻이라고 하였
다. 중용(中庸)에 천지는 덮어 가리지 않음이 없고, 가져 싣지 않음이 없
다고 하는 취지가 그 예다. 대인은 만물을 어루만져 양육하되 하늘과 같
아서 사사롭게 덮어줌이 없고, 땅의 사사롭게 싣지 않음이 없는 그대로다.
그러므로 천지의 덮어주고 싣는 덕과 일치한다.

여 일 월 합 기 명
與日月合其明,

해 달과 더불어 그 밝음이 합하며

순상(荀爽)의 풀이

중지곤(重地坤䷁) 오효(五爻)가 중천건(重天乾䷀) 이효(二爻)로 가서 이(離䷄)
를 이룸을 말한다. 이(離䷄)는 해다. 중천건(重天乾䷀) 이효(二爻)가 중지곤
(重地坤䷁) 오효(五爻)로 갔을 때는 감(坎䷜)이 된다. 감(坎䷜)은 달이 된다.

안(案)

위의와 은택이 멀리까지 미친다면 해와 달이 비추어 임함과 같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음(陰)은 내려움을 주장하니 중지곤(重地坤䷁) 오효(五爻)는 중천건(重天乾
䷀) 이효(二爻) 자리로 내려와 사귀며 이(離䷄)를 이룬다. 양은 올라감을
주장하니 중천건(重天乾䷀) 이효(二爻)는 중지곤(重地坤䷁) 오효(五爻) 자리
로 올라가 사귀며 감(坎䷜)을 이룬다. 이(離䷄)는 해가 되고, 감(坎䷜)은 달
이 됨은 모두 설패전의 문구다. 사기(史記) 역서(曆書)에 해와 달은 본래
의 밝음을 이룬다고 하였다. 곧 계사전에서 해와 달이 서로 밀쳐 밝음이

난다고 하는 그 뜻이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한다고 하였다.

이정조(李鼎祚) 풀이의 해설

장씨(莊氏)는 비추어 임함을 말한다. 서경(書經) 태서(泰西)에 해와 달이 임해 비춤과 같다고 함이 이것이다. 말하자면 대인(大人)은 위기와 은택이 널리 힘입게 하므로 멀어 비추지 못함이 없다. 마치 해와 달이 사방을 두루 비춤과 같다.

여 사 시 합 기 서
與四時合其序,

사시와 더불어 그 질서가 합하며,

적현(翟玄)의 풀이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은 불어나고 사라짐(消息)이 있되 사시를 따라서 도래한다.

안(案)

상벌은 엄격하고 밝되 사시의 질서를 따른다.

적현(翟玄) 풀이의 해설

중천건(重天乾䷀) 중지곤(重地坤䷁) 산지박(山地剝䷖) 지뢰복(地雷復䷗) 등은 12벽괘다. 양(陽)은 불어나고 음(陰)은 사라진다. 이를 각기 12월에 나누어 붙인다. 사시의 번갈아 운행함이 12벽괘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은 불어나고 사라짐(消息)이 있되 사시를 따라서 도래한다고 하였다. 또 사시(四時)는 네 가지의 바른 괘상이 있으니 감(坎䷜)·巽(䷸)·이(離䷄)·진(震䷲)·태(兌䷹)다. 불어나고 사라지는 차례로 보면 산지박(山地剝䷖)으로 위에서 양(陽)이 다하게 되면 중천건(重天乾䷀) 오효(五爻)가 삼효(三爻)로 돌아가 지산겸(地山謙䷎)을 이룬다. 지산겸(地山謙䷎)은 내호괘가 坎이니 양(陽)이 중동(仲冬)에 생겨난다. 지산겸(地山謙䷎)은 배합괘가 천택리(天澤履䷉)다. 여기서 중천건(重天乾䷀) 삼효(三爻)는 중지곤(重地坤䷁) 초효(初爻)로 가면 지뢰복(地雷復䷗)이 되니 아래 소성괘는 진(震䷲) 봄이다. 위로 양(陽)이 계속 자라나면 태(兌䷹)·이(離䷄)다. 초효(初爻) 삼효(三爻)가 자리를 바꾸어 이(離䷄)가 먼저 이루어진다. 이는

이(離☲)가 여름, 태(兌☱)가 가을로 진행되는 차례에서도 잘 나타나므로 사시(四時)와 더불어 그 질서를 함함이다.

이정조(李鼎祚) 풀이의 해설

장씨가 말하기를, 만약 상벌로 구분하면 봄과 여름은 상, 가을 겨울은 형벌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좌전(左傳) 양공 26년에서 인용한 문구다. 말하자면 대인은 상과 벌이 엄하고 분명하여 지나치지도 어긋나지도 않아 사시의 질서를 따르는 것과 같다.

여 귀 신 합 기 길 흉
與鬼神合其吉凶.

귀신과 더불어 그 길흉을 합하여,

우번(虞翻)의 풀이

중천건(重天乾☰)은 神의 기운이니 길함(吉)에 합하고 중지곤(重地坤☷)은 귀(鬼)의 기운이니 흉함에 합한다. 중천건(重天乾☰)으로서 중지곤(重地坤☷)에 가서 사귀므로 귀신과 더불어 길흉(吉凶)을 합하는 이치다. 세상의 화(禍)와 복(福) 선(善)과 간사함은 귀신의 길흉과 합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건(乾☰)은 효들이 양(陽)이므로 신(神)이 된다. 곤(坤☷)은 효들이 음(陰)이므로 귀(鬼)가 된다. 양(陽)은 선(善)이 되므로 길(吉)이 되니 설괘전에서는 길(吉)은 선(善)이라고 하였다. 음(陰)은 악(惡)이 되므로 흉(凶)하다. 석고(釋詁)에 풀이하기를 흉(凶)은 허물 구(咎)라고 하였다. 주석의 뜻에 의하면 허물은 악임을 말한다. 중천건(重天乾☰)이 움직여 중지곤(重地坤☷)을 이루므로 중천건(重天乾☰)으로서 중지곤(重地坤☷)에 가는 게 된다. 이는 양(陽)이 음(陰)에 얹드려 있음이 되므로 귀신과 더불어 길흉을 합한다고 하였다.

안(案)

장씨(莊氏)는 이구절의 뜻은 화(禍)와 복(福) 선(善)과 간사함과 같다고 했으니 상서(尙書) 탕고(湯誥) 편에 천도(天道)에는 복(福) 선(善) 화(禍)와 간사함이 있다고 한 바로 그 뜻이다. 말하자면 대인(大人)은 세상의 가득 찬 것을 헤쳐 겸손한 쪽에 복되게 하는 귀신의 화(禍)와 복(福) 선

(善)과 간사함에서 이치상 동일하다. 그러므로 귀신과 더불어 길흉을 합하게 된다고 하였다.

선 천 이 천 불 위
先天⁶⁶⁾而天弗違,

66)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의 개념

선천과 후천은 이곳 중천건(重天乾) 문언전(文言傳)에서 비롯된다.

세상의 이치를 살필 때 그 기준점을 어디로 잡고 있느냐의 차이다.

선천(先天)은 글자의 뜻이 하늘보다 앞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하늘에서의 움직임, 즉 육기(六氣) 중심으로 오행(五行)의 변화를 살폈음을 뜻한다. 이는 시각의 중심이 하늘에 있다.

후천(後天)은 하늘보다 뒤가 된다는 뜻이니 오행의 관점에서 육기의 변화를 살핀 결과다. 이는 지구 중심이다.

따라서 선유들은 이를 설명할 때 항상 선천은 일체 만물의 상이 이루어지는 이치를 형상화시킨 결과로 체(體)가 되며 후천은 선천과 표리를 이루면서 작용하는 이치를 설명하는 용(用)이 된다고 그 의미를 기술해왔다.

선천(先天)을 중심으로 만물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양(陽)은 왼쪽으로 돌면서 상승하고 음(陰)은 오른쪽으로 돌면서 하강한다고 본다.

이는 천도가 왼쪽으로 돌므로 가볍고 맑은 하늘의 기운이 왼쪽으로 돌면서 위에 자리를 잡고 지구는 오른쪽으로 도는 까닭에 무겁고 탁한 기운의 땅은 오른쪽으로 돌면서 하강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여기서 왼쪽의 개념은 해가 움직이는 시계 방향을 뜻하고 오른쪽은 지구가 회전하는 시계 반대 방향이다.

그리고 이 이치는 역의 선천 기본 팔괘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해는 동쪽에서 이른 아침에 나타나 남쪽을 거쳐 서쪽으로 기우는 까닭에 선천에서 이(離)는 동쪽이 되고 달은 해가 기울고 난 뒤 밤에 해당하는 서방에 떠 있으면서 해를 계승하는 까닭에 감(坎)은 서쪽이 되었다(離東坎西).

이처럼 해와 달이 서로 밀치면서 음(陰)과 양(陽)으로 작용할 때 위에 있는 하늘은 양(陽)이 가득한 상이 되므로 오히려 하나의 음(陰)이 아래로부터 생겨나 오른쪽으로 돌면서 하강하는 상(象)이 되고, 오른쪽으로 하강하여 음(陰)이 지극해진 곤(坤)은 음이 지극한 까닭에 다시 하나의 양이 생겨나면서 왼쪽으로 돌아 상승하면서 선천 팔괘의 기본 패턴을 이룬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과 왼쪽의 개념은 단순하다.

음(陰)이 가득한 땅은 겨울 혹은 해가 진 북쪽 방위와 일치하므로 坤의 자리가 아래인 북방이 되고 양이 가득한 하늘은 해가 중천에 떠올라 가장 무더운 한낮이거나 여름철의 삼복 기운을 나타내므로 건의 자리가 위인 남쪽이 된다(乾

하늘보다 먼저 하여도 하늘이 어기지 않으며

우번(虞翻)의 풀이

건(乾☰)은 하늘이 되고, 먼저가 된다. 대인은 중천건(重天乾☰) 오효(五爻)에 있다. 중천건(重天乾☰) 오효(五爻)가 중지곤(重地坤☷) 오효(五爻)로 가니 하늘의 상(象)이 먼저 있다. 그러므로 하늘보다 먼저 해도 하늘이 어기지 않는다.

최경(崔憬)의 풀이

사람의 도리를 행함에 하늘의 마음에 부합함을 뜻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건(乾☰)은 하늘이 된다고 함은 설괘전의 문구다. 또 머리가 되고 팔괘가 시작되는 괘상이므로 먼저가 된다. 대인은 중천건(重天乾☰) 오효(五爻)에 있다고 함은 오효(五爻)가 하늘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象)이 먼저 있다고 하였다. 움직임이 중천건(重天乾☰) 오효(五爻)로부터 비롯되므로 개념이 선천(先天)이고 호응이 중지곤(重地坤☷) 오효(五爻)에서 나타나므로 하늘이 어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최경(崔憬) 풀이의 해설

대인은 사람의 할일을 행함에 위로는 천심(天心)에 부합하므로 하늘이 어기지 않는다.

후 천 이 봉 천 시
後天而奉天時.

하늘보다 뒤에 하여도 하늘의 때를 받드나니,

우번(虞翻)의 풀이

받들 봉(奉)은 받들어(승承) 행함이다. 중천건(重天乾☰) 삼효(三爻)가 중지곤(重地坤☷) 초효(初爻)로 가면 괘상이 진(震☳)이다. 진(震☳)은 뜻이 뒤가 된다. 진(震☳)은 봄, 태(兌☱)는 가을, 감(坎☵)은 겨울, 이(離☲)는 여름이니

上坤下).

이로써 보면 왼쪽이란 땅이 자리 잡은 북쪽으로부터 해가 솟아나며 양기가 발산되는 동(東)쪽을 뜻하고, 오른쪽이란 하늘이 자리 잡은 남쪽으로부터 해가 기우는 서(西)쪽 방위가 됨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시가 이로써 모두 구족되므로 하늘보다 뒤에 하여도 하늘의 때를 받들이 된다. 이것은 곧 하늘을 섬겨 때가 행해지는 유순함을 말한다.

최경(崔憬)의 풀이

하늘의 때를 받들어 정사를 베푸니 성스러운 정치다.

우변(虞翻) 풀이의 해설

설문에 승(承)은 받든다는 봉(奉)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받들어 행한다고 풀이했다. 진(震≡)은 건(乾≡)의 장자다. 건(乾≡)을 받드는 것은 진(震≡)이다. 소식(消息)하는 괘상의 원리를 보면 중천건(重天乾䷀)은 산지박(山地剝䷖)으로 위에서 양(陽)이 모두 다하고 중지곤(重地坤䷁) 삼효(三爻)로 돌아와 간(艮≡)을 이루면서 괘상은 지산겸(地山謙䷎)이 된다. 지산겸(地山謙䷎) 삼효(三爻)는 다시 중지곤(重地坤䷁)의 초효로 가니 진(震≡)이 되면서 지뢰복(地雷復䷗)이 된다. 우(虞)는 지뢰복(地雷復䷗)의 단전(彖傳) 주석에서 강(剛)은 간(艮≡)으로부터 곤(坤≡)에 들어간다고 했고, 또 양(陽)은 위로부터 와서 초(初)로 되돌려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또 삼효(三爻)가 자리를 회복했을 때 이(離≡)는 눈이 되고 감(坎≡)은 마음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천건(重天乾䷀) 삼효(三爻)가 중지곤(重地坤䷁) 초효(初爻)로 가 진(震≡)이 된다고 하였다. 상제(上帝)는 진(震≡)에서 나온다. 일양(一陽)이 중천건(重天乾䷀) 삼효(三爻)로부터 오므로 진(震≡)은 뒤가 된다. 중뢰진(重雷震䷲) 단전(彖傳)에 후유칙(後有則)이라고 했으니 이는 바로 그 뜻이다. 초효(初爻)가 불어나 진(震≡)이 되면 봄이다. 이효(二爻)가 불어나 태(兌≡)면 가을이다. 괘상이 수화기제(水火既濟䷾)로 자리가 모두 마땅해지고 나면 감(坎≡)이 겨울, 이(離≡)는 여름이니 이는 사시(四時)의 괘상이 모두 갖추어진다. 반면 지금은 초효(初爻)로부터 불어나 오효(五爻)에 이르렀으므로 하늘보다 뒤에 하여도 하늘의 때를 받든다고 하였다. 건(乾≡)·곤(坤≡)은 합덕(合德)이 되고, 진(震≡)은 움직임이 되며, 곤(坤≡)은 유순함이 되므로 하늘의 때를 받들어 행하는 유순함이다.

최경(崔憬) 풀이의 해설

때를 받들어 정치를 펼침은 하소정(夏小正) 월령(月令)과 같다. 펼치는바

모든 정치와 법령이다. 성인의 정치는 하늘의 때에 유순하게 따르므로 성스러운 정치라 일컫는다.

우안(愚案)

구오(九五)는 비룡재천(飛龍在天)이고 하늘의 덕에 자리한다고 했으므로 하늘이 된다. 선천(先天)은 초구(初九)를 말한다. 초효(初爻)는 곧 건원(乾元)이다. 만물이 이를 힘입어 비롯되므로 선천(先天)이다. 하늘에 실마리(統)를 두므로 하늘이 어기지 않는다. 후천(後天)은 용구(用九)를 말한다. 양(陽)이 변하여 음(陰)으로 가므로 후천(後天)이다. 하늘의 덕은 머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늘의 때를 받든다. 대개 선천(先天)은 움직이지 않은 양(陽)이다. 원(元)이 되는 양(陽)이 초효(初爻)에 얹드려 있고 나서 오효(五爻)까지 붙어난 중천건(重天乾䷲)이다. 그러므로 하늘보다 앞서도 하늘이 어기지 않는다. 후천(後天)은 이미 움직인 양(陽)이다. 양(陽)이 움직인 용구(用九)이므로 변해서 감(坎䷜) ·巽(䷸) · 이(離䷄) · 진(震䷲) · 태(兌䷹)를 이룬다. 그러므로 하늘보다 뒤에 하여도 하늘의 때를 받든다고 하였다.

천 차 불 위 이 황 어 인 호
天且弗違，而況於人乎？

하늘도 어기지 않거니 하물며 사람이며

순상(荀爽)의 풀이

사람은 구삼 효를 말한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삼효는 人道의 자리다. 그러므로 사람은 구삼 효다.

이 황 어 귀 신 호
而況於鬼神乎？

하물며 귀신이겠는가？

순상(荀爽)의 풀이

신(神)은 하늘이고 귀(鬼)는 땅이다.

안(案)

대인(大人)은 ‘오직 덕만이 하늘을 움직여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이르

지 못하는 곳이 없을 것(유덕동천惟德動天 무원불계无遠弗届)’이라고 하였다. 귀신은 덕을 흠향하고, 이적(夷狄)도 손님으로 이르러 오게 된다. 사람과 신(神)조차 마땅하게 여겨 따름이 마치 바람 앞에 풀이 눕는 것과 같다. 어찌 거슬러 어김이 있겠는가.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신(神)은 양(陽)이므로 하늘이다. 귀(鬼)는 음(陰)이므로 땅이다.

이정조(李鼎祚) 풀이의 해설

대인(大人)은 ‘오직 덕만이 하늘을 움직여 아무리 먼 곳이라도 이르게 한다는 이하의 (惟德動天 无遠弗届)’구절은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의 본문 내용이다. 귀신은 덕을 흠향한다고 함은 귀신도 어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적(夷狄)도 손님으로 이르러 오게 된다고 함은 사람도 어기지 않음을 뜻한다. 사람과 신(神)이 마땅하게 여겨 따른다고 함은 사람과 더불어 귀신도 어기지 않음을 다시 강조하는 말이다. 대인은 하늘을 움직이는 덕이 있으므로 능히 멀어도 이르게 하심이 바로 이와 같다. 이른바 성인이 일어나심에 만물이 우리러본다는 문언전 본문의 구절과 같다.

우안(愚案)

중용(中庸)⁶⁷⁾에서 천지에 세워보아 거스르지 않으며 귀신에 물어보아 의심이 없으며, 백세(百世)에 성인을 기다려도 의혹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귀신에 물어보아 의심이 없음은 하늘을 아는 일이다. 백세에 성인을 기다려도 의혹 받지 아니함은 사람을 아는 일이다. 정(鄭)은 그곳

67) 중용 제 5장 성인과 지성 편 성인의 규범에 대한 단락에 나온다. 천하를 다스림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렇게 하면 과오가 적을 것이다. 윗 시대의 것은 비록 훌륭하다 해도 증거할 데가 없으니 증거가 없으면 믿어지지 않고, 믿지 못하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 아랫 시대의 것은 비록 능하다 하더라도 존중되지 않으니,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도는 자신에 근본을 두어 백성들에게 증험하게 하고 삼왕에 고찰해 보아 그릇됨이 없고, 천지에 세워보아 거스르지 않고, 귀신에게 물어 보아 의심이 없으며, 백세에 성인을 기다려도 의혹 받지 아니함은 사람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움직이면 오래도록 천하의 도가 되니 행하면 천하의 법도가 되고, 말하면 천하의 법칙이 된다고 하였다.

의 주석에서 ‘귀신은 천지를 따르는 자다. 역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귀신의 정상을 아니 천지와 더불어 서로 흡사하다고 하였으니 성인은 백세토록 도와 일치한다’고 하였다. 역과 더불어 중용이 하나로서 일치함을 엿보게 하는 맥락이다.

^{항 지 위 언 야 지 진 이 불 지 퇴}
“亢”之爲言也，知進而不知退，

항(亢)이란 말은 나아감만 알고 물러날 줄을 모르며，

순상(荀爽)의 풀이

양(陽)의 자리는 오효(五爻)에 있다. 지금은 그 윗자리가 된다. 그러므로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날 줄을 모른다고 하였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위는 나아감이 된다. 아래는 물러남이 된다. 오효(五爻)는 지극한 자리이면서 중(中)을 얻었다. 지금은 나아가서 위에 머물고 있으니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날 줄을 모르는 모습이다.

^{지 존 이 불 지 망}
知存而不知亡，

보존함만 알고 망할 줄을 알지 못하며

순상(荀爽)의 풀이

위에 있되 자리가 음(陰)이다. 지금은 효가 양(陽)이니 보존할 줄만 알고 망할 줄을 알지 못한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양(陽)은 보존함이 된다. 음(陰)은 없어져 망함이 된다. 맨 위의 자리는 음(陰)이다. 그러므로 위에 있되 자리가 음이다. 반면 효가 양(陽)이니 이는 보존할 줄만 알고 망(亡)할 줄을 알지 못함이 된다.

^{지 득 이 불 지 상}
知得而不知喪，

얻음만 알고 잃을 줄을 모르는 것이니

순상(荀爽)의 풀이

양(陽)은 얻음이 된다. 음(陰)은 상실함이 된다.

안(案)

이는 군자가 가득 차 교만하고, 높아서 지나치면 반드시 패망하여 상실하게 됨을 거론한 구절이다. 만약 은(殷)나라의 주왕(紂王)을 예로 든다면 그의 실정이 목야(牧野)⁶⁸⁾의 재앙을 초래한 사실과 태강이 낙수에서 있었던 일로 인한 원망⁶⁹⁾이 바로 그 예들이다.

68) 목야(牧野)전투에 대하여

기원전 1027년의 일이다. 주나라 무왕은 3000여명의 귀족과 그 가신으로 이루어진 군대와 이민족 동맹군 및 그를 지지하는 상나라 병력 800명을 이끌고 목야에서 상나라 주왕과 대치하였다.

상나라의 병력은 당시 약 17만 명이었고 주나라의 병력은 그보다 훨씬 적은 5만 명이었다.

무왕은 병력의 열세를 고려하여 휘하 부대의 대형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진격하라는 뜻으로 적을 치는 데 있어서 서너 번 이상 치지 말며, 찌르는 데 있어 예닐곱 번 이상 찌르지 말고, 그런 다음 공격을 멈추고 대오를 정비하라고 지시하였다.

다음 날 아침 상나라 군대가 공격해 왔으나 상나라 군대의 앞 열이 흐트러지면서 퇴각하자 후미의 대열도 자연스럽게 붕괴되었다. 주나라에서 선전하는 것과는 달리 이 전투는 치열한 접전이었다. 승리한 주나라는 상나라를 무자비하게 학살하였으며 나무가 떠 다닐 만큼 피가 흘렀다고 한다. 무왕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황하 유역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인용-전쟁으로 보는 중국사 크리스 피어스 지음)

69) 書經 夏書편의 五子の 노래에 나온다.

太康은 왕좌에 앉아서 줄곧 놀고 게으름만 피워 덕을 망쳤다. 백성들은 이에 모두 그에게 등을 돌렸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희만을 즐겼다. 洛水의 남쪽 기슭으로 사냥을 떠났을 때는 백일이 되어도 돌아오질 않았다. 궁나라의 쥬가 백성들의 원성을 이유로 그를 황하에서 막았다. 그의 아우 다섯 명은 어머니를 모시고 따라 갔다가 낙수의 북쪽 물굽이에서 그를 기다렸다. 다섯 아우들은 모두 원망을 하고 우임금의 훈계를 서술하여 노래를 지어 불렀다.

그 중 첫째는 노래하길, 할아버님께서 훈계가 계셨다. 백성들은 가까이 할지언정 알잡아 보아서 안 되는 것, 백성이야말로 나라의 근본, 근본이 굳어야 나라가 편하리. 내 천하를 둘러보니 어리석은 남자, 어리석은 여자도 모두 나보다 훌륭하게 보였으니 한 사람이 여러 번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 원망이 어찌 분명해 지도록 기다리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조치해야 하느니, 내 백성들을 대함에 썩은 고삐로 육마를 몰 듯 두렵나니, 사람의 위에 앉은 사람이 어찌 공격치 않을 수 있겠느냐는 구절이다.

양(陽)으로써 음(陰)자리이니 이는 양(陽)으로 얻음만 알고, 음(陰)으로 상실하게 됨은 알지 못함이다.

기 유 성 인 호 지 진 퇴 존 망 이 불 실 기 정 자 기 유 성 인 호
其唯聖人乎! 知進退存亡, 而不失其正者, 其唯聖人乎!

그 오직 성인이겠는가! 진퇴(進退)와 존망(存亡)의 이치를 알아 바른 도(道)를 잃지 않는 자는 오직 성인뿐일 것이다.

순상(荀爽)의 풀이

나아감은 오효(五爻)에 위치함을 뜻한다. 물러감은 이효(二爻)를 일컫는다. 보존함은 오효(五爻) 양(陽)의 자리에 해당하고, 패망함은 상효(上爻) 음(陰)의 자리에 해당한다. 거듭 성인을 강조해 말씀하심은 오효(五爻)와 이효(二爻)의 성인을 염두에 두었다. 위는 오효(五爻) 성인(聖人)이고, 아래는 이효(二爻)의 성인(聖人)이다.

안(案)

이는 곧 건원용구(乾元用九) 천하치야(天下治也)다. 성스런 군자는 용구(用九)로 천덕(天德)을 지닌 자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어질어 백성들은 옷소매를 드리우고 하는 일 없이 팔짱만 끼고 다니며 신하는 현명함에 어진 신하들은 흰 말을 타고 와서 임금님과 나라의 일을 의논하고 말은 그사이 마당에서 풀을 뜯을 만큼 태평해진다. 그 덕화는 비단 사람만이 아닌 풀 한 포기까지 미쳐가니 백성은 날로 힘입으면서 이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낱아서 양육해주는 덕을 번거롭게 드러냄이 있겠는가. 이는 삼황오제의 덕이 이에 성스러우면서도 신령스러워 크게 하늘의 이치에 보존해 합해 천하가 스스로 다스려졌을 때의 상황이다. 지금은 부자께서 문언전에 거듭 성인을 일컬었으니 용구의 군자를 찬탄해 마지않으심이다. 이처럼 능히 나아가고 물러나며 보존하고 상실됨을 알아 바른 도리를 잃지 않으므로 크게 끝과 시작을 밝혀 만국이 모두 평안함을 얻고 때로 육룡을 타고서 하늘을 말 몰 듯 함을 얻게 된다. 곧 한결같은 도리로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는 성인의 일이다. 최경의 나머지 구절은 생략한다.

※ 위의 중천건(重天乾䷲)과 아래 중지곤(重地坤䷁)의 전체적인 함의를 나타내는 도표⁷⁰⁾

제 이(二) 중지곤(重地坤䷁)

곤^원71), 元^형, 亨^이, 利^빈牝^마馬^지之^貞貞.

70) 하늘과 땅의 과상에 대한 성격을 정리한 도표

순서	乾 · 天 · 하늘	坤 · 地 · 땅
1	元亨利貞	元亨利牝馬之貞
2	大哉 乾元 萬物資始	至哉 坤元 萬物資生
3	乾道成男	坤道成女
4	乾知大始	坤作成物
5	易知	簡能
6	靜專 動直	動闢 靜翕
7	大	廣
8	確然	隤然
9	天下之至健	天下之至順
10	闢戶	闔戶
11	天道 陰陽	地道 剛柔
12	陽物	陰物
13	親上	親下
14	玄	黃
15	施	生
16	尊-하늘은 높고	卑-땅은 낮다.(계사전)
17	下濟而光明	卑而上行
18	虧盈而益謙	變盈而流謙
19	三天(수로는 1 · 3 · 5)	兩地((수로는 2 · 4)
20	在天成象	在地成形
21	天文	地理
22	天險不可升也	地險山川丘陵

8괘를 주역의 기본 과상으로 취해 온 이유

풍우란(馮友蘭) - 우주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천(天) · 지(地)이고
하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일(日) · 월(月) ·뢰(雷) · 풍(風)이며
지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산(山) ·택(澤)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수(水) · 화(火)다.
옛사람이 이 여덟 가지로 우주의 근원을 삼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자료 곽신환, 『주역의 이해』,)

71) 중천건(重天乾)에서 중지곤(重地坤)으로 이어져 습坎(習坎)과 중화리(重火離)에서 끝나는 상경(上經)과택산함(澤山咸)으로부터 뇌풍항(雷風恒) 및 수화기제(水火既濟)·화수기제(火水既濟)에서 마무리되는 하경(下經)의 전체적인 과상 배치의 차례 문제

○ 주역 상·하경 각 18괘의 도상(圖象)

문왕은 주역 64괘를 상(上)·하경(下經)으로 나누어 분배하였다. 그때 상경은 30괘, 하경은 34괘다.

공자는 서괘전(序卦傳)에서 그 차례에 대해, 상경(上經)은 하늘과 땅(건乾·곤坤)을 머리로 삼아 30괘, 하경은 남녀(함咸·항恒)를 머리로 삼아 34괘로 되어 있음을 밝혔고 반대가 되는 과상에 관해서는 잡괘전에서 다루고 있다.

성인이 경을 지으심에 왜 상·하경의 숫자를 배치함이 한결같지 않고 하경의 과상이 상경의 과상보다 4개가 더 많은 것일까?

여기에는 서로 상반되는 과상을 하나로 삼는 묘한 이치가 내포되어 있다.

상경 30괘를 반대되는 도전괘의 관계에 있는 것끼리 하나로 보아 간추리면 모두 18개의 과가 된다(不到轉卦 6괘-건乾·곤坤·감坎·리離·대과大過·이頤 + 도전과到轉卦 12괘=18괘).

하경도 또한 34개의 과상을 반대되는 것끼리 하나로 간추려 정리해보면 18이다.

(부도전과不到轉卦 2괘 - 소과小過·중부中孚 + 도전과 16괘=18괘)

그런데 이와 같이 상·하경의 과들을 서로 달리 배분하여 18을 만드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소강절에 의하면 본체는 8변(變)이 되고 작용은 6변(變)에 있기 때문이다. 그 까닭에 8괘의 상도 바뀌지 않는 부도전과(不到轉卦)의 관계가 건(乾☰)·곤(坤☷)·감(坎☵)·이(離☲) 4이고, 반대로 바뀌는 도전과(倒轉卦)가 손(巽☴)과 태(兌☱) 간(艮☶)과 진(震☳) 각 2이다. 이는 모두 6이니 근본에 있어서는 6의 수로 과상을 이루지만 실제로는 건(乾☰)·태(兌☱)·이(離☲)·진(震☳)·손(巽☴)·감(坎☵)·간(艮☶)·곤(坤☷)의 기본 8괘다. 그 뜻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체는 6의 수이지만 작용은 8이 된다.

대성괘도 마찬가지다.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도전과(不到轉卦)는 건(乾☰)·곤(坤☷)·감(坎☵)·이(離☲)·대과(大過☱☵)·이(頤☶☲)·소과(小過☱☲)·중부(中孚☴☴) 모두 8괘다. 그리고 나머지 도전과(倒轉卦) 관계에 있는 과상(卦象)은 상·하경을 합해 모두 28이다. 이는 36(6×6)의 수로서 본체가 되어 변하지만 나타나 주역 상·하경을 구성하는 과상은 64괘(8×8)다. 그러므로 효는 6효에서 그치고 과는 소성괘가 8괘에서 그친다.

책수로 따지면 이는 양의 변하는 수 36에서 다하고, 108로 처진다.

이를 근거로 상·하경의 구성을 눈여겨보면 상·하경의 과상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상경(上經)은 양효(陽爻)가 52효, 음효(陰爻)가 56으로 합이 108효다. 이는 양효가 적고 음효가 많은 구성이니 산지박(山地剝䷖) 과와 지뢰복(地雷復䷗)처럼 양효보다 음효가 많은 과들이 상경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하경(下經)은 양효(陽爻)가 56효, 음효(陰爻)가 52효로 합이 108효다. 이는 음효가 적고 양효가 많은 구성이니택천괘(澤天夬䷪), 천풍구(天風姤䷫)와 같은 과상이 하경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상경의 효가 108, 하경의 효가 108로 서로 다름이 없으니 어떻게 과상의 상하 배분이 서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선천의 과상이 8로 $8 \times 8 = 64$ 가 되는 것은 복희씨가 본체 중심에서 보아 8 가운데 6을 포함한 역의 자취를 보여주심이 되고, 문왕이 6의 수 36의 卦象으로 64괘를 드러내 보이심은 작용하는 수 6이 본체의 수 8을 떠나지 않은 구성의 묘한 일치다 《朱元의 三易備遺》.

또 선천의 과는 소성괘가 8이다. 후천의 문왕 역이 바탕을 둔 도전괘와 부도전괘의 입장에서 간략하게 그 형상을 단순화시키면 과상의 종류가 6으로 압축된다. 이는 선천의 과상이 64괘가 되는 근거가 되고, 후천의 과상이 양의 변하는 수 36으로 압축되는 특징으로 통한다.

곧 64는 8의 제곱으로 펼쳐 보인 이치(연역)고, 36은 6의 제곱으로 펼쳐 보인 결과(연역)다. 다시 말하면 양의 변하는 수 36은 하늘이고, 8의 제곱인 64는 땅이다. 그래서 땅의 이치를 대신한 64는 하늘의 이치 36을 바탕으로 성립되어 있으므로 하늘은 근본이 된다는 점에서 높고, 땅은 현상으로 드러나 직접 대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낮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런 이유 때문에 주역은 상경 첫머리에 하늘 과를 두고, 땅 과를 다음에 오게 하였다. 이것은 하늘은 높고 땅이 낮아서 乾과 坤이 정해진다고 하는 계사전의 문구가 성립되는 근거다.

또 하경은 젊은 여자인 못(澤·兌䷹)과 산(山·艮䷳) 우뢰(雷·震䷲)와 바람(風·巽䷸)이 첫머리에 오게 하여 상경과 대비되는 구성을 이룬다. 이는 계사전의 설명을 따르면 우뢰와 천둥소리로서 북돋고 바람과 비로써 윤택하게 한다는 고지이뇌정(鼓之以雷霆), 윤지이풍우(潤之以風雨)다. 그럼 왜 계사전에서는 8괘의 작용을 설명하면서 뇌정(雷霆)과 풍우(風雨)로 못(澤)과 산(艮) 우뢰(震)와 바람(巽)의 개념을 대신하고 있는가? 그 역시 설명은 도전괘의 관계에서 8괘의 의미를 모조리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못(澤)의 도전괘는 바람(巽)이다. 이는 윤지이풍우(潤之以風雨)다.

산(艮)의 도전괘는 우뢰(震)다. 이는 고지이뇌정(鼓之以雷霆)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霆)을 선유들이 우리의 남은 기운으로 보아 간(艮≡)괘와 일치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계사전에서 뇌정(雷霆)만을 말하고 산(艮)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산(艮)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못(澤)도 마찬가지다. 풍우(風雨)를 말하고 태(兌)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도전괘로서 이미 풍우(風雨) 속에 못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설괘전은 계사전과 다르다. 산(艮)과 못(澤)으로써 짝을 삼고, 우뢰(震)와 바람(巽)으로써 짝을 삼아 8괘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것은 배합괘(혹 방통괘)를 바탕에 둔 설명이다.

산(艮)의 배합괘 못(澤)이다. 우뢰(震)의 배합괘는 바람(巽)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연산역이 64(8×8)의 반대가 되는 도전괘의 집합인 36(6×6)으로 법칙을 삼은 결과다.

한편 상경과 하경에서 전체적인 작용은 물(坎)과 불(離)로서 소통된다. 이들 만물의 작용하는 이치가 본질적으로 해와 달의 운행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그것이 계사전에서 말하는 일월운행(日月運行), 일한일서(一寒一暑)의 개념이다. 상·하경의 작용을 나타내는 감(坎)과 이(離)는 괘상으로 볼 때 하늘인 건(乾)과 땅인 곤(坤)이 서로 사귀어 두 기운의 중을 얻은 괘상이다.

○ 주역 상·하경의 차례에 대한 도상(圖象) 1

坤八	艮七	坎六	巽五							震四	離三	兌二	乾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6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40%;"> 震四가 巽五를 포함. 반대로 兌二는 艮七을 포함함. </div>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6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40%;"> 離三은 坎六을 포함함. 상하경의 꼬리괘가 됨 兌二는 艮七을 포함하면서 下經의 머리가 됨 </div>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60%;"> 乾一은 坤八을 포함하면서 上經의 머리괘[首卦]가 됨 </div> </div>													

팔괘는 공통적으로 건곤(乾坤)의 수다.

上經 머리 重天乾과 重地坤

上經 꼬리 習坎과 重火離

下經 머리 澤山咸卦(兌上 艮下) 雷風恒卦(震上 巽下)

下經 꼬리 水火既濟(坎下 離上) 水火未濟(離上 坎下)

그런데 선천과 달리 후천에 근거한 주역이 첫머리에 순건(純乾)이 오는 까닭

은 무엇일까?

선천에서 乾은 一, 兌는 二, 離는 三, 震은 四, 巽은 五, 坎은 六, 艮은 七, 坤은 八의 순서다. 후천에서 선천을 펼쳐 지으니, 乾一은 坤 8을 포함하는 까닭에 一이 먼저 오면서 상경의 머리가 되었다. (상경은 양陽이 머리로 음陰을 포함한다.)

兌二는 艮七을 포함하는 까닭에 이는 다음의 下經에서 첫머리가 되었다. (하경은 음陰이 머리로 양陽을 포함한다.)

離三은 坎六을 포함하는 까닭에 세 번째 상하경의 꼬리가 된다. (상경의 끝역시 양이 음을 포함하는 소성괘가 꼬리가 되었다.)

문왕이 상하경을 지으심에 그 차례는 본래 복희씨의 차례에 근거하였다.

곧 이와 같은 차례가 그것을 증명한다.

주역은 반대로서 작용을 삼았다. 64괘를 간략하게 하면 도전괘 28, 부도전괘 8로 모두 36괘다.

상경은 108효, 하경은 108효, 합하면 216효다. 216의 수는 純乾의 책수다. 이는 주역이 첫머리에 純乾을 오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즉 귀장과 연산을 해아려 보면 그 차례가 이와 같았을까? 혹 그렇지 않았을까. 단언컨대 이와 같았을 것이다.

귀장은 머리가 純坤이니, 작용하는 괘가 48이고, 감추어 쓰지 않는 괘가 16이다.

작용하는 괘 48은 효가 288이다. 288의 수는 순음의 기본 수가 2이므로 288을 2로 나누면 떨어지는 144는 純坤의 책수 144다.

왜 음이 2인가? 陽은 3이고, 陰은 2가 되는 삼천양지의 이치만을 보아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결론이다.

만약 連山역이라면 그 뜻은 좀 더 깊게 생각해야 한다. 복희씨는 연산을 첫머리에 두었다. 그 법칙은 하도에 바탕을 둔다.

건의 책수는 9이고, 하나를 포함한다. 이는 건이 64괘의 머리가 됨이니, 그 법칙은 낙서에 바탕을 둔다.

간은 만물의 끝이면서 시작되는 괘다. 이는 간이 64괘의 머리가 되는 근거다. 건의 책수 216으로써 간의 책수 168에 합하면 이는 384의 수가 나온다. 384의 수는 64괘의 효들 수와 일치한다. 賈公彥이 연산은 첫머리가 艮이 된다고 말하고 연산은 첫머리에 건을 겸해서 말하지 않은 것은 특히 夏時를 들어 말했을 뿐이다. 놀랍지 않은가

연산역은 384효의 작용을 간략하게 추리면 그 법칙은 하늘 乾을 첫머리로 삼은 하도에 바탕을 두었음이니 실제 본문에서는 간이 첫머리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귀장역은 288효의 작용을 간략하게 추리면 첫머리가 純坤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역은 216의 작용을 간략하게 추리면 첫머리가 당연히 순건이 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3가지 역의 묘함과 조화의 신비한 자취를 우리는 이내 잘 알 수가 있다. 《朱元의 三易備遺》

○ 괘의 차례 고찰도 2

	䷀	乾	恒	䷀	咸
	䷁	坤	大壯	䷁	遯
蒙	䷃	屯	明夷	䷃	晉
訟	䷅	需	睽	䷅	家人
比	䷇	師	解	䷇	蹇
履	䷉	小畜	益	䷉	損
否	䷋	泰	姤	䷋	夬
大有	䷍	同人	升	䷍	萃
豫	䷏	謙	井	䷏	困
蠱	䷑	隨	鼎	䷑	革
觀	䷓	臨	艮	䷓	震
賁	䷖	서합	歸妹	䷖	漸
復	䷗	剝	旅	䷗	豐
大畜	䷙	无妄	兌	䷙	巽
	䷚	頤	節	䷚	渙
	䷛	大過		䷛	中孚
	䷜	坎		䷜	小過
	䷝	離	未濟	䷝	既濟

역의 64괘를 문왕께서 상하경으로 나누셨다고 함은 《易·緯書》의 말이다.

邵子は 이에 대해 역의 앞은 乾과 坤이고, 가운데가 坎·離, 끝이 수화의 사경과 사귀지 못함이니 모두 지극한 이치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乾·坤·坎·離는 上篇의 用이고,

兌·艮·震·巽은 下篇의 用이며

頤·中孚·大過·小過는 二편의 正이다.

또 말하기를, 하늘에는 二正이 있으니 乾과 離요,

땅의 二正은 坤과 坎이다.

이들은 함께 작용하여 二變으로서 八卦를 이룬다.

二變의 뜻은 진이 뒤집어져 간이 되는 이치를 말한다.
 뿔은 뒤집혀져 태가 되니 합해 사정괘가 팔괘가 된다.
 하늘에는 四正이 있으니, 乾·離와 頤·中孚다.
 괘상으로 보아 頤는 離와 흡사하고 中孚는 離가 두터워져 다함과 같다.
 땅에도 四正이 있으니 坤·坎과 더불어 大過·小過다. 大過는 坎과 흡사하고 小過는 坎이 두터워져 다함과 같다.
 이들은 함께 작용하여 28번으로써 64괘를 이룬다.
 28괘는 뒤집혀 변하면 56이 되고, 위의 8괘와 함께 64괘가 된다.
 이로써 小成卦는 바른 것이 4이고 變한 것은 둘로 모두 6卦다.
 大成卦는 바른 것이 8이고, 변한 것은 28이다. 합계 36괘다.
 여기서 보면 상경은 도전괘가 12·부도전괘가 6이니 합 18이다.
 하경은 도전괘가 16·부도전괘가 16이니 합 32이다.
 36은 上下經의 각 18괘를 가르켜 말하니 36은 천지간에 진수다.
 하늘은 南에서 極이 되면 땅의 36도로 들고, 北에서 極이 되면 땅의 36도로 나온다. 이것도 또한 수의 지극한 이치다.
 韓溪李氏에 의하면 經度는 上下로 나누니 《대전·대연장》 二篇 策數에 관한 기술에서 언급되어 있다. 겸하여 《序卦》 坎·離에 이르면 별도로 글월의 뜻을 일으킨다.
 그래서 上經의 머리 乾·坤은 두 老陽과 老陰의 대립이다.
 下經의 咸·恒은 두 少陽과 少陰의 본체에 합한다.
 그러므로 《序卦》는 上經이 乾과 坤의 명칭에서 숨고, 下經은 오직 하나 咸괘의 이름에서 숨는다.
 이를 차례로써 미루어 보면 가히 볼 수 있는 바가 上經의 需·訟 및 下經의 震·明夷의 짝이다.
 그들은 上經의 需·訟이 변해 다하면 下經의 震·明夷다. 반대로 下經의 震·明夷가 변해 다하면 上經의 需·訟이다.
 上經의 泰·否는 下經에서 짝이 損·益이다. 그 이유는 泰·否가 乾·坤의 사귀고 사귀지 못한 괘상이고 損·益은 하경 咸·恒의 사귀고 사귀지 못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上經 屯·蒙으로부터 臨·觀까지와 下經 遯·大壯으로부터 革·鼎까지다.
 이 역시 그 까닭은 上經의 屯·蒙이 변해 다하면 鼎·革이 되고 臨·觀이 변해 다하면 遯·大壯이 되기 때문이다.
 상경에서 頤와 大過는 짝으로 坎·頤의 앞에 있고, 하경의 中孚와 小過는 짝으로 既濟와 未濟의 앞에 있다.

그 까닭은 상경의 끝은 坎·離고, 하경의 끝은 既濟와 未濟라는 데 관련이 있다.

즉 상경은 坎·離에서 끝나듯이 하경은 坎·離가 사귀고 사귀지 못하는 既濟와 未濟가 마지막 과상이다.

과상으로 보아 앞에 말했듯이 頤는 離와 흡사하고 大過는 坎과 흡사하며 감리를 계승하는 까닭에 中孚는 두터워져 다해가는 離가 되며, 小過는 두터워져 다해가 坎이 된다. 그래서 끝은 坎·離가 사귀고 사귀지 못하는 既濟와 未濟로 받고 있다. 이것은 坎·離가 또 乾·坤·震·巽·艮·兌의 用이 됨을 의미한다.

※ 頤를 離와 흡사하게 보고, 大過를 坎과 흡사하게 보는 관점은 수궁하기 어려운 바도 있지만 상경의 마지막이 坎·離고 하경의 마지막이 坎·離의 사귀고 사귀지 못하는 既濟와 未濟이면서 상경에서 부도전과 頤와 대과가 坎·離의 앞이며, 하경에서 부도전과 中孚와 小過로서 既濟와 未濟를 이루는 이치가 구성의 유사함만으로도 설득력 있는 견해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 선유들이 주장하듯이 頤는 離와 흡사하고 大過는 坎과 흡사함에서 보더라도 中孚는 두터워져 다해가는 離가 되며, 小過는 두터워져 다해가 坎이 된다는 주장이 크게 무리한 견해도 아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것처럼 효의 숫자로 보면 上經은 陽爻가 52, 陰爻가 56효이고, 下經은 陽爻가 56, 陰爻가 52다.

진실로 經의 구성을 상하로 나누는 지극한 이치가 여기에도 나타나 있다.

(참고자료 원나라 董眞卿의 周易會通)

○ 상·하경의 차례에 대한 고찰 3

중천건에서 시작하여 구이가 처음 변하면 천화동인이다.

다음 천화동인에서 또 하나 구삼이 변하면 천뢰무망이다.

또 구사가 변하면 풍뢰익이다.

다음에 구오가 변하면 산뢰이다.

그 변화가 중화리에서 그친다.

중지곤에서 시작된 변화는 육이가 변하면 지수사가 된다.

다음 지수사에서 육삼이 변하면 지풍승이 된다.

다음 육사가 변하면 뇌풍항이다.

다음 육오가 변하면 택풍대과다.

그 변화는 결국 습감에서 그친다.

그러므로 상경은 건곤에서 시작하여 감리에서 그친다.

곤(坤)은 원(元)하고 형(亨)하고 이(利)하고 암말의 정(貞)함이니

(곤(坤)은 크게 형통하고 암말의 곧음이 이로우니)

간보(干寶)의 풀이

음기(陰記)의 시작이고, 지어미의 덕에 해당하는 몇몇함이다. 그러므로 元이라 일컫는다. 건(乾䷀)과 더불어 덕이 합치되므로 형통하다. 하늘을 떠도는 것으로 용(龍)만한 것이 없고 땅 위를 다니는 것으로 말만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중천건(重天乾䷀)에서는 용(龍)으로서 효사를 풀이하였고, 중지곤(重地坤䷁)에서는 말에 비유하여 상을 본떴다. 곤(坤)은 음(陰)의 부류다. 그러므로 암말의 유순하여 곧은 덕이 이롭다고 하였다.

우번(虞翻)의 풀이

하경은 택산함이 머릿괘이므로 택산함 육이 효가 변하면 태풍대과가 된다.

다음의 변화는 택수곤이다.

다음의 변화는 습감이다.

또 다음의 변화는 지수사다.

다음의 변화는 산수몽이다.

그래서 수화미제에서 마친다.

뇌풍향을 근본으로 삼으면 초육의 변화에서 뇌천대장이 된다.

다음의 변화는 뇌화풍이다.

다음의 변화는 중뢰진이다. 다음의 변화는 지뢰복이다.

다음의 변화는 수뢰둔이다.

그래서 수화기제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하경은 택산함과 뇌풍향에서 시작하여 수화기제에서 끝을 이룬다.

위의 내용을 도표로서 대신하면 다음과 같다.

震		1 乾		兌		離		巽		1) 坤		艮		坎	
井	2 同人	乾	5) 大過	4) 恒	3) 升	6 離	噬嗑	2) 師	5 頤	坤	4 益	6) 坎	3 无妄		
④	⑦	⑤	⑥	④	⑦	③	②	①	⑤	④	①	②	③	⑧	
坎	屯	師	復	蒙	震	未濟	豐	大壯	恒	同人	姤	咸	大過	困	既濟

(참고자료 원나라 張理의 大易象數鉤深圖)

음(陰)이 지극하면 양(陽)이 생겨남을 말한다. 중천건(重天乾䷀)은 홀러 중지곤(重地坤䷁)으로 나타난다. 중지곤(重地坤䷁)은 빛나고 큰 덕을 머금었다. 중천건(重天乾䷀)의 초효(初爻) 원(元)을 엉기게 하여 중지곤(重地坤䷁)의 해(亥)에서 끝난다. 중천건(重天乾䷀)의 초효 자(子)로 나옴은 못 만물이 모두 형통하다. 그러므로 원형(元亨)이다. 곤(坤䷁)은 암컷(牝)이 된다. 진(震䷲)은 말이 된다. 초효(初爻)가 움직이면 바르게 변하므로 암컷 말의 유순해 바름이 이롭다고 하였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곤(坤䷁)은 음이 된다. 무릇 음(陰)의 기운은 모두 이를 말미암아 비롯된다. 그러므로 음(陰)기운의 시작이다. 시작은 달리 말하면 원(元)이다. 지어미의 덕에 해당하는 뗏뗏함 또한 원을 일컫는다고 함은 중지곤(重地坤䷁)이 땅의 법도이고 아내의 법도이기 때문이다. 장공 3년 곡량전에 홀로 음(陰)은 생겨나지 않는다. 홀로 양(陽)도 생겨나지 않는다. 홀로 하늘도 생겨나지 않는다. 셋이 합해진 연후에야 생겨난다. 육서정운(六書精蘊)에 원(元)은 천지의 대덕(大德)이다. 그 까닭에 만물을 낳고 낳는 바라고 하였다. 하늘은 땅이 없으면 만물을 낳지 못한다. 지아비는 지어미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어미의 덕이 뗏뗏함을 원이라고 일컫는다. 형(亨)은 통한다는 통(通)의 뜻이다. 중천건(重天乾䷀)으로써 중지곤(重地坤䷁)에 통함이 형통함의 뜻이다. 그러므로 중천건(重天乾䷀)과 더불어 덕이 합치하므로 형통하다고 일컫는다고 하였다. 하늘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용(龍)만한 것이 없다는 뜻은 설문에 용(龍)은 춘분(春分)에 하늘에 올라가니 하늘에 근본한 자로 위를 친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땅을 행하는 것은 말만한 게 없다는 뜻은 춘추설(春秋說) 제사(題辭)에 땅의 정기는 말이 되니 땅에 근본한 자는 아래를 친 한다고 하였다. 용(龍)은 올라가 하늘에서 활동하므로 중천건(重天乾䷀)은 용(龍)으로서 비유하는 말을 삼았다. 말은 아래의 땅 위를 달리므로 중지곤(重地坤䷁)은 말에 비유하여 상을 본떴다. 설문에 암컷 牝은 기르는 어미라고 하였다. 중지곤(重地坤䷁)은 어미가 되니, 음(陰)의 류다. 그러므로 암컷 말의 유순하여 곧음이 이로움이

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중천건(重天乾䷀) 단전에 구름이 가고 비가 내려 만물이 형체를 갖춘다.(雲行雨施, 品物流形)고 하였다. 우번은 그곳의 주석에서 이미 수화기제(水火既濟䷾)를 이루어 위의 坎은 구름이 되고 아래의 坎은 비가 된다고 하였다. 중천건(重天乾䷀)은 구름과 비로써 중지곤(重地坤䷁)의 형체를 흘리게 한다고 하였다. 대개 중천건이 중지곤(重地坤䷁)으로 가면 坎을 이룬다. 그러므로 음이 지극하면 양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땅에 있어서는 형체를 이룬다고 했으므로 중지곤(重地坤䷁)은 형체가 된다. 양이 배풀면 음이 생긴다. 그러므로 중천건(重天乾䷀)이 흘리면 중지곤(重地坤䷁)이 형체를 갖춘다고 하였다. 크고 빛난 덕을 머금었음은 중지곤(重地坤䷁)의 덕이다. 初六 상전에서 음이 처음 엉킨다고 하였다. 중지곤(重地坤䷁)이 중천건(重天乾䷀)을 녹임은 초효로부터 시작된다. 중천건(重天乾䷀)의 초효(初爻)는 元이 되므로 중천건(重天乾䷀)의 원(元)이 엉킨다고 하였다. 중지곤(重地坤䷁)의 초효 음은 천풍구(天風姤䷫)로부터 시작된다. 천풍구(天風姤䷫)는 12지지의 오(午)로부터 자라나 녹인다. 그래서 해(亥)에서 끝나고 중지곤(重地坤䷁)을 이룬다. 지뢰복(地雷復䷗)의 초효(初爻) 양(陽)에 이르러 다시 돌아와 생겨난다. 중천건(重天乾䷀) 초효(初爻)로 나와 자(子)에서 불어나므로 중지곤(重地坤䷁)의 해에서 마치고 중천건(重天乾䷀) 초효(初爻) 자(子)로 나온다고 하였다.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은 사귀어 통하므로 못 만물이 모두 형통하고 이로서 원형(元亨)이다. 중지곤(重地坤䷁)은 암컷 빈(牝)이 된다. 구가(九家)의 역 설괘전에 말에 있어서 진(震䷲)은 잘 우는 울음이 된다고 했으므로 말이 된다. 초효(初爻)가 움직이는 중지곤(重地坤䷁)의 변화는 우뢰가 된다. 이는 양(陽)이 양(陽) 자리에 바르므로 올바름을 얻음이 된다. 곧다는 정(貞)은 바를 정(正)이다. 그러므로 암컷 말의 유순하여 곧음이 이롭다. 대개 중지곤(重地坤䷁)의 원형(元亨)은 모두 중천건의 이치 그대로다. 역은 중천건(重天乾䷀)의 양(陽)이 땅의 도는 만물이 힘입어 생겨나게 하므로 하늘과 더불어 덕이 합치된다. 그러므로 뜻에 있어서 중천건(重天乾

䷁을 엉기게 하여 진이 나옴을 취하였다. 중지곤(重地坤䷁)의 초효(初爻)가 변환 뒤 여섯 효(爻)가 모두 붙어나면 중천건(重天乾䷀)이다. 바름이 이로움은 홀로 초효(初爻)만을 말함이 아니니 중천건(重天乾䷀)의 원(元)이다. 중지곤(重地坤䷁)이 수화기제(水火既濟䷾)를 이루지 못하면 여섯 효가 모두 바르지 못하다.

군자유유왕 선미 후득주 이
君子有攸往，先迷，後得主，利。

군자가 가는 바를 둠이니 앞서면 아득하고 뒤서면 주장함을 얻어 이롭다 (뒤 서면 이로움을 얻는다).

노씨(盧氏)의 풀이

곤(坤䷁)은 신하의 법도고 아내의 도리라고 하였다. 뒤 서서 앞장서지 않아야 한다. 앞서면 아득하여 도(道)를 잃는다. 그러므로 앞서면 아득해진다고 하였다. 음(陰)은 양(陽)으로서 주장을 삼는다. 마땅히 뒤에서 순종한다면 이롭다. 그러므로 뒤 서면 주장함을 얻어 이롭다고 하였다.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곤(坤䷁)은 암컷이 되고 미혹함도 된다.

노씨(盧氏) 풀이의 해설

신하의 법도가 되고 아내의 도리가 된다고 함은 문언전의 인용구다. 신하는 임금을 따르고 아내는 남편의 뒤가 되므로 마땅히 뒤 서되 앞장서면 미혹해져 신하의 도와 아내의 도를 잃게 된다. 음은 양으로서 주장을 삼는다고 함은 마치 신하가 임금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내가 남편을 따르는 세상의 이치와 같다. 능히 뒤 따르면서 유순하면 주장함을 얻어 이로움이 있다.

안(案)

중지곤(重地坤䷁)은 10월 해(亥)에 속한다. 중지곤(重地坤䷁)의 앞 달은 9월 산지박(山地剝䷖)의 때다. 중지곤(重地坤䷁)의 뒤 달은 11월 지뢰복(地雷復䷗)의 때다. 산지박(山地剝䷖) 상(象)에서 소인은 오두막마져 갹아먹는다고 하였다. 우변은 그곳의 주석에서 상효(上爻)가 변해 간(艮䷳)을 소멸시키면 중지곤(重地坤䷁) 음(陰)이 미혹하여 어지럽다. 그러므로 소인은 오두막마

저 값아먹는다는 입장이다. 지뢰복(地雷復䷗)은 초효가 우뢰 진(震䷲)이다. 서괘에 제기(祭器)를 주장하는 자는 장자(長子)만한 이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받기를 중뢰진(重雷震䷲)으로서 받는다고 하였다. 이는 우뢰 진(震䷲)이 주장이 된다는 뜻이다. 우뢰 진(震䷲)에서 주장하는 일양(一陽)은 곧 노씨가 말하는 음(陰)은 양(陽)으로서 주장을 삼는다고 하는 바로 그 뜻이다. 산지박(山地剝䷖)에서 가는 바를 둠이 이롭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미혹하여 어지럽혀지게 되기 때문이다. 지뢰복(地雷復䷗)에서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고 하였다. (이는 양이) 주장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중지곤(重地坤䷁)은 산지박(山地剝䷖)을 거쳐 지뢰복(地雷復䷗)에 이른다. 그러므로 군자가 갈바가 있게 된다. 앞서 산지박(山地剝䷖)으로부터 옴은 미혹하다. 뒤에서 우뢰 진(震䷲)으로 나옴은 주장함을 얻어 이롭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이는 구가역(九家易)에서 말하는 괘상의 해설이다. 곤(坤䷁)은 어미가 되므로 암컷이 된다. 곤(坤䷁)은 어두우므로 미혹함이 된다.

○ 덧붙이는 말

이 구절은 해석하는 관점이 둘로 나뉜다.

첫째는 주(主)를 득(得)에 붙이는 시각과

주(主)를 따로 떼어 내어 이(利)에 붙이는 관점이다.

전자는 군자가 갈 곳이 있으니 처음엔 길을 잃고 뒤에 주인을 얻는다는 해석이 된다.

후자는 앞장을 서면 아득해지고 뒷 서 따르면 얻으니 이로움을 주장한다고 풀이된다.

<본인>의 견해로는 두 견해 모두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중지곤은 중천건과 짝을 이루어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때 주장하는 쪽은 하늘이고 뒷 따르는 쪽은 중지곤이 되므로 도리를 놓고 보면 앞서고 뒷 따르는 선후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지만 마땅한 도리를 추종하면서 생겨나는 득실을 놓고 본다면 해석상의 견해가 전자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서남득朋, 동북상朋. 安貞吉.

서남(西南)에서는 벗을 얻고 동북(東北)에서는 벗을 잃으니 편안하고 곧아야 길하다.

최근(崔觀)의 풀이

아내의 도리다. 서방은 곤(坤☷)과 태(兌☱)고, 남방은 이(離☲)와 손(巽☴)이다. 서쪽과 남쪽의 두 방위가 모두 음(陰)이다. 중지곤과 더불어 같은 무리다. 그러므로 서남방에서는 벗을 얻는다고 하였다. 동방은 간(艮☶)과 진(震☳)이 위치한다. 북방은 건(乾☰)과 감(坎☵)이 놓인다. 동쪽과 북방은 모두 양(陽)의 방향이다. 중지곤(重地坤☷)과 더불어 서로 다른 무리다. 그러므로 동북(東北)은 벗을 잃는다고 하였다. 여자가 집에 있어서 벗을 얻음에 비유하면 도를 잃어 미혹함과 같다. 출가하면 벗을 잃지만 이에 유순하여 떳떳함을 얻는다. 하늘의 바른 이치를 이어 받아 편안하게 여기므로 곧은데 편안하여 길하다고 하였다.

최근(崔觀) 풀이의 해설

아내의 도라는 것은 곤(坤☷)이 어머니가 되어 아내의 도가 있음을 말한다. 손(巽☴)은 장녀(長女), 이(離☲)는 중녀(中女), 태(兌☱)는 소녀(少女)가 된다. 방위로 보면 곤(坤☷)은 서남(西南), 태(兌☱)는 정서(正西)다. 손(巽☴)은 동남(東南), 이(離☲)는 정남(正南)이다. 여자는 어머니를 따르므로 두 방향이 모두 음(陰)이다. 곤(坤☷)과 더불어 같은 무리다. 그래서 서남(西南)은 벗을 얻는다고 하였다. 건(乾☰)은 아버지가 되고, 진(震☳)은 장남(長男), 감(坎☵)은 중남(中男), 간(艮☶)은 소남(少男)이다. 방위로 보면 간(艮☶)은 東北, 진(震☳)은 정동(正東)이다. 건(乾☰)은 서북(西北) 감(坎☵)은 정북(正北)이다. 남자는 아버지를 따르므로 2곳의 방위가 모두 양(陽)이다. 곤(坤☷)과 더불어 다른 무리다. 그래서 동북은 벗을 잃는다고 하였다. 여자가 집에 있는데 비유하면 음(陰)을 얻음은 벗이 된다. 비록 지아비를 섬기는 도리를 잃어 미혹하나 바르다. 이미 출가하게 되면 음(陰)을 비록 잃으나 양(陽)의 주장함을 얻어 이에 유순하고 지어미의 떳떳한 도리를 얻는다. 이는 하늘을 섬기는 바른 도리에 편안하여 또한 바

르다. 그러므로 곧은데 편안하여 길하다고 하였다. 논어(論語)에 군자가 사람들 속에 섞이나 파당을 짓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사람들 속에 섞인다고 함은 곧 벼를 얻는다는 뜻이다. 파당을 짓지 않는다고 함은 벼를 잃음이다. 벼를 얻고 벼를 잃음은 그 능히 바른 도리에 안주하는 것이니 또한 바르다. 그러므로 곧은데 편안하여 길하다. 혹 효진으로서 해석하였다. 말하자면 중지곤(重地坤䷁) 초육(初六)은 미(未)에서 곧다. 미(未)의 자리는 서남(西南)이다. 그러므로 벼를 얻는다고 하였다. 육사(六四)는 자리가 축(丑)에 있다. 축(丑)의 자리는 동북(東北)이다. 그러므로 벼를 잃게 되니 의리상 이 해석도 틀리지 않다.

○ 덧붙이는 말

후천 팔괘의 방위도에 입각하여 이 구절의 뜻을 해석하면

서남은 음방(巽, 離, 坤, 兌)이 되고

동북은 양방(震, 艮, 坎, 乾)이 된다.

도표(이를, 문왕의 후천 팔괘도 혹은 구궁도라고 함)

손(巽)	동남방	이(離)	남방	곤(坤)	서남방
진(震)	동방			태(兌)	서방
간(艮)	동북방	감(坎)	북방	건(乾)	서북방

벼를 얻는다는 말과 벼를 잃는다는 구절의 의미

① 궤상으로 보면 서방(西方)과 남방(南方)은 모두 음(陰)이 위치한 곳이므로 벼를 얻는다고 하였다. 동방(東方)과 북방(北方)도 역시 마찬가지, 그 곳은 음(陰)이 아닌 양(陽)들이 몰려 있는 곳이므로 벼를 잃게 된다. 반면 음(陰)이 자기와 같은 무리인 음(陰)들을 떠나서 동북방(東北方)의 양(陽)들과 어울리면 만물을 생육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므로 경사가 있게 된다는 해석이 이 구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다.

② 마옉의 견해에 의하면 초가을의 달은 음기(陰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곤(坤䷁)의 자리는 같은 무리가 서로 만나는 곳이므로 서남(西南)쪽에서는 벼를 얻는다고 하였다.

초봄의 달은 양기(陽氣)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음(陰)이 양(陽)을 쫓기 시

작하며 무리를 잃는다. 그러므로 동북(東北)쪽에서는 벼를 잃는다고 하였다.

③ 왕숙-서남(西南)쪽은 음(陰)이다. 그러므로 벼를 얻는다.

동북(東北)쪽은 양(陽)이다. 그러므로 벼를 잃는다.

단 완 지 제 곤 원
象曰, 至哉坤元,

단전에서 말한다. 지극(至極)하구나. 곤(坤☷)의 원(元)이여!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중천건(重天乾☰)의 기운이 중지곤(重地坤☷)에 이르렀다. 만물이 하늘의 기운에 힘입어 만물이 자라난다. 이때 중지곤(重地坤☷)은 순음(純陰)이다. 중천건(重天乾☰) 순양(純陽)에 짝하여 만물을 낳게 되니 선(善)의 시작이며 땅의 象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그 지극함을 찬탄하였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설문(說文)에 원기(元氣)가 처음 나누어짐에 탁한 음(陰)은 땅이 되면서 만물이 생겨나 펼쳐지는 바라고 하였다. 백호통(白虎通)에 땅은 원기(元氣)의 낳는 바이니 만물이 시작되는 근원이라고 하였다. 이는 땅에서 생겨나는 만물이 원기에서 비롯됨이니 곧 중천건(重天乾☰)의 기운을 땅이 내려 받아 만물을 낳는 바가 바로 그것임을 뜻한다. 계사하전에서 천지의 큰 덕을 말해 낳는데 있다고 하였고, 육서정운(六書精蘊)에서도 원(元)이란 천지의 만물을 낳고 낳는 바라고 하였다. 또 곡량전에서도 양(陽) 혼자서는 만물을 낳지 못하며 하늘 혼자서도 낳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반드시 중천건(重天乾☰)의 기운은 중지곤(重地坤☷)과 사귀어 섞인 이후에야 만물이 생겨나니 이를 건의 낳는 덕에 만물이 힘입는다는 뜻이고, 이때의 중천건(重天乾☰)이 힘입게 하는 원(元)은 다른 아닌 중지곤(重地坤☷)의 원이다. 그러므로 중지곤(重地坤☷)의 아름다움을 찬탄하여 지극하다고 하였다. 설문에 지극하다고 함은 높은 곳으로부터 내려와 땅에 이름이니 하나를 쫓음이 핵심이다. 여기서 하나는 마치 땅과 같다. 또 지극히 높다면 위가 없다. 하나의 가장 큰 것이다. 그러므로 중천건(重天乾☰)의 원을 기려 크다는 대(大)로 칭송했다.

만물자생
萬物資生,

만물이 힘입어 생겨나니

순상(荀爽)의 풀이

一萬一千五百二十 책(策)이 모두 중천건(重天乾䷀)의 기운을 받아 시작되
중지곤(重地坤䷁)을 말미암아 생겨난다. 즉 만물이 이루는 형체는 중지곤(重
地坤䷁)에 힘입음이니 형체를 이루어 생겨남은 땅의 힘이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계사상전에 주역 상하 경 두편의 책(策)수는 一萬一千五百二十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만물의 수에 해당하는 책(策)수다. 건작도(乾鑿度)에서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은 서로 함께 어울려 만물을 낳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일원에서 합함이 된다. 삼통력(三統曆)에서도 음(陰)과 양(陽)이 덕을 합함에 자(子)에서 기운이 뿌리를 내려 만물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진(震䷲)은 일양(一陽)으로서 곤(坤䷁)의 초효(初爻)에서 시작되어 불어나면서 시작되는 괘상이다. 그러므로 一萬一千五百二十 책(策)은 모두 중천건(重天乾䷀)에서 기운을 받아 비롯되고 중지곤(重地坤䷁)을 말미암아 생겨난다고 한 것이다. 계사전에 또 대연(大衍)의 수는 50이니 그 씬은 49라고 하였다. 간(干)은 그곳의 주석에서 연(衍)은 합(合)함이라고 하였다. 최는 또 그곳의 주석에서 하나를 버리고 쓰지 않음은 하나가 태극(太極)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마땅히 합해 하나가 됨은 조짐이 나타나지 않음이며, 나뉘어 둘이 됨은 음양의 책수(策數)가 이를 말미암아 생겨났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책수는 곤(坤䷁)에서 생겨난다고 하였다. 책수(策數)가 나누어지지 않으면 만물이 생겨나지 않는다. 마치 만물이 하늘을 힘입어 비롯되나 땅의 기운을 얻지 못하면 형체가 생성되지 못한다. 노자 도덕경에 말하기를,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고 했다. 고유는 회남(淮南)의 주석에서 하나는 도(道)를 말한다. 셋은 화합한 기운이라고 하였다. 혹자는 하나가 원기(元氣)이고, 둘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건곤(乾坤)이다. 둘은 다시 셋을 낳고, 셋은 다시 만물을 낳는다고 했으니 천지가 자리를 베풀어 음양(陰陽)이 흘러 통하여 이에 만물이 생

거나는 이치의 설명이라고도 했다. 그러므로 지극하구나 곤원(坤元)이여!
만물이 힘입어 모습을 갖추는다고 하였다.

내 순 승 천
乃順承天.

이에 유순하게 하늘을 받드니

유환(劉瓛)의 풀이

만물이 땅을 힘입어 생겨난다. 그러므로 땅이 하늘을 이어 만물을 낳는다.

유환(劉瓛) 풀이의 해설

설괘전(說卦傳)에 곤(坤☷)은 유순(柔順)하다고 하였다. 설문에 승(承)은 받
들 봉(奉)이라고 하였다. 대개 만물이 땅을 힘입어 생겨난다. 그러나 음
(陰) 하나만의 작용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땅은 오직 하늘을 이어 만물을
생겨나게 하므로 중지곤(重地坤☷)이 중천건(重天乾☰)의 원(元)을 영기게 하
여 만물이 생겨났음을 밝힌 구절이다.

곤 후 재 물
坤厚載物,

곤(坤☷)의 두터움이 만물을 실음은

촉재(蜀才)의 풀이

중지곤(重地坤☷)은 넓고 두터운 덕으로써 만물을 실어 머금음이 결코 끝이
없다.

촉재(蜀才) 풀이의 해설

설괘(說卦)에 곤(坤☷)은 대거(大車)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땅이 능히 만
물을 싣는 뜻을 취한 결과다.中庸(中庸)에서도 만물을 싣는 바가 두텁고
넓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지곤(重地坤☷)은 넓고 두터운 덕으로써 만물을
싣어 머금는다고 하였다. 아래에서 그 덕이 한량없다고 했으므로 결코 끝
이 없다고 한 것이다.

덕 합 무 강
德合无疆,

덕이 한량없음에 합하며

촉재(蜀才)의 풀이

하늘에 한량없는 덕이 있음에 중지곤(重地坤☷)은 이에 합하는 덕이 있다.

그러므로 덕이 한량없음에 합한다.

촉재(蜀才) 풀이의 해설

설문에 강(疆)은 본래 지경 강(疆) 경계 계(界)로 쓰고 있다. 한량없다(무강无疆)고 함은 땅에 대해 형체로서 하는 말이다. 중용(中庸)에서 유구(悠久)하여 한량이 없다고 했으니 이도 하늘과 땅이 서로 합함을 일컫는 말이다. 대개 나누어서 그 뜻을 말하면 땅이 한량없다는 것은 형체(形體)이고, 하늘이 한량없다는 것은 기(氣)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하나의 덕이 되니 하늘의 덕이 한량없음에 땅의 덕이 여기에 부합된다. 그러므로 덕이 한량없음에 합한다. 곧 중용에서 말하는 유구하여 한량없다고 하는 바로 그 뜻이다.

함 홍 광 대
함弘光大,

머금어 넓고 빛나며 위대하여

순상(荀爽)의 풀이

중천건(重天乾䷀) 이효(二爻)가 중지곤(重地坤䷁) 오효(五爻)로 가 거쳐함이 머금은 함(含)이 된다. 중지곤(重地坤䷁) 오효(五爻)가 중천건(重天乾䷀) 이효(二爻)로 가 거쳐함은 넓은 홍(弘)이다. 중지곤(重地坤䷁) 초효(初爻)가 중천건(重天乾䷀) 사효(四爻)로 가 거쳐함은 빛나는 광(光)이다. 중천건(重天乾䷀) 사효(四爻)가 중지곤(重地坤䷁) 초효(初爻)로 가 거쳐함은 크다는 대(大)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중천건(重天乾䷀) 이효(二爻)가 중지곤(重地坤䷁) 오효(五爻)로 갔다면 패상이 감(坎䷜)이다. 감(坎䷜)은 가장자리의 두 음(陰)이 가운데 하나의 양(陽)을 안에 품고 있다. 그러므로 그 뜻이 머금은다는 함(含)이 된다는 게 순상의 해설이다. 중지곤(重地坤䷁) 오효(五爻)가 중천건(重天乾䷀) 이효(二爻)로 가 거쳐하면 패상이 이(離䷄)다. 이(離䷄)는 가운데가 비었다. 두 양(陽)이 가운데의 한 음(陰)을 안에 품고 있다. 그러므로 넓은 홍(弘)이 된다. 중지곤(重地坤䷁) 초효(初爻)가 중천건(重天乾䷀) 사효(四爻)로 가 거쳐하면 패상이 풍지관(風地觀䷓)이다. 풍지관(風地觀䷓)의 효사에 관국지광(觀國之光)이라고 했으므로 그 뜻이 빛나는 광(光)이다. 중천건(重天乾䷀) 사효(四爻)

가 중지곤(重地坤䷁) 초효(初爻)로 가 거처하면 진(震䷲)이 된다. 설괘에 진(震䷲)은 대도(大塗)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뜻이 크다는 대(大)다. 혹 말하기를, ‘기정야흠(其靜也翕)’이라고 했으므로 머금어 넓은 함홍(含弘)이다. 반면 ‘기동야벽(其動也闢)’이 되므로 빛나며 위대한 광대(光大)다.

품물함형
品物咸亨.

만물이 모두 형통하다.

순상(荀爽)의 풀이

천지가 사괘에 만물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모두 형통하다는 함형(咸亨)이다.

최경(崔憬)의 풀이

만물을 머금어 양육함은 넓은 홍(弘)이 된다. 만물이 빛나 화려하게 함은 대(大)가 된다. 동식물간에 일체의 만물이 각기 그 성품을 품수 받아 이루는 까닭에 만물이 형통한 품물함형(品物咸亨)이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천지가 사괘는 패상은 지천태(地天泰䷊)다. 지천태(地天泰䷊) 단전에 하늘과 땅이 사괘에 만물이 통하게 된다고 하였다. 하(何)씨는 그곳의 주석에서 지천태(地天泰䷊)의 도가 됨은 이치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만물을 통해 생겨나게 하기 때문이다. 지천태(地天泰䷊)는 통한다는 뜻이다. 사물의 기운이 통한다면 이는 곧 형통함이다. 이로써 천지가 사괘에 만물이 생겨나되 일체가 형통함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중지곤이 중천건의 기운을 받아 형통하게 됨을 밝힘이다.

최경(崔憬) 풀이의 해설

만물을 머금어 양육함이 넓은 홍이 된다는 것은 곧 君陳이 말하는 일체를 포용하는 덕이 이에 크다는 그 뜻이다. 만물이 빛나 화려하게 함이 대가 된다는 것은 곧 서경 요전에서 ‘빛을 온 세상에 퍼시니 하늘과 땅에 이르렀다⁷²⁾’는 바로 그 구절의 뜻과 같다.

72) 요전은 書經 虞書의 첫머리에 나온다. 옛 요임금에 대해 상고해 보건대, 지극한 공을 세우셨으니 공손하고 총명하고 우아하고 신중하시어 온유하셨고,

지관(地官) 대사도(大司徒)⁷³⁾에서 땅에서 모이는 산물은 다섯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물로 구분할 수 있으니 첫째는 산림이니 동물은 마땅히 털이 있는 부류(모물毛物)며, 식물은 도토리 류(조물阜物)이며 둘째는 하천과 못에서 나는 물건이니 동물은 비늘있는 류(인물鱗物)며, 식물은 기름진 류(고물膏物)이다. 셋째는 구릉에서 나오는 것이니, 동물은 깃털 달린 부류(우물羽物)며, 식물은 씨가 있는 류(핵물蕝物)다. 넷째는 제방이 있는 하천 지역(분연墳衍)이니 동물은 껍데기가 있는 류(개물介物)며 식물은 지금 사람들이 급협이라 부르는 조염류(협물莢物)다. 다섯째는 습지가 딸린 들판(원습原隰)이니 동물은 표범 따위처럼 털이 짧은 부류(나물羴物)이며 식물은 떨기로 자라는 류(충물叢物)다. 이처럼 동식물이 한결같이 그 마땅한 형태로 자기의 특성을 갖추어 온전하게 자라나므로 갖가지 사물이 모두 형통하다고 한다.

○ 덧붙이는 말

- ① 이 구절은 주역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가장 근본이 된다.
- ② 하늘의 덕을 크다고 함은 하늘이 만물을 낳아 기르는 근본 이치이기 때문이고 땅의 덕은 지극하다고 했으니 이는 하늘의 이치를 받들어 만물을 생겨나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땅의 덕은 지극하여 유순하게 하늘의 도를 이어 받들어 계승하는 뜻이 있다고 했다.
- ③ 하늘의 이치를 받들어 만물을 생겨나게 한다면 이는 만물을 자기 안에 거두어 싣는 두터운 덕이 되고 하늘의 한량없는 이치에 합하는 지극함이 된다.
- ④ 땅의 역할이 이처럼 하늘의 덕을 받들어 만물을 낳아 생겨나게 한다면 그것은 땅이 하늘의 빛나고 큰 덕을 안에 품고 만물을 형통하게 하는 지극한 덕이라는 뜻이다.

빈 마 지 류 행 지 무 강
 牝馬之類, 行地无疆,

진실로 공손하고 사양하시며 빛을 온 세상에 퍼시니 하늘과 땅에 이르렀다는 구절이 있다.

73) 주례(周禮)의 편명이다.

암말은 땅의 부류이니, 땅을 걸어감이 끝이 없으며

후과(侯果)의 풀이

땅이 만물을 머금어 품는 바는 하늘에 유순하여 그 기운에 힘입기 때문이다. 말이 땅 위를 질주함에 끝이 없다는 것은 유순하여 사람에게 복종하는 이치와 통한다. 또 암말은 유순하기가 매우 지극하다. 이처럼 유순한 도리는 신하와 자식된 도리의 마땅함과 통한다. 역을 지은 자는 신하와 자식된 도리처럼 그 아비와 나라의 군주를 유순하게 섬겨야 함을 강조하고자 했음이니 여기에서 특히 그 표상을 취해 설명하고 있다.

안(案)

구가역(九家易)에 곤(坤☷)은 암컷 빈(牝)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빈마(牝馬)가 땅의 류가 된다는 뜻이다.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 땅의 쓰임에서 보면 말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왕씨는 주석하기를 곤(坤☷)은 말이 땅 위를 가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곤(坤☷)은 초효가 움직이면 진(震☳)이 된다. 진(震☳)은 말로 보면 발이 흰 것(주족鼻足), 발을 짓는 것(작족作足)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움직임이 된다. 또 진(震☳)은 큰 길이 되므로 땅을 가는 행지(行地)다. 말은 건(乾☰)의 덕을 내려 받되, 암컷은 곤(坤☷)의 류이므로 이는 군세면서 또 유순한 암말이다. 반면 덕으로 보면 유순하면서 군세므로 말하기를 땅을 걸어감이 끝이 없는 행지무강(行地無疆)이다.

유 순 이 정 군 자 유 행
柔 順 利 貞. 君 子 攸 行,

유순하고 곧아서 이로움이 군자의 행하는 바다.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중지곤(重地坤☷)에 있어서는 효가 본래 유순한 음(陰)의 자리가 바르다. 그러므로 양(陽)의 자리는 중천건(重天乾☰)으로 가고, 중지곤(重地坤☷) 양의 자리에 중천건(重天乾☰)의 양 효들이 와야 자리가 바르게 되므로 이에 근거할 때 군자의 행하는 바가 된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우면 계사하전 주석에 중천건(重天乾☰) 여섯 겹은 이효(二爻)와 사효(四

爻)와 상효(上爻)의 자리가 바르지 않다. 중지곤(重地坤䷁) 여섯 효는 초효(初爻)와 삼효(三爻) 오효(五爻)가 바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에 근거하여 자리가 서로 바르고자 하면 마땅히 서로 자리에 맞게 변해 움직여야 한다. 또 군자는 양(陽)을 말한다. 중천건(重天乾䷀)이 중지곤(重地坤䷁)으로 와서 자기 자리를 잡아 초효(初爻)가 바르게 되면 이는 진(震䷲)이니 움직임이 된다. 그러므로 군자의 행하는 바인 본문 구절의 군자유행(君子攸行)이 된다는 의미다.

선 미 실 도 후 순 득 상
先迷失道, 後順得常.

앞서면 혼미하여 도를 잃고 뒤에 하면 유순하여 몇몇함을 얻으리니 하타(何妥)의 풀이
음(陰)의 도는 악(惡)이 먼저가 된다. 그러므로 먼저 앞서면 혼미하여 도(道)를 잃게 된다. 뒤에 하여 주장함에 유순하면 몇몇한 경사를 보존하게 된다.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우변이 주석한 도의(道義)의 문(門)에서 건(乾䷀)은 도(道)의 문이 된다고 하였다. 양(陽)은 앞이 되고, 음(陰)은 뒤가 되므로 음(陰)은 악(惡)이 먼저가 되니, 앞선다면 미혹하여 건(乾䷀)의 도(道)를 잃게 된다. 구가설괘(九家說卦)에서 곤(坤䷁)은 치마 상(裳)이 된다고 하였고 다시 설문에서는 상(裳)은 상(常)으로도 쓴다고 하였다. 뒤에 하여 주장하는 바를 얻으면 유순한 중지곤의 몇몇함을 얻게 된다. 나아가 유순하여 보존하게 되는 몇몇한 경사스러움이란 아래에서 마침내 경사가 있게 된다는 그 뜻이다.

서 남 득 봉 내 여 류 행
西南得朋, 乃與類行,

서남은 벗을 얻는다고 함은 같은 부류와 함께 행함이요,
우변(虞翻)의 풀이

양(陽)이 그 류(類)를 얻는다는 뜻이다. 달이 삭망에서 보름에 이르면서 진(震䷲)에서 건(乾䷀)으로 나타난다. 이는 때와 더불어 움직이는 이치가 되므로 같은 부류와 함께 행함이라고 하였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이는 납갑(納甲)⁷⁴으로 하는 말이다. 건(乾☰)은 갑(甲)과 임(壬)을 받아들이고, 곤(坤☷)은 을(乙)과 계(癸)를 받아들이니 곧 천지가 자리를 정함(천지정위天地定位)이다. 진(震☳)은 경(庚)을 받아들이고, 손(巽☴)은 신(辛)을 받아들이니 곧 우뢰와 바람이 서로 부딪힘(뇌풍상박雷風相薄)이다. 간(艮☶)은 병(丙)을 받아들이고, 태(兌☱)는 정(丁)을 받아들이니 곧 산과 못이 기운을 통하는 이치(산택통기山澤通氣)다. 감(坎☵)은 무(戊)를 받아들이고 이(離☲)는 기(己)를 받아들이니 곧 수화(水火)가 서로 싫어하지 않음(수화불상식水火不相射)이다. 감(坎☵)과 이(離☲)는 해와 달의 본체가 된다. 계사상전에 상을 매달아 밝음을 드러내는 것으로는 해와 달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우번은 그곳의 주석에서 해와 달은 하늘에 매달려 있으면서 팔괘의 상을 이룬다고 하였다. 삼일(三日) 저녁에는 진(震☳)의 상(象)이 경(庚)방에 나타난다. 팔일(八日)에는 태(兌☱)의 상(象)이 정(丁)방에 나타난다. 십오일(十五日)에는 건(乾☰)의 상(象)이 갑(甲)에서 가득 찬다. 십육일(十六日) 아침 녘에는 손(巽☴)의 상(象)이 신(辛)으로 물러난다. 이십삼(二十三) 일(日)에는 간(艮☶)의 상(象)이 병(丙)으로 줄어든다. 삼십일(三十日)에는 곤(坤☷)의 상(象)이 을(乙)에서 자리를 감춘다. 그믐날 저녁과 초하루 아침(회석삭단晦夕朔旦)에는 감(坎☵)의 상(象)이 무(戊)로 흐른다. 해가 중천이면 이(離☲)고 이(離☲)의 상(象)은 기(己)로 나아간다. 이처럼 하나의 양(陽)이 진(震☳)이 되어 밝음을 보여주고, 두 양이 태(兌☱)로 나타나 상현(上弦)이 되며 삼양(三陽)은 건(乾☰)으로 가득차 보름달이 됨을 양(陽)이 그 류(類)를 얻었음을 말하니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모두 때와 더불어 움직이는 현상이다. 또 삼양(三陽)은 점점 자라남을 말미암아 불어나게 되니 본문에서 말하는 득봉(得朋)이다. 또 처음 진(震☳)으로 나옴에 진(震☳)은 행함이 된다. 그러므로 이를 두고 같은 부류와 더불어 움직인다고 하였다.

동북상봉 내종유경
東北喪朋，乃終有慶.

74) 명이 각주 16 맹희의 납갑설(23쪽) 및 17 납갑설 난(25쪽)을 참고하자.

동북은 벼를 잃는다는 것은 마침내 경사가 있는 것이다.

우번(虞翻)의 풀이

양(陽)이 다하면 곤(坤☷)이 된다. 곤(坤☷)이 다하면 다시 지뢰복(地雷復☱☷)으로 자라난다. 달이 삼일(三日)이면 진(震☳)의 상(象)이 경(庚)에서 나옴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에 마침내 경사가 있다. 이는 역(易)의 도(道)가 음양(陰陽) 소식(消息)의 형태임을 가리키는 말이다. 양(陽)은 달이 삼일(三日)이면 변해 진(震☳)을 이루며 경(庚)에서 나타나고 달이 팔일(八日)에 이르면 태(兌☱)를 이루면서 정(丁)에서 나타난다. 방위로는 경(庚)이 서방(西方) 정(丁)이 남방(南方)이다. 그러므로 서남(西南)에서는 벼를 얻는다. 두개의 양(陽)은 벼가 되므로 태(兌☱)는 군자가 벼와 더불어 배우고 익힘을 본보기로 삼는다고 하였다. 문언에서 ‘경(敬)과 의(義)가 확립됨에 덕이 외롭지 않다(敬義立而德不孤)’고 했으며, 단전에서도 이에 부류와 더불어 행한다고 하였다. 이십구일(二十九日)이면 을(乙)에서 소멸되어 곤(坤☷)으로 돌아가고 계(癸)에서 감춘다고 했으니, 을(乙)은 동방(東方) 계(癸)는 북방(北方)이다. 그러므로 동북(東北)에서는 벼를 잃는다고 하였다. 이를 괘상으로 말하면 곤(坤☷)이 되면서 건(乾☰)이 소멸되니 곤(坤☷)은 잃는다는 상(喪)이 되기 때문이다. 마군(馬君)은 맹추(孟秋)의 달에는 음기(陰氣)가 비로소 나타난다고 했으니, 곤(坤☷)의 자리다. 같은 부류는 서로 얻는 까닭에 서남(西南)은 벼를 얻는다. 맹춘(孟春)의 달에는 양기(陽氣)가 처음 나타난다. 음(陰)이 시작되며 양(陽)을 따름은 그 같은 부류를 잃음이 된다. 그러므로 동북(東北)은 벼를 잃는다는 동북상붕(東北喪朋)이니 상실함이 매우 심하다. 그래서 순군(荀君)은 음(陰)이 오(午)에서 일어나 신(申) 삼음(三陰)이면 坤의 괘상을 얻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서남에서는 벼를 얻는다고 하였다. 양(陽)의 기운은 자(子)에서 일어나 인(寅) 삼양(三陽)이면 곤(坤☷)의 괘상을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동북(東北)에서는 벼를 잃게 되니 나아감이 순(荀)의 설과 같다. 오(午)로부터 신(申)에 미침은 경로가 마땅히 남서(南西)에서 벼를 얻음을 말한다. 자(子)에서 인(寅)에 이름은 마땅히 북동(北東)에서 벼를 잃음을 말한다. 건(乾☰)으로

써 곤(坤☷)을 변화시키는 벼를 잃는 상봉(喪朋)을 말하니 법도가 건(乾☰)으로서 사특함을 없앰이 된다. 이것이 어찌 마(馬)와 다르겠는가.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양(陽)이 사라져 곤(坤☷)으로 소멸됨은 곧 십육일(十六日)에 하나의 음(陰)이 자라나면서 손(巽☴)으로 물러나 곤(坤☷)에 이르면서 양이 다해 소멸함이다. 곤(坤☷)이 다하면 다시 地雷復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음이 다하면 양이 생겨남이니 마치면 다시 시작함이 있다는 뜻이다. 곤(坤☷)에서 양(陽)이 모두 소멸하면 삼일(三日)에 진(震☳)으로 다시 회복한다. 그러므로 이에 마치면 경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 이는 곧 남은 경사인 여경(餘慶)이다. 이는 음양(陰陽) 소식(消息) 형태인 역(易)의 도(道)라는 뜻은 대개 맹희 초연수 경방이 십이월(十二月)벽괘(辟卦)의 설로써 일 년 한 해의 음양(陰陽) 소장(消長)하는 이치를 밝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순음(純陰) 순양(純陽)의 여섯 괘(卦)로써 한 달마다 변하는 음양(陰陽) 소장(消長)의 이치를 적용한 요지다. 소식(消息)괘에서 감(坎☵)과 이(離☲)를 말하지 않은 것은 감(坎☵)·이(離☲)는 천지(天地)에 합함이 되기 때문이다. 납갑(納甲)으로 말할 때도 감(坎☵)·이(離☲)를 말하지 않음은 감(坎☵)·이(離☲)가 일월로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계사전에서 상을 매달아 밝음을 드러냄은 해와 달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때 달은 해의 빛을 받게 되니 음양 소식에서 가장 드러나는 자다. 그러므로 이를 후(侯)로 삼게 되는 것이다. 포희씨가 상(象)을 보아 팔괘(八卦)를 펼쳐보였다고 뜻이 여기에 있다. 문언(文言)에서 경(敬)과 의(義)가 확립됨에 덕이 외롭지 않다고 함을 두고 우번은 주석하기를 양(陽)은 태(兌☱) 정(丁)인 서남(西南)에서 벼를 얻고 이에 부류와 더불어 행함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단사에 근거하여 외롭지 않음을 해석했으므로 다시 저곳을 끌어와서 이를 증명하였다. 계사전의 주석에서는 30일이라고 하고, 이곳의 주석에서는 29이라고 했으니 이는 달이 29일에 이르러 을방(乙方)에서 곤(坤☷)으로 사라지고, 계방(癸方)에서 없어져 감추어짐이 그믐과 초하루에 천지(天地)가 만나 합함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을(乙)은 동방(東方)이고, 계(癸)는 북방

(北方)이니 동(東)을 말미암아 북(北)으로 감은 그 뜻이 동북(東北)에서 벗을 잃는 동북상붕(東北喪朋)이 된다. 다시 건(乾☰) 갑(甲)은 삼양(三陽)이며, 점차 곤(坤☷)으로 소멸되므로 곤(坤☷)으로써 건(乾☰)을 멸한다고 하였다. 즉 달이 곤(坤☷)으로 없어지므로 곤(坤☷)은 잃는다는 상(喪)함이 된다. 마군은 마융(馬融)을 말하니, 馬는 신(申)으로써 서남(西南)을 삼고, 인(寅)은 동북(東北)이 된다고 하였다. 또 봄과 여름은 양(陽)이 되고, 가을과 겨울은 음(陰)이 된다고 하였다. 또 곤(坤☷)은 음(陰)이 된다. 그러므로 칠월(七月) 음(陰)이 가을에 처음 나타남은 서남득붕(西南得朋)이 된다. 정월(正月)은 양(陽)이 처음 봄에 나타남이니 동북상붕(東北喪朋)이 된다. 그러나 신(申)은 천지비(天地否☷)의 때이니 얻었다고 해서는 안 되고, 인(寅)은 지천태(地天泰☳)의 때이니 잃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까닭에 그 논리를 취하지 않았다.

순군(荀君)은 순상(荀爽)을 말하니 순(荀)은 음(陰)으로써 오월(午月)에 천풍구(天風姤☱)로 일어나고 천산돈(天山遯☶)을 거쳐 천지비(天地否☷)에서 삼음(三陰)을 이룬다. 그러므로 모두 삼음(三陰)이 되는 곤(坤☷)을 얻게 됨이 득붕(得朋)이 된다. 양(陽)은 자월(子月)에 지뢰복(地雷復☱)으로 일어나서 지택림(地澤臨☵)을 거쳐 지천태(地天泰☳)에 이르니 이때 효(爻)는 모두 삼양(三陽)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상붕(喪朋)이라고 하였다. 우번의 뜻은 오(午)로부터 신(申)에 이름이니 서남(西南)을 거슬러 말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며 자(子)로부터 인(寅)에 이름이니 동북(東北)도 거슬러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건(乾☰)이 불어나면서 곤(坤☷)을 녹임은 벗을 잃는다고 하는 시각도 더욱 경(經)의 뜻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두 설을 모두 취하지 않았다.

안정지길
安貞之吉,

안정하여 길함이

우번(虞翻)의 풀이

곤(坤☷)의 도는 지극히 고요하므로 편안하다. 지뢰복(地雷復☱) 초효(初爻)는 자리가 바르므로 곧아서 바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문언(文言)에 지정이덕방(至靜而德方)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논리가 오직 고요하므로 편안하다. 초효(初爻)가 변해 양(陽)이 되면 지뢰복(地雷復 ䷗)이다. 지뢰복(地雷復 ䷗)은 바름을 얻었으므로 곧아서 바르다.

응지무강
應地無疆,

땅의 한량없음에 응하느니라.

우번(虞翻)의 풀이

진(震 ䷲)은 응(應)함이 된다. 양(陽)이 초효(初爻)에서 바름을 얻어 중지곤(重地坤 ䷁) 음(陰)을 이어서 땅의 도에 호응한다. 그러므로 땅의 한량없음에 호응함이 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진(震 ䷲)과 더불어 손(巽 ䷸)은 동성상응(同聲相應)이다. 그러므로 호응(呼應)이 된다. 진(震 ䷲)의 양(陽)은 지뢰복(地雷復 ䷗) 초효(初爻)에서 바르다. 위로 중지곤(重地坤 ䷁) 음(陰)을 계승하니 이는 양(陽) 초효(初爻)가 땅과 사귀어 땅의 도에 호응하는 형상이다. 그러므로 땅의 한량없음에 응함이 된다고 하였다. 벼를 잃음이 길하다고 하였으니 이는 이처럼 호응하는 까닭 때문이다.

○ 덧붙이는 말

① 빈마(牝馬) 지류(地類)는 땅의 덕이 하늘을 받들어 순종함에 빚댄 표현이다.

② 암말이 건장하여 잘 달리고 유순하여 정조가 곧듯 하늘의 덕에 화답하여 굳세고 유순하며 만물을 낳아 곧게 하는 이로움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땅의 덕은 곧 군자가 뜻을 두어야 할 바다.

③ 서남득봉과 동북상봉에 대해서는 앞의 설명에 자세하다. 득봉과 상봉에 대한 설명은 곧을 정(貞)에 대한 풀이다.

④ 땅의 덕에는 3무강(無疆)이 있다.

첫째는 덕합무강(德合無疆)이다.

땅의 만물을 싣는 두터운 덕이 하늘의 한량없는 덕에 짝하여 합하는 무강(無疆)이다.

둘째는 행지무강(行地無疆)이다.

하늘의 덕을 받들어 행하는 땅의 덕이 마치 암말처럼 유순하면서도 굳세어 끝이 없음을 뜻한다.

셋째는 응지무강(應地無疆)이다.

이는 사람이 본받는 바의 치우침이 없어 두루한 無疆의 덕이다.

양을 따르면 땅의 덕이 곧고 편안하다. 이처럼 편안하여 곧은 덕이 한량없는 땅의 덕으로 호응하는 이치로 하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양을 따르면 공을 이루는 까닭에 양의 방위인 동북으로 가면 음이 벗을 잃지만 길함과 경사가 있다고 하였다.

상 활 지 세 곤
象曰, 地勢坤,

象에 말하였다. 땅의 형세가 坤이니

왕필(王弼)의 풀이

지형은 유순하지 않다. 이는 유순하지 않음이다. 그 기세는 하늘을 받들어 섬긴다.

송충(宋衷)의 풀이

땅에는 상하 9등급의 차별이 있다. 그러므로 형세로서 그 성질을 언급하였다.

왕필(王弼) 풀이의 해설

공(孔)의 주석에 지형은 방정하고 곧으니 이는 유순하지 않다. 다만 그 기세는 하늘을 받들어 섬기니 이는 유순함이라고 하였다.

우안(愚案)

습坎(習坎 ䷜) 단사(彖辭)에 산천구릉은 땅의 험함이라고 했으니, 오히려 유순하지 않다. 그러나 서북(西北)을 말미암아 동남(東南)으로 나아감에 그 기세는 유순하다.

송충(宋衷) 풀이의 해설

땅에는 상하 九등급의 차별이 있다고 함은 한서(漢書) 서찬(敘贊)의 구

절과 같다. 그곳에 보면 곤(坤☷)은 떨어져 내리는 형세이니, 높고 낮음이 구칙(九則)이라고 하였다. 유덕은 주석에서 그 말이 구주(九州) 토전(土田)을 뜻하니 상중하(上中下)의 9등급으로 나타낸다고 하였다. 자세한 말 뜻은 우공(禹貢)에 갖추어져 있다. 어떤 사물의 성질은 겉으로 알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체로서 그 성질을 말한 바다.

군 자 이 후 덕 재 물
君子以厚德載物.

군자가 보고서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실어준다.

우번(虞翻)의 풀이

기세를 뜻하는 세(勢)는 힘(力)이다. 군자는 건(乾☰)을 말한다. 양(陽)은 덕이 되고, 움직임은 중지곤(重地坤☷)의 아래에 있다. 군자의 덕은 수레다. 그러므로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는다. 노자가 말하기를 사람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다고 하였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귀곡자(鬼谷子)가 말했다.

양(陽)으로서 음(陰)을 구함은 덕으로서 감싸는 것이며, 음(陰)으로써 양(陽)과 맺어짐은 힘으로써 베푸는 것이라고 하였다. 기세(氣勢)는 힘을 뜻한다. 땅을 말함에 세력으로써 나타냄은 중천건(重天乾☰)의 기운을 엉기게 하기 때문이다. 중지곤(重地坤☷)은 중천건(重天乾☰)과 더불어 방통(旁通)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건(乾☰)을 말한다. 건(乾☰) 양(陽)은 선을 쌓으므로 덕이 된다. 초효(初爻)가 변하면 우뢰인 진(震☳)이다. 그러므로 움직임은 땅의 아래에 있다고 하였다.

예운(禮運)에 천자는 덕(德)으로써 수레를 삼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군자의 덕은 수레다. 설괘전에 곤(坤☷)은 큰 수레가 된다고 하였다. 땅이 능히 만물을 감당해 양육하는 이치를 취하였다. 군자의 덕을 말하지 않은 것은 곤(坤☷)의 두터움을 본받음이니 군자의 덕이 수레라면 중지곤(重地坤☷)의 두터움으로서 만물을 싣는 이치를 법 받음이다.

중용(中庸)에 넓고 두터움은 만물을 싣는 바라고 했으니, 곧 그 뜻이다. 사람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다고 함은 노자 도덕경의 문구다. 이 구절을

인용하여 빼어난 사람의 힘에 땅을 견주어 말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기세는 뜻이 힘 역(力)이라고 하였다.

○ 덧붙이는 말

① 땅의 형세가 곤(坤☷)이니 군자가 그것을 본받는다는 구절의 뜻 즉 땅이 만물을 받아들여 실어 양육하듯 군자는 후덕함으로 대중을 용납해 기르는 데 있음을 강조하는 말이다.

효사에 들어가기 전

역(易)이란 상(象)이다. 상(象)이란 상(象)을 본떴다는 뜻이다. 따라서 물상을 가지고 인간사를 밝히는 이치가 마치 시의 비유와 같다. 앞의 건괘에서 보았듯 초구(初九)는 숨어 있는 용(龍), 구이(九二)는 나타난 용, 등의 개념이 여기에 속하고 아래의 곤(坤☷)에서는 서리를 밟으면 두꺼운 얼음이 얼 일을 생각한다는 효사가 이에 속한다.

초 육 리 상 견 병 지
初六, 履霜, 堅氷⁷⁵至.

초육(初六)은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

75) 중지곤(重地坤) 초육도(初六圖)

위 그림 오른쪽을 참고하면 된다. 곤(坤) 초육(初六)은 얼어서 차가운 기운의 건(乾)에 있다. 어째서 그럴까? 곤(坤)은 건(乾)과 사귀어 음(陰)에게 갇힌 감(坎)이다. 얼음이 얼기 전 이슬은 곤(坤) 토(土)의 기운이다. 9월에 이르면 곤(坤)이 건(乾)과 사귀어 백로(白露)에 흰서리가 내린다. 그러므로 상강(霜降)은 9월의 절후(節候)가 된다. 얼음은 차가운 물이다. 건(乾)이 감(坎)으로 사귀 결과다. 건(乾)의 자리는 해(亥)에 있다. 감(坎)의 자리는 자(子)에 있다. 대설(大雪)은 11월의 절기다. 현(玄)에서 말하기를, 음기(陰氣)는 바야흐로 물이 엉기면서 얼음이 되게 한다. 이슬은 아직 얼음처럼 엉기지는 않았다.

그런데 효에서는 왜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이른다고 했는가?

하나의 음이 생기면 아래서부터 엉기게 된다. 이는 사물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물 가운데 샘은 이미 차갑다. 쌀여서 그치지 않으면 중지곤(重地坤)의 상육(上六)에 이르면 맺히는 이슬이 서리가 된다. 그래서 물이 차가워지면 얼음이 된다.

이로써 군자는 그 밟는바 미세한 음(陰)을 보고 서리가 이내 얼음으로 변하게 됨을 알아야 한다.

건(乾)은 금(金)이다. 그러므로 서리는 만물을 죽어가게 하고 굳센 얼음만 남아 맹위를 떨친다.

간보(干寶)의 풀이

거듭 음(陰)이 겹쳐지고 있으니 호칭이 육(六)이다. 강유(剛柔)가 서로 밀치며 변화가 생긴다. 변화를 점치게 함이 효(爻)다. 계사(繫辭)전에 호란 변화(變化)를 말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역(易) 효(爻)의 명칭은 모두 구(九)와 육(六)이다. 이처럼 수로 보면 양(陽)은 기수(奇數)고, 음(陰)은 우수(偶數)다. 이런 까닭에 건(乾☰)은 一, 곤(坤☷)은 二가 된다. 음기(陰氣)가 초(初)에 있다면 오월(五月)의 때로 천풍구(天風姤䷫)로부터 시작한다. 음기(陰氣)가 처음 삼천(三泉)의 아래에서 움직였다면 반드시 서리를 밟게 될 때를 거쳐 다시 단단한 얼음이 얼게 될 때를 맞게 된다. 즉 점차 음기가 성해짐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는 군자가 기물을 몸에 감추고 나아가 활동할 때를 기다림이 좋다. 그러므로 양(陽)이 잠겨 있는 용(龍)의 때이므로 삼가는 마음으로 행함을 두지 말아야 한다. 화(禍)를 막는 근원은 먼저 기미를 단속함에 있으므로 음(陰)이 삼천(三泉)의 아래 있을 때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는 말로써 그를 드러내고 있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건착도(乾鑿度)에 음(陰)은 팔(八)이 변해 육(六)으로 간다고 하였다. 정(鄭)은 주석에서 음(陰)은 움직여 물러나니 八이 변해 六으로 가는데 기운이 차츰 스러져 감을 본뜬 말이라고 하였다. 광운(廣韻)에 삼(三)을 짝(兩)으로 하여 육(六)이 되니 노음(老陰)의 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거듭 음(陰)이 겹친 까닭에 호칭이 육(六)이 된다고 풀이했다. 강(剛)이 움직여 변하면 유(柔)가 된다. 유(柔)가 움직여 변하면 강(剛)이다. 그러므로 강유(剛柔)가 서로 밀치면 변화가 생겨난다. 움직임에는 변화를 보아 점(占)을 음미하니 효(爻)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변화를 점치게 함이 효(爻)다. 효(爻)란 변화를 말한다는 구절은 계사상전의 문구다. 우번(虞翻)은 그곳의 주석에서 九와 六의 변화를 말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효사의 명칭이 모두 九와 六이다. 건(乾☰)은 一로서 시작하여 칠(七)로 이루고 구(九)에서 가득 차는데 이는 모두 기수(奇數)다. 곤(坤☷)은 이(二)에서 시작하여 팔(八)에서 이루며, 육(六)으로 가득 차는데 이는 모두 우수(偶數)다. 음(陰)

이 양(陽)을 소멸케 함은 오월(五月) 천풍구(天風姤䷫) 초효(初爻)에서 시작하고 시월(十月) 산지박(山地剝䷖)에서 다한 뒤 마침내 중지곤(重地坤䷁)을 이룬다. 그러므로 중지곤(重地坤䷁) 초효(初爻)는 천풍구(天風姤䷫)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다. 석수에 람천(濫泉), 궤천(洿泉), 옥천(沃泉)으로 구분하였으니 이것이 삼천(三泉)이다. 또 중천건(重天乾䷀) 주석에 삼천(三泉)이 처음 움직임은 진(震䷲) 족(足)이 되므로 밟을 리(履)가 된다고 하였다. 또 天澤履 일음(一陰)의 괘는 천풍구(天風姤䷫)로부터 오는데 천풍구(天風姤䷫) 초효(初爻)는 곧 중지곤(重地坤䷁) 초효(初爻)다. 그러므로 밟는다는 리(履)다. 구월(九月)괘는 산지박(山地剝䷖)이니 월령(月令)에서 그에 해당하는 계추(季秋)의 달에 서리가 처음 내린다고 하였다. 시월(十月)은 중지곤(重地坤䷁)인 바 맹동(孟冬)의 달에는 물이 처음 얼게 된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삼천(三泉)의 아래에서 음기(陰氣)가 처음 움직이고 나서 점차 그 변화는 서리가 내리는 산지박(山地剝䷖)을 거쳐 얼음이 어는 중지곤(重地坤䷁)까지 이어진다. 이로써 보면 미세한 조짐을 미리 보아 점차 자라남을 방지해야 하므로 불가불 초효(初爻)에서 삼가지 않을 수 없다. 끝에서 다시 중천건(重天乾䷀)의 초효(初爻)를 끌어와서 밝힌 것은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는 때를 기다림이 바람직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기물을 몸에 감추고 때를 기다림이 귀하다고 한 것이다. 화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면 미리 방지함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화를 막는 근원은 그 기미에 앞서 단속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때가 아니면 기다리면서 지극한 허물로 인해 후회가 생겨나지 않게 할 줄 안다면 이는 잠겨 있는 용(龍)이 되어 경계하면서 나서지 않는 효사 그대로가 된다. 이처럼 미리 단속하여 도가 궁색한 싸움에 이르지 않는 까닭에 음(陰)이 아직 삼천(三泉)에 있으면서 미리 서리를 밟는 것으로서 경계하는 말을 두게 되었다.

○ 덧붙이는 말

- ① 고행은 서리를 밟는다는 이상(履霜)이 가을을 뜻하고 견빙지(堅冰至)는 겨울이라고 보았다. 즉 서리를 밟는 가을이 되었다면 이내 굳은 얼음이 어는 겨울이 이를 것은 필연이다. 이에 일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보면 하늘의 이치를 순종하여 밟아 나가느냐 아니면 거슬러 밟아 나가느냐의 선택은 바로 초육(初六)에서부터 시작된다.

선하지 못한 일이라면 아직 일이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

선한 일이면 적극적으로 그 선의 싹을 북돋워 키워나가야 한다.

이는 다음의 상전에서 말하는 그 도를 길들여 굳은 얼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다.

상왕 리상견빙 음시용야 순치기도 지견빙야
象曰, “履霜堅氷”, 陰始凝也, 馴致其道, 至堅氷也.

상전에 말하였다.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룬다는 것은 음(陰)이 처음 맺혀 엉기는 것이니, 그 도가 점차 나아가 단단한 얼음에 이룬 것이다.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서리는 중천건(重天乾䷀)의 명(命)이다. 굳은 얼음은 음(陰)의 공(功)이 이루어진 상태다. 말하자면 重地坤 初六이 중천건(重天乾䷀) 사효(四爻)로 가 중천건(重天乾䷀) 명령을 받고 굳은 얼음으로 변함을 이룬다. 이때는 중천건(重天乾䷀)에 근본한다. 음(陰)이 처음 양(陽)을 녹임은 이 효(爻)로부터 일어나는 까닭에 서리를 밟음이 된다. 본문의 순(馴)은 순(順)과 같다. 양(陽)이 음(陰)의 성질에 순응함이니 굳은 얼음에 이름을 뜻한다. 초육(初六)은 천풍구(天風姤䷫)의 초효(初爻)이니 천풍구(天風姤䷫)는 오월(五月) 성하(盛夏)盛夏가 됨에도 굳은 얼음으로 이를 나타냈음은 오월(五月) 음기(陰氣)가 처음 땅 가운데서 생겨나지만 점차 음기가 성해지면서 굳은 얼음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이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오경통의(五經通義)에 차가운 기운이 엉겨서 서리가 되니 땅으로부터 올라온다고 하였다. 또 설괘(說卦)에 건(乾䷀)은 차가움(寒)이 된다고 하였다. 대개 건(乾䷀)은 방위가 서북(西北)이면서 입동(立冬) 이후로부터 동지(冬至) 이전의 절기를 주관하기 때문에 차갑다는 한(寒)이 된다. 차가운 기운이 엉기면 이것은 서리가 되고 중천건(重天乾䷀)의 기운에 중지곤(重地坤䷁)이 더해지므로 서리는 건(乾䷀)의 命이라고 하였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

얼음이란 지극한 음(陰)의 막다른 기운이 모인 바라고 하였다. 새지 않으면 맺혀 엮드리는 음(陰)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굳은 얼음이란 음(陰)의 공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이다.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은 방통(旁通)괘다. 초효(初爻)와 더불어 사효(四爻)가 호응한다. 그러므로 중지곤 초효는 중천건 사효로 간다. 기운이 차가워 서리로 엉기면 중천건의 명령이 된다. 중천건은 얼음이 되고 순응하여 굳은 얼음에 이르면 음의 공이 비로소 이루어진 게 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중천건 명령을 받고 굳은 얼음으로 변함을 이룬다고 하였다. 純陰卦인 중지곤(重地坤䷁)은 중천건(重天乾䷀)이 음으로 변하면서 생겨나므로 이괘는 중천건(重天乾䷀)에 근본을 둔다고 하였다. 음(陰)이 양(陽)을 녹임은 마침내 양(陽)이 음(陰)에게 순응하면서 순음(純陰)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陽)이 음(陰)의 성질에 순응하여 굳은 얼음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풀이한다. 일음오양(一陰五陽)의 괘에서 초효(初爻)가 음(陰)이면 이는 천풍구(天風姤䷫)다. 천풍구(天風姤䷫)는 시기상 오월(五月) 성하(盛夏)의 때이지만 굳은 얼음을 말하는 까닭은 대개 오월(五月)에 생겨난 하나의 음(陰)이 결국 지극하게 성한 구월(九月)의 음기(陰氣)로 변해 서리도 되고 얼음도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음(陰)이 지극히 성한 시월(十月)의 기운은 점차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 초효(初爻)의 움직임은 알기가 매우 어렵다. 오직 성인이야 이와 같은 미세함을 보고서도 알 수가 있으므로 아직 성하지 않은데서 그 象을 취해 경계하는 말을 보여줌이 이와 같다.

○ 덧붙이는 말

① 천지의 이치에 맞게 자신을 길들임이 이 구절의 근본 핵심이다.

육 이 직 방 대
六二, 直方大,

육이는 곧고 방정하고 위대하다.

순상(荀爽)의 풀이

대(大)는 양(陽)이다. 이효(二爻)가 오효(五爻)에 호응하되, 오효의 아래에서 움직인다. 이는 양(陽)에 호응하여 나감이 곧고, 양(陽)을 사방에 펼친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지천태(地天泰䷊)에서 대(大)가 온다고 했으니, 양(陽)이 안에 있음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마찬가지로 천지비(天地否䷋)에서도 대(大)가 간다고 했으니 양이 밖에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대(大)는 양을 두고 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구가역(九家易) 설괘(說卦)에 건(乾䷀)은 곧음이 된다고 하였다. 계사상전에 무릇 건(乾䷀)은 그 움직임이 곧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건(乾䷀)은 곧음이 된다.

문언(文言)에서도 곤(坤䷁)은 지극이 고요하되 덕은 방정(方正)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곤(坤䷁)은 방정함이 된다. 중지곤(重地坤䷁)은 중천건(重天乾䷀)과 더불어 방통이다. 중지곤(重地坤䷁) 이효(二爻)는 위로 중천건(重天乾䷀)의 오효에 호응한다. 오효(五爻)가 건(乾䷀)에서 움직이므로 아래로 중지곤(重地坤䷁) 이효(二爻)와 호응한다. 중지곤(重地坤䷁) 이효(二爻)는 곧 양(陽)에 호응하여 움직임이니 중천건(重天乾䷀) 오효(五爻)로 가는 것이고 양(陽)에 호응하므로 나감이 곧다. 움직임이 곧으므로 양(陽)의 기운을 사방에 펼친다. 양(陽)의 움직임은 이효(二爻)에 이르면 지택림(地澤臨䷒)이 된다. 서괘전(序卦傳)에 임한다는 임(臨)은 대(大)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효사가 곧 대(大)다.

불 습 무 불 리
不習无不利.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

순상(荀爽)의 풀이

만물은 부르면 이에 화답한다. 먼저 익혀야 되는 일이 아니다. 양이 부르는 바에 따라서 화답하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간보(干寶)의 풀이

음(陰)의 기운은 바른 자리가 이효(二爻)다. 유월(六月)의 때니 천산돈(天山遯䷠)에서 온다. 음(陰)이 지상에 나와 양(陽)을 도와 만물을 이루니 이는 신하의 도(道)이고, 아내의 도리다. 신하가 임금을 섬기고 아내가 지아버리를 따르듯이 마땅함이 이루어지는 이치다. 신하는 곧음을 귀하게 여기고

의리는 방정함을 숭상한다. 땅의 본체는 크다. 그러므로 곧고 방정하며 크다고 하였다. 선비가 구덕(九德)을 갖춘 연후에 왕사에 종사할 수 있다. 여자는 몸에 네 가지 가르침을 지닌 연후에 군자에 짝할 수가 있다. 도는 나에게서 이루어지나 쓰임은 세상의 일이니 배워서 정치에 베풀고, 여자가 지어미 노릇을 하는 것이 반드시 익혀서 되는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음(陰)은 양(陽)을 따르는 것이다. 양(陽)이 앞서 부르면 음(陰)은 뒤에서 화답한다. 그러므로 만물이 부르면 이에 화답하니 이는 먼저 익힌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양(陽)이 움직이면 음(陰)은 따른다. 그 까닭에 이롭지 않음이 없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음(陰)이 녹이며 이효(二爻)에 이르면 유월(六月) 천산돈(天山遯䷠)이다. 그러므로 중지곤(重地坤䷁) 二爻가 천산돈(天山遯䷠)으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다. 초효(初爻)와 이효(二爻)는 땅의 도가 된다. 그 가운데 이효(二爻)는 땅 위가 된다. 그러므로 음(陰)이 땅 위로 나왔다고 하였다. 만물이 모두 하늘에서 시작해 땅에서 이루어지므로 양(陽)을 도와 공(功)을 이룸이 된다. 땅의 도(道)는 곧 신하의 도(道)이고 아내의 도(道)다. 신하가 임금을 섬기고 지어미가 지아비를 따름이 모두 사람을 이루게 하는 마땅한 주장이다.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 곧은 도리로써 하면 사특한 데로 들어가지 않는다. 처자가 지아비를 따름에 방정하게 하면 음탕함을 밟게 되지 않는다. 또한 땅은 널리 이룸으로써 하늘의 크게 낳는 덕을 완성시킨다. 그래서 덕이 끝없음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곧고 방정하고 크다. 구덕(九德)은 고요모(皐陶謨)에 너그러우면서도 위의를 있고, 부드러우면서도 꺾끗하며, 성실하면서도 공손하며, 다스리면서도 공경하고, 온순하면서도 굳세며, 곧 으면서도 온화하고 간략하면서도 세심하고, 강직하면서도 융통성이 있고, 날렵하면서도 마땅해야 한다고 했으니 바로 이 뜻이다. 구덕(九德)이란 신하된 도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선비가 구덕을 갖추고 난 연후에 왕사에

중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네 가지 가르침은 곧 천관(天官)의 인용문이니 부덕(婦德)·부언(婦言)·부용(婦容)·부공(婦功)을 일컫는다. 이와 같은 네 가지 가르침은 아내된 도리의 떳떳함이니 여자가 몸에 네 가지 가르침을 몸에 지닌 연후에야 군자를 짝으로 맞이할 수 있다. 오직 도(道)는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불습(不習)이다. 또 그 결실은 세상을 반드시 이롭게 하므로 이롭지 않음이 없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밖으로 정치에 몸담는 일이 반드시 부녀자가 되고 정치가가 되는 일을 반드시 배워야만 행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다.

우안(愚案)

계사(繫辭)하전에 말하기를, 곤(坤☷)에는 천하에 지극히 유순한 덕이 있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덕행은 항구하고 간략하여 험해 막힘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육이는 중을 얻고 바름을 얻어 양에 응해 움직임에 곧고 방정하며 큰 덕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유순하니 유순한 까닭에 간략하며, 간략한 까닭에 익히지 않는다. 험해 막힘을 아는 까닭에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른바 그 형세를 인하여 이롭게 이끄는 바다.

○ 덧붙이는 말

① 육이는 효가 음(陰) 자리의 음효(陰爻)다. 동시에 아랫자리의 중(中)을 차지하여 덕이 중정(中正)하다. 중천건(重天乾☰)의 구오(九五)와 성격이 비슷하다.

중천건(重天乾☰)의 구오는 위 소성괘의 중(中)이면서 양(陽)이 양(陽)자리이다. 덕이 중정(中正)하다.

중지곤(重地坤☷)의 육이(六二)는 아래 땅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덕의 중정한 자리다. 효사에서 일컬듯 곧고 방정하여 크며,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는 덕스런 효상이 된다. 그러므로 곧고 방정하고 크다(직直 방方 대大)는 세 가지의 뜻으로서 육이(六二)의 효상을 풀이하였다.

② 육이(六二)의 효상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움직임에 이처럼 곧고 방정하고 크다면 굳이 익히지 않아도 절로 빛나고 아름다워 이롭지 않음이 없

다. 따라서 주자는 이 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유순하고 견고하며 올바른은 곤(坤䷁)의 곧음이요, 형체를 부여함에 일정함이 있는 것은 곤(坤䷁)의 방정함이요, 덕이 한량없는 하늘의 덕에 합하는 것은 곤(坤䷁)의 위대함이다. 육이(六二) 효는 성정이 중정(中正)하고 유순하여 이와 같은 곤(坤䷁) 도(道)의 순수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덕이 안은 곧고 밖은 방정하며 또 성대하여 굳이 배워 익히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

상 완 육 이 지 동 직 이 방 야
象曰，六二之動，直以方也，

상전에 말하였다. 육이의 움직임이 곧고 방정하니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양(陽)을 말한다. 아래서 움직임에 호응함이 곧고 사방으로 그 양기(陽氣)를 펼쳐줄을 말한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양(陽)을 말한다고 함은 중천건괘 오효 양이 곧음을 말한다. 이효가 아래서 움직이며 양의 곧음에 호응하므로 곧게 움직인다고 하였다.

불 습 무 불 리 지 도 광 야
“不習无不利”，地道光也。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땅의 도가 빛남이다.

간보(干寶)의 풀이

여자의 덕은 지아비에게서 빛나고 선비의 덕은 나라에서 빛난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여자는 몸에 네 가지 가르침을 지녀야 하므로 여자의 덕은 지아비에게서 빛난다. 선비는 구덕(九德)을 갖추었으므로 선비의 덕은 나라에서 빛난다.

우안(愚案)

중지곤(重地坤䷁)은 중천건(重天乾䷀)의 곧음을 짝으로 쫓아서 중지곤(重地坤䷁)의 방정함을 이룬다. 그러므로 육이(六二)의 움직임은 곧아서 방정하다고 하였다. 땅은 만물을 양육해 낳아 자라게 하고 거두어 갈무리한다. 그때 임하는 도리가 매우 자연스러워 억지로 조작하는 바가 없다. 양(陽)이 움직여 이효(二爻)에 이르면 만물이 따르며 빛난다. 그러므로 익히지 않아

도 이롭지 않음이 없으며, 땅의 도는 빛난다고 말하고 있다. 중천건(重天乾䷀) 오효(五爻)가 중지곤(重地坤䷁) 이효(二爻)는 천지의 중화(中和)를 얻었으므로 구오(九五)에 말하기를 하늘의 덕(德)이라고 하고 중지곤(重地坤䷁) 육이(六二)에서는 땅의 도(道)라고 하였다. 중지곤(重地坤䷁) 이효(二爻)가 중천건(重天乾䷀)으로 가면 이(離䷄)를 이루게 되니, 이(離䷄)는 해가 되고 불이 되며, 빛이 된다. 그러므로 땅의 도는 빛난다고 하였다.

육삼 함장가정
六三, 含章可貞,

육삼(六三)은 아름다움을 머금었음이 곧을 수 있으니,

우번(虞翻)의 풀이

곧다는 정(貞)은 바르다는 정(貞)이다. 음(陰)으로써 양(陽)을 포함했으니 아름다움을 머금은 함장(含章)이다. 삼효(三爻)는 어긋난 자리이나 펼쳐져 바름을 얻으므로 곧을 수 있는 가정(可貞)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곧다는 정(貞)이 바르다는 정(貞)이라고 함은 지수사(地水師䷆) 단전의 문구다. 중지곤(重地坤䷁)은 중천건(重天乾䷀)을 머금었으며 또 삼효(三爻)는 양(陽)의 자리다. 육(六)은 음효(陰爻)로서 양(陽)자리인 삼효(三爻)이므로 음(陰)으로써 양(陽)을 포함했다고 하였다. 공(孔)의 주석에 빛난다는 장(章)은 아름다움이라고 하였다. 아름다운 것은 곧 양(陽)이다. 음(陰)으로써 양(陽)을 포함했으므로 아름다움을 머금은 함장(含章)이다. 음(陰)이 삼효(三爻)에 있으니 자리는 바르지 않다. 상전(象傳)에서 때에 따라 발휘된다고 했으니 움직여 양(陽)이 되면 바름을 얻는다. 그러므로 곧을 수 있다고 하였다.

우안(愚案)

고공기(攷工記)에 적색(赤色)과 백색(白色)이 섞임을 장(章)이라고 일컫는다고 하였다. 주석에서는 곤(坤䷁)의 자리가 서남(西南)이다. 만물이 역사를 이루는 때가 된다. 그러므로 적색(赤色)과 백색(白色)이 섞임을 장(章)이라고 일컫는다. 장(章)은 곤(坤䷁)이다. 계사상전에 무릇 곤(坤䷁)은 고요함에 닫힌다고 하였다. 또 태(兌䷹) 입은 곤(坤䷁) 삼효(三爻)로부터 갔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을 머금은 함장(含章)이라고 하였다.

혹종왕사 무성유종
或從王事，无成有終.

혹 왕의 일에 종사하여 이름은 없어도 끝은 있다.

우번(虞翻)의 풀이

삼효(三爻)가 이미 발휘되었으면 지천태(地天泰䷊)를 이룬다. 건(乾䷀)은 왕(王)이 되고 곤(坤䷁)은 일이 되며 진(震䷲)은 쫓음이 된다. 그러므로 혹종왕사(或從王事)이고, 땅의 도는 이름은 없으나 끝은 있으므로 무성유종(无成有終)이다.

간보(干寶)의 풀이

음기(陰氣)가 삼효(三爻)에 있다. 칠월(七月)의 때이니 천지비(天地否䷋)로부터 왔다. 양(陽)이 내려가 사효(四爻)면 삼공(三公)의 자리다. 음(陰)이 올라가 삼효(三爻)에 있으면 삼공(三公)의 일이다. 위로 무릇 그 권세는 제후에게 있다. 곤(坤䷁)의 패상이 이미 갖추어지면 음(陰)의 세력이 무리를 이룬다. 군주는 힘이 약하고 신하는 강하다. 이는 경계해야 하니 두 나라 처럼 맞서 있다. 오직 문덕(文德)이 있는 신하라야 하니 운행에 유순함의 바른 도리를 잃지 않는다. 곤(坤䷁)은 문(文)이 되고, 곤(坤䷁)의 象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함장가정(含章可貞)이다. 이는 대개 평양(平襄) 왕(王)이 소매를 드리운 채 진(晉) 정(鄭)의 도움을 힘입음과 같다. 진실로 사직을 이름게 함이 오로지 하면 가하다. 그러므로 혹종왕사(或從王事)다. 도움을 옮기고 아버이를 죽이고 명에 힘을 다해 따름을 의심하는 까닭에 또한 의심하는 혹(或)이다. 뒤에 하는 유순함의 절도를 잃는다면 이루게 함은 없다. 제나라에서 마침내 백성을 편안하게 하므로 마침이 있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초효(初爻)와 이효(二爻)가 이미 움직여 변했고 삼효(三爻)가 펼쳐지면 지천태(地天泰䷊)를 이룬다. 설괘에 건(乾䷀)은 군(君)이 된다고 했고 또 라고 했으므로 건(乾䷀)은 왕이 된다. 곤(坤䷁)은 역사를 이루므로 일이 된다. 순자(荀子)에 신하의 도리는 일을 아는 것임을 말했고 곤(坤䷁)은 신하의 도이므로 곤(坤䷁)은 일이 된다. 설괘(說卦)에 진(震䷲)은 말이 흰 말의 말 주

족(鼻足)이 된다고 했고 석수(釋獸)에서 왼쪽이 흰 말의 발이라고 하였다. 설문에 주(鼻)는 말의 뒤 왼쪽 발이 희다고 하였다. 우변은 설괘의 주석에서 진(震☳)은 왼쪽이 되고 발이 된다고 하였으며 당운(唐韻)에서는 왼쪽 발의 걸음은 척(𢓗)이 되고 종(從)은 척(𢓗)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진(震☳)은 쫓음이 된다. 지천태(地天泰☶☳) 안은 건(乾☰)이니 왕(王)이 되고 밖은 곤(坤☷)이니 일이 되며 호괘 진(震☳)은 쫓음이 된다. 삼효가 비록 몸은 건(乾☰)이나 감히 왕을 자처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달리 진(震☳)의 상을 취하여 왕사(王事)를 쫓는다고 하였다. 중천건(重天乾☰☰) 구사(九四)는 고후지(故或之)를 말하되 우변은 풀이하기를 그 자리가 아니므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도 또한 자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혹 왕사를 쫓는다는 혹종왕사(或從王事)다. 문언(文言)에 땅의 도는 이루게 함은 없으나 대신 끝은 있다고 하였으므로 그를 인용하여 이름은 없으나 마침은 있다는 뜻을 밝히었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음(陰)이 녹이면서 자라나 삼효(三爻)에 이르면 칠월(七月) 천지비(天地否☷☰)의 때다. 그러므로 중지곤(重地坤☷☷) 삼효(三爻)로부터 천지비(天地否☷☰)가 왔음을 알 수 있다. 음(陰)은 마땅히 이효(二爻)에 위치해야 한다. 천지비(天地否☷☰)는 음(陰)이 삼효(三爻)까지 자라났으므로 땅 위에 나온 게 된다. 양(陽)은 마땅히 오효(五爻)에 위치해야 한다. 천지비(天地否☷☰) 사효(四爻)는 양(陽)이다. 이는 양(陽)이 내려와 사효에 있다. 건착도(乾鑿度)에 삼효(三爻)는 삼공(三公)이 된다고 하였다. 삼효(三爻)는 본래 양(陽)의 자리다. 양(陽)이 내려와 사효(四爻)에 있음은 본래 삼효(三爻)를 말미암았다. 그러므로 양(陽)이 내려가 사효(四爻)에 있음은 삼공(三公)의 자리다. 육삼(六三)이 삼효(三爻) 자리에 위치함은 음(陰)이 올라가 삼효(三爻)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삼공(三公)의 일을 행하는 형태다. 음(陰)이 삼효(三爻)로 올라갔다면 제후를 본뵈었다. 사람은三公이 되고 천지비(天地否☷☰) 건(乾☰)은 위에 있으면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는 권세를 잃고 자리가 제후의 자리에 있다고 하였다. 음(陰)이 올라가 삼효(三爻)에

이르면 곤(坤☷)의 패상이 아래서 갖추어진다. 이는 나라 정세가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한 양상이다. 신하와 더불어 임금이 동시에 맞서고 있으니 두 나라가 된다. 그러므로 경계함이 두 나라로 맞섬에 있다고 하였다. 오직 문덕이 있는 신하라야 능히 그때에 유순함의 바른 도리를 잃지 않는다. 곤(坤☷)은 문(文)이 된다고 함은 설패전의 문구다. 이처럼 음(陰)이 양(陽)을 녹이며 삼효(三爻)까지 이르면 곤(坤☷)의 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함장가정(含章可貞)이다. 말하기를 이것은 대개 평양(平襄) 王이 소매를 드리운 채 진(晉) 정(鄭)의 도움을 힘입음과 같다고 함은 좌전 은공 六년 우리 주나라가 동쪽으로 도움을 옮기게 됨은 진(晉)과 정(鄭)에 의지한 바라고 한 그 고사다. 주어에 의하면 같은 기록이 양왕(襄王) 十三年으로 되어 있다. 진어(晉語)의 기록은 정 선군 무공이 진 문후와 더불어 힘을 합해 한 마음으로 주나라 왕실의 평왕을 부축해 도왔다. 두예는 좌전 주석에서 유왕(幽王)이 견융(犬戎)에게 죽음을 당하자 평왕(平王)은 동쪽으로 수도를 옮겼다. 진나라의 문후 정나라의 무공은 왕실의 좌우가 되었다. 그러므로 진(晉)과 정(鄭)의 도움에 힘입었다고 말했다. 대개 평왕이 수도를 동쪽으로 옮긴 뒤 양왕을 거치면서 나라의 평온을 되찾은 것은 모두 두 나라의 도움 덕이었다. 그러므로 이 고사를 인용한 뜻은 유순하고 바르게 처신해야 함을 밝히고자 했음이다. 공양전(公羊傳) 장공(莊公) 19년에 예로써 초빙된 대부가 명을 받고 사양하지 않았다. 경계를 벗어남에 기필코 사직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면 오로지 할 바를 다함이 옳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진실로 사직을 이롭게 함이 오로지 하면 가하다고 하였다. 삼효는 자리가 굳세지만 유순한 자세로 약한 군주를 섬기므로 혹 왕사에 종사한다고 하였다. 좌전 소공 16년에 유왕에 이르러 하늘이 주나라를 돕지 않아 혼미한 왕이 정사를 그르쳐 나라가 어지러웠다. 휴왕(攜王)이 명을 범해 제후들이 이를 바꿔 왕사(王嗣)를 잇고 곽육(郕)으로 옮겨 갔다. 여기서 휴왕(攜王)은 백복(伯服)을 일컫는다고 주석하고 있다. 죽서기년(竹書紀年)에 백복(伯服)은 곽공한(虢公翰)을 죽이고 왕자 여신(余臣)을 휴(攜)에서 세웠다고 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휴왕(攜王)이다. 그는 뒤에 진(晉)나라 문후(文侯)에게 죽음을 당했다. 이 고사는 나라의 수도를 옮기고 아버이를 죽임에 이는 명을 오로지 받든 도리에 대한 의구심을 일깨워주고자 했음이다. 그러므로 또한 혹 하고 의심한다고 했으니 이 뜻은 중천건(重天乾䷰) 사효(四爻)는 양효(陽爻)가 음(陰) 자리이고, 중지곤(重地坤䷁) 삼효(三爻)는 양(陽) 자리에 음(陰)이 왔으므로 모두 바른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뒤에 유순함의 절도를 잃어서는 안 되므로 이름이 없다는 말로써 경계를 삼고 있다. 그러므로 나라를 건지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은 유종의 미를 거둠에 있다. 진실로 이를 쫓아 힘써야 할 것이다.

우안(愚案)

삼효(三爻)와 상효(上爻)는 호응 관계다. 윗 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름이 없는 무성(无成)이다. 삼효(三爻)는 아래 괘의 끝자리이므로 마침이 있다. 다만 三爻가 변해 바르게 된다면 지산겸(地山謙䷎)이 된다. 지산겸(地山謙䷎) 구삼(九三)에서는 수고로운 겸(謙)이니 군자가 마침을 둬이 길하다고 하였다. 곧 이 뜻에 해당한다.

○ 덧붙이는 말

① 육삼(六三)은 자리가 양(陽)이다. 안으로 빛나는 양(陽)의 문채를 머금고 있다. 이는 겉으로 유순하면서도 때에 맞추어 안의 아름다움을 발휘하게 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혹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이는 아래 신하 자리의 가장 위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칭송할 만한 덕이 된다.

② 하늘의 덕은 만물이 크게 시작함을 주장하고 땅은 하늘의 이치를 받들어 쫓는다. 그러므로 땅 괘의 음효(陰爻)로서 왕사를 따르는 덕으로 말했다.

③ 땅 괘의 덕은 하늘의 이치를 받들어 쫓는 까닭에 이루게 할 수는 없고 끝마치는 덕이 있게 된다.

상 환 함 장 가 정 이 시 발 야
象曰, “含章可貞”, 以時發也,

상전에 말하였다. “아름다움을 머금어 곧을 수 있으나 때에 따라 발할 것

이요,

최경(崔憬)의 풀이

양(陽)이 명(命)하면 발휘된다. 때가 아니면 머금는다.

최경(崔憬) 풀이의 해설

경방(京房)이 말하기를 고요함은 뉘우침이 되고 펼쳐짐은 곧음이 된다고 하였다. 무릇 상전(象傳)에서 발휘된다고 함은 모두 바른 도리를 얻었음을 말한다. 설괘(說卦)에 강유(剛柔)로 발휘됨에 효(爻)가 생겨난다고 하였다. 우변은 발휘된다는 발(發)이 움직인다는 동(動)의 뜻이라고 하였다. 삼효(三爻)가 양(陽)의 자리로 육(六) 음(陰)이 머금었으므로 육(六)이 양(陽)의 명(命)을 내려 받아 움직이면 바름을 얻게 된다. 삼효(三爻)가 양(陽)이면 간(艮≡)이니 이는 때가 된다. 변해 움직임이 때가 있으므로 때에 따라 발휘된다고 하였다. 진실로 마땅한 때가 아니면 머금고 발휘되지 않는다.

^{혹 종 왕 사} “或從王事”, ^{지 광 대 야} 知光大也.

혹 왕의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지혜가 밝고 큰 것이다.

간보(干寶)의 풀이

자리는 더욱 높고 덕은 더욱 넓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삼효(三爻)는 아래 패상의 위다. 위로 왕의 일을 쫓으므로 자리는 더욱 높다고 하였다. 사업으로 발휘하므로 빛나고 크다. 빛나고 큰 까닭에 덕은 더욱 넓다. 또 공소(孔疏)에 혹 왕의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지혜가 밝고 크다는 뜻은 무성유종(無成有終)의 해석이라고 하였다. 이미 왕의 일을 따라 쫓아가고 감히 만물을 처음 이루게 함을 주장하지 않아 끝까지 받들어 행하니 지혜와 사려심이 빛나고 크며 스스로 그 아름다움을 멋대로 하지 않아서 오직 왕을 받들어 모실 뿐이라고 하였다. 뜻이 또한 통하는 말이다.

우안(愚案)

삼효(三爻)가 움직여 변하면 내호괘(內互卦)가 감(坎≡) 마음이니 알 지

(知)가 된다. 그때 속에 얹드려 있는 배합괘 이(離☲)는 빛나는 광(光)이 되며 곤(坤☷)은 부유한 대업(大業)이므로 대(大)가 된다. 그러므로 이곳의 문장이 지혜가 빛나고 크다는 지광대(知光大)다. 맹자가 말하되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능이 작으면서 큰 것을 섬길 수 있다고 하였다. 작으면서 큰 것을 섬긴다는 뜻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나라를 보전할 수 있다. 이는 곤 왕의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지혜가 밝고 크다는 상전 구절의 뜻에 해당한다.

○ 덧붙이는 말

① 땅의 덕이 하늘의 이치를 받들어 쫓아서 만물을 이루어야 할 때에 이루는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까닭에 그것이 때에 맞추어 발휘되는 것이고 지혜가 밝고 큰 것이 된다. 왕사를 쫓는다는 의미는 곤 하늘의 이치를 받들어 쫓는다는 뜻이다.

② 곤괘의 전체적인 의미는 세상의 만물이 비롯되는 하늘의 덕을 근본으로 삼는데 있고 그 덕을 때에 맞추어 받들어 완성하는 데 있다.

02坤卦10, 육사(六四), 괘낭(括囊), 무咎(无咎).

육사는 주머니 끈을 묶듯이 하면 허물도 없으며 명예도 없으리라.

우번(虞翻)의 풀이

괄(括)은 맺을 결(結)의 뜻이다. 지천태(地天泰☱☷)의 반대는 천지비(天地否☷☱)다. 여기서 곤(坤☷)은 주머니가 되고, 간(艮☶)은 손이 되며 손(巽☴)은 노끈이 되므로 주머니 끈을 묶듯이 하는 괘낭(括囊)이다. 밖에 있으니 허물이 많다. 자리를 얻어 오효(五爻)를 섬기므로 무성한 뽕나무 줄기에 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 음이 이효(二爻)에 있으면 영예가 많다. 그러나 멀리 사효(四爻)에 있으므로 영예가 없다.

간보(干寶)의 풀이

음(陰)의 기운이 사효(四爻)에 있으니 팔월(八月)의 때다. 풍지관(風地觀☱☷)으로부터 왔다. 천지(天地)가 장차 닫히면 어진 사람은 숨고 지혜로운 사람은 용납됨에 있어서 구차하다. 이는 육사의 때에 생각할 수 있는 폐단이다. 대개 고사에서 찾자면 영척(甯戚) 거원(蘧瑗)이 때와 더불어 숨어

흘어지는 효다. 그 몸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기 때문에 허물은 없다. 공업을 일으켜 세우지도 못하기 때문에 영예로움도 없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설문에 혈(絜)은 묶는다는 괄(括)이라고 하였다. 대학에 시이군자유혈구지도야(是以君子有絜矩之道也)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정(鄭)이 혈(絜)은 결(結)과 같다고 주석하였다. 그러므로 괄(括)은 맺을 결(結)과 같다고 주석하였다. 그러므로 괄(括)은 뜻이 결(結)이다. 중천건(重天乾䷀) 삼효(三爻)까지 양(陽)이 붙어나면 지천태(地天泰䷊)를 이룬다. 사효(四爻)까지 이르면 지천태(地天泰䷊)가 도리어 천지비(天地否䷋)를 이룬다. 문언에 천지가 닫히고 어진 사람이 숨으므로 지천태(地天泰䷊)가 천지비(天地否䷋) 이름을 알게 된다. 곤(坤䷁)은 주머니가 된다고 함은 구가역(九家易)의 설괘문 해설이다. 곤(坤䷁)은 가운데가 비었으므로 주머니가 된다. 간(艮䷳)은 손이 되고 손(巽䷸)은 노끈이 된다고 함은 설괘전의 해설이다. 천지비(天地否䷋)는 안소성괘가 곤(坤䷁)이므로 이는 주머니가 된다. 안으로 內互卦 四爻는 간(艮䷳)이니 이는 손이다. 외호괘 四爻는 손(巽䷸)이 되니 노끈이 되므로 묶는象이 있다. 곤(坤䷁)은 안에 있고 묶는 것은 밖에 있으니 밖은 사효(四爻)다. 사효(四爻)는 오효(五爻)에 가까우므로 두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허물이 많다. 그러나 사효(四爻) 음(陰)은 자리가 마땅하므로 위로 오효(五爻) 양(陽)을 받든다. 천지비(天地否䷋) 구오(九五)에서도 그 때문에 휴비(休否)대인길(大人吉) 기망기망(其亡其亡) 계우포상(繫于包桑)이라는 구절로 효사를 대신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허물이 없음이 된다. 계사 하전에 이효(二爻)와 사효(四爻)는 공이 같다고 하였다. 이효(二爻)는 영예로움이 많다고 했으니 이효(二爻)는 음(陰)으로 중(中)을 얻었고 또 오효(五爻)에 호응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사효(四爻)가 두려움이 많음은 사효(四爻)는 중(中)을 얻지 못하고 또 오효(五爻)에 자리가 가까운 까닭에 영예로움이 없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음(陰)이 녹으면서 사효(四爻)에 이르면 팔월(八月) 풍지관(風地觀䷓)의 때

다. 그러므로 중지곤 사효는 풍지관(風地觀䷓)으로부터 왔음을 안다고 하였다. 바야흐로 사효(四爻)까지 변하지 않았다면 천지비(天地否䷋)다. 이는 패상이 천지가 닫히고, 어진 자가 숨는 상이다. 그러므로 오직 어진 사람은 숨고 지혜로운 사람은 용납됨이 구차하여 육사의 때의 폐단을 보게 됨이 주머니를 묶는 것과 같음이 된다. 또 영척(甯戚) 거원(蘧瑗)이 때와 더불어 숨어 흩어지는 효가 된다고 하였다.

그 중의 하나 춘추 좌전 양공 14년의 기록이다. 위나라의 헌공이 손문자·영혜자와 식사를 함께 하자고 불렀으므로 두 사람은 예복을 갖추어 입고 조정에 나갔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도 부르지 않고 위후는 동산에서 기러기 사냥을 즐기고 있었다. 두 사람이 이에 찾아갔으나 후는 사냥할 때 쓰는 피관을 벗지 않고 그들을 상대했다. 두 사람은 노여움을 느끼며 물러나 손문자는 영지인 척(戚)으로 갔다. 손괴(孫蒯)는 일이 있어 조정으로 들어갔는데, 위후는 술을 마시게 하고 태사(太師)에게 교언(巧言-시경 소아편)의 끝장을 노래하라고 시켰다. 태사는 이를 사양했는데, 사조(師曹)가 자진해서 노래하기를 청했다⁷⁶⁾. 손괴가 이 와중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문자에게 임금께서 우리를 미워하고 있으므로 먼저 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자는 가족을 척으로 옮기고 나서 조정으로 들어가 거백옥을 보고 말하기를, 주군이 포악한 것은 그대도 아는 바다.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 심히 근심스러운데 어찌하면 좋을까? 하니 대답하기를, 임금이 나라를 마음대로 한다면 신하가 감히 이에 충언할 수 있겠지만 충언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고 하면서 이내 나라의 국경을 빠져 나갔다. 또 본국에서 쫓겨나 있던 위헌공이 이의에서 사자를 보내어 영희와 본국으로 돌

76) 당초에 사조가 이 시를 노래하려 한 것은 손문자를 노하게 만들어서 위나라의 제후[衛侯]에게 보복하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옛날 위후에게 채찍으로 300번 얻어맞은 일 때문이었다. 그 전말은 위후에게 총애하는 첩과 관련이 있었다. 위후는 그 첩을 위해 사조를 시켜 거문고를 가르치게 했다. 거문고를 가르치던 어느 때 사조가 이를 채찍으로 때렸으며, 이 말을 들은 위후는 노해서 채찍으로 사조를 300번 때린 과거가 있었다.

아가는 일을 의논하게 했다. 영희가 그때 말하기를, ‘반드시 자선이 이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패합니다’ 했기 때문에 현공은 자선에게도 명을 내렸다. 자선은 경사의 강요 때문에 할 수 없이 현공의 명을 받았고 그 명을 영희에게 전달했다. “만일 과인이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치는 영씨에게 맡기고 제사는 과인이 맡을 것이다”고 했다. 영희가 거백옥에게 알렸는데, 백옥이 말하기를, “원(거백옥)은 임금이 나라를 나가실 때도 몰랐는데 어찌 그 돌아오시는 것을 알려하겠습니까”하고 곧 떠나가서 가까운 관문에서 나라를 벗어났다. 이들 고사는 주머니 끈을 묶도록 한다는 괘낭(括囊)의 뜻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몸을 피해 어려움을 자초하지도 않아 허물은 없지만 공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돕지도 않았기에 영예도 없다.

○ 덧붙이는 말

① 육사는 하늘의 이치를 받들어 완성하는 중지곤(重地坤䷁)의 때에 위로 육오(六五)를 가장 가까워서 받들어 섬기는 나라의 대신 자리이다. 처신이 지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② 또 효상에 있어서도 육사(六四)의 처신이 지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그것은 육사(六四)의 효상이 시중 음(陰)자리로 거듭되는 중지곤(重地坤䷁)의 때에 자리와 효가 모두 음(陰)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효사에서는 삼가고 조심하는 처신의 지극함으로 풀이하여 주머니 끈을 묶듯 한다는 말로써 표현하였다. 그러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음(陰)이 음(陰) 자리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언행을 단속하기만 할 뿐 중을 얻지 못한 점에서 보면 드러나는 명예도 찾기 어렵다.

상완 象曰, “관 낭 무 구括囊无咎”, 신 불 해 약慎不害也.

주머니 끈을 묶듯이 하면 허물이 없다는 것은 삼가면 해롭지 않은 것이다.

노씨(盧氏)의 풀이

말을 삼가면 허물이 없다.

노씨(盧氏) 풀이의 해설

우씨(虞氏)가 지산겸(地山謙䷎) 단전(彖傳)을 주석한 말에 곤(坤䷁)은 귀해(鬼害)가 된다고 했다. 이는 중지곤(重地坤䷁)에 해롭다는 뜻이 있다는 뜻이다. 사효(四爻)가 변하면 우뢰는 잘 우는 뜻이 있으니 말이 된다. 또 호괘(互卦)는 간(艮䷳)이니 그침이 되고, 간(艮䷳)은 양(陽)이 소(少)가 되므로 삼가는 뜻을 담고 있다. 계사상전에 어지러움의 일어나는 바는 언어로서 계단이 된다고 하였다. 군주가 삼가지 않으면 신하를 잃고 신하가 삼가지 않으면 몸을 잃는다. 무슨 일이건 삼가지 않으면 해로움이 일어난다. 이런 까닭에 군자는 삼가고 조심해서 바른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 바로 앞의 풀이는 뜻이 여기에 있다.

○ 덧붙이는 말

① 괘낭무구(括囊无咎)의 뜻을 음(陰)이 음(陰)자리로 지극히 삼가고 자기 자신을 단속하면 해롭지 않다는 점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다.

육 오 황 상 원 길
六五, 黃裳, 元吉.

육오(六五)는 황색 치마처럼 하면 선(善)하여 길(吉)하리라.

간보(干寶)의 풀이

음기가 五爻에 있으니 구월(九月)의 때이고, 산지박(山地剝䷖)으로부터 왔다. 산지박(山地剝䷖)은 패상이 몇몇한 도리에 어긋난다. 효사에서 말하는 황(黃)은 중앙의 색이고, 치마는 아래의 복식이며, 원(元)은 선의 어른이다. 중앙이 아름답고 누령되, 위가 아름답다면 元이 되고, 아래가 아름답다면 치마다. 음(陰)이 위의 오효(五爻)로 올랐으니, 유순(柔順)함이 높은 자리를 차지한 형세다. 마치 성왕과 소공등의 예와 같으니, 그들을 보필한 주(周)·곽(霍) 등의 어진 신하를 떠올려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백관을 몸소 거느리고 나라의 정사를 좌우하되 오직 미덥고 유순하게 하되 사람들로 부터 어떤 의구심도 받지 않도록 노력했다. 말은 반드시 충직하고 미덥게 하며 행동은 돈독하고 공경스럽게 가졌다. 그런 뒤에야 천지신명 앞에 떳떳하게 보일 수가 있었으니 사해에 어떤 허물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예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황상원길(黃裳元吉)이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음(陰)이 자라면서 오효(五爻)까지 이르면 구월 산지박(山地剝䷖)의 때가 된다. 그러므로 중지곤(重地坤䷁) 오효(五爻)는 산지박(山地剝䷖)으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육(六) 음(陰)이 구오(九五) 하늘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뗏뗏한 도리에 어긋난다. 황(黃)은 중앙의 색이고, 치마는 아래의 복식이며, 원(元)은 선의 어른이라는 구절로부터 아래가 아름답다면 치마라는 곳까지는 좌전 소공 12년의 인용문이다. 대개 남괴가 역으로 점을 쳐서 중지곤(重地坤䷁)이 수지비(水地比䷇)로 변하는 괘를 만났을 때였다. 자복혜백(子服惠伯)을 찾아가니 그가 하는 말이 위의 인용구였다. 문언에 천현이지황(天玄而地黃)이라고 하였다. 구가설괘(九家說卦)에 곤(坤䷁)은 황(黃)이 된다고 했고, 설문에서는 곤(坤)이 토(土)와 신(申)의 합성어로 보았으니 이는 곤(坤䷁)의 자리가 미신(未申)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월령(月令)에서 계하(季夏)의 달은 중앙 토(土)라고 하였고, 교특생(郊特牲)에서도 누렁다는 것은 중앙이 된다고 했으므로 그 뜻을 취해 누렁다는 황(黃)은 중앙의 색이라고 하였다. 구가(九家)설괘(說卦)에서는 곤(坤䷁)은 치마가 된다고 하고, 계사하전에서 황제(黃帝) 요(堯)·순(舜)이 의상(衣裳)을 드리움에 천하가 다스려졌으니 대개 이는 건(乾䷀)곤(坤䷁)으로부터 취해 왔다고 하였다. 우(虞)는 그곳의 주석에서 중천건(重天乾䷀)은 위에 있으니 衣가 되고, 중지곤(重地坤䷁)은 아래 있으니 상(裳)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상(裳)은 아래의 복식이라고 하였다. 단전(彖傳)에서도 지극하구나! 곤(坤䷁)의 元이여라는 구절의 주석에서 구가(九家)는 곤(坤䷁)이란 순음(純陰)이니 중천건(重天乾䷀)에 짝하여 만물을 낳는 선(善)의 시작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元은 선(善)의 어른이라고 하였다. 곤(坤䷁) 문언에서도 ‘황(黃)은 중심으로 이치에 통한다(黃中通理)’고 했으니 가운데가 아름다운 것은 능히 黃이라고 하였다. 한편 원(元)은 머리로 밝다고 했으므로 위가 아름답다면 元이 된다. 의상(衣裳)을 드리움에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했으므로 아래가 아름답다면 치마다. 음(陰)이 위의 오효(五爻)로 올랐으니, 유순(柔順)함이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는 구절에서 주공의 예를 든 것은 명당위(明堂位)의 다음과 같은 기록에 기인한다. 무왕이 세상을 뜨고

성왕이 어린 나이로 왕이 올랐다. 이때 성왕을 도와 주공이 천자의 자리를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리면서 六年 제후들이 명당에서 조회하였다. 주공은 성왕을 모시고 예와 악을 제작하고 도량을 반포하되,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다. 그때 주공이 말은 반드시 충직하고 미덥게 하며 행동은 반드시 돈독하고 공경하게 했다고 했으니 이는 논어의 인용구다. 오직 충직하고 믿음직하며 돈독하고 공경스러운 연후에야 가히 신명에게서 믿음을 취할 수가 있었으니 사해에 허물이 없을 것임은 너무나 분명한 노릇이다. 좌전에서든 말하기를 중심이 충직하지 않으면 그 색을 얻지 못하고, 아래가 같게 하지 않으면 그 복식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지금은 황(黃)이면서 중(中)에 있으니 가운데가 스스로 충직하다. 상(裳)이 복식의 아래이면 아래서 스스로 공손함이니 그 까닭에 선행해서 길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효사도 황상원길(黃裳元吉)이다.

○ 덧붙이는 말

- ① 황(黃)은 오행 상 중양의 토덕(土德)으로 그 색깔이 황색이다. 또 중앙에 해당하니 알맞고 하늘을 만들어 섬기는 바른 덕이 있다는 뜻이다.
- ② 회남자 천문훈에서는 황종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날이 동지이니 덕기는 토이고 색은 황이다. 그러므로 황종이라고 한다고 했다.
- ③ 관자 24시에 땅의 덕은 화평하게 끌고루 작용하며 사사로움이 없고 중정(中正)하여 실로 사계절을 보필한다고 하였다.
- ④ 여씨춘추 12기와 회남자 천문훈에서 12를 12달에 배당할 때 모두 11월을 황종으로 삼았다. 이는 음(陰)이 중(中)을 얻었다는 중부(中孚)와 그 맥락을 같이 함이 되므로 맹희가 중부(中孚)로 11월 동지 초후를 대신하고 있다.

주역 64괘의 배치 순서를 살펴보면 건(乾)이 맨 머리에 오고 곤(坤)이 뒤를 잇는다. 이는 하늘의 이치를 땅이 순하게 뒤따른다는 곤(坤)의 괘사(卦辭) 및 단전(彖傳)의 해설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후의 논리가 지아비는 존귀하고 지어미는 비천하다고 하여 통치자는 귀하고 피통치자는 천하라는 시각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중천건(重天乾

䷆) 및 양효(陽爻) 중심의 괘효(卦爻)사를 해설함에 있어서도 주역의 본문은 마찬가지로 논법으로 주역의 전체적인 의리체계를 엮고 있기 때문이다.

02坤卦13, ^{상 왕}象曰, “^{황상원길}黃裳元吉”, ^{문 제 중 야}文在中也.

상전에 말하였다. 황상원길(黃裳元吉)은 문채(文)가 중앙에 있는 것이다.

왕숙(王肅)의 풀이

곤(坤䷁)은 문채(文)가 된다. 오효(五爻)가 중(中)에 있으므로 문채(文)가 중앙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간보(干寶)의 풀이

마땅히 자기의 소임을 다하되 참람하게 보일 수 있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선하고 길한 복으로 마무리했으니 이는 문덕이 가운데 있음을 말미암기 때문이다.

왕숙(王肅) 풀이의 해설

곤(坤䷁)은 문채(文)가 된다고 함은 설괘(說卦)의 인용이다. 초어에 땅의 일은 문채(文)가 된다고 하였다. 위소(韋昭)가 주석하기를 땅의 재질은 유순함으로 문(文)이 된다고 하였다. 오효(五爻)가 위의 가운데 자리이고, 문언(文言)에서도 아름다움이 그 가운데 있다고 했으므로 왕숙(王肅)이 이 구절을 문채가 중앙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주공의 예를 보면 신하로써 군주를 넘본다고 말할 수 있는 처지였다. 그럼에도 마무리가 아름답고 길하여 복스러웠으니 이는 문덕의 아름다움이 가운데 있음을 말미암았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덕(文德)이란 하늘의 이치에 유순(柔順)한 덕이다.

○ 덧붙이는 말

① 중지곤(重地坤䷁)의 육오(六五) 효는 비록 땅 괘의 지존이지만 하늘의 이치를 받들어 따르는 데 덕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앞에서 말하였다. 이는 곧 땅의 덕을 대신하는 아래의 누런 치마가 하늘의 덕에 해당하는 옷의 윗도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중지곤(重地坤䷁) 육오(六五)의 문채가 가운데 있다고 한 것이다.

② 문채(文)는 천지자연의 이치에 입각한 사물의 수식을 뜻한다. 봄의 청색과 여름의 붉은 색이 섞여 나타난 색상을 문(文)이라고 하고 여름의 붉은 색과 가을의 흰색이 섞여 꾸며진 것을 장(章)이라고 한다. 가을의 흰색과 겨울의 검은 색이 섞여져 꾸며진 것을 보(黼)라고 하며 겨울의 검은 색과 봄의 푸른색이 섞여 꾸며진 것을 불(黻)이라고 한다.

③ 중(中)은 앞서 밝힌대로 오행(五行)의 중앙이니 땅의 덕인 황을 뜻하고 동시에 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덕이 지나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상 육, 용^{상 육 용 전 우 야}戰于野,

上六은 용이 들에서 싸우니,

순상(荀爽)의 풀이

소식(消息)의 자리다. 중지곤(重地坤䷁)은 해(亥)에 있되, 아래는 중천건(重天乾䷀)이 얹드려 있다. 양(陽)을 겸하고 있으므로 용(龍)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음(陰)이 양(陽)을 녹이는 소식으로 하는 말이다. 위의 상호(上爻)까지 이르면 지극하다. 중천건(重天乾䷀)이 다하고 重地坤이 이루어진다. 重地坤의 자리는 자리가 十月 亥의 때다. 亥는 방위가 서북이고 후천에서 중천건(重天乾䷀)의 자리다. 건작도(乾鑿度)에서 양(陽)은 해(亥)에서 시작된다고 하였고, 또 중천건(重天乾䷀)은 서북(西北)에서 만들어지니, 방위는 시월(十月)이라고 함이 이 뜻이다. 重地坤은 消息에 있어서 亥에 있다. 그러므로 重地坤은 亥에 있되, 아래는 중천건(重天乾䷀)이 얹드려 있다고 하였다. 문언에서도 양을 겸하는 것은 重地坤이 음으로서 陽 중천건(重天乾䷀)을 겸한다고 하였다. 震은 중천건(重天乾䷀)의 양(陽) 하나를 얻었으니 용(龍)이다. 그러므로 용을 일컫는다고 하였다. 중천건(重天乾䷀)이 서북(西北) 광막(廣漠)의 방위에 위치하므로 들이라는 말도 나온다. 설괘(說卦)에 건(乾)에서 싸운다(戰乎乾)고 하였다. 최씨의 주석에 의하면 음(陰)과 양(陽)이 서로 부딪친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중지곤(重地坤䷁) 음(陰)은 위에 이르면 중

천건(重天乾䷀)과 더불어 서북(西北)의 해방(亥方)에서 싸운다. 그러므로 용이 들에서 싸우는 용전우야(龍戰于野)다.

기혈현황
其血玄黃.

그 피가 검고 누렇다.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중지곤(重地坤䷁)의 괘상이 그 부류를 떠나지 않았으므로 血이란 일컫는 것이다. 피는 음에 대한 비유다. 검고 누렇다는 玄黃은 하늘과 땅이 섞였음을 뜻하니, 중천건과 중지곤이 한 자리에 모였음을 말한다.

후과(侯果)의 풀이

중지곤(重地坤䷁)은 시월(十月)의 괘다. 중천건(重天乾䷀)의 자리는 서북(西北)이고, 또 시월(十月)에 해당한다. 음이 해(亥)에서 끝을 차지하고, 양(陽)을 가볍게 보아 두드리고 있으니 서로 싸우는 꼴이다. 그러므로 설괘의 해설이 건(乾䷀)에서 싸운다(戰乎乾)고 하였다. 六이 용(龍)을 일컫는 것은 음(陰)이 성하여 흡사 용(龍) 같음을 말한다.

간보(干寶)의 풀이

음(陰)이 상육(上六)에 있으니 시월(十月)의 때다. 효(爻)가 유(酉)에서 끝나 괘(卦)가 건(乾䷀)에서 이루어진다. 중천건(重天乾䷀) 괘상(卦象) 순강(純剛)은 음(陰)의 성함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용(龍)이 싸운다고 하였다. 술해(戊亥)는 중천건(重天乾䷀)의 도읍이다. 그러므로 용(龍)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음(陰)의 덕이 도를 지나쳐서 중천건(重天乾䷀)을 꺾박해 싸운다. 성곽 밖을 일컬어 교(郊)라고 하는데郊의 바깥이 들이 된다. 곤(坤䷁)은 십이지(十二支)로 보면 미신(未申)의 자리다. 그래서 해당 기(氣)가 유술(酉戌)의 사이에서 넘친다. 그러므로 풀이하는 말이 우야(于野)다. 음(陰)의 부류를 떠나지 않았으므로 血이라고 일컫는다. 이처럼 음(陰)과 양(陽)의 색이 서로 섞였으므로 현황(玄黃)이다. 음과 양이 서로 갈라서 있다면 기(氣)를 달리하겠지만 합하면 공(功)을 함께 이룬다. 군주와 신하·지아비와 지어미 등의 뜻이 그 같은 예다. 그러므로 文王이 은(殷)에 충성하기를 한결같이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둘을

지냈으면서도 한 지아비일 뿐인 주왕(紂王)을 섬겼으니 내게 그 허물을 메꾸고 주(紂)의 잘못을 구하고자 함이며, 은나라의 명을 빌어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주(紂)가 악을 계속 일삼으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으므로 하늘이 명을 거두어들이니 무왕에 이르러 목야(牧野)의 전투가 있게 됐으니 이 고사가 바로 이 구절의 뜻에 속한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문언(文言)에 그 유(類)를 떠나지 않았다고 함은 중지곤(重地坤䷁)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혈(血)을 일컫는다고 함은 곤(坤)은 음(陰)의 부류이고, 혈(血)도 또한 음(陰)의 부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는 음에 대한 비유가 된다. 중지곤(重地坤䷁) 해(亥)는 중천건(重天乾䷀) 해(亥)에 임해 있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고 했으므로 검고 누렇다고 함은 하늘과 땅이 섞인 것이다. 건착도(乾鑿度)에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은 기(氣)가 술해(戌亥)에서 합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이 합하는 자리라고 하였다.

우안(愚案)

상효(上爻)는 삼효(三爻)와 더불어 호응하는 자리다. 상효(上爻)는 음(陰)의 자리이고, 삼효(三爻)는 양(陽)의 자리다. 음(陰)이 양(陽)을 의심하면 반드시 싸운다. 싸운다면 삼효(三爻)가 변해 자리를 잃고 변한다. 호괘(互卦) 감(坎䷜)은 혈(血)이 되고, 호괘(互卦) 진(震䷲)은 현황(玄黃)이 된다. 그러므로 그 피가 검고 누렇다고 하였다.

후과(侯果) 풀이의 해설

중지곤(重地坤䷁)은 소식(消息)괘에 있어서 십월(十月) 해(亥)의 때에 속한 괄다. 중천건(重天乾䷀)은 서북에 거처하고 또 시월(十月) 해방(亥方)에 해당한다. 중지곤(重地坤䷁) 음(陰)은 끝이 해(亥)의 자리다. 반면 중천건(重天乾䷀) 양(陽)은 곧 해방(亥方)에서 시작한다. 끝자리의 음(陰)으로서 양방(陽方)에서 부딪치므로 음(陰)과 양(陽)이 서로 의심하면서 싸운다. 설괘에서 말하는 전호건(戰乎乾)이 바로 이 뜻이다. 음(陰)이 성하면 흡사 양(陽)과 같다는 것은 음(陰)에는 양(陽)이 얹드려 있으므로 육(六) 또한 용

(龍)이라 일컫는 것이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산지박(山地剝䷖)으로 양(陽)이 다하면 중지곤(重地坤䷁)을 이룬다. 그러므로 상육(上六)은 시월(十月)의 때다. 효(爻)가 유(酉)에서 마친다는 것은 중지곤(重地坤䷁) 상육(上六)이 계유(癸酉)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괘가 중천건(重天乾䷀)에서 이루어진다고 함은 음(陰)이 중천건(重天乾䷀)을 녹여 맨 위에 이르면 비로소 중지곤(重地坤䷁)을 이루게 됨을 의미한다. 중천건(重天乾䷀)은 본래 순강(純剛)의 괘상(卦象)이다. 성한 음(陰)이 와서 녹임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처럼 음(陰)과 양(陽)이 서로 부딪침으로 용(龍)이 싸운다고 하였다. 건(乾)은 서북(西北)의 괘(卦)다. 건착도(乾鑿度)에 중천건(重天乾䷀)의 자리는 시월(十月)에 있고 구월(九月)에서 점차 나가는 때이니 위치가 술해(戌亥)의 사이다. 그러므로 술해(戌亥)는 중천건(重天乾䷀)의 도읍이 된다고 풀이했다. 광운(廣韻)에 천자(天子)의 거처하는 바를 도읍(都)이라고 한다 하였다. 중천건(重天乾䷀)은 군주가 되므로 위치하는 바를 일컬어 도읍이라고 하였다. 상육(上六)은 해(亥)에 있다. 중천건(重天乾䷀)의 도읍이 되므로 용(龍)이라 일컫는다는 뜻이다. 건(乾䷀)의 象이 이미 가득 차면 중지곤(重地坤䷁)의 도(道)가 다시 성해 지극해지고, 양(陽)의 공(功)이 이미 마무리되면 마땅히 다시 중지곤(重地坤䷁)의 가운데로 되돌아간다. 진(震䷲)을 나와 중천건(重天乾䷀)에 암컷으로 짝하면 중지곤(重地坤䷁)의 덕이 이에 갖추어진다. 이는 음(陰)의 덕이 법도를 지나쳐 중천건(重天乾䷀)을 핍박하면서 용으로 싸우는 모습이다. 성곽 밖을 일컬어 교(郊)라 하고, 교(郊)의 바깥을 들이라고 일컫는다고 함은 노송(魯頌) 모전(毛傳)에 근거한다. 반면 성곽의 호칭은 읍(邑)이라고 했다. 중지곤(重地坤䷁)은 위치가 서남(西南)인데 건착도(乾鑿度)에서 곤(坤䷁)의 자리는 유월(六月)에서 칠월(七月)로 가는 때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리가 미신(未申)의 위치라고 하였다. 유술(酉戌)의 사이에서 넘친다는 것은 유술(酉戌)에서 넘치면 자리가 해(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풀이가 유술(酉戌)이 됨은 효(爻)가 유(酉)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미신(未申)으로부터 유술(酉戌)은 멀

다. 그러므로 비유가 들(野)이다. 용(龍)이 비록 중천건(重天乾䷲)에 속하나 상육(上六)은 중지곤(重地坤䷁)이다. 음(陰)의 부류를 떠나 있지 않으므로 그 피로 비유한다. 싸운다고 함은 음양(陰陽)이 서로 의심하는 까닭이다. 의심하는 까닭에 섞인다. 검고 누렇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섞임을 뜻한다.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의 기운은 술해(戌亥)에서 합해진다. 그러므로 검고 누렇다. 음양(陰陽)의 기운은 갈라지면 서로 다르고, 합하면 서로를 구제하면서 공(功)이 있게 된다. 마치 임금과 신하, 지아비와 지어미의 관계와 같고 하늘과 땅도 또한 다르지 않다. 다시 문왕이 주를 섬긴 고사를 인용함은 무왕이 은을 친 예로서 이 부분의 뜻을 밝히고자 해서다. 문왕은 천하의 삼분의 이를 차지하고서도 한 사람의 지아비일 뿐인 주(紂)를 섬겼으니, 무릇 그 허물을 감싸고 잘못을 널리 구제하고자 한 표본으로 어느 누구도 본받기 어렵다. 다만 주(紂)가 하늘에 유순하고 중(中)을 얻어 은나라의 사직을 하늘에 빌어 천하의 백성을 구제할 수 있었다면 반드시 황상원길(黃裳元吉)의 효사가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악을 계속 일삼아 고치지 않으면서 음(陰)이 위에까지 지극하도록 양(陽)을 의심하면서 반드시 싸우니 마침내 천명이 돕지 않았다. 무왕이 이에 목야(牧野)의 전투에서 은나라를 물리쳐 흐르는 피가 내를 이루었으니 이것이 곧 용전우야(龍戰于野) 기혈현황(其血玄黃)의 상(象)이 된다.

○ 덧붙이는 말

- ① 상육(上六)은 중지곤(重地坤䷁)의 가장 윗자리다. 이미 맨 끝자리에 이르도록 그 세력이 왕성해졌다면 상육(上六)으로서는 하늘의 덕을 받들어 섬기는 미덕을 찾기 어렵다. 이것이 용이 들에서 싸운다는 뜻이고 음이 양과 맞서 싸우므로 서로 피를 흘리게 된다.
- ② 검고 누렇다는 피의 색깔은 하늘의 색은 검고 땅의 색은 누렇기 때문이다.
- ③ 상육은 이미 자리가 중을 지나쳐 지극하면서도 여전히 나가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형세로 효상의 의미를 풀이하였다.

상 환 용 전 우 야 기 도 궁 야
象曰, “龍戰于野”, 其道窮也.

상전에 말하였다. 용이 들에서 싸우는 것은 그 도가 궁극한 것이다.

간보(干寶)의 풀이

천도가 다하면 음양이 서로 부딪침에 이른다. 군자의 덕이 다하면 공격하고 싸우면서 배임을 당함에 이른다. 유순함이 다하면 권세가 변함에 이른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천도가 다하면 음양이 서로 부딪침에 이른다는 것은 전호건(戰乎乾)의 뜻이다. 군자의 덕이 다하면 공격하고 싸우면서 배임을 당함에 이른다는 것은 목야에서 싸운 그 고사와 통한다. 유순함이 다하면 권세가 변한다 함은 공경하고 양보하던 자세가 바뀌어 정벌하고 배이는 상황이 됨을 말한다.

안(案)

후한서(後漢書) 주목 진기에 이곳 역경의 용이 들에서 싸운다는 구절을 예로 들며 말하기를 양(陽)의 도가 장차 드러나면 음(陰)의 도는 등진다는 뜻을 부(負)로 표기하였다. 대개 역의 이치가 다하면 변한다. 음(陰)이 다하면 양(陽)이 생겨나고, 음(陰)이 위에서 다하면 등지게 되므로 그게 부(負)가 된다는 뜻이다. 그때 양(陽)은 아래서 다시 회복하므로 드러나는 승(勝)이다. 이는 해(亥)에서 끝나고 자(子)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 덧붙이는 말

① 음(陰)이 성하여 그 세력을 양(陽)과 다툼다면 그것은 소인의 궁색함이다. 용이 들에서 싸움은 음이 그 세력을 양과 다투는 일이다.

용 육 이 영 정
用六, 利永貞.

六을 씀은 영구하고 끝음이 이롭다.

간보(干寶)의 풀이

음(陰)은 패상이 유순하다. 신하는 그런 유순함을 지켜야 하니 그런 까닭에 마땅함의 조화를 지킬 수 있고, 일의 끝은 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오직 움직여 변함에 바른 도리에서 마무리해야 해야 함을 나타낸다. 이는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도와 세상을 다스린 고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니 왕도를 빛내고 마침내 신하의 절도 있는 도리로서 할 바를 다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구하고 곧음이 이로움이 된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음은 패상이 유순하다고 함은 육(六)의 뜻이다. 신하가 그런 유순함을 지켜야 한다고 함은 육(六)을 쓰는 용육(用六)이다. 마땅함의 조화를 지킬 수 있다고 함은 이로움이다. 일의 끝은 줄기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함은 곧을 정(貞)이다. 이영정(利永貞)도 마찬가지다. 신하가 유순한 도를 지켜 왕도를 빛내면서 끝까지 신하의 절도를 잃지 않아 그 바른 도리를 지킨다면 이것이 바로 그 뜻이다.

안(案)

주역의 육십사괘가 모두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일체가 중천건(重天乾䷀)에서 시작되고 중지곤(重地坤䷁)에서 이루어진다.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은 서로가 기다려 작용함이 된다. 중천건(重天乾䷀) 용구(用九)는 음(陰)을 변하게 하여 양(陽)을 드러내고, 중지곤(重地坤䷁) 용육(用六)은 양(陽)을 변하게 하여 음(陰)을 건넌다. 용구(用九)는 중천건(重天乾䷀)의 원(元)에서 작용이 시작되는데, 원(元)은 정(貞)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용구(用九)의 길함은 머리가 없는 무수(无首)에 있다. 용육(用六)은 중지곤(重地坤䷁)의 정(貞)에서 작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貞) 아래로 원(元)이 일어난다. 그 까닭에 용육(用六)의 이로움은 영정(永貞)에 있다. 나머지는 중천건(重天乾䷀) 용구(用九)에 자세하다.

○ 덧붙이는 말

- ① 음(陰)의 올바른 법도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 ② 음(陰)은 이치에 어둡고 유약하여 보여주는 덕이 항구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영구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데 있음을 강조한다.
- ③ 역(易)의 이치는 변하고 바뀌는 데 있다. 그러므로 육(六)을 쓴다는 뜻은 중지곤(重地坤䷁)의 모든 음효(陰爻)가 양(陽)으로 변했음을 말한다. 이처럼 중지곤(重地坤䷁)의 모든 음효가 양으로 변했다면 시종일관 음효(陰

爻)로 진행되는 일의 마지막도 하늘의 원형이정(元亨利貞)한 양(陽)의 덕으로 마무리되기를 요구한다. 그것이 영구하고 바르게 함이 이롭다는 구절의 숨어 있는 뜻이다.

상 환 용 육 영 정 이 대 종 야
象曰, 用六, “永貞”, 以大終也.

상에 말하였다. 용육영정(用六永貞)은 끝을 성대하게 하는 것이다.

후과(侯果)의 풀이

용육(用六)은 아내의 법도이고 신하의 도리다. 이로움이 영구하게 바르게 함에 있다. 영구하게 바르지 않으면 능히 끝을 성대하게 하는 양의 일을 행하지 못한다.

후과(侯果) 풀이의 해설

용육(用六)이 아내와 신하의 법도라고 함은 길이 영구함이 근본이다. 유순함이 능히 영구하지 않은 까닭에 이로움이 길이 바름에 있게 된다. 양(陽)은 大가 되고, 육(六)은 변하면 양(陽)이 된다. 이는 양(陽)의 큰 것으로써 양(陽)의 일을 마치는 것이다. 이른바 땅의 도는 이름은 없으나 대신 끝은 있다고 하는 그 말이다. 그러므로 용육(用六) 영정(永貞)은 끝을 성대하게 하는 일이다. 만약 능히 양(陽)의 강함으로써 하지 않으면 바른 도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함이고, 바른 도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능히 양(陽)의 일을 끝까지 성대하게 할 수 없다.

우안(愚案)

중천건(重天乾䷀)은 머리가 없다는 것은 빙빙 돌면서 그 실마리를 보지 못함이다. 중지곤(重地坤䷁)이 끝을 성대하게 한다고 함은 미루어 그 막힘을 찾을 수가 없다. 빙빙 돌아 번갈아 운행하는 천도의 변화가 이처럼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의 두 작용에서 나타날 뿐이다.

○ 덧붙이는 말

① 유약한 성격의 음이 바르고 영구하지 못하면 끝까지 하늘의 군센 덕을 받들어 섬기기 어렵다. 그러므로 영구하고 바르게 해야한다고 말했고 용육(用六)의 영구하고 바르게 하는 처신의 아름다움은 끝을 성대하게 하는 것이라는 성인의 해석이다.

문언완
文言曰,

문언에서 말한다

하타(何妥)의 풀이

중지곤 문언에서 유일한 하나의 이치는 한 마음으로 주인을 유순하게 받드는 것이다.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음(陰)은 양(陽)으로써 주인을 삼고, 중지곤(重地坤䷁)은 한 마음으로 중천건(重天乾䷀)을 받들어 순종한다. 그러므로 문언(文言)에서 그것이 유일한 하나의 이치라고 하였다. 이를테면 건(乾䷀)과 곤(坤䷁)은 역의 문호다. 그러므로 특별히 문언에 이를 붙여서 음양(陰陽)·강유(剛柔)의 큰 뜻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 중천건(重天乾䷀)은 위치가 머리다. 중지곤(重地坤䷁)은 차례가 중천건(重天乾䷀)의 다음이다. 그러므로 중천건(重天乾䷀)은 덧붙이는 말이 더욱 상세하고, 중지곤(重地坤䷁)은 좀 더 간략하다.

곤지유
坤至柔

곤은 지극히 유순하다.

순상(荀爽)의 풀이

순음(純陰)은 지극히 유순(柔順)하다. 그러므로 유순하다는 유(柔)로 설명했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잡괘(雜卦)에 ‘중천건(重天乾䷀)은 강하고 중지곤(重地坤䷁)은 유순하다(乾剛坤柔)’고 하였다. 우변은 그곳의 주석에서 중지곤(重地坤䷁)은 음(陰)이니 조화롭고 유순(柔順)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유(柔)라고 했다는 게 순상의 뜻이다.

이동야강
而動也剛,

움직임은 강하고,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곤(坤䷁)의 초효가 변하면 진(震䷲)이다. 음(陰)이 변해 움직이면 양(陽)이

생겨나는 까닭에 움직임은 강(剛)하다고 하였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설괘에 땅의 도를 세워 유(柔)와 강(剛)이라고 하였다. 땅의 본질은 유순(柔順)하다. 그러나 그 작용은 강(剛)하다. 대개 고요하면 음(陰)이 생겨나고 음(陰)인 까닭에 유순(柔順)하다. 움직이면 양(陽)이 생겨나고 양(陽)인 까닭에 굳세다. 초효(初爻)가 움직이면 진(震☳)을 이룬다. 이효(二爻)가 움직이면 감(坎☵)을 이룬다. 삼효(三爻)가 움직이면 간(艮☶)을 이룬다. 모두 움직이면 건(乾☰)을 이룬다. 초효(初爻) 삼효(三爻) 오효(五爻)가 움직이면 수화기제(水火既濟☵☲)를 이룬다. 그러므로 움직임은 굳세다고 하였다.

지 정 이 덕 방
至靜而德方.

지극히 고요하되 덕이 方正하니

순상(荀爽)의 풀이

중지곤(重地坤☷)은 성질이 지극히 고요하다. 양(陽)을 얻어 움직여 사방(四方)에 펼쳐진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계사상전(繫辭上傳)에 무릇 곤(坤☷)은 고요함에는 단한다(흡翕)고 했으므로 성질은 지극히 고요하다. 양기(陽氣)를 느껴 움직이면 생명을 펼쳐 사방에 퍼지게 한다. 계사(繫辭)에 또 말하기를 그 움직임에는 열린다(벽關)고 하였다. 우변은 六二 직방대(直方大)를 주석하면서 방정(方正)함은 열림을 말하고, 음(陰)이 열리는 것이 방정(方正)함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덕(德)은 方正하다고 하였다.

후 득 주 이 유 상
後得主而有常,

뒤에 하면 주장함을 얻어서(이로움을 주장하여) 떳떳함이 있으며

우변(虞翻)의 풀이

중지곤(重地坤☷) 음은 앞서면 미혹하고 뒤에 하면 유순하여 떳떳함을 얻는다. 양이 初爻에서 나오면 震이다. 震은 주장함이 되고 떳떳함이 된다.

우변(虞翻) 풀이의 해설

重地坤은 성질이 陰이므로 앞서면 미혹하다. 뒤에 하면 유순하여 몇몇함을 얻는다는 것은 초효(初爻) 양(陽)이 변하여 진(震☳)이다. 진(震☳)은 뒤에 법칙이 있으므로(후유칙後有則) 뒤인 후(後)가 된다. 기물을 주장함(주기主器)은 주(主)가 된다. 세상에 지킴은 몇몇함이 된다. 그러므로 뒤에 하여 주장하면서 몇몇함이 있다고 하였다.

함 만 물 이 화 광
含萬物而化光. 含萬物而化光.

만물을 품어 드러나게 함(化)이 빛나니
간보(干寶)의 풀이

빛난다는 광(光)은 크다는 대(大)다. 중지곤(重地坤☷)은 만물을 머금어 갈무리한다. 하늘이 베푸는 기운을 유순하게 받들어 섬겨 드러냄이 빛난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단전에 말하기를 머금어 두루 함이 빛나고 크다고 하였다. 빛나고 크다고 함은 빛난다는 뜻 속에 크다는 大를 갖추어 포함하고 있다. 또 머금었다는 말에도 크다는 宏(宏)을 속에 함께 담고 있다. 설괘에 곤(坤☷)으로써 감춘다고 하였다(坤以藏之). 그러므로 중지곤(重地坤☷)은 만물을 머금어 갈무리한다. 고요함에 단히는 개념이다. 풍뢰익(風雷益☱☳) 단전에 하늘이 베풀고 땅이 낳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늘이 베푸는 기운을 유순하게 받들어 섬겨 드러냄이 빛난다고 하였다. 이는 움직임에 열린다는 개념이다. 계사상전에 곤(坤☷)의 변화(化)는 만물을 이룬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지곤(重地坤☷)은 작용을 화(化)의 개념으로 말하게 되니 곧 머금어 두루함이 빛나고 광대해서 갖가지 만물이 모두 형통하다는 뜻이다.

곤 도 기 순 호 승 천 이 시 행
坤道其順乎! 承天而時行.

곤(坤☷)의 도가 유순하구나! 하늘을 받들어 때로 행하느니라.

순상(荀爽)의 풀이

하늘이 베푸는 덕을 이어 좇음으로 인해 사시가 행해지는 것이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설괘에 곤(坤☷)은 유순함이라고 하였다. 일아(逸雅)에 위로 하늘에 유순하

다고 하였다. 하늘의 베푸는 덕을 이음은 하늘이 베풀고 땅이 낳는다는 뜻이다. 그로 인해 사시가 행해진다고 함은 건착도(乾鑿度)에 중지곤(重地坤䷁)은 유월(六月) 미(未)에서 자리가 곧다. 유월(六月)은 오른쪽으로 돌아 음(陰)이 움직이는 때로서 그 세월을 유순하게 받들어 이룬다. 그러므로 하늘을 섬겨 때로서 행한다고 하였다.

積善之家，必有餘慶，

선을 쌓은 집은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우번(虞翻)의 풀이

초효(初爻)를 말한다. 중천건(重天乾䷀)은 선(善)을 쌓는다는 적선(積善)이 된다. 중지곤(重地坤䷁)에서 양(陽)에 짝하여 지뢰복(地雷復䷗) 진(震䷲)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남은 경사(餘慶)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동북에서는 벼를 잃되 이에 마침내 경사가 있다고 말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초효(初爻)를 말한다고 함은 초육(初六)을 말한다. 중천건(重天乾䷀) 문언에 원(元)은 선(善)의 어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천건(重天乾䷀)은 선(善)이 된다. 초효(初爻)가 움직여 진(震䷲)이 되면 과상이 지뢰복(地雷復䷗)이다. 양(陽)이 초효(初爻)에서 불어나므로 선하다. 진(震䷲)은 오로지 전(專)이 되고 오로지 하면 쌓인다. 그러므로 선(善)을 쌓는다는 적선(積善)이 된다. 중지곤(重地坤䷁)은 모름지기 양(陽)을 멀하여 양(陽)의 도(道)는 불어나지 않는다. 중지곤(重地坤䷁) 가운데 잠겨서 곤(坤䷁)으로써 양(陽)에 짝함이 된다고 하였다. 곧 중지곤(重地坤䷁)을 멀하면서 드러나는 진(震䷲)이 바로 그 예다. 납갑(納甲)으로써 말하면 건(乾䷀) 양(陽)은 이십구일 곤(坤䷁) 을(乙)에서 소멸된다. 三日이면 다시 진(震䷲) 경(庚)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남은 경사가 된다. 곧 동북상봉(東北喪朋) 내종유경(乃終有慶)에 이 의미를 결부시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 덧붙이는 말

① 굳센 하늘의 덕에 비해 곤의 기질은 지극히 유순하지만 하늘의 이치를 실현하는 움직임에 있어서 보면 매우 굳세어서 유약하지만은 않다.

② 곤(坤☷)의 성질이 양처럼 적극적이지 못해 지극히 고요하지만 덕은 하늘의 이치를 쫓아서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까닭에 지극히 방정하다.

③ 따라서 하늘의 이치를 쫓아서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이로움으로 한결 같이 나아가면 이는 중지곤(重地坤☷)의 땃땃함이 되고 만물을 품어 이루는 빛나고 큰 덕이 된다.

④ 여기서도 땅의 덕은 하늘의 베푸는 이치를 받들어 어긋나지 않는 데 있음을 거듭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다.

積不善之家，必有餘殃.

不善을 쌓은 집은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으니,

우번(虞翻)의 풀이

중지곤(重地坤☷)은 선하지 못한 불선(不善)을 쌓으니 신하로써 군주를 죽인다. 중천건(重天乾☰)으로써 중지곤(重地坤☷)에 통하여 천풍구(天風姤☴)로서 손(巽☴)이 되니 이것은 남은 재앙이 된다.

안(案)

성인께서 가르침을 베푸심에 이치는 귀하고 따름은 마땅하다. 그러므로 부자는 먼저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괴력난신(怪力亂神)⁷⁷⁾을 말하지 않으셨다. 또 네 가지를 끊으셨으니 사사로운 뜻을 없게 하시며, 기필코 이루고자 않으시며 집착함을 두지 않으시며 자기를 없게 하셨다⁷⁸⁾. 지금 역(易)의 상(象)에서 하늘의 법도를 드날리시고자 하셔서 선(善)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불선을 쌓은 집은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는 양은 만물을 발생시키고 음은 죽이는 이치에 입각하여 하늘의 법도는 필연코 나라를 다스리거나 몸을 닦음에 옳을 쌓는 일

77) 논어 述而편의 인용문.(子 不語怪力亂神) 謝氏의 주석에 의하면 성인은 뽳뽳한 도리를 말하되 괴이함을 말하지 않으시며 덕을 말하되 힘을 말하지 않으시며 다스림을 말하되 어지러움을 말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도리를 말하되 신에 대해 말하지 않으신다고 하였다.

78) 논어 子罕편의 인용문.(子 絕四 毋意毋必毋固毋我) 주자의 주석에 따르면 意 私意야 必은 期必야 固는 執滯也 我는 私己也로 되어 있다.

로 근본을 삼아야 함을 밝히신 바다. 그러므로 중지곤(重地坤䷁)의 초육(初六) 음(陰)이 처음 생겨날 때 이 미세한 도리를 명심하고 깊이 경계하게 하는 말로 그 본질을 삼으셨다. 즉 선하지 못한 마음의 싹이 생겨나 점차 자라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심이니 해로운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나라를 지탱하고 가정을 계승해 나감에 군부와 신자가 덕을 함께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사에서도 선이 쌓이지 않으면 죽히 명성을 이루지 못하고, 악이 쌓이지 않으면 죽히 몸을 멀하게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 뜻이 바로 이곳의 가르침과 통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중천건(重天乾䷀) 양(陽)은 선(善)함이 된다. 중지곤(重地坤䷁) 음(陰)은 불선(不善)이 된다. 중지곤(重地坤䷁) 초육(初六)이 양(陽)을 녹이면 손(巽䷸)이 되면서 천풍구(天風姤䷫)가 되는데 이때 자라난 초효(初爻) 음(陰)이 양(陽)을 녹임이 불선(不善)이다. 손(巽䷸)은 높음이 되고 양(陽)이 점차 녹으면 음(陰)은 더욱 높아진다. 그러므로 선하지 못함을 쌓음이 된다. 신하로써 임금의 죽임은 음(陰)으로써 양(陽)을 녹이는 이치다. 중천건(重天乾䷀)으로써 중지곤(重地坤䷁)에 통하되 중지곤(重地坤䷁)으로써 손(巽䷸)이 생겨난다고 함은 중천건(重天乾䷀)으로 차오르면서 위에서 지극하면 태천괘가 되고, 중지곤(重地坤䷁)으로 아래에서 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천풍구(天風姤䷫)가 되니 그때 처음 음(陰)이 자라난 아래의 괘상이 손(巽䷸)이다. 이는 十六日 새벽에 나타나는 달빛 백(魄)이다. 괘상으로 손(巽䷸)이고 방위는 신(辛)이다. 양(陽)이 지극하면 음(陰)이 자라난다. 이는 여기서 말하는 남은 여양(餘殃)이다.

이정조(李鼎祚) 풀이의 해설

성인께서 괴력난신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함은 유명(幽冥)의 일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에서 다시 경사스러움과 재앙을 말씀하신 것은 화(禍)와 복(福)의 자취로서 하신 말씀이다. 성인께서 네 가지를 끊어 없게 하셨다고 함은 성인께서 이루려는 마음이 없으셨음을 뜻함에도 역에서 결단코 있음을 말씀하신 것은 선악(善惡)에 정해진 이치가 있음을

상기하기 위해서다. 양(陽)은 만물을 낳고 음(陰)은 죽이니 이는 반드시 그러한 이치다. 다만 중지곤(重地坤䷁) 초효(初爻) 음(陰)은 처음 생겨나 화(禍)의 기틀이 말미암아 성립된다. 스스로 눈이 밝지 못하면 쉽게 짐작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선(善)을 권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악을 방지하려는 뜻이 말할 수 없이 깊다. 대개 사특함을 막음은 정성스러움을 마음에 두고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겨 예에 돌아가게 하도록 하는 바이니, 장차 이를 권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단속해야만 한다. 가생(賈生)이 말하는 것처럼 악(惡)은 아직 싹이 나지 않았을 때 끊어 없게 하고, 미세할 때 미리 가르침으로 이끌어야 하니 사람들로 하여금 날로 선(善)을 행하고 악(惡)을 멀리하되 스스로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바로 그 뜻이다. 나라를 다스리고 몸을 닦음은 진실로 선을 쌓아나감을 아는 것이 근본이다. 그리고 미리 잘못될 조짐을 막아 재앙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하니 이는 장차 나라를 지탱하고 가계를 이어가면서 군주와 신하가 함께 덕과 선을 쌓고 명성을 이루며 악을 쌓아 몸을 망침에 이르지 않게 하는 지극한 도리일 것이다.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이룬다는 가르침을 어찌 하루라도 소홀히 여길 수 있겠는가.

신 시 기 군 자 시 기 부
臣弑其君，子弑其父，

신하가 군주를 시해하며 자식이 아버지를 죽임은

우번(虞翻)의 풀이

중지곤(重地坤䷁)으로 양(陽)을 녹이며 이효(二爻)까지 이르면 간(艮䷳)이니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상이고 다시 삼효(三爻)까지 이르면 천지비(天地否䷋)를 이루니 곧 신하가 임금의 죽이는 상(象)이다. 위와 아래가 사귀지 못하며 천하에 나라가 없으므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신하가 군주를 죽이고 있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중지곤(重地坤䷁) 음(陰)은 양(陽)을 녹인다. 기미(幾微)가 이미 나타나 위에 이르지 않았으면 그치지 않는다. 설괘(說卦)에 건(乾䷀)은 군(君)이 되고, 아버지가 된다고 했으니 아래 건(乾䷀)은 아버가 된다. 그러므로 녹여

가는 음(陰)의 진행이 이효(二爻)까지 이르면 패상은 천산돈(天山遯䷠)을 이룬다. 천산돈(天山遯䷠)은 아래가 간(艮䷳)이니 간(艮䷳)은 소자(少子)다. 이는 양(陽)을 멀해가는 때이므로 아버를 죽임이 된다. 또 위로 건(乾䷀)은 군주(君主)가 된다. 그러므로 삼효(三爻)까지 음(陰)이 자라나면 천지비(天地否䷋)를 이루니 아래 곤(坤䷁) 신하가 위의 양(陽) 건(乾䷀)을 녹여 임금을 죽임이 된다.

위와 아래가 사귀지 못하며 천하에 나라가 없다고 함은 천지비(天地否䷋) 단전의 문구다. 우는 그곳의 주석에서 신하로서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으로서 아버를 죽이므로 사람이 아니다. 그 이치가 서로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여기로 끌어와서 이 부분을 해석하였다.

비 일 조 일 석 지 고 기 소 유 래 자 점 의
非一朝一夕之故，其所由來者漸矣！

하루의 아침과 하루 저녁의 번고가 아니요, 점차 쌓여 이루어짐을 말미암아 온 것이니,

우번(虞翻)의 풀이

강효(剛爻)는 아침(朝)이 된다. 유효(柔爻)는 저녁(夕)이 된다. 건(乾䷀)은 차가움(寒)이 되고 곤(坤䷁)은 더위(暑)가 되니 서로 밀치면서 해(歲)를 이룬다. 그러므로 하루 아침과 하루 저녁의 연고가 아닌 점차 쌓여 이루어진 바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계사(繫辭) 상(上)에 강유(剛柔)는 주야(晝夜)의 상(象)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강효(剛爻)는 아침(朝)이 되고 유효(柔爻)는 저녁(夕)이 된다. 건(乾䷀)은 차가움(寒)이 된다고 함은 설괘문의 글이다. 重天乾은 十一月 子方에서 끝난다. 그러므로 차가움(寒)이 되고, 중지곤(重地坤䷁)은 유월(六月) 미방(未方)에서 끝난다. 따라서 더위(暑)가 된다. 일조(一朝)는 중천건(重天乾䷀) 초효(初爻)를 말한다. 삼효(三爻)까지 불어나면 지천태(地天泰䷊)를 이룬다. 일석(一夕)은 중지곤(重地坤䷁) 초효(初爻)다. 삼효(三爻)까지 자라나면 천지비(天地否䷋)가 된다. 하나의 양(陽)은 자(子)에서 시작하여 육양(六陽)을 거치면 중천건(重天乾䷀)을 이룬다. 하나의 음(陰)은 미(未)에서 시작해 여

첫 음(陰)을 거치면 중지곤(重地坤䷁)을 이룬다. 아침과 저녁이 되풀이하며 쌓여 해(歲)를 이룬다. 그러므로 하루 아침과 하루 저녁의 연고가 아닌 점차 쌓여 이루어진 바라고 하였다. 사기에 태사(太史) 공자서(公自敘)가 춘추(春秋)에서 시해된 임금이 삼십육(三十六)이고, 망한 나라가 오십이(五十二)라고 하였다. 그 까닭을 살펴보면 모두 그 본분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易)에서 실오라기만큼의 차이에도 어긋남은 천리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신하가 군주를 시해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임은 하루 아침과 하루 저녁의 연고가 아니니 점차 오래 쌓임을 인했다고 함이 곧 이효(二爻)의 나머지 글월이다. 또 천지비(天地否䷋) 삼효(三爻)가 사효(四爻)로 감은 점(漸䷴)이 된다. 그러므로 중지곤(重地坤䷁)에서 삼효(三爻)까지 녹아 천지비(天地否䷋)를 이름이 바로 점(漸䷴)의 뜻이다.

유 변 지 불 조 변 아
由辯之不早辯也.

일찍 분별해 알지 못함을 말미암은 결과다.

공영달(孔穎達)의 풀이

신하와 자식이 마음에 화를 불러올 것을 품고 있음에도 군주와 아버지가 일찍 그 기미를 분별해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이 글은 결국 군주와 아버지가 신하와 자식의 악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를 경계하는 글이 된다.

공영달(孔穎達) 풀이의 해설

정의(正義)에 말미암는다는 유(由)는 군주와 아버지가 밝게 분별하고 분별하지 못함을 말미암는다고 기술되어 있으니 이곳과 말은 다소 일치하지 않지만 뜻은 같다.

안(案)

계사(繫辭) 하(下)에 지뢰복(地雷復䷗)은 작으나 물을 분별한다(복소이변우물復小而辨于物)고 하였다. 우(虞)는 그곳의 주석에서 양(陽)이 처음 나타나는 까닭에 작다. 중천건(重天乾䷀)은 양물(陽物)이고 중지곤(重地坤䷁)은 음물(陰物)이다. 중천건(重天乾䷀)으로써 중지곤(重地坤䷁)에 자리 잡았으므로 物을 구별한다고 일컬었다. 중지곤(重地坤䷁)은 초효(初爻)가 움직이면

지뢰복(地雷復䷗)이 된다. 지뢰복(地雷復䷗) 초구(初九) 효사에 머지않아 회복한다(不遠復)고 했으니, 이는 일찍 분별해 앎을 뜻한다.

易曰, “履霜, 堅冰至.” 蓋言順也.

역에 말하기를,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 했으니, 이는 순차적임을 말한다.

순상(荀爽)의 풀이

서리는 중천건(重天乾䷀)의 명령이다. 중지곤(重地坤䷁) 아래에 중천건(重天乾䷀)이 얹드려 있다.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름이니 대개 순차적임을 말한다. 중천건(重天乾䷀)의 기운이 이에 더해진 성(性)이면 견고해진다. 신하가 군주의 명에 유순함으로 이루어짐을 본땀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서리가 중천건(重天乾䷀)의 명령이라고 함은 이미 앞에서 해석하였다. 중지곤(重地坤䷁)은 해(亥)에서 이루어지고 중천건(重天乾䷀)의 자리다. 그러므로 중지곤(重地坤䷁) 아래에 중천건(重天乾䷀)이 얹드려 있다. 서리 밟음을 말미암아 굳은 얼음이 이름은 그 기체가 차츰 순차적인 까닭에 대개 순차적이라고 하였다. 일아(逸雅)에 유순할 순(順)은 쫓는다 혹은 빙빙 돈다는 순(循)의 뜻이라고 하였다. 설문에 다시 순(循)은 순(順)이라고 하였다. 이는 순(順)과 순(循)이 같은 뜻을 의미한다. 이로써 보면 개언순(蓋言順)은 해석이 그 도를 좇아 이룬다는 순치기도(循致其道)에 있다. 맹자에 금지군자(今之君子) 과즉순지(過則順之)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지나침은 유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성인께서 사람들이 음(陰)의 성질에 유순하여 악(惡)을 쌓아 몸을 멀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신 까닭에 결구로서 유순할 순(順)의 뜻으로써 경계하는 바를 보여 말씀하셨다. 중천건(重天乾䷀)의 기운이 이에 더해지면 성(性)이 견고해진다고 함은 설괘에 건(乾䷀)은 차가움이 된다고 한 구절과 통한다. 차가운 기운이 여기에 더해지면 굳은 얼음이 된다. 음(陰)이 양(陽)의 성질에 유순하면 굳은 얼음이 이루어진다. 신하가 군주의 명에 유순하면 일을 이룰 수 있다. 그 상이 또한 이처럼 같다. 다만 순(荀)의 뜻은 음(陰)으로서 양(陽)에 유순함이 경전의 뜻이 아

닌 것을 두려워했을 뿐이다.

○ 덧붙이는 말

① 이 구절은 초육(初六)의 효사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

② 선(善)을 쌓은 집에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선하지 못함을 쌓은 집에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음은 사람이 먼저 자신이 행하는 바의 선악을 분명히 자각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③ 지혜가 밝은 자는 선하지 못한 기미의 악습이 자라나 점점 쌓이게 하지 않는다.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신하가 임금을 시해함은 이와 같이 작은 불선(不善)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이르는 이치를 꿰뚫어 보는 효사의 참 뜻이다.

^{직 기 정 야 방 기 의 야}
“直”其正也, “方”其義也.

직(直)은 그 바름이요 방(方)은 그 의(義)이니

우번(虞翻)의 풀이

이효(二爻)를 말한다. 양(陽)은 일컬어 곧은 직(直)이다. ‘중천건(重天乾䷀)은 기정야전(其靜也專) 기동야직(其動也直)’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직(直)은 그 바름이 된다. 방(方)은 벽(闢)을 말한다. 음(陰)이 열림은 방(方)이 된다. 중지곤(重地坤䷁)은 기정야흠(其靜也翕) 기동야벽(其動也闢)’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방(方)은 그 의(義)가 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이효(二爻)란 육이(六二) 효다. 양(陽)이 불어나 이효(二爻)에 이르면 호칭이 직(直)이다. 중천건(重天乾䷀)은 고요하면 오로지 쉬이지 않고, 움직임에 곧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直)은 그 바름이 된다고 함은 가의(賈誼)가 신서도술편(新書道術篇)에서 방정(方正)하고 곧아 왜곡되지 않음을 일컬어 바르다는 정(正)이라고 하였다. 설문에 바르다는 정(正)은 그칠 지(止)와 한 一의 합성어로 하나로서 그침이라고 하였다. 이를 주석에서는 하나를 지켜서 그친다(수일이지守一以止)고 하였으니 곧 공경(恭敬)하게 그치는 뜻이다. 중천건(重天乾䷀)을 공경(恭敬)함이 되니 이는 바름을 보여주는 중천건(重天乾䷀)의 덕(德)이다. 방(方)은 벽(闢)을 말한다고 함은 서경(書

經) 순전(舜典)에 네 門을 연다고 하고 공전(孔傳)에 사방의 문을 연다고 하여 개벽(開闢)을 쓰고 있으니 바로 그 예다. 음(陰)이 열림은 방(方)이 된다고 함은 음(陰)은 양(陽)에게 감동하여 열림이니 열림에 방정(方正)함이 되는 것이다. 중지곤(重地坤䷁)으로써 고요함에 닫히고 움직임에 열리는 이치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므로 방(方)은 그 의(義)가 된다고 함은 좌전은공 삼년에 가르치기를 의(義)와 방(方)으로써 한다고 했으니 이 뜻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虞)의 계사(繫辭) 주석에 중지곤(重地坤䷁)은 의(義)의 문(門)이 된다고 했으니 이는 옳다는 義가 중지곤(重地坤䷁)의 덕이기 때문이다.

군자경이직내의이방외경의업이덕불고
君子敬以直內，義以方外，敬義立而德不孤。

군자가 경(敬)으로써 안을 곧게 하고 의(義)로써 밖을 방정하게 하여, 敬·義가 확립되면 덕(德)이 외롭지 않으니,

우번(虞翻)의 풀이

양(陽)이 아래로부터 불어나 이효(二爻)에 있으므로 경이직내(敬以直內)이고, 곤(坤䷁)이 밖에 있기 때문에 의이방외(義以方外)다. 양(陽)이 태(兌䷹) 정(丁)에 나타나 서남(西南)에서는 벗을 얻되 이에 같은 부류와 행하는 까닭에 德은 외롭지 않다. 공자께서도 덕 있는 이에게는 반드시 이웃이 있다(德不孤 必有鄰)고 하였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양이 불어나 이효(二爻)에 이르렀다고 함은 중천건(重天乾䷀)에서 두려워함이 공경함이 되고, 또 움직여 변하면 곤되, 이효(二爻)는 안이 되므로 공경심으로 안을 곧게 한다는 해석이다. 곤(坤䷁)의 자리가 밖에 있고 곤(坤䷁)이 의(義)가 되며 또 방(方)이 되는데 오효(五爻)가 밖이 되므로 의(義)로써 밖을 방정(方正)하게 함이 된다고 보았다는 주장이다. 양(陽)이 불어나면서 이효(二爻)까지 자라나면 소성괘가 태(兌䷹)다. 태(兌䷹)는 정방(丁方)에서 나타나고 정(丁)은 남방(南方)이므로 서남(西南)에서 벗을 얻되 이에 같은 부류와 행한다고 보아 그것이 德은 외롭지 않음을 보여주는 이치라는 설명이다. 논어에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하였

다. 다시 이 구절을 끌어옴은 덕은 외롭지 않다는 구절이 그곳에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효(二爻)에서 공경심을 말하고, 오효(五爻)에서 의(義)로움을 이야기함은 오효(五爻)가 움직임에 이효(二爻)가 호응하며 음(陰)과 양(陽)이 덕(德)을 합하기 때문이다. 즉 덕이 외롭지 않다는 풀이는 여기에서 온다고 보았다.

“직 방 대 불 습 무 불 리 즉 불 의 기 소 행 야
“直方大，不習无不利”，則不疑其所行也.

직방대(直方大), 불습무불리(不習无不利)는 그 행하는 바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순상(荀爽)의 풀이

직방대(直方大)는 앞서 주장하는 중천건(重天乾䷀)의 덕이다.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은 중지곤(重地坤䷁)의 화답하는 덕이다. 양(陽)이 주장하면 음(陰)이 화답해 따르니 이롭지 않은 바가 없다. 그러므로 그 행할 바를 의심하지 않는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양의 움직임은 곧음이 된다. 감응하여 열림은 방정(方正)함이 된다. 양(陽)의 덕은 크다는 대(大)가 된다. 셋이 모두 중천건(重天乾䷀)이 주장해 만물이 시작하게 하는 덕이다. 중지곤(重地坤䷁)은 양(陽)의 곧고 방정하며 큰 덕을 익히지 않고도 받아들여 실현하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것은 곧 중지곤(重地坤䷁)이 중천건(重天乾䷀)에 화답하는 것이다. 양이 베풀지 않았음에도 음이 화답하면 양은 음을 의심한다. 양이 베풀었음에도 음이 화답하지 않는다면 음이 양을 의심함이다. 오직 양이 앞서 시작하게 하고 음이 화답해야 이롭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그 행하는 바를 의심하지 않는다. 이효(二爻)가 움직여 변하면 坎 의심이 된다. 변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는다.

○ 덧붙이는 말

① 이 구절은 육이(六二)의 효사에 대한 해석이니 아래에서 바르고 마땅하여 중정한 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② 육이(六二)의 효사에 있어서 곧게 하고 방정하게 함은 세상의 이치에

있어서 올바르게 마땅하게 처신하는 군자의 도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하늘의 이치에 입각하여 안은 육이(六二)와 같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밖은 마땅한 이치로 방정해야 한다.

③ 사람의 덕이 하늘에 대한 공경함과 마땅한 도리로 성대하게 되면 남들도 또한 공경과 마땅함으로 호응할 것이니 이는 덕이 외롭지 않은 게 된다.

④ 사람의 행동이 끝나면 치우쳐 간사하지 않다. 바르다면 겸손하여 공손하다. 마땅하다면 사물과 서로 다툼이 없다. 방정하다면 신중하여 성급하지 않다. 행실이 이와 같다면 행하는 바가 후덕하여 익히지 않아도 이로울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행하는 바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주역정의)

음 수 유 미 함 지 이 종 왕 사 불 감 성 야
陰雖有美, 含之以從王事, 弗敢成也.

음(陰)은 비록 아름다움이 있으나 이를 머금어 왕사에 종사하여 감히 이루지 말아야 하니,

순상(荀爽)의 풀이

육삼(六三)은 양(陽)의 자리니 아래 양(陽)이 엮드려 있다. 곤(坤☷)은 음(陰)의 패다. 비록 양(陽)이 엮드려 있으나 머금어 감추고 있어서 나타나지 않는다. 왕의 일을 쫓아 건(乾☰)의 명(命)을 기다려야 한다. 감히 스스로 이루지 말아야 한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아름다울 미(美)는 양(陽)을 말한다.三是 기수(奇數)이니 양(陽)의 자리다. 그러므로 아래에 양(陽)이 엮드려 있다고 한다. 六은 음효(陰爻)다. 모름지기 양(陽)이 아래에 엮드려 있으나 머금어 감추고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음으로서 양을 품고 있다고 우씨(虞氏)는 말한다. 천지비(天地否 ䷋)는 안의 소성패가 신하가 되고, 三은三公이 된다. 밖의 건(乾☰)은 군주가 되고 그 가운데 오효(五爻)는 천자가 된다. 삼효(三爻)와 오효(五爻)는 공(功)이 일치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삼효(三爻)가 왕의 일을 쫓음은 반드시 건(乾☰)의 명(命)을 기다려 움직이고 행실이 아름답다면 군주에게

그 공을 돌린다. 감히 스스로 이루고자 하지 않으니 이것이 아래에서 이름은 없다는 무성(無成)의 뜻이다.

지 도 야 처 도 야 신 도 야
地道也, 妻道也, 臣道也.

땅의 도이며 아내의 도이고 신하의 도이니

적현(翟玄)의 풀이

중지곤(重地坤䷁)에는 뜻이 이 세 가지가 있다.

적현(翟玄) 풀이의 해설

설괘에 중지곤(重地坤䷁)은 땅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땅의 도라고 하였다. 계사 상에서 건도(乾道)는 남자를 이루고, 곤도(坤道)는 여자를 이룬다고 하였다. 여자는 남자의 짝이 되므로 아내의 도가 된다고 하였다. 설괘에 건(乾䷀)은 군주가 된다고 했으니, 곤(坤䷁)은 당연히 신하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지곤(重地坤䷁)은 신하의 도라고 하였다. 이 셋은 모두 하늘과 중천건(重天乾䷀)은 높고 땅의 괘 중지곤(重地坤䷁)은 낮다는 뜻에 입각해 있다.

지 도 무 성 이 대 유 종 야
地道無成而代有終也.

땅의 도는 이름이 없고 대신하여 끝마침이 있는 것이다.

송충(宋衷)의 풀이

신하와 자식은 자기 자신에게 비록 아름다운 재질이 갖추어 있어도 위를 쫓아 움직이고 감히 자기의 명성을 이루고자 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땅도 하늘의 공을 마치게 함만 있어야 하며 신하는 군주의 일을 아내는 지아비의 사업을 끝마치게 함이 바른 덕이다. 그래서 하늘을 대신하여 끝마침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송충(宋衷) 풀이의 해설

논어에 주공이 지닌 아름다운 자질에도 앞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았으니 나머지는 족히 열거할 필요도 없다. 하물며 신하와 자식 된 도리에서 아버지와 군주를 섬김에 있어서겠는가! 반드시 자기의 아름다움을 숨기고 왕의 일을 좇아야 하니 일이 잘 되면 그 공을 군주에게 돌리고 감히 자기

의 명성을 이루고자 해서는 안 된다. 계사상전(繫辭上傳)에 건(乾☰)은 크게 시작함을 주장하고 곤(坤☷)은 거기에 응해 만물을 이룬다고 하였다. 이 도리는 만물이 한결 같다. 모두 중천건(重天乾☰)에서 시작되고 중지곤(重地坤☷)에서 끝난다. 물을 이룬다고 함은 곧 끝남을 뜻한다. 주어(周語)에 단양공(單襄公)이 덕을 이루는 끝이라고 하였으니 바로 그 뜻이 여기에 있다. 이룬다는 성(成)은 중지곤(重地坤☷)의 공(功)이지만 감히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름이 없다고 말했다. 마침이 있다는 것도 중지곤(重地坤☷)의 일이다. 그러나 스스로 감히 마쳤다고 말하지 않고 대신하여 마침이 있다고 했으니 이것이 굽힘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 만물은 중천건(重天乾☰)을 힘입어 시작할 뿐이 땅은 거기에 순응하여 응하기만 하고 스스로 주장해 하는 바는 없다. 그 결과 이름은 모두 중천건(重天乾☰)의 공을 이루므로 땅의 처지에서는 일을 이룬다고 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마침이 있다는 것도 모두 중천건(重天乾☰)의 일을 마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대신 마침이 있다고 하였다. 땅의 도는 하늘의 공을 대신해 마침을 미루어 보면 신하의 도는 군주의 도를 대신해 마치고 지어미의 도는 지아비의 사업을 대신해 마치니 이치는 모두 마찬가지다.

○ 덧붙이는 말

- ① 이 구절은 육삼(六三) 효사(爻辭)에 대한 뜻풀이다.
- ② 육삼(六三) 효는 자리가 아름다운 양이다. 그러나 중지곤(重地坤☷)의 덕은 하늘의 이치를 받들어 행하는 데 있다. 그것이 이루게 함은 없어도 끝마침은 있는 땅의 덕이다.
- ③ 하늘의 이치를 받드는 까닭에 땅은 만물을 이루는 덕도 자신의 덕으로 삼아서 안 된다. 그것이 진정한 땅의 도며 신하의 도며 아내의 도다.
- ④ 육삼(六三)은 아래 땅이 마무리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효로 보더라도 양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의 해석이 이와 같다.

천 지 변 화 초 목 번
天地變化, 草木蕃,

천지가 변화하면 초목이 번성하고
우번(虞翻)의 풀이

양(陽)이 불어나 삼효(三爻)에 이르면 지천태(地天泰䷊)를 이룬다. 하늘과 땅이 자리를 바꾸었다. 중천건(重天乾䷑)이 중지곤(重地坤䷁)을 변하게 하되 중지곤(重地坤䷁)이 중천건(重天乾䷑) 위로 올라서며 만물이 진(震䷲)에서 나오므로 천지가 변하고 화하여 초목이 번성하다.

우변(虞翻) 풀이의 해설

양(陽)이 불어나 중지곤(重地坤䷁) 삼효(三爻)에 이르면서 지천태(地天泰䷊)를 이루었을 때 패상은 하늘이 아래에 있고 땅이 위에 있으므로 하늘과 땅이 자리를 바꾸었다고 하였다. 그 뜻은 하늘과 땅이 서로 사귀는 의미이다. 양(陽)은 변(變)을 주장하고, 음(陰)은 화(化)를 주장한다. 중천건(重天乾䷑)이 중지곤(重地坤䷁)을 변하게 한다고 함은 양(陽)이 곤(坤䷁)에서 불어나 건(乾䷀)을 이루는 것이다. 중지곤(重地坤䷁)이 중천건(重天乾䷑) 위에 올라 있다고 함은 중지곤(重地坤䷁)은 본래 중천건(重天乾䷑)이 시작하면 따를 뿐이다. 그러므로 천지(天地)가 변화(變化)한다고 하였다. 지천태(地天泰䷊)의 바깥 호괘(互卦)는 우뢰 진(震䷲)이다. 만물은 진(震䷲)에서 나온다고 했으므로 진(震䷲)은 초목이 된다. 그것이 끝에는 무성해서 뚜렷해진다. 그러므로 초목이 번성한다고 하였다. 이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사귀어 만물이 통하는 이치다. 그러므로 천지가 사귀어 만물이 통함을 말하였다.

천 지 폐 현 인 은
天地閉，賢人隱.

천지가 닫히면 어진 사람이 숨나니,

우변(虞翻)의 풀이

사효(四爻)를 말한다. 지천태(地天泰䷊)가 뒤집어지면 패상이 천지비(天地否䷋)다. 중천건(重天乾䷑)은 어진 사람으로 보는데 중지곤(重地坤䷁) 가운데 숨은 채 감추어져 있다. 그때는 덕을 감소하게 하여 어려움을 피하며 녹(祿)으로서 영화롭고자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어진 사람이 숨는다고 하였다.

우변(虞翻) 풀이의 해설

사효(四爻)는 六四 효를 말한다. 중지곤(重地坤䷁)이 변하면 지천태(地天泰䷊)가 뒤집어져 천지비(天地否䷋)가 되니 사효(四爻)로부터 양(陽)이다. 이는 대

(大)가 가면서 형성되는 괘상이다. 사효(四爻)가 천지비(天地否䷋)·지천태(地天泰䷊)의 경계가 되는 자리이니 이 의미를 두고 우변은 사효(四爻)가 변하면서 지천태(地天泰䷊)가 뒤집어진 천지비(天地否䷋)의 괘상이라고 하였다. 한(漢) 번의수(樊毅脩) 서악묘기(西嶽廟記)에 지천태(地天泰䷊)의 기운은 천지비(天地否䷋)를 밀친 것이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다. 건문언(乾文言)에 어진 사람이 아래 있으나 돕는 자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천건(重天乾䷑)은 어진 사람이라고 일컫게 됨을 알 수 있다. 설괘(說卦)에 곤(坤䷁)으로서 감춘다고 하였으므로 어진 사람이 곤(坤䷁)의 가운데 은둔해 숨음도 알 수 있다. 덕을 검소하게 하여 녹으로써 영화를 누리지 않는다고 함은 천지비(天地否䷋) 상전(象傳)의 문구다. 여기서는 이를 인용하여 천지가 닫히면 어진 사람이 숨는다고 하는 상(象)을 밝히고 있다. 곧 이 말은 천지가 사귀지 못하면 만물이 소통하지 못함을 말한다.

역 환 易曰, “括囊, 无咎无譽.” 蓋言謹也.

역에 말하기를, ‘주머니 끈을 묶듯이 하면 허물도 없고 칭찬도 없다’ 하였으니, 대개 삼가야 함을 말한 것이다.

순상(荀爽)의 풀이

육사(六四)는 음(陰)의 자리다. 오효(五爻)에 바짝 붙어 비록 덕을 갖추어 있어도 마땅히 주머니 끈을 묶듯이 삼가고 두려워하며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

공영달(孔穎達)의 풀이

묶는다는 괄(括)은 결(結)의 뜻이다. 주머니 낭(囊)은 사물을 저장하는 도구이니 마음에 지혜를 저장해 품고 있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그 지혜를 간직하고 사용하지 않으므로 주머니 끈을 묶듯이 하는 괄낭(括囊)이다. 사물과 더불어 거스르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다. 공명(功名)이 드러나지 않는 까닭에 영예도 없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육효(六爻)가 네 번째 자리를 차지했으므로 덕을 갖추고 있다. 사효(四爻)가 오효(五爻) 자리에 가까우면 두려움이 많으므로 마땅히 크게 삼간다.

주머니끈을 묶듯이 하면 지혜를 감추고 빛을 감추었으니 두렵고 삼가면서
공경함이 그만큼 지극하다.

공영달(孔穎達) 풀이의 해설

묶는다는 괄(括)이 결(結)과 같은 뜻이라고 함은 앞에서 이미 다루었다.
주머니 낭(囊)이 사물을 저장하는 도구로 해석한다고 함은 시경 대아의
우탁우낭(于橐于囊)의 모진 주석 그대로다. 그곳에서는 주머니 낭(囊)을
전대 가운데 큰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마음에 지혜를 저장해 품고 있음
에 비유했다고 함은 지화명이(地火明夷䷣) 육사(六四)에서 명이(明夷䷣)의 마
음을 얻어 문정(門庭)을 벗어난다고 했으니 이는 사효(四爻)가 마음의 자
리가 되기 때문이다. 또 사효(四爻)가 변하면 호괘 감(坎䷜)이니 마음이 된
다. 그러므로 마음에 지혜를 감추고 있음이 된다. 마치 진(秦)나라의 저리
자질(樗里子疾), 한나라의 조착(趙錯), 진(晉)나라의 환범(桓範)을 지혜주
머니(지낭智囊)라 일컬었던 류를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지혜를 간직하고 사용하지 않으므로 주머니 끈을 묶듯이 한다는 괄낭(括
囊)이라고 함은 중용에 ‘국무도(國無道) 기묵족이용기묵족이용(其默足以容
其默足以容)’의 구절과 맥락이 일치한다. 오직 지혜를 안으로 감추고 있으
므로 그 처신이 사물에 거스르지 않아 허물이 없다. 더구나 안으로 감추
고만 있다면 지혜를 써서 공명이 드러나게 되지도 않으므로 영예도 없게
된다고 하였다.

○ 덧붙이는 말

① 이 구절은 육사(六四) 효사(爻辭)에 대한 뜻풀이다.

② 천지의 기운이 변하고 화하여 초목이 무성함은 하늘과 땅의 두 기운이
잘 사귀어 통하는 데 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막혀 있어 통하지 못하
면 어진 사람이 숨는다. 이는 모두 육오를 도와 세상을 다스리는 육사(六
四)의 역할에 달려 있다. 주머니 끈을 묶듯 어찌 삼가고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군 자 황 중 통 리 정 위 거 체
君子黃中通理, 正位居體,

군자가 황(黃)이 중심에 있어 이치에 통하여

우번(虞翻)의 풀이

오효(五爻)를 말한다. 중지곤(重地坤䷁)에서 불어나면 패상이 풍지관(風地觀䷓)이다. 땅의 색은 누렇고, 중지곤(重地坤䷁)은 이치 이(理)가 된다. 중천건(重天乾䷀)으로써 중지곤(重地坤䷁)에 통하므로 이치(理致)에 통한다고 하였다. 오효(五爻)는 양(陽)의 자리로서 바르므로 자리를 바르게 한다고 하였다. 간(艮䷳)은 거처함이 된다. 체(體)는 몸의 사지(四肢)를 말한다. 간(艮䷳)은 양 팔뚝(臂)이 되고 손(巽䷸)은 두 넓적다리(股)가 된다. 그러므로 황중통리(黃中通理), 정위거체(正位居體)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오효(五爻)는 육오(六五) 효(爻)다. 중지곤(重地坤䷁)으로 불어나면 패상이 풍지관(風地觀䷓)이 된다고 함은 양(陽)이 불어나면 음(陰)이 녹는다. 중지곤(重地坤䷁)도 불어난다고 할 수 있으니 불어난다는 뜻은 자라남이다. 중천건(重天乾䷀)에서 음이 初爻로부터 자라나 4효에 이르면 패상이 풍지관(風地觀䷓)을 이루게 됨을 말한다. 坤은 땅이 된다고 함은 설괘문의 구절이다. 하늘은 가물가물(玄)하고 땅은 누렇다. 그러므로 땅의 색은 누렇다고 하였다. 계사상전에 굽어보아 땅의 지리를 살핀다고 하였다. 건착도(乾鑿度)에 땅은 고요하여 이치가 마땅한 의(義)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지곤(重地坤䷁)은 이치 理가 된다. 풍지관(風地觀䷓)은 양이 중천건(重天乾䷀)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중천건(重天乾䷀)으로서 중지곤(重地坤䷁)에 통함이니 이치에 통한다는 통리(通理)다. 자리가 中이고 색이 황색이므로 황중통리(黃中通理)다. 맹자가 천하의 바른 이치를 세운다고 했으니 조기(趙岐)의 주석에 따르면 자리를 바르게 함은 남자이니 순수한 건(乾䷀)이다. 올바른 양(陽)의 자리를 말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오효 양으로서 자리를 바르게 함이 된다. 설괘에 간(艮䷳)은 그침이 된다고 하였다. 또 문궐(門闕)도 되므로 거처함이 된다. 중용에 사체(四體)를 움직인다는 구절이 있으니 거기서 체(體)는 사지(四肢)를 말한다. 설괘전에 간(艮䷳)은 손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두 팔뚝이 된다. 또 손(巽䷸)은 넓적다리가 된다고 했으므로 넓적다리가 된다. 두 개의 팔뚝과 두개의 넓적다리가 모두 갖추어진다면 이는

4지가 갖춰짐이 된다. 풍지관(風地觀䷓)은 오효(五爻)의 괘상이 손(巽䷸)이고 외호괘는 간(艮䷳)이다. 그러므로 정위거체(正位居體)가 된다. 황중통리(黃中通理)는 그 안을 말하고 정위거체(正位居體)는 바깥과 관계되는 말이다.

^미 ^제 ^기 ^중 ^이 ^왕 ^어 ^사 ^지
美在其中, 而暢於四支, 美在其中,

아름다움이 가운데 있어 사지로 펼쳐져

우변(虞翻)의 풀이

양은 아름다울 미(美)라 일컬으니 오효(五爻) 가운데 있다. 사지(四支)는 넓적다리와 두 팔뚝을 말한다.

우변(虞翻) 풀이의 해설

중천건(重天乾䷀)의 덕은 아름다운 이로움(美利)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양(陽)은 아름다움이라 일컫는다. 풍지관(風地觀䷓) 오효(五爻)는 구(九) 양(陽)이 양(陽)의 자리에 거처하고 있으므로 아름다움이 그 가운데 있다. 사지(四支)는 넓적다리와 두 팔뚝을 말한다고 함은 앞에서 자세하게 다뤘다. 사지로 나타남은 곧 몸에 거처한다고 하는 그 뜻이다.

^발 ^어 ^사 ^업
發於事業,

사업으로 발휘되나니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하늘과 땅이 사귀어 만물이 생겨난다. 양(陽)의 덕은 잠겨 감춰져 숨었다가 변하면 펼쳐져 나타난다. 만약 오효(五爻)가 움직이면 수지비(水地比䷇)가 된다. 이에 사업이 성대해진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하늘과 땅이 사귀는 지천태(地天泰䷊)를 말한다. 지천태(地天泰䷊) 단전(彖傳)에 하늘과 땅이 사귀어 만물이 통한다. 통하므로 낳는다. 양(陽)의 덕은 잠겨 숨는다. 중천건(重天乾䷀)에 엮드림을 말한다. 변하면 중천건(重天乾䷀) 양(陽)이 펼쳐져 나타난다. 오효(五爻)가 움직여 변하면 수지비(水地比䷇)가 된다. 수지비(水地比䷇) 단전(彖傳)에 선왕이 이를 보고서 만국을 건립하여 제후와 친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업이 성대함이 된다. 이른바 자리를

바르게 함이다. 계사상전에 덕을 숭상하고 사업을 넓힌다고 하였다. 우변은 그곳의 주석에서 사업을 넓힘은 중지곤(重地坤䷁)의 덕을 법 받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중지곤(重地坤䷁)은 사업을 말한다.

미 지 지 야
美之至也!

아름다움의 지극함이다.

후과(侯果)의 풀이

육오(六五)는 치우치지 않고 호응하는(中和) 면에서 이치에 통하는 덕으로서 바른 자리에서 몸을 거처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심을 아름답게 채우고 만물을 두루 퍼져가게 하여 마땅하지 않음이 없다. 이는 아름다움의 지극함이다.

후과(侯果) 풀이의 해설

육오(六五)는 안으로 중화(中和)의 이치에 통하고 밖으로 바른 자리에서 몸을 거처하고 있다. 그러므로 능히 중심을 아름다움으로 채우고 있다. 아름다움이 그 가운데 있음은 곧 황중통리(黃中通理)다. 성인과 만물이 일체가 되므로 만물을 두루 퍼져가게 한다. 마치 사지에 펼쳐짐과 같으니 곧 거체(居體)를 말한다. 사업에 나타남은 곧 자리를 바르게 하여 부유한 대업을 이룸이다. 안과 밖으로 마땅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아름다움의 지극함이다. 좌전에 가운데가 아름다움은 (토의 덕인) 황(黃)이다. 위에서 아름다움은 원(元)이 된다. 아래서 아름다움은 치마 상(裳)이다. 육이(六二)를 해석하였다. 이효(二爻)와 오효(五爻)가 모두 중(中)이다. 그러므로 오효(五爻)도 또한 가운데가 아름다워 황(黃)의 뜻이 된다. 곤(坤䷁)의 덕을 칭송하여 ‘지극하구나 곤(坤䷁)의 원(元)이여’라고 했으니 이는 오효(五爻)에서 자리를 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니 위에서 아름다운 원(元)의 뜻이 된다. 오효(五爻)는 아래의 이효(二爻)와 호응하는 관계다. 이효(二爻)는 아래에서 몸을 거처하고 있으니 이는 아래에서 아름다운 상(裳)이다. 세 갈래의 아름다움이 갖춰지므로 아름다움의 지극함이다. 아름다움은 중천건(重天乾䷀)의 양(陽)이다. 중지곤(重地坤䷁)은 중천건(重天乾䷀) 양(陽)의 덕을 받들어 섬긴다. 그러므로 중천건(重天乾䷀)의 아름다움을 계승(繼承)하고 있다.

○ 덧붙이는 말

- ① 이 구절은 육오(六五) 효사(爻辭) “황상원길(黃裳元吉)”의 뜻풀이다.
- ② 땅의 색은 황색이다. 또 중앙의 색이고 효로 보면 육오(六五)에 해당하는다. 그러므로 황중(黃中)이다.(상씨역학)
- ③ 옥편에 보면 이(理)는 무늬의 뜻인 문(文)이다. 또 곤(坤☷)은 무늬(文)가 된다. 그러므로 육오(六五) 효(爻)는 천지자연의 문체에 통하는 통리(通理)다.(상씨역학) 주자에 따르면 여기까지 “황상원길(黃裳元吉)”의 황(黃)에 대한 해석이다.

육오(六五)가 중지곤(重地坤☷)의 가장 높은 자리이지만 하늘괘의 덕을 받들어 섬기는 점에서 보면 아래 자리다. 이는 치마 상(裳)의 해석이다.

- ④ 육오(六五)가 중지곤(重地坤☷)의 가장 높은 자리이면서 하늘의 이치를 받드는 바를 얻었다. 이는 정위거체(正位居體)이니 치마 상(裳)의 뜻이다. 한편 자신의 자리가 중지곤(重地坤☷)의 윗자리이면서 하늘의 이치를 따름은 아름다움을 그 가운데 두고 있는 땅의 덕이다.

중지곤(重地坤☷)의 효별 거체(居體)

전체적으로 하늘의 이치를 받들어 만물의 이로움을 주장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 뜻을 실현하는데도 각 효별 중심 개념의 개념을 살펴보면

초효가 삼갈 신(愼), 이효는 직방대(直方大), 삼효는 종왕사(從王事) 4효는 삼갈 근(謹), 오효는 황상(黃裳), 육효는 칭혈(稱血)이 된다.

- ⑤ 아름다움을 그 가운데 두고 있는 땅의 덕은 만물을 낳아 기르는 사업이 되어 밖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몸에 비유하면 가운데 있는 음(陰)의 아름다움이 사지(四肢)로 나타나는 황상(黃裳)의 지극함이다. 그러므로 매사는 크게 길하고 군자의 덕은 지극히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음의어양필전
陰疑於陽必戰,

음(陰)이 양(陽)을 의심하면 반드시 싸우니

맹희(孟喜)의 풀이

음(陰)이 위에서 깔보는 마음은 양(陽)을 의심하는 것과 같다. 반드시 양(陽)과 더불어 싸우게 된다.

맹희(孟喜) 풀이의 해설

음(陰)이 위에서 궁색해지면 변하여 양(陽)이 된다. 이는 양(陽)을 의심함과 같으므로 반드시 양(陽)과 더불어 싸운다.

안(案)

설괘전에 건(乾☰)에서 싸운다고 하였다. 음(陰)과 양(陽)이 서로 깔보는 것을 말한다. 중지곤(重地坤☷) 상육(上六)은 여러 양(陽)을 겸하고 있고 중천건(重天乾☰)과 더불어 덕이 합치된다. 싸워서 서로 부딪치면 능히 진(震☳)을 낳게 된다. 음(陰)이 양(陽)과 더불어 똑 같이 무성하기는 어려우니 그렇게 되면 능히 감화되지 못한다.

위 기 혐 어 무 양 야 고 칭 용 언
爲其嫌於无陽也, 故稱“龍”焉,

양(陽)이 없다고 의심할까 염려하였으므로 용이라 일컫되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음(陰)과 양(陽)은 함께 거쳐한다. 그러므로 양을 겸한다고 한다. 상육(上六)은 중지곤(重地坤☷)에서 움직여 해(亥)에 이른다. 아래에는 중천건(重天乾☰)이 엮드려 있다. 양(陽)은 그 변화를 용(龍)에 비유하였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중지곤(重地坤☷)은 10월 亥의 자리에 해당하는 괘상이다. 중천건(重天乾☰)은 서북(西北)쪽의 해방(亥方)에 거쳐한다. 이아(爾雅) 석천(釋天)에 10월을 양(陽)달이라고 하는 까닭이 곧 여기에 있다. 건착도(乾鑿度)에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은 두 기운이 술(戌)과 해(亥)에서 합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음(陰)과 양(陽)은 함께 거쳐하니 음(陰)이 양(陽)에게 함함으로 양(陽)을 겸한다고 하였다. 산지박(山地剝☶)의 상구(上九)가 육(六)으로 변하면 중지곤(重地坤☷)이 된다. 움직임이 10월 해에 이르렀을 때다. 중천건(重天乾☰)의 자리는 해(亥)에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 중천건(重天乾☰)이 엮드려 있다고 한다. 구가설괘(九家說卦)에 건(乾☰)은 용(龍)이 된다고 하였으니 양기(陽氣)로서 변화함은 용(龍)을 본떴다. 그러므로 용(龍)을 일컬어서 양(陽)을 나타냈다.

유 미 리 기 류 야 고 청 혈 언
猶未離其類也，故稱“血”焉。

아직 그 무리를 떠나지 않았으므로 피라 일컬었다.

순상(荀爽)의 풀이

실제는 중지곤(重地坤䷁)이다. 그러므로 그 무리를 떠나지 못한다. 혈(血)은 음(陰)으로서 양(陽)에 순응함의 비유다.

최근(崔觀)의 풀이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이 사귀어 만나니 건(乾䷀)은 대적(大赤)이 된다. 옆드려 있는 음(陰)은 유순하다. 그러므로 혈(血)이라 일컫는다고 하였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음(陰)은 양(陽)과 더불어 해(亥)에서 싸운다. 싸움이 지극해지면 아래로 자(子)에서 나온다. 변하여 양(陽)을 쫓는다. 그러나 실제는 중지곤(重地坤䷁)의 맨 위다. 마치 그 음(陰)의 무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과 같으므로 혈(血)이라는 개념의 비유로써 음(陰)을 대신하였다.

최근(崔觀) 풀이의 해설

해(亥)는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이 사귀어 모이는 곳이다. 건(乾䷀)이 대적(大赤)이 된다고 함은 설괘(說卦)의 인용문이다. 피의 색이니 형질로 말하면 음(陰)이고 성질은 옆드려 유순하다. 그러므로 혈(血)이라 일컫고 있다.

부 현 황 자 천 지 지 잡 야
夫玄黃者，天地之雜也，

무릇 검고 누런 것은 천지의 색깔이 섞인 것이니,

순상(荀爽)의 풀이

소식(消息)의 패로는 중지곤(重地坤䷁)이 해방(亥方)에 있다. 아래에 중천건이 옆드려 있는 자리다. 음(陰)과 양(陽)이 서로 화합해 있으므로 천지의 색깔이 섞였다고 말한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중지곤(重地坤䷁)은 소식패로 자리가 亥方이다. 중천건(重天乾䷀)은 후천도에

서 또한 자리가 西北의 亥方이니 아래에 중천건(重天乾䷀)이 얹드려 있다. 오직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이 자리를 함께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음양(陰陽)이 화합하고 있다고 하였다. 고공기(攷工記)에서도 말하기를 하늘은 말하자면 검고, 땅은 누렇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검고 누렇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색깔이 섞였다고 하였다.

천 현 이 지 황
天玄而地黃.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왕개(王凱)의 풀이

중천건(重天乾䷀)은 양(陽)이고, 중지곤(重地坤䷁)은 음(陰)이다. 위에서 사귀어 싸운다면 물러가며 양(陽)이 생겨난다. 양(陽)이 아래서 생겨남은 곧 지뢰복(地雷復䷗)으로 초효(初爻)가 자라나며 아래가 진(震䷲)이다. 설괘에 진(震䷲)은 현황(玄黃)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혈이 검고 누렇다.

순상(荀爽)의 풀이

하늘은 양(陽)이다. 동북(東北)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색은 검다. 땅은 음(陰)이다. 시작은 서남(西南)이다. 그러므로 색은 누렇다.

왕개(王凱) 풀이의 해설

중천건(重天乾䷀) 양(陽)이 중지곤(重地坤䷁) 음(陰)과 위에서 사귀어 싸우면 음(陰)은 양(陽)을 이기지 못한다. 오히려 물러나며 양(陽)을 낳게 되니 양(陽)이 아래에서 생겨나면 지뢰복(地雷復䷗)이 되고 초효(初爻)가 자라난 아래 소성괘는 진(震䷲)이다. 설괘에 그 진(震䷲)은 검고 누렇게 된다고 하였으니 혈(血)이 검고 누렇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향음주의(鄉飲酒義)에 하늘과 땅의 온후한 기운은 동북(東北)에서 시작한다고 하였다. 그 색현(色玄)의 의미는 설문(說文)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그곳에서는 흑이유적색왈현(黑而有赤色曰玄)이라고 하였다. 고공기(攷工記)에서도 남방(南方)은 적(赤)이 되고, 북방(北方)은 흑(黑)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동북(東北)에서 시작한 양기(陽氣)는 동남(東南)에서 성하므로 북방(北方)의 흑색(黑色)과 남방(南方)의 적색(赤色)을 곁했다면 색

(色)이 검다는 현(玄)이 될 것이다. 또 천지가 흑독하게 엉기는 기운은 서남(西南)에서 시작되고 서북(西北)에 극성해진다. 그러므로 땅인 음(陰)은 서남(西南)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그 색이 누렇다는 것은 서남(西南)은 곤(坤☷)의 자리이고 곤(坤☷)은 토(土)이므로 색이 누렇다.

○ 덧붙이는 말

- ① 이 구절은 상육(上六) 효사(爻辭)에 대한 뜻풀이다.
- ② 상육(上六)은 음(陰)이 매우 성하다. 양(陽)의 존재를 의심하고 자기 자신이 양(陽)을 자처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양(陽)과 싸운다. 이는 기미(幾微)가 처음 움직일 때 분별이 바르지 못한 필연적인 결과다.
- ③ 의(疑)는 음(陰)의 힘이 양(陽)과 비슷하고 대등하여 서로 크고 작은 차이가 없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 곤(坤☷)은 비록 양효(陽爻)가 없으나 양(陽)이 결코 없는 것은 아니다. 피는 음(陰)을 상징하는 말이고 용(龍)은 하늘패의 상징이었으니 검고 누른 천지의 색이 섞였다면 이는 음(陰)과 양(陽)이 모두 상했음을 뜻한다는 게 주자의 해석이다.

제 삼(三) 수뢰屯(水雷屯☳)79)

79)屯(屯☳)괘 원문

屯，元亨，利貞，勿用有攸往，利建侯。

彖曰，屯，剛柔始交而難生，動乎險中，大亨貞。雷雨之動滿盈，天造草昧，宜建侯而不寧。

象曰，雲雷，屯，君子以經綸。

初九，磐桓，利居貞，利建侯。

象曰，雖磐桓，志行正也，以貴下賤，大得民也。

六二，屯如，攴如。乘馬班如，匪寇婚媾，女子貞不字，十年乃字。

象曰，六二之難，乘剛也，十年乃字，反常也。

六三，即鹿无虞，惟入于林中，君子幾，不如舍，往吝。

象曰，“即鹿无虞”，以從禽也，“君子舍之，往吝”，窮也。

六四，乘馬班如，求婚媾，往吉，无不利。

象曰，求而往，明也。

九五，屯其膏。小，貞吉，大，貞凶。

象曰，“屯其膏”，施未光也。

위가 물괘 감(坎☵) 아래가 우뢰괘 진(震☳) 수뢰둔(水雷屯䷂)이다.

서괘월 유 천지 연 후 만물 생 연. 영 천지 지 간 자 유 만물 고 수 지 이 둔 둔 자 영 야
序卦曰 有天地然後萬物生焉. 盈天地之間者唯萬物, 故受之以屯, 屯者盈也,

둔 자 만물 지 시 생 야
屯者萬物之始生也.

서괘에 말했다. 천지가 있고 난 뒤에 만물이 생겨난다.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오직 만물이므로 이어 받기를 수뢰둔(水雷屯䷂)으로 하였다. 둔(屯䷂)이란 가득하다는 영(盈)이다. 만물의 처음 생겨난 괘(卦)다.

최근(崔觀)의 풀이

이 구절은 공자께서 문왕의 괘를 배치한 뜻을 서술하신 바다. 乾·坤의 다음이 된다고 屯괘의 차례를 기술하지 않으신 까닭은 만물이 처음 생겨난다는 둔(屯䷂)은 곧 천지(天地), 건(乾䷀)·곤(坤䷁)의 다음이 됨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경의 논리를 빌리면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고 했으므로 이는 만물의 선후에 있어서 마땅한 차례이다.

만물이 처음 생겨났다는 뜻은 강(剛)과 유(柔)가 처음 사귀어 만물이 생겨남에 중천건(重天乾䷀)이 시작하는 이치와 중지곤(重地坤䷁)의 북돋는 기운을 힘입기 때문이다.

최근(崔觀) 풀이의 해설

문왕 64괘는 그 차례가 서로 의지하여 각기 마땅한 뜻을 담고 있다. 그런 까닭에 공자께서 이를 밝혀 기술하시고 서괘(序卦)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는 역에 내재한 괘의 차례에 대한 설명이니 마치 서(書)에 서(書)의 차례가 있고 시(詩)에 시(詩)의 차례가 있는 이치와 같다. 본래는 따로 하나의 傳이 되어 유통되다가 이씨(李氏)가 괘의 차례가 되는 뜻으로 인해 괘의 전체적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각 괘의 머리에 서괘전(序卦傳)의

上六, 乘馬班如, 泣血漣如.

象曰, “泣血漣如”, 何可長也?

말을 취하여 배치해 두고 있다.

수뢰둔(水雷屯䷂)이 건(乾䷀)과 곤(坤䷁)의 다음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심은 건곤(乾坤)은 역의 문이 되기 때문이다. 그 까닭에 괘의 차례를 말씀하시면서 곤이 수뢰둔(水雷屯䷂)이 건(乾䷀)과 곤(坤䷁)의 다음이 된다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으며 셋이 만물을 낳는다는 구절은 노자 도덕경의 문구다.

여기서 하나란 태일(太一)이니 하늘이다. 둘은 음(陰)과 양(陽)을 말하는데 태일이 나누어지면 양의(兩儀)가 되는 까닭에 하나가 둘을 낳음이 된다. 둘은 하나와 더불어 셋이 된다. 그러므로 둘은 셋을 낳는다. 곡량전(穀梁傳)에 음(陰)은 홀로 만물을 낳지 못하며 양(陽)도 홀로 만물을 내지 못한다. 이는 하늘도 마찬가지다. 셋이 서로 합해진 뒤에 만물을 낳는다. 그러므로 셋이 만물(萬物)을 낳는다고 하였다. 건착도(乾鑿度)에 건곤(乾坤)은 서로 나란히 어울려 함께 작용한다 하였으니 어느 것이 먼저라고 그 차례를 정할 수가 없다. 천지가 만물을 낳는 것도 마찬가지다. 수뢰둔(水雷屯䷂)이 만물의 처음 생겨난 괘상이 된다는 것은 건곤(乾坤)의 뒤에 건(乾䷀)과 곤(坤䷁)이 처음 사괘에 감(坎䷜)과 진(震䷲)이 되어 처음에 있음을 말함이니 설괘전에 만물이 건방(乾方)에서 나온다는 바로 그 뜻이다. 대개 만물은 건(乾䷀)의 강(剛)을 힘입어 시작하고 곤(坤䷁)의柔를 힘입어 생겨난다고 했으므로 둔(屯䷂)이란 강(剛) 유(柔)가 처음 사귀어 만물이 처음 생겨나는 때가 된다. 둔(屯䷂)을 가득 찼다고 풀이함은 설문(說文)에 영(盈)을 그릇에 가득하다는 만기(滿器)라 했고 단전(象傳)에 우뢰와 비의 움직임이 가득하다고 한 까닭에 가득하다는 영(盈)이 되었다. 즉, 우뢰와 비의 가득 찬 형체로 말하면 둔(屯)은 영(盈)이다. 반면 강(剛)과 유(柔)가 처음 사귀어 생겨나는 이치로 말하면 만물시생(萬物始生)이다.

우안(愚案).

중지곤(重地坤䷁) 상육(上六) 효사(爻辭)에 그 피가 현황(玄黃)이라고 하였다. 물괘 감(坎䷜)은 피가 되고 우레 괘 진(震䷲)은 현황(玄黃)이 된다. 수뢰

둔(水雷屯䷂)은 괘상이 위가 물 감(坎☵), 아래는 우뢰 진(震☳)이다. 이는 음양(陰陽)이 서로 싸우고 난 뒤에 수뢰둔(水雷屯䷂)으로 어렵게 생겨나는 난생(難生)이 된다, 그러므로 수뢰둔(水雷屯䷂)이 중지곤(重地坤䷁)의 다음이다.

○ 괘의 차례 문제

① 세상의 이치는 하늘과 땅이 있고 난 뒤에 만물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건괘와 곤괘의 다음에 처음 생겨나 험하다는 수뢰둔(水雷屯䷂)이 오게 된다.

괘상의 설명. 아래는 우뢰 진(震☳), 위는 물괘 감(坎☵)이다.

○ 덧붙이는 말

① 둔은 위에 물 괘 감(坎☵)이 있고 아래에 우뢰 진(震☳)이 있는 괘상이다. 그러므로 읽기를 수뢰둔(水雷屯䷂)이라고 한다.

둔 원형이貞
屯 元亨利貞

둔은 크게 형통하고 곧음이 이로우니,
우번(虞翻)의 풀이

감(坎☵)의 이효(二爻)가 초효(初爻)로 가서 강유(剛柔)가 사귀어 진(震☳)이다. 그러므로 크게 형통한 원형(元亨)이다. 또 초효(初爻)로 가서 바른 자리를 얻게 되므로 이정(利貞)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사음이양(四陰二陽)의 예(例)로써 보면 마땅히 지택림(地澤臨䷒)과 풍지관(風地觀䷓)으로부터 왔다. 여기에서 감(坎☵)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건(乾☰)이 이(離☲)를 말미암아 감(坎☵)에 들고 곤(坤☷)에 합하여 진(震☳)이 되었다. 말하자면 그 피가 검고 누렇게 됨이니 곤괘 상육(上六) 효에서 말하는 그 대로다. 그러므로 감(坎☵)과 이효(二爻)가 초(初)로 가서 둔(屯䷂)을 이루었으며 화풍정(火風鼎䷱)과 더불어 방통(旁通)의 관계다. 이효(二爻)가 초효(初爻)로 가서 강유(剛柔)가 처음 사귀어 진(震☳)이 되니 이는 괘상이 형통하여 원형(元亨)이 된다.

양(陽)이 양(陽) 자리에서 올바르게 이효(二爻)로 간 음(陰) 또한 음(陰)

자리에서 올바르므로 이정(利貞)이다.

勿用有攸往, 利建侯

갈 바를 두지 말고 후(侯)를 세움이 이롭다.

우번(虞翻)의 풀이

움직여 밖에 위치함이 왕(往)이다.

초효(初爻)가 양(陽)인 진(震≡)이니 자리가 올바르다. 일어나 응하고자 하여 움직이면 자리가 어긋난다. 그러므로 가는 바를 두어서는 안 된다. 진(震≡)은 제후가 되고 초효(初爻) 양(陽)은 뽑기 어려운 까닭에 후(侯)를 세움이 이롭다. 노자도 잘 세운 것은 뽑기 어렵다고 하였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설문에 왕(往)은 간다는 지(之)라고 하였다. 밖으로 감을 왕(往)이라고 함은 역(易)의 범례다. 예컨대 지천태(地天泰䷊)의 곤(坤≡)은 밖에 있어서 소왕(小往)이 되고 천지비(天地否䷋)의 건(乾≡)은 밖에 있으므로 대왕(大往)이라고 함이 그 예다. 진(震≡) 초효(初爻)는 사효(四爻)와 서로 호응하는 관계로 잡괘전(雜卦傳)에는 진(震≡)을 일어남이라고 하였다. 일어나 밖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 사효(四爻)와 호응하고자 하되 사효(四爻)는 자리가 바르지 못한다. 이로써 움직이면 자리가 어긋난다고 하였다. 또 초효(初爻)는 진(震≡)에 있어서 행함이 되고 사효(四爻)는 감(坎≡)으로써 험하다. 나가서 움직이면 험함을 만난다. 그러므로 가는 바를 두어서는 안 된다. 진어(晉語)에 사공계자(司空季子)가 하찮은 일임에도 이루지 못함이 막힌다는 색(塞)이다. 그러므로 가는 바를 두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한 필부(匹夫)의 행위가 된다고 했으니 바로 그 뜻이다. 서괘전(序卦傳)에 말하기를 제기를 주관하는 자는 장자(長子)만한 이가 없으니 정(鼎䷱)을 진(震䷲)으로 받는 까닭이 된다고 하였다. 곧 진(震≡)은 제후다. 일례(逸禮) 왕도기(王度記)에 제후는 봉토가 백리(百里)를 지나지 않으니 우뢰의 진동이 백리(百里)를 놀라게 한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초효(初爻)는 아래에 있는 강효(剛爻)다. 중천건(重天乾䷀)에서도 초효(初爻)에 대해 말하기를 잠겨 있는 효(爻)라고 했으니 뽑기에 어려운 것이 확실하다고 하였다. 따라

서 초효(初爻)는 뽑기에 어렵다. 잘 세워진 것은 뽑히지 않는다는 문구는 노자 도덕경에 나온다. 이 구절을 여기서 인용한 의도는 중천건(重天乾䷀)의 초효(初爻)가 뽑히지 않는다는 이치를 분명하게 밝히는데 있다. 따라서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는 뜻이 된다.

○ 덧붙이는 말

① 하늘과 땅이 사귀어 생겨난 천지자연은 하늘과 땅의 천연스러움을 그대로 타고 난다. 그러므로 크게 형통하고 바름이 이롭다.

② 그러나 처음 만물이 생겨나 아직 막혀서 통하지는 못하다. 가는 바를 두어서는 안 된다.

③ 황제 내경에서 보면 물 괘 감(坎䷜)은 태양 한수이고 아래의 우뢰는 소양 상화다. 이는 수뢰둔(水雷屯䷂)의 괘상이 얼어붙은 땅 속에서 양기가 꿈틀거리며 하늘의 이치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보이는 모습이므로 크게 형통하고 바름이 이로운 상황이기도 하다.

④ 우레(下卦)와 구름(上卦)을 두고 둔(屯)이라 함은 건곤(乾坤) 음양(陰陽)이 처음 사귀되 서로 잘 응해 그 기운이 활짝 펼쳐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레는 움직임(動)이니 밖이 물 괄로 험하다. 험한 가운데서 힘차게 움직임은 둔(屯)이요, 또한 험한 가운데서도 힘차게 움직이니 형통하다.

⑤ 하늘로부터 만물이 생겨나는 처음이므로 마땅히 자기를 도와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덕 있는 도우미를 찾아야 한다. 당연히 편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또 편하지도 못한 때이다.

단 환 둔 강 유 시 교 이 난 생
象曰 屯 剛柔始交而難生

단전에 말하였다. 둔은 강(剛)과 유(柔)가 처음 사귀어 어려움이 생겼으며 우번(虞翻)의 풀이

건(乾䷀)은 강하고 곤(坤䷁)은 유순하다. 감(坎䷜)의 이효(二爻)가 초효(初爻)와 사귀므로 처음 사귀는 시교(始交)며 뽑기에 어려움이 확실하므로 어려움이 생기는 난생(難生)이다.

최근(崔觀)의 풀이

12월은 양(陽)이 처음 잠겨 자라나며 음(陰)과 사귀는 때다. 그러므로 강

유(剛柔)가 처음 사귄다고 하였다. 만물이 싹을 틔워 땅속에서 자라는 때니 차가워 얼음이 얼어 있는 겨울을 갓 지난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이를 사람의 일과 결부시키면 하나의 대통(大統)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大統)이 들어서는 시초의 때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건(乾☰)은 강(剛)하고 곤(坤☷)은 유순하다고 함은 잡괘전(雜卦傳)의 글이다. 괘가 감(坎☵)으로부터 오되, 감(坎☵) 이효(二爻)가 초효(初爻)와 사귀므로 처음 사귀어 된다. 말하자면 이는 원(元)이다. 수뢰둔(水雷屯☳)의 초효(初爻) 강(剛)이 중천건(重天乾☰)의 초효 강(剛)과 더불어 뜻이 일치한다. 그러므로 뽑기 어려운 게 확실한 확호난발(確乎難拔)이다. 설문에서는 둔(屯)에 대해 해설하기를 ‘어려울 난(難)이다. 초목이 처음 자라남을 본뜬 으니 어려운 모습이다. 풀(屮)이 하나(一)을 뚫고 나오니 여기서 하나란 지표며, 끝은 굽어져 있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둔(屯)은 어렵게 나오는 난생(難生)이다.

최근(崔觀) 풀이의 해설

이는 녹고 불어나는 소식(消息)의 이치로 말하였다. 사음이양(四陰二陽)의 괘는 지택림(地澤臨☱)으로부터 시작된다. 수뢰둔(水雷屯☳)은 지택림(地澤臨☱) 이효(二爻)가 위의 오효(五爻)로 올라간 괘다. 역위계람도(易緯稽覽圖)에 지택림(地澤臨☱)과 수뢰둔(水雷屯☳)⁸⁰⁾은 모두 12월 괘라고 하였다. 만물이 싹을 틔워 땅속에서 자란다. 양(陽)이地雷復 初爻로 생겨난 뒤 지택림(地澤臨☱) 이효(二爻)까지 자라나 중지곤(重地坤☷)의 음(陰)과 사귀므로 강(剛)과 유(柔)가 사귀는 강유시교(剛柔始交)라고 하였다. 만물이 싹터 땅가운데서 자라난다는 것은 호괘 진(震☳) 초효(初爻)가 처음 생겨나는 상이고 곤(坤☷)은 밖에 있으므로 땅속(地中)이라고 하였다. 월령(月令)에 “출토우이송한기(出土牛以送寒氣)”라는 구절⁸¹⁾이 있고, 또 “얼음이 처음 얼 때는 겉만 얼고 속은 얼지 않지만, 1,2월이 되면 뱃속까지 얼어붙는다”고 했으므로 차갑게 얼어붙는 어려움이 있게 된다. 수뢰둔(水雷屯☳)은 절

80) 주역 괘상의 월별 배치도

달					벽괘
10월	重山艮	水火既濟	火雷噬嗑	澤風大過	重地坤
9월	雷澤歸妹	天雷无妄	地火明夷	澤水困	山地剝
8월	重風巽	澤地萃	山天大畜	山火賁	風地觀
7월	雷風恒	水澤節	天火同人	山澤損	天地否
6월	火風鼎	雷火豐	風水渙	天澤履	天山遯
5월	火天大有	風火家人	水風井	澤山咸	天風姤
4월	火山旅	地水師	水地比	風天小畜	重天乾
3월	雷地豫	天水訟	山風蠱	澤火革	澤天夬
2월	水天需	澤雷隨	火地晉	雷水解	雷天大壯
1월	雷山小過	山水蒙	風雷益	風山漸	地天泰
12월	水雷屯	地山謙	火澤睽	地風升	地澤臨
11월	火水未濟	水山蹇	山雷頤	風澤中孚	地雷復

81) 월령 계동의 달에 대한 설명이다. 계동의 달에는 해가 무녀(婺女)성의 위치에 있는데 저녁에는 누성(婁星)이 남쪽 하늘의 가운데 있고 아침에는 저성(氐星)이 남쪽 하늘의 가운데 있다. 그 일진은 壬술이고, 상제는 전옥(顓頊) 보좌하는 신(神)은 현명(玄冥)이다. 벌레는 개충(介蟲)이고 소리는 우성(羽聲)이며 률(律)이 대려(大呂)에 호응한다.

그 數는 六이고 맛은 짜고(鹹) 냄새는 썩은 냄새(朽)가 난다. 제사는 행길에서 지내는데 제사에는 희생의 신장(腎臟)을 먼저 제물로 바친다. 기러기(安雁)가 북쪽을 향하고, 까치(作鵲)가 비로소 집을 짓고 꿩이 암컷을 찾아 울며 닭이 알을 낳는다. 천자는 현당 오른쪽 곁방(현당우개玄堂右介)에 거처하며 검은 수레(현로玄路)를 타고 철색의 말(철려鐵驪)을 멎게 하며 검은 기(현기玄旂)를 세우고 검은 옷을 입으며 현옥(玄玉)을 착용한다. 기장밥을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며 그릇은 가운데가 넓고 위가 좁은 것을 사용한다. 유사에게 명령하여 궁중에서 아귀를 쫓기 위하여 악기로 분장한 사람을 방상씨가 쫓던 연극의 의식을 거행하고 사방의 문에서 희생의 생체를 찢으며 흙으로 소를 만들어서 추위를 보낸다.(주석에서 인용하는 구절은 이 부분이다.) 새매 독수리 등의 맹금이 사나와지고 빨리 날게 된다. 이달 山川의 제사와 句芒 祝融의 神과 하늘과 땅의 신을 향해 제사를 마친다. 이달에 어부에게 명하여 비로소 물고기를 잡게 하고 천자가 몸소 가서 물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물고기를 맛보는데 먼저 寢廟에 올린다. 얼음이 처음 얼 때는 걸만 얼고 속은 얼지 않았지만 12월이 되면 속속들이 얼게 되므로 물과 못의 배가 견고하게 얼어붙으면 명령하여 얼음을 빙고에 채취하게 하여 모두 빙고에 넣게 한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오곡의 씨앗을 내놓게 하고 농사일을 맡은 관원에게 경작용의 기구를 갖추게 한다. 樂師에게 명령하여 해가 장차 다하려고 할 때에

기상 바로 소한(小寒)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난생(難生)의 까닭이 있다. 12월은 천도 운행의 기운이 거의 마치는 때이다. 동시에 새로운 한해가 다시 시작된다. 곧 하늘이 수뢰둔(水雷屯䷂)으로 움직이는 때이니 수뢰둔(水雷屯䷂)은 축(丑)에 있다. 이는 국가적(사용하는 책력)으로 처음 2월에 해당하니 아래에서 간씨(干氏)가 ‘수(水)의 기운이 장차 끝나고 목(木)의 덕이 시작하려 한다’고 말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옛 기운은 사라지고 새 기운이 일어남을 뜻하니 계절이 바뀌고 국가의 대업이 교체되는 때로 그 의미를 앞에서 말하면서 인사(人事)에 있어서 어려운(난難) 둔(屯䷂)의 때가 된다는 해석이다. 최근(崔覲)이 여기서 이와 같은 인사의 문제를 끌어들이는 까닭은 천시(天時)의 변화로 그 뜻을 밝히고자 함이다.

동 호 협 중 대 형 정
動 乎 險 中 大 亨 貞

험한 가운데서 움직이니 크게 형통하고 곧다.

순상(荀爽)의 풀이

사물의 어려움은 처음 비롯하는데 있다. 이는 본래 감(坎䷜)이다.

안(案)

초육(初六)은 이효(二爻)로 올라가고 구이(九二)는 초효(初爻)로 내려왔다. 이 점이 강(剛)과 유(柔)가 처음 사귀다는 뜻이다. 것처럼 사귀면 진(震䷲)이 이루어지고 진(震䷲)은 움직임이 된다. 그때 위로 험한 물 पै가 있으므로 험한 가운데서 움직이는 동호협중(動乎險中)이나 움직이며 만물이 소통되어 올바름을 얻었으므로 험한 가운데서 움직이나 크게 형통하고 바르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족인들과 함께 태침에서 크게 술잔치를 벌이고 음악을 연주시킨다. 그리고 중지하였다가 다음 해의 12월에 다시 그렇게 한다. 이에 사감에게 명령하여 매년 상례적으로 바치는 땀나무를 수납하여 교묘와 온갖제사의 땀나무와 햇불의 소용으로 공급하게 한다. 이 달의 해는 일년의 차서가 다하고 달은 해와 만나는 일년의 기회가 다하였으며 별들은 하늘을 한바퀴 돌아왔다.

설괘전의 말에 만물은 진(震☳)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진(震☳)은 처음 나오는 시생(始生)이다. 밖으로는 감(坎☵)을 만나 험한 데 빠져 있다. 여기에 설괘에서는 다시 감(坎☵)에서 수고롭다고 하였다. 최씨(崔氏)의 그곳 주석에 따르면 양기가 자(子)에서 엎드려 땅 가운데 숨어 있으니 능히 스며들어 자라지 못하고 수고로이 여러 음(陰)의 가운데에 갇혀 있다. 따라서 사물의 어려움이 처음 생겨남에 있다고 하였다. 수뢰屯(水雷屯 ䷂)은 (괘변으로 보면) 습감(習坎 ䷜)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이는 본래 감(坎☵)이라고 말한다.

이정조(李鼎祚) 풀이의 해설

초효(初爻)가 올라가고 이효(二爻)가 내려와 강유(剛柔)가 사괘에 진(震☳)이 된다. 진(震☳)을 움직임으로 보는 구절은 설괘전의 내용이다. 습감(習坎 ䷜) 단전(象傳)에 감(坎☵)은 거듭 험하다고도 했다. 따라서 험한 감(坎☵)이 위에 있고, 진(震☳)의 움직임이 아래에 있으니 험한 가운데 움직이는 패상이다. 사람이 험한 가운데에 놓여 능히 공손하고 삼가는 마음으로 처신하면 마침내 통하고 바르게 된다. 그러므로 크게 형통하고 바른 대형정(大亨貞)이라고 말한다.

우안(愚案)

초효(初爻) 양(陽)은 대(大)다. 움직이면 통하여 형통하고 바름을 얻어 곧다. 그러므로 상전(象傳)에서 대형정(大亨貞)이라고 하였다.

뢰 우 지 동 만 영
雷雨之動 滿盈

우레와 비의 움직임이 가득 찬 것이다.

순상(荀爽)의 풀이

우레가 진동하면서 비가 뿌려져 윤택하면 만물의 형체가 모습을 나타내면서 원만하다.

우번(虞翻)의 풀이

진(震☳)은 우뢰이고 감(坎☵)은 비며 곤(坤☷)은 형상(形象)이 된다. 삼효(三爻)가 이미 바른 자리로 돌아가면 수화기제(水火既濟 ䷾)가 된다. 감(坎☵) 물은 땅으로 흘러내리므로 만영(滿盈)이다. 이를테면 우뢰가 진동하면서 비

가 뿌려지면 만물이 뚜렷한 형체를 갖추게 된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설문(說文)에 우뢰와 비는 만물을 생동케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뢰로써 진동시키면 앞드려 있던 것들이 일어나고 비로써 윤택하게 하면 굶어져 있던 것은 뻗어간다. 이로써 만물이 뚜렷한 형체를 갖추면서 생동하게 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설괘전에 진(震䷲)은 우뢰라고 하였다. 또 비로써 윤택하게 한다는 말은 감(坎䷜)이다. 따라서 진(震䷲)이 우뢰이고 감(坎䷜)이 비라고 하였다. 계사상전(繫辭上傳)에 땅에 있어서 형체를 이룬다고 하였으므로 곤(坤䷁)은 형상이 된다. 여섯 효 가운데서 오직 삼효(三爻)만이 양(陽) 자리에 음(陰)이 와서 어긋난 자리다. 변해서 양(陽)이 된다면 여섯 효가 모두 바르게 되어 수화기제(水火既濟䷾)를 이룬다. 감(坎䷜)의 모양이 곤(坤䷁)에 들어 감(坎䷜) 물이 곤(坤䷁)으로 흐르는 형상이다. 형체가 가득하다는 만영(滿盈)은 곤(坤䷁)의 형체에 가득해짐을 말한다. 대개 수뢰둔(水雷屯䷂)은 중천건(重天乾䷀)과 더불어 뜻이 일치한다. 건(乾䷀)·곤(坤䷁)이 사귀어 수화기제(水火既濟䷾)를 이루므로 구름이 가고 비가 내려 만물이 형체를 갖춘다. 수뢰둔(水雷屯䷂)의 삼효(三爻)가 움직이면 수화기제(水火既濟䷾)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면서 비가 뿌려지면 만물이 뚜렷한 형체를 갖춘다.

천 조 초 메
天造草昧

하늘이 만물을 지음에 처음 나와 어지럽고 어두울 때는

순상(荀爽)의 풀이

양의 움직임이 아래에 있음이니 만물이 어두운 가운데서 생겨나는 뜻이 된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아래의 소성괘 진(震䷲)으로 움직이는 초효(初爻) 양(陽)이 내호괘(內互卦) 땅의 아래에 있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곤(坤䷁)은 밤이고 음(陰)에 속한다. 그러므로 어둡다는 명매(冥昧)다. 왕빙(王冰)이 현주밀어(玄珠密語)에

서 양(陽)은 생명을 창조하고 음(陰)은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순상은 만물이 어두운 가운데서 생겨난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또 둔(屯)은 풀이 땅의 지표 위로 뚫고 나오는 형상이니 초매(草昧)라 하였다.

의 건 후 이 불 녕
宜建侯而不寧

마땅히 제후를 세우되 편안하지 못함이니

순상(荀爽)의 풀이

천지가 처음 열리면 세상이 아직 어렵고 험하다. 우레 진(震☳)의 초효(初爻)가 건(乾☰)을 계승했으므로 마땅히 제후를 세운다는 의건후(宜建侯)요, 움직여서 험함을 만나므로 편하지 못하다.

우번(虞翻)의 풀이

조(造)는 생명을 창조함이다. 초(草)는 처음 생겨나는 만물이다. 곤(坤☷)은 어두워 매(昧)가 된다. 그러므로 천조초매(天造草昧)다. 수화기제(水火既濟 ☵☲)로 바뀌어야 자리가 모두 올바르게 편치 않다는 불녕(不寧)이다. 이는 편안함에 대한 언급이다.

간보(干寶)의 풀이

수(水)의 기운이 장차 끝나고 목덕(木德)이 시작될 무렵으로 은(殷)나라와 주(周)나라의 교체기다. 백성들은 어렵기만 하고 군자가 아니면 편치 못하다. 천하가 이미 어렵고 험한 때를 만났으니 후대의 왕들은 우뢰와 비로써 백성을 윤택하게 하는 정치를 마땅히 펼쳐야 한다. 그러므로 제후를 책봉하여 안녕을 도모해야 한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천지가 처음 열리면 세상이 아직 어렵고 험하다고 함은 건(乾☰)·곤(坤☷)의 뒤가 뒹을 뜻하니 궤의 차례가 둔(屯☳)으로써 이어져 있다. 둔(屯☳)은 아래의 우뢰괘 초효(初爻)가 장자(長子)가 된다. 위로 건(乾☰) 아버지를 계승한 까닭에 마땅히 제후를 세운다는 의건후(宜建侯)다. 안으로는 움직이는 진(震☳)이 있고 밖으로는 험한 감(坎☵)이다. 그때의 감(坎☵)은 수고로운 궤가 된다. 따라서 편치가 못하다. 좌전에 밖으로 편안함은 안으로 만드시

근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오직 편치 않게 여기기 때문에 편안하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양(陽)은 생명을 창조함이 된다. 그러므로 천조(天造)의 조(造)는 생명을 창조하는 조생(造生)이다.

둔(屯)은 풀이 땅을 뚫고 나오는 형상이다. 초(草)의 옛 글자는 초(屮)였다. 무릇 만물이 처음 생길 때는 초창(草創)이라고 한다. 논어에 비심초창지(裨諲草創之)⁸²라고 했으니 뜻이 이 구절과 일치한다. 따라서 초(草)는 초창기의 만물을 뜻한다고 하였다. 아래의 호괘는 땅괘 곤(坤☷)이다. 곤(坤☷)은 어두워 매(昧)가 된다고 한 우번의 말은 계사상전의 강유(剛柔)는 낮과 밤의 형상이라는 구절과 연결된다. 순상(荀爽)은 그곳의 주석에서 곤(坤☷)은 밤이 된다고 하였다. 설문에 어둡다는 명(冥)은 그윽함이니 민갓머리 변(冂)은 소리이고 또한 밤이다. 서경 요전(堯典)⁸³에 서쪽 땅에 살

82)논어 憲問편의 일절이다. 정나라에서 명령을 낼 적에 비심이 초안하고 세속이 검토하고, 행인 자우가 문장을 수정했으며 동리자산이 윤색했음을 공자는 말씀하신다. 본문 가운데서 언급 되는 草創의 뜻이 처음과 같다는 취지에서 인용하고 있다.

83)서경의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요전에 희씨와 화씨에게 명하시어 넓은 하늘을 삼가 따르시게 하시고 해·달·별의 운행을 관찰하여 사람들에게 때를 알리도록 하셨다. 희중에게 명하시어 우이에 살게 하니 곤 양곡이란 곳이며, 해가 뜨는 곳을 공손히 인도하여 봄 농사를 고르게 다스리도록 하셨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것과 鳥星으로 봄철을 바로잡으면 백성들은 들로 나가고 새와 짐승들은 교미를 하고 새끼를 쳤다. 다시 희숙에게 명하여 남쪽 교산에 살게 하니, 곤 명도라는 곳이며 여름의 농사일을 고르게 하고 경건히 해를 제사지내도록 하셨다. 해가 긴 것과 대화성으로 여름철을 바로 잡으면 백성들은 옷 벗고 일하고, 새와 짐승들은 털과 깃을 갈아 성글게 되었다. 화중에게 따로 명하시어 서쪽땅에 살게 하니 곤 매곡이며, 해가 지는 것을 공손히 전송하여 추수를 고르게 다스리도록 하셨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것과 허성으로 가을철을 바로잡으면 백성들은 기뻐하고 새와 짐승들은 털과 깃털을 갈았다. 다시 화숙에게 명하시어 북쪽 땅에 살게 하니 곤 유도이며, 겨울밭 일을 고르게 살피도록 하셨다. 해가 짧은 것과 묘성으로 겨울철을 바로잡으면, 백성들은 방안으로 들어가고 새와 짐승들은 솜털이 많이 났다.

게 하시니 매곡(昧谷)이라고 한다고 했다. 매(昧)는 주석에서 어두움이니, 해가 골짜기로 들어가 천하가 어두우므로 매곡(昧谷)이 된다고 했다. 이는 곤(坤☷)이 밤의 상으로 어둡다는 명(冥)이 된다. 명(冥)은 곧 어두움(昧)이니 진(震☳)의 초효(初爻) 양(陽)이 건(乾☰)으로부터 오되 건(乾☰)은 하늘이고, 하늘은 땅 가운데서 만물을 생겨나게 하므로 천조초매(天造草昧)다. 삼효(三爻)가 바르게 변해 수화기제(水火既濟☵☲)가 되면 여섯 효(爻)의 자리가 모두 안정되어 만국이 다 편안하다. 편하지 않다는 말은 시경의 드러나지 않음(불현不顯)으로써 드러남(현顯)을 삼는 이치와 같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가어(家語)에 은(殷)나라 사람은 수덕(水德)으로써 왕이 되고 주(周)나라 사람들은 목덕(木德)으로써 왕이 된다고 했으니 수뢰둔(水雷屯☵☳)은 감(坎☵) 궁의 이세(二世)괘에 해당하면서 감(坎☵) 水의 기운이 변해 진(震☳)·목(木)의 기운으로 옮겨가고 있으므로 수운(水運)이 장차 끝나 목덕(木德)이 시작되는 때로 보아 은(殷)나라와 주(周)나라의 교체시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했다. 백성들은 어렵기만 하다는 백성영영(百姓盈盈)이니 둔(屯)은 영(盈)이 되기 때문이다. 군자가 아니면 편안하지 못하다는 말은 육삼(六三) 효(爻)가 앞드려 있는 양(陽) 군자(君子)가 아니므로 편안하지 못하다. 천하가 이미 어렵고 험한 때를 만났다고 함은 은(殷)나라의 국운(國運)이 장차 기울고 있는 때에 비유했기 때문이다. 후대의 왕들은 우레와 비로써 백성을 윤택하게 했던 탕 임금의 정치를 마땅히 펼쳐야 한다는 문구는 주나라의 왕업이 바야흐로 시작되는 때의 경계사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늘의 덕을 계승한 제후를 들이 세워 어렵고 험난한 시절을 헤쳐 나가고 초기부터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마치 주공이 자신의 아우인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의 반란에 즈음하여 그 덕이 크지 못함을 애도하고 친척으로 하여금 제후로 내세워서 주(周)나라를 지키게 한 사례에 속한다 하겠다.

상 환 운 뢰 둔
象曰 雲雷屯

상전에 말하였다. 구름과 우뢰가 둔(屯☵☳)이니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우뢰와 비는 만물을 길러 흥기시킨다. 지금 둔(屯)이라고 말함은 12월은 우뢰가 땅 가운데 엎드려 있어서 장차 기를만한 때가 아니다. 그러므로 둔(屯)이라고 말한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비로써 윤택하게 함은 감(坎)이다. 구름이 변해 비가 뿌려 지므로 구름은 비로 이어진다. 물 감(坎)은 또한 구름으로 떠오르기도 하므로 위에 올라간 물이라면 곧 구름이다. 단전(象傳)에서 말하는 우뢰와 비는 가득한 형상을 빌려 하는 말이다. 한편 이곳 상전의 구름과 우뢰는 수뢰둔(水雷屯)의 때에 구름이 위에 있으면서 아직 비가 되지 못했음을 뜻한다. 만약 위의 감(坎)이 비로 뿌려진다면 위가 우뢰 아래가 물로 변한 뇌수해(雷水解)의 상이 될 것이다. 진(震)은 우뢰(雷)다. 우뢰로서 만물을 생동케 하면 만물이 일어나고 비로서 윤택하게 하면 만물이 길러진다. 그러므로 우뢰와 비의 특징은 만물을 일으켜 세워 기르는 데 있다. 수뢰둔(水雷屯)을 음양소식(陰陽消息)으로 말하면 12월의 괘(卦)다. 이때 우뢰는 땅속에 잠겨 있어서 비록 뇌우(雷雨)가 나타나 있기는 하나 아직 만물을 길러 자라게 할 수 있는 功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구름과 우뢰는 수뢰둔(水雷屯)이다.

군 자 이 경 론
君子以經論

군자가 보고서 경론한다.

순상(荀爽)의 풀이

잠겨서 어려운 때에는 만사가 대체로 빗나가기 쉽다. 경(經)의 뜻은 떳떳하다는 상(常)이고 론(論)은 다스림 혹은 이치에 해당하는 리(理)다. 군자이경론(以經論)은 떳떳한 법도를 잃지 않음이다.

요신(姚信)의 풀이

경(經)은 위(緯)의 뜻이다. 때가 잠겨 어려우니 이는 천지가 옷감을 짜듯 만물이 전개되는 시기다. 그러므로 군자는 이를 본받아 어렵고 험난한 일을 떳떳한 법도로써 다스려나간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잠겨 어려운 때를 당해 삼효(三爻) 음(陰)이 바르지 못하다. 수화기제(水火既濟䷾)를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만사가 어긋난다. 서경(書經) 주고(酒誥)⁸⁴에 덕을 경영하고 명철함을 지킴(경덕병철經德秉哲)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 공전(孔傳)에서는 능히 덕을 떳떳하게 하고 지혜를 보전함이라고 했다. 이로써 보면 경(經)은 상(常)이 된다. 다음의 논(論)은 석명(釋名)에서 룬(倫)이라고 했으니 곧 윤리(倫理)다. 그래서 순상은 논(論)은 리(理)의 뜻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 뜻은 만물이 크게 어두운 때를 당하여 군자가 만물을 생동케 하는 구름과 우뢰의 수뢰둔(水雷屯䷂)을 본받아 세상을 떳떳한 이치로서 마땅히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그는 하늘과 땅의 떳떳한 이치를 벗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요신(姚信) 풀이의 해설

천관(天官)에 보면 체국경야(體國經野)라는 구절이 있다. 주석에서는 이 구절의 뜻을 풀이하면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길은 경(經)이라 하고 동서로 통하는 길은 위(緯)라고 한다 하였다. 경위(經緯)라는 말은 곧 가로와 세로(종횡縱橫)를 일컫는 명칭이 됨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한편 석명(釋名)에서는 위(緯)가 에워쌌다는 위(圍)니, 되풀이 반복하여 에워쌌으로써 경(經)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경(經)은 곧 위(緯)다. 공(孔)은 이를 주석하면서 경(經)은 경위(經緯)를 말한다고 하였다. 또 룬(綸)은 그물(網)에 해당하니 종횡으로 이루어지는 배 짜기를 뜻하고 있다. 이처럼 모두 경론(經論)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경위(經緯)를 뜻한다고 해석한다. 둔(屯䷂)의 어려움은 12월의 때이기 때문이다. 패상이 지택림(地澤臨䷒)이면 삼효(三爻)가 변했을 때 지천태(地天泰䷊)가 되지만 수뢰둔(水雷屯䷂)에 있어서는 수화기제(水火既濟䷾)를 이루니 패상이 태(泰䷊)면 둔(屯䷂)이 풀린다. 당사징(唐史徵)은 구결의(口訣義)에서 이씨(李氏)의 말을 인용하면서 ‘구름은 음

84) 이편은 주나라가 은나라를 쳐서 혁명을 성공하고 옛 은나라의 술로 인한 퇴폐풍조를 일소하고 아름다운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특별히 康叔을 그 지역 통치자로 봉해 백성들이 떼지어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鄉飲酒禮를 제정하여 보급하려는 술에 대한 훈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陰)이고 우뢰는 양(陽)이다. 음양(陰陽)의 두 기운이 서로 부딪쳐 접촉하나 소통되지 못하고 있다. 피차 정이 서로 통하지 못하므로 어려움이 생겨난다(난생難生) 군자가 잠겨 어려운(둔난屯難) 때를 당해 평안하게 일 없고자 해서는 안 되고 몇몇한 이치로 때의 어려움을 구제해야 한다' 했으니 뜻이 역시 통한다.

○ 본받을 점

군자는 험한 가운데서도 하늘의 이치를 회복하고자 힘차게 움직이는 우뢰를 본받아 때의 어려움을 경영해 구하고자(경륜經綸) 부단히 힘써야 한다.

① 둔(屯䷂)은 물건이 처음 싹터 나오는 것을 뜻한다. 땅(艸)로 글자를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풀(초艸)이 처음 지표를 뚫고 나왔을 뿐 아직 뻗어 나가기 어려운 형상이다. 초목의 싹이 지표를 뚫고 나올 때는 일이 어렵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생겨난다는 난생(難生)이다.

② 둔(屯䷂)은 음(陰)속에서 움직이는 상이다. 하늘의 이치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에서 보면 매사가 크게 형통하다. 그러나 험함이 앞을 가로 막고 있어서 가는 바를 두어서는 안 된다.(물유유왕勿有攸往)이요, 어려울수록 세상의 일은 하늘의 바른 법도를 고수해야 한다.

초 구 반 환 이 거 정 이 건 후
初九 盤桓 利居貞 利建侯.

초구는 머뭇거리며 맴도니 바르게 처신하면 이로우며 후(侯)를 세움이 이롭다.

우번(虞翻)의 풀이

우뢰로 일어나서 산으로 그쳐 있다. 험한 가운데서 움직임으로 머뭇거리는 반환(盤桓)이다. 자리가 바르고 (위의) 백성들이 따르고 있으니 이거정(利居貞)이다. 군자가 그 방에 머물러 그윽히 삼가고 근심하여 (몇몇함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말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안의 우뢰는 떨쳐 일어남이 되고 외호괘 간(艮䷳)은 그침이 되며 바깥의 감(坎䷜)은 험한 뜻이 된다. 양(陽)인 우뢰가 험한 가운데서 움직이되 초효

(初爻)의 강함은 뽑기가 어렵다. 또 호괘 간(艮≡)을 만나 산으로 그쳐 있으므로 머뭇거리며 맴돌면서 나가기 어려운 형상이 있다. 이아(爾雅) 석수(釋水)에 구반(鉤盤)이라 했으니 손염(孫炎)은 그곳의 주석에서 물굽이가 갈고리처럼 돌아서 흐르니 머뭇거리며 맴돌면서 바로 흘러내리지 못함을 말한다고 하였다. 또 서경(書經) 우공(禹貢)⁸⁵편에 공물(貢物)은 (짐승의) 가죽으로 짠 용단이나 직물은 서경산으로부터 환수를(환桓) 돌아서 왔다는 구절이 있다. 정(鄭)은 이 구절의 주석에서 환(桓)은 룡관(隴阪)의 명칭이니 그 길이 선회하면서 다시 돌아갔다가 온다. 그러므로 머뭇거리며 맴돈다는 환(桓)이라고 하였다. 이는 경에서 말하는 반환(盤桓)의 뜻과 일치한다. 이효(二爻)가 가서 초효(初爻)에 머물므로 올바른 자리를 얻게 된다. 호괘(互卦) 곤(坤≡)은 백성이 되므로 득민(得民)이다. 간(艮≡)은 궁(宮)이 되고 곤(坤≡)은 문을 닫은 합호(闔戶)가 되며 초효가 간(艮≡) 곤(坤≡)의 아래에 있으니 집의 정원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불출호정(不出戶庭)이다. 따라서 바르게 거처함이 이롭다. 좌전(左傳) 민공(閔公) 원년에 처음 필만(畢萬)이 진(晉)에서 벼슬살이 하는 일에 대해 점쳤다. 그 결과 수뢰둔(水雷屯䷂)이 수지비(水地比䷇)로 변했다. 신료(辛廖)가 점에 대해 풀이하기를 “길하다. 수뢰둔(水雷屯䷂)이 수지비(水地比䷇)로 변했으니 무엇이 이보다 더 길하겠는가. 반드시 번창할 것이다. 우뢰 진(震≡)이 흠이 되고 수뢰가 말을 따르며 다리는 거처하고 형은 어른이 되고 어머니는 덮어주며 무리는 귀의한다. 여섯 체(體)가 바뀌지 않으니 합해 능히 견고하고 편안하되

85) 우공(禹貢)은 禹가 천하의 홍수를 다스리면서 물과 산 및 땅을 직접 지휘해 다스리면서 기후 산천 풍속 토질 등을 살펴서 천하를 九州로 나누어 각 지역의 특산물을 조사하고 토질의 등급을 정하며 또 풍년과 흉년 시의 작황을 살펴 평년작의 국가의 재정에 충당하던 기록이다. 편명을 禹貢이라고 일컫는 것은 당시의 백성들이 국가에 바치는 세금 방식과 관련이 있다. 세금은 대체로 국가에서 강제로 바치게 하는 개념을 賦라 하고 백성들이 스스로 납세하는 제도를 貢이 된다. 반면 당시 체제에서는 지방 국가가 매년 적정량을 스스로 판단하여 중앙정부에 貢物로 자진하여 바쳤기 때문에 이 장의 편명이 禹貢이다. 이 세법은 하나라 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한 집에 경작지 50묘 썩을 분배해 경작하고 십분의 일을 국가에 자진 납부케 하였다.

능히 죽임은 공후(公侯)의 패다. 그러므로 후(侯)를 세움이 이롭다. 군자가 삼가 은밀하게 하고 나서지 않는다 함은 계사상전의 문구이니 수택절(水澤節䷧) 초효(初爻)의 말인 호정(戶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구절에 대한 해석이다. 우번(虞翻)은 그곳의 주석에서 이효(二爻)가 움직여 변한 곤(坤䷁)은 은밀함이 된다. 괘상이 수뢰둔(水雷屯䷂)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바르게 거처함이 이로우므로 나가지 않는다. 이효(二爻)는 자리가 어긋나 있으므로 변해 바르게 되면 이와 같은 수택절(水澤節䷧) 초효(初爻)는 수뢰둔(水雷屯䷂) 초효(初爻)와 같으므로 이곳과 저곳에서 서로 같은 해석이 생겨난다.

○ 덧붙이는 말

- ① 초구(初九)는 아직 초효(初爻)이며 자리가 우뢰의 아래다. 힘차게 움직이되 머뭇거리기만 하는 모양이다.
- ② 초효(初爻)가 양(陽)의 자리이고 양효(陽爻)이니 뜻은 올바르다.
- ③ 험한 가운데서 힘차게 움직이는 우뢰다. 비록 자리는 아래지만 뜻이 바른 양효(陽爻)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형상이다.

상 환 수 반 환 지 행 정 야
象曰 雖盤桓 志行正也.

상전에 말한다. 비록 머뭇거리며 맴도나 뜻이 바름을 행한다.

순상(荀爽)의 풀이

반환(盤桓)이란 움직여 물러남이다, 양(陽)이 이효(二爻)를 따라 물러나 초효(初爻)에 거처 함이다. 비록 움직여 물러나나 바름을 얻게 된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움직여 물러난다는 표현은 머뭇거리며 맴도는 모양이다. 감(坎䷜)의 양(陽)이 이효(二爻)로부터 움직여 물러나서 초효(初爻)에 거처함이다. 비록 머뭇거리며 맴도는 게 나가기는 곤란한 모양이나 거처한 바의 행실은 바르다. 위로 응하는 감(坎䷜)은 뜻이 되고 우뢰는 움직임이 되므로 뜻이 바름을 행한다고 하였다.

이 귀 하 천 대 득 민 야
以貴下賤 大得民也

귀함으로써 천한테 몸을 낮추니 크게 백성을 얻는다.

순상(荀爽)의 풀이

양(陽)은 귀하나 음(陰)은 천하다고 함은 한서(漢書) 동중서전(董仲舒傳)에도 나온다. 양(陽)은 귀하니 군자가 되고 음(陰)은 천하니 백성이 된다. 양(陽)이 감(坎☵)의 이효(二爻)로부터 와서 초효(初爻)에 거쳐하니 이것이 귀함으로써 천(賤)한테 몸을 낮춘다는 뜻이다. 그 까닭에 백성을 얻게 된다. 좌전(左傳) 선공(宣公) 12년에 그 임금의 사람들에게 몸을 낮추니 반드시 신뢰를 얻어 백성들을 쓸 수 있다고 했으니 이는 바로 그 뜻이다. 초효(初爻) 양(陽)은 대(大)가 된다. 그러므로 백성을 얻는다.

육 이 둔 여 전 여
六二 屯如遭如

六二는 어렵게 여기고 머뭇거리며

순상(荀爽)의 풀이

양(陽)이 움직여 그치므로 둔여(屯如)다. 음(陰)이 양(陽)을 타고 있으므로 전여(遭如)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양(陽)이 아래에서 움직이되 이효(二爻)가 간(艮☶)으로 호응하여 그친다. 그러므로 머물러 나가기에 어려운 형상이 있다. 이효(二爻) 음(陰)은 초효(初爻) 양(陽)을 타고 있으니 유순한 효(爻)가 굳센 효(爻)를 타고 있다. 따라서 그쳐 나가지 못하는 형상이 있다

승 마 반 여
乘馬班如

말을 탔다가 내려오니

우번(虞翻)의 풀이

둔전(屯遭), 반환(盤桓)은 초효(初爻)를 말한다. 진(震☳)은 말의 발길질함이 된다. 이효(二爻)가 초효(初爻)를 타고 있으므로 승마(乘馬)다. 반(班)은 지(躋)의 뜻이다. 말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므로 나란히 선다는 반여(班如)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초효(初爻)의 강함은 뽑기에 어렵다. 그러므로 둔전(屯遭), 반환(盤桓)이니 모두 초효(初爻)를 말한다. 진(震☳)은 말의 발길질이 된다는 해석은 설패문에 나온다. 이효(二爻)가 초효(初爻)를 타고 있으므로 말을 타고 있는 형상이 있다. 밖으로 험한 감(坎☵)을 만나 나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반(班)은 뜻이 넘어지다, 혹은 곤란에 부딪친다는 지(躋)다. 자하(子夏)전에 반여(班如)는 서로 끌며 나가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말이 나가지 못하는 게 반여(班如)다.

비 구 혼 구 여 자 정 불 자 십 년 내 자
匪寇婚媾 女子貞不字 十年乃字

도적이 아닌 배우자다. 여자가 곧아서 생육을 하지 않다가 10년 만에 생육을 한다.

우번(虞翻)의 풀이

비(匪)는 아닐 비(非)다. 도적 구(寇)는 오효(五爻)를 말한다. 감(坎☵)은 도적이 된다. (이효의) 호응이 감(坎☵)에 있으므로 도적이 아닌 혼인하자는 것이다. 음(陰)과 양(陽)의 덕이 바르다. 그러므로 혼구(婚媾)가 된다. 자(字)는 임신(妊娠)이다. 삼효(三爻)는 자리가 어긋나 있다. 변해 바르게 회복되면 과상이 이(離☲)다. 이(離☲)는 여자가 되고 대복(大腹)이 된다. 그러므로 자(字)라 일컫는다. 지금은 어긋난 자리이기 때문에 곤(坤☷)이니 곤(坤)은 이(離☲)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여자가 곧아서 시집가지 않는 뜻이 있다. 그때 坤은 數가 10이다. 3효가 움직여 바르게 돌아오면 과상이 이(離☲)니 이(離☲) 여자는 대복(大腹)이다. 곧 10년에 몇몇한 이치로 돌아와 결혼하는 상(象)이니 수화기제(水火既濟☵☲)를 이루어 바르게 됨을 말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비(匪)와 비(非)는 옛과 지금의 같은 글자다. 이효(二爻)는 오효(五爻)와 호응관계다. 그러므로 효사의 구(寇)는 오효(五爻)를 말한다. 설패에 감(坎☵)은 도적이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감(坎☵)이 도적이 된다고 말하는 근거다. 호응이 감(坎☵)에 있으므로 도적이 아니라는 뜻은 아래에서 초효(初爻)를 얻지 못하면 장차 위로 오효(五爻)의 호응을 구한다. 그러므로 그치

게 되니 구하는 바 호응의 관계는 도적이 아님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음(陰)과 양(陽)은 덕이 바르므로 혼구(婚媾)가 된다고 함은 삼효(三爻)가 변해 바르게 됨이니 이효(二爻)가 이를 이어 음양(陰陽)의 덕이 바르면서 혼구(婚媾)가 된다. 설문에 자(字)는 유(乳)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字)는 임신(妊娠)이 된다고 하였다. 三爻는 양(陽) 자리이나 음효(陰爻)로 어긋나 있다. 그러므로 변해 바르게 된다면 이(離☲)가 되는데 그 때 복(復)은 돌이킨다는 반(反)이다. 변한 이(離☲)는 두 번 구해 여자가 됐으니 중녀(中女)다. 그러므로 이(離☲)는 여자가 된다. 또 이(離☲)는 대복(大腹)이 되므로 자(字)에 해당하는 妊娠이 된다. 지금은 삼효(三爻)가 어긋난 자리로 곤(坤☷)이므로 이(離☲) 상(象)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여자가 곧아서 시집가지 않음이 된다. 곤(坤☷)의 수(數)가 10이 된다고 함은 계사상전에 땅의 수는 十이라고 했으니 계(癸)의 수(數)다. 그러므로 수가 十年이다. 삼효(三爻)가 움직여 양(陽)으로 바르게 회복되면 이(離☲) 여자는 대복(大腹)이 되므로 10년에 몇몇한 이치로 돌아와 시집가서 아이를 낳는 의미가 된다. 삼효(三爻)가 움직여 바르게 되면 수화기제(水火既濟☵☲)를 이룬다고 함은 삼효(三爻)가 바르게 변하면 음양의 기운이 통하면서 모두 바른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안(愚案)

우씨(虞氏)의 역례(易例)에서는 음양(陰陽)의 효(爻)로써 남녀(男女)를 삼지 않는다. 사효(四爻)에서 혼인하기를 구한다고 함도 그 역시 삼효(三爻)가 변한 패상 이(離☲)로써 하는 말이다. 다만 자(字)를 임신(妊娠)으로 여김은 이미 시집간 뜻이니 곧아서 시집가지 않음은 아니다. 곡례에 여자허가변이자(女子許嫁笄而字)라는 구절이 있다. 거기서 자(字)는 허가(許嫁)의 뜻이 된다. 이효(二爻)가 초효(初爻)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불자(不字)다.

○ 덧붙이는 말

① 밖의 험한 물 괘를 앞에 두고 힘찬 우뢰 괘의 중정한 덕으로 처신한다. 또 육이(六二)의 짝은 윗자리의 구오(九五)다.

② 아래의 우뢰 괘로 초구(初九)의 위에서 함께 움직이므로 승마요, 호응의 관계에서 보면 초구(初九)가 본래 육이(六二)의 짝이 아니므로 말과 나란히 서 있는 반여(班如)다.

③자기 자신의 재질이 유약한 음(陰)이므로 음양(陰陽)이 사귀어 짝을 구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초구(初九)는 도적이 되고 위에서 호응관계에 있는 구오(九五)는 혼인을 구해오는 정식 배필이 된다.

④그 자신 음(陰)이면서도 아래의 중(中)을 차지한 덕이 있으므로 처신이 올곧은 바가 있다. 둔(屯䷂)의 때에 어려운 세상을 회복해 보려는 초구의 군자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다.(不字)

⑤오랜 세월(十年)을 기다려 자기 자신의 본래 정해진 배필을 찾아가니(乃字) 육이(六二)의 중정(中正)한 덕이 바르다.(女子貞)

※ 이곳 본문의 십 년이라는 의미는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①상하의 괘상으로 보면 선천 팔괘에서 감(坎☵)의 수는 육(六)이 되고 진(震☳)의 수는 사(四)가 되므로 합이 십(十)이다.

②육이(六二)로부터 상육(上六)을 거쳐 다시 구오(九五)에 이르는 효(爻)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그 효의 숫자가 또한 십(十)이 된다.

③호체(互體)로 바꾸어 생각하면 내호괘 곤(坤☷)과 외호괘 간(艮☶)의 합이 후천 팔괘(八卦)에서 십(十)의 수가 된다.

④十은 숫자의 가장 단위가 큰 수에 해당하므로 위 물 괘의 험한 상황이 풀리기까지 오랜 세월을 뜻하는 상징적인 수로 내세웠다고 볼 수도 있다.

한역 상수파는 주역의 괘효사가 모두 괘효의 상에 근거하여 말이 붙여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주역 본문 중의 글자는 하나도 막연하게 붙여진 글이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그 근거를 추구하는 과정에 착안하는 방법의 하나가 호괘(互卦)의 상에 주목하는 방법이다. 이를테면 내호괘라고 하면 수뢰둔(水雷屯䷂)의 육이(六二) 효(爻)로부터 육사(六四) 효(爻)까지의 세 획이 내호괘에 해당한다. 반면 외호괘는 아래의 육삼(六三)으로부터 육사(六四) 효(爻)와 위의 구오(九五) 효(爻)까지의 삼획괘가 외호괘이다. 그렇게 보면 수뢰둔(水雷屯䷂)의 내호괘는 땅 곤(坤☷)이고 곤(坤☷)은 여자의 상이 되므로 여자가 정조가 끝나서 십년(十年)을 기다려 시집간다고 하는 효사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본다. 이는 이

곳 주역집해의 관점이다. 그러나 수뢰屯(水雷屯䷂)의 육이(六二)에서는 반드시 호체(互體)설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십년을 기다려 시집간다는 문장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다. 육이(六二)의 정식 배필은 위의 구오(九五)로 서로 음양(陰陽) 합을 이루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상 환 육 이 지 난 승 강 야
象曰, 六二之難, 乘剛也,

상전(象傳)에 말한다. 육이(六二)의 어려움은 강(剛)을 탔기 때문이요,
최근(崔觀)의 풀이

아래로 육이(六二)가 초구(初九)를 타고 있으므로 어려움이 된다.

최근(崔觀) 풀이의 해설

둔여(屯如), 전여(澶如), 반여(班如)는 모두 나가기 어려운 상이다. 그러므로 六二의 어려움이라고 말한다. 아래에 초구(初九)의 강함을 타고 있음이 이효(二爻)의 어려움이 된다. 그러므로 강(剛)을 타고 있다는 승강(乘剛)을 말했다.

십 년 내 자 반 상 야
十年乃字, 反常也.

10년이 되어서야 생육을 함은 몇몇한 도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음(陰)이 곤(坤☷)에서 나와 지금 다시 곤(坤☷)이 되었다. 그러므로 몇몇한 도리로 돌아오는 반상(反常)이다. 음(陰)이 곤(坤☷)에서 나옴은 건(乾☰)이 두 번 구해 감(坎☵)을 얻음을 말한다. 지금은 변해 진(震☳)을 이루었다. 가운데 곤(坤☷)의 괘상이 있으므로 음이 坤에서 나와 지금 다시 곤(坤☷)이 됐다고 말했다. 이효(二爻)가 초효(初爻)를 따르면 이는 거슬림이고 오효(五爻)에 호응하면 유순하다. 거스름을 떠나 유순함을 좇음은 음양(陰陽)의 바른 도다. 이에 만물을 자라게 할 수 있으므로 십년내자(十年乃字)라고 하였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음(陰)이 곤(坤☷)에서 나왔다고 함은 진(震☳)과 감(坎☵)의 음이 모두 곤(坤☷)에서 나옴을 말한다. 건(乾☰)이 곤(坤☷)과 사귀어 두 번 째 자리를

얻게 되면 감(坎☵)이 된다. 그때 감(坎☵) 二爻가 움직여 초효(初爻)로 가면 진(震☳)이 된다. 가운데 패상은 곤(坤☷)이다. 이는 陰이 곤(坤☷)에서 나와 지금 다시 곤(坤☷)이 됐다고 말하는 이유로 그 까닭에 몇몇한 도리로 돌아오게 되는 반상(反常)이다. 다만 초효(初爻)를 따르면 거스름이 되고, 오효(五爻)에 호응하면 유순함이 된다. 초효로 가는 거스름을 떠나 오효(五爻)에게 나아가는 유순함으로 임하면 이음오양(二陰五陽)이 중(中)을 얻고 정(正)을 얻는다. 도리어 몇몇한 법도로 돌아간다. 이에 자라나고 양육할 수 있으므로 효사가 십년내자(十年乃字), 반상야(反常也)다.

우안(愚案)

진(震☳)은 돌아와 생겨난다는 반생(反生)이라고 했으므로 돌아가는 反이 된다. 세상에서 지킴은 몇몇함이 된다. 곤(坤☷) 십년을 지나서 오효(五爻)에게 시집가면 음양(陰陽)의 호응이 바르다. 그러므로 몇몇한 도리로 돌아오게 되는 반귀상도(反歸常道)의 뜻이다.

육삼 즉록무우 유입우림중
六三, 卽鹿无虞, 惟入于林中,

六三是 사슴을 좇되 길잡이(虞人)가 없어 길을 잃고 숲 가운데 빠져 들어갈 뿐이니,

우번(虞翻)의 풀이

즉(卽)은 좇다 혹은 나아간다는 뜻의 취(就)다. 우(虞)는 우인(虞人)을 말한다. 금수(禽獸)를 관장하는 사람이다. 간(艮☶)은 산(山)이 되니 (삼효는) 산족(山足)인 록(鹿-산기슭 麓을 뜻하는 듯)과 통한다. 또 녹(鹿)은 수풀이다. 삼효(三爻)가 변하면 패상이 감(坎☵)이다. 감(坎☵)은 떨기나무(총목 叢木)가 되고 산 아래에 있으므로 숲 가운데라는 효사가 생겨난다. 곤(坤☷)은 외뿔 들소(시兕)나 호랑이가 된다. 진(震☳)은 미록(麋鹿)도 되고, 놀라 달리는 경주의 의미도 되며 간(艮☶)은 여우와 이리도 된다. 삼효(三爻)가 변하면 금수(禽獸)가 달려 숲 가운데로 달려 들어간다. 그러므로 효사가 즉록무우(卽鹿无虞) 유입우림중(惟入于林中)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즉(卽)이 좇다 혹은 나아간다는 뜻의 취(就)라는 해석은 설문의 인용이다.

우(虞)는 우인(虞人)을 뜻하고 금수(禽獸)를 관장하는 사람이라는 해석은 주례(周禮) 지관(地官)의 ‘산우(山虞)는 산림을 관장하는 직분의 우두머리이니 마치 대전렵(大田獵)은 산야에 풀이 처음 났을 때이니 사냥을 결단할 때는 그 가운데 우기(虞旗)를 꽂아 금수가 이름에 활용한다’는 구절과 용법이 일치한다. 록(鹿)은 왕숙(王肅)본에 산기슭 록(麓)으로 되어 있다. 시경(詩經) 대아(大雅)편에 침피한록(瞻彼旱麓)이라고 하였다. 주어(周語)는 인용하면서 한록(旱鹿)이라고 했으니 옛글자에 있어서는 록(鹿)과 록(麓)이 서로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뜻을 살펴보면 시경(詩經) 모전(毛傳)에서 록(麓)은 산족(山足)이라고 하였다. 삼효(三爻)는 호괘(互卦)가 간(艮≡)이고 설괘에서는 간(艮≡)이 산(山)이라고 하였다. 그 가운데 三爻 간(艮≡)의 아래 자리이므로 山足인 록(鹿)-산기슭 麓)과 통한다고 보는 것이다. 녹(鹿)은 수풀이라고 함은 춘추 희공 14년에 사록(沙鹿)이 붕괴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곡량전에서는 숲(林)은 山에 속하니 록(鹿)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록(鹿)과 록(麓)이 서로 통한다는 증거다. 삼효(三爻)가 변하면 아래 괘상은 감(坎≡)을 이루니 구가설괘(九家說卦)에서는 감(坎≡)은 떨기 가시나무(叢棘)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감(坎≡)은 총목(叢木)이라고 하였다. 나무는 산 아래에 있으므로 수풀 가운데를 말하게 된다. 설괘(說卦)에 곤(坤≡)은 자모우(子母牛)가 된다고 하였다. 석수(釋獸)에서는 시(兕)는 소와 흡사하다고 하였다. 설문에 시(兕)는 형상이 들소와 같다고 하였다. 곤(坤≡)은 호랑이가 되는데 그 설을 중천건(重天乾䷀)의 풍중호(風從虎)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곤(坤≡)은 외뿔 들소(兕)나 호랑이가 된다는 논리다. 설문에 미(麋)는 록(鹿)의 무리라고 하였다. 자통에 녹(鹿)은 성질이 놀라기를 잘한다고 하였다. 중뢰진(重雷震䷲) 괘사(卦辭)에 진경백리(震驚百里)라는 구절이 있다. 그러므로 진(震≡)은 미(麋)·록(鹿)이 된다. 경방 역전에 말하기를 진(震≡)은 진흙을 이루니 그 허물은 나라가 부서짐이 많다(진수니궤구국다미震遂泥厥咎國多麋)고 하였다. 이 또한 진(震≡)으로써 놀라게 되는 까닭에 부서짐(미麋)을 이루게 된다는 뜻과 통한다. 진경은 또한 다리가 된다. 그러므로 놀라 달림이 된다.

구가설괘(九家說卦)에 간(艮≡)은 여우가 된다고 하였다. 비아(埤雅)에 한박물(獾搏物)이라 했으니 박(搏)은 손으로 치는 행위가 되고 간(艮≡)은 손이 되므로 여우와 이리가 된다. 모두 삼효(三爻)가 변하지 않았을 때의 상이다. 감(坎≡)은 떨기 가시나무(叢棘)가 되므로 숲 가운데가 된다. 삼효가 변해 감(坎≡)이 되면 곤(坤≡) 외뿔 들소(兕)와 호랑이, 진(震≡) 사슴 류, 간(艮≡) 여우와 이리 등이 모두 감(坎≡) 숲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효사가 즉록무우(卽鹿无虞) 유입우림중(惟入于林中)이다.

군자기 불여사 왕인
君子幾，不如舍，往吝.

군자는 기미를 알아 그침만 같지 못하니 가면 부끄러우리라.

우번(虞翻)의 풀이

군자는 양(陽)이 이미 바른 자리임을 말한다. 기(幾)는 가깝다는 근(近)이고, 사(舍)는 치(置)와 같고 인(吝)은 자(疵)를 뜻한다. 삼효(三爻)가 위로 호응하고 있으니 가서 호응한다면險함을 거치게 된다. 가서 호응해서는 안된다. 움직이면 자리를 잃게 됨과 같다. 그러므로 그치는 것만 같지 못하다. 가면 반드시 인색하고 궁색해진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삼효(三爻)가 변하면 바르게 된다. 옆드려 있던 양(陽)이 나오므로 호칭이 군자다. 기(幾)가 근(近)에 가깝다는 것은 석고(釋詁)문의 인용이다. 두(杜)는 좌전의 주석에서 사두설사로(使杜洩舍路)의 사(舍)가 치(置)의 뜻이라고 했으니 곧 우번의 주장과 같다. 계사상전(繫辭上傳)에서 회린(悔吝)은 약간의 하자를 말하는 것(회린자悔吝者 兪호기소자야言乎其小疵也)이라고 하였으므로 인(吝)은 자(疵)가 된다고 보았다. 삼효(三爻)는 호응이 상호(上爻)에 있고, 지(之)는 가는 왕(往)의 뜻이니 가서 상호(上爻)와 호응하면 坎의 險함을 건너야 한다. 그러므로 가면 안 된다. 삼효(三爻)가 움직여 이미 바르면 수화기제(水火既濟)를 이룬다. 가서 움직이면 자리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그침만 같지 못하다. 반드시 가서 인색해 어려움을 취해서는 안 된다.

○ 덧붙이는 말

① 육삼(六三)은 위로 상육(上六)과 음양(陰陽)의 호응(呼應)이 되지 않는다. 사슴을 사냥하는 데 사냥을 도와주는 물이꾼을 얻지 못한 형상이다. (즉록무우卽鹿无虞)

② 그러나 자리가 삼효(三爻)인 양 자리여서 음(陰)이면서도 사슴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惟入于林中) 효사의 수풀 림(林)은 외호괘 간(艮≡)에서 유래한다.

③ 군자라면 사슴에 대한 욕심이 발동되기 전의 단계에서 그치는 것만 같지 못하니 끝내 사슴을 쫓고자 한다면 인식하다.

육삼(六三)이 속한 내괘는 우뢰이고 육삼(六三)은 우뢰의 맨 꼭대기에 있으므로 움직임이 지나치게 왕성하다. 그래서 사슴에 대한 욕심이 지나친 모습이다. 반면 육삼(六三)이 변해 양(陽)이 되면 일의 기미에 밝은 삼리화(三離火) 불이 된다. 따라서 어려운 물 괘의 때이고 위의 상육(上六)과 호응도 되지 않음을 잘 알아 자리의 양(陽)으로 움직일 기미를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상월 즉록무우 이종금야
象曰, “卽鹿无虞”, 以從禽也,

상전에 말하였다. 사슴을 쫓되 우인(虞人)이 없음은 짐승을 탐내기 때문이고,

안(案)

백호통(白虎通)에 금(禽)이란 무엇인가 조수를 총칭하는 말이니 사람이 잡아서 단속하는 바가 된다고 했으니 곧 수지비(水地比䷇) 구오(九五) 효사(爻辭)에서 왕이 삼구법(三驅法)⁸⁶⁾으로써 임하니 앞에 가는 금수를 잃는다(王用三驅失前禽)고 하는 바로 그 구절의 뜻이다.

이정조(李鼎祚) 풀이의 해설

석조(釋鳥)에 다리가 둘이고, 날개를 가진 것들을 일컬어 금(禽)이라 하고 다리 넷에 털이 있는 것들을 짐승(獸)으로 일컫는다고 하였다. 이는 금(禽)과 수(獸)를 나누어 하는 말이다. 반면 앞에서 인용한 백호통(白虎通)의 의미는 금(禽)의 개념에 수(獸)를 포함하고 있다. 수지비(水地比䷇) 구오

86) 삼구법에 대한 의미는 수지비 괘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음

(九五) 효사(爻辭)도 그 점은 마찬가지다. 만일 대사마(大司馬)라면 대수공지(大獸公之) 소금사지(小禽私之)의 예처럼 금(禽)과 수(獸)를 서로 섞어서 쓰는 예도 있다. 대종백(大宗伯)에서 금(禽)으로써 예물을 할 때는 여섯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그 가운데 경(卿)은 양(羔)으로 하고, 대부분은 기러기(안雁)를 쓴다고 하였다. 곡례에서는 성성(猩猩)이가 능히 말하되, 금수(禽獸)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월령(月令)에서도 금(禽)을 잡아 제사를 지낸다고 했으니 이들은 모두 금(禽)과 수(獸)를 통칭하는 말이다. 우인(虞人)이 없으면서 위에서 구함은 금(禽)을 탐내는 것이니 초효(初爻)의 바른 행위가 아니다.

안(案)

곽경(郭京)은 주역거정(周易舉正)에서 하이종금야(何以從禽也)로 기술하였으니 그 뜻 역시 앞과 통한다.

“^{군자사지}君子舍之, ^{왕린}往吝”, ^{궁야}窮也.

군자가 그쳐야 함은 가면 부끄러워 궁색하기 때문이다.

최경(崔憬)의 풀이

움직임의 기미를 보고 길잡이가 없으면 그쳐 가지 않음만 못하니 가면 반드시 인색하다.

최경(崔憬) 풀이의 해설

계사하전에 기(幾)란 움직임의 미세함이라고 하였다. 군자가 기미를 보면 우인(虞人)이 없음을 거슬러 안다. 대개 삼효가 상효와 더불어 바르게 호응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쳐 가지 않아야 하니 가면 반드시 인색하다.

^{육사}六四, ^{승마반여}乘馬班如,

六四는 말을 탔다가 내려옴이니,

우번(虞翻)의 풀이

삼효(三爻)를 탔다는 뜻이다. 삼효(三爻)가 이미 변해 감(坎≡)이니 말이 된다. 그러므로 말을 타는 승마(乘馬)다. 말이 험한 가운데 있으므로 반여

(班如)다. 혹 해석이 초효(初爻)를 탔다고 보기도 한다. 초효(初爻)는 제후를 세움이 되니 어찌 타게 되겠는가.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삼효(三爻)가 이미 변하면 패상이 감(坎☵)이다. 그 말에 있어서는 등마루가 아름다움이 되니 말이 된다. 사효(四爻)가 감(坎☵)의 위에 있으므로 말을 탔다는 승마(乘馬)다. 위도 감(坎☵), 아래도 감(坎☵)이면 이는 험한 가운데가 된다. 그러므로 효사가 반여(班如)라는 주장이다. 혹 해석이 초효(初爻)를 탔다고 본다고 함은 초효(初爻)는 제후를 세움이 된다. 초효(初爻)는 뽑지 못한다고 했으니 사효(四爻)와 호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찌 타겠느냐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효(四爻)는 초효(初爻)와 더불어 호응하고 初爻 진(震☳)은 말에 있어서 잘 우는 울음소리가 되므로 초효(初爻)를 탔다는 뜻 또한 통한다. 初爻 강(剛)은 뽑기에 어려우므로 반여(班如)다.

구 혼 구 왕 길 무 불 리
求婚媾，往吉，无不利.

혼구(婚媾)를 구하여 가면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으리라.

최경(崔憬)의 풀이

잠겨 있어 어려운 때에 가는 바를 두어서는 안 된다. 초효(初爻)가 비록 응하고 있으나 반여(班如)이므로 나가지 못한다. 이미 오효(五爻)와 나란히 있으면서 오효가 와서 혼인을 구하니 남자가 여자에게 구하는 모습이다. 가면 길해서 이롭지 않음이 없다.

최경(崔憬) 풀이의 해설

잠겨 있어 어려운 때에 해당하니 가는 바를 두어서는 안 된다. 초효(初爻) 진(震☳)은 작족(作足)이 되고 비록 일어나 상효(上爻)가 사효(四爻)와 더불어 호응하나 초효(初爻) 강(剛)은 뽑기에 어렵고 또 사효(四爻)가 감(坎☵)의 험함에 있으므로 반여(班如)가 되어 나가지 못하는 상과 같다. 다만 사효(四爻)가 오효(五爻)와 더불어 나란하고 오효(五爻) 양(陽)이 와서 사효(四爻) 음(陰)에게 혼인을 구하니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 구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가면 길(吉)해서 이롭지 않음이 없다.

○ 덧붙이는 말

① 육사(六四)는 구오(九五)와 함께 움직이는 처지로 위 물 괘의 첫 효다. 이는 승마(乘馬)의 효사와 통한다. 그러나 본래 육사는 구오와 짝이 아니다. 짝으로 알고 육사가 구오 말을 탔다면 반드시 내려야 한다.

② 반면 자기의 원래 짝은 초구(初九)이며 음양(陰陽) 응(應)도 잘 되어 있다. 혼인하자고 배필을 구해 초구(初九)에게로 가면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

③ 어찌 육사로서는 눈 밝은 처신이 아니겠는가. 초구(初九)의 덕 있는 효상에서 보더라도 육사(六四)가 지위의 높음을 문제 삼지 않고 초구에게 감은 분명히 이치에 밝은 처신이다.

상왕 구이왕명야
象曰, 求而往, 明也.

상전에 말하였다. 구하여 감은 밝은 것이다.

우번(虞翻)의 풀이

밖으로 감을 왕(往)이라 하고, 호괘는 이(離☲)가 되므로 밝은 명(明)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밖으로 감을 왕(往)이라고 한다는 뜻은 오효(五爻)에게 감을 말한다. 오효(五爻)가 와서 사효(四爻)에게 구하니 이는 친히 맞이함이다. 그래서 사효(四爻)가 가니 이는 가서 여자로서 시집가는 것이다. 삼효(三爻)가 이미 변해 바르게 되면 괘상은 이(離☲)다. 그러므로 밝음이 되니 밝다는 것은 혼례에 밝음을 말한다.

구오 둔기고
九五, 屯其膏.

구오(九五)는 은택을 베풀기가 어려우니,

우번(虞翻)의 풀이

감(坎☵) 비는 뜻이 고(膏)도 된다. 시경(詩經)에 음우고지(陰雨膏之)라는 구절이 있으니 이는 바로 그 뜻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감(坎☵)은 비가 되므로 해석이 고(膏)도 된다. 음우고지(陰雨膏之)는 시경

조풍의 문구다. 고(膏)는 거성(去聲)이니 윤택하다는 뜻이다. 설패에 비로써 윤택하게 한다고 했으므로 달리 호칭을 고(膏)라고도 한다.

우안(愚案)

감(坎☵) 비는 고(膏)의 상이다. 호괘(互卦) 간(艮☶)은 그침이 되므로 둔기 고(屯其膏)다.

소, 貞吉, 大, 貞凶.

조금씩 바로잡으면 길하고, 크게 바로 잡으면 흉하다.

최근(崔觀)의 풀이

마땅히 잠겨 어려우나 기름지고 윤택한 은혜가 있다. 사효(四爻)와 더불어 혼구(婚媾)함이 되니 베푸는 은혜가 비록 빛나지 못하나 조금 바르게 하는 도다. 그러므로 길하다. 멀리 아름다운 짝을 구함에 이르러 크게 바른 도리를 행할 수 있으니 이효(二爻)의 호응에 나가고 있다. 가는 바가 어려움을 무릅쓰되 진실로 호응이 마땅하고 또 흉하다. 그러므로 대정흉(大貞凶)이다. 정(貞)은 바르다는 정(正)이다.

최근(崔觀) 풀이의 해설

마땅히 잠겨 어렵다고 함은 오직 기름지고 윤택한 은혜가 있음이다. 오효(五爻)가 사효(四爻)와 더불어 혼구(婚媾)가 된다. 이는 가까이에 기름지고 윤택함이 있다. 베푸는 바가 비록 빛나지 못하지만 또한 조금 곧게 하는 도다. 그러므로 길하다고 말한다. 이효(二爻)는 오효(五爻)와 더불어 호응하는 관계다. 잠겨 기름진(屯膏) 상으로써 멀리 아름다운 짝을 구해 크게 바른 예를 행하지만 기름지고 윤택한 은혜가 널리 힘입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멀리 이효(二爻)는 오효(五爻)와 호응하는 관계이고 그것은 가는 바가 어려움을 무릅써야 하는 형태다. 비록 마땅하지만 또 흉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정흉(大貞凶)이 된다는 설명이다. 정(貞)을 바르다는 정(正)으로 해석함은 지수사(地水師䷆) 단전(彖傳)의 문구다.

우안(愚案)

신료(辛廖)의 점에 수뢰둔(水雷屯䷂)으로써 견고(固)함을 삼았다. 견고(固)함이란 곧음(貞)이다. 곧 곧고 견고함은 죽히 일의 줄기가 될 수 있다(貞

固足以幹事也)고 하였다. 수뢰둔(水雷屯䷂) 육효(六爻) 가운데 이효(二爻)와 오효(五爻)는 中이면서 자리가 바르다. 그러므로 二爻와 五爻는 곧다고 말한다. 또한 오직 二爻와 五爻만을 잠겨 있다는 둔(屯䷂)으로 말한다. 이효(二爻)는 음(陰)이니 음(陰)은 호칭이 소(小)다. 이효(二爻)는 초효(初爻) 강(剛)을 타고 있되 곧음을 지켜 시집가지 않으니 여자의 곧음이다. 그러므로 소정길(小貞吉)이다. 오효(五爻)는 양(陽)이고 양(陽)은 호칭이 대(大)다. 오효(五爻)는 군주의 자리이지만 음(陰) 가운데 빠져 있다. 또 호괘(互卦) 간(艮䷳)은 그쳐 있되 자리는 바르지만 윗자리이면서 잠겨 고택을 베풀기 어려우니(屯膏) 또한 흉하다. 그러므로 효사가 대정흉(大貞凶)이다. 맹강(孟康)은 이 효(爻)를 해석하면서 대정(大貞)은 군주다. 잠겨 어렵다고 함은 백성들이 주리고 힘들 때를 만나 창고를 열고 백성을 챙겨야 할 때임에도 오히려 인색하여 흉함이 된다고 했으니 그 해석이 매우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 덧붙이는 말

- ① 구오(九五)는 자리로 보면 지존이다. 그러나 물 괘의 험한데 놓여 있는 효(爻)다. 따라서 아래의 육이(六二)와 음양으로 호응을 이루고 있지만 세상의 어려움을 구제하기는 어렵다.
- ② 어려운 둔(屯䷂)의 때에 세상의 민심은 세상의 어려움을 구하기 어려운 구오(九五)로부터 이미 떠나 있다. 비록 아래 자리이지만 세상의 민심이 쏠려 있는 군자는 초구(初九)다. 그 까닭에 구오(九五)가 자기의 지위와 효(爻)의 중정(中正)함만 믿고 때의 어려움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일은 오히려 흉해진다.
- ③ 다만 세상의 어려움을 핑계 삼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둔(屯䷂)의 어려움이 풀리기만 기다리는 자세 또한 바르지 못하다. 양(陽)자리에 양(陽) 효(爻)이고 또한 中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 때의 어려움을 풀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상 환 둔 기 고 시 미 광 야
象曰, “屯其膏”, 施未光也.

상전에 말하였다. “둔기고(屯其膏)”는 베풀이 빛나지 못함이다.

우번(虞翻)의 풀이

양(陽)이 음(陰) 가운데 빠졌으므로 빛나지 못하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감(坎☵)은 양(陽)이 음(陰) 가운데 빠져 있다. 양이 음의 가린 바가 되므로 빛나지 못하다.

우안(愚案)

하늘은 베풀고 땅은 낳는다. 오효(五爻) 양(陽)은 베풀을 주장하고 간(艮☶)의 그치는 바가 되므로 둔기고(屯其膏)다. 이(離☲)는 밝아 빛남이 된다. 감(坎☵)의 아래에 엮드려 있으면서 감(坎☵)이 이(離☲)의 밝음을 훼손하므로 빛나지 못한 미광(未光)이다.

○ 덧붙이는 말

① 둔(屯☶)의 지존인 구오(九五)가 어려운 물 괘 가운데 빠져 있다. 세상을 향해 은택을 베풀기가 어려워 베푸는 덕이 광대하지 못하다.

상 육 승마반여
上六, 乘馬班如,

上六은 말을 탔다가 내려와서

우번(虞翻)의 풀이

오효(五爻)를 탔다는 뜻이다. 감(坎☵)은 말이 되고 진(震☳)은 움직임이 되며 간(艮☶)은 그침이 되니 말로 가다가 그치므로 반여(班如)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오효(五爻)를 탔다고 함은 강(剛)을 탄 것이다. 설괘(說卦)에 감(坎☵)은 등마루가 아름다운 말이 된다고 했으므로 말이다. 진(震☳)은 작족(作足)이므로 움직임이다. 오효(五爻)는 호괘(互卦)가 간(艮☶)이므로 그침이 된다. 이들을 종합하면 말로 가다가 그치므로 반여(班如)의 상(象)이 있게 된다.

읍혈연여
泣血漣如.

피눈물을 줄줄 흘리도다.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상육(上六)은 양(陽)을 타고 있다. 그러므로 반여(班如)다. 아래 이효(二

爻)와 사효(四爻)는 비록 양(陽)을 타고 있으나 모두 다시 오효(五爻)를 섬기는 자리다. 근심이 풀리고 어려움이 제거 된다. 지금은 위에서 다시 섬기는 바가 없으므로 근심과 어려움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눈물을 줄줄 흘리는 상태가 된다. 패상이 감(坎☵)이니 이는 피가 된다. 옆드려 있는 패상이 이(離☲)니 눈이 된다. 互卦 간(艮☶)은 손이 되어 손으로 눈을 가리고 피를 흘리니 우는 상이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맨 위에서 오효(五爻) 양(陽)을 타고 있으니 이 또한 강(剛)이다. 그러므로 반여(班如)의 상이 있다. 이효(二爻)는 초효(初爻)와 이웃하고 있다. 그러므로 초효(初爻)를 탔고 사효(四爻)는 초효(初爻)와 응하는 자리다. 그러므로 또한 초효(初爻)를 타고 있다. 이효(二爻)와 오효(五爻)는 호응하는 자리이고 사효(四爻)와 이효(二爻)는 오효(五爻)를 섬기니 모두 양(陽)이 구원하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근심이 풀리고 어려움이 제거된다. 비록 반여(班如)의 상이 있으나 피눈물을 흘리며 우는 상은 없다. 지금은 상육(上六)이 오효(五爻) 양(陽)을 타고 아래에서 호응함이 없다. 또 위이니 섬기는 자세도 아니다. 홀로 음(陰)이 더불어 어울림이 없고 또 감(坎☵)으로 근심을 더하게 되니 근심이 풀리지 않는 것이다. 그 까닭에 피눈물을 흘리며 우는 읍혈연여(泣血漣如)다. 위는 패상이 감(坎☵), 감(坎☵)은 혈(血)패다. 아래 옆드려 있는 이(離☲)는 눈이 되고 오효(五爻)가 속한 외호패 艮은 손이 된다. 손으로써 눈을 가리고 피를 흘리니 읍혈(泣血)의 상이다. 환관(桓寬)의 염철론(鹽鐵論)에 소인은 먼저 합한 뒤에 거슬리니 처음에는 비록 말을 탔으나 뒤에 반드시 피를 흘린다고 했으니 이 구절의 뜻이 바로 그것이다. 시경(詩經) 위풍(衛風)편에 읍체연연(泣涕漣漣)이라는 시구가 있다. 이는 곧 앞 연여(漣如)의 뜻이다. 설문에 연여(漣如)를 이끌어 해설하면서 뜻이 읍하(泣下)에 해당한다고 했으니 이는 대개 옛과 지금 통하는 글자다.

○ 덧붙이는 말

① 상육(上六)은 어려운 둔괘의 맨 끝에 와 있다. 이는 험한 때의 극치에

해당하는 자리다.

② 아래로 육삼(六三) 역시 양(陽) 자리의 음(陰)이고 상육(上六)과 호응 관계가 아니다.

③ 그러므로 상육(上六)은 머물러 있으면 불안하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나 갈 곳이 없다.

④ 한편 수뢰둔(水雷屯䷂)의 중정(中正)한 구오(九五)의 덕이 험한데 빠져 세상에 은택을 베풀기가 어려워지는 까닭은 바로 이곳 상육 효사의 구오에 대한 퍽박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이와 같은 행실로 인하여 결국 피눈물을 줄줄 흘려야 하므로 이곳의 효사가 이와 같다.

⑤ 그렇다면 그때 상육(上六)이 타는 말은 구오(九五) 양(陽)이고 눈물을 흘리며 내려오는 것은 구오(九五)가 자기 자신의 올바른 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상 환 유혈연여 하가장야
象曰, “泣血漣如”, 何可長也?

상전에 말하였다. 피눈물을 줄줄 흘리니 어찌 장구히 할 수 있겠는가.

우번(虞翻)의 풀이

삼효(三爻)가 변했을 때 이(離☲)는 눈이 된다. 감(坎☵)은 피가 되고 진(震☳)은 나가는 출(出)이 된다. 이처럼 피가 흘러 눈에서 나오므로 읍혈연여(泣血漣如)다. 유(柔)가 강(剛)을 탔으므로 오래 가서는 안 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上六은 三爻와 호응한다. 三爻가 변해 바르게 됐을 때 변한 이(離☲)는 눈이 된다. 감(坎☵)은 혈(血) 꽤이니 피가 되고, 만물이 진(震☳)으로 나오니 출(出)이 된다. 이처럼 피가 눈에서 나오므로 읍혈연여(泣血漣如)다. 중지곤(重地坤☷) 용육(用六)에서 이영정(利永貞)이라고 하였다. 유(柔)가 강(剛)을 탔으므로 영(永)이다. 지금은 유(柔)가 강(剛)을 타고 있으면서 윗자리로 섬기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오래 가서는 안 된다.

○ 수뢰둔(水雷屯䷂) 점례의 기록

춘추 좌전 노나라 민공 원년이었다. 필만이 진나라에서 벼슬하는 일을 두고 점을 쳤다. 뽑힌 패상은 본괘 둔(屯)이 비(比)로 변했다[屯之比].

당시 진나라의 복서를 맡아 관장하던 신료(辛廖)가 이를 두고 풀이하기를
 “둔(屯䷂)은 견고하고 비(比䷇)는 (친밀하여) 들어가는 뜻이 있다. 패상의
 변화가 이와 같으니 이보다 더 길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반드시 길한
 결과가 될 것이다.

진(震䷲)은 흙이 되고 수레가 말을 따르며 발로 거쳐하고 형이 되어 다
 스리며 어머니가 덮어주고 무리가 되어 모여든다. 이 여섯 가지가 상황에
 합하되 능히 견고하고 편안하되 능히 죽이는 위엄마저 있으니 공후(公侯)
 가 되는 패다. 이는 공(公)이 공후(公侯)의 자손으로 그 근본을 마침내 회
 복한다는 패상이니 크게 상서롭지 않는가? 라고 풀이를 하였다.

뒷날 과연 군공(軍功)으로 진(晉)나라의 후(侯)에 의해 위나라에 봉해졌
 으니 신료의 풀이가 적중했다고 할 수 있다.

※ 위의 수뢰둔(水雷屯䷂)과 아래의 산수몽(山水蒙䷃)은 도전괘(倒轉卦)의
 관계다. 이들 두 패상(卦象)에 담긴 의미를 축약시켜 다음에 첨부된 도표
 와 같이 선유는 그 의미를 압축하고 있다⁸⁷⁾

87) 수뢰둔과 산수몽의 屯象圖 및 蒙養正圖

屯象圖			蒙養正圖		
北方		太陰	擊蒙曰外		
陽陷於中(應陰)			耳目之	蒙曰動	
九五居	陰中如	鹿在林			
群陰之	中逐有	林象	心以	利動曰	見金夫
陽動於下(東方少陽)			蒙發	曰	內

둔상도(屯象圖)

5호(爻)는 아래 2호 음(陰)과 호응하는 관계이고 초효(初爻) 양(陽)은 위의
 육사(六四)가 의지하는 효다.

북방(北方)의 감(坎)은 태음(太陰)이다. 동방의 진(震)은 소양이다. 소양의
 기운이 태음에 들어 있다. 양(陽)의 움직임이 음(陰)에 빠져 있으니 이것이 둔
 (屯)이 되는 까닭이다.

도표의 설명처럼 구오(九五)가 북방 음(陰)의 가운데 빠져 있으므로 사슴이
 수풀 속에 있는 형상에 비유할 수 있다. 물잇군도 없이 사슴에 욕심을 내어 숲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효사의 비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 음의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이 무성한 그늘을 이루고 있는 숲의 형상

제 사(四) 산수몽(山水蒙䷃)

● 패명의 풀이

① 몽(蒙䷃)은 몽(冡)만을 놓고 보면 두건(巾)과 같이 머리 부분이 많은 털로 덮인 돼지의 뜻이 있다. 풀 초(草)를 위에 붙여서 이를 풀이하면 덮여 가린다는 뜻이 강조된다. 곧 어려운 일을 견뎌내야 하는 무릅쓸 몽, 혹은 덮여 있다는 덮을 몽이 된다. 또 무엇인가 덮여 있어 밝지 못하므로 어두운 몽의 뜻이 되고 어둡다면 어리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어릴 몽도 된다.

② 위가 산괘 아래가 물 괘로 아직 어리고 어두운 형상이라면 이를 길러야 한다는 점에서 산수몽(山水蒙䷃)이다.

위가 간(艮) 산 아래가 감(坎) 물인 산수몽(山水蒙䷃)이다.

서괘(序卦)에서 물이 생기면 반드시 어리다. 그러므로 산수몽(山水蒙䷃)이 수뢰둔(水雷屯䷂)의 다음이 된다. 몽(蒙)이란 어리다는 뜻이니 사물의 유치

이기 때문이다.

몽양정도(蒙養正圖) 육삼(六三), 육사(六四), 육오(六五)의 세 효는 모두 음이고, 육오(六五) 음(陰)마저 음(陰)들의 가운데 거쳐하고 있으므로 이는 곤(困)이다.

동몽(童蒙)은 오효(五爻)다. 육지의 위에 있다. 이는 밖에서 배우는 상이다.耳目의 드는 바가 나를 힘입어 길러질 수도 있고, 우둔하면서 높은 자리라는 점에서 보면 나의 참다운 성품을 해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도적이 됨은 이롭지 않다. 몽(蒙)을 포용함은 2효(爻)에 있고, 몽발(蒙發)은 초효(初爻)이니 이는 안에서 배우는 상이다. 마음의 짓는바 낚새가 먼저 일어나는데서 이미 그 성격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하나는 마음에서 나타나고 바깥의 언행은 마음에 바탕을 둔다. 그 까닭에 사람에게 있어서 귀하게 여겨야 할 바는 바로 마음이다.

만약 사람의 어리석음을 깨우침에 있어서 형벌에 의존하는 질곡은 인색한 방편으로 근본적인 훈육이 아니다. 대신 이로운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의 질곡을 벗게 하는 것이다.

초효(初爻) 효사에서 있어서 질곡을 벗겨 주어야 한다는 말의 뜻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 산수몽의 가장 아랫자리의 효라면 그 깨우쳐주어야 하는 질곡이 마음 밑바닥의 깊은 질곡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한 상태라고 하였다.

최근(崔觀)의 풀이

만물이 처음 생겨난 뒤여서 아직 크지 않고 어리다. 그러므로 사물이 생기면 반드시 어리다고 말하였다.

정현(鄭玄)의 풀이

몽(蒙䷃)은 어리고 작은 모양이다. 제(齊)나라 사람이 싹튼다는 맹(萌)을 몽(蒙)이라고 하였다.

최근(崔觀) 풀이의 해설

둔(屯䷂)은 12월 패다. 그러므로 물이 처음 낳았을 때다. 몽(蒙䷃)은 정월(正月) 패다. 그러므로 물이 생겨나 아직 어리다. 이는 물이 생겨나면 반드시 어려서 둔(屯䷂)의 다음이 몽(蒙䷃)이 되는 이유다.

정현(鄭玄) 풀이의 해설

서경 이훈(伊訓)편에 (앞의 모든 말씀을) 선비(몽사蒙士)들의 교훈으로 삼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즉 몽(蒙䷃)은 어리고 작은 모양에 해당하는 글귀다. 제나라 사람이 싹튼다는 맹(萌)을 몽(蒙)으로 여겼다는 구절에 대한 해석으로 이는 방언이다. 말하자면 몽(蒙)과 맹(萌)이 통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설문에 싹튼다는 맹(萌)은 풀이 생겨나 싹튼 것이라 했으니 어리다는 몽(蒙)이 처음 생겨났다는 뜻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 인용구다. 설문에 또 어리다는 치(穉)는 어린 벼라고 하였다. 이는 물이 생겨나 어린 상태다. 시경 위풍(衛風)에 (용풍鄘風이다) (사람이 나를 닮하지만) 어리석고 미쳤다고 한다는 구절이 있으니 모전(毛傳)에서 주석하기를 어리석다는 치(穉)는 유치(幼穉)하다 했으니 사람이 태어나 아직 어리다는 뜻이다.

우안(愚案)

건(乾䷀)과 곤(坤䷁)의 뒤에 강유(剛柔)가 비로소 사괘에 먼저 진(震䷲)이 되고 다음은 감(坎䷜)이 되며 세 번째 사괘는 데서 간(艮䷳)을 이룬다. 그러므로 둔(屯䷂)은 진(震䷲)과 감(坎䷜)의 결합이며 감(坎䷜)과 간(艮䷳)의 결합은 산수몽(山水蒙䷃)이다. 여기에 수뢰둔(水雷屯䷂)이 중천건(重天乾䷀)과 중지곤(重地坤䷁)의 뒤를 잇는 까닭이며 산수몽(山水蒙䷃)이 수뢰둔(水雷屯䷂)의 다음

이 되는 까닭이다.

● 패의 차례 문제.

① 앞의 수뢰둔은 물건이 처음 나와 가득한 때라고 하였다. 만물이 처음 나오면 어리석다. 그러므로 이를 가르쳐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산수몽(山水蒙䷃)이 수뢰둔(水雷屯䷂)의 다음에 오는 이유가 된다.

감(坎䷜)下간(艮䷳)上

아래가 감(坎䷜) 물이고 위가 간(艮䷳) 산이다.

● 패의 형상

① 위의 간(艮䷳)은 山이 되고 아래의 감(坎䷜)은 물로 험하다. 산 아래에 험함이 있으니 험함을 만나 그쳐서 갈 바를 알지 못함이 몽(蒙䷃)의 상이다.

② 지금은 비록 처음 산에서 물이 흘러 나와 있으면서 험함을 만나 그쳐 있으나 나아감에 미쳐서는 그쳐 있을 줄 아는 지혜로움과 물 패의 中을 지킬 줄 아는 덕으로 인해 매사는 형통하다.

③ 때가 처음 나와 어리고 어두워서 길러야 함으로 아래의 구이(九二)가 위의 육오(六五)를 가르쳐 교육하는 형상이다.

④ 위는 少男이고 아래는 中男이다. 中男이 비록 아래 자리에 있으나 윗 자리를 차지한 패상이 少男이므로 아래에서 위를 가르치고 기른다.

⑤ 아래의 中을 차지한 구이(九二)가 양(陽)으로 강하고 밝은 이치로 처신하는 덕이 있으므로 위의 육오(六五)가 지존이면서도 재질이 유약하여 어둡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위를 바르게 가르쳐 이끄는 형상이다.

몽 형
蒙亨

몽(蒙䷃)은 형통(亨通)하니

우번(虞翻)의 풀이

간(艮䷳) 삼효(三爻)가 이효(二爻)로 갔다. 형통하다는 형(亨)은 九二 효를 말한다. 진(震䷲) 강(剛)이 유(柔)와 사귀어 형통하다. 산수몽(山水蒙䷃)의 형통함은 통해서 나감이 때에 알맞기 때문이다.

간보(干寶)의 풀이

어리다는 몽(蒙)은 이(離)宮의 음(陰)이다. 세(世)가 사효(四爻)에 있고 8월의 때이다. 양(陽)이 아래로 내려와 덕을 펴고 있고 냉이(薺)와 보리(麥)가 아울러 자란다. 불어남⁸⁸이 寅에 있으므로 몽은 世 八月이 된다. 녹고 불어나는 消息으로 보면 正月의 때다. 正月의 때는 양기가 위로 뻗치므로 수뢰둔(水雷屯)에서 물이 처음 생겨났고 산수몽(山水蒙)은 아직 어린 때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패상에서 말하는 동몽(童蒙)이다. 겨우 싹이 생겨났으니 아직 어리나 몽(蒙)은 필연코 형통하다. 그러므로 몽형(蒙亨)이다. 이는 대개 주(周)나라의 성왕(成王)이 주공(周公)에게 의탁하여 나라를 다스리던 형국에 비유할 수 있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사음이양(四陰二陽)의 패는 지택림(地澤臨)과 풍지관(風地觀)으로부터 유래한다. 간(艮)의 三爻가 二爻로 갔다고 하는 말은 소식(消息)에 바탕을 둔 문구다. 곤(坤)이 효(爻)들 사이의 중궁(中宮)에 있으니 강(剛)으로써 유(柔)를 만나 산수몽(山水蒙)이 되었다. 택화혁(澤火革)의 巽이 나타나면 천풍구(天風姤)가 성립된다. 따라서 산수몽(山水蒙)과 택화혁(澤火革)은 방통(旁通)패이니 마치 수뢰둔(水雷屯)과 화풍정(火風鼎)이 서로 방통(旁通)임과 마찬가지로. 안으로 간(艮)의 삼효(三爻) 양(陽)이 이효(二爻)로 가서 中을 얻었다. 그 결과 위로 육오(六五) 음(陰)과 서로 바른 짝이 된다. 그 까닭에 행함이 형통하고 때에 알맞다. 곤 二爻를 염두에 둔 해설이 된다. 이효(二爻)에 입각한 내호패(內互卦) 방통(旁通) 관계를 살펴보면 겉은 우뢰 진(震)이고 안은 공손한 손(巽)이다. 우뢰는 강하고 바람은 유순(柔順)하므로 건(乾) · 곤(坤)의 사귀이 되어 형통하다. 몽(蒙)의 형통(亨通)한 까닭은 간(艮)의 삼효가 움직여 이효로 옮겨가 때에 알맞은 시중(時中)이기 때문이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산수몽(山水蒙)은 이(離)宮의 4세 卦(위의 팔궁과 도표 참고)다. 사양(四陽)이 음(陰)을 변하게 하는 까닭에 (화산려(火山旅), 화풍정(火風鼎), 화수

미제(火水未濟) 산수몽(山水蒙)은 이(離)宮의 음(陰)이라고 하였다.

세월(世月)의 예(例)로는 사세괘(四世卦)의 음(陰)은 팔월(八月)을 주장하므로 음(陰)이 유(酉)에 있다. 예기(禮記) 월령(月令)편에 중추(仲秋)의 달은 보리 파종을 권장한다 하였고 채옹(蔡邕)의 장구(章句)에 양기가 유(酉)에서 처음 잉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냉이(薺)와 보리(麥)가 때에 맞추어 싹튼다고 하였다. 광아(廣雅)에 태초의 기운은 유중(酉仲)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송균(宋均)은 만물이 반드시 8월 중(仲)에 발생함을 알게 하는 것은 이때 제맥(薺麥)이 싹터 자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서(漢書) 동중서(董仲舒)에 우박대(雨雹對)가 제맥(薺麥)이 처음 자라남은 양에 매달려 올라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양이 아래로 내려와 덕을 펼치므로 제맥(薺麥)이 아울러 싹튼다고 간보는 말한다.

소식(消息)괘로는 몽(蒙)이正月이고 대부(大夫)가 日卦에 해당하므로 불어남이 인(寅)에 있다고 하였다. 반면 8궁 소식(消息)을 합쳐 말하면 몽(蒙)은 세(世)가 8월이 되고 소식(消息)으로는 정월(正月) 괘가 된다고 적었다. 정월의 때는 양기가 위로 뻗친다는 구절은 (아래에서) 삼양(三陽)으로 불어나면 태(泰)가 된다. 사기(史記) 율역서(律易書)에 말하기를 寅에서 이끌려 뻗친다 (인달引達)고 함이 그 예다. 수뢰둔(水雷屯)은 12월 축(丑)에 있으므로 물(物)이 처음 시작되고 산수몽(山水蒙)은正月 인(寅)에 있으므로 物이 자라나 아직 어리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는 유치(幼穉)한 까닭에 동몽(童蒙)이다. 괘상에서 동몽(童蒙)은 구오(九五)를 말한다. 즉 이제 움직임이 시작됐으므로 비록 몽(蒙)이지만 반드시 형통한다. 이를 성왕과 주공의 고사에 비유한 까닭은 성왕이 어린 나이에 육오(六五)의 천자 자리에 올라 구이(九二)의 중에 해당하는 주공의 보필을 힘입어 세상의 태평함을 마침내 이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나라는 형벌을 쓰지 않고서도 다스려졌으므로 몽형(蒙亨) 그대로다. 산수몽(山水蒙)의 구이(九二)가 능히 육오(六五)의 몽(蒙)을 개발함은 또한 수뢰둔(水雷屯)에서 초구가 수뢰둔(水雷屯)의 어려움을 붙들여 구제하는 이치와 일치한다.

비 아 구 동 몽 동 몽 구 아
匪我求童蒙, 童蒙求我,

내가 동몽(童蒙)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童蒙)이 나에게 구하는 것이니,

우번(虞翻)의 풀이

동몽(童蒙)은 육오(六五)를 말한다. 간(艮≡)은 동몽(童蒙)이 된다. 나는 구이(九二) 효(爻)다. 진(震≡)은 움직여 일어남이 되고, 오효(五爻)에게 가서 구함을 꺼리므로 내가 동몽(童蒙)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비아구동몽(匪我求童蒙)이다. 오효(五爻) 음(陰)이 양(陽)에게서 구해야 하므로 동몽(童蒙)이 나에게 구하는 동몽구아(童蒙求我)로 뜻에 호응한다. 간(艮≡)은 구함이 된다. 二爻는 괘상이 지수사(地水師䷆)의 상이고 감(坎≡)은 경(經)이 되는데 예법 상 와서 배움은 있어도 가서 가르침은 없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오효는 동몽(童蒙)이다. 그러므로 동몽(童蒙)은 육오(六五)를 말한다고 하였다. 간(艮≡)이 童蒙인 이유는 소남(少男)이 되기 때문이며, 나는 구이(九二) 효(爻)를 뜻한다고 했으니 그 까닭은 이효(二爻)가 오효(五爻)에게 호응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효(二爻)는 互卦가 진(震≡)이다. 진(震≡)은 움직임이 되고 일어남이 된다. 또 진(震≡)은 장남이고, 감(坎≡)은 중남이다. 二爻 장남(長男)이 오효(五爻) 소남(少男) 젊은 남자에게 가서 구하는 것은 꺼리는 일이므로 내가 동몽(童蒙)에게 구하는 것이 아닌 비아구동몽(匪我求童蒙)이다. 오효(五爻) 음(陰)은 아래 이효(二爻) 양(陽)에게 몸을 낮춰 구해야 한다. 곧 감(坎≡)은 뜻이 되고, 이효(二爻)는 오효(五爻)와 호응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니 단전에서도 그 까닭에 동몽(童蒙)이 나에게 구하는 동몽구아(童蒙求我)는 뜻에 호응하는 점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간(艮≡)과 태(兌≡)는 같은 기운이 서로 구한다. 그러므로 구함이 된다. 초효(初爻)로부터 오효(五爻)까지는 지수사(地水師䷆)의 상이다. 건착도(乾鑿度)에 감(坎≡)과 이(離≡)는 날줄(經)이 되고 진(震≡)과 태(兌≡)는 씨줄(緯)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번은 감(坎≡)이 경(經)에 해당한다고 말했으니 이는 곧 동몽(童蒙)이 나에게 구하는 이유다. 곡례(曲禮)에 예법상 와서

배운다는 말은 있어도 가서 가르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는 구절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동몽(童蒙)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童蒙)이 나에게 구하는 것이다.

초서(初筮) 告, 재삼독(再三瀆, 瀆則不告). (告은 音이 곡)

처음 묻거든 고해 주고 두 번 세 번 물으면 모독함이니 모독한 즉 알려주지 않는다.

최근(崔觀)의 풀이

초서(初筮)는 육오(六五)가 구이(九二)에게 와서 결단해주기를 구하는 일이다. 이효(二爻)는 그때 이에 고해 준다. 두 번 세 번 물으면 모독하는 게 된다는 뜻은 삼효(三爻)의 호응이 상호(上爻)인데 사효(四爻)가 삼효(三爻)를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사효(四爻)에 막힌 삼효(三爻)는 자기의 짝이 아닌 이효(二爻)와 함께 어울리려는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모독함이 된다. 그러므로 이효(二爻)는 고해주지 않는다. 모독한다는 독(瀆)은 옛 적에 물리친다 혹은 내몰다는 출(黜)자의 뜻으로도 쓰였으므로 그것이 구체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최근(崔觀) 풀이의 해설

초서(初筮)의 뜻이 구이(九二)에게 결단을 구하는 육오(六五)에 있다고 함은 오효(五爻) 동몽(童蒙)이 나에게 와서 구함을 의미하고 또 중(中)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구이(九二)에게서 결단을 구함은 이효(二爻)의 정응(正應)이 오효(五爻)이기 때문이다. 이효(二爻)는 오효(五爻)와 짝이 되어 호응하는 관계가 되는 까닭에 고해 준다. 나머지 삼효(三爻)는 상호(上爻)와 짝이 되고 사효(四爻)는 삼효(三爻)를 지나 초효(初爻)와 호응하는 관계다. 이들이 이효(二爻)와 함께 짝이 되고자 하면 모두 모독함이 된다. 그러므로 효사의 말이 재삼독(再三瀆)이 된다고 하였다. 그때 이효(二爻)는 모두 호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하지 않는다. 설괘(說卦)에 감(坎☵)은 구독(溝瀆)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독한다는 말이 나왔다. 모독한다는 독(瀆)은 옛적의 내몰다는 출(黜)자와 통하는 글자였다. 가규(賈逵)의 국어(國語) 주석에서 출설(黜黜)에 대해 이는 모독한다는 독(瀆)

이니 뜻은 깔보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정
利貞.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

우번(虞翻)의 풀이

이효(二爻)와 오효(五爻)는 자리가 바르지 않다. 변해서 바르게 됨이 이롭다. 그러므로 바르게 함이 이롭다는 이정(利貞)이다. 어릴 때에 바름을 기름은 성인이 되는 공부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이효(二爻)는 양(陽)이고 오효(五爻)는 음(陰)이다. 자리가 모두 어긋나 있다. 변해서 바르게 됨이 이로우므로 바르게 함이 이롭다는 이정(利貞)이 된다고 보고 있다. 오효(五爻)는 양(陽)자리로 지나치게 유순해서는 안 되고, 이효(二爻)는 지나치게 굳세어선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마치 변해서 바르게 되면 관(觀䷓)이 되니 중정(中正)으로 천하를 관(觀)한다고 하는 바로 그 뜻이다. 공(孔)의 주석에 정(貞)은 바르다는 정(正)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몽(蒙䷃)의 뜻이 바름을 기름이 이로우므로 단전에서 말하는 어릴 때에 바름을 기름이 성인이 되는 공부라는 구절을 여기서 새삼 덧붙이고 있다.

상^상월^월 象曰, 蒙^상, 산^하유^험險, 險^이지^지 蒙^몽.

상전에 말하였다.“몽(蒙䷃)은 산 아래에 험함이 있고 험함에 그친 것이 몽(蒙䷃)이다.”

후과(侯果)의 풀이

간(艮䷳)은 산이 되고, 감(坎䷜)은 험(險)함이 된다. 이는 산 아래에 험함이 있는 모습이다. 험함에 미쳐 산으로 그쳐 있다. 그쳐 있으면 통하지 못한다. 어려서 어리석은(몽매蒙昧) 형상이다.

후과(侯果) 풀이의 해설

간(艮䷳)은 산이 된다고 함은 설괘의 문구다. 감(坎䷜) 단전(彖傳)에 습감(習坎䷜)은 거듭 험(險)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험함이 된다. 위는 산이고,

아래는 험하다. 따라서 산 아래에 험함이 있다. 감(坎☵)의 험함이 앞에 있음에 간(艮☶)으로서 그쳐 있다. 그 까닭에 험함에 미쳐 산으로 그쳐 있다고 하였다. 그쳐 있다면 궁색하여 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려서 어리석은(蒙昧) 형상이 된다고 하였다. 왕씨는 말하기를, 물러나면 곤궁하여 험하고 나아가면 산으로 막혀 있다. 이처럼 어디로 가야할 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몽(蒙☶)의 뜻이다.

우안(愚案)

산 아래에 험함이 있다고 하여 먼저 산을 말하고 뒤에 험함을 말함은 패상을 위로부터 내려 적용한 결과다. 다시 뜻을 상기시킴에는 험함에 그쳐 있다고 하여 먼저 험함을 말하고 뒤에 그쳐 있음을 말했으니 역의 기운은 모두 아래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이다.

“^몽蒙, ^형亨”, ^이以^형亨^행時^중中也.”

몽형(蒙亨)은 형통함으로써 행함이니 때를 얻었고 중도(中道)에 맞기 때문이요,

순상(荀爽)의 풀이

이는 본래 중산간(重山艮☶)이다.

안(案)

이효(二爻)는 나아가 삼효(三爻)에 위치하고 삼효(三爻)는 내려와 이효(二爻)에 자리 잡았으니 강유(剛柔)가 中을 얻었다. 그러므로 능히 몽(蒙☶)을 기르면서 때의 알맞은 도리를 얻었다. 그러므로 몽형(蒙亨)은 형통함으로써 행하는 때와 중도(中道)에 맞는 도리라고 풀이하였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산수몽(山水蒙☶)은 중산간(重山艮☶)으로부터 왔으므로 이 괘가 본래 중산간(重山艮☶)이라고 하였다.

이정조(李鼎祚) 풀이의 해설

간(艮☶) 이효는 음효(陰爻)다. 나아가 삼효(三爻) 양(陽)의 자리에 위치하고 삼효(三爻) 양(陽)은 내려와 음(陰) 이효(二爻) 자리에 머물러 있다. 효가 이처럼 자리를 바꾸면 中이 되면서 음(陰) 자리에 양(陽) 爻가 되므로

강유(剛柔)가 중(中)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중을 얻으면 능히 육오(六五)의 몽매함을 깨우쳐 통하게 함이 때의 알맞은 도리를 얻게 되므로 단(象)의 말씀이 몽(蒙), 형(亨)”, 이형행시중(以亨行時中)이다. 중산간(重山艮䷳) 삼효(三爻)의 때가 행할 때면 행한다고 했으니 이효(二爻)는 중산간(重山艮䷳) 삼효(三爻)가 아래로 내려옴을 말미암아 이형행시중(以亨行時中)이다.

“^{비 아 구 동 몽}匪我求童蒙,

내가 동몽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陸績)의 풀이

육오(六五) 음효(陰爻)는 어둡고 유치한 가운데 있다. 산수몽(山水蒙䷃) 또한 바깥 몸이 간(艮≡) 소남(少男)이므로 동몽(童蒙)이라고 하였다.

육적(陸績) 풀이의 해설

육오(六五) 음효(陰爻)는 유치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 바깥 소성괘(小成卦)는 괘상이 간(艮≡)이다. 설괘에 간(艮≡)은 세 번 구하여 남자를 얻으니 이를 소남(少男)이라고 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곳의 의미가 동몽(童蒙)이다.

“^{동 몽 구 아 지 응 야}童蒙求我”, 志應也.

동몽이 나에게 구함이니 뜻에 호응함이요,

순상(荀爽)의 풀이

이효(二爻)와 오효(五爻)는 뜻이 서로 호응한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이효(二爻)와 오효(五爻)는 호응하는 자리다. 감(坎≡) 마음은 뜻이 된다. 뜻이 서로 통해 응하므로 지응(志應)이 되었다.

“^{초 서 이 강 중 야}初筮告”, 以剛中也.

처음 묻거든 고해준은 강중하기 때문이요,

최경(崔憬)의 풀이

二爻 강(剛) 中으로써 능히 오효(五爻)를 깨우쳐 바로 서게 한다.

최경(崔憬) 풀이의 해설

이효(二爻)는 양(陽)이니 강(剛)이고 자리가 中이다. 사람을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고 中이면 가르침을 세워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능히 고하여 몽(蒙)을 눈뜨게 할 수 있다.

“^{재 삼 독}再三瀆, ^{독 즉 불}瀆則不告, ^{독 몽 양}瀆蒙也.”

두 번 세 번 물으면 모독함이니 모독하면 고해주지 않음은 몽을 모독하기 때문이다.

순상(荀爽)의 풀이

재삼(再三)은 삼효(三爻)와 사효(四爻)를 말한다. 모두 양(陽)을 타고 공경하지 않으므로 모독하는 독(瀆)이다. 모독하여 양(陽)을 존중하지 않으니, 어리고 유치한 기질을 씻어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독하여 더러운 몽이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삼효(三爻)와 사효(四爻)는 서로 나란히 있으면서 아래 이효(二爻) 양(陽)을 타고 있다. 양(陽)을 섬김은 공경하는 자세지만, 양(陽)을 타고 있음은 공경하는 자세가 아니다. 삼효(三爻)와 사효(四爻)가 모두 이효(二爻)를 공경하지 않으므로 그 형상이 재삼독(再三瀆)이다. 二爻는 三爻 四爻와 호응하는 관계도 아니므로 독즉불곡(瀆則不告)이다. 깔보아 내몰면 양(陽)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다. 중용(中庸)에서도 대신을 공경한다면 어둡지 않다고 했으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어둡고 유치한 기질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 뜻이 독몽(瀆蒙)이다.

“^{몽 이 양 정}蒙以養正, ^{성 공 양}聖功也.”

어릴 때에 바름을 기름이 성인이 되는 공부다.

우번(虞翻)의 풀이

이효(二爻)에서 상구(上九)까지의 과상이 산뢰이(山雷頤 )다. 그러므로 기른다는 양(養)이 된다. 오효(五爻)는 功이 많다. 성(聖)은 이효(二爻)를 말한다. 이효(二爻)는 오효(五爻)와 호응하므로 변해 바르게 되면 그 몽매함

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성인이 되는 공부인 성공(聖功)이다.

간보(干寶)의 풀이

무왕(武王)이 세상을 떴을 때 나이가 93세였다. 그때 성왕(成王)은 겨우 8세였다.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왕위를 이어받아 공정(公正)한 도리를 길러 삼성(三聖)의 치적을 이루었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이효(二爻)부터 상구(上九)까지의 본체가 되는 괘상을 산뢰이(山雷頤䷚)로 보았다. 서괘에 산뢰이(山雷頤䷚)는 기르는 양(養)이 된다고 하였다. 또 해당 괘의 단전에서도 바름을 기르면 길하다고 하였다. 五爻는 공(功)이 많다는 구절은 계사하전의 인용문이다. 성(聖)을 二爻로 보는 시각은 二爻 감(坎☵) 마음이 생각이 되는데 서경 홍범구주에서 사왈예(思曰睿) 예작성(睿作聖)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聖)은 二爻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효(二爻)는 강(剛)이면서 중(中)으로 몽(蒙)을 기르는 자다. 또 이효(二爻)와 오효(五爻)는 서로 호응하면서 이효(二爻)와 오효(五爻)를 기르고 있으니 오효가 변해 바르게 되면 이는 바름을 기르는 상이다. 이처럼 바름을 기르게 되면 몽매함이 제거된다. 그러므로 성인이 되는 공부가 된다. 홍범에서 또 휴징왈성(休徵曰聖) 시풍약(時風若) 구징왈몽(咎徵曰蒙) 항풍약(恒風若)⁸⁹⁾이라고 하였다. 이는 몽(蒙)과 성(聖)의 개념이 서로 상

89) 서경의 홍범과 주역

홍범은 천체 운행의 교훈 및 주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요긴한 기록이다. 내용은 은나라의 기자가 주(周)나라의 무왕을 위해 기술했다고 한다. 그곳에 보면 옛날 鯀이 장마의 물을 막아 오행의 배열을 어지럽히니 하늘이 대노 하시어 규범 아홉 가지를 내리지 않다가 뒷날 우가 일어나면서 하늘이 우에게 규범 아홉 가지를 내려 윤리가 베풀어지게 했다는 내용의 기록이다. 그 가운데 아홉 가지 규범은 첫째가 五行이요, 둘째가 다섯 가지 일을 공경히 행하는 것이요, 셋째는 八政事를 힘써 행하는 것이요 넷째는 다섯 기물을 조화시키는 것이요, 다섯째는 임금의 법도를 세워 따르게 하는 것이며 여섯째는 세 가지 덕을 다스려 쓰는 것이요, 일곱째는 의문을 밝혀주는 것이며, 여덟째는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징험을 생각하며 쓰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가운데 여덟 번째 庶徵은 바람에 관련된 구절만 선별해서 인용하고 있으니 그 뜻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아

반됨을 설명하는 말이다. 몽(蒙)이 몽(蒙)을 벗어 밝아지면 성(聖)이 된다. 그러므로 몽(蒙)으로써 바름을 기르면 성인이 되는 공부라고 하였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에 무왕(武王)은 93세에 세상을 떠났다(崩)고 기록하고 있다. 가어(家語)에도 마찬가지다. 무왕이 죽고 성왕이 나이 13세에 지위를 이어받았다고 되어 있다. 이를 여기서는 8년으로 적고 있다. 정강성(鄭康成)은 모든 기록이 자세하지 않다고 일축한다. 하늘이 성왕(成王)으로 하여금 뒤를 이어가게 했다고 함은 장차 천하의 공정한 법도를 길러서 周나라의 삼성(三聖)을 완성했음을 의미한다. 삼성(三聖)은 문왕(文王)과 무왕(武王) 및 주공(周公)을 일컫는다.

상왕 산하출천 몽
象曰, 山下出泉, 蒙,

상전에 말하였다. 산 아래에서 샘물이 나오니 몽(蒙䷃)이니,

우번(虞翻)의 풀이

간(艮䷳)은 산이 되고, 진(震䷲)은 나오는 출(出)이 된다. 감(坎䷜) 샘이 흘러넘치므로 산 아래 흘러나오는 샘 산하출천(山下出泉)이 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간(艮䷳)은 산이 된다는 해설은 說卦의 인용문이다. 상제는 진(震䷲)에서 나오므로 진(震䷲)은 출(出)이 된다. 또 감(坎䷜)은 물이 되므로 샘이 된다. 감(坎䷜) 샘이 산 아래에서 흘러나오므로 산하출천(山下出泉)이 된다는 시각이다. 왕씨는 산 아래에서 나오는 샘은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산수몽(山水蒙䷃)의 패상이다.

안(案)

예위두위의(禮緯斗威儀)에 ‘군승토이왕(君乘土而王) 기정태평(其政太平) 즉 몽수출우산(則蒙水出于山)’이라는 구절이 소개된다. 송균(宋均)은 그곳의 주석에서 어리다는 몽(蒙)은 처음 나와 적은 양의(小) 물이다. 흘러내리면서 적시는 사물마다 기르지 않음(植)이 없다고 하였다. 작은 물이 흘러 적

름다운 징험이라는 것은 성인과 같다면 철에 맞는 바람이 따를 것이고, 허물이 있는 징험은 몽매함에 오랫동안 바람이 따를 것이다.

시면서 사물을 기름이 마치 동몽(童蒙)이 성스러워지는 이치와 같다.

군 자 이 과 행 육 덕
君子以果行育德.

군자가 보고서 행실을 과단성 있게 하며 덕을 기른다.

우번(虞翻)의 풀이

군자(君子)는 二爻를 말한다. 간(艮≡)은 과(果)가 되고 진(震≡)은 행(行)이 된다. 육(育)은 기를 양(養)의 뜻이다. 이효(二爻)부터 상효(上爻)까지는 기르는 이(頤≡)의 상이 있다. 그러므로 이과행육덕(以果行育德)으로 나타냈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군자(君子)는 二爻라고 하는 해석은 二爻가 강(剛)이면서 중(中)이기 때문이다. 설괘(說卦)에 간(艮≡)은 과라(果蓏)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간(艮≡)은 과(果)가 된다고 하였다. 또 견고하고 마디가 많음이 된다고 하였다. 전(傳)에 과실이 되면 굳세게 된다(치과위의致果爲毅)고 하였으니 또 한 그 견고함을 취한 말이다. 진(震≡)은 작족(作足)이므로 행(行)이 된다. 육(育)은 기를 양(養)이라고 함은 석고(釋詁)의 글이다. 산수몽(山水蒙≡)은 흡사 산뢰이(山雷頤≡)와 비슷하므로 양육(養育)을 본뜬 게 된다. 행실을 과단성 있게 하고 덕을 기르므로 바름을 기르는 바다.

초 육 발 몽 이 용 형 인 용 질 곡 이 왕 름
初六, 發蒙, 利用刑人, 用說桎梏, 以往吝.(設은 음이 탈)

초육은 몽매함을 개발하되 사람을 형벌하여 몽매한 질곡을 벗겨줌이 이로 우니 그대로 가면 부끄러우리라.

우번(虞翻)의 풀이

몽(蒙)을 개발하는 바른 도리다. 초효(初爻)는 산수몽(山水蒙≡)의 시작이나 자리가 어긋나 있다. 몽(蒙)을 개발하는 바름으로서 가면 태(兌≡)를 이룬다. 태(兌≡)는 사람을 형벌함이 되고 곤(坤≡)은 용(用)이 되므로 이용형인(利用刑人)이다. 감(坎≡)은 나무에 구멍을 뚫는 게 되고, 진(震≡)은 발(足) 간(艮≡)은 손(手)이니 서로 감(坎≡)과 더불어 이어져 있다. 그러므로 호칭이 질곡(桎梏)이다. 초효가 개발되어 태(兌≡)를 이루면 태(兌≡)는 기뻐함

이 되고 감(坎☵)의 상은 허물어져 사라지므로 질곡을 벗겨주는 용탈질곡(用說桎梏)이다. 만약 가서 위와 호응하고자 하면 험함을 지나게 되므로 가면 인색하다. 인색하다는 인(吝)은 작은 병통(疵)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우(虞)는 계사전 주석에서 개발한다는 발(發)은 움직인다는 동(動)이라고 하였다. 초효(初爻)가 몽(蒙☶)의 처음에 와 있으면서 음효(陰爻)로서 자리가 바르지 못한 陽 자리다. 움직여 양(陽)이 되면 자리가 바르면서 태(兌☱)를 이룬다. 태(兌☱)는 正秋의 때다. 주례(周禮) 천관(天官) 소재(小宰)에 오월추관기속육십(五曰秋官其屬六十) 장방형(掌邦刑)이라는 문구가 있다. 그러므로 태(兌☱)는 형벌이 된다. 또 태(兌☱)는 진(震☳) 발을 꺾어지게 하니 발을 단절하는 형벌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을 형벌하는 의미의 형인(刑人)이다. 곤(坤☷)에 이르러서는 역사를 이룬다(치역호곤致役乎坤)고 하였다. 이는 곤(坤☷)이 용(用)이 된다고 보는 근거다. 이용형인(利用刑人)은 바로 이들 뜻을 취해 생겨났다는 게 우번의 해석이다. 감(坎☵)은 구멍(穴), 진(震☳)은 나무(木)다. 그러므로 감(坎☵)은 나무에 구멍을 뚫는 게 된다. 곤 구가(九家) 설괘(說卦)에서 감(坎☵)은 질곡(桎梏)이 된다는 뜻과 같다. 진(震☳)은 발(足)이 되고 간(艮☶)은 손(手)이 된다. 설문에 질(桎)은 다리에 채우는 족쇄이고, 곡(梏)은 손에 채우는 쇠고랑이라고 하였다. 위의 네 효는 모두 몽(蒙)을 개발해주기를 기대하는데 그 열쇠가 아래의 이효(二爻)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감(坎☵)과 더불어 서로 이어져 있으니 질곡(桎梏)에 부합된다고 하였다. 초효(初爻)가 움직이면 태(兌☱)를 이루니 설괘에 태(兌☱)는 기빠하는 열(說)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효사가 열(說)이 된다. 이는 음(音)이 벗는다는 탈(脫)과 같으니 대개 열(說)탈(脫)은 모두 태(兌☱)로부터다. 그러므로 열(說)과 탈(脫)은 서로 통한다. 초효(初爻)가 변해 태(兌☱)가 되면 원래의 감(坎☵)은 허물어져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질곡을 벗겨주는 용탈질곡(用說桎梏)이다. 대개 이효(二爻)는 초효로서 위 사효의 질곡(桎梏)을 벗겨준다. 사효가 마땅히 초효에게 구하니 초효는 마땅히 사효에게 가지 않는다. 만약 감(坎☵)의 험함을 거

쳐서 가면 반드시 부끄럽다. 계사상전에 ‘늪우침과 부끄러움은 작은 병통이다(悔吝者 言乎其小疵也)’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색함은 작은 병통이다.

상왕이 용형인 이 정 법 야
象曰, 利用刑人, 以正法也.

상전에 말하였다. 사람을 형벌함이 이로움은 법을 바로잡는 것이다.

우번(虞翻)의 풀이

감(坎☵)은 법(法)이 된다. 초효(初爻)가 개발함은 바르므로 바른 법이다.

간보(干寶)의 풀이

초육(初六)은 무인(戊寅)이다. 밝아지는 때이므로 하늘의 광명이 비로소 비춘다. 그러므로 몽매함을 개발하는 발몽(發蒙)이다. 이는 성왕(成王)이 처음 주공(周公)의 지성스러운 보좌에 힘입어 몽(蒙)을 개발하는 상과 같다. 감(坎☵)은 법률이 되고, 인(寅)은 곧고 청렴함(貞廉)이 된다. 곧은 도리로 형벌을 쓰므로 이용형인(利用刑人)이다. 이는 성왕이 장차 네 나라를 바르게 하는 상이다. 여기서 탈(說)은 풀어주는 해(解)다. 네 나라의 죄를 바르게 함은 마땅히 주공의 무리에 대한 해석이므로 용탈질곡(用說桎梏)이다. 이미 금등(金縢)의 문(文)에 주공의 밝은 덕을 깨닫게 됨이 미처 늦었음을 미루어 한탄한다고 했으므로 가면 인색하다. 초효와 이효는 어긋난 자리다. 인색함을 말미암기 때문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감(坎☵)은 법(法)이 된다고 함은 구가설괘(九家說卦) 말이다. 이아(爾雅) 석언(釋言)에 감(坎☵)은 율전(律銓)이라고 하였다. 번광은 그곳의 주석에서 감(坎☵)은 물이다. 물은 성질이 평평하고 율(律)도 또한 평평하며 전(銓)도 또한 평평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감(坎☵)은 물이 된다. 그러므로 옛 형법에서 의열(議讞-열은 말씀 言 대신 水변이다.)의 글자가 모두 물 水와 결합되어 있다. 법률의 마땅한 이치가 물의 평평함과 일치함으로 감(坎☵)은 법이 된다고 하였다. 초효(初爻) 음(陰)은 어긋난 자리이니 움직여 변하면 바르게 되므로 바른 법으로써 한다고 하였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이는 화주림(火珠林)의 법이다. 산수몽(山水蒙䷃)은 안의 괘상이 감(坎☵)이

고, 감(坎☵)은 초효가 무인(戊寅)을 받아들이므로 초육(初六)은 무인(戊寅)이라고 하였다. 설문(說文)의 주석에서 인(寅)은 동방(東方)의 신(神)이라고 하였고 제의(祭義)에서도 해는 동에서 나온다. 이는 해가 인방(寅方)에서 나오이니 바로 곧장 환해지는(平明) 때라는 뜻이다. 하늘의 빛이 처음 비추어 만물이 모두 드러난다. 어두운 것은 모두 밝다. 그러므로 이치가 발몽(發蒙)이다. 서경 금등(金縢)⁹⁰에 “왕은 글을 들고 울면서 말하기를, ‘그것은 삼가 점쳐볼 필요도 없다. 옛날에 주공께서는 왕가를 위하여 부지런히 수고하셨으나, 오직 나만이 어려서 알지 못하고 있어 지금 하늘은 위엄을 나타내시어 주공의 덕을 밝히셨으니, 이 작은 사람이 그분을 친히 맞아들이는 게 우리 국가의 예의에도 합당할 것이다.”는 구절이 있다. 그 구절은 이곳 몽(蒙)을 계발한다는 발몽(發蒙)과 더불어 뜻이 서로 부합한다. 그러므로 이는 성왕이 주공의 지성스러움에 대해 처음 깨닫는 부분을 예로 들어 말한 것이다.坎은 범람이 된다. 해석은 이미 앞에서 다루었다. 인(寅)이 정렴(貞廉)이 된다고 함은 전한서(前漢書) 익봉전(翼奉傳)에 ‘南方之情惡也 惡行廉貞 寅午主之’라는 표현이 있다. 맹강은 그곳의 주석에서 남방(南方)은 화(火)다. 火는 인(寅)에서 생겨나 오(午)에서 왕성하다. 火의 성질은 위로 타오르는 염상(炎上)이니 맹렬하게 용납하여 받아들이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염정(廉貞)이 된다. 봉(奉)은 또 정득공정정렴(情得公正貞廉)이라고 하였다. 장연은 그곳의 주석에서 술(戌)은 공정(公正)함이 되고 인오(寅午)는 정렴(貞廉)이 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앞 구절의

90) 금등(金縢)에서 금(金)은 금으로 만든 실이고 등(縢)은 껍데기 봉함한 상자다. 무왕이 상나라를 정벌하여 혁명을 완수하고 2년에 유행병을 앓으니 그 아우 주공이 단을 만들어 기도하고 그 축원문을 상자에 넣고 금실로 껍데기 보관하였다. 뒤에 성왕이 그 축원문의 내용을 확인하되 주공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주공이 무왕을 대신하여 죽겠다는 장렬한 결의가 담겨 있으니 그 뜨거운 충성심으로 형을 위하는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뒷날 무왕이 죽고 나이 어린 성왕이 즉위하자 관속 및 여러 아우가 유언비어를 나라 안에 퍼뜨리기를, 장차 주공이 왕권을 찬탈할 것이라고 참소하였다. 이에 주공이 장차 섭정 자리를 물러나와 떳떳한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군사를 출동시켜 자기에 대한 유언비어의 근원인 관속과 채숙의 도당을 붙잡아 처단하였다.

뜻이다. 다만 전(傳)과 주석(註釋)이 모두 같은 취지로 말하되 앞에서 염정(廉貞)이라고 하고 뒤에서는 정렴(貞廉)이라고 했을 뿐이다. 지금의 술가(術家)들은 염정(廉貞)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정렴(貞廉)이라는 했으니 문장은 서로 다르나 뜻은 동일하다. 정(貞)은 바르다는 정(正)이다. 형벌을 바르게 적용하므로 이용형인(利用刑人)이다. 서경 금등에 주공이 동쪽으로 정벌한지 2년에 죄인을 이에 붙잡아 형벌을 바르게 적용했다는 상이 있으니 서로 뜻이 부합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성왕이 장차 네 나라를 바르게 하는 상이라고 하였다. 설문에 해(解)는 벗다 씻다는 세(掇)라고 하였다. 세(掇)는 또한 탈(說)로도 읽고 쓰니 모두 탈(脫)과 통한다. 그러므로 탈(說)은 해(解)가 된다. 네 나라를 바르게 함은 네 나라의 유언비어를 바로 잡았다는 뜻이다. 주공의 무리를 풀어주었다는 것은 동쪽에 칩거한 주공의 무리들을 풀어주었다는 뜻이니 본문의 용탈질곡(用說桎梏)의 뜻과 서로 부합된다. 이미 금등의 문장에 감응함이 된다고 함은 서경 금등(金縢)⁹¹⁾에서 가을에 크게 곡식이 여물었는데, 거둬들이지 않고 있을 때에 하늘에 크게 벼락과 번개가 치며 바람이 불어, 곡식이 넘어지고 큰 나무가 뽑히어지니, 나라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임금은 대부들과 더불어 모두 예복을 갖추고서 쇠로 봉해 놓은 글을 열어보니 주공이 스스로 공력을 들어서 무왕을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말을 얻었다는 바로 그 구절의 뜻에 통한다. 추한소덕지만(追恨昭德之晚)이란 옛날에 주공께서 왕가를 위하여 부지런히 수고하셨으나, 오직 나만이 어려서 알지 못하고 있어 지금 하늘은 위엄을 나타내시어 주공의 덕을 밝히셨다고 하는

91) 주공은 유언비어로 나라를 어지럽힌 무리들을 잡아 처벌하고 섭정의 자리를 피해 동정을 끝내고도 1년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 가을에 번개와 우뢰를 동반한 태풍이 불어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성왕이 이 천재지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금등의 글을 얻게 되는데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나라에 일어난 재변의 원인이 주공을 영입하지 않은데에 있음을 깨닫고 친히 도성 밖의 교외로 나가 맞이하고자 했는데 그때 하늘이 비를 내리고 바람을 먼저와 반대 방향으로 불게 하여 벼가 모두 일어서므로 큰 풍년이 들었던 사실 등이 금등 장에는 기록으로 남아 있다.

바로 그 구절의 의미와 통한다. 이미 가면 허물이 많으므로 가면 인색하다고 하였다. 초효(初爻) 음(陰)과 이효(二爻) 양(陽)은 모두 자리가 어긋나 있다. 그로써 인색함에 이르게 된다는 연유다.

○ 덧붙이는 말

- ① 초육(初六)은 음효(陰爻)로 어두우면서 맨 아래 자리이다. 의식의 질곡과 그로 인한 어리석음이 다른 어떤 효보다도 더욱 심하다.
- ② 형벌을 먼저 이야기함은 어리석은 자의 교화는 그 욕심을 다스리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 ③ 그러나 사람의 질곡을 벗게함에 있어서 한결같이 형벌만을 고집한다면 인색한 노릇이다.
- ④ 몽매함을 깨우치게 하는 초기에는 법을 우선 바로잡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상전의 의도는 초육이 몽(蒙 ䷃)의 때에 음효로 어두우면서 초육(初六)의 맨 아랫자리이기 때문이다.

구이 九二, 포몽 包蒙, 길 吉. 納婦, 吉, 子克家. 象曰, “子克家”, 剛柔接也.

구이는 몽매함을 포용해주면 길하고 부인의 말을 받아들이면 길할 것이니, 자식이 집안 일을 잘 다스린다. 상전에 말하였다. 자식이 집안일을 잘 다스림은 강유가 접(接)하기 때문이다.

우번(虞翻)의 풀이

곤(坤 ䷁)은 감싸 안는 포(包)가 된다. 오효(五爻)와 호응하면서 초효(初爻)에 근거하고 있다. 초효(初爻)는 삼효(三爻) 사효(四爻)와 더불어 괘상이 일치한다. 네 음(陰)을 감싸 안고 양육한다. 그러므로 구이(九二)는 몽매함을 포용해주면 길하다. 진(震 ䷲)은 강(剛)으로 지아비가 된다. 옆드려 있는 손(巽 ䷸)은 지어미가 된다. 이효(二爻)는 강(剛)으로써 효(爻)가 양(陽)이지만 자리가 음(陰)이다. 그러므로 지어미를 받아들이면 길하다. 이효(二爻)는 호칭이 집(家)이다. 진(震 ䷲)은 장자(長子)니 기물을 주장하는 자다. 지어미를 받아들임은 초(初)를 이루므로 자식이 집안을 다스리는 자극가(子克家)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포(包)는 글자가 쌀 포(勺)와 자식 사(巳)의 합성어다. 설문에서 포(包)는 사람이 아이를 배에 품고 있음을 상징하는 글자니 자식이 이미 그 가운데 있으나 형체를 온전하게 갖추지 못함을 상징한다고 해설하였다. 이효(二爻)가 변하면 곤(坤☷)을 이룬다. 설괘(說卦)에 곤(坤☷)은 어미가 되고 배(腹)가 된다고 하였다. 자식은 어미 배속에 들어 앉아 감싸여 있으므로 곤(坤☷)은 감싸 안는 포(包)가 된다. 이효(二爻)는 위로 오효(五爻)와 호응하고 아래로는 초효(初爻)에 근거하고 있다. 초효(初爻)와 삼효(三爻) 사효(四爻)는 모두 음(陰)의 모습으로 일치한다. 이효(二爻)는 본래 강중(剛中)이니 지나치게 강하면 감싸 안는 도량이 없다. 변해 음(陰)이 되면서 양(陽)을 구체함이 능히 네 음(陰)을 감싸 안고 양육한다고 할 수 있으니 가르치기를 너그럽고 유순하게 하되 뭉을 감싸 안는 길함을 얻게 된다. 진(震☳) 강(剛)은 장남(長男)이니 지아버가 되고 옆드려 있는 손(巽☴)은 장녀(長女)가 되니 지어미가 된다. 대개 산수몽(山水蒙☶)은 방통(旁通)괘가 태화혁(澤火革☱)이다. 태화혁(澤火革☱)은 곤(坤☷)이 건(乾☰)을 이룬다. 二爻 손(巽☴)은 아래가 天風姤다. 산수몽(山水蒙☶) 二爻와 사괘를 말미암게 되므로 九二 아래 옆드려 있는 손(巽☴)은 震의 지어미가 된다. 이처럼 二爻는 진(震☳) 강(剛)으로서 손(巽☴) 유(柔)와 포개어져 있으므로 지어미를 받아들이면 길하다. 이효(二爻)에서 집 가(家)가 생겨나는 까닭은 건척도(乾鑿度)에서 말하기를, 二爻는 대부(大夫)가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정(鄭)은 예기(禮記)의 주석에서 대부를 집 가(家)라 일컫는다고 하였다. 또 괘상이 안에 있으니 가인(家人☱)은 안(內)이라고 하는 잡괘전과도 통한다. 그러므로 二爻는 호칭이 집(家)임을 알 수 있다. 진(震☳)은 장자(長子)니 기물(器物)을 주장하는 자다. 지어미를 받아들여 初爻를 이룬다고 함은 初爻가 이미 발휘되어 양(陽)의 바른 도리를 이룸을 말한다. 二爻에 옆드려 있는 손(巽☴)이 밖으로 나오면 음(陰)이니 자리가 바르게 되고, 그때 初爻는 진(震☳)이 되어 자식이 된다. 그러므로 자식이 집안을 다스리는 자극가(子克家)다. 상(象)에서 강유접(剛柔接)이라고 말함은 二爻 손(巽☴)이 初爻를 받아들여 진(震☳)을 이룬다는 뜻이다.

○ 덧붙이는 말

몽매함을 포용하면 길하다(包蒙吉)고 하였다.

①二是 몽매한 때에 양으로 재질이 강명(剛明)하면서 아래의 中이다. 그리고 위의 음약한 六五 군주와 호응도 잘 되어 있다. 산수몽의 주효다.

② 주효인 만큼 몽매한 때의 여러 음(陰)을 받아들여 포용하고 그들의 몽매함을 가엾게 여겨서 깨우쳐 줄 수 있어야 한다.

③ 양으로서 음을 받아들여 교화하는 까닭에 납부(納婦)로 표기했고 위의 오효(五爻)는 자리가 아버지라면 아래의 구이(九二)는 아들 자리로 보는 까닭에 자극가(子克家)다.

④ 상전의 자극가(子克家)에 대한 해설은 전체 효사를 대신하는 압축된 문구다. 구이(九二)가 양(陽)이기 때문에 양(陽)으로 몽매한 음(陰)들과 접촉하여 그들을 깨우치고 교화하는 뜻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위의 六五는 九二에게 직접 아래로 호응하는 까닭에 여러 음(陰)을 대표하는 六五만을 염두에 둔 해설로 보아도 무방하다.

육삼, 勿用取女, 見金夫, 不有躬, 无有利.

육삼은 여자를 취함에 쓰지 말 것이니, 돈 많은 지아비를 보고 몸을 간수하지 못하니, 이로운 바가 없다.

우번(虞翻)의 풀이

삼효(三爻)를 말한다. 위로 호응하는 관계임을 경계하였다. 금부(金夫)는 이효(二爻)를 말한다. 초효(初爻)가 발휘되면 태(兌☱)를 이룬다. 그러므로 삼효(三爻)는 여자가 된다. 태(兌☱)는 나타남이 되고 양(陽)은 호칭이 금(金)이고, 진(震☳)은 지아비(夫)다. 삼효(三爻)가 거꾸로 이효(二爻) 양(陽) 위에서 타고 있으면서 행하는 바가 유순하지 않음이 음탕한 바가 된다. 이처럼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아래로 내려와 바르지 못한 행실을 보여 주므로 물용취녀(勿用取女), 견금부(見金夫)다. 곤(坤☷) 몸은 호칭이 궁(躬)이다. 삼효(三爻)는 이효(二爻)의 타는 바가 되어 태(兌☱)택(澤)의 아래로 움직이니 호응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몸을 간주하지 못하는 불유궁(不有躬)이고 자리를 잃고 흥함이 많으므로 이로운 바가 없는 무유리

(无攸利)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삼효(三爻)를 일컫는다고 함은 삼효 태(兌≡)가 여자가기 때문이다. 위로 호응하는 관계임을 경계하였다고 함은 삼효(三爻)는 상호(上爻)와 서로 호응하는 관계로 삼효(三爻)가 바르지 못한 까닭에 이를 경계하였다. 금부(金夫)를 이효(二爻)로 봄은 이효(二爻) 진(震≡)이 지아버가 되기 때문이다. 초효(初爻)는 바르지 못하다. 움직여서 태(兌≡)를 이루면 태(兌≡)는 소녀가 되므로 삼효(三爻)는 호칭이 여자다. 잡괘에 태(兌≡)는 나타나고 손(巽≡)은 숨는다(兌見而巽伏)고 하였다. 그러므로 태(兌≡)는 나타남이 된다. 태(兌≡)의 양효(陽爻)는 본래 건(乾≡)으로부터 온다. 설괘(說卦)에 건(乾≡)은 금(金)이 된다고 했으므로 양(陽)은 금(金)이 된다고 하였다. 또 태(兌≡)는 서방(西方) 정추(正秋)의 때니 이도 또한 금(金)이 된다. 진(震≡) 남자(男子)는 지아버가 되고 또 건(乾≡) 양(陽)을 겸했으므로 호칭이 금부(金夫)다. 삼효(三爻) 태(兌≡)가 어긋나게 기뻐하면서 이효(二爻) 양(陽)을 타고 있으니 이는 행하는 바가 유순하지 못하다. 감(坎≡) 水는 음탕함이 되고 태(兌≡)는 거스르면서 기뻐하므로 이효(二爻)의 음탕한 바가 된다고 하였다. 상구(上九)에서 도적이 됨을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석고(釋詁)에 오른다는 척(陟)은 위로 오르는 승(陞)과 같다고 하였다. 서로 호응하는 관계인 삼효(三爻)와 상호(上爻)가 모두 바르지 않다. 위에서 와서 三爻로 가되 장차 삼효(三爻) 음(陰)이 상구(上九)와 호응하지 않고 아래의 二爻와 어울리고자 하므로 물용취녀(勿用取女), 건금부(見金夫)다. 곤(坤≡)은 땅에 있어서 형체를 이룬다(在地成形)고 하였다. 그러므로 몸이 되고 호칭이 궁(躬)이다. 三爻는 二爻의 타는 바가 되므로 진(震≡)은 태(兌≡)를 탄다. 태(兌≡)는 못(澤)이고, 못의 성질은 아래로 내려가며 진(震≡)은 또 운동하므로 태(兌≡) 못(澤)은 아래로 움직여 내려간다. 아래로 내려가면 위의 상구(上九)와 호응을 얻지 못한다. 곧 삼효(三爻) 음(陰)이 위로 올라가 호응하면 곤(坤≡)을 이루고, 올라가지 않으면 곤(坤≡)의 과상을 잃는다. 그러므로 몸을 두지 못하는 불유궁(不有躬)이

다. 계사하전에 삼효는 흉함이 많다고 하였다. 육(六) 음(陰)이 세에 위치했으니 자리를 잃어 흉함이 많다. 그러므로 이로운 바가 없다.

상 앞 물 용 취 여 행 불 순 야
象曰, “勿用取女”, 行不順也.

상전에 말하였다. 여자를 취하지 말라는 것은 행실이 유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번(虞翻)의 풀이

자리를 잃고 강(剛)을 탔으므로 행불순(行不順)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육(六) 음(陰)이 삼(三) 양(陽) 자리에 위치했으니 마땅한 자리가 아니다. 삼효(三爻)가 이효(二爻) 양(陽)을 타고 있으니 강(剛)을 타고 있는 승강(乘剛)이다. 진(震☳)은 움직임이 되고 곤(坤☷)은 유순함이 된다. 삼효(三爻)가 호응 관계가 아닌 이효(二爻)를 역(逆)으로 따르니 행실이 상효(上爻)와 호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행위가 유순하지 못한 행불순(行不順)이다.

우안(愚案)

육효(六爻) 음(陰)이 세 양(陽)의 자리에 위치함은 어긋난 자리다. 삼爻가 이효(二爻) 양(陽)을 타고 있음은 강(剛)을 타고 있는 승강(乘剛)이다.

○ 덧붙이는 말

① 육삼(六三)의 여자에 해당되는 음효(陰爻)이다. 자리가 중(中)도 아니고 바르지(正)도 않아 양(陽) 자리에 위치한 음(陰)이다.

② 더구나 자신의 정응(正應)은 위의 상구(上九)이면서 마음은 아래의 구이(九二)에게 쏠리고 있다. 이는 그 자신 물 괘의 성격을 지녀 아래로 흐르고자 하는 속성과 관련 있다.

③ 결코 정절이 굳지 못하고 표리가 같지 않은 효상(爻象)이므로 여자로서 취한다면 이로움이 없다.

④ 이곳의 지아비는 구이(九二)를 일컫는다.

육 사 곤 물 린 상 앞 곤 물 지 린 독 원 실 야
六四, 困蒙, 吝. 象曰, “困蒙之吝”, 獨遠實也.

육사는 몽(蒙)에 곤궁함이니 부끄럽도다. 상전에 말하였다. 곤몽(困蒙)의 부끄러움은 홀로 실(實)과 멀기 때문이다.

왕필(王弼)의 풀이

양(陽)은 호칭이 실(實)이다. 홀로 양에서 멀다. 두 음(陰)의 가운데 위치하면서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몽에 곤궁한 곤몽(困蒙)이다. 몽매(蒙昧)함에 괴로우므로 능히 어진 이를 좇아 그 뜻을 펼치지 못한다. 또한 행실이 천박하니 부끄럽다고 하였다.

왕필(王弼) 풀이의 해설

양(陽)은 실(實)하고 음(陰)은 허(虛)하다. 그러므로 양(陽)은 호칭이 실(實)이다. 여기서 實한 양은 二爻다. 강중(剛中)의 덕이 그 가운데 있되 사효(四爻)는 홀로 그로부터 멀다. 삼효(三爻)와 오효(五爻)의 두 음(陰)의 사이에 처해 있고 또 初爻 정응(正應)도 호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음(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까닭에 四爻는 곤몽(困蒙)이 된다는 뜻이다. 몽매(蒙昧)한 가운데서 괴로우므로 능히 이효(二爻)의 어진 이와 어울리지 못하여 그 뜻을 펴지 못한다. 천박한 행실로 인한 부끄러움이 실로 심하다. 논어에 통하지 못해 괴로우면서도 배우지 않음은 사람으로서 아래가 된다(困而不學 民斯爲下矣)고 하였으니 바로 그 뜻이다. 또 간(艮≡)에는 태(兌≡)가 얹드려 있다. 태(兌≡)가 위 감(坎≡)의 위면 澤水困이다. 그러므로 곤몽(困蒙)이 된다. 유(柔)의 도(道)는 양(陽)을 멀리함이 이롭지 않으니 사효(四爻)는 홀로 양(陽)에서 멀므로 곤(困)이 된다.

○ 덧붙이는 말

① 六四는 음(陰)이 음(陰)자리에 놓여있고 양(陽)과 호응하거나 이웃한 자리도 아니다. 몽매한 때의 곤궁함이 매우 심하다. (困蒙)

② 인색하다는 인(吝)은 부끄럽다는 수린(羞吝)으로 주자등이 해석했다. 곤몽의 인색함은 홀로 양으로부터 멀기 때문이라고 상전에서는 풀이한다. 세상의 몽매함은 구이(九二) 즉 건(乾䷀)의 원형이정(元亨利貞)한 덕에 힘입어 개발이 가능함을 이로써 알 수가 있다.

육 오 동 몽 길
六五, 童蒙, 吉.

육오는 동몽이니 길하다.

우번(虞翻)의 풀이

간(艮≡)은 동몽(童蒙)이 된다. 거처하는 자리가 귀(貴)하고 상구(上九)를 섬기고 있다. 아래로는 이효(二爻)가 호응하면서 움직여 손(巽≡)을 이루므로 길하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간(艮≡)은 소남(少男)이므로 동몽(童蒙)이 된다. 자리가 오효(五爻)면 거처함이 귀하다. 양(陽)과 견주며 쫓고 있으니 위를 섬김이 된다. 이효(二爻)와 오효(五爻)는 모두 자리가 바르지 않다. 이효(二爻)가 움직여 오효(五爻)를 포용하면 오효(五爻)도 아래로 호응한다. 움직여 손(巽≡)을 이룬다고 함은 육오(六五)가 양(陽)으로 변하면서 중정(中正)함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손(巽≡) 단전(象傳)에 강(剛)이 중정(中正)함에 손순(巽順)하고 뜻이 행해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길하다.

상왕(上王) 동몽지길(童蒙之吉), 순이손야(順以巽也).

상전에 말하였다. 동몽의 길함은 유순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순상(荀爽)의 풀이

위로 상구(上九)에 유순(柔順)하고 아래 이효(二爻)에게 공손(恭巽)하니 흡사 주나라의 성왕이 주공의 밝은 덕에 맡겨 정치를 행함과 같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호괘(互卦) 곤(坤≡)은 유순(柔順)함이 되어서 위 상구(上九)를 섬긴다. 그러므로 위로 上九에 柔順하다. 변해 손(巽≡)이 되어서 이효(二爻)에 호응하므로 二爻에게 공손(恭巽)하다고 말한다. 오효(五爻) 간(艮≡)은 어린 아이의 나이로서 지극히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니 이효(二爻)에게 맡겨 군주가 신하를 스승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몽(蒙)을 돌이켜 성(聖)이 되므로 흡사 주나라의 성왕이 주공의 밝은 덕에 맡겨 정치를 행함과 같다고 하였다.

○ 덧붙이는 말

①五是 몽매의 지극히 존귀한 자리이지만 역시 어두운 음(陰)이다.

② 반면 덕을 기르는 간(艮≡)의 중심에서 아래의 九二 양(陽)에게 바르게 호응하는 겸손함을 직접 가르침을 구한다. 자기 자신은 몽매함을 개발하는 데는 이보다 길함이 있을 수 없다.

③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상전에서 동몽(童蒙)의 길(吉)함은 공손하고(陽에게) 순종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④ 순(順)은 六五가 九二에 바르게 호응하는 음(陰)이기 때문이고 공손할 순(巽)은 六五가 변하면 위의 소성괘가 손(巽≡)이기 때문이다.

상 구 격 몽 불 리 위 구 이 어 구
上九, 擊蒙, 不利爲寇, 利禦寇.

상구는 몽매함을 깨우침이니 도적이 되는 것은 이롭지 않고 도적을 막는 것은 이롭다.

우번(虞翻)의 풀이

간(艮≡)은 괘상(卦象)이 손(手)이 된다. 그러므로 친다는 격(擊)이다. 말하자면 오호(五爻)가 이미 변하고 상호(上爻)가 움직여 감(坎≡)을 이루면 호칭이 도적(寇)이 된다. 그러나 어지럽게 양(陽)을 타고 있으므로 침략을 함은 이롭지 않다. 어(禦)는 그친다는 지(止)다. 여기서 도적(寇)은 二爻를 말한다. 감(坎≡)은 도적이 되고 손(巽≡)은 높음이 된다. 간(艮≡)은 산이 된다. 산에 올라가 아래에 대비한다. 유순(柔順)함이 지수사(地水師䷆)의 상이 있으므로 도적을 막는 것은 이롭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간(艮≡)은 손(手)이 된다고 함은 설괘문의 구절이다. 손이 되므로 공격한다. 三爻의 움직임은 柔順하지 않으면서 이호 감(坎≡)과 더불어 괘상이 하나로 같다. 그러므로 공격한다. 오호(五爻)가 이미 변해 양(陽)이 되고 위가 움직이면 음(陰)이 된다. 그래서 감(坎≡)을 이룬다. 감(坎≡)은 도둑이 되므로 호칭이 구(寇)다. 오호(五爻)가 변하고 위에서 움직여 이를 타면 거꾸로 양(陽)을 올라타이 된다. 그러므로 도둑이 됨은 이롭지 않다. 석고(釋詁)에 막을 어(禦)는 금지 한다는 뜻의 금(禁)이라고 하였다. 禁에는 그친다는 지(止)의 뜻이 있으므로 막을 어(禦)는 그칠 지(止)라고 하였다. 여기서 二爻를 두고 도적(寇)이라고 한다고 함은 이호(二爻) 감(坎≡)은 도

득(寇盜)이 되기 때문이다. 삼효(三爻)는 호응이 상효(上爻)에 있다. 이효(二爻)가 음탕하게 여겨지므로 이효가 도적(寇)이라고 볼 수도 있다. 손(巽 ≡)은 높음이 되고 간(艮 ≡)은 산이 된다고 함은 모두 설괘전의 문구다. 위로 오른다고 하는 등산(登山)은 상효(上爻)를 말한다. 아래에 대비한다는 비하(備下)는 이효(二爻)를 말한다. 호괘(互卦) 곤(坤 ≡)이 유순함이 되고 초효(初爻)부터 오효(五爻)에 이르기까지 괘상을 보면 지수사(地水師 ䷆)다. 그러므로 유순함에 지수사(地水師 ䷆)의 상이 있다고 하였다. 지수사(地水師 ䷆)는 유순함이 아래에 있으므로 도둑을 막음이 이로운 이어구(利禦寇)다.

상^상왕^왕, “^이용^용어^어구^구, ^상하^하순^순야^야.”
象曰, “利用禦寇”, 上下順也.

상전에 말하였다. 침략을 막음이 이로움은 위와 아래가 유순(柔順)하기 때문이다.

우번(虞翻)의 풀이

위로부터 아래를 막으므로 유순하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위로부터 아래를 막음은 가운데서 곤(坤 ≡)의 유순함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하가 유순하다는 상하순(上下順)이다.

○ 덧붙이는 말

① 상구의 특징은 효(爻)가 양(陽)이면서 몽매(蒙昧)의 맨 위가 된다.

이는 상구가 몽매한 때의 절정이면서도 또 어리석음을 깨우치려는 의지가 지나치게 강하다(擊蒙)

② 반면 상구는 자리가 음(陰)이면서도 中을 벗어나 세상의 어리석음을 교화하고 깨우치려는 노력이 반드시 아름답지만은 않다. 혹 상구로서의 강함만을 믿고 함부로 포악해질 수도 있는 염려가 있다. 따라서 도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도적을 막는 산 괘로서의 이로움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이는 위의 간(艮 ≡)으로서 덕을 기르는 육덕(育德)의 괘상에도 한층 어울리는 경계사다.

제 오(五) 수천수(水天需䷄)⁹²⁾

○ 패명의 어원 풀이

수천수(水天需䷄)의 수(需)는 구한다, 요구한다, 기다린다, 머뭇거린다는 네 가지 뜻으로 다르게 사용된다. 이는 비 우(雨)와 말 이을 이(而)의 두 글자가 모여 하나의 글자를 이룬다. 뒤의 이(而)는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기른 무당을 본뜬다고 본다. 비오기를 비는 무당의 모습을 통해 기다려 구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역에서 위의 물 괄와 아래의 하늘 괄 조합을 수천수(水天需䷄)로 나타내는 맥락도 결국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위에 구름이 떠 있으나 아직 비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비가 되어 밑으로 흘러내리기를 기다리며 바란다는 뜻이 이 패상에는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그때 기다려지는 비는 만물을 길러 뺏어나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어린 생명을 양육하는 음식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서괘전 序卦曰 物穉不可不養也 故受之以需 需者飲食之道也

서괘에 말하였다. 수(需)는 물건이 어리면 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92) 수천수 한자 원문

05需卦01, 需, 有孚, 光亨, 貞吉, 利涉大川.

05需卦02, 彖曰, “需”, 須也, 險在前也, 剛健而不陷, 其義不困窮矣. “需, 有孚, 光亨, 貞吉, 位乎天位”, 以正中也. “利涉大川”, 往有功也.

05需卦03, 象曰, 雲上于天, 需, 君子以飲食宴樂.

04, 初九, 需于郊, 利用恒, 无咎. 05, 象曰, “需于郊”, 不犯難行也, “利用恒无咎”, 未失常也.

06, 九二, 需于沙, 小有言, 終吉. 05需卦07, 象曰, “需于沙”, 衍在中也, 雖小有言, 以終吉也.

05需卦08, 九三, 需于泥, 致寇至. 09, 象曰, “需于泥”, 災在外也, 自我致寇, 敬慎不敗也.

05需卦10, 六四, 需于血, 出自穴. 05需卦11, 象曰, “需于血”, 順以聽也.

05需卦12, 九五, 需于酒食, 貞吉. 05需卦13, 象曰, “酒食貞吉”, 以中正也.

上六, 入于穴, 有不速之客三人來, 敬之, 終吉. 象曰, “不速之客來, 敬之終吉”, 雖不當位, 未大失也.

수천수(水天需䷄)로 받았다. 需는 음식의 도이라고 하였다.

간보(干寶)의 풀이

수(需䷄)는 중지곤(重地坤䷁)의 유혼괘(遊魂卦)⁹³⁾다. 구름이 올라가 하늘에 있으면서 비로 내리지 못하고 동서로 높이 나니 기다리는 상이다. 왕사(王事)가 아직 이르지 않아 마시고 잔치하는 날이다. 무릇 곤(坤䷁)이란 땅이니, 부인의 직분이다. 백곡과 과실이 자라나고 금수와 어패류가 의탁해 살아간다. 유혼괘(遊魂卦)의 변화는 곧 날 음식을 구워삶아서 음식을 만듦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需)란 음식의 도라고 말한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수(需䷄)는 곤(坤䷁)宮의 7번째 괘이다. 4호가 불변이니 이는 곤(坤䷁)의 유혼괘(遊魂卦)이다. 경방(京房) 역전(易傳)에 택천괘(澤天夫䷛)는 강(剛)이 유(柔)를 결단한다. 음(陰)의 도(道)가 소멸하니 다섯 양(陽)이 아래에서 자라나고 일음(一陰)이 위에서 위태로워 장차 유혼괘(遊魂卦)로 돌아가려 한다. 육적(陸績)이 그곳의 주석에서, "택천괘(澤天夫䷛)는 곤(坤䷁)의 여섯 자리가 두루 하여 다시 시작하는 유혼괘가 된다. 九四 조가 음(陰)을 이룸에 이르러 위가 감(坎☵)으로 수천수(水天需䷄)가 된다"고 하는 그 말이다.

설괘전(說卦傳)에 곤(坤䷁)이란 땅이다. 만물은 여기에서 다 길러지므로 물이 어리면 기르지 않을 수 없고 그 까닭에 다음으로 받는 괘가 수천수(水天需䷄)가 된다 했으니 수천수(水天需䷄)가 중지곤(重地坤䷁)으로부터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감(坎☵)은 구름으로 하늘 위로 올라 있어 아직 비로 내리지 못하고 동서로 높이 날고만 있다. 그래서 하늘을 정처 없이 맴돌며 떠 있는 형상이 비가 되기를 기다리는 꼴이다. 수(須)는 기다림이다. (괘상으로 보더라도) 아래의 하늘 괘는 임금이 되므로 王이요, 곤(坤)은 사(事)가 되므로 王事が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곧 수천수(水天需䷄)는 구름이 하늘에 있어서 아직 비로 내리지 못한 형상이다. 왕사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경건하게 먹고 마셔 가며 잔치하며 기다림이 옳다.

한편 곤(坤☷)은 땅의 도(道)이며 아내의 도(道)이다. 그러므로 부인의

93) 184쪽 경방의 팔궁괘변도 참고

직분이다. 땅이 만물을 기르므로 온갖 백곡과 열매의 자라나는 바가 되고 금수와 어패류가 의탁해 살아가는 곳이라고 하였다.

유혼괘(遊魂卦)로 변한다는 것은 수천수(水天需䷄)가 중지곤(重地坤䷁)의 유혼괘(遊魂卦)가 된다는 뜻이다. 또 수천수(水天需䷄)의 象에서 보면 초(初)로부터 오효(五爻)까지가 솥 괘(鼎)의 상이다. 솥은 삶아서 음식을 익히는 기물이며, 날고기는 새나 짐승 어패류 및 자라 등을 일컫는다. 실(實)은 백곡과 열매를 두고 하는 말이니, 날고기나 과실을 삶아 익혀 음식으로 요리하는 일은 부인의 맡은 바 소임이다.

그러므로 수천수(水天需䷄)로서 받는다고 함은 곧 중지곤(重地坤䷁)이 변해 수천수(水天需䷄)가 중지곤(重地坤䷁)이 된다는 뜻이다. 이렇듯 중지곤(重地坤䷁)이 변해 수천수(水天需䷄)가 되면 땅 위의 생물을 부인이 맡아 밥을 짓는다는 뜻으로 풀 수 있다. 수천수(水天需䷄)가 만물을 양육하는 음식의 도가 되는 이유다.

●괘의 차례 문제

수천수(水天需)의 앞은 산수몽(山水蒙)이다. 몽(蒙)은 어리다는 뜻이니 물건이 어리면 기르지 않을 수 없다. 앞의 괘가 처음 생겨난 만물을 정신적으로 기르는 괘라면 이곳의 수(需)는 음식으로 그 어린 만물을 기르는 뜻으로 순서를 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천수(水天需)의 수(需)는 음식의 도로 이해하기도 한다.

건하(乾下) 감상(坎上)

아래는 건(乾) 위는 감(坎)이다.

●괘의 형상

수천수(水天需䷄)는 위가 물 괘 아래가 하늘 괘다. 굳세고 힘찬 하늘이 위로 오르려 하지만 험한 물 괘의 상을 만나 위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상이다. 한편 아래의 소성괘는 하늘이고 위의 소성괘가 물 괘 감(坎䷜)이므로 하늘 위에 구름이 떠 있는 괘상으로 그 모양을 풀이할 수도 있다.

●괘의 덕에 대하여

괘상의 배합이 위가 물 괘 아래가 하늘 괘다. 이는 위 물 괘의 덕과 아

래 하늘 괘의 조합이 곧 수천수의 덕으로 이해되어지게 하는 구조다. 위의 물 괘에서 보면 구오(九五) 임금이 험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늘의 중정(中正)한 덕을 잃지 않고 있다. 아래의 하늘 괘는 안으로 하늘의 강건중정(剛健中正)한 덕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깥의 험함이 풀려 위로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험한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하늘의 이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덕의 형통함이고 하늘의 덕을 안으로 지니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험함이 풀려 나갈 수 있기를 기다리는 지혜로움이다. 그러므로 수천수(水天需䷄)가 믿음이 있고 형통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되고 대천을 건넌이 이로운 까닭이다.

수 유 부 광 형 정 길
需 有孚 光亨 貞吉

수(需䷄)는 믿음이 있어 빛나고 형통하며 곧아서 길하니
우번(虞翻)의 풀이

뇌천대장(雷天大壯䷡)의 사효(四爻)가 오효(五爻)로 변한 괘상이니 믿음이란 오효(五爻)를 일컫는 말이다. 이(離☲)는 빛남이 되고 사효(四爻)가 오효(五爻)로 가서 자리와 효가 모두 中正하며 빛나고 형통하다. 곧아서 길하다(貞吉)고 함은 큰 수레의 성대한 바퀴살과 같음을 말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이음사양(二陰四陽)의 괘는 뇌천대장(雷天大壯䷡)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뇌천대장(雷天大壯䷡)의 사효(四爻)가 오효(五爻)로 갔다고 말한다. 양(陽)이 이효(二爻)와 오효(五爻)에 머무는 것을 믿음이 있다고 하니 그 까닭에 감(坎☵)은 믿음이 있는 괘가 되고 爻로 보면 五효이다. 여기서 五효를 사효(四爻)와 함께 바라보면 이(離☲)가 되어 해의 빛남이 된다. 대장(大壯䷡)의 사효(四爻)가 위치를 바꾸어 오효(五爻)로 오르면 차지하는 자리가 바르고 또 中이다. 대신 감(坎☵)은 가운데가 양효(陽爻)이므로 형통함이 되고 사효(四爻)와 더불어 빛나는 괘상이므로 본문 중의 빛나고 형통함이 된다. 또 오효(五爻)는 자리가 올바르므로 곧아서 길하다. 큰 수레의 성대한 바퀴살과 같다는 비유는 수레의 바퀴살이 당연히 배(腹:몸의 중심)가 된다고 여김이니 뇌천대장(雷天大壯䷡) 구사(九四) 효에 곧으면 길하고 뉘우침

이 없으리니 큰 수레의 바퀴살이 건장하다고 하였다. 우변은 그곳의 해석에서 ‘자리를 잃으면 뉘우친다. 가서 바르게 되고 中을 얻게 되므로 곧아서 길하고 뉘우침이 없다. 곤(坤☷)은 큰 수레의 바퀴살이 되고 사효(四爻) 양(陽)이 오효(五爻)로 옮겨 곤(坤☷)의 中을 차지하므로 큰 수레의 바퀴살이 건장하다. 곧 이는 수천수(水天需䷄) 오효(五爻)의 곧아서 길하다고 하는 괘사의 뜻이다.

이 섭 대 천
利涉大川⁹⁴⁾하니라.

대천을 건넘이 이롭다.

하타(何妥)의 풀이

‘큰 내’란 크게 어렵다. 모름지기 때를 기다려야 한다. 본래 어려운 것을 건너고자 하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 그러므로 대천을 건넘이 이롭다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설괘전에 坎은 개울(溝瀆)이라고 하였다. 고공기(考工記)에 장인(匠人)은 도랑(溝瀆)이 되니 넷가로 통한다.

좌전(左傳) 선공(宣公) 12년에 내가 막히면 못이 된다는 기록을 두고 두(杜)가 주석하기를 감(坎☵)은 내가 되니, 이는 큰 내(大川)가 된다. 그런

94) 大川-역림에 근거하여 坤은 물이 되고 大川이 된다고 상병화는 해석한다. 그 까닭은 山火賁가 山澤損으로 변한 괘상의 해석에 있다. 山澤損 互卦 震은 龍과 蛇가 되고 互卦 坤은 水가 된다고 하였다. 또 지수사가 변해 지뢰복으로 간 괘상의 풀이에서도 淵泉隄防 水道利通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지뢰복 坤으로 써 샘이 되고 물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밖의 거론하는 또 하나의 예는 九家說 山風蠱의 利涉大川 부분의 해석 내용이다. 구가역에서는 산풍고가 지천태에서 왔다고 풀이한다. 地天泰는 乾과 坤이 결합한 괘다. 이들이 산풍고로 변하는 과정에서 初爻와 上爻가 움직인다.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서 乾坤의 사이에 서로 출입한다. 이것이 利涉大川의 의미라고 풀이하는데서 땅 坤은 대천이 되고 물이 된다고 보는 견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해석의 내용은 하나의 해석하는 관점이고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그렇게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그 괘의 덕에 근거하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즉 초효와 상효가 乾坤에 출입하며 사귀되 그로 인한 어떤 의미가 각 괘에 반영된 역의 원형이정을 드러낼 수 있는지 여부로서 그 말뜻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데 大川을 두고 크게 어렵다고 하는 것은 감(坎☵)의 험한 것이 앞에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건(乾☰)이 위 물 괘의 험함을 알아 급히 나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需☵)는 마땅히 때를 기다림이 된다고 말한다. 그 까닭은 잠시도 건너기 어렵게 되어 있음을 잊지 않음에 있으니 본래 어려움을 건너고자 하는 까닭이다. 대신 기다림에 믿음이 있으므로 능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고 하였다. 이는 오직 바른(正) 까닭에吉하고吉하므로 대천을 건넌에 이롭다. 말하자면 충직함(忠)과 믿음(信)에 의지하여 거친 파도를 건넌다고 하는 바로 그 뜻이 여기에 있다.

○ 덧붙이는 말

① 우선 이 구절에 대한 정자와 주자의 해설은 서로 다르다.

정자는 믿음이 있어 빛나고 형통하며 바르게 하여 길하니 대천을 건넌에 이롭다고 하였다.

주자는 믿음이 있으면 빛나고 형통하며 바르게 하면 길하여 대천을 건넌에 이롭다고 풀이한다.

② 수(需☵)는 기다림이다. 아래의 하늘 소성괘로 보면 군센 하늘의 덕이 위로 오르고자 하면서 험한 감(坎☵)을 만났으니 스스로 하늘의 덕을 안으로 지키면서 위의 험한 때가 풀리기를 기다리는 뜻이 있다.

③ 위의 九五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처한 때가 험한 감(坎☵)이면서도 지존의 자리에 위치하여 양강중정(陽剛中正)한 덕을 잃지 않고 있다.

④ 괘상으로 보아 이 구절을 해석하면 비구름이 하늘에 가득 덮여 있어 비 내릴 때를 기다리는 상이다. 이는 하늘의 이치로 기다리면서 세상에 비를 내려 만물을 이롭게 하리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⑤ 미답다는 유부(有孚)는 그 의미를 해석함에 뜻이 매우 애매하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세상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달리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남들이 미답게 볼 수 있도록 처신한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유부(有孚)의 해석은 의미의 초점을 무엇에 대한 믿음이며 어

똥게 미덥게 하고자 하느냐는 쪽으로 맞추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인 해석의 방법처럼 보인다. 즉 스스로 강건중정(剛健中正)한 하늘의 덕에 믿음을 두고 행동하면서 그로 인해 남들에게 미더움을 사는 길이다. 그렇게 하면 매사가 빛나고 형통하며 올바르게 되어 길하다.

⑥ 이섭대천(利涉大川)은 하늘의 덕에 대한 믿음과 과감성으로 인해 어떤 큰일을 진행함이 이롭다는 뜻이다.

⑦ 결론 점치는 자가 하늘의 굳세고 중정한 덕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 기다림을 가지고 그 이치대로 행해 나간다면 매사가 빛나고 형통하며 바르게 되어 대천을 건넘이 이롭다는 의미가 된다. 역의 이치는 근본이 결국 강건중정(剛健中正)한 하늘의 이치다.

단 앞 수 수 앞 험 계 전 앞
象曰 需 須也 險 在前也

단전에 말한다. 수는 기다림이니 험함이 앞에 있기 때문이니 하타(何妥)의 풀이

이는 명성을 얻음이 험(險)함을 말미암아 가능함을 밝혔다. 감(坎☵)은 험함이다. 험함이 앞에 있으니 망령되게 건너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때를 기다린 뒤에 움직여야 한다.

하타(何妥) 풀이의 해설

괘의 이름이 수천수(水天需☵)다.坎(험함)을 말미암아 이름을 얻는다. 석고(釋詁)에 서서 기다린다는 수(俟)는 기다린다는 대(待)라고 하였다. 이처럼 수(需)는 기다린다는 말이 되므로 수(需)는 수(須)다. 잡괘(雜卦)에 수(需☵)는 나가지 않음이다. 그곳에 대한 우변의 주석에 따르면 험(險)함이 앞에 있으므로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곧 그 속에는 기다리는 뜻이 담겨 있다. 습감(習坎☵)은 그 괘상이 거듭 험함이 된다. 그러므로 감(坎☵)은 險함이다. 대성괘(大成卦)괘를 삼획괘(三劃卦)로 나누어 보면 위가 앞이 되므로 험함이 앞에 있는 것이다. 험함이 앞에 있다면 망령되게 건너고자 해서는 안 된다. 기다린다는 뜻 그대로 때를 기다린 뒤에 움직여야 한다. 또 경방(京房) 역전(易傳)에 수천수(水天需☵)는 구름이 하늘 위에 올라 있음이니 음(陰)으로 엉겨서 양(陽)을 기다린다. 그러므로 수(需)

䷄需는 기다림이다. (아래에서) 삼양(三陽)이 위로 오르기를 힘쓰지만 육사(六四)에 가로막혀 있다. 육적(陸績)은 이 구절의 뜻을 풀이하면서 밖으로 감(坎☵) 물은 험(險)함이 되고 또한 음(陰)을 일컬어 혈(血)이라 한다고 했으니 수천수(水天需䷄)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받아들임에 있어서 따를 만한 견해가 된다.

강 건 이 불 함 기 의 불 곤 궁 의
剛健而不陷 其義 不困窮矣.

강건하여 험(險)함에 빠지지 않으니 의리(義理)상 곤궁(困窮)하지 않은 것이다.

후과(侯果)의 풀이.

건(乾☰)의 체(體)는 강(剛)하고 굳세다. 험(險)함을 만나서도 능히 통하니 험함도 능히 험하지 않으니 의리가 궁색하지 않은 것이다.

후과(侯果) 풀이의 해설

건문언(乾文言)에 크구나 건(乾☰)이여, 강(剛)하고 굳세며 중정(中正)하다 했으니 건(乾☰)의 체(體)가 강하고 굳센 게 된다. 한편 설괘전(說卦傳)에서 감(坎☵)은 빠짐이다. 계사하전(繫辭下傳)에 건(乾☰)은 천하의 지극히 굳센 것이니 덕행이 향상하여 쉬운 것으로 험(險)함을 안다고 하였다. 수(需䷄)의 때에 올라 있으니 험(險)함을 만나도 능히 통(通)하고 험(險)함에 결코 빠지지 않으니 그 뜻이 곤궁할 리 없다. 험함도 능히 험하지 않다는 뒤의 험함은 당연히 빠지지 않는다는 함(陷)으로 바뀌어야 한다.

수 유 부 광 형 정 길 위 호 천 위 이 정 중 야
需有孚光亨貞吉 位乎天位 以正中也.

需有孚光亨貞吉은 하늘의 자리에 위치하여 바르고 알맞기 때문이다.

촉재(蜀才)의 풀이

이는 본래 괘상이 뇌천대장(雷天大壯䷡)이다.

안(案)

육오(六五)가 사효(四爻)로 내려와 유부광형정길(有孚光亨貞吉)이다. 구사(九四)가 위의 오효(五爻) 자리로 올라가 하늘의 자리에 위치하여 바르고 알맞게 되었다.

이정조(李鼎祚) 풀이의 해설

수천수(水天需䷄)는 뇌천대장(雷天大壯䷡)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이는 본래 뇌천대장(雷天大壯䷡)이라고 하였다. 뇌천대장(雷天大壯䷡)은 육오(六五)가 사효(四爻)로 내려오면 괘상이 감(坎☵)이니 믿음이 있는 유부(有孚)다. 호괘(互卦) 이(離☲)는 광명(光明)이 된다. 그 까닭에 이곳의 의미가 유부광형정길(有孚光亨貞吉)이다. 구사(九四)가 위의 오효(五爻) 자리로 올라가면 오효는 하늘의 자리가 되니 하늘의 자리에 위치함이 된다. 이미 바르고 또 중(中)으로 알맞으니 마땅히 빛나 형통하고 곧아서 길하다.

이 섭 대 천 왕 유 공 약
利涉大川 往有功也.

大川을 건넘이 이로움은 가면 공이 있으리라.

우번(虞翻)의 풀이

二爻가 자리를 상실했음을 말한다. 변해서 감(坎☵)을 건너니 감(坎☵)은 대천(大川)이 된다. 자리를 얻어 오효(五爻)에 호응하므로 대천을 건넘이 이롭다. 오효(五爻)는 공이 많으므로 가면 공(功)이 있다고 하였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이효(二爻)는 양(陽)으로서 음(陰)자리에 위치한 까닭에 자리를 상실함이 된다. 변해서 가면 바르게 되니 호괘(互卦) 감(坎☵)이 감(坎☵)에 호응하니 감(坎☵)을 건넘이 되고 감(坎☵)은 大川이 된다. 이효(二爻)가 변해 자리를 얻어 위로 오효(五爻)에게 바르게 호응하므로 대천을 건넘이 이롭다. 오효(五爻)는 공이 많다고 함은 계사하전의 인용구이고 밖으로 움직이는 것을 간다는 왕(往)이라고 한다. 二爻가 가서 五爻에게 호응하므로 가면 공(功)이 있다고 하였다.

○ 덧붙이는 말

① “需”를 須也라고 함은 공자가 바라보는 수천수(水天需䷄)의 의미 해석이다.

② 험재전야(險在前也), 강건이불함(剛健而不陷)-험함이 앞에 있음은 괘상의 해석이다. 굳센 하늘의 덕으로 하여 빠지지 않음은 앞에 험함이 있지만 강건한 덕으로 하기 때문에 험한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는 험한 가운데 사람이 빠져 있더라도 하늘의 이치로 강건하고 중정한 덕을 잃지 않아야 함을 뜻한다.

③ “需，有孚，光亨，貞吉，位乎天位” 以正中也.-수천수의 괘사가 구오를 중심으로 엮여지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이다. 구오 효사는 양이 양 자리에 바르고 또 중을 얻고 있기 때문에 正中이다.

④ 감(坎☵)과 건(乾☰)은 모두 형통하다. 건(乾☰)은 굳센 하늘의 덕이 있어서 형통하고 감(坎☵)은 험한 가운데에서도 바르고 알맞은 덕으로 하기 때문에 형통하다. 하물며 안으로 굳센 하늘의 덕이 있고 밖으로 알맞고 바른 덕을 잃지 않는 감(坎☵)의 상이라면 이는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다시 의심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대천을 건넘이 이로움은 가면 공이 있다는 왕유공야(往有功也)다.

상 활 운 상 우 천 수
象曰，雲上于天，需，

상전에 말하였다. 구름이 하늘로 올라감이 需이니,

송충(宋衷)의 풀이

하늘로 올라간 구름은 때가 되면 내려오게 된다.

송충(宋衷) 풀이의 해설

위에 자리 잡은 감(坎☵)은 구름이 되고 건(乾☰)은 하늘이 된다. 육사(六四)의 효사가 출우혈(出于血)이니 이는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 상(象)이다. 상육(上六)에서는 효사가 입우혈(入于血)이니 때가 되어 밑으로 내려오면서 비가 되는 상이다.

군 자 이 음 식 연 락
君子以飲食宴樂.

군자가 보고서 음식을 먹으며 잔치하고 즐기느니라.

우변(虞翻)의 풀이

군자(君子)는 건(乾☰)을 일컫는다. 감(坎☵)은 水 태(兌☱)는 口니, 물이 흘러 입으로 들어가는 상(象)에서 마시는 음(飮)이 된다. 이효(二爻)는 자리가 어긋났으므로 변하게 되면 괘상이 화뢰서함(火雷噬嗑☲☲)으로 먹는 식(食)이 된다. 그러므로 음식(飮食)이 된다. 양(陽)이 안에 있음은 호칭이

잔치를 즐기는 연(宴)이다. 여기에 뇌천대장(雷天大壯䷲)의 진(震䷲)은 즐거운 락(樂)이 되므로 연락(宴樂)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군자(君子)는 건(乾䷀)을 일컫는다고 함은 건(乾䷀) 양(陽)은 군자가 된다. 밖의 감(坎䷜)은 水가 되고 호괘 태(兌䷹)는 입이 되니 물이 입으로 흘러 들어감이 물을 마시는 상(象)이다. 그러므로 본문 구절에 마실 음(飮)이 나타나 있다는 시각이다. 이효(二爻)는 어긋난 자리이니 변해 가서 바르게 되면 초효(初爻)부터 오효(五爻)까지는 괘상이 화뢰서합(火雷噬嗑䷔)이다. 잡괘에서 서합(噬嗑䷔)은 식(食)이라고 하였으므로 먹는다는 식(食)이 된다. 문장에 있어서 해가 편안하게 안에 있음을 두고 호칭이 잔치를 즐기는 연(宴)이 된다고 보고 지금은 건(乾䷀) 양(陽)이 안에 있으므로 잔치한다는 연(宴)이 된다는 주장이다. 괘가 뇌천대장(雷天大壯䷲)으로부터 오되 뇌천대장(雷天大壯䷲)의 진(震䷲) 양(陽)은 별이 화장한 봄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진(震䷲)은 즐거운 락(樂)이 됨을 알 수 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만물을 양육하게 된다. 사람은 음식을 구해 잔치하고 즐거워하면서 몸을 부양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구름이 올라가 있음이 수(需䷄)니 군자가 이를 보고서 음식을 먹으며 잔치하고 즐거워한다고 하였다.

○ 덧붙이는 말

- ① 구름이 하늘에 올라가 있다면 아직 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비의 의미는 음양이 아직 완전히 서로 소통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 ② 그러므로 음양이 화합하여 구름이 비가 되어 아래로 내리기를 기다리며 오로지 하늘의 덕을 자기 안에 묵묵히 닦아 기르는 것만이 군자가 이 괘상에서 본받을 바다.
- ③ 음식연락(飮食宴樂)-중천건 문언에 보면 (하늘의 이치에 맞아) 즐거우면 행하고 근심스러우면 등진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수천수의 괘상이 스스로 하늘의 굳센 덕을 안으로 기르며 하늘의 구름이 만물을 이롭게 하는 비로 내리기를 기다리므로 이는 잔치하며 즐거워할 일이다.

한편 기다림의 도에 있어서 하늘과 물의 형상처럼 자기의 덕에 대한 확

신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풀면서 초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도 여기에는 담겨 있다.

초 구 수 우 교 이 용 항 무 구
初九, 需于郊, 利用恒, 无咎.

초구는 교외에서 기다림이다. 항상함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으리라.

간보(干寶)의 풀이

郊는 乾과 坎이 사귀는 경계다. 이미 명을 받아 도에 나아가되 북쪽 교외는 나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외에서 기다린다. 거처함에 욕됨을 피하지 않고 출입에 어려움을 사양하지 않음은 신하의 떳떳한 도리다. 자리를 얻어 호응함이 있으므로 항상함이 이롭다고 하였다. 비록 다소 머물며 지체하나 마침내 반드시 통하게 되니 허물이 없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건(乾)은 서북이고 감(坎)은 정북이다. 건과 감은 서로 이웃하면서 사귀다. 그러므로 건감(乾坎)의 경계가 교외가 된다. 건(乾) 양은 나감을 주장하되 뇌천대장(雷天大壯) 진(震) 대도(大塗)는 길(道)이 되고, 초효가 변한 손(巽)은 명(命)이 되므로 명을 받아 도(道)에 나아감으로 보았다. 이미 명을 받아 도에 나감은 서북(西北)을 말미암아 북으로 나간다. 그런데 감(坎)의 험함이 앞에 있으니 빨리 나가지 못한다. 동시에 잡괘에서는 수(需)가 나가지 않음(需 不進也)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반드시 수우교(需于郊)로서 기다린다. 거처함에 마땅히 거처할 바라면 욕됨을 피하지 않고, 출입에 마땅히 나서야 한다면 어려움을 사양하지 않는다. 때를 기다려 나감은 사람의 떳떳한 도리다. 떳떳하다는 상(常)은 항상하다는 항(恒)이다. 초효 양이 자리가 바르고 사효의 호응도 올바르다. 오래 도리를 지키며 기다리니 이롭지 않음이 없되 효사도 그러므로 이용항(利用恒)이다. 비로 지체하고 맴돌며 나가지 않아 다소 머물러 지체하나 마침내는 반드시 통하게 된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

우안(愚案)

초효와 사효는 서로 호응하는 관계다. 초효가 사효를 기다리니 기다린다는 장소의 교(郊)는 사효(四爻)다. 삼효(三爻)와 사효(四爻)는 서로 닿아

있다. 또한 건곤(乾坤)의 맞닿는 곳이 교(郊)다. 석지(釋地)에서는 읍(邑) 밖을 일컬어 교(郊)라고 한다고 하였다. 乾은 안이 되고, 乾의 바깥은 郊다. 그러므로 郊는 사효임을 알 수 있다. 사효의 기다림은 험한 坎이 앞에 있기 때문이다. 水天需는 重地坤의 遊魂卦다. 重地坤은 설괘에서 致役乎坤이라고 했으므로 用이 된다. 雷天大壯으로부터 왔으니 雷天大壯의 初爻가 변하면 雷風恒이 된다. 그러므로 초구의 효사가 利用恒이다. 四爻는 初爻와 호응하면서 五爻를 섬기는 자리니 水天需의 요긴한 자리다. 허물이 없다.

○ 덧붙이는 말

① 초효는 양이 양자리에 와 있으면서 보여주는 덕이 바르다. 그러나 초구가 위로 육사와 음양 응의 관계에 놓여 있고 자리도 양, 효도 양이므로 위로 나가고자 하는 힘이 강하다.

② 더구나 초구는 비록 초효이지만 그 힘이 위로 힘차게 오르하고자 하는 하늘 괘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경솔하게 움직여 밖의 어려움을 범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③ 밖이 험한 坎이므로 초구의 자리는 물 괘로부터 가장 먼 들녘에 해당한다.

④ 밖이 험한 물 괘이므로 구이는 모래, 구삼은 진흙으로 기다리는 자리를 풀이하였다.

⑤ 밖은 험한 물 괘의 상황이므로 항상하게 하늘의 덕을 안으로 기르면서 기다림이 이롭고 허물이 없다. 반면 하늘 괘의 덕을 아래 초구가 지니고 있고 양이 양자리에 바른 점에 있어서 보면 위로 성급하게 오르하고자 하는 경향이 없지도 않다. 그러므로 덕을 항상하게 기르고 있어야 이롭고 허물이 없다는 경계사를 여기서 말한다.

象曰, “^{수 우 교}需于郊”, ^{불 범 난 행 야}不犯難行也, “^{이용 항 무 구}利用恒无咎”, ^{미 실 상 야}未失常也.

상전에 말하였다. 교외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어려움을 범하여 가지 않는 것이요, 항상함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다는 것은 떳떳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왕필(王弼)의 풀이

수천수(水天需䷄)의 때에 坎의 險함으로부터 가장 멀면서 능히 자기를 억제해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 어지러운 행을 범하지 않고 있다. 비록 기미에 호응하지는 않으나 항상함을 보존할 수가 있으므로 허물이 없다.

왕필(王弼) 풀이의 해설

수천수(水天需䷄) 초효는 어려움으로부터 가장 멀다, 수우교(需于郊)는 능히 자기를 억제해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으니 행위에 있어서 어려움을 범하지 않는다. 비록 기미에 호응하지는 않으나 또한 항상함을 보존할 수가 있으므로 허물이 없다.

우안(愚案)

감(坎☵)의 어려움은 오효(五爻)에 있다. 초효(初爻)가 사효(四爻)를 기다리면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니 이는 어려움을 범하지 않는 모습이다. 초효가 변해 자리가 어긋나면 이는 항상함을 잃는 것이니 마땅히 허물이 있게 된다. 그러나 위의 사효도 거쳐하는 자리가 마땅하니 이는 몇몇한 도리를 잃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 설문에 항(恒)은 상(常)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경에서 항(恒)이라고 나타내고 전(傳)에서는 상(常)이라고 달리 표현하였다.

○ 덧붙이는 말

① 범하지 않는 어려움은 밖의 물 괄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늘 괄로 위를 향해 올라가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초구(初九)로 밑에 잠겨 있으므로 어려움을 범하지 않는 것이다.

② 몇몇함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몇몇함은 초구(初九)가 초구의 자리에서 밖의 험한 때가 풀리기를 기다리며 안으로는 하늘의 굳센 덕을 기르고자 애쓰는 몇몇함이다.

구 이, 수 우 사, 소 유 언, 종 길.
九二, 需于沙, 小有言, 終吉.

구이는 모래에서 기다린다. 다소 말은 있으나 끝내 길하다.

우번(虞翻)의 풀이

사(沙)는 오효(五爻)를 말한다. 물 가운데의 양(陽)은 모래다. 이효(二爻)

가 변해 음(陰)이 되면 호칭이 소(小)다. 뇌천대장(雷天大壯䷡)의 진(震䷲)은 말이 되고 태(兌䷹)는 입이 된다. 사효(四爻)가 오효(五爻)로 가면 나타나는 진(震䷲)의 상은 半조각이다. 그러므로 소유언(小有言)이다. 이효(二爻)가 변해 호응하므로 끝은 길하다.

우변(虞翻) 풀이의 해설

이효(二爻)는 오효(五爻)를 기다린다. 그러므로 모래는 오효(五爻)를 뜻한다. 오효(五爻)는 물 가운데의 양(陽)이다. 양은 강(剛)이므로 호칭이 모래다. 二爻가 변하면 음(陰)이 되니 그 호칭이 소가 됨은 지천태(地天泰䷊)에서 소(小)는 가고 대(大)가 왔다는 구절 및 천지비(天地否䷋)에서 大는 가고 소가 왔다는 구절에서 잘 알 수 있다. 뇌천대장(雷天大壯䷡)의 진(震䷲)은 잘 우는 소리이므로 말이 되고 그 궤에서 사효(四爻)의 외호괘(外互卦)는 태(兌䷹)다. 그러므로 태(兌䷹)는 입이 된다. 사효(四爻)가 비록 오효(五爻)로 가지만 진(震䷲)의 상은 半만 나타난다. 또 호괘(互卦) 태(兌䷹) 입이 되고 소녀가 되므로 조금 말이 있게 된다는 소유언(小有言)이다. 바깥은 五爻가 양(陽)이고 안에서는 二爻가 변해 음(陰)으로 서로 호응하니 이들 爻들은 모두 中正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끝은 길하다.

○ 덧붙이는 말

- ① 초구(初九)의 모래는 위의 험한 물에 더욱 가까워진 자리가 된다.
- ② 조금 말이 있다고 함은 아래 하늘의 구이(九二)가 위의 험한 물에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상수적으로 보면 내호괘가 입 태(兌䷹)가 되고 구이가 변한 뒤는 감중련(坎中連)이 되므로 근심스러운 모양의 걱정하는 말이 생겨나게 된다.
- ③ 마침내 구이(九二) 효가 길하게 됨은 밖이 험하고 험한 물에 한발 더 가까워졌지만 구이(九二)가 하늘의 가운데 자리에서 알맞게 행하는 중덕(中德)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상왕(上王) 수우사(需于沙), 연제중야(衍在中也),

상전에 말하였다. 모래에서 기다림은 너그로움으로 中에 있기 때문이다.

우변(虞翻)의 풀이

연(衍)은 흐른다는 류(流)고 중(中)은 오효(五爻)를 말한다.

순상(荀爽)의 풀이

이효(二爻)가 오효(五爻)와 호응한다. 물 가운데 거친 것[剛]은 모래다. 앞에 사막이 있음을 알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패상 건(乾☰)은 거처함이 조화롭고(化和) 아름다운 덕으로 임하되 너그러움으로 중(中)에 있으면서 나가지 않는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설문에 연(衍)은 물이 바다로 모여 조종(朝宗)을 이루니 물 수(水)와 갈행(行)의 합성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연(衍)은 흐른다는 류(流)로 풀이하였다. 이효(二爻)와 오효(五爻)는 호응하는 관계다. 그러므로 中은 五爻를 말한다. 五爻는 알맞은 중덕(中德)이 있어서 못인 二爻로 흐른다.

우안(愚案)

목천자전에‘천자내수동정(天子乃水東征) 남절사연(南絕沙衍)’이라는 구절이 있는 바 물 가운데 모래가 있는 것을 사연(沙衍)이라고 한다. 모래에서 기다림은 모래가 있는 사연(沙衍)의 오효(五爻) 가운데 있음을 말한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이효(二爻)가 오효(五爻)와 호응한다고 함은 감(坎☵) 오효(五爻)가 중(中)에 있으니 그 강함이 모래를 본떴으므로 모래라고 하였다. 모래에서 기다린다고 함은 앞에 사막이 있음을 알고 나가지 않는 것이다. 안은 패상이 건(乾☰)이고 가운데에 처하여 조화로우니 이는 아름다운 덕으로 넉넉하고 너그러움으로 가운데 있으면서 나가지 않는 형상이다. 임하되 너그럽다고 해석한 우연(優衍)은 그 뜻이 유연(游衍)과 일치한다. 시경(詩經) 대아(大雅)에 넓은 하늘 휘하시어 그대와 더불어 노닐고 있네(호천왈단昊天曰且급이유연及爾游衍)라는 구절이 있으니 여기서의 유연(游衍)은 스스로 마음 내키는 대로 노니는 뜻(자자自恣)을 나타낸다.

수 소 유 연 이 종 길 야
雖小有言，以終吉也.

비록 말은 다소 있으나 끝내 길할 것이다.

순상(荀爽)의 풀이

이효(二爻)와 사효(四爻)는 공(功)이 같다. 그러나 삼효(三爻)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다소 말이 있다. 건(乾≡)은 비록 아래에 있으나 마침내 위로 올라가게 되니 이효(二爻)는 마땅히 오효(五爻)에 거쳐해야 한다. 그러므로 마침내 길하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이효(二爻)와 사효(四爻)는 공(功)이 같다고 함은 계사하전의 문구다. 한(韓)은 그곳의 주석에서 음(陰)으로 공(功)이 같다고 하였다. 사효(四爻) 태(兌≡)는 입의 혀가 되고 삼효(三爻)는 그 사이에 의거해 있다. 사효(四爻) 음(陰)은 호칭이 소(小)다. 그러므로 소유언(小有言)이다. 건(乾≡)이 비록 아래 있으나 마침내 위로 올라간다고 함은 양(陽)의 성격이 위로 올라감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효(二爻)가 비록 중(中)을 얻었으나 그 자리는 바르지 않다. 올라가 오효(五爻)로 자리를 옮기면 중(中)이면서 또 자리도 바르다. 그러므로 마침내 길하다.

○ 덧붙이는 말

① 이는 전체의 효사가 지닌 의미를 압축해서 다시 풀이하고 있다. 곧 “수우사(需于沙)”는 나머지 전체 효사를 대신하는 말이다.

05需卦08, 九三, 需于泥, 致寇至.

구삼은 진흙에서 기다림이니 도적의 어려움이 닥침을 부르리라.

순상(荀爽)의 풀이

어버이(親)와 더불어 감(坎≡)이 맞닿아 있으므로 호칭이 진흙(泥)이다. 모름지기 그치고 있으면서 나가지 않고 사효(四爻)를 취하지 않으니 도적의 해를 입음에 이르지 않는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건(乾≡)은 오르고자 하고 감(坎≡)은 내려오고자 하므로 어버이(親)와 더불어 감(坎≡)이 맞닿아 있다고 하였다. 감(坎≡)은 물이 되고 진흙은 물기를 뺀 흙이므로 호칭이 진흙이다. 아래에서 건(乾)은 위가 험해 막힘을 알므로 모름지기 그치고 있으면서 나가지 않는다. 삼효(三爻)의 호응이 상효(上爻)에 있으므로 사효(四爻)를 취하지도 않는다. 감(坎≡)은 도적이 되므

로 효사에서 구(寇)라고 하였다. 삼효(三爻)는 사효(四爻)에 가깝다. 비록 도적이 이르러 움이 있으나 기다리고 나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害)가 되지 않는다.

○ 덧붙이는 말

① 구삼(九三)은 양(陽)이 양(陽)자리이고 아래 소성괘(小成卦)의 맨 윗자리가 된다. 거기에 구삼의 자리는 아래 소성괘 하늘의 맨 윗자리도 된다. 이는 밖이 험함에도 불구하고 위로 오르하고자 하는 성급함을 주체하지 못하는 구석이 있다.

② 밖의 험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위만을 향해 오르하고자 한다면 이는 재앙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불러오는 형상이 된다.

05需卦^{상 완 수 우 니}09, 象曰, “需于泥”, 災在外也,^{계 제 의 야}

상전에 말하였다. 진흙에서 기다림은 재앙이 밖에 있는 것이다.

최근(崔觀)의 풀이

진흙은 밖에 가까운 자다. 삼효(三爻)가 감(坎☵)에 바짝 다가가 있고 감(坎☵)은 험한 도적이 되므로 도적이 이르러 움을 이루게 된다. 이는 재앙이 밖에 있는 것이다.

최근(崔觀) 풀이의 해설

진흙은 바깥 괘를 말하고 삼효(三爻)는 이에 가깝다. 이처럼 삼효(三爻)가 감(坎☵)에 바짝 가깝되 감(坎☵)은 험함이 되고 또 도적이 되므로 도적이 이르러 움을 이루게 되는 상이 있다. 또 우(虞)의 뜻은 감(坎☵)에 재앙의 뜻도 되고 감(坎☵)은 밖에 있으므로 재앙이 밖에 있다고 하였다.

^{자 야 치 구 경 신 불 패 야}
自我致寇, 敬慎不敗也.

나로부터 도적을 이루게 하였으니 공경하고 삼가면 패하지 않으리라.

우번(虞翻)의 풀이

이(離☲)는 용(戎)이 되고, 건(乾☰)은 공경함이 된다. 음(陰)이 녹아 오효(五爻)에 이르면 천산돈(天山遯䷠-倒轉)이다. 신하가 장차 임금을 시해하겠지만 사효(四爻)가 올라가면 곤(坤☷)으로 성대하므로 공경하고 삼가서 패

하지 않는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석문(釋文)에 정본(鄭本)과 왕숙본(王肅本)에는 구(寇)가 용(戎)으로 적혀 있다고 했다. 한편 우(虞)는 이(離☲)가 용(戎)이 된다고 했으니 우본(虞本)도 또한 용(戎)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괘에 이(離☲)는 갑주(甲冑)가 되고 과병(戈兵)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용(戎)이 된다고 본다. 건(乾☰) 양강(陽剛)의 덕이 있으면서 또한 두려워하고 위태롭게 여기므로 공경함이 된다. 음(陰)이 녹아 오효에 이르면 천산돈(天山遯☶)이 되어 신하가 장차 임금을 시해한다고 함은 소식의 괘에서 천산돈(天山遯☶)은 뒤집으면 뇌천대장(雷天大壯☳)이 됨을 뜻한다. 뇌천대장(雷天大壯☳)은 건(乾☰) 사효(四爻)가 어긋난 자리이므로 음(陰)의 상한 바가 된다. 드디어 나가 기다리지 않으면 음이 녹아 오효에 이르는 천산돈(天山遯☶)의 도전괘(倒轉卦)로서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상이 있게 된다는 뜻이다. 四爻가 올라가 곤(坤☷)으로 성대하다고 함은 四爻가 올라가 五爻로 가면 곤(坤☷)을 쪼개어 감(坎☵)이 되기 때문이다. 큰 수레의 바퀴살처럼 썩썩하면(壯于大輿之輹) 천산돈(天山遯☶)으로 뒤집히지 않는다. 삼효(三爻)가 아래 소성괘 건(乾☰)의 맨 위면 중천건(重天乾☰) 삼효(三爻)다. 중천건(重天乾☰) 三爻에서 그 효사(爻辭)를 보면 ‘군자가 날을 마치도록 굳세고 굳세게 하여 저녁에 두려운 듯이 하면 위태롭지만 허물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이처럼 공경하고 삼가면 패하지 않는 자리임을 상기시키는 말이다.

○ 덧붙이는 말

- ① 밖에 있는 재앙은 물 괘를 두고 하는 말이다.
- ② 자기 자신의 굳센 힘만을 믿고 지나치게 경솔하면 재앙이 되지만 오히려 날을 마치도록 굳센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고 삼간다면 이는 반드시 패하는 자리는 아니다.
- ③ 경신불패(敬愼不敗)는 중천건(重天乾☰) 구삼(九三) 효(爻)에서 강조하는 날을 마치도록 굳세고 굳세게 반복하기를 도로서 하라는 효사와 그 맥이 일치한다. 구삼(九三)이 비록 양(陽)이 양(陽)자리로 치우쳐 있지만 자리

가 바르고 하늘의 덕으로 삼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효이기도 하다.

05需卦10, 六四, 需于血, 出自血.

육사는 피에서 기다림이나, 구멍으로부터 나오리라.

안(案)

육사(六四)는 패상이 감(坎☵)이다. 감(坎☵)은 구름이 되고 또 피(血)가 되는 패다. 그 뜻은 음(陰)에 대한 비유니 피가 되는 음(陰)의 패상은 낮고 약하다. 마땅히 양(陽)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효사가 수우혈(需于血)이다.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구름이 땅으로부터 나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니 구멍(穴)을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수우혈(需于血), 출자혈(出自穴)이다.

이정조(李鼎祚) 풀이의 해설

사효(四爻)는 감(坎☵)의 아래 자리다. 위에 자리 잡은 감(坎☵)은 구름이 되고, 혈괘(血卦)가 된다. 그러므로 혈(血) 피의 象이 있다. 육(六)은 음효(陰爻)이고 사(四)는 음(陰)의 자리다. 그러므로 피의 비유로서 陰을 표현하였다. 陰은 낮고 약한 패상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오효(五爻) 양(陽)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피에서 기다린다고 함은 유순(柔順)하게 능히 기다리는 자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감(坎☵)은 감(坎☵) 구덩이(담窩)가 되니 그 상(象)이 구멍 血이 된다. 건(乾☰) 二爻가 곤(坤☷)의 오효(五爻)로 가서 감(坎☵)이 된다. 그러므로 구름이 땅으로부터 나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였다. 공양전(公羊傳) 희공(僖公) 三十一年 기록에 돌에 부딪쳐 나와서 가까이(부춘膚寸)에서 합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구멍을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다.

우안(愚案)

사효(四爻)는 나아가 오효(五爻)에 위치하고자 한다. 그러나 유순(柔順)함을 귀하게 여겨서 기다리며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피에서 기다림은 유

순하게 기다리는 것이다. 坎의 아래 입이 열려 있는 것은 구멍(穴)이 된다. 사효(四爻)가 오효(五爻)로 나가지 않은 상태의 괘상은 진(震☳)이다. 진(震☳)은 나감이 되므로 출자혈(出自血)이다. 이미 구멍(穴)으로부터 나왔다면 이미 오효(五爻)로 나가는 기세가 있다. 그러나 나가면서도 급하게 나가지 않으므로 피에서 기다리되 구멍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게 된다.

○ 덧붙이는 말

① 이곳의 효사 혈(穴)에 대한 개념은 정자의 시각과 견주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자는 주로 음(陰) 자리에 음이 와 있으므로 편안하게 여긴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상육(上六)에 나오는 혈(穴)의 개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보다는 육사(六四)와 상육(上六)이 모두 감(坎☵)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혈(穴)의 개념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육사(六四)는 자리가 바르면서 유순하므로 아래에서 올라오는 양(陽)들에 대해 공손하게 대한다. 이것은 육사(六四)가 본래 감(坎☵) 구덩이에 속한 자리가 되지만 음(陰)이 음(陰)자리에 있으면서 유순하므로 위태로운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됨을 의미하는 말이다. 상육도 그 점은 마찬가지다. 물 괘 감(坎☵) 구덩이에 들어 있으나 음(陰) 자리의 음(陰)으로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양(陽)들을 공경하게 맞이하니 끝이 길하게 되는 이치다.

② 자신은 물 괘 감(坎☵)의 험한데 빠져 있다. 아래 건삼련(乾三連)의 양(陽)이 올라오는 것을 맞아 험하게 하는 점에서 보면 육사는 피를 흘리는 자리이다. 효사의 수우혈(需于血)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③ 육사(六四)는 음 자리의 음으로 자리와 효가 바르고 유순하며 매우 공손하다. 이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乾三連 양을 맞아 지극히 공손하고, 위로 구오 양을 섬김에 매우 유순한 효상이다.

④ 출자혈(出自穴)의 穴은 육사가 물 괘의 시작으로 험란한 자리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나 앞의 설명처럼 육사가 바르게 움직이면서 지극히 유순하고 공손해 본래의 험한 구멍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뜻이다.

⑤ 혹자는 穴 구멍의 의미가 편안한 곳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나 이는 적합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 육사(六四)에서도 구멍을 말하고 상육(上

六)에서도 구멍을 말하는데 이는 모두 감(坎☵)에 두 효들이 속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해야 한다고 믿는다. 다만 육사(六四)와 상육(上六)이 둘 모두 자리가 바르므로 기다리는 도리에 맞게 처신하여 육사(六四)는 구멍에서 벗어나게 되고 상육은 감(坎☵) 구멍에 들어 있으나 결국 수(需☵)의 끝이 되도록 기다리는 덕이 지극하고 음(陰)이 음(陰) 자리에서 바르므로 그로 인해 길해지게 되는 것이다.

05需卦11, 象曰, “^{상 완}需于血^{수 우 혈}”, ^{순 이 청 아}順以聽也.

상전에 말하였다. 피에서 기다림은 유순함으로써 듣는 것(듣고 따름)이다. 왕필(王弼)의 풀이

구멍(穴)은 음(陰)의 길이다. 사효(四爻)가 감(坎☵)의 시작하는 자리이니 구멍에 자리 잡은 자다. 구삼(九三) 강(剛)은 나가는 효(爻)니 사효(四爻)가 이에 거역하지 않는다. 침략을 당하면 피하고 유순함으로써 명(命)을 경청한다.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구름은 하늘로 올라가고자 한다. 때를 기다려 밑으로 내려오게 되니 이는 오효(五爻)의 명에 따라 유순함이다. 五爻는 하늘이 된다.

왕필(王弼) 풀이의 해설

공(孔)의 주석에서 무릇 구멍에 해당하는 공(孔)·혈(穴)·천(穿)의 도리는 모두 그윽하게 숨어 있다. 그러므로 음(陰)의 길이라고 하였다. 또 감(坎☵)이 시작되는 자리에 위치하였으니 이는 구멍에 위치한 자다. 삼효(三爻)가 와서 자기를 뺌박하되 사효(四爻)로서 능히 거역하지 않으므로 이는 거처하는바 구멍에서 나와서 피한다. 다만 유순하게 명(命)을 경청하여 허물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상전(象傳)에서 피에서 기다린다는 수우혈(需于血)이니 유순함으로써 命을 경청함이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구름은 혈(血)로부터 나온다. 이미 하늘로 올라가 있되 때가 되면 내려온다. 이처럼 언젠가 비가 되는 기약이 있다. 그렇다면 피에서 기다린다는 수우혈(需于血)은 유순(柔順)하여 오효(五爻)에서 명(命)을 경청한다는 뜻

이니 올라가 있지만 올라가 있는 자리의 높음을 고집하지 않는다. 五爻가 하늘 자리가 된다고 함은 五爻는 하늘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건(乾☰)이 곤(坤☷)에 들어가면 감(坎☵)이 된다. 유순함은 곤(坤☷) 음(陰)이다. 경청함은 감(坎☵)이 귀가 되기 때문이다.

○ 덧붙이는 말

① 육사(六四) 효사의 풀이에 뜻이 자세하다.

05需卦12, 九五, 需于酒食, 貞吉.

구오는 술과 음식에서 기다리니 바르고 길하다.

순상(荀爽)의 풀이

오효(五爻)가 속한 호괘는 이(離☲), 위는 감(坎☵)이다. 물이 불의 위에 있음은 술과 밥의 象이다. 또 수(需☵)는 음식(飲食)의 도라고 하였으므로 감(坎☵)이 수천수(水天需☵) (집)에 자리 잡고 있으니 주식(酒食)이 된다. 구름은 때가 되면 밑으로 내려온다. 건(乾☰)은 때가 되면 마땅히 위로 올라간다. 오효(五爻)에게는 강(剛)의 덕이 있고 中에 처하고 위치함이 바르므로 능히 나머지 음(陰)을 거느린다. 감(坎☵)을 설명하면서 내려온다고 하고, 양(陽)이 거쳐하는 바가 바르다면 길하다. 그러므로 효사가 술과 음식에서 기다리는 수우주식(需于酒食)이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오효(五爻) 호괘(互卦) 이(離☲)는 불이고 감(坎☵)은 물이다. 감(坎☵) 물이 이(離☲) 불의 위에 있다. 또 화풍정(火風鼎☲☱)의 象으로 보면 半만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주식(酒食)의 상(象)이 있다. 수천수(水天需☵)는 음식(飲食)의 도(道)가 된다는 해석은 서괘전의 풀이다. 오직 수천수(水天需☵)에는 음식의 도가 있으나 감(坎☵)은 또 水가 되므로 감(坎☵)이 수천수(水天需☵)의 괘상에 있어서 술과 밥이 됨을 알 수 있다. 위의 감(坎☵)은 구름이 되고 때를 기다리며 있으면 아래로 내려온다. 한편 아래의 건(乾☰)은 하늘이 되니 때를 기다려 마땅히 위로 올라가게 된다. 五爻는 陽으로 굳센 덕이 있으며 위치가 中이고 자리가 바르니 감(坎☵)의 주효가 된다. 그러므로 능히 상(上)과 사효(四爻)의 두 음(陰)을 거느리게 된다. 오효(五爻)가 감

(坎☵)을 주장하여 이효(二爻)로 내려가고 이효(二爻) 양은 건(乾☰)을 따라서 올라가 五爻에 위치하면 바르면서 있어야 할 자리를 얻게 되므로 수우주식(需于酒食), 정길(貞吉)이다. 이는 안과 밖의 궤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도리로서 해석한 말이고 호응하는 爻가 서로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하는 순상(荀爽) 승강설(升降說)의 한 예다.

안(案)

오효(五爻)는 이효(二爻)와 더불어 호응하는 관계다. 오효(五爻)는 이효(二爻)를 기다리고, 이효(二爻)는 변해 바르게 되어서 오효(五爻)에 호응하면 바탕을 이루는 궤상이 화뢰서합(火雷噬嗑☲☳)이다. 그러므로 술과 밥의 상이 있다. 需는 기다린다는 수(須)다. 술과 밥은 제사드리는 예물이다. 객을 초대하는 예에 관한 말에 주인이 기다린다고 하였다. 오효(五爻)는 궤의 주인이니 이효(二爻)가 변해 밥이 되기를 기다린다. 위에서 아래를 기다리고, 아래는 위에 호응하면서 이효(二爻)가 오효(五爻)로 올라가 바르게 되므로 길하다.

○ 덧붙이는 말

- ① 구오(九五)는 하늘의 지존 자리에서 양(陽) 강(剛)으로 중정한 덕을 지키고 있다. 정자는 군자가 기다리는 때에 이렇게 기다린다면 무엇을 얻지 못하겠느냐고 반문한다.
- ② 주식(酒食)을 주자는 잔치하며 즐기는 뜻을 담고 있으니 편안히 기다림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 ③ 위의 궤상 감(坎☵)은 주식(酒食)이 된다.
- ④ 세상 만물을 기르는 것은 술과 밥이다.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의 도리에 알맞다.

05需卦13, 象曰, “酒食貞吉”, 以中正也.

상전에 말하였다. 술과 음식에서 기다림은 알맞고 바르기(中正) 때문이다.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건(乾☰) 이효(二爻)가 오효(五爻)로 올라가 자리가 바르게 됨을 말한다. 노씨(盧氏)의 풀이

서경(書經) 태서(泰誓)⁹⁵에 주색에 빠져 지낸다는 침면모색(沈湎冒色)이라는 글귀가 있는 바 침면(沈湎)은 (은나라의 紂王이) 술에 빠져 있음을 말한다. 술에 빠져 있다면 흥하니 중정(中正)함을 얻으면吉하다.

05需卦14, ^{상 욱}上六, ^{입 우 혈}入于穴,

상욕은 구멍에 들어감이니

순상(荀爽)의 풀이

수천수(水天需䷄)의 도(道)가 이미 끝에 이르렀다. 구름이 마땅히 내려와 구멍으로 들어간다. 구름이 올라가 지극해지면 밑으로 내리면서 비가 된다. 그러므로 시경(詩經)에 아침녘 서편으로 무지개 서면 아침 내내 비가 내린다(조제우서朝濟于西 숭조기우崇朝其雨)고 했으니 이는 땅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효사가 입우혈(入于穴)이다. 구름이 비가 되어 땅으로 스며들면 아래 삼양(三陽)이 움직여 위로 오르게 된다.

95) 서경(書經) 태서(泰誓)는 주나라에 관한 기록(周書)의 첫머리에 온다. 태서(泰誓)의 태는 크다는 대고,誓는誓師니 군사를 모아 싸움터로 나갈 때 장병들에게 약속과 더불어 훈계하는 맹세의 말이다. 무왕은 은나라의 주를 정벌하면서 군사를 맹진 나루에 집결시키고 군사들에게 크게 주가 은을 정벌해야 하는 이유와 그 필연성을 맹세하여 말하되 그 내용을 상하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상편은 아직 강을 건너기 전의 말이고, 중·하편은 강을 건너고 난 뒤의 맹서문이다. 무왕이 은나라의 주를 정벌해야 하는 명분으로는 은나라의 주왕이 권세만 믿고 하늘과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서 주색에 빠져 지내고 있으므로 백성들을 위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무왕이 말하는 정벌의 이유는 무력으로라도 하늘의 이치를 회복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다.

참고로 본문 가운데 두 세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들으니 길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함에 오직 날이 부족하고 흉한 사람은 착하지 못한 일을 함에 오직 날이 부족하다고 하니라.’ ‘하늘의 보심은 우리 민중으로부터 하시며 하늘의 들으심은 우리 민중으로부터 하시나니 백성에게 허물이 있음이나 한 사람에게 있으니 이제 나는 반드시 갚진저.’ 옛 사람의 말이 있나니 우리를 어루만지면 임금이요 우리를 학대하면 원수라고 하니라.--- 덕을 심음에는 번성하기를 힘쓰고 악을 제거함에는 뿌리를 힘써 캐나니 그리하여 소자는 크게 그대들 여러 군사로써 너희들의 원수를 섬멸코자 한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효가 이미 맨 위에 상호에 이르렀으므로 수천수(水天需䷄)의 도(道)가 이미 끝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다. 올라가 지극해지면 반드시 내려오게 된다. 그러므로 구름이 반드시 구멍에 들게 된다고 하였다. 앞에서 인용한 시구는 시경 용풍(廊風)에 등장한다. 선다고 해석한 제(躋)는 올라간다는 升의 뜻이다. 비 雨는 밑으로 내림을 말한다. 올라가 지극해지면 내려와 비가 된다. 마치 시에서 말하는 그 뜻이다. 이미 비가 되어 내리면 땅으로 스며드니 그것이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구름이 비가 되어 땅으로 내리면 아래 三陽이 움직여 위로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청하지 않은 손님 세 사람이 오게 됨을 말하였다.

불 속 지 객 삼 인 래 경 지 종 길
不速之客三人來，敬之，終吉.

청하지 않은 손님 세 사람이 올 것이니 이들을 공경하면 끝내 길할 것이다.

순상(荀爽)의 풀이

세 사람은 아래의 삼양(三陽)을 말한다. 때를 기다려 마땅히 오르게 되나 초대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청하지 않은 손님이 된다. 건은 올라가 위에 있어야 할 물건이다. 임금의 자리로서 정해져 있고, 坎은 흘러 내려 아래에 있어야 하니 마땅히 신하의 직분이 된다. 그러므로 공경하게 하면 끝내 길하게 된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마음은 여기서 청하다고 해석한 속(速)을 부른다는 召라고 풀이하였다. 건(乾☰)은 호칭이 사람이다. 그러므로 세 사람은 아래의 三陽이 된다. 상호(上爻)는 삼효(三爻)와 더불어 호응하는 관계다. 또 초효(初爻)와 이효(二爻)는 바탕이 동일하다. 건(乾☰)의 성질은 본래 올라가고자 한다. 부르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온다. 그러므로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라는 불속지객(不速之客)이다. 건(乾☰) 세 효(爻)는 함께 올라가되 이효(二爻)는 하늘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므로 임금의 자리로써 정해진다고 하였다. 坎(坎☵)은 내려와 아래 위치하고 이효(二爻)가 변하면 곤(坤☷)이 된다. 곤(坤

☰)은 신하의 도가 되므로 마땅히 신하의 직분을 좇는다고 하였다. 건(乾 ☰)은 공경함이 되므로 공경하면 마침내 길하다고 하였다.

우안(愚案)

오효(五爻)까지는 모두 기다리는 수(需)다. 다만 마치는 자리에서는 기다릴 바가 없다. 그러므로 기다린다는 수(需)로 여기서는 말하지 않았다. 감(坎 ☵)은 입을면서 위에 있으니 또한 穴이 된다. 상효(上爻)가 변해 巽이 되면 들어가는 入이다. 그러므로 효사가 입우혈(入于穴)이다. 상효(上爻)는 삼효(三爻)와 더불어 호응하니 음은 내려가고 양은 올라간다. 초효(初爻)는 이효(二爻)와 바탕이 건(乾 ☰) 양(陽)으로 동일하니 이는 사람이 된다. 안의 소성과 함께 밖으로 오르게 되어 있으므로 청하지 않은 손님 세 사람이 오게 된다. 위에서 손(巽 ☴)으로 변한다면 이는 공손함이 되므로 공경하면 마침내 길하다.

○ 덧붙이는 말

- ① 상육(上六)은 음(陰)이 음(陰) 자리다. 행실이 매우 바르다.
- ② 구멍은 편안함을 나타낸다고 정자와 주자가 해석한다. 이는 음(陰)이 음(陰) 자리에 편안하게 여김을 뜻하는 말이다.
- ③ 상육(上六)은 기다리는 때의 맨 위가 되므로 기다림이 끝나는 자리이고 험함이 풀리는 자리이다. 험함이 풀리고 기다림이 끝난다면 이윽고 아래의 세 양효(陽爻) 하늘이 위로 올라오게 된다. 그때 상육(上六)은 자리가 바르고 행실이 공경하므로 마침내 길함을 이룬다.
- ④ 속(速)은 청한다는 뜻이다.(馬融)

성이 같은 여러 친구들을 초대한다.(以速諸父-詩經),

상완 象曰, “不速之客來, 敬之終吉”, 雖不當位, 未大失也.

상전에 말하였다. 청하지 않은 손님이 음에 공경하면 끝내 길하다는 것은 비록 자리에 마땅하지 않으나 큰 잘못이 없기 때문이다.

순상(荀爽)의 풀이

상효(上爻)는 내려와 삼효에 위치하니 비록 자리는 마땅하지 않으나 양(陽)을 섬겨 실속이 있다. 그러므로 마침내 길해 큰 실수가 없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상효(上爻)가 내려와 삼효(三爻)에 위치한다고 함은 음(陰)이 양(陽)의 자리에 거처함이다. 그러므로 자리가 마땅하지 않다. 그러나 상효(上爻)가 삼효(三爻)로 가면 삼효 또한 위로 가게 된다. 구(九)는 올라가고 육(六)은 이를 내려와서 섬긴다. 이는 능히 높여야 할 자에게 공경함이다. 양(陽)은 실(實)이 되고 음(陰)은 허(虛)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양(陽)을 섬겨 실속이 있다고 하였다. 자리가 마땅하지 않다면 당연히 상실함이 있다. 양을 섬겨 공경하면 큰 실수가 없다. 논어(論語)에 군자는 공경하는 까닭에 실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바로 그 구절의 뜻과 통하는 말이다.

○ 덧붙이는 말

- ① 자리가 마땅하지 않음은 상육(上六)이 험한 물 궤를 이루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 ② 크게 잃지 않음은 위로 올라오는 아래 하늘의 덕에 유순하게 행동하는 효상(爻象)과 연결된 문장 구조다.

제 육(六) 천수송(天水訟䷅)⁹⁶⁾

96) 천수송 전체 본문

06訟卦01, 訟, 有孚窒惕, 中吉, 終凶, 利見大人, 不利涉大川.

06訟卦02, 彖曰, 訟, 上剛下險, 險而健, 訟. “訟, 有孚窒惕, 中吉”, 剛來而得中也. “終凶”, 訟不可成也. “利見大人”, 尚中正也. “不利涉大川”, 入于淵也.

06訟卦03, 象曰, 天與水違行, 訟, 君子以作事謀始.

初六, 不永所事, 小有言, 終吉. 象曰, “不永所事”, 訟不可長也, 雖“小有言”, 其辯明也.

九二, 不克訟, 歸而逋, 其邑人三百戶, 无眚. 象曰, “不克訟, 歸逋竄也”, 自下訟上, 患至掇也.

06訟卦08, 六三, 食舊德, 貞厲, 終吉, 或從王事, 无成. 象曰, 食舊德, 從上吉也.

06訟卦10, 九四, 不克訟, 復即命, 渝, 安貞吉. 象曰, 復即命, 渝, 安貞不失也.

06訟卦12, 九五, 訟, 元吉. 象曰, “訟, 元吉”, 以中正也.

● 천수송(天水訟䷅)의 괘명에 대해

'송(訟)'을 파자하면, 송사 자체가 '말'로써 하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말(言)로써 하는 다툼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극한 '공심(公)'으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되 추호의 사사로움도 없어야 함을 강조하는 글자가 곧 송사한다는 송(訟)의 뜻이다.

서괘월 食必用訟 故受之以訟也.
序卦曰 飲食必有訟, 故受之以訟也.

서괘에서 말한다. 음식에는 반드시 송사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에 받는 괘상이 천수송(天水訟䷅)이다.

정현(鄭玄)의 풀이

송사를 한다는 송(訟)은 다툼다는 쟁(爭)과 같다. 음식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다툼이 많다는 뜻이다.

정현(鄭玄) 풀이의 해설

설문(說文)에 송(訟)은 다툼다는 쟁(爭)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송(訟)은 다툼다는 쟁(爭)과 같다고 하였다. 예운(禮運)에 말하기를 음식과 남녀는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다. 욕심이 있게 되면 다툼다. 그러므로 음식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다툼이 많다고 하였다. 악기에서도 말한다. 환시(豢豕)는 술이 되나, 화(禍)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감옥의 송사가 더해져 번거로워지면 술로 인해 화를 낳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음식에 반드시 송사가 있으므로 송(訟䷅)으로써 받는다는 뜻이다.

● 괘의 차례 문제

음식에는 반드시 다툼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수천수(水天需䷄)의 다음은 천수송(天水訟䷅)이다.

감(坎䷜)下 건(乾䷀)上

아래가 감(坎䷜), 위가 건(乾䷀)이다.

● 괘상에 대하여

① 위에 있는 하늘은 위에만 떠 있고자 하고, 아래의 물은 아래로만 흘러 내리고자 한다. 이처럼 상하 두개의 괘상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06訟卦14, 上九, 或錫之鞶帶, 終朝三褫之. 象曰, 以訟受服, 亦不足敬也.

그 움직임이 어긋나 있는訟(訟䷅)의 형상이다. 그러므로訟(訟䷅)은 패사가 성실함이 있지만 막히는 패상이다.

② 위와 아래가 서로 어긋나게 움직이면서 위의 건(乾䷀)은 강건하고 아래의 감(坎䷜)은 험(險)하니 자기는 험하고 상대는 굳센 채 어긋나게 움직인다면 이는 모두가 다투는 도가 된다.

訟, 有孚

訟(訟䷅)은 믿음을 두나

간보(干寶)의 풀이

중화리(重火離䷄)의 遊魂卦다. 離는 창과 병사가 된다. 이는 하늘의 기운이 장차 형벌로 죽이고자 함이니, 성인이 장차 군사를 쓰는 패다.訟은 친하지 않다고 하였다. 일반 백성이 천명의 같지 않은 뜻을 알지 못한다.

순상(荀爽)의 풀이

양(陽)이 와서 이효(二爻)에 자리 잡고 초효(初爻)에게 미답다. 그러므로 송사(訟事)에 믿음이 있다고 하였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천수송(天水訟䷅)은 사효(四爻)가 변하지 않는다. 이는 중화리(重火離䷄) 궁(宮)의 유혼괘(遊魂卦)다. 이(離䷄)는 창과 병사가 된다고 함은 설괘문의 구절이다. 사세(四世) 음괘(陰卦)는 팔월(八月)을 주관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늘의 기운이 장차 형벌로써 죽이고자 한다고 하였다. 아래 상전(象傳)의 주석에서 무왕(武王)은 병사를 돌아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인이 장차 군사를 쓰는 패라고 하였다.訟(訟䷅)이 친하지 않다고 함은 잡괘(雜卦)의 글이다. 이효(二爻)가 변하면 바르고, 곤(坤䷁)은 백성이 된다. 밖으로 곤(坤䷁)은 하늘이고 호괘(互卦) 손(巽䷸)은 명(命)이 된다. 설괘에서 또 동인(同人䷌)은 친(親)하다고 하였다. 천수송(天水訟䷅) 아래 坎은 그와 짝이 되는 配合를 보면 離가 되어 동인(同人䷌)이 된다. 천화동인(天火同人䷌)은 중화리(重火離䷄) 궁의 유혼괘(遊魂卦)다. 천화동인(天火同人䷌)은 친(親)하고 천수송(天水訟䷅)은 친하지 않다(不親). 그러므로 천명(天命)이 같지 않다는 뜻을 알지 못한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네 개의 양(陽)과 두 개의 음효(陰爻)로 된 괘상은 천산돈(天山遯䷠)으로부터 왔다. 삼효(三爻) 양(陽)이 내려와 이효(二爻)에 거처하고 초효(初爻) 음(陰)에게 미더운 모습으로 음(陰)과 양(陽)이 서로 감응하므로 천수송(天水訟䷅)은 미더움이 있다. 송사(訟事)는 같지 않다. 감(坎☵)은 미더움이 된다. 그러므로 미더움이 있다고 하였다.

○ 덧붙이는 말

① 이효(二爻)는 송(訟䷅)의 주체다. 강(剛)으로서 중(中)에 거처함은 중실(中實)의 상이므로 유부(有孚)다. 다만 위로 호응이 없고 감(坎☵)의 가운데 처하여 험하고 근심이 되는 상이므로 막혀 송사에 임하는 뜻을 지닌다.

질 척 중 길
窒惕, 中吉,

막혀서 두려우니 중(中)은 길하나

우번(虞翻)의 풀이

천산돈(天山遯䷠) 삼효(三爻)가 이효(二爻)로 갔다. 미더움은 이효(二爻)를 말한다. 질(窒)은 막혀 그쳤음이고, 척(惕)은 두려워하는 이효(二爻)다. 이효(二爻)가 자리를 잃었으므로 바르다는 정(貞)을 말하지 않았다. 천산돈(天山遯䷠)은 장차 천지비(天地否䷋)를 이루게 되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신하가 임금을 시해한다. 삼효(三爻)가 와서 이효(二爻)에서 중(中)을 얻으면 시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길(中吉)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천산돈(天山遯䷠) 삼효(三爻)가 이효(二爻)로 간다는 것은 천수송(天水訟䷅)이 천산돈(天山遯䷠)으로부터 왔다는 뜻이다. 미더움은 二爻를 말한다는 것은 습감(習坎☵) 단사(彖辭)에 감(坎☵)은 미더움이 있다고 했으니, 二爻 中의 실다움으로써 하는 말이다. 설문에 질(窒)은 막힌다는 색(塞)이라고 하였다. 색(塞)은 그친다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막혀 그쳤다고 풀이하였다. 간(艮☶) 토(土)는 아래에서 감(坎☵) 水를 막고 있다. 천산돈(天山遯䷠)으로 그쳐 있으면 천지비(天地否䷋)를 이루지는 않는다. 감(坎☵)은 근심을 더함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한다는惕이다. 二爻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감(坎☵)

의 험함을 두려워함이다. 二爻가 자리를 잃으면 바르지 않다. 그러므로 바르다는 정(貞)을 말하지 않았다. 천산돈(天山遯䷠)은 二爻를 지나 陰이 三爻에 미치면 천지비(天地否䷋)를 이룬다. 이는 아비와 임금을 죽이는 象이 있다. 지금은 三爻가 二爻로 갔으니, 中을 얻어 믿음이 있다. 녹아 천지비(天地否䷋)를 이루지 않으면, 시해가 행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中이 되어 길(吉)하다.

○ 덧붙이는 말

① 송사의 때에 믿음이 있고 중강(中剛)으로 쟁송을 끝까지 하지 않으므로 길하다.

終凶,

끝까지 함은 흉하니

우번(虞翻)의 풀이

二爻는 자리가 어긋나 있다. 그곳에 그쳐 변하지 않으면 못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끝에는 흉하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二爻는 양(陽)이므로 어긋난 자리다. 그쳐서 변하지 않으면 초효(初爻)가 감(坎☵)의 물에 있다. 그러므로 못이 된다. 변하지 않으면 初爻로부터 시작하여 감(坎☵)의 험한데 빠진다. 그러므로 못에 들어간다. 그 까닭으로 끝에는 흉하다.

利見大人, 不利涉大川.

대인을 봄이 이로우니 대천을 건넘은 이롭지 않다.

후과(侯果)의 풀이

대인은 오효(五爻)를 말한다. 판단하여 결단함이 반드시 중에 맞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이롭다. 송사는 음의 일이다. 험함으로써 험함을 건너므로 대천을 건넘이 이롭지 않다.

후과(侯果) 풀이의 해설

오효(五爻)는 천자의 자리다. 그러므로 대인은 오효(五爻)를 두고 하는 말

임을 알 수 있다. 이효(二爻)와 사효(四爻)는 삼효(三爻)를 다룬다. 그러므로 二爻와 四爻는 다룬다. 여러 효(爻)가 바르지 않다. 오직 五爻만이 강건(剛健)한 덕이 있고 위에서 거처하면서 바르고 알맞은 정중(正中)이다. 그러므로 판단하여 결정함이 알맞다. 아래로 호괘(互卦) 이(離☲)는 눈이 된다. 그러므로 구오(九五) 대인(大人)을 봄이 이롭다. 송사(訟事)는 이 음(陰)의 험한 일이다. 감(坎☵)은 험함이 되고 또 큰 내(大川)가 된다. 험함으로써 험함을 건너는 까닭에 대천(大川)을 건넘이 이롭지 않다.

○ 덧붙이는 말

① 송(訟☶)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과상이 시사하는 것처럼 막힐 것을 두려워하여 중용을 얻으면 길하지만 결국에는 흉하다. 대인을 만나보고 도움을 받고자 함은 이롭지만 일을 계속 진행시키는 것은 이롭지 않다. 어떻게 자기의 사사로운 고집으로 하늘의 정대한 이치를 상대할 수 있겠는가!

② 대인을 봄이 이롭다고 함은 어쩔 수 없이 송사 가운데 놓였을 때 하늘의 중정한 덕을 간직한 구오(九五) 대인의 분별력을 따르기 위해서다.

단 환 송 상 강 하 험 험 이 건 송
象曰, 訟, 上剛下險, 險而健, 訟.

단전에 말하였다. 송(訟☶)은 위가 강(剛)하고 아래는 험하여 험하고 굳셈이 송(訟☶)이다.

노씨(盧氏)의 풀이

험하면서 굳건한 것은 항상 다투고 송사하기를 즐긴다.

노씨(盧氏) 풀이의 해설

위로 강함은 건(乾☰)이다. 아래로 험하니 감(坎☵)이다. 안으로 험하고 밖으로 굳세니 다투기를 좋아하는 상(象)이다.

송 유부질척 중길 강래이득중야
“訟, 有孚窒惕, 中吉”, 剛來而得中也.

송(訟), 유부질척(有孚窒惕), 중길(中吉)은 강(剛)이 와서 중(中)을 얻은 것이요,

촉재(蜀才)의 풀이

이는 본래 천산돈(天山遯䷠)이다.

안(案)

이효(二爻)가 나아가 삼효(三爻)에 있고, 삼효는 내려와 이효에 있다. 이는 강(剛)이 와서 中을 얻었다.

이정조(李鼎祚) 풀이의 해설

괘는 천산돈(天山遯䷠) 삼효가 이효로 왔다. 안에 있는 것을 왔다고 말한다. 이효의 자리는 中이다. 그러므로 강(剛)이 와서 중을 얻었다고 한다.

^{종 흥} “終凶”, ^{송 불 가 성 야}訟不可成也.

끝까지 함이 흥함은 송사는 끝까지 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왕숙(王肅)의 풀이

송사(訟事)로써 공(功)을 이룬 자는 필경에 끝이 흥하다.

왕필(王弼)의 풀이

무릇 화합하지 않고 송사함이니 세상에 펼쳐서 좋은 것이 없고, 어려운 일을 할 때는 특히 더하다. 오직 미더운 덕성을 갖추되 막힘을 보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길함을 얻을 수 있으니 끝까지 해서는 안 되고 중간에 그쳐야 길하다. 그 근원을 막아서 송사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면 비록 매번 송사를 정확하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쟁송이 끝까지 밀고 간다면 필경 흥하다. 그러므로 다시 믿음을 갖되 막힘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송사로 임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송사는 유부질척(有孚窒惕), 중길(中吉) 종흥(終凶)이다. 잘 듣고 판단하는 이가 없다면 비록 실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그로 말미암아 밝음을 얻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믿음을 두고 막힐 것을 알아 두려워하므로 중에 의한 길함을 얻게 된다. 이는 반드시 말을 잘 듣는 주효를 말함이니 이효(二爻)를 두고 하는 말이다. 강(剛)으로써 와서 여러 소인들을 바르게 하고 판단함이 중을 잃지 않으니 응당이 일에 마땅하다.

안(案)

무릇 송사를 잘 하는 자는 위의 오효(五爻)에 있는 자다. 어째서 밝다고 할 수 있는가? 효사를 살핀다면 구오(九五)는 송사에 크게 길하다고 하였

다. 왕(王)씨의 주석에 거처함이 높은 자리를 얻었으니 송사의 주인이 된다. 또 중정(中正)으로 옳고 그른 사리를 판단함이 곧다고 하였다. 곧 단전(象傳)에서 대인을 봄이 이로우니 중정함을 숭상한다는 바로 그 말의 뜻이다. 구이(九二) 효(爻)의 상전(象傳)에 다투어 송사하지 않고 도망하여 숨은 것이니 아래로부터 위 사람과 다투어 송사함은 환란을 주워 담듯할 것이라고 하였다. 구이(九二)는 송사의 때에 거처하고 있으니 스스로 구원할 겨를이 없다. 송사를 이미 이기지 못한다면 두려움을 품고 도망쳐 돌이킬 것을 생각하되 그래야 겨우 끝의 흉한 재앙을 면할 수 있다. 어찌 능히 송사를 잘 듣는 주효가 되겠는가. 시간이 점점 흘러 스승에게 힘입는 도가 상실됨에 오효(五爻)로써 이효(二爻)가 된다고 여긴 결과이니 뒷날의 눈 밝은 이는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

왕숙(王肅) 풀이의 해설

효의 움직임은 위에서 끝난다. 상구(上九) 효사(爻辭)에 혹 반대(輓帶-관복)를 준다고 했으니 곧 송사로써 공을 이루었음을 말한다. 아침 동안에 3번 그것을 뺏는다고 했으니 필경 그 결과는 흉하다는 것을 뜻한다.

우안(愚案)

자리를 잃고 변하지 않으므로 송사가 이루어진다. 패가 오직 구오(九五)만이 바름을 얻었다. 나머지 효는 모두 바르지 않다. 초효(初爻)가 변해 바르면 송사(訟事)를 일삼지 않는다. 이효(二爻)가 변해 바르게 되면 재앙도 없다. 삼효(三爻)가 변해 바르게 되면 옛 덕을 먹는다. 사효(四爻)가 변해 바르게 되면 곧은 이치를 편안히 여기니 길하다. 사효(四爻)로서 오효(五爻)를 섬김이니 삼효(三爻)는 오효(五爻)와 더불어 공이 같다. 二爻는 五爻에 호응하고 초효(初爻)는 사효(四爻)에 호응하여 五爻를 섬긴다. 五爻는 송사를 듣는 주인공이 된다. 송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두 변해서 바르게 됨이 이롭다. 상구(上九)는 陽을 타고 높이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면 송사가 이루어진다. 그 결과 상대를 복종시켜 반대(輓帶)를 받으나 마침내 다시 뺏긴다. 그러므로 끝에는 흉하다.

왕필(王弼) 풀이의 해설

공(孔)의 주석에 베풀어 좋음이 없다는 것은 만약 성질이 화합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사람과 더불어 다투어 송사하되 남에게 베풀어 좋은 게 없다는 뜻이니 그대로 가는 처신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건너기 어려움이 특히 심하다는 것은 송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송사를 피하지 않으므로 이는 옳지 않다. 만약 다시 송사로써 해결하고자 한다면 옳지 않음이 특히 심하다. 그러므로 건너기 어려움이 특히 심하다고 하였다. 中이 이에 길(吉)하다는 것은 송사하기를 중간에서 그침을 말한다. 그래서 길함을 얻게 된다. 근원에서 단지 알아 송사가 이르지 않게 함은 만약 능히 겸허하게 물러나 사양하는 마음으로 대상과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면 이는 송사(訟事)의 근원을 닫아 막음이니 송사가 이르지 않게 함이다. 지금 능히 이와 같지 않다면 이는 송사의 근원을 막지 않아 송사가 이르게 함이 된다. 모름지기 매사를 굽히지 않고 송사가 이르게 하여 마지막까지 송사로 마치하고자 한다면 이는 자기 자신을 굽히지 않아 송사로서 끝을 보고자 함이니 필경 이는 흉하다.

우안(愚案)

잘 듣지 않는다는 이하를 공(孔)이 해석하지 않음은 잘 듣는다는 주효가 이효(二爻)가 아니기 때문이다. 송사를 잘 듣는 주효(主爻)는 당연히 구오(九五) 효(爻)다. 그러므로 이씨(李氏)가 그 점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안(案)

오효(五爻)는 자리가 중정(中正)하다. 강(剛)하면서 판단력이 뛰어나므로 듣기를 잘하는 주효다. 이효(二爻)가 비록 중(中)을 얻었으나 바르지 않다. 겨우 재앙이 없을 따름이다. 죽히 송사를 잘 판단하는 주효가 되진 못한다. 또 왕필이 해설한 구오(九五) 효사의 송사가 크게 길하다는 내용이 이를 입증한다. 이효(二爻)는 오효(五爻)를 잘못 표기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다투어 송사를 이룬다. 오직 오효(五爻)가 강(剛)하고 중(中)을 얻었으므로 강(剛)으로써 와서 여러 소인들을 바르게 한다. 판단함이 中을 잃지 않으니 응당 이 일에 마땅하다.

“^{이견대인}利見大人”, ^{상중정야}尙中正也.

대인을 봄이 이로움은 중정(中正)함을 숭상함⁹⁷⁾(숭상함이 중정임)

순상(荀爽)의 풀이

이효(二爻)는 사효와 더불어 다툰다. 오효를 봄이 이롭다. 오효는 중정의 도리로서 그 송사를 해결한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이효는 사효는 더불어 공이 같다. 대신 바르지 않으므로 송사한다. 바탕의 과상은 離다. 그러므로 大人을 봄이 이롭다. 오효는 중이면서 또한 바르다. 듣기를 잘하는 주효다. 사효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효가 호응하고 있으므로 능히 이효와 사효의 송사를 잘 해결한다.

“^{불리섭대천}不利涉大川”, ^{입우연}入于淵⁹⁸⁾也.

대천을 건넘이 이롭지 않음은 못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순상(荀爽)의 풀이

양(陽)이 와서 이효(二爻)에 위치하면서 감(坎☵)으로 아래 있으니 못이 된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천산돈(天山遯䷠) 삼효(三爻) 양(陽)이 이효(二爻)로 와서 감(坎☵)을 이루면서 아래 위치하니 못이 된다는 해설이다. 천산돈(天山遯䷠)의 호괘(互卦) 손(巽☴)은 들어가는 입(入)이 되므로 못에 들어가는 입우연(入于淵)이다.

97) 정자의 傳에서는 이 구절의 해석을 숭상하는 바가 중정함에 있다고 한다.

98) 못 淵은 땅 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한다. 역림에서 중뢰진이 地雷復으로 변하는 과상을 두고 藏匿淵底라고 풀이한 구절을 尙秉和는 예로 든다. 지금은 천수송의 구이 효가 곤의 가운데로 들었으므로 入于淵이다. 곧 못으로 구이가 들어가 감을 이루되 위로는 호응이 없고 효 자체는 자리가 바르지 않으므로 깊이 못 가운데 빠져 坤 대천을 건넘이 이롭지 못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이효는 中이고 응하는 자리는 九五 大人이므로 송사를 그치고 九五 大人을 봄이 이로움이 된다. 大川을 건넘은 송사를 끝까지 진행함이다. 坤이 대천이 된다고 함은 앞 수천수를 참고 바란다.

06訟卦03, ^{상 완 천 여 수 위 행 송}象曰, 天與水違行, 訟⁹⁹⁾,

상전에 말하였다. 하늘과 더불어 물이 어긋나게 움직임이 송이니,

순상(荀爽)의 풀이

하늘은 서로부터 돌아간다. 물은 동쪽으로부터 흐른다. 올라가고 내려감이 서로 어긋나게 움직이니 천수송(天水訟䷅)의 상을 이룬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왕충(王充)은 논형(論衡)에서 하늘의 문은 서북에 있다. 또 일월성신(日月星辰)은 하늘을 따라 서쪽으로부터 돌아가며 움직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늘은 서로부터 돌아간다고 하였다. 손경자(孫卿子)는 공자께서 큰물을 보심에 반드시 발원은 동쪽이 되니 뜻과 흡사하다고 하셨으므로 물은 동쪽으로부터 흐른다고 하였다. 위는 건(乾䷀) 하늘이고 아래는 물 감(坎䷜)이다. 동서로 이들이 어긋나게 움직임은 마치 사람에게 있어서 저와 나가 어긋나게 가는 이치와 같다. 따라서 천수송(天水訟䷅)의 象을 이룬다고 하였다.

99) 과상을 판단하는 근거로서의 과명과 효의 덕 - 과명에서 알 수 있듯訟은 옳고 그른 시비를 세우는 과상이다. 천수송이 다투어 송사가 되는 이유는 삼획괘의 성격이 위는 하늘 아래는 물로 서로 어긋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길흉의 판단 근거는 주로 자리의 正과 不正, 서로 호응을 이루는 爻의 거슬림과 순응의 여부 및 변화를 통해 생겨나는 삼획괘의 성격에 주로 좌우된다. 그래서 정자도 爻辭 九二에 대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二와 五는 서로 응하는 자리이나 두 剛이 서로 친하지 못하여 서로 쟁송하는 자다. 구이는 밖으로부터 와서 剛으로 험함에 처하여訟의 주체가 되어 五와 대적한다고 했다. 또 四爻는 陽剛으로 乾體에 위치하여 中正을 얻지 못하였으니 쟁송하는 자가 되나(자리의 不正으로 인한 판단) 오효를 받들고 드을 밝고 있으면서 初와 호응하니 더불어 다툼 상대가 없어 송사가 성립되지 않으며 초효는 사효와 바르게 호응하는 관계이므로 쟁송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다. 三爻도 역시 마찬가지다. 爻가 陽 자리의 陰으로 덕이 바르지 못해 과명 그대로 송사를 일으키는 뜻이 있으나 아래 자리에 거처하고 유순하여 쟁송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과명과 효의 덕에 대한 이해는 어떤 과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자 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하나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을 깊이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군 자 이 작 사 모 시
君子以作事謀始.

군자가 보고서 일을 하되 처음을 잘 도모한다.

우번(虞翻)의 풀이

군자(君子)는 삼효(三爻)를 뜻한다. 와서 변하면 곤(坤☷)이니 일을 함이(作事)가 되고, 감(坎☵)은 꾀한다는 모(謀)가 된다. 건(乾☰)은 크게 시작함을 주장한다(건지대시乾知大始)고 했으므로 대상전(大象傳)의 풀이가 작사모시(作事謀始)¹⁰⁰다.

간보(干寶)의 풀이

성안 백성들의 뜻은 일을 만들어 일으킴에 있다. 무왕이 짐짓 맹진 나루에서 병사를 일으키기에 앞서 천하의 민심을 점쳤으므로 이것을 두고 작사모시(作事謀始)라고 하였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군자(君子)는 삼효(三爻)를 뜻한다고 함은 천산돈(天山遯☶)이 천지비(天地否☷)로 녹지 않고 삼양(三陽)이 이효(二爻)로 가서 천수송(天水訟☶)을 이룬다는 뜻이다. 대개 간(艮☶) 삼효(三爻)는 건(乾☰)으로부터 온다. 와서 변하면 곤(坤☷)이니 이는 일을 짓는 작사(作事)다. 천산돈(天山遯☶)을 변하게 하여 곤(坤☷)을 이루면 곤(坤☷)은 일이 되므로 이작사(以作事)다. 감(坎☵)이 꾀한다는 모(謀)가 된다고 함은 홍범(洪範)에 꾀함은 水에 속한다(謀屬水)고 했기 때문이다. 감(坎☵)은 水가 되고 또 마음이 된다고 했으므로 꾀함이 된다. 건(乾☰)의 굳센 변화는 비릇함을 알 수 있다. 서(西)를 거쳐 북(北)으로 움직이되 건(乾☰)·감(坎☵)의 차례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일을 하되 처음을 잘 도모하는 작사모시(作事謀始)다. 그렇게 되면 송사의 실마리가 저절로 없게 된다. 감(坎☵)은 곧 가운데서 그쳐 있으니 中 또한 길하다. 만약 끝까지 이루면 흉하다.

100) 공자의 작사모시(作事謀始)

일을 하되 처음을 잘 도모한다는 뜻은 대학에서도 본말 장에 언급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다. 그곳에서 孔子는 송사를 처리함이 나도 남과 같으나 반드시 송사가 없게 하고자 한다(聽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고 했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민심의 향배(向背)를 살펴서 일을 결정하고 말에 있어서 시작을 삼간다. 다시 무왕의 일을 인용하여 이를 밝힘은 군사를 움직이는 일이 인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례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무왕이 맹진 나루에서 군사들을 모아 상나라의 주(紂)를 치기에 앞서 천하의 민심을 점쳤다. 그때 무왕에 호응하여 기약하지 않았음에도 모여든 제후들이 팔백(八百)여 나라였다. 그런 뒤에 무왕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목야(牧野)에서 전쟁을 치렀으니 이는 앞에서 말하는 작사모시(作事謀始)의 가장 큰 본보기 가운데 하나다.

○ 덧붙이는 말

① 군자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미리 신중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여 다툼이 근본적으로 생겨나지 않도록 경계해야만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송사(訟事)를 다스림이 남과 같으나, 반드시 백성들로 하여금 송사함이 없게(처음부터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역(易)의 천수송(天水訟䷅)에서 보여주는 이치를 공자는 그대로 따르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구절이다.

06訟卦04, ^{초 육}初六, ^{불 영 소 사}不永所事, ^{소 유 언}小有言¹⁰¹⁾, ^{종 길}終吉.

초육은 다투는 일을 영구히 하지 않으면 다소 말이 있으나 끝내 길하다.

우번(虞翻)의 풀이

영(永)은 장(長)의 뜻이다. 곤(坤䷁)은 일이 된다. 초효(初爻)가 어긋난 자리에 있으면서 천수송(天水訟䷅)의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다투는 일을 영구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소유언(小有言)은 초효(初爻)와 사효(四爻)가

101) 변효 해석의 상수학적인 한 사례

초효가 변하면 아래 소성괘는兌다.兌는 小가 되고 口(혀)가 되고 兌손되어 절단함이 된다고 설괘전에서 말하므로 다소 말은 있으나 송사하는 괘의 뜻이 훼손되고 오히려 변한 괘상이 天澤履가 되므로 송사하기 보다는 오히려 위 하늘의 이치에 대해 기뻐하는 괘상으로 변하므로 끝은 길하게 되는 입장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자리를 바꾸어 진(震☳) 말을 이름을 말한다. 삼효(三爻)는 식구덕(食舊德)이니 진(震☳)의 상이 반(半) 나타나 있다. 그 까닭에 효사가 소유언(小有言)이다. 초효가 변하면 바른 자리를 얻게 되므로 끝은 길한 종길(終吉)이다.

우변(虞翻) 풀이의 해설

영(永)은 장(長)이라고 함은 석고(釋詁)의 문장 해석이다. 곤(坤☷)이 일이 됨은 천산돈(天山遯☶)이 곤(坤☷)으로 변함을 말한다. 초효(初爻)는 자리가 어긋나 있다. 그러므로 천수송(天水訟☶)의 시작이 된다. 변해서 바르게 되면 다투는 바를 영구하게 하지 않는다. 초효(初爻)는 사효(四爻)와 더불어 호응관계다. 자리를 바꾸면 진(震☳)을 이루는데 진(震☳)은 소리니 말이 된다. 삼효(三爻)는 이효(二爻)에 합하여 진(震☳)의 象이 半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효사가 소유언(小有言)이 된다는 설명이다. 초효(初爻)가 변해 바르게 되면 그 패는 천택리(天澤履☱)가 된다. 그때 리(履☱)는 예(禮)다. 곡례(曲禮)에 나뉘어 다투고 분별해 송사함은 예가 아니니 결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조금 말이 있으나 끝은 길하다. 또 변해 태(兌☱)가 되면 입이고, 소(小)가 된다. 그러므로 조금 말이 있는 소유언(小有言)이다. 이효(二爻)가 움직여 오효(五爻)에 호응하면 삼효(三爻)는 식구덕(食舊德)이다. 태(兌☱)의 상은 (송사를) 헐어 무너지게 하는 상(毀壞)이 있다. 그러므로 끝은 길하다.

06訟卦05, ^{상 환}象曰, “^{불 영 소 사}不永所事”, ^{송 불 가 장 야}訟不可長也, ^{수 소 유 언}雖“小有言”, ^{기 변 명 야}其辯明也.

象傳에 말하였다. 다툼을 길게 하지 않음은 송사를 장구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소 말은 있으나 분별함이 밝다.

노씨(盧氏)의 풀이

초효(初爻)는 사효(四爻)와 호응하고자 하나 이효(二爻)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잠시 다투게 되지만 끝까지 계속하지는 않는다. 비록 송사가 있으나 송사는 반드시 밝게 분별할 줄 안다. 그러므로 끝은 길하다.

노씨(盧氏) 풀이의 해설

초효(初爻)와 사효(四爻)는 정응(正應)의 관계다. 그러나 二爻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사효와 더불어 잠시 다룬다. 대신 일을 끝까지 가게 하지는 않으므로 송사는 장구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중지곤(重地坤䷁) 초효(初爻)에 분별함에 일찍 분별하지 않음을 말미암게 된다는 구절이 있다. 비록 송사가 있게 되나 초효(初爻)가 변해 태(兌䷹) 입으로 분별을 행하되 사효(四爻) 호괘(互卦) 이(離䷄)가 밝음이 되니 그 분별이 밝은 기변명야(其辯明也)다. 분별이 일찍 행해지면서 밝다면 이는 끝내 길한 노릇이다.

○ 덧붙이는 말

- ① 초육(初六)은 음유(陰柔)의 재질로 패상이 시작하는 자리다. 다툼을 끝까지 할만한 힘이 없고 또 끝까지 헤서는 안 되는 자리다. 그러므로 쟁송을 끝까지 하지 못하니 효와 상의 말이 이와 같다.
- ② 말이 있음은 재앙의 작은 일이다. 다투는 일을 영구히 하지 않아 흥함에 이르지 않는 것은 바로 다툼의 길함이다.(정자)
- ③ 초효는 사효 양(陽)의 밝은 호응으로 다툼을 끝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06訟卦06, ^{구 이}九二, ^{불극송}不克訟, ^{귀이포}歸而逋,

구이는 다투어 송사하지 않음이니 돌아가 도망하여

우번(虞翻)의 풀이

사효(四爻)와 더불어 송사함을 말한다. 감(坎䷜)은 숨어 엎드리는 은복(隱伏)이 된다. 그러므로 도망가는 포(逋)다. 건(乾䷀)은 강(剛)하면서 자리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감(坎䷜)은 젖어 바름을 잃었으니 이기지 못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사효(四爻)와 더불어 송사한다고 함은 감(坎䷜)의 험함이 이효(二爻)에 있고 건(乾䷀)의 굳셈은 사효(四爻)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감(坎䷜)이 숨어 엎드리는 은복(隱伏)이 된다고 함은 실패의 문구다. 건(乾䷀) 오효(五爻)는 강하면서 자리를 얻었다. 감(坎䷜) 양(陽)은 음(陰)의 자리에 위치하면서 젖어 빠져 있으면서 자리가 바르지 않다. 결코 이기지 못하는 불극(不克)이다.

우안(愚案)

서경(書經) 태서(泰誓)에 죄가 많아 도망해 숨는다(多罪逋逃)하였

고, 한서(漢書) 흉노전찬(匈奴傳贊)에 드디어 도망해 구멍에 엮드린다(수도찬복遂逃竄伏)는 구절이 있으니 포(逋)와 둔(遯)의 뜻이 일치한다는 증거다. 천산둔(天山遯䷠) 三爻가 二爻로 가면 천수송(天水訟䷅)을 이룬다. (반면 천수송(天水訟䷅)의) 이효(二爻)가 삼효(三爻)로 가면 그대로 천산둔(天山遯䷠)이다. 그러므로 이곳의 효사가 돌아가 도망한다는 귀이포(歸而逋)다.

기 읍인삼 백 호 무 생
其邑人三百戶, 无眚.

읍 사람이 삼백호인 것처럼 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우번(虞翻)의 풀이

생(眚)은 재앙을 뜻하는 재(災)가 되고, 감은 생(眚)이 된다. 이효(二爻)가 변해 오효(五爻)와 바르게 호응함을 뜻하는 말이다. 곤(坤䷁)은 百이 되고 坤은 戶가 된다. 다만 陽이 세 爻이므로 三百戶다. 坎이 感化되어 坤이 되므로 재앙이 없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서경(書經) 순전(舜傳)에 실수와 재난은 용서했다고 하여 생재사사(眚災肆赦)라는 구절이 있으니 생(眚)은 재(災)라고 하였다. 설괘에 감(坎䷁)은 재앙이 많다(坎爲多眚)고 하였다. 그러므로 감(坎䷁)은 재앙(眚)이 된다고 하였다. 이효(二爻)가 변해 바르게 되면 위로는 오효(五爻)와 호응하고 밖은 건(乾䷀), 안은 곤(坤䷁)이 된다. 건(乾䷀)이 백(百)이 된다고 함은 三爻의 책(策)이 모두 三十六이니 간략히 그 기수(奇數)는 八(百八)이다. 이를 기수(奇數)가 아닌 가득 찬 영수(盈數)로 말하면 백(百)이 된다. 곤(坤䷁)이 戶가 됨은 건(乾䷀)은 門이 되고 곤(坤䷁)은 戶가 된다(乾門坤戶)고 했으니 이처럼 음(陰)과 양(陽) 대(大)와 소(小)의 명칭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세 효는 안의 삼효 곤(坤䷁)을 말하니 세 효가 되므로 삼백호(三百戶)다. 감(坎䷁)은 재앙이 많지만(감위다생坎爲多眚) 감화되어 곤(坤䷁)으로 바르게 되면 곤(坤䷁)은 감(坎䷁)을 훼손하게 되어 재앙이 없어진다.

안(案)¹⁰²⁾

102) 이곳 효사의 해석은 이 시각이 가장 타당하다. 송사는 욕심을 부리면서 생겨나는데 삼백호를 다스리는 대부의 지위와 규모를 스스로 만족하게 여겨 오

건착도(乾鑿度)에 이효(二爻)는 대부(大夫)가 된다고 하였다. 공(孔)이 삼백호(三百戶)에 대해 풀이하면서 정현의 예기 주석을 예로 들고 있다. 거기 따르면 작은 나라 小國은 아래 대부의 제도를 두게 된다고 하였다. 그 때 소국의 아래 대부는 채지가 일성(一成)이니 납세 가구가 삼백(三百)가구이므로 삼백호(三百戶)가 된다고 하였다.

또 살펴보면 이효(二爻) 강(剛)이 변해 유(柔)가 되면 오효(五爻)와 더불어 대적하지 않는다. 그 까닭에 능히 송사하지 않음이 된다. 이효(二爻)는 지위 상 대부(大夫)가 되니 감히 읍(邑)에 근거하여 반란을 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망가 숨는다고 하였다. 二爻가 변해 아래 소성괘 감(坎☵)이 곤(坤☷)이 되면 이효(二爻)는 읍(邑)의 주인이 되며 二爻에 재앙이 없게 되니 곧 읍 사람들에게 재앙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효사도 읍 사람이 삼백호인 것처럼 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라는 기읍인삼백호(其邑人三百戶) 무생(无眚)이다.

○ 덧붙이는 말

① 이효(二爻)와 오효(五爻)는 서로 호응하지 못한다. 송사를 벌이며 다투고 있다.

② 이효가 강(剛)으로 험함에 처하여 오효와 대적하고 있으나 오효(五爻)는 하늘의 중정(中正)한 덕을 지녔으니 어찌 대적할 수 있겠는가. 쟁송에서 이길 수가 없다. 만약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삼백 호의 읍 가운데 물러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처신한다면 허물이 없게 된다.(정자)

③ 삼백 호의 의미는 읍 가운데 지극히 작음을 뜻하니 송사에 있어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함에 있다.

06訟卦07, ^{상 완 불 극 송 귀 포 완 야}象曰, “不克訟, 歸逋竄也”,

효(五爻)에게 유순하게 처신하면 송사로 인한 재앙이 없게 될 것이므로 효사가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坎은 숨어 앞드리는 뜻이 있으므로 송사하지 않고 돌아가 도망한다는 歸而逋가 되고 양이 변해 음이 되면 坎이 사라지므로 재앙이 없게 되는 无眚이며 坎이 坤으로 변한다면 위와 더불어 험하게 송사하지 않는 不克訟이다.

상전에 말하였다. 다투어 송사하지 않고 도망하여 숨은 것이니

자 하 송 상 환 지 칠 아
自下訟上, 患至掇也.

아래로부터 위사람과 다투어 송사하니 환란을 주워 담 듯하리라.

순상(荀爽)의 풀이

아래가 위와 더불어 다투면 환란(患亂)의 해로움을 취하는 길이다. 마치 작은 물건을 주워 잃지 않고자 함과 같다. 곤(坤☷)에 삼효(三爻)가 있으므로 삼백호(三百戶)가 재앙이 없다. 二爻는 아래 소성괘의 주인이다. 주인이 다투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해가 없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아래에서 위를 상대로 송사함은 높고 낮음의 차례를 잃게 되어 환란의 해로움을 취하게 됨이 마치 작은 물건을 줍고자 욕심 부리는 것과 같아서 지극히 명백함을 말하고자 했다. 곤(坤☷)에 음(陰) 세 爻가 있으므로 삼백호(三百戶)라고 했다는 뜻은 곤(坤☷)은 읍(邑)이 되고 또 호(戶)가 되기 때문이다. 이효(二爻)는 아래 소성괘의 주인이니 주인이 위와 다투지 않으면 고을 사람들도 위와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다.

06訟卦^{육 삼} 08, 六三, 食舊德^{식 구 덕} 103, 貞厲, 終吉,^{정 려 종 길}

六三是 옛 덕을 간직하여 끝으면 위태로우나 끝내 길하리니,

우번(虞翻)의 풀이

건(乾☰)은 구덕(舊德)이 된다. 식(食)은 초효(初爻)와 사효(四爻)를 말한

103) 乾은 옛 舊가 되고 德이 되며 아래 坎은 먹는 食이 되는데 六三是 陰으로서 위의 乾 陽들을 섬기고 있으므로 효사가 食舊德이 된다는 게 상씨역의 시각이니 취할만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전에서 그 의미를 두고 옛 덕을 간직함은 위를 따름이니 길하다는 食舊德 從上 吉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효사의 개념을 오로지 괘변설에서 취하고자 함은 무리가 많다. 그럼에도 이를 번역하여 소개함은 나름대로 괘를 해석하는 하나의 입장을 소개하려는 이유 때문이다. 한편 이 번역서에 담긴 다양한 형태의 문헌과 근거 자료들은 역의 포괄적인 해석을 꾀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 독자는 이를 취해 자기 것으로 삼는다면 이 책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크게 쓸모 없지는 않을 것이다.

다. 이효(二爻)가 변해 바르게 되면 바탕이 화뢰서합(火雷噬嗑䷔)이다. 사효(四爻)가 변하면 건(乾☰)을 잠식하니 효사가 식구덕(食舊德)이다. 삼효가 변하면 감(坎☵)에 있음이 되니 바르나 위태로워 정려(貞厲)다. 다만 자리의 마땅함을 얻었으므로 끝은 길하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계사상전(繫辭上傳)에 오래하면 어진 사람의 덕이라고 했으니 건(乾☰)을 말한다. 천수송(天水訟䷅) 건(乾☰)은 곧 천산돈(天山遯䷠)의 건(乾☰)이다. 그러므로 옛 덕이 된다. 식(食)은 초효(初爻)와 사효(四爻)를 말한다고 함은 바른 자리를 찾아 초효(初爻)와 사효(四爻)가 자리를 바꾸면 건(乾☰)을 먹는 게 된다. 초효와 사효가 이미 자리를 바꾸고 二爻가 변해 바르게 되어 음(陰)이면 三爻가 움직여 자리를 얻으면서 양(陽)이 되니 이는 바탕의 패상이 앞서 말한 대로 화뢰서합(火雷噬嗑䷔)이다. 사효(四爻)가 변하면 건(乾☰)을 잠식한다고 말함은 사효가 변하면 위의 소성괘 건(乾☰)이 허물 어지면서 해와 달의 일월식(日月蝕)이 일어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乾☰)을 먹는다고 하였다. 건작도(乾鑿度)에 三爻는三公이 된다고 하였다. 식구덕(食舊德)은 부모의 옛 녹을 먹는 것이다. 건(乾☰)은 아버지가 되고 三爻는 자리가 어긋나 있으므로 움직여 건(乾☰)을 삼기면 옛 덕을 먹는 象이 있다. 이효(二爻)와 사효(四爻)가 바르게 변하면 삼효(三爻) 바탕은 변해 감(坎☵)이 되니 비록 바르나 위태롭게 여겨야 하니 이것이 정려(貞厲)다. 이처럼 변해 마땅한 자리를 얻으므로 끝은 길한 종길(終吉)이다.

혹 종 왕 사 무 성
或從王事，无成.

혹 왕사에 종사하여도 이름이 없도다.

우번(虞翻)의 풀이

건(乾☰)은 왕(王)이 된다. 이효(二爻)가 변하면 괘가 천지비(天地否䷋)다. 그때 아래 소성괘 곤(坤☷)은 일이 된다. 그러므로 위의 乾을 좇아 유순하게 일을 행하는 或從王事다. (곤坤☷의) 道는 이루게 함은 없으나 마침은 있다. 그러므로 이름이 없는 무성(无成)이다. 중지곤(重地坤䷁)은 세 효가 뜻

이 동일하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건(乾☰)은 임금이 된다. 그러므로 왕이 된다. 二爻가 변하면 천지비(天地否 ䷋)가 되면서 아래의 바탕이 곤(坤☷)이 된다. 곤(坤☷)은 사업을 펼치므로 일이 된다. 곤(坤☷) 신하는 위의 건(乾☰) 임금을 섬기므로 혹종왕사(或從王事)다. 도(道)의 위에는 땅 지(地)자가 탈락해 있다. 마땅히 곤(坤☷) 문언전(文言傳)을 따르자면 지도무성이대유종(地道无成而代有終)이라고 해야 하므로 이곳의 효사가 무성(无成)이 되고 유종(有終)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중지곤(重地坤 ䷁)은 세 효가 뜻이 동일하다고 함은 중지곤(重地坤 ䷁) 세효가 펼쳐짐에 지천태(地天泰 ䷊)를 이룸이니 건(乾☰)은 王이 되고 곤(坤☷)은 일이 된다. 또 진(震☳)은 쫓음이 되면서 땅의 道는 이름은 없으나 대신 마침은 있게 된다. 그러므로 혹 왕사에 종사하여도 이름이 없다는 뜻이 나온다. 중지곤(重地坤 ䷁) 삼효(三爻)는 지천태(地天泰 ䷊)로서 왕의 일에 종사하거나 천지비(天地否 ䷋)의 과상이 되더라도 땅의 道에 있어서는 뜻이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저(곤坤☷)가 펼쳐서 왕의 일을 쫓으므로 마침이 있다. 여기서의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다만 이름이 없음만을 말했다. 변해 끝이 길하게 되면 또한 마침이 있게 된다. 사효(四爻)가 이미 바뀌고 이효(二爻)가 바르게 되지 못했다면 삼효(三爻) 또한 진(震☳)의 상이 있다. 그러므로 쫓는다는 뜻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안(愚案)

삼효(三爻)와 상효(上爻)는 모두 바른 자리를 얻지 못했다. 비록 마땅한 호응이 되지 못하나 음(陰)과 양(陽)은 서로 따르는 관계이므로 상효(上爻)가 삼효(三爻)는 침략하지 않는다. 따라서 三爻는 천산돈(天山遯 ䷠)의 건(乾☰) 구덕(舊德)을 먹게 된다. 二爻는 바르게 호응함이 없다. 어찌 그 음(邑) 사람들을 보전할 수 있겠는가. 삼효(三爻)는 바르게 호응(正應)하고 있다. 곧 옛 덕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만약 변해서 바르게 되면 상효(上爻)와 더불어 호응하지 않는다. 비록 위태롭지만 그래도 길하다. 그러므로 효사가 곧게 하면 위태롭지만 끝은 길하다(정려종길貞厲終吉)고 하였다.

다만 변해서 바르게 되어 건(乾☰)을 따른다면 혹 왕사에 종사함이 있게 되나 마땅히 유순한 도리를 지킨다. 중지곤(重地坤☷) 삼효(三爻)와 더불어 자리가 같으므로 중지곤(重地坤☷) 삼효(三爻)와 더불어 말이 일치한다. 끝이 있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송사는 끝까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덧붙이는 말

① 육삼(六三)은 험한 감(坎☵)에 속하면서 자리가 바르지 못한 양(陽) 자리의 음(陰)이다.

② 효가 음(陰)이면서 두 강(剛)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위태롭고 두렵게 여겨 송사를 벌이지 않아야 하는 자다.

③ 송사의 때에 처신이 바르고자 하면 녹이 자기의 분수에 맞아야 하니 스스로 건(乾☰)의 옛 덕을 지키고 양(陽) 자리의 음(陰)으로 표리가 다르게 송사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

06訟卦^{상 환 식 구 덕 종 상 길 야}09, 象曰, 食舊德, 從上吉也.

상전에 말하였다. 옛 덕을 간직하니윗사람을 따르더라도 길하리라.

후과(侯果)의 풀이

비록 자리는 마땅하지 않지만 온 마음을 기울여 상효(上爻)에게 호응하므로 옛 덕을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 옛 덕을 먹는다는 것은 두 강(剛)의 사이에 위치하여 모두 가까이 서로 얻지 못함이니 이효(二爻)를 타고 사효(四爻)를 쫓아지고 있다. 바르게 감이 위태롭다. 강(剛)이 능히 침략하지 않으므로 끝은 길하다.

후과(侯果) 풀이의 해설

음효(陰爻)가 양(陽)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삼효(三爻)가 이처럼 어긋난 자리이지만 상효(上爻)와 더불어 관계는 정응(正應)이다. 오로지 마음은 상효(上爻)를 따르고 있으므로 능히 온전한 옛 은덕을 보전하여 옛 덕을 먹을 수가 있다. 二爻와 四爻의 사이에 위치하여 자리가 서로 꺾박하는 관계이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를 타고 위를 쫓아지고 있으니 형세도 또한 위태롭다. 그러나 上爻와 바르게 호응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의지하여 자기 짝에게 가게 되면 위태롭다고 하였다. 그 까닭은 위로 바르

게 호응하는 관계의 정응(正應)이 있어도 二爻와 四爻가 모두 강(剛)이기 때문이다. 다만 스스로 침략하지는 않으므로 끝은 길하다.

06訟卦10, 九四, 不克訟, 復即命, 渝, 安貞吉.

구사(九四)는 다투어 송사하지 못하니 돌아와 명(命)에 나아가 (다툼을 송사하려는 마음을) 바꾸어 편안하고 곧게 하면 길하리라.

우번(虞翻)의 풀이

자리가 어긋났으므로 능히 송사하지 못한다. 유(渝)는 변할 변(變)의 뜻이다. 능히 송사하지 못하므로 자리를 회복한다. 변해서 손(巽≡)을 이루면 손(巽≡)은 명령이 되므로 돌아와 명에 나아가 바꾼다. 움직이면 마땅한 자리를 얻게 되므로 편안하고 곧게 하면 길한 안정길(安貞吉)이다. 이효(二爻)가 이미 변했음을 말하니 중지곤(重地坤䷁)은 편안하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이효(二爻)는 사효(四爻)와 더불어 모두 어긋난 자리다. 그러므로 모두 송사에 이기지 못한다. 유(渝)가 변할 변(變)의 뜻이라고 풀이함은 석언(釋言)의 인용문이다. 오직 송사에 이기지 못하므로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면서 음(陰)으로 변해 손(巽≡)을 이룬다. 손(巽䷸)卦 단전(彖傳)에 손(巽≡)이 거둢하여 명(命)을 펼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풍손(重風巽䷸)은 명령(命令)이 된다. 돌아와 명에 나아가 변한다고 하는 복즉명유(復即命渝)에서 즉(卽)은 나아간다는 뜻의 취(就)다. 초효(初爻)와 더불어 자리를 바꾸면 바탕의 괘상이 지뢰복(地雷復䷗)이다. 그러므로 돌아와 명에 나아가 변한다고 하는 복즉명유(復即命渝)다. 움직이면 마땅한 자리를 얻게 된다고 함은 움직여 변해 음(陰)이 되면 바른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편안하고 곧게 하면 길하다는 안정길(安貞吉)이니 여기서 곧다고 해석한 정(貞)은 바르다는 정(正)과 뜻이 같다. 바른 도리를 편안하게 여기면 길하다. 이효(二爻)가 이미 변하고 사효(四爻)가 또 변하면 바탕 몸의 괘상이 곤(坤䷁)이다. 곤(坤䷁)은 土가 되므로 편안함이 된다. 중지곤(重地坤䷁)괘사(卦辭)에 편안하여 곧게 하니 길하다고 하는 바로 그 이치다.

우안(愚案)

이효(二爻)는 능히 송사를 이기지 못한다고 함은 二爻는 감(坎☵)의 주효가 된다. 그 험함을 변하므로 위에서 오효(五爻)를 꺾박하지 않는다. 四爻는 건(乾☰)의 시작이 된다. 군셈에서 변하므로 아래서도 초효(初爻)를 능멸하지 않는다. 이처럼 음(陰)의 자리를 회복하면 손(巽☴)의 명령에 나아가게 되고 변해 음효(陰爻)가 되면 곤(坤☷)의 곧은 道를 편안하게 여긴다. 이로써 길하다.

○ 덧붙이는 말

① 구사(九四)는 강하면서 음(陰) 자리이고 중(中)이 아닌 까닭에 다투어 송사하는 상(象)이 있다. 그러나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음유(陰柔)하고 호응하는 초효(初爻) 또한 다투려는 뜻이 없는 효다.

② 동시에 복(復)은 바른 도리를 회복하는 것이고, 명(命)에 나아감과 변한다는 유(渝)는 음(陰)자리의 강(剛)으로서 구사(九四)가 위 구오(九五)의 중정(中正)한 명(命)을 받들어 그 이치를 편안하게 여기고 곧게 임한다는 뜻이다.

06訟卦11, ^상象曰, ^복復^즉卽^명命, ^유渝, ^안安^정貞^길吉 ^불不^실失^야也.

상전에 말하였다. 복즉명(復卽命) 안정길(安貞吉)은 상실하지 않는 것이다. 후과(侯果)의 풀이

초효(初爻)가 이미 분별함이 밝고 사효(四爻)의 송사는 망령스럽다. 송사에 이미 이기지 못한다면 마땅히 송사하기 전의 이치로 돌아가야 한다. 이미 송사하려는 명(命)을 바꾸니 그 까닭에 편안하고 곧게 하여 길한 바가 되고 초효(初爻)와 더불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된다.

후과(侯果) 풀이의 해설

사효(四爻)는 초효(初爻)와 더불어 송사한다. 초효가 이미 밝게 분별하면 사효의 송사가 망령됨을 알 수가 있다. 송사에 이미 이기지 못한다면 마땅히 송사해서는 안 되는 이치로 돌아가 송사하려는 명을 바꾸어야 하니 그 까닭에 편안하게 여기고 고요하게 머물면서 곧은 도리를 지키니 그로 인해 길하며 또 자기와 짝이 되는 초효(初爻)와 더불어 마땅한 의리를 상실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 움직여 변하면 마땅한 자리를 얻게 되니 바

른 도리를 잃지도 않는다. 설문에 조(詔)는 고할 고(告)와 뜻이 같다고 하였다. 좌전(左傳) 성공(成公) 二年 난백(欒伯)의 하는 말에 변지조야(變之詔也) 서하력지유언(書何力之有焉)이라는 구절에서 두(杜)가 주석하기를 조(詔)는 고(告)의 뜻이라고 하였다. 대개 부른다는 것은 위와 아래에서 모두 통용되는 말이다. 그러므로 송(訟) 또한 개념이 조명(詔命)이다.

구 오, 송 원 길 상 완 송 원 길 이 중 정 아
九五, 訟, 元吉. 象曰, “ 訟, 元吉”, 以中正也.

구오(九五)는 송사함에 크게 길하리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송사함에 크게 길함은 중정(中正)하기 때문이다.

왕숙(王肅)의 풀이

중정한 덕으로써 어긋나 다투는 풍속을 바로 잡으니 크게 길한 자다.

왕필(王弼)의 풀이

위치가 지존의 자리이고 송사하는 주효다. 중정(中正)한 이치로서 굽거나 곧은 것을 판단하니 中인즉 지나치지 않다. 올바르게 샅되지 않고 강(剛)하면 빠져드는 바가 없다. 공적이면 치우친 바가 없으므로 송사에 크게 길하다.

왕숙(王肅) 풀이의 해설

상하(上下)의 다섯 효가 모두 자리가 바르지 않다. 오직 구오(九五)만이 중정(中正)하다. 그러므로 구오의 중정한 덕으로써 상하의 어긋나 다투는 풍속을 바로잡으니 이로써 크게 길하다.

왕필(王弼) 풀이의 해설

구(九) 양(陽)으로써 오효(五爻)에 위치하니 이는 지존의 자리다. 송사를 하는 때에 송사를 듣는 주인이 된다. 그 중정(中正)의 덕으로써 사특하고 곧음의 여부를 판단하니 중(中)이면 지나친 허물이 없고 바르면 샅되어 왜곡됨이 없다. 다시 강(剛)과 공심(公心)을 말한 것은 구(九)는 양(陽) 강(剛)이 되고 六二와 더불어 中正함이 특수함을 말하고자 해서다. 그러므로 강(剛)하면 빠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기(史記) 여후기(呂后紀)에 미감송언주지(未敢訟言誅之)라는 구절이 있으니 여기서 송사한다는 송(訟)은 공(公)의 의미로 주석하고 있다. 대개 문장에 있어서 공적인 말이 송사가 됨

이니 송사를 듣는 공정하고 귀한 신분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공정하면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만약 사람에게 이 네 가지 덕이 있다면 송사가 크게 길할 것이다.

○ 덧붙이는 말

① 구오는 하늘의 강건중정(剛健中正)한 덕으로 지극한 자리에 거처하고 있으니 송사를 다스리는 자다. 송사에 있어서 크게 길한 효(爻)다.

06訟卦14, ^{상 구}上九, ^{혹 석 지 반 대}或錫之鞶帶,

상구(上九)는 혹 반대(鞶帶-관복)를 주더라도

우변(虞翻)의 풀이

하사한다는 석(錫)은 왕이 명령으로 내려줌을 말한다. 반대(鞶帶)는 큰 띠니 남자는 가죽으로 된 큰 띠(鞶革)다. 초효(初爻)와 사효(四爻)가 이미 자리를 바꾸고 삼효(三爻)가 이효(二爻)로 가서 바르게 되면 손(巽≡)은 허리의 띠 요대(腰帶)가 된다. 그러므로 가죽으로 된 큰 띠 반혁(鞶革)이다.

우변(虞翻) 풀이의 해설

건(乾≡)은 군주가 된다. 그러므로 왕이 되고 손(巽≡)은 명령이 되므로 하사한다는 석(錫)이다. 왕이 아래 사람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설문에 반(鞶)은 큰 띠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반대(鞶帶)는 큰 띠라고 하였다. 내칙(內則)에 남자에게는 반혁(鞶革)이 있다고 했으므로 여기서도 그 개념을 적용하였다. 천수송(天水訟䷅)에 본래 공손함이 있다. 초효(初爻)와 사효(四爻)가 자리를 바꾸면 건(乾≡)도 또한 손(巽≡)으로 변한다. 삼효가 이효로 가서 바르게 되면 감(坎≡) 또한 손(巽≡)으로 변한다. 손(巽≡)은 요대가 된다고 함은 손(巽≡)은 백(帛)이 되고 사권이 되니 감(坎≡)은 신수(腎水)에 속하여 요(腰)가 된다. 즉 손(巽≡)이 감(坎≡) 요(腰)를 감싸 덮으므로 요대(腰帶)가 된다.

^{종 조 삼 타 치 지}終朝三扞(褫)之.

하루아침에 세 번 빼앗기리라.

우변(虞翻)의 풀이

상육(上六) 맨 끝 자리고 건(乾☰)의 가장 위다. 이효(二爻)가 변했을 때 곤(坤☷)은 끝(終)이 되고, 이(離☲)는 해가 된다. 건(乾☰)은 갑(甲)이 되고 해가 甲의 위로 나오므로 개념이 아침 조(朝)다. 또 상육(上六)은 호응이 삼효(三爻)에 있으므로 삼효가 변했을 때 간(艮☶)은 손이 되므로 하루아침에 세 번 빼앗는 종조삼치지(終朝三褫之)다. 변해 자기에게 호응하도록 하면 반대(輦帶)를 잃는다. 바탕이 감(坎☵) 양(陽)을 타고 있으므로 족히 공경할 만한 게 못된다.

후과(侯果)의 풀이

치(褫)는 해(解)의 뜻이다. 건(乾☰)은 옷이 되고 말이 되므로 송사로써 옷을 받는다.

순상(荀爽)의 풀이

이효(二爻)와 사효(四爻)는 삼효(三爻)를 다툰다. 삼효는 본래 아래 속한 패상이다. 취할만한 까닭이 있다. 혹의 의미는 의심스러워하는 말이다. 삼효로써 二효에게 무엇을 준다는 게 이치상 의심스럽다는 뜻이다. 다투며 경쟁하는 세상에서 분수와 이치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혹 二효에게 줄 수도 있음을 말하였다. 하루아침의 뜻은 군주의 도가 밝음과 관계가 있고 삼(三)은 양(陽)이 공(功)을 이룬 수다. 군주가 밝고 도가 성하면 二효와 더불어 四효를 빼앗으므로 하루아침에 세 번 빼앗기는 종조삼타지(終朝三挞(치褫)之)다. 반대(輦帶)는 종묘(宗廟)의 복장이다. 삼효(三爻)는 상효(上爻)와 호응하는 자리가 되는데 그때 상효(上爻)는 종묘가 된다. 그러므로 반대(輦帶)다.

적현(翟玄)의 풀이

상효(上爻)는 육삼(六三)을 두고 아래 삼양(三陽)과 다룬다. 여러 강(剛)이 사귀어 다투니 양보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루아침의 사이에 각기 한 번씩 빼앗기니 삼타(三挞(褫))가 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상효(上爻)는 건(乾☰)의 끝에 와 있다. 二효가 변해 곤(坤☷)이 되면 달이 진(震☳)의 끝 곤(坤☷)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곤(坤☷)은 끝이 된다. 호괘

(互卦) 이(離☲)는 해이므로 이(離☲)는 해가 된다고 하였다. 건(乾☰)은 납갑(納甲)의 머리이므로 건(乾☰)은 갑(甲)이 된다. 이(離☲) 해는 건(乾☰) 갑(甲)의 위에서 나오므로 문(文)에 있어서는 날 日 밑에 갑옷 甲자가 된다고 했다. 설문에서도 일찍 조(早)를 같은 자로 보고 있으니 호칭이 아침 조(朝)가 된다. 아래서 호응하는 효는 삼효(三爻)니 三爻가 변하면 천산돈(天山遯☶)으로 돌아가 艮을 이룬다. 간(艮☶)은 손이 된다고 설괘문(說卦文)에 말했다. 빼앗는 타(挖)가 손 手변에 해당하므로 간(艮☶) 손을 취하여 하루아침에 세 번 빼앗기는 종조삼타지(終朝三挖(치褫)之)다. 삼효(三爻)가 상효(上爻)로 하여금 변해 자기에게 호응하도록 하면 간(艮☶) 손으로 그 반대를 잃게 함이니 삼효(三爻)로부터 상효(上爻)에 이르도록 세 효(爻)를 거치게 되므로 삼타지(三挖(치褫)之)다. 三爻는 패상이 감(坎☵)으로 양(陽)의 자리에 올라타 있다. 건(乾☰)의 공경한 象이 무너진다(괴壞). 그러므로 상으로 족히 공경스럽지 못함을 말하였다.

후과(侯果) 풀이의 해설

타(挖)는 본래 치(褫)로 되어 있다. 순자 비상편에 극레이치(極禮而褫)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곳의 치(褫) 또한 뜻이 해(解)다. 건(乾☰)은 옷이 되고 말이 됨은 구가(九家) 설괘(說卦)의 해석이다. 말이 된다면 이는 송사(訟事)다. 옷은 곧 하사 받는 복(服)이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건척도(乾鑿度)에 초효(初爻)는 원사(元士)가 되고, 이효(二爻)는 대부(大夫)가 되고 삼효(三爻)는 삼공(三公)이 되고 사효(四爻)는 제후(諸侯)가 되며 오효(五爻)는 천자(天子)가 되고 상효(上爻)는 종묘(宗廟)가 된다고 하였다. 이효(二爻)는 사효(四爻)와 더불어 삼공(三公)의 복장을 닮고 삼효(三爻)는 본래 패상이 아래에 속하면서 이효(二爻)와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있으니 이는 서로 취하려는 원인의 하나가 된다. 건(乾☰) 문언(文言)에 혹(或)이란 의심하는 말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혹(或)은 의심하는 말이라고 하였다.三公의 복장을 二爻 大夫에게 준다고 하니 이치상 의심스럽다. 오직 닮아서 경쟁하는 세상에서 분수와 이치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혹의 개념으로 二爻에게 준다는 말을 대신하고 있다는 뜻이다. 상서(尙書) 대전(大傳)에 세지조(歲之朝) 월지조(月之朝) 일지조(日之朝) 즉(則) 후왕수지(后王受之)라는 구절이 있다. 정(鄭)은 그곳의 주석에서 정월(正月)부터 사월(四月)까지가 세(歲)의 아침이 되며 상순이 한 달의 아침이 되며 평단(平旦)에서 식시(食時)까지가 하루의 아침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루아침으로 해석한 종조(終朝)는 군주의 도가 밝음이 된다. 춘추(春秋) 원명포(元命包)에 양(陽)은 三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三은 양(陽)의 공(功)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사효(四爻)는 제후가 된다. 들어가 삼공(三公)이 되니 마땅히三公의 복장을 입는다. 그러므로 군주의 도가 성하면 二爻와 더불어 四爻를 빼앗게 된다. 양의 도는 점차 자라므로 세 번 빼앗는다. 반대(顰帶)는 제사에 입는 복장이다. 그러므로 종묘의 복장이라고 하였다. 三爻는 上爻와 호응하고 上爻는 종묘(宗廟)가 되므로 반대(顰帶)가 제사의 복장으로 위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적현(翟玄) 풀이의 해설

上爻는 三爻와 호응하는 관계이므로 上爻는 六三을 두고 아래 삼양(三陽)과 다툼다고 하였다. 즉 이효(二爻)와 사효(四爻) 및 오효(五爻) 여러 강(剛)이 사귀어 다투니 얻은 자가 양보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루아침의 사이에 세 양(陽)이 각기 한 번씩 빼앗으니 삼타(三挞(褫))가 된다.

우안(愚案)

상효(上爻)는 삼효(三爻)와 더불어 호응하는 관계다. 삼효(三爻) 호괘(互卦) 손(巽≡)은 비단(帛)도 되니 반대(顰帶)가 된다. 호괘 이(離≡) 해는 종조가 되고, 위로부터 삼효(三爻)까지는 세 효(爻)를 거치니 세 번 빼앗기는 三挞(褫)다. 상효(上爻)는 양(陽) 강(剛)으로서 맨 끝에 자리 잡고 있다. 굳센 기세가 험함을 이기니 송사에 능한 자다. 곧 혹 송사를 하여 이겨 반대를 하사받으나 지나치게 강하고 자리가 어긋나 있음이니 또한 하루아침에 세 번 빼앗기는 종조삼타지(終朝三挞(褫)之)다. 무릇 송사를 통해 이기더라도 욕스러움이 또한 따르거니 하물며 이기지 못함이겠는가. 초효(初爻)는 끝까지 하지 않아 길함을 획득하니 이는 시작을 잘 도모함

이다. 삼효(三爻)와 사효(四爻)는 중에 있으면서 변해 바름을 얻으니 이는 중(中)에서 길한 자다. 상효(上爻)는 끝에 위치하면서 송사를 굳세게 고집하여 일로 삼으니 비록 영예를 얻더라도 욕스러움이 있다. 이는 끝이 흉한 자다.

상 환 이 송 수 복 역 불 족 경 야
象曰, 以訟受服, 亦不足敬也.

상전에 말하였다. 다투어 송사하여 반대(顰帶-관복)를 하사받음은 족히 공경할만한 함이 못된다.

우번(虞翻)의 풀이

복(服)은 반대(顰帶)를 말한다. 하루아침에 빼앗김을 당하니 건의 상이 헐어져 무너진다. 그러므로 족히 공경할만하지 못하다.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초효(初爻)와 이효(二爻) 삼효(三爻) 사효(四爻)가 모두 자리가 바르지 않다. 바르지 않으면서 서로 송사를 하니 그 복을 얻음이 또한 공경스럽지 못하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반대(顰帶)는 꾸며서 입는 복장이다. 그러므로 복(服)은 顰帶를 말한다고 하였다. 송사로써 복장을 받음은 하루아침에 빼앗김을 당하게 되니 송사를 좋아함은 족히 공경스럽지 못하다. 상효(上爻)는 변하면 태(兌≡)가 된다. 태(兌≡)는 훼손(毀折)이 되고, 건(乾≡)은 공경(恭敬)스러움이 되니 건(乾≡)의 상이 훼손되었다면 족히 공경스럽지 못하다는 뜻이 된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初爻와 二爻 三爻 四爻가 모두 자리가 바르지 않다. 바르지 않으면서 서로 송사를 하여 上爻만이 홀로 옷을 받으니 어찌 족히 공경스럽겠는가.

○ 덧붙이는 말

① 양은 성격이 적극적이다. 효가 음(陰) 자리의 양이니 송사에 뜻이 크다.

② 상구는 위치가 송사하는 패상의 끝이다. 따라서 송사를 끝까지 하고자 한다. 어찌 화를 스스로 취하게 되지 않겠는가.

③ 송사에 이겨 관복을 하사받더라도 하루아침에 세 번이나 뺏기는 재앙이 있게 되어 있다.

제 칠(七) 지수사(地水師䷆)¹⁰⁴⁾

● 패명에 대하여

① 師는 군대를 뜻한다. 대(帶)에서 주름 부분을 떼어내고 두를 잡(市)에 작은 언덕을 더한 형태다. 두를 잡(市)은 군대에서 어떤 표지로 쓰는 깃발을 표현했으니 작은 언덕 주위에 주둔한 군대를 나타내던 글자다. 나중에 사(師)의 왼쪽 언덕 부(阜)가 많을 퇴의 뜻이 강조되면서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스승을 가리키는 글자가 되었다.

서괘월 송필유중기 고수지이사
序卦曰 訟必有衆起，故受之以師

서괘에 말했다. “송사에는 반드시 대중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천수송(天水訟䷅)을 이어 지수사(地水師䷆)로 받았다.

최근(崔觀)의 풀이

다툼은 반드시 무리가 서로 공격하면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받기를 지수사(地水師䷆)로 받았다.

104) 07師卦01, 師, 貞, 丈人吉, 无咎.

07師卦02, 彖曰, 師, 衆也, 貞, 正也. 能以衆正, 可以王矣. 剛中而應,, 行險而順, 以此毒天下, 而民從之, 吉又何咎矣! 07師卦03, 象曰, 地中有水, 師, 君子以容民畜衆.

07師卦04, 初六, 師出以律, 否臧凶. 07師卦05, 象曰, “師出以律”, 失律凶也.

九二, 在師, 中吉, 无咎, 王三錫命. 象曰, “在師中吉”, 承天寵也, “王三錫命”, 懷萬邦也.

07師卦08, 六三, 師或輿尸, 凶. 07師卦09, 象曰, “師或輿尸”, 大无功也.

07師卦10, 六四, 師左次, 无咎. 07師卦11, 象曰, “左次无咎”, 未失常也.

07師卦12, 六五, 田有禽, 利執言, 无咎, 長子帥師, 弟子輿尸, 貞凶.

07師卦13, 象曰, “長子帥師”, 以中行也, “弟子輿尸”, 使不當也.

上六, 大君有命, 開國承家, 小人勿用. 象曰, “大君有命”, 以正功也, “小人勿用”, 必亂邦也.

최근(崔觀) 풀이의 해설

혈기가 있는 자는 모두 투쟁심이 있다. 송(訟䷅)과 사(師䷆)는 모두 투쟁하는 바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양쪽이 서로 다툼을 송사라고 하고, 양쪽 나라가 서로 싸우는 것을 사(師)라고 한다. 군대가 싸우는 것은 송사에서 일어난다고 함은 작은 것에서 일이 커진 결과다. 당우(唐虞)의 때에는 병사가 형을 집행하는 데(형刑) 속해 있었다. 주어(周語)에 대형(大刑)은 갑병(甲兵)을 쓰고, 중형(中刑)은 큰 칼(도거刀鉞)을 쓰고, 박형(薄刑)은 채찍과 매(편복鞭撻)를 쓴다고 되어 있다. 대개 송사와 더불어 군대에 같은 뜻이 있는 까닭에 송사를 들고 난 뒤에는 곧 군대로써 이를 응징한 것이다.

● 패의 차례 문제

① 군대가 일어남은 송사가 있기 때문이니 이 때문에 지수사(地水師䷆)는 천수송(天水訟䷅)의 다음이다.

아래가 물 패 감(坎䷜)이고, 위가 땅 패 곤(坤䷁)이다.

● 패상에 대하여

① 땅 가운데 물이 있음은 여럿이 모이는 상(象)이 되고 안은 험하고 밖은 유순하니 아래의 험한 도(道)에도 위에서 유순함이 군대를 움직이는 상이다.

② 위는 험한 물 감(坎䷜)이고 아래는 유순한 땅 곤(坤䷁)이다. 험한 병사를 가장 유순한 농사일에 숨겨두던 옛 시대의 관행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주자)

③ 구이(九二) 하나의 양(陽)이 아래 소성괘의 가운데 있으니 지수사(地水師䷆)의 때에 험함을 주장하는 장수의 상이고, 위의 여러 음(陰)이 구이를 유순하게 따르니 여러 병사의 상(象)이 된다.(주자)

▷ 구이(九二)는 강(剛)으로서 아래에 거처하고 있지만 험한 모습으로 군사를 통솔하고 위의 육오(六五)와 나머지 음들은 유순하게 그에게 따르니 나라의 군주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장수에게 맡겨 군대가 움직이고 있는 상(象)이다.

사 師, 眞, 丈人吉, 无咎.

사는 바르니 장인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으리라.

하안(何晏)의 풀이

사(師)란 군사 조직의 명칭이다. 그러므로 주례에 이천 오백 사람이 사(師)가 된다고 하였다.

왕필(王弼)의 풀이

장인은 위엄과 엄숙함을 갖춘 사람의 명칭이다. 군사를 움직임이 바르다. 군사를 바르게 움직이니 장인이라야 길하다. 부역과 대중을 움직임에 공이 없으면 죄가 된다. 그러므로 길해야 허물이 없다.

육적(陸績)의 풀이

장인이란 성인이다. 군사를 통솔함에 반드시 성인은 아니었다. 한나라의 고조(高祖)와 광무(光武) 같은 이라면 이 뜻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崔覲)의 풀이

자하전에서는 대인으로 표기하고 있다. 왕을 겸해 군사를 통솔하는 사람이다.

하안(何晏) 풀이의 해설

주례(周禮) 지관(地官) 소사도(小司徒)에 오려(五旅)가 사(師)가 되고, 오사(五師)가 군(軍)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師)는 군려(軍旅)의 명칭이다. 하관(夏官) 대사마(大司馬)에는 이천오백인(二千五百人)이 사(師)가 된다고 하였다. 정씨가 말하기를 대체로 군(軍)으로서 이름을 쓰고, 다음에 사(師)로써 일컬었으며, 드물게 여(旅)로써 명명했으니 사는 그 가운데 하나다. 복건(服虔) 좌씨(左氏) 해의(解誼)에 이卦를 해설하여 감(坎☵)은 水가 되고, 곤(坤☷)은 무리가 되며, 호체(互體)는 진(震☳)이다. 진(震☳)은 우뢰가 되니 우뢰는 북의 종류며, 또 장자가 되니 장자가 무리를 거느리고 북을 치고 물을 따라 감이 사(師)의 상이라고 하였다.

왕필(王弼) 풀이의 해설

장인이 위엄과 엄숙함을 갖춘 사람의 명칭이라고 함은 장인은 엄숙한 위와 장중함을 갖춘 사람임을 말한다. 군사를 통솔함에 바른 자는 곧다는 뜻이니 바르다. 정씨가 말하는 어른으로서의 장은 능히 군사를 이끌되 바른 덕이 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군사를 이끌되 바르지 않으면

안 되니 장인이라야 이에 길하다. 무릇 노역을 일으키고 무리를 움직임에 반드시 엄숙함과 장중함으로 해야 하니 그래야 공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로는 없고, 죄만 있게 될 것이다. 오직 곧게 하므로 길하고 길하면 허물이 없게 된다.

육적(陸績) 풀이의 해설

장인이 성인이 된다는 뜻은 장인에게는 성인의 덕이 있음을 말한다. 오직 무왕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 군사를 일으켜 紂를 토벌함에 말년에 천명을 받아 주를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후세에 군사를 거느린 수장은 대체로 성인에 미치지 못한다. 오직 한 고조가 진섭의 난을 인하여 무리를 일으킴과 광무가 왕망의 찬탈을 당해 병력을 사용했으니 모두 명분이 있는 군사였다. 이들은 군사를 동원함에 바른 도리를 얻었으니 경에서 말하는 뜻과 서로 호응함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로 들어 언급하였다.

최근(崔觀) 풀이의 해설

이곳의 장인(丈人)을 대인(大人)으로 기술함은 자하전(子夏傳)에 근거한 해설이다. 그리고 왕의 군사가 됨을 말하였다. 대개 왕은 천명을 받은 대인이니 아래의 단전에서 말하는 이로써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절과 뜻이 서로 부합한다.

안(案)

이는 단(象)에서 사(師)는 무리의 중(衆)이고, 정(貞)은 바르다는 정(正)이다. 능히 무리로써 바르게 하니, 왕이 될 만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역 가운데 四大가 있으니, 왕은 그 중의 하나에 거처한다고 하였다. 이를 말미암아 본다면 무릇 왕이 되는 자는 반드시 대인임을 알 수 있다. 어찌 丈人이라야 왕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중천건(重天乾䷀) 문언전에서도, 무릇 대인은 천지와 더불어 덕을 합하고, 일월과 더불어 밝음을 합하니, 하늘보다 앞서도 하늘이 어기지 않고, 하늘보다 뒤에 하더라도 하늘의 때를 받드나니, 하늘도 어기지 않거늘 하물며 사람이 어기겠느냐고 하였다. 그렇다면 군사를 움직이는 일이 어떻게 이와 다르겠는가. 이로써

논한다면 자하전에서 말하는 대인의 뜻이 가장 타당한 개념이다.

이정조(李鼎祚) 풀이의 해설

이씨는 단전(象傳) 및 도덕경(道德經) 중천건(重天乾䷀) 문언전(文言傳) 등에 근거하여 자하전의 대인이 옳다고 보았다. 아울러 왕필의 주석을 배척하여 틀리다고 보았다. 이는 경문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다시 전(傳)에 근거하더라도 그 취지에 어긋남이 있다.

우(愚)

괘사의 장인(丈人)은 곧 효사의 장자(長子)라고 본다. 대대례(大戴禮) 본명(本命)에 장(丈)이란 장(長)이라고 하였다. 호괘(互卦) 진(震䷲)은 장자(長子)가 되므로 호칭이 장인(丈人)이다. 장(丈)은 장(長)과 일치하니 다시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또 논어에서도 丈人을 만났다는 구절의 주석에서 丈人은 노인이라고 하였다. 시경(詩經) 대아(大雅)에 유사상보(維師尙父)라고 하였고, 소아(小雅)에서도 방숙원로(方叔元老)라는 표현을 볼 수 있다. 대개 옛적의 군사를 거느리도록 명받은 사람이니 다분히 노숙한 성인(노성老成)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장인이라야 길하다고 하였다.

● 패덕에 대하여

① 군사를 움직이는 일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전쟁터로 내몰아야 하는 혹독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군사를 움직이는 도는 반드시 하늘의 바른 도리를 근본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마치 패상을 놓고 보면 위로 중정(中正)한 하늘의 도리를 따르는 땅곤(坤䷁)의 유순함과 험한 가운데서도 양강(陽剛)의 덕을 잃지 않는 아래소성괘 감(坎䷜)의 덕을 본받아야 한다. 그래서 괘사에서도 장인(丈人)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한다.

③ 전쟁터에서 사람들의 존경과 두려움을 잃지 않는 장수의 덕은 반드시 하늘의 강건 중정한 양강(陽剛)의 이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④ 군대를 일으킴에 재물과 인명을 해치고 천하에 혹독한 해독을 끼치나 민심이 유순하게 따르는 까닭은 하늘의 마땅한 이치에 근거하여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⑤ 능히 많은 사람을 험한 땅으로 내몰면서도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바르게 하면 그는 왕노릇을 할 만한 덕이 된다.

⑥ 구이(九二)의 덕이 강(剛)으로서 중(中)을 얻었고 육오(六五)도 위에서 또한 유순하니 이는 험한 도를 행함에 허물이 없기 때문이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유순하게 따르는 뜻이 있으니 길하여 허물이 없는 모습이다.

⑦ 땅 가운데 물이 있음은 무리가 모이는 상이 되니 그것을 사(師)의 상이고 군자는 이를 보고 백성을 용납하고 보호할 것을 상전에서는 말한다.

07師卦02, ^{단 환 사 중 야 정 정 야 능 이 중 정 가 이 왕 의} 象曰, 師, 衆也, 貞, 正也. 能以衆正, 可以王矣.

단전에 말하였다. 사(師)는 무리요, 정(貞)은 바름이니 능히 무리로써 바르게 하면 이로써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번(虞翻)의 풀이

곤(坤)은 무리가 된다. 이효(二爻)는 자리가 어긋나 있다. 변해 오효(五爻)로 가면 수지비(水地比)가 된다. 그러므로 능히 무리로써 바르게 함이 되고 이로써 왕이 될 수 있게 된다.

순상(荀爽)의 풀이

이효(二爻)는 중화(中和)의 덕이 있고 여러 음이 근거하고 있으니 올라가 오효(五爻)에 있게 되면 왕이 될 수 있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곤(坤)이 무리가 된다고 함은 실패전의 문구다. 패사에서 사(師)는 바르며 장인(丈人)이라야 길하다고 하였으니 이효(二爻)가 중(中)이나 자리가 바르지 않아 어긋난 자리이기 때문이다. 변해 오효(五爻)로 가면 패상이 수지비(水地比)가 되어 중(中)이면서 또한 바르다. 맹자가 정벌은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군사로써 천하를 바르게 하므로 능히 무리로써 바르게 하면 이로써 왕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이효(二爻)는 음(陰)의 자리이면서 중(中)이 된다. 그러므로 중화(中和)의 덕이 있다. 여러 음(陰)이란 위와 아래의 다섯 음효(陰爻)를 말한다. 양

(陽)은 올라감을 주장하고, 음(陰)은 내려감을 주장한다. 그 이치에 근거해 볼 때 이효(二爻)는 호응 관계인 오효(五爻)로 올라가 자리 잡아야 하니 그렇게 되면 오효(五爻)의 양은 중(中)이면서 또한 바르다. 그러므로 가히 왕이 될 수 있다.

강 중 이 응, 행 험 이 순,
剛中而應, 行險而順,

剛함이 중에 있으면서 호응하고 險함을 행하나 유순하니

촉재(蜀才)의 풀이

이는 본래 괘상이 산지박(山地剝䷖)이다.

안(案)

상구(上九)가 이효(二爻)로 내려오고 육이(六二)는 상효(上爻)로 올라갔다.

이는 강중(剛中)으로 호응함이요, 험함을 행하되 유순함이다.

촉재(蜀才) 풀이의 해설

일양오음(一陽五陰)의 괘는 산지박(山地剝䷖)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이는 본래 괘상이 산지박(山地剝䷖)이라고 하였다. 산지박(山地剝䷖) 상구(上九)가 이효(二爻)로 내려오고, 육이(六二)가 상효(上爻)로 올라가면 지수사(地水師䷆)가 된다. 양(陽)이 이효(二爻)에 머물면 강(剛) 중(中)이 된다. 위로는 오효(五爻)와 바르게 호응함이 되므로 강중(剛中)으로 호응한다고 하였다. 감(坎☵)은 험(險)함이 되고 진(震☳)은 행(行)함이 되며, 곤(坤☷)은 유순(柔順)함이 되므로 험함을 행하되 유순하다고 하였다.

이 차 독 천 하, 이 민 종 지,
以此毒天下, 而民從之,

이로써 천하를 혹독하게 하여도 백성이 이를 따르니

간보(干寶)의 풀이

감(坎☵)은 험(險)함이 되고 곤(坤☷)은 유순(柔順)함이 된다. 군사와 감옥에 관한 형벌은 백성을 험하게 하는 일이다. 험한 가운데서 백성을 혹독하게 하나 유순한 도를 얻게 됨은 성스런 왕이라도 어려운 바다. 혹독하다는 독(毒)은 썸바퀴처럼 쓰다는 뜻이다. 오형의 적용은 살집과 몸을 베거나 찌르고 육군(六軍)의 칼날(鋒)은 성곽을 깨뜨려 쳐부셔야 하니 모두

섬바퀴처럼 흑독하고 고통스러움을 요구하면서 왕법에 복종하게 하는 자다. 그러므로 천하를 흑독하게 하나 백성들이 쫓는다고 하였다. 흑독함으로써 백성을 다스리되 그것이 어쩔 수 없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그 까닭에 단전(彖傳)과 상전(象傳) 육효(六爻)에서 모두 경계하고 두렵게 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안은 감(坎☵)이니 험(險)하다. 밖은 땅 곤(坤☷)이니 유순(柔順)하다. 크게는 병사에 관한 일이 되고, 작게는 형벌과 옥에 해당한다. 모두 백성들을 험하게 하는 일들이다. 이처럼 감(坎☵)의 험함으로 백성들을 흑독하게 다루되 땅의 유순한 도를 얻음은 성스런 군왕이라도 매우 어려운 노릇이다. 하물며 그 보다 못한 자이겠는가! 시경(詩經) 패풍(邶風)에 수위도고(誰謂荼苦)라는 구절이 있다. 전(傳)에 도(荼)는 쓰디쓴 섬바퀴라고 했고, 대아(大雅)에도 민지탐난(民之貪亂) 영위도독(寧爲荼毒)이라는 구절에서 도(荼)를 쓰다는 고(苦)와 같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독(毒)은 도고(荼苦)의 뜻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추관(秋官) 사형(司刑)에 오형(五刑)의 법은 만민의 죄에 따라 베풀어지나니 묵죄(墨罪)는 오백(五百)이요, 코를 베는 죄가 오백(五百)이며, 궁죄(宮罪)도 오백(五百), 월죄(剕罪)와 살죄(殺罪)가 각각 오백(五百)이라고 하였다. 이는 모두 신체에 가해지는 형벌이므로 五刑의 적용이 살과 몸을 베고 절단한다고 하였다. 시경 대아(大雅)에 주 임금 나가시니 육사(六師)가 뒤따른다. (周王于邁 六師及之)하고 전(傳)에서 천자지군(天子之軍)이라 했으니 주석을 보면 춘추의 때에 모름지기 일만의 무리가 운집해 있는 것은 모두 사(師)라 일컫는다고 하였다.

시의 육사(六師)는 육군(六軍)의 군사이다. 하관(夏官) 대사마(大司馬)에 구벌(九伐)의 법은 그 임금은 내쫓아 시해하면 허물어진다고 했다. 석명(釋名)에 잔(殘)은 밟은 천(踐)이니 짓밟아 무너뜨리게 함을 말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六軍의 칼날은 성읍을 해치고 깨뜨리려는데 있다고 하였다. 주어(周語)에 대형(大刑)은 갑병(甲兵)을 쓰고 그 다음은 부월(斧鉞)을 쓰며 중형(中刑)은 도거(刀鉅)를 쓰고 그 다음은 금찬착(金贊箠)을 쓴다고

하였다. 이들은 모두 간사하고 흉악한 사람들에게 쓰디쓴 해독을 써서 그들로 하여금 왕법에 복종케 하는 바라고 하였다. 마씨(馬氏)가 독(毒)은 다스린다는 치(治)라고 했으니 혹독하게 하여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되어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병(兵)이란 성서롭지 못한 방편이니 군자의 기물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쓴다면 부득이 하기 때문이니 앞에서도 어쩔 수 없어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까닭에 단전(象傳)과 상전(象傳) 육효(六爻)에서 모두 경계하고 두렵게 여겨야 함을 강조하였으니 폭력에 의존함을 그치게 함이 武의 뜻을 보여주는 말로 거두어 들어 스스로 불사른다는 뜻이 아니다.

우안(愚案)

천관(天官) 의사(醫師)에 독약을 모아서 병 고치는 일에 이바지 한다고 하는 구절이 있다. 정(鄭)은 그곳의 주석에서 독(毒)은 오독(五毒), 약(藥)도 오약(五藥)이라고 하였다. 다시 疾醫에도 五味 五穀 五藥으로써 그 병을 치료한다고 하였고 양의(瘍醫)에서도 오독으로써 이를 공격한다는 말이 있다. 성인께서 천하를 다스림은 예악병형(禮樂兵刑)을 벗어나지 않으니 세상이 평온할 때는 예악(禮樂)으로써 하며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병형(兵刑)으로서 이를 다스릴 뿐이다. 여기서 예악은 곧 오미 오곡의 성격에 속하며 병사와 형벌은 오독의 성격에 속하지만 모두가 세상을 다스리는 바다. 이때 마군(馬君)은 독(毒)의 뜻이 다스린다는 치(治)와 같다고 했으니 그 뜻은 사실 여기에 기초한다. 대개 포악함을 제거하여 선량함을 편안하게 하므로 천하를 혹독하게 하여도 백성이 이에 따른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씨춘추(呂氏春秋)의 논병(論兵)에서도 만약 약을 쓸 때 좋은 약을 얻으면 사람을 살리고 잘못된 약을 쓰면 사람을 죽이니 의로운 군사는 천하의 양약이 되는 바 또한 큰일이라고 함이 바로 이 뜻이다.

길 우 하 구 의
吉又何咎矣!

길하고 또 무슨 허물이 있으리요.

최근(崔觀)의 풀이

강(剛)함은 능히 나아갈 수 있음을 뜻한다. 중(中)이라면 무리를 능히 바

르게 한다. 이미 이치에 유순하고 또 호응하고 있다면 험함을 행함에 감히 포악하겠는가. 머물러 천하를 혹독하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두 귀의하여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니 길할 것이며, 또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최근(崔觀) 풀이의 해설

이효(二爻)는 양효(陽爻)다. 그러므로 강(剛)하다는 뜻으로 능히 나아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자리를 얻었으므로 중(中)이라면 무리를 필연코 바르게 한다고 하였다. 위로 유순한 곤(坤☷)의 오효에 호응하므로 이미 유순하고 또 호응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안으로 감(坎☵)이므로 험함을 행하되 감히 포악하겠느냐고 하고 밖으로 땅 곤(坤☷)이므로 머물러 천하를 혹독하게 한다고 하였다. 노자 도덕경에 정지독지(亭之毒之)라는 구절이 있는 바 이를 두고 주석하기를, 정이품기형(亭以品其形) 독이성기질(毒以成其質)이라 하였다. 곧 독(毒)은 음이 도(徒)와 독(篤)의 反이니 지금의 기른다는 육(育)의 뜻으로 통해 있어서 정독(亭毒)이란 화육(化育)의 개념이다. 대개 땅에는 만물을 낳아 기르는 뜻이 있으므로 앞의 문구 정독(亭毒)으로써 그 개념을 대신해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공 삼년 곡량전(穀梁傳)에 왕이란 백성의 돌아가 귀의하는 대상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이 모두 돌아가 귀의하니 왕이 될 수 있으니 길할 것이며 또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고 하였다.

상 왕 지 중 유 수 사
象曰, 地中有水, 師,

상전에 말하였다. 땅 가운데 물이 있음이 사(師☶)니

육적(六賊)의 풀이

감(坎☵)이 곤(坤☷)의 안에 있다. 그러므로 땅 가운데 물이 있다고 하였다. 사(師☶)는 무리다. 땅 가운데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는 물만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육적(陸績) 풀이의 해설

감(坎☵)은 물이요, 곤(坤☷)은 땅이다. 감(坎☵) 一陽이 본래 땅 가운데 있으면서 그 궤 또한 곤(坤☷)의 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이 땅 가운데 물이 있는 상(象)이다. 사(師☶)를 무리로 보는 시각은 단전 그대로다. 설괘

(說卦)에서 곤(坤☷)은 무리가 된다고 하였다. 진어(晉語)에 감(坎☵)은 水 물이니 무리라고 했으니 이는 감(坎☵)이 또한 무리가 됨을 뜻한다. 현중기(玄中記)에서는 천하의 가장 많은 것은 물이라고 하였다. 하늘을 떠 있게 하고 땅을 싣고 있으니 높고 낮은 것이 이르지 않음이 없고 만물을 운택하게 하지 못함이 없다. 그러므로 땅 가운데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는 물만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

우안(愚案)

곤(坤☷) 무리는 흠어지게 하여 무리를 이룬다. 물에서 말하는 무리는 모여서 무리를 이룬다. 물이 땅 가운데 모여서 무리를 이루는 게 마치 병사가 백성 가운데서 모여 사(師☶)가 됨과 같으니 이는 땅 가운데 물이 있는 것과 같다. 그 까닭에 군사 사(師☶)로써 상(象)을 취해 오고 있다.

군 자 이 용 민 중
君子以容民畜衆.

군자가 보고서 백성을 용납하고 무리를 기르느니라.

우변(虞翻)의 풀이

군자(君子)는 이효(二爻)를 말한다. 용납한다는 용(容)은 너그럽다는 관(寬)의 뜻이다. 곤(坤☷)은 백성의 무리가 되고 또 길러서 양육함이 된다. 양(陽)이 이효(二爻)에 있으니 너그러움으로써 거처함이요, 오효(五爻)가 변해 잡으라고 말할 때가 되면 산뢰이(山雷頤☶)로 기르는 상이 있다. 그러므로 백성을 용납하고 무리를 기른다는 상전의 말이 나온다.

우변(虞翻) 풀이의 해설

이효가 군자라고 함은 이효(二爻)가 양(陽)으로써 패의 주효(主爻)가 되기 때문이다.

용납한다고 해석한 용(容)이 너그럽다는 관(寬)의 뜻이 된다고 함은 홍범(洪範) 오행(五行)의 전문(傳文)이다. 곤(坤☷)이 민중(民衆)이 된다는 것은 설괘에서 곤(坤☷)은 무리가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변은 그곳의 주석에서 사물이 셋이면 이를 일컬어 무리라고 하며, 陰은 백성이 되고 세 음(陰)이 서로 따르므로 무리가 된다고 하였다. 곧 이는 민중의 뜻이다. 또 모아 기른다고 함은 시경(詩經) 모전(毛傳)의 주석과 같다. 다시 말해 일

월(日月)에서 혹아부줄(畜我不卒)을 두고 혹(畜)은 기른다는 양(養)이라고 하였다. 설괘에서 곤(坤☷)이란 만물이 모두 이에 이르러 양육된다고 했으므로 곤(坤☷)은 혹양(畜養)의 뜻이 된다. 양(陽)이 이효(二爻)에 있으니 너그러움으로써 거처한다고 함은 중천건(重天乾☰) 구이(九二) 효(爻)에서 하는 말이다. 감(坎☵)의 이효가 건(乾☰)으로부터 왔으므로 용납함은 너그러움이 된다. 건(乾☰) 二爻와 더불어 사물이 일치한다. 五爻가 변해 잡으라고 말할 때가 되면 산뢰이(山雷頤☶)의 象이 있다고 함은 五爻가 이미 변하고 나면 二爻부터 五爻까지 산뢰이(山雷頤☶)의 상이 되는데 서괘에서 이(頤☶)는 기른다는 양(養)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보고서 백성을 용납하고 무리를 기른다는 군자이용민혹중(君子以容民畜衆)은 곤(坤☷)이 비록 기르는 상이 있으나 이미 민중으로 여겨 해석하였고 거듭 모아 양육함을 겹쳐 해석하고자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효(五爻)까지의 바탕을 이루는 괘상 산뢰이(山雷頤☶)의 象에서 용납해 기르는 뜻을 취해 이 괘를 해석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우안(愚案)

온전한 바탕은 중지곤(重地坤☷)이다. 二爻가 변해 감(坎☵)이 되면 지수사(地水師☶)가 된다. 중지곤(重地坤☷)은 영역이 광범위하므로 용납함의 용(容)이 되고, 만물을 양육하는 까닭에 기른다는 혹(畜)이 된다. 바깥의 괘 곤(坤☷) 음(陰)은 백성이 되고, 안의 감(坎☵) 水는 무리가 된다. 그러므로 이 괘상은 지수사(地水師☶)다. 백성은 양육하기를 너그러움으로 하고, 무리는 기르기를 모아서 한다. 주례(周禮) 지관(地官) 대사도(大司徒)의 직(職)에서 이보식육양만민(以保息六養萬民) 이본속육안만민(以本俗六安萬民)이라는 구절이 있으니 이곳의 본뜻이 곧 용민(容民)에 있다. 소사도(小司徒)의 직(職)에도 만민의 무리를 모아서 부리되 다섯 사람은 오(伍)가 되고, 伍가 다시 다섯이면 양(兩)이 되고, 兩이 다섯이면 졸(卒)이 되고 卒이 다섯이면 여(旅)가 되고 旅가 다시 다섯이면 사(師)가 되고, 師가 다섯이면 군(軍)이 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곧 무리를 모아쓰는 혹중(畜衆)이다. 이들이 또 모두 지관(地官)에 속하는 것은 이곳 지수사(地水師☶)처럼 곤(坤☷)

으로써 땅이 되기 때문이다. 또 춘관(春官) 대중백(大宗伯)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곳의 기술에 따르면 군례(軍禮)로써 제후의 방(邦)이나 천자의 나라(國)가 일치하니 대사(大師)의 예(禮)는 무리를 부림이요, 대균(大均)의 예는 무리를 궁홀하게 여김이요, 대전(大田)의 예는 무리를 간소하게 함이며, 대역(大役)의 예는 무리에게 맡기며, 대봉(大封)의 예는 무리에게 합당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을 보면 무리는 곧 사(師)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무리를 부리고, 무리를 궁홀하게 여기며, 무리를 간소하게 하며 무리에게 맡기거나 무리에게 합당하게 한다는 것은 그 뜻이 혹중(畜衆)과 통해 있다.

07師卦04, ^{초 육}初六, ^{사 출 이 율}師出以律, ^{부 장 흉}否臧凶.

초육(初六)은 군사가 나감에 율령으로써 하니 그렇지 않으면 착하더라도 흉하다.

07師卦05, ^{상 완}象曰, “^{사 출 이 율}師出以律”, ^{실 율 흉 아}失律凶也.

상전에 말하였다. 군사가 나감에 율령으로써 해야 한다고 함은 율령을 잃는다면 흉하다는 뜻이다.

안(案)

초육(初六)은 음(陰)으로써 자리가 양(陽)이다. 밝고 있는 자리가 마땅함을 잃었다. 자리가 바르지 않다면 명령을 내리더라도 쫓지 않는다. 이로써 군사를 움직임에 율령을 잃은 자다. 군사를 통솔함에 나감에 반드시 율령으로써 해야 하니 만약 율령으로써 하지 않는다면 비록 착하더라도 흉하다. 그러므로 효사의 말이 위와 같다.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감(坎☵)은 범람이 된다.

이정조(李鼎祚) 풀이의 해설

음(陰)이 양(陽)자리에 있다면 바른 자리가 아니다. 비록 호령함이 있으나 대중이 반드시 따르지 않는다. 이는 군사를 움직임에 율령을 잃었기 때문이다. 초효(初爻)가 지수사(地水師☵☵)의 머리에 와 있으나 이효(二爻)를 섬

기면서 호괘 진(震☳)으로 나감이 되니 군사가 나감에 율령으로써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시작부터 끝까지 삼가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흉함이 있겠는가. 지금은 음(陰)으로 유(柔)하면서 마땅한 자리를 상실했으니 능히 율령으로써 하지 않고 있다. 율령으로써 하지 않는다면 비록 착하더라도 흉하다. 상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율령을 잃었다고 말함은 마땅한 자리를 상실했다는 의미다. 석고(釋詁)에 장(臧)은 착하다는 선(善)이라고 하였다. 좌전(左傳) 선공(宣公) 12년에 이 효를 말하면서 집사순성위장(執事順成爲臧) 역위부(逆爲否)라고 했으니 여기서는 초효가 마땅함을 상실한 까닭에 부장흉(否臧凶)이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구가(九家) 설에 감(坎☵)은 율(律)이 된다고 했으므로 감(坎☵)은 범율이 된다. 옛적 도량형에 관한 법은 대개 황종(黃鐘)의 아홉치(九寸)를 기준으로 삼았다. 황鐘은 감(坎☵)의 자리다. 석언(釋言)에서도 말하기를 감(坎☵)은 율전(律銓)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감(坎☵)이 율(律)이 된다고 함은 악률(樂律)이고 법률(法律)이 아니다. 주례(周禮) 태사(太師)에 집동률(執同律) 이청군성이조길흉(以聽軍聲而詔吉凶)이라고 하였고, 또 약사유공칙좌집률(若師有功則左執律) 우병월(右秉鉞) 이선개악(以先愷樂)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옛적 군사를 움직임에 모두 율(律)을 잡고서 따르게 함을 나타낸다. 좌전(左傳)에 사광을 일컬어 남풍의 다투지 않음을 안다고 하였고, 오월춘추에는 대부 고여(皐如)의 말을 인용하면서 소리를 살피면 가히 싸울 수 있다고 했으니 모두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이다. 뒤에 사기(史記) 율서(律書)에 미쳐서는 독권권우병계(獨拳拳于兵械)라고 하고 색은에서는 역의 문장을 인용하여 사출이율(師出以律)로서 해석했으니 그 뜻을 얻은 해석이다. 율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곳에 보면 ‘육률(六律)은 만사의 근본이 되니, 병계(兵械)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적을 보고 길흉을 알며, 소리를 듣고 승부를 판단함은 여러 왕의 변하지 않는 법도다. 무왕(武王)이 주(紂)를 정벌할 때 율(律)을 부는 소리를 듣고 오직 맹춘(孟春)에서 계동(季冬)에 이르도록 기다렸으니 살기가 서로 병존하고 같은

소리가 서로 따름이 사물의 이치가 스스로 그와 같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병서에서는 말하기를, ‘태사가 율(律)을 불어 상(商)에 합하면 싸움에서 이기게 되니, 군사가 강할 때다. 각(角)이면 군사는 어지러우니 변화가 많고 뜻을 잃었을 때다. 궁(宮)인즉 군사가 화합함을 뜻하니 사졸(士卒)의 마음이 일치단결했을 때다. 치(徵)면 장수가 성급하여 자주 노여워하고 있음이니 군사들이 수고로움을 느낄 때다. 우(羽)라면 병사는 약하고 위의를 서지 못했을 때니 이들은 모두 사출이율(師出以律)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

○ 덧붙이는 말

① 초육(初六)은 군사를 움직이는 처음이며 험한 물 괘 감(坎☵)의 시작이다. 율법으로 의리를 제시하고 군사를 움직이는 도는 마땅히 처음을 삼가야 한다.

② 만일 군사를 움직임에 마땅한 의리가 아니라면 싸움에 이기더라도 흉하다.

07師卦06, ^{구 이}九二, ^{재 사}在師, ^{중 길}中吉, ^{무 구}无咎, ^{왕 삼 석 명}王三錫命.

구이는 사(師☶)에 있어서 가운데 함에 길하고 허물이 없으니 왕이 세 번 명을 주도다.

07師卦07, ^{상 환}象曰, “^{재 사 중 길}在師中吉”, ^{승 천 총 야}承天寵也,

상전에 말하였다. 사(師☶)에 있어서 가운데 함은 하늘의 은총을 이음이요, 구가역(九家易)의 풀이

마땅히 왕이 될 만하나 아직 사(師☶)의 中에 있으면서 하늘의 총애를 힘입어 일을 능히 성공할 수 있으므로 길해서 허물이 없다. 二爻는 그 자리가 못되니 대개 무왕이 천명을 받았으나 지위는 얻지 못했을 때다. 명을 받아 왕이 됨은 군사로써 천하를 안정시키는 까닭에 재사중길(在師中吉)이라고 말했다.

구가역(九家易) 풀이의 해설

양은 올라감을 주관하니 二爻는 양(陽)으로써 五爻로 올라간다. 마땅히 왕이 될 수 있으나 아래 坎의 가운데 위치해 있다. 이는 아직 사(師☶)의 가

운데 있다는 상재사중(尙在師中)의 이유다. 그러나 二爻는 강(剛)으로서 中을 차지하고 있는 덕이 있으니 이것이 하늘의 총애를 힘입고 있는 까닭이 된다. 한편 일을 능히 성공할 수 있으므로 길해서 허물이 없다. 양(陽)은 마땅히 오효(五爻)로 올라가야 한다. 이는 양(陽)으로써 거처할 자리가 二爻는 아니므로 무왕이 천명을 받았으나 지위를 얻지는 못했을 때에 해당한다. 천명(天命)을 받아 왕이 됨에 미처서는 천하를 평정하여 민심을 안정시켰으므로 이것이 괘상으로 보아 재사중길(在師中吉)이다.

우안(愚案)

괘가 여러 음(陰)들이 아래 하나의 양(陽)을 따르고 있으므로 이는 아래 강(剛)에게 장수의 재질이 있어서 길한 이유다. 또 中으로써 장수의 덕이 있으므로 허물이 없고 이것이 바로 師中에 있다는 뜻이다. 괘로 보면 지수사(地水師䷆)는 천화동인(天火同人䷌)과 통하니 천화동인(天火同人䷌)의 건(乾䷀)은 왕이 되고 손(巽䷸)은 명(命)이 되며 이(離䷄)는 수리상(數理上) 三이 되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왕삼석명(王三錫命)의 이유가 된다.

“^{왕 삼 석 명}王三錫命”, ^{희 만 방 야}懷萬邦也.

왕이 세 번 명을 줌은 만방을 품어 안음이다.

순상(荀爽)의 풀이

왕은 이효(二爻)를 뜻한다. 삼(三)이란 양(陽)의 덕(德)이 이루어지는 수다. 그 덕은 순수하고 도는 성하므로 위로 올라가 왕의 자리를 차지할 만하고, 주어진 명을 행함에 여러 음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왕이 세 번 명을 주게 되니 만방을 품어 안는다고 말하였다.

안(案)

지수사(地水師䷆)는 내호괘(內互卦)가 진(震䷲)이니 진(震䷲)은 수(數)가 삼(三)이다. 왕이 명령을 세 번 내리는 괘상이다. 주례에 처음 명령을 내리면서 벼슬(職)을 수여하고, 두 번째 명령 때는 복(服)을 하사하며 세 번째 명령 때는 지위를 준다고 했으니 그 뜻이 바로 이와 통한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二爻는 마땅히 五爻로 올라가야 하므로 왕은 二爻를 말한다고 하였다. 춘

추(春秋) 원명포(元命包)에 양(陽)은 三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므로 三이란 양의 덕이 이루어지는 수라고 하였다. 덕은 순수하고 도는 성하다고 함은 효에 중화의 덕이 있음을 말한다. 올라가 왕의 자리를 차지해야 하나 주어진 명령을 행하는 까닭에 왕이 세 번 명령을 내린다고 말하게 된다. 곤(坤☷) 土는 나라가 된다. 또 곤(坤☷)에는 무리의 뜻도 있으므로 萬이 된다. 감(坎☵) 마음은 생각해 품어 안는 회(懷)가 되는데 九二 하나의 爻에 나머지 여러 음(陰)들이 귀의하여 따르므로 이들의 뜻이 모여 만방을 품어 안는다는 회만방(懷萬邦)이다. 건작도(乾鑿度)에서도 이 효를 해석할 때 ‘사(師☶)는 무리다. 말에 성한 덕이 있고, 행동에 중화의 덕이 있되 백성들을 거슬리지 않으니 천하가 돌아가 귀의한다. 천명을 아름답게 하지 않음이 없으니 왕이 될 수 있다. 군사를 움직여 백성의 해독을 제거하되 주어진 명으로써 세상을 장구하게 하니 이는 덕의 성대함이 된다.’고 하였으니 그 뜻이 바로 이 구절과 통한다.

이정조(李鼎祚) 풀이의 해설

二爻는 양(陽)이고, 호괘는 진(震☳)이다. 진(震☳)은 방위가 동방(東方) 목(木)이 되고, 木을 낳는 것은 하늘의 수(數) 三이다. 여기서 목(木)의 수는 삼이 되므로 세 번 명령을 내리는 삼석(三錫)이라고 하였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대종백(大宗伯)에 구의(九儀)의 명으로써 나라의 지위를 바르게 하니, 첫째 명은 직분을 제수함이고, 두 번째 명은 복식을 하사함이고, 세 번째 명은 지위를 내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현은 주석에서 ‘왕의 下土는 공(公)·후(侯)·백(伯)의 사(士) 자(子)·남(男)의 大夫들과 더불어 모두 처음 명으로 직(職)을 제수 받음이니, 그것이 처음 직분을 제수 받는 일이라고 말한다. 왕의 中土는 공(公)·후(侯)·백(伯)의 大夫와 더불어 자(子)·남(男)의 경(卿)들이 모두 두 번째 命으로 복식(服飾)을 내려 받으니 원면(元冕)의 복장을 말한다. 왕의 上土는 공(公)·후(侯)·백(伯)의 경(卿)들과 더불어 모두 삼명(三命)으로 位를 제수 받게 되니 이는 왕조(王朝)의 지위(地位)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였다.

우안(愚案)

지수사(地水師䷆)는 천화동인(天火同人䷌)과 방통(旁通)의 관계다. 천화동인(天火同人䷌) 건(乾䷀)은 하늘이 되므로 하늘의 명을 받들며 지수사(地水師䷆)의 아래 中에 있으므로 하늘의 충애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패상이 곤(坤䷁)이다. 곤(坤䷁)은 만방이 되고, 무리로써 바르게 하면서 주어진 명을 받들고 있으므로 만방을 품는 뜻이 된다.

○ 덧붙이는 말

① 구이는 아래에 있는 음(陰) 자리의 양(陽)이지만 자리가 중(中)이고 유일한 강(剛)이다. 또 군사를 움직임에 위의 육오가 전적으로 호응하니 나머지 음(陰)들이겠는가. 그것은 험한 가운데서도 중(中)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이니 효(爻)는 길하다.

07師卦08, 六三, 師或輿尸, 凶.

六三是 군사가 혹 수레에 시체가 가득하면 흉하리라.

우번(虞翻)의 풀이,

곤(坤䷁)은 시(尸)가 된다. 감(坎䷜)은 수레 거(車)가 되고, 재양(生甞)이 많음이 된다. 천화동인(天火同人䷌) 이(離䷄)는 과병(戈兵)이 되고, 절수(折首)도 된다. 자리가 어긋난 채 구이(九二) 강(剛)을 타고 있으면서 호응도 없되 시체가 수레의 위에 있으므로 여시흉(輿尸凶)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곤(坤䷁) 형체(形體)는 몸이 된다. 멸(滅) 을(乙)은 몸을 잃는 게 된다. 몸을 잃는다면 그것은 시(尸)다. 감(坎䷜)은 수레 거(車)가 되고, 재양(甞)이 많음이 된다고 함은 설패전에 의거한 해설이다. 천화동인(天火同人䷌) 이(離䷄)가 과병(戈兵)이 된다고 함도 마찬가지다. 또 이(離䷄)는 위가 말라 꺾임이 된다고 하고, 중화리(重火離䷄) 상구(上九)에서도 유가절수(有嘉折首)를 말하므로 머리를 베는 게 된다. 음(陰)이 삼효(三爻)에 왔다면 어긋난 자리다. 양(陽) 위의 자리이므로 강(剛)을 타고 있음이 된다. 위 역시 음(陰)이므로 호응도 없다. 곤(坤䷁) 시(尸)는 감(坎䷜) 수레의 위에 실려 있으니 이것은 여시흉(輿尸凶)이다.

師卦09, ^{상 완}象曰, “^{사 혹 여 시}師或輿尸”, ^{대 부 공 야}大无功也.

상전에 말하였다. 師에 혹 여럿 주장한다는 사혹여시(師或輿尸)는 크게 공이 없으리라.

노씨(盧氏)의 풀이

어긋난 자리이고 강(剛)을 타고 있다. 안팎으로 호응도 없다. 이로써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하면 반드시 대패한다. 그러므로 시체가 수레에 가득한 여시(輿尸)가 있게 되어 공업을 크게 상실한다.

노씨(盧氏) 풀이의 해설

어긋난 자리이고 강(剛)을 타고 있다. 또 안과 밖으로 호응도 없다. 삼효(三爻)가 위의 호응도 없다면 小人이 된다. 삼효(三爻)가 오효(五爻)의 공을 상실하니 곧 제자(弟子)가 된다. 소인으로써 군사를 통솔한다면 군사는 반드시 크게 패한다. 제자으로써 군사를 따르면 군사는 반드시 수레에 시체가 가득하게 된다. 오효(五爻)는 공(功)이 많고, 삼효(三爻)는 흉(凶)함이 많다. 삼효(三爻)는 자리가 어긋나 있으면서 강(剛)을 타고 호응도 없다. 오효(五爻)는 부림이 마땅하지 않아 공업(功業)을 크게 잃게 되므로 큰 공이 없다.

○ 덧붙이는 말

① 육삼(六三)의 효사 여시(輿尸)는 해석이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군사를 움직임에 여럿이 주장한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수레에 시체가 가득하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두 갈래의 관점이 맥락은 같다. 군사를 움직임에 여럿이 주장한다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 수레에 시체가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② 육삼(六三)은 아래 소성괘의 맨 위로 양(陽)자리의 음(陰)이니 효가 바르지 못하다. 이처럼 바르지 못한 이치로 구이(九二)를 대신하고자 하면 효가 바르지 못하다.

③ 지수사(地水師䷆)의 육삼(六三)이 변한다면 괘상은 지풍승(地風升䷭)이다. 길흉으로 따지자면 공(功)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내 알 수가 있다.

師卦^{육사사좌차무구}10, 六四, 師左次, 无咎.

六四是 군대가 후퇴하여 물러나는 것이니 허물이 없도다.

순상(荀爽)의 풀이

좌(左)는 이효(二爻)를 말한다. 양(陽)은 호칭이 좌(左)가 된다. 차(次)는 머문다는 사(舍)다. 二爻는 四爻와 더불어 공(功)이 일치한다. 사효(四爻)는 오효(五爻)를 섬기나 오효(五爻)에는 양(陽)이 없으므로 이효(二爻)를 불러 오효(五爻)에 머물게 하고 사효(四爻)가 이를 섬긴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좌(左)의 뜻이 二爻를 말한다고 함은 二爻가 양(陽)이기 때문이다. 陽의 호칭이 左가 된다고 함은 진(震☳) 초효(初爻) 양(陽)은 봄이 되고 목(木)이 된다. 관자(管子)에 봄기운은 왼쪽에서 생겨나고, 가을의 기운은 오른쪽으로 없어진다고 하였다. 동자(董子)가 말하기를 木은 왼쪽에 거처하고 金은 오른쪽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양(陽)은 호칭이 좌(左)다. 좌전(左傳) 장공(莊公) 三年에 무릇 군사는 하루 묵는 게 사(舍)가 되고, 두 번 묵는 것은 신(信)이 되고 信을 지나면 차(次)가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차는 비록 날수가 많으나 또한舍의 뜻에 통하므로 次는 머문다는舍라고 하였다. 二爻는 四爻와 더불어 공(功)이 일치한다고 함은 계사하전의 문구다. 사효(四爻)는 오효(五爻)를 가까이서 섬기고 五爻는 음으로 양이 없으므로 四爻는 二爻 양(陽)을 위의 五爻로 불러 머물게 하므로 사좌차(師左次)다. 이효(二爻)가 이미 오효(五爻)로 올라가고 사효(四爻)가 유순하게 이를 섬기면 음(陰)으로써 양(陽)을 섬김이 되므로 허물이 없다.

안(案)

군사를 움직여 우(右)로써 감은 앞이 되고, 좌(左)로써 감은 뒤가 된다. 初爻는 뒤에 있고 四爻는 더불어 뜻이 일치하므로 좌차(左次)의 象이 있다.

07師卦^{상완좌차무구미실상야}11, 象曰, “左次无咎”, 未失常也.

상전에 말하였다. 좌차무구(左次无咎)는 떳떳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최근(崔觀)의 풀이

편장군(偏將軍)은 좌(左)에 위치한다. 좌차(左次)는 항상 전쟁에 대비한다. 군대가 유순하고 나약하여 험함에 호응하지 못한다면 나아가 싸우지 못한다. 물러나 다음을 도모함은 허물이 없으니 자리가 마땅하기 때문이다.

최근(崔觀) 풀이의 해설

소의(少儀)에서 군(軍)은 좌(左)를 숭상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옛적 편장군은 좌에 거처하였다. 사좌차(師左次)는 항상 대비하여 근심이 없도록 한다. 군대가 유순하고 나약하다는 것은 사효(四爻)가 땅 곤(坤☷)의 초효 자리이기 때문이다. 험함에 호응이 없다는 것은 감(坎☵)의 초효(初爻)와 더불어 정응(正應)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싸우지 못함은 자기가 유순하여 적과 맞서 이기기 어렵고, 또 올바르게 호응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가볍게 앞으로 나가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물러나 다음을 도모함은 허물이 없으니 이는 자리가 마땅하기 때문이라는 뜻은 음이 사효(四爻) 음(陰)의 자리에 와서 자리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물러나 좌에 그침은 변화를 보아서 나가고 물러나므로 허물이 없다.

안(案)

진(震☳)은 세상에서 지키는 본분이 항상 뒤흔들다. 그러므로 뒤흔들음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다.

○ 덧붙이는 말

① 육사(六四)는 음(陰) 자리의 음(陰)이면서 위의 유순한 곤(坤☷)의 맨 아래다. 군사를 움직인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효가 아니다. 일단 물러나 군사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어야 허물이 되지 않는다.

② 그것은 오행이 고르게 하고 음양에 순서가 있게 하는 일이니 그렇게 되면 나라에 허물과 재앙이 없게 된다.

師卦12, 六五, 田有禽, 利執言, 无咎,

六五는 밭에 새가 있거든 말을 받드는 것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으리라.

우번(虞翻)의 풀이

전(田)은 이효(二爻)를 말한다. 양(陽)은 호칭이 금(禽)이다. 진(震☳)은 말

이 된다. 오효(五爻)는 어긋난 자리이니 변해서 가면 바르다. 간(艮≡)은 잡는다는 집(執)이 되므로 잡으라고 말하는 것이 이롭고 허물이 없는 이 집언(利執言) 무구(无咎)다.

순상(荀爽)의 풀이

전(田)은 사냥한다는 렴(獵)과 같다. 이효(二爻)는 군대를 거느리고 오효(五爻)를 사냥하니 오효(五爻)는 이효(二爻)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이롭다. 이처럼 오효가 그 말을 받들어 행하므로 허물이 없다.

안(案)

육오(六五)는 높은 자리이면서 어긋난 자리다. 사(師)의 때에 있어서 이 구절의 의미는 대개 은(殷)나라 주(紂)의 정치가 지나치게 포악하여 무왕(武王)이 녹대(鹿臺)에서 그를 사로잡았던 류(類)가 거기에 해당한다. 신하로써 임금을 정벌하는 것을 밭에 새가 있으니 잡으라는 말로 대신하여 나타났다. 육오(六五)는 효(爻)가 이(離≡)지만 본체는 곤(坤≡)이다. 이(離≡)는 과병(戈兵)이 되고 밭에 있는 새를 사냥함은 군사를 움직이는 형상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이효(二爻)는 건(乾≡)으로부터 왔다. 중천건(重天乾) 구이(九二)는 효사(爻辭)가 현룡재전(見龍在田)이다. 그러므로 밭은 이효(二爻)가 된다고 하였다. 양(陽)은 호칭이 금(禽)이라고 함은 하늘에 근본한 자는 위와 친하기 때문이다. 호괘(互卦) 진(震≡) 소리는 말이 되고 오효(五爻) 음(陰)은 자리가 어긋났으므로 변해 양(陽)이 되면 互卦 간(艮≡) 手가 잡는다는 뜻이 되면서 말을 받드는 것이 이로운 이집언(利執言)이다. 반면 효가 변해 바른 자리를 얻게 되므로 허물도 없다. 말을 받든다는 것은 곧 시경(詩經)에서 말하는 집신(執訊)의 뜻이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곤(坤≡)은 밭이 된다. 밭에서 사냥함은 밭을 해롭게 하는 짐승을 제거함이니 사냥해서 포획함을 말한다. 이효(二爻)는 오효(五爻)와 더불어 호응의 관계에 있다. 이효는 마땅히 위로 올라가 오효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

므로 이효는 오효를 포획하고자 하고, 오효는 마땅히 아래로 내려와 이효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효의 명령을 오효가 받들어 이롭고 그 말을 받들어 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받드는 바의 말은 곧 왕이 대군에게 주는 명령을 두고 하는 말이니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이 명령이 되고, 아래에 있으면서 위로 하는 것은 말이 된다. 높고 낮은 계급이 반영된 뜻이 있으니 이효가 오효의 말을 받드는 것은 허물이 없다.

이정조(李鼎祚) 풀이의 해설

오효(五爻)는 지위가 높다. 반면 효(爻)가 육(六) 음(陰)이니 바르지 못하다. 殷나라 紂가 위에 있는 형상이다. 이효는 양(陽)으로 중(中)을 얻고 있으니 이는 무왕(武王)이 사(師)의 중심을 차지한 패상이다. 그러므로 은(殷)나라 주(紂)의 정치가 지나치게 포악하여 武王이 녹대(鹿臺)에서 그를 사로잡았던 류(類)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신하로써 임금을 정벌함은 그 말이 유순하지 못하므로 밭에 새가 있으니 잡으라는 말로 대신했다는 주장이다. 소성괘 이(離)를 보면 가운데가 음(陰)이다. 그래서 六五는 爻가 이(離)가 된다고 했고, 전체적으로는 곤(坤)이다. 이때 이(離)는 과병(戈兵)이 되고 이(離)의 가운데서 사냥을 하므로 그것이 밭에 있는 새를 사냥하고자 군사를 움직이는 형상에 속한다고 하였다.

장 자 사
長子帥師, (帥는 음이 술)

장자가 군사를 거느릴 것이니

우번(虞翻)의 풀이

장자(長子)는 二爻를 말하니 진(震)은 장자가 된다. 사(師)의 중에 있으므로 군사를 거느린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二爻가 장자(長子)라는 뜻은 二爻의 互卦가 진(震)이기 때문이다. 중뢰진(重雷震)에서 長子가 기물(器物)을 주관한다고 했으니 진(震)은 장자가 된다. 이효(二爻)에서 재사중(在師中) 이것이 술사(帥師)라고 함은 바로 長子の 뜻이다.

제 자 여 시 정 흥
弟子興尸, 貞凶.

제자가 여럿이 주장하면 바르게 하더라도 흉하다.

우번(虞翻)의 풀이

제자(弟子)는 삼효(三爻)를 말한다. 삼효는 본체가 감(坎☵)이다. 감(坎☵)은 진(震☳)의 아우가 되면서 건(乾☰)의 자녀다. 자리가 어긋난 채 양(陽)을 타고 있어 거스르므로 곧게 하여도 흉하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弟子의 뜻이 삼효라고 함은 삼효가 본래 감(坎☵)이기 때문이다. 설괘(說卦)에 진(震☳)은 한 번 구해 사내를 얻음이니 장남(長男)이고, 감(坎☵)은 두 번 구해 사내를 얻음이니 중남(中男)이라 한다고 하였다. 모두 건(乾☰)의 한 양(陽)을 얻었으므로 감(坎☵)은 진(震☳)의 아우이며 건(乾☰)의 자녀라고 해석한다. 삼효는 음(陰)이 양(陽)자리에 있고, 또 아래에 양효를 타고 있어 거스름이 된다. 그러므로 곧게 하여도 흉한 정흥(貞凶)이다. 여시(興尸)이면서 곧아야 함을 말함은 천화동인(天火同人 ䷌)의 삼효 절수(折首)의 개념을 분명하게 적용한 결과다.

우안(愚案)

곤(坤☷)은 땅이 된다. 그러므로 호칭이 밭(田)이니, 밭(田)은 달리 사냥함이 된다. 감(坎☵)은 궁(弓)이 된다. 그러므로 호칭은 금(禽)이다. 여기서 금(禽)은 짐승을 포획한다는 뜻이다. 좌전 회공 33년에 외복곤둔금지이헌(外僕鬚屯禽之以獻)이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금(禽)은 금(擒)과 통하는 글자다. 전쟁에서 이겨 포획한다는 뜻이 있다. 밭에 짐승이 있다는 전유금(田有禽)은 곧 시경(詩經) 소아(小雅)에서 말하는 획득(獲醜)의 개념이다. 효가 변해 간(艮☶) 手면 잡는다는 집(執)이 되고 互卦 진(震☳) 소리는 말이 된다. 잡으라고 말함이 이로움은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집신(執訊)이다. 육(六) 음(陰)으로 비록 자리는 어긋나지만 五효는 中을 얻고 있다. 아래에서 二효가 호응하고 천명을 받아 가서 정벌함에 적의 괴수를 포획하는 공이 있게 된다. 그 까닭에 허물이 없다. 그러나 오효(五효)와 이효(二효)는 정응(正應)의 관계이므로 진(震☳) 장자(長子)가 군대를 거느림이

된다면 길(吉)할 것이다. 五爻는 공(功)이 많고, 三爻는 흉(凶)함이 많으므로 감(坎☵)은 제자여시(弟子興尸)가 될 것이니 그렇다면 흉하다. 대개 이효(二爻) 강(剛)이 중(中)을 얻게 되면 대중을 부리는 재주가 있다. 삼효(三爻)는 유순하여 자리가 어긋나면 군대를 거느릴 덕이 없다. 불가불 마땅한 장수를 가려 그 실권을 신중하게 맡겨 거느리게 해야 한다.

師卦13, 象曰, “^상長^자子^사帥^이帥^중師^행”, 以中行也,

상전에 말하였다. 장자가 군사를 거느림은 중도로써 행함이요,
순상(荀爽)의 풀이

장자(長子)는 구이(九二)를 뜻한다. 오효(五爻)가 중(中)이면서 이효(二爻)에게 호응한다. 이효는 군사 지휘권을 위임받아 행하니 마땅히 오효로 올라가야 한다. 그러므로 장자가 군사를 거느림은 중도(中道)로써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장자(長子)는 구이(九二) 효 진(震☳)을 뜻한다. 오효(五爻)는 중(中)을 얻고 있고, 이효(二爻)와 더불어 정응(正應)의 관계가 된다. 이때 이효는 오효의 명을 받아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양(陽)은 마땅히 오효로 올라가게 되며 진(震☳)은 또 행함이 되므로 그 뜻이 장자가 군사를 거느려 중도로써 행함이 된다.

“^제자^여子^시興^사尸^불”, 使^당不當^야也.

제자가 여럿이 주장하면 부림이 마땅하지 않음이다.

송충(宋衷)의 풀이

제자(弟子)는 육삼(六三) 효(爻)를 뜻한다. 삼효(三爻)는 감(坎☵)에 있다. 三爻가 바른 자리에서 어긋나므로 아래로 二爻 양(陽)의 위에 올라 있으므로 거처할 바가 이니다. 이처럼 능히 여러 음(陰)을 거느리고 통솔할 조가 아닌 까닭에 중지곤(重地坤☷)은 여러 무리가 모두 命을 듣지 않는다. 군사를 부림에 있어서 군사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흩어져 전쟁에서 지게 되니 이로 인해 수레에 시체가 가득한 흉함이 잇게 된다. 그렇다면 제

자여시(弟子興尸)는 허물이 六三 爻에 있다. 그리고 뽑아 쓴 사람의 직책이 마땅하지 못한 까닭에 흉(凶)함은 그 책임이 六五에 있게 된다.

○ 덧붙이는 말

① 육오(六五)는 군사를 일으키는 주체다. 하늘의 이치에 유순한 덕을 따르며 백성을 혹독한 전쟁터로 내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니 곧 발을 어지럽히는 짐승을 포획해야 할 때다. 다만 군사를 통솔하는 일은 아래의 구이(九二)에게 오로지 맡겨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곤더라도 흉하다.

師卦14, ^{상 육}上六, ^{대군 유 명}大君有命,

상육은 대군이 명을 둬이니

우번(虞翻)의 풀이

천화동인(天火同人䷌) 건(乾䷀)은 대군(大君)이 되고, 손(巽䷸)은 명(命)을 둬이 된다.

간보(干寶)의 풀이

대군(大君)은 성인(聖人)이다. 명(命)은 천명(天命)이다. 오효(五爻)는 항상 왕의 자리다. 지수사(地水師䷆)에 이르러서 그 예를 바꾸어 말함은 상효(上爻)는 교외(郊外)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리를 바꾸어서 무왕이 몸소 군대와 더불어 야외에 거처하면서 정벌에 나감을 보여주는 효로 해석한다. 중화리(重火離䷄) 상구(上九)에서는 왕이 나가 정벌하심에 적 우두머리의 머리를 베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였다. 상육(上六)은 종묘의 자리니 무왕은 문왕의 뜻을 받들어 움직이는 까닭에 상육(上六)의 종묘에서 나라를 세우는 말이 있게 된다. 이미 자기의 천명(天命)이 문왕(文王)의 덕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 까닭에 서경(書經) 태서(泰誓)에서도 내가 주(紂)를 이김은 나의 무용(武勇) 때문이 아니다. 나의 선친 문왕께서 죄가 없었던 까닭이며 주(紂)가 나를 이긴다면 아버지 문왕께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죄가 있어 그런 것이라고 하였다.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제후들을 봉하는 일이다. 가업을 잇는다는 것은 도읍을 정하는 일이다. 소인은 쓰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니 그것은 나라를 다스림에는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천화동인(天火同人䷌)은 지수사(地水師䷆)와 방통(旁通)괘다. 설괘전에서 건이군지(乾以君之)라고 하였으므로 대군(大君)이 된다. 손(巽䷸)은 신명행사(申命行事)로 해석하였으므로 命을 둠이 된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건착도(乾鑿度)에 大君이란 군자 된 자의 덕이 성한 것이라고 하였다. 맹희가 대군이란 행실이 매우 빼어나서 덕이 성한 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군이란 성인이라고 하였다. 삼재로 보면 상은 하늘의 자리가 된다. 그러므로 명을 둠이니 천명이 주어짐이다. 오효는 천자가 된다. 그러므로 五爻는 항상 왕의 자리가 된다. 지금은 上爻를 大君이라고 일컫고 있으므로 지수사(地水師䷆)에 있어서 그 예를 바꾸어 말했다고 하였다. 이아(爾雅)에 도읍(都邑)의 바깥은 교(郊)가 된다고 하였다. 上爻는 바깥괘의 밖에 있으므로 그 뜻이 郊가 된다. 大君은 五爻의 자리가 되는데 上爻를 일컬어 대군이라고 하면서 교외에 있는 상효(上爻)로써 대군을 삼고 있으니 그 까닭을 보면 무왕의 정벌이 지수사의 야외에서 자리를 바꾸어 대군으로 함께 거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다시 중화리(重火離䷄) 상구(上九) 효사(爻辭)를 이끌어 와서 王 운운하는 말을 덧붙임은 大君과 출정(出征)이 야외의 교외에 있는 王의 상에 해당한다는 의미를 결부시키고자 했음이다. 上六이 종묘가 된다고 함은 건착도(乾鑿度)의 뜻이다. 사기(史記) 주본기(周本記)에서 무왕이 맹진 나루에 이르러서 병사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문왕이 덕이 목덕(木德)에 해당함을 상기하면서 수레 가운데 그 유지를 받들어 정벌을 행할 뿐 감히 스스로 행하는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왕은 문왕의 유지를 받들어 행해지는 전투임을 서경 구절에 근거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곧 나라를 세움이 종묘의 효사에서 이루어짐을 빗댄 의미가 있다. 또 자기의 천명이 모두 문왕의 덕이 되는 까닭에 다시 태서(泰誓) 하편(下篇)의 구절을 끌어와 그것을 거듭 증명하고자 한다. 춘관(春官) 대종백(大宗伯)에 오명(五命)은 법칙을 제시하고 육명(六

命)은 벼슬을 하사하며 칠명(七命)은 나라를 내려준다고 하였으니 이들은 모두가 제후를 봉하는 일에 해당한다. 그 까닭에 나라를 세우고 제후를 봉한다는 말로써 전체적인 의미를 기술하였다. 지관(地官) 재사(載師)에서는 가읍(家邑)의 전지(田地)로서 초지(稍地)를 맡게 하고, 작은 도읍의 전지(田地)는 현지(縣地)를 맡게 하며 큰 도읍의 전지(田地)는 강지(疆地)를 맡게 한다고 하였다. 주석에 따르면 家邑의 田地는 대부의 채읍을 말하고 小都의 田地는 경의 채읍이며 大都는 공 및 왕의 친족 자제들의 채읍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읍을 잇고 도읍을 세운다는 뜻으로 효사가 풀이된다. 소인은 쓰지 말라고 함은 나라를 세우고 가읍을 잇는 일에 있어서 소인은 적합하지 못함을 뜻한다.

개 국 승 가
開國承家,

나라를 열고, 가문을 잇는데

우번(虞翻)의 풀이

잇는다는 승(承)은 받을 수(受)의 뜻이다. 곤(坤☷)은 나라가 되고 二爻는 호칭이 가(家)다. 건(乾☰)이 변해 곤(坤☷)이 됨은 이효(二爻) 양(陽)이 오효(五爻)로 올라가 수지비(水地比☵☶)가 되게 함이다. 그러므로 나라를 세우고 가읍을 잇는 게 된다.

순상(荀爽)의 풀이

대군(大君)은 이효(二爻)를 말한다. 전쟁이 끝나 군대가 이미 휴식을 취하게 되었으므로 오효(五爻)로 올라가 자리 잡았다. 마땅히 공로에 따라 상을 내리고 봉지를 하사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고 가읍을 잇게 한다. 이때 나라를 세움은 제후를 봉함이고 가읍을 잇게 함은 대부로 등용함이다.

송충(宋衷)의 풀이

양은 마땅히 오효로 올라가야 한다. 곤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므로 나라를 세운다는 개국(開國)이다. 음은 아래 이효 자리로 내려와 이효가 오효를 섬기므로 가읍을 잇는 승가(承家)다. 나라를 세움은 토지를 쪼개어 제후로 봉하는 일이니 마치 무왕이 주공에게 칠백리 땅을 봉해 다스리게 함과 같은 일이다. 가읍을 잇는 것은 대부를 세워 다음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일이고, 대부를 세워 채읍을 나누어준다. 그 공로에 따라 상을 내림이 이와 같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예운(禮運)에 하늘의 명을 받드는 일이라고 했으니 주석에서는 하늘이 복을 주는 일이라고 하였다. 잇는다는 승(承)의 뜻은 받는다는 수(受)다. 곤(坤☷)은 토가 되므로 나라가 된다. 이효(二爻)는 대부가 된다. 그러므로 개념이 家가 된다. 천화동인(天火同人☲☵)은 지수사(地水師☵☶)와 통한다. 그러므로 건(乾☰)이 변해 곤(坤☷)으로 됨을 말한다. 이효는 어긋난 자리이므로 오효로 올라가면 중(中)이 되고 자리도 바르게 된다. 그러므로 二爻로 하여금 올라가 五爻에 거쳐하면서 수지비(水地比☵☶)가 되게 한다고 하였다. 수지비(水地比☵☶) 상전에 건만국(建萬國) 친제후(親諸侯)라고 하였으니 이곳의 효사가 개국승가(開國承家)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이효(二爻)가 오효(五爻)로 올라가면 군주가 된다. 그러므로 대군(大君)은 이효(二爻)를 뜻한다고 하였다. 상효(上爻)는 지수사(地水師☵☶)의 끝에 해당하므로 군대가 이미 싸움을 그치고 휴식에 취함이 된다. 이효가 이미 올라가 오효에 머물면 마땅히 공로 있는 사람에게는 마땅한 보상을 해주되 가장 큰 사람은 나라를 세우게 하고 그 다음은 가업을 잇게 함이니 나라를 세움은 제후로 봉함이고, 가업을 잇는다고 함은 대부로 세움을 뜻한다.

송충(宋衷) 풀이의 해설

오효(五爻) 곤(坤☷)은 나라가 된다. 이효(二爻) 양(陽)은 올라가 오효(五爻)로 간다. 곤(坤☷)의 가운데 거쳐하므로 나라를 세운다는 개국(開國)이다. 이효는 자리가 대부(大夫)에 해당하므로 개념이 家다. 五爻 음(陰)은 아래 二爻로 내려가고 二爻 양(陽)은 위로 올라가 五爻를 잇는다. 그러므로 가업을 잇는 승가(承家)다. 서경(書經) 무성(武成)에 벼슬은 다섯 가지로 하고, 땅은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으므로 나라를 세움에 토지를 셋으로 나누어서 제후로 봉한다고 하였다. 예기(禮記) 명당위(明堂位)에서도 성왕(成王)은 주공(周公)을 곡부(曲阜)에 봉하여 지방 七百里를 나누어 주

었다고 했으므로 그 사례를 앞에서 인용하고 있다. 서경 고요모(皐陶謨)에서도 ‘숙야준명유가(夙夜浚明有家)’라는 구절이 있는데 주석에서 이를 대부(大夫)가 된다고 하였다. 왕제(王制)에서는 제후의 상대부(上大夫)는 경(卿)이고, 하대부(下大夫) 五人이라고 했으므로 가업을 잇게 하고 大夫를 세움은 다음이 된다고 하였다. 예운(禮運)에서는 대부에게는 채지(采地)가 있고 그 자손에게 그것을 물려준다고 하였으므로 대부를 세워 采地를 나누어준다고 하였다. 하관(夏官) 사토(司土)에서도 공(功)이 있으면 녹(祿)을 내린다고 했으므로 그 공로를 바르게 하고 賞祿을 행한다고 하였다.

소인勿用.
小人勿用.

소인은 쓰지 말지니라.

우변(虞翻)의 풀이

음(陰)은 小人이다. 곤(坤☷)은 텅 비어 군주(君主)가 없다. 지뢰복(地雷復䷗)의 괘상에서 맨 끝은 미복(迷復)으로 흉하다고 하였다. 곤(坤☷)이 이루어지면 건(乾☰)은 소멸한다. 이는 군주를 시해함이 되므로 小人은 쓰지 말라고 하였다.

우변(虞翻) 풀이의 해설

육(六) 陰은 호칭이 小人이다. 곤(坤☷)은 陽이 없으므로 텅 비어 君主가 없다고 하였다. 二爻로부터 上爻까지는 괘상이 지뢰복(地雷復䷗)이다. 지뢰복(地雷復䷗) 상육(上六)의 효사를 보면 돌아가 회복함에 어두운지라 흉하고 재앙이 있게 된다. 군사를 움직여 가면 마침내 크게 패해서 그 나라의 임금에까지 미치게 되니 흉하다고 하였다. 우변은 그곳의 주석에서 삼효(三爻)가 자리를 회복할 때 괘상은 지수사(地水師䷆)의 상이다. 감(坎☵)은 피를 흘리므로 마침내 크게 패한다. 천풍구(天風姤䷫) 건(乾☰)은 군주가 되고 곤(坤☷)으로 소멸되어 숨게 되므로 나라의 임금이 흉하다고 하였다. 상전에서 말한다. 군주의 도를 배반하므로 소인은 쓰지 말라고 하였다.

우안(愚案)

五는 제후국(諸侯國)의 군주가 되고 二爻는 그 신하며 上爻는 천왕(天王)이다. 그러므로 대군이라고 하였다. 시경(詩經) 노송(魯頌)에서 명명노후

(明明魯侯)라고 읊는 구절이 있으니 이는 六五이고, 교교호신(矯矯虎臣)은 九二다. 다시 왕왈숙부(王曰叔父) 건이원자(建爾元子)는 上六에 해당한다. 또 건작도(乾鑿度)에 上爻는 종묘(宗廟)가 된다고 했고, 지수사(地水師䷆)에는 천화동인(天火同人䷌)이 아래 얹드려 있다. 그 뜻은 건(乾䷀) 군주(君主)가 곤(坤䷁) 음(陰)에 얹드려 陰으로서 陰 자리에 위치하고 있음이니 이는 대군(大君)이 되고 선왕(先王)의 象도 있으므로 종묘(宗廟)가 되기도 한다. 다시 아래 얹드려 있는 손(巽䷸)은 명(命)도 되므로 효사가 대군유명(大君有命)이다. 개국(開國)은 五爻의 상황이다. 陰이 中을 얻었고 적의 괴수를 포획하는 공을 세웠다. 가업을 잇는 것은 二爻를 뜻한다. 양(陽)이 中을 얻어 장자(長子)가 군대를 통솔하고 있다. 小人은 三爻를 말한다. 음(陰)·유(柔)한 효가 陽자리에서 어긋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제자여시(弟子與尸)다. 三爻는 上爻와 더불어 호응하는 관계에 있다. 그때 上爻는 바탕이 회복함에 어둡다는 지뢰복(地雷復䷗) 상육(上六) 효사(爻辭)를 인용하고 있다. 곤(坤䷁)은 쓴다는 용(用)이 된다. 변해 간(艮䷳)이 되면 이는 그치는 지(止)의 뜻이다. 그러므로 소인물용(小人勿用)의 말이 있게 되었다. 또 개국승가(開國承家)는 조상 앞에서 상(賞)을 주어 등용하는 명(命)을 알리고 小人勿用은 사당에 쓰지 않는 命을 확고하게 선언하여 전체적으로 종묘(宗廟) 효(爻)에서 그 취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六五다.

師卦15, ^{상왕 대군유명 이정공야}象曰, “大君有命”, 以正功也,

상전에 말하였다. “大君有命”은 공을 바르게 함이요,

우번(虞翻)의 풀이

오효(五爻)는 공(功)이 많다고 하였다. 오효는 바른 자리에서 움직이므로 공을 바르게 한다고 말한다.

간보(干寶)의 풀이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의 일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오효(五爻)가 공(功)이 많다는 구절은 계사하전의 인용구다. 오효의 움직임은 양(陽)이 바른 자리에서 움직임을 얻었으므로 공을 바르게 한다고

하였다.

우안(愚案)

삼효(三爻) 음(陰)은 어긋난 자리다. 그러므로 공(功)이 없다. 상효(上爻)의 음(陰)은 바른 자리다. 그러므로 공을 바르게 한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은 모두 천하를 위해 군사를 움직여 상황의 잘못을 바로잡았다. 그러므로 탕왕과 무왕의 일이라고 하였다. 마치 시경(詩經) 상송(商頌)에서 제명무탕(帝命武湯) 정역피사방(正域彼四方)이라고 읊은 구절이 바로 탕왕의 일이고, 주송(周頌)에서 사무수지(嗣武受之) 승은알유(勝殷遏劉) 기정이공(耆定爾功)이라고 읊은 구절은 무왕의 일에 해당함과 같다.

“^{소인}小人勿用”, ^{필난방야}必亂邦也.

“小人勿用”은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우번(虞翻)의 풀이

곤(坤☷)은 군주의 도를 배반한다. 그러므로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

간보(干寶)의 풀이

초(楚) 영공(靈公)과 제(齊) 민공(閔公)이 당한 군대의 지극한 화(禍)가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지뢰복(地雷復䷗) 上六 상전(象傳)에서 회복함에 아득한 도의 흉함은 군주의 도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고 하였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좌전(左傳) 소공(昭公) 십삼년 여름 공자 비(比)가 진(晉)나라에서 초(楚)나라로 돌아와 임금 건(虔)을 건계(乾谿)에서 시해한 일이 있었다. 그때 초나라의 공자 비(比)·공자 흑굉(黑肱)·공자 기질(棄疾-蔡公)·만성연(蔓成然)과 채(蔡)나라의 조오(朝吳) 등이 진(陳)·채(蔡)·불갱(不羹)·허(許)·섭(葉)의 군대를 거느리고, 위씨(蕩氏)·허위(許圍)·채유(蔡洧)·성연(成然) 등

네 집안의 도움을 받아서 楚나라로 쳐들어갔을 때였다. 채공(蔡公)이 수무모(須務牟)·사패(史狎)를 먼저 들어가게 했다. 두 사람은 태자의 가까운 신하를 사주해서 태자 祿과 흑굉(黑肱)이 영윤(令尹)이 되어 어파(魚陂)에 군대를 머물렀다. 공자 기질이 사마(司馬)가 되어 먼저 왕궁의 숙청을 단행했다. 그리고 관종(觀從)을 건계(乾谿)로 보내어 군대에 가담해서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게 했다. 관從은 덧붙여서 말하기를, 먼저 서울로 돌아가면 지위나 재산을 온전히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늦으면 코를 베는 형벌에 처한다고 했다.

왕도 이 일을 알게 되어 군대를 돌이켰으나, 자량(訾梁)에 이르렀을 때 저절로 붕괴되고 말았다. 여름 오월 계해(癸亥) 왕은 우윤(芋尹)의 아들 신해(辛亥)의 집에서 목매어 죽었다. 이는 초(楚) 영공(靈公)의 사례에 견주어 생각할 수 있는 소인물용(小人勿用)”, 필난방(必亂邦)의 예다.

○ 덧붙이는 말

① 상육은 지수사의 끝이다. 공과를 가리는 자리가 되니 혹 나라를 주어 제후로 봉하고 상벌을 가려야 하나 소인은 공이 있더라도 등용해서는 안 된다.

제 팔(八) 수지비(水地比䷇)¹⁰⁵⁾

105) 08比卦01, 比, 吉. 原筮, 元永貞, 无咎. 不寧方來, 後夫凶.

08比卦02, 彖曰, 比, 吉也, 比, 輔也, 下順從也. “原筮, 元永貞, 无咎”, 以剛中也. “不寧方來”, 上下應也. “後夫凶”, 其道窮也. 08比卦03, 象曰, 地上有水, 比, 先王以建萬國, 親諸侯.

08比卦04, 初六, 有孚比之, 无咎, 有孚盈缶, 終來有它, 吉. 05, 象曰, 比之初六, 有它吉也.

08比卦06, 六二, 比之自內, 貞吉. 08比卦07, 象曰, “比之自內”, 不自失也.

08比卦08, 六三, 比之匪人. 08比卦09, 象曰, “比之匪人”, 不亦傷乎?

08比卦10, 六四, 外比之, 貞吉. 08比卦11, 象曰, 外比於賢, 以從上也.

08比卦12, 九五, 顯比, 王用三驅, 失前禽, 邑人不誡, 吉.

08比卦13, 象曰, “顯比”之吉, 位正中也, 舍逆取順, 失前禽也, 邑人不誡, 上使中也.

● 패명의 풀이

- ① 건줄 비, 다스릴 비, 도울 비, 혹은 무리 비의 뜻을 포함한다.
- ② 두 사람이 늘어선 모양을 취한 글자로 늘어서 있다 가까이 서서 돕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다.

서 패 화 중 필 유 소 비 고 수 지 이 비 비 자 비 야
序卦曰 衆必有所比¹⁰⁶⁾, 故受之以比, 比者 比也.

08比卦14, 上六, 比之无首, 凶. 08比卦15, 象曰, “比之无首”, 无所終也.

106) 地水師卦와 水地比卦

세상의 이치는 無로부터 有가 전개된다. 고요함으로부터 움직임이 일어난다. 성인의 마음은 따라서 움직임을 추구하되 고요함을 떠나지 않으며 有를 추구하되 바탕하는 바는 無임을 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만물이 그 삶을 누리고 자기의 업을 안정시키도록 돕는다.

우리가 도를 추구함은 이를 스스로 자각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순간도 동과 정, 유와 무의 세계를 떠나 있지 않다. 도를 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이들 세계의 자취를 비로소 자각할 수 있다.

괘상의 이치도 원리는 여기에 있다.

地水師卦는 위가 땅이고, 아래가 물이다. 땅은 무리가 되고, 괘의 명칭 師도 역시 무리가 된다. 무리를 통솔하는데는 덕이 아니면 어렵다. 그러므로 乾의 구이 효가 땅 坤으로 들어가 괘상이 師가 되어 乾의 덕으로서二효에 자리 잡고 있다.

律呂에서 數는 中으로부터 일어난다. 黃鐘의 律이 일어나면 이는 만물이 헤아려 저울질해보는 度量衡의 역할을 한다. 실오라기만큼의 오차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북방의 坎은 황종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괘사에서도 丈人이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효에서도 律로써 뜻을 표기했으니, 이는 丈과 律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어찌 사람의 행실에 있어서 이와 같아야 한다면 하늘의 덕을 지닌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방위로 볼 때 아래 坎은 북방의 자리이니 죽이고 베는 뜻이 있는 형상이다. 남방은 밝아서 만물을 살아나게 함을 상징하니 제후들의 천자에게 조회하는 형상이다.

효를 2, 3, 4, 5효의 수로 구분하면 수지비의 2는 거처가 남방(二坤地)이니 離의 밝은 땅이다. 그러므로 水地比로서 천자가 남쪽으로 향한 南面の 형상으로 해석해야 한다. 지수사는 천자가 육오이므로 북쪽을 향해 정복하고 험함을 다스

서괘에 말하였다. 여러 사람은 반드시 친하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비괘로써 받았다. 비(費)는 돕는다는 비(比)니

최근(崔觀)의 풀이

방소에 따라 부류가 모이고, 사물에 따라 무리가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사람이 무리지어 모인다면 그 무리는 반드시 서로 돕게 된다. 위에서 돕고 서로 따르다면 아래서도 돕고 서로 친하게 된다. 이처럼 무리를 이루면 서로 친하게 되므로 비(比)는 돕는다는 比라고 하였다.

최근(崔觀) 풀이의 해설

방소에 따라 부류가 모이고, 사물에 따라 무리가 나누어진다는 구절은 계사상전의 문구다. 구가역(九家易)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방소에 따라 부류가 모인다는 방이유취(方以類聚)는 천풍구(天風姤䷫)의 양효(陽爻)를 말하니 午에서 모인다. 사물에 따라 무리가 나누어진다는 물이군

리는 군사의 과상으로 이해함이 당연하다. 또 수지비에서 구오는 5가 중앙이니 북쪽은 아니다. 하늘의 북쪽에서는 북두와 북신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하늘의 중심을 말할 때 항상 북쪽을 들먹이나 이는 하늘의 중앙을 뜻하는 말이지 방위상의 북쪽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地水師에서는 육오 천자가 향하고 있는 곳이 아래 坎으로 방위상 북방이다. 위와 아래에서 음이 다섯 양이 하나다. 육오로부터 모든 음들은 아래 구이를 중심으로 무리를 이루고 있다. 이는 五人을 하나의 대오로 묶는 뜻이 지수사괘에 담겨 있으므로 군사에 관한 師로 명칭이 붙는다.

水地比에서는 南面하고 조화를 받는다면 작위와 등급에 따라 자리가 정해지는 五等分爵의 형상이 있다. 그러므로 맨 위의 상효는 군자의 뒤에 오는 효가 되고, 그 뜻을 경계하여 과사에서 ‘뒤에 오면 장부라도 흉하다’는 말이 있게 된다.

水地比卦			地水師卦		
	南 方			北 方	
	有 朝			有 征	
	諸 侯			伐 之	
	之 象			象	

분(物以羣分)은 지뢰복(地雷復䷗) 음효(陰爻)를 말하니 子에서 사물에 따라 무리가 나누어진다. 곤(坤䷁)은 무리가 되고 수지비(水地比䷇)는 하나의 양 구오(九五)를 따라 여러 무리의 음(陰)들이 거기에 붙어 따르고 있으므로 사람이 무리지어 모인다면 그 무리는 반드시 돕게 된다고 하였다. 최근의 해설에서 앞의 비(比)는 서괘전의 비자(比者)를 풀이하는 비(比)다. 논어에서 군자주이불비(君子周而不比)라고 하였다. 정(鄭)의 주석에 의하면 충신(忠信)은 주(周)가 되고, 아당(阿黨)은 따른다는 비(比)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앞의 뜻은 위에서 돕고 서로 따르는 데 있다고 하였다. 뒤의 비는 서괘(序卦)의 비也에 대한 비의 해석이다. 춘관(春官) 서인(筮人)에 “육왈무비(六曰巫比)”라는 구절을 찾을 수 있다. 정(鄭)의 주석에 의하면 비(比)는 서(筮)와 더불어 민중이 화합하여 친함을 말한다고 하였다. 또 하관(夏官) 형방씨(形方氏)에서도 대국비소국(大國比小國)이라는 언급이 나타난다. 주석을 보면 이곳에서 나타나는 비가 친하다는 親의 뜻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최근(崔觀)은 아래의 비가 아래서도 돕고 서로 친함에 그 뜻이 있다고 하였다. 오직 서로 무리를 이루면 친하게 된다는 이치를 말함이니 본문에서 비者 비也라고 하는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 패의 차례 문제.

① 비(比䷇)의 앞은 지수사(地水師䷆)다. 무리가 모이는 반드시 친함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지수사(地水師䷆)의 다음을 수지비(水地比䷇)로 받았다.(서괘전)

② 수지비(水地比䷇)는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의 무리는 반드시 서로 친한 뒤에 편안해진다.(정자) 무리가 있으면 반드시 서로 돕고 이치로 친해야 편안하다.

아래가 坤 위가 坎이다.

● 패의 형상

① 위가 물, 아래가 땅이다. 어떤 물건이 서로 맞닿아 간격이 없는 게 땅 위로 물이 흐르는 것보다 더 지극함이 없다.

② 위의 구오(九五) 양(陽)이 알맞고 바른 덕으로 중정(中正)한 자리를 차

지하고 있고 나머지 다섯 음(陰)들이 위와 아래에서 친한 마음으로 따르니 이는 서로 어깨를 견주고 돕는 비(比䷇)괘의 뜻에 해당한다.

③ 비(比䷇)는 아래가 땅 곤(坤䷁)이니 유순하고 위가 감(坎䷜)이니 오행 상 아래로 흐른다. 즉 위에서는 아래로 흐르고 아래서는 위에 순종하는 형상이다.

● 괘의 덕에 대하여

① 위의 감(坎䷜)은 험해 근심스러운 괘니, 임금은 항상 백성을 위할 것을 근심하는 것이요, 아래의 곤(坤䷁)은 유순하고 일을 이루니, 백성이 어진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② 효상으로 말하면 다섯 음(陰)인 백성들은 유약하여 구오에게 의지하고 인군은 물이 땅에 스며들듯 다섯 음을 어루만지니, 서로 친해 돕는 형상이다.

08比卦01, 比, 吉.

비(比䷇)는 길¹⁰⁷⁾하니

107) 길흉에 관해 덧붙이는 말

위나라 양공의 부인 강씨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애첩인 주압이 아들 맹집을 낳았다.

공성자가 꿈을 꾸는데 위나라 군주의 선조인 康叔이 나타나 그에게 ‘元을 군주로 세워라. 너의 아들 기(羈)의 손자인 여(圉)와 사구(史苟)로 하여금 그를 돕게 하리라’ 라고 하였다. 점치는 일을 담당하던 조(朝) 역시 꿈을 꾸었는데 내용이 같았다.

‘너의 아들 구와 공증서의 증손 여에게 명령하여 원을 돕도록 하겠다.’ 고 하였다. 조가 공성자를 만나 꿈 이야기를 하니 두 사람의 꿈이 일치하는데 대해 놀랐다. 진나라 한선자가 집권하여 제후들을 예방하던 해에 애첩인 주압이 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원(元)이라고 하였다. 큰 아들 맹집은 다리가 불구여서 걸음을 잘 걷지 못하였다. 공성자가 주역으로 점을 치며 ‘원이 이 나라를 차지하여 사직을 주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수뢰둔괘가 나왔다. 다시 맹집과 관련하여 점을 쳐 보았다. 수뢰둔괘가 변해 수지비괘가 되는 괘상이 나왔다. 그는 이를 조에게 조에게 보였다. 조는 이를 보고 크게 형통한 괘라고 하였다. 공성자가 윗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조는 이렇게 대답했다. 강숙이 이름을 붙여 주었으니 원이야말로 윗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집은

온전하지 못하므로 공가의 종자 노릇을 할 수 없으니 뉘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둔괘의 풀이글에 제후를 세우면 이롭다고 하였는데, '큰아들이 좋으면 큰 아들이 군주가 되겠지만 이는 큰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군주로 세움을 말한 것입니다. 두 괘 모두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으니, 원을 군주로 세우십시오. 강숙이 그렇게 하라고 명한 것이고 두 괘 모두 그렇게 하라고 이른 것입니다. 점과 꿈이 같은 경우는 주나라 무왕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강숙의 명령과 점괘에 따르지 않고 어찌할 것입니까? 다리가 불구인 사람은 그대로 있기만 하면 되나, 군주는 사직을 주관하고 종묘의 제사에 임하며 국민을 지켜야 하고 신을 섬겨야 하며 조정의 회합에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앉아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각각 그 쓰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공성자는 마침내 원을 군주로 세웠다.

여기서 이 괘상들을 풀이하는 옛 기록의 입장을 살펴보면 하나의 시사점을 생각해보게 한다. 즉 괘상을 풀이하는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이다.

먼저 옛 기록은 대부분 주역의 괘사와 효사를 근거로 괘상의 의미를 풀이한다. 나의 이 말은 초씨 역림이나 오행에 의한 방법을 택할 때 그 내용이 이와는 반대로 풀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언급하는 말이다.

역림에 의한다면 변효가 없는 수뢰둔의 괘상은 원을 군주로 내세움이 불가하게 여겨지는 해석을 가하고 있다. 대완국을 정벌할 때 한고조가 북으로 옥관을 나가 오랑캐와 싸우니 평성 길서 쪽에서 칠일간을 선우에게 포위 당하여 군량이 다 떨어지니 몸이 거의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이는 고조본기에 나오는 사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괘상의 해석이다. 반면 둔괘가 비괘로 변한 맹집에 대한 해석은 매우 길하다.

노루와 사슴이 목동을 따라 포식하고 거처로 돌아와 다음 곳으로 되돌아가니 아무 탈이 없다 고 하였다. 이는 맹집을 군주로 내세우더라도 아무 탈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점괘다. 그러나 앞에서 보듯 점을 담당하던 조의 해석은 전혀 이곳의 역림과는 다르게 해석한다. 이는 점을 치는 상황에 대한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반영한 결과다. 물론 이는 점의 내용을 꿈과 결부시킨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은 해석의 문제다. 인간의 합리적인 상황판단을 거기에 적극 개입하여 점괘를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다소 애매하기는 하지만 점의 괘상을 근거로 하늘의 이치를 따질 때 참고삼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초씨 역림의 풀이 글이 점서로 역을 활용함에 있어서 편리한 측면은 있지만 점서적인 측면에만 치중해 있어 역의 본래 의리적인 기능은 배제되는 경향 때문에 자칫 역이 오도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번(虞翻)의 풀이

지수사(地水師䷆)의 이효(二爻)가 올라가 오효(五爻)로 가면 마땅한 자리가 된다. 여러 음(陰)이 유순하게 따르면서 힘을 모아 돕는다. 그러므로 길하다. 이는 대유(大有䷍)와 더불어 방통패다.

자하전(子夏傳)의 풀이

땅이 물을 만나 유순하고, 물이 땅 위에서 흘러감이 수지비(水地比䷇)의 象이라고 하였다. 무릇 흉한 자는 어그러져 다툰다. 지금은 이미 모두 친하고 힘을 합해 돕는 까닭에 比는 길하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지수사(地水師䷆)에서 하나의 양 구이는 자리가 어긋나 마땅하지 않다. 올라가 五爻에 위치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의 양은 마땅한 자리를 얻음이 된다. 곤(坤䷁) 음(陰)은 무리가 되고 유순함이 된다. 단전에 아래에서 유순하게 따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러 음(陰)이 유순하게 따른다고 하였다. 또 비는 돕는다는 보(輔)라고 했으니 힘을 모아 돕는다고 하였다. 괘에서 다섯 음(陰)들이 하나의 양(陽)을 도와 수지비(水地比䷇)를 이루고 있으므로 다섯 음이 유순하게 하나의 양을 따르는 게 되어 길하다. 수지비(水地比䷇)에는 그 아래에 화천대유(火天大有䷍)가 얹드려 있다. 그러므로 수지비(水地比䷇)는 화천대유(火天大有䷍)와 더불어 방통패라고 하였다.

자하전(子夏傳) 풀이의 해설

땅은 본래 유순하다. 그러나 그 성질은 물에 달려 있다. 물을 얻지 못하면 땅은 건조해 딱딱해진다. 물은 본래 흐르는 성질이 있다. 그러나 그것도 땅에 의존하기 마련이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높이가 낮아야 한다. 서경에서도 물은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수지비(水地比䷇)의 象이라고 하였다. 어긋나 서로 다투면 흉하다. 친해서 서로 도우면 길하다. 그러므로 수지비(水地比䷇)는 길하다.

원 서 원 영 정 무 구 불 녕 방 래 후 부 흉
原筮, 元永貞, 无咎. 不寧方來, 後夫凶.

점치되 원·영·정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편안하지 못한 이가 바야흐로 음이니 뒤 늦으면 강한 남자라도 흉하리라.

간보(干寶)의 풀이

수지비(水地比䷇)는 중지곤(重地坤䷁)의 귀혼괘(歸魂卦)¹⁰⁸다. 또한 世가 7월이다. 불어남이 그쳐 이미 소멸되기 시작했다. 음(陰)에서 물러나 양(陽)에 위치했으니 중천건(重天乾䷀)의 명(命)을 잇고 있다. 의리가 지수사(地水師䷆)와 더불어 일치한다. 원(原)은 점친다는 복(卜)의 뜻이다. 주례에 삼복(三卜)을 말하고 있으니 첫째가 원조(原兆)다. 중지곤(重地坤䷁)의 덕이 변화하여 그 곳으로 돌아가므로 사방이 이미 친하게 된다. 그러므로 괘사가 비(比䷇) 길이다. 예부터 왕업을 도모함에 거북점과 시초점을 상고함이 있었다. 구체적인 기록은 서경의 낙고(洛誥)다. 그곳에서 주공은 조카 성왕에게 아뢰기를 임금께서 감히 천명(天命)을 닦고 또 명을 안정시킨 일에 미치지 못하는 듯 하시기에 제가 이에 대를 이어 받들어 동쪽을 둘러보았으니 그 땅에서 임금님의 명철하신 도를 따라 받들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주공은 을묘(乙卯)날 아침 낙(洛) 땅으로 와서 황하 북쪽의 여수를 점쳐 보았으나 오직 洛 땅만이 길하였으며 또 전수의 동쪽을 점쳐 보았으나 역시 오직 洛 땅만이 길하였으므로 오시도록 하여 지도와 함께 점친 결과를 바친다고 하였다. 그로 인해 성왕도 이를 따르며 주나라의 왕업이 비로소 바로 섰으며 점괘에서 말하던 주나라의 칠백년 왕업이 뒷날의 정왕(定王) 때도 언급되었던 까닭에 德의 선험은 조민(兆民)에게서 자라고 복록은 업을 힘입게 되는데서 영구함을 말했으므로 이곳의 괘사가 바로 그 뜻을 함축하는 원서(原筮), 원영정(元永貞)이다. 그래서 거스름에 취하고 유순함으로써 지키면서 편안할지라도 위태로운 듯 했으므로 허물이 없다. 천하가 덕으로 돌아가되 오직 한쪽만 그렇지 않았으므로 그는 바로 불녕방래(不寧方來)다. 뒤에 복종하는 이는 하늘을 어기고 사람의 도리를 잃었음이니 반드시 그 몸에 재앙이 미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뒤 늦으면 강한 남자라도 흉하다고 말했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중지곤(重地坤䷁)의 변화가 오효(五爻)에 이르면 다시 사효(四爻)가 변하면

108) 경방 역설이니 앞의 184쪽에서 이미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서 유혼(遊魂)이고, 이어서 또 아래 소성괘 세 효가 다시 변하면 귀혼(歸魂) 수지비(水地比䷇)를 이룬다. 그러므로 수지비(水地比䷇)가 중지곤(重地坤䷁)의 귀혼괘(歸魂卦)라고 하였다. 중지곤(重地坤䷁)궁(宮)에서는 지천태(地天泰䷊)가 삼세(三世)에 있다. 수지비(水地比䷇) 귀혼(歸魂)도 또한 세가 삼효에 있다.三世卦 음(陰)은 七月을 주장하고 三陰은 申에 있으므로 또한 세가 七月이라고 하였다. 불어남이 그쳐 이미 소멸되기 시작했다고 함은 水地比가 消息에서 四月卦가 되기 때문이다. 申은 陰이 되고, 巳는 陽이 된다. 그러므로 陰을 떠나 陽에 거처하니 乾의 명을 잇게 된다고 하였다. 重天乾은 卦상이 四月에 속한다. 地水師도 역시 四月이다. 그 까닭에 의리가 지수사와 더불어 일치한다고 하였다. 周禮 太卜에 ‘三兆의 법을 관장하되 첫째가 玉兆요, 둘째는 互兆며, 셋째가 原兆이니 原은 뜻이 卜이 된다. 原兆만을 앞에서 인용했지만 거기에는 둘째의 互兆와 첫째의 玉兆를 포함하는 말이다. 重地坤이 水地比로 여덟 번 변함을 말미암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때 곤은 方이 되므로 重地坤의 덕이 변화하여 그 곳으로 돌아가면서 사망이 이미 하나가 되고 나라가 친하게 된다고 하였다. 친한다고 할 때의 나라는 땅 坤이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나라 안이 온통 하나로 여겨지고 친한다면 이는 도와서 길한 比吉이다. 서경 홍범에서도 꺾임이 卜과 筮에 미치면 거북도 따르고 시초풀도 따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거북과 시초풀을 상고하여 왕업을 꺾하게 된다고 하였다. 서경 洛誥의 구절은 갖추어 해석했으므로 이곳에서 반복 설명은 생략한다. 주나라의 칠백년 왕업이 여기서도 언급되었다고 함은 주의 정왕이 왕손만을 사신으로 삼아 초나라로 보냈을 때의 고사와 연결되어 있다. 楚子が 주의 보물이 술의 크기와 무게를 물었다¹⁰⁹⁾. 그때 왕손만이 답하기를 ‘술의 무게나 크기는 갖는 사람의 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 술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夏王의 덕이 충분했을 때 먼나라에서 지방의 풍물을 그림

109) 楚子が 주나라의 상징인 술의 크기와 무게를 물었던 까닭은 단순하다. 주나라 왕실의 위업이 쇠락하여 제후들로서는 그 자리를 넘볼 만큼 형세가 기울었기 때문이다. 왕손만은 이를 간파하고 그 의미가 그 술을 갖는 사람의 덕에 달려 있다고 대답한 것이다.

에 그러서 바치고 구주의 목을 통해서 금을 바쳤으므로 하왕은 그 금으로
 술을 만들고 지방의 풍물을 새겨넣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미리 알게 하여 사람들에게 神姦(악마)의 식별을 하도록 마련했던 셈이지
 요. 그 덕분에 사람들은 늪이나 숲의 귀신이며 요물을 피하여 만나지 않
 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왕의 덕은 상하를 화목하게 하여 하늘의 은
 혜를 누구나 힘입게 하고자 함이었지만 결(桀)의 무도한 정치에 이르러
 그 술이 주(周)로 넘어왔습니다. 덕이 밝다면 작은 술도 무겁고 덕이 어둡
 다면 크더라도 가볍습니다. 하늘이 덕에 보답하는 데도 기한이 있는 것인
 데, 성왕이 술을 주에 안치할 때 왕이 몇 대 이어질 수 있는지 점치게 했
 을 때 30세 700년이라고 했던 바 그것은 천명입니다. 지금은 주왕의 덕도
 쇠했습니다만 천명이 고쳐지지 않는 한 술의 무게를 남이 물어서는 안 된
 다고 했으니 이 구절은 곧 좌전 선공 삼년의 기록이다. 이 글을 여기서
 인용하는 까닭은 원서(原筮)의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다. 본문에서 덕(德)
 의 선함은 조민(兆民)에게서 자란다고 함은 원(原)을 해석하는 구절이다.
 복록은 업을 힘입게 되는데서 영구하다고 함은 영정(永貞)을 해석하는 구
 절이다. 그러므로 패사에서 원서(原筮), 원영정(元永貞)이라고 하였다. 거
 스름에 취하고 유순함으로써 지켰다고 함은 주나라가 폭군 주를 쳐서 천
 하를 취한 뒤 충후(忠厚)함으로써 이를 지켰다는 뜻이다. 편안함에 거쳐하
 면서도 위태로운 듯이 여겼다고 함은 편안한 가운데에서 위태로움을 잊지
 않았음이니 그 덕택에 장구토록 귀함을 지켜 허물이 없게 되었다는 말이
 다. 무성(武成)에서 말하기를 (녹대의 재물을 흠어서 나눠주시고 거교의
 곡식을 내 주어 온 세상에 크게 물건을 주신대 만백성들은 기꺼이 복종했
 다고 했으니 이는 천하가 그 덕에 귀의하였으되 오직 일방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패사가 불녕방래(不寧方來)다. 사기(史記) 위세가(衛世
 家)에 무왕잉 이미 은나라를 이긴 뒤 주의 아들 무경록부를 봉해 제사를
 잇게 하고 그 동생 관숙 채숙으로 하여금 무경을 도와서 그 백성들을 화
 합하게 하였다. 그뒤 관숙과 채숙은 무경과 더불어 나라에 반기를 들었다.
 주공은 성왕을 보좌하여 군사를 일으켜 은을 치면서 무경과 관숙을 죽이

고 채숙을 내쳤다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뒤에 복종하는 이는 하늘을 어기고 사람을 잃어 반드시 그 재앙이 몸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뜻이고 그 까닭에 뒤에 오는 이는 장부라도 흉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안(愚案)

이아(爾雅) 석언(釋言)에서는 원(原)은 재(再)의 뜻이라고 하였다. 호괘(互卦) 간(艮≡)은 손이 된다. 지수사(地水師≡) 진(震≡)은 (시초)풀이 되고 손으로 그 풀을 잡음이니 점치는 서(筮)의 상(象)이 있다. 산수몽(山水蒙≡)도 초서(初筮)는 초효(初爻)에서 하는 말이니 수지비(水地比≡)의 재서(再筮)도 역시 효(爻)로 말하면 이효(二爻)가 된다. 이효(二爻)라는 뜻은 지수사(地水師≡) 이효(二爻)가 오효(五爻)로 가서 수지비(水地比≡)를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오효(五爻) 양(陽)은 중천건(重天乾≡)의 원(元)이다. 이영정(利永貞)은 바탕을 온전하게 갖춘 중지곤(重地坤≡)에서 유래했다. 왜냐하면 중지곤(重地坤≡)에서도 이영정(利永貞)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괘사에 영(永)이 언급되고 오효(五爻)가 바른 자리가 되므로 곧다는 정(貞)을 말하고 있다. 택지취(澤地萃≡) 구오(九五)에서도 또한 원영정(元永貞)을 말하는 택지취(澤地萃≡)와 수지비(水地比≡)는 서로 괘의 본체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괘는 똑 같이 사효(四爻)가 변하지 않고 있다. 우변은 그곳의 주석에서 사효가 변해 바르게 되면 오효(五爻)도 모두 바른 자리이므로 원영정(元永貞)이 되어 수지비(水地比≡) 단전(彖傳)과 더불어 뜻이 일치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곧으므로 허물이 없다. 오효(五爻)는 수지비(水地比≡)의 주효(主爻)다. 또 감(坎≡)은 수고로운 괘이므로 편치 못한 불녕(不寧)이고 곤(坤≡)은 방(方)이 되므로 방래(方來)다. 마치 시경(詩經)에서 말하는 간불정방(幹不庭方)의 그 뜻이다. 하나의 양(陽)이 위에서 움직이고 곤(坤≡) 음(陰)이 아래에 있으면서 호응하므로 불녕방래(不寧方來)라고 말하게 되었고 온다면 결국 수지비(水地比≡)다. 오효(五爻) 양(陽)은 부(夫)가 되고, 상효(上爻)는 오효(五爻)의 뒤에 있으므로 후부(後夫)가 된다. 곤(坤≡) 방(方)이 모두 오되 위에서는 간(艮≡)으로 등지고 거쳐하고 있으므로 또 정응(正應)이 없다. 이는 돕지 않는 자다. 그러므로 길하지

못해 흉한 모습이다.

○ 덧붙이는 말

① 잡괘전의 비(比䷇)에 대한 언급에서는 비(比䷇)는 즐겁고 사(師䷆)는 근심스럽다고 하였다.

② 사람이 이치에 근거하여 중정한 덕을 지닌 자와 가까이하여 친하고 또 그를 돕는다면 이는 허물이 없고 길한 도가 된다.

③ 원(原)의 해석은 사람에 따라 관점이 서로 갈린다. 이는 근원한다는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믿는다.

④ 주역은 세상의 바른 이치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의 힘을 빌린다는 사실은 도대체 그 상황에서 하늘의 이치가 무엇인가를 묻고자 하는 원서(原筮)에 있음을 역의 폐사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그 맥락에서 보면 원영정(元永貞)은 점이 보여주는 하늘의 이치에 근거하여 선하고 영구하며 바르게 하고자 하는 뜻을 잃지 않는 것이다.

⑤ 불녕방래(不寧方來)의 뜻을 앞에서 폐의 차례를 풀이하는 내용과 결부시켜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 즉 친함이 있게 되는 사(師䷆)는 전쟁을 하는 때다. 따라서 서로 편안함을 도모하고자 돕게 되어 있다. 이는 스스로 자기의 안녕을 보존하기 어려운 때이다. 따라서 친해 돕기를 구함이 신속하지 않음은 자기의 힘을 스스로 믿고 자만스럽게 군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뒤에 오는 후부의 부(夫)를 힘 있는 장부로 해석하는 정자의 시각은 매우 타당하다.

⑥ 이치로 보더라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 도와 친하게 사귀어서서 편안해지는 것이다. 이를 떠나서 돕는 때의 뜻을 외면한다면 이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⑦ 구오(九五)를 중심으로 생겨난 폐사라는 게 주자의 해석이다. 구오(九五)가 양(陽) 강(剛)으로 위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여 중(中)과 정(正)을 얻었고 나머지 다섯 음(陰)이 친하게 여겨 구오(九五)를 따르는 형상이다. 그러므로 바르고 알맞은 덕으로 만방을 어루만지는 구오(九五)에 대해 사

람들은 반드시 돌아가 귀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구오(九五)의 덕이 바르고 알맞다는 것은 나라를 세움에 있어 하늘의 참된 이치를 떠나 있지 않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08比卦02, 象曰, 比, 吉也, 比, 輔也, 下順從也.

단전에 말하였다. 비(比䷇)는 길하며 비(比䷇)는 돕는 것이니 아래에서 유순하게 따르는 것이다.

최근(崔觀)의 풀이

아래에서 위를 돕고 있으니 이는 아래에서 유순함이다.

최근(崔觀) 풀이의 해설

돕는 비(比䷇)는 길하다. 사람이 서로 친하면서 돕는다면 길하다. 석고(釋詁)에 비(比䷇)는 보(輔)라고 하였다. 괘(郭)은 주석하기를 보(輔)는 돕는다는 보(輔)와 같다고 하였다. 춘추(春秋) 좌전(左傳) 희공(僖公) 5년조에 보거상의(輔車相依)라는 구절이 있다. 그러므로 비(比䷇)는 돕는다는 보(輔)다. 곤(坤䷁)은 유순함이 된다. 곤(坤䷁)은 아래에 있으면서 위를 돕고 있다. 이는 아래에서 위를 향해 유순하게 쫓고 있다는 뜻이다. 시경(詩經) 대아(大雅)에 왕차대방(王此大邦) 극순극비(克順克比)라고 읊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그 뜻이다.

○ 덧붙이는 말

① 비(比䷇)의 상은 길한 도(道)임을 우선 분명하게 한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길하다고 말하는 비(比䷇)가 어떤 뜻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비(比䷇)는 돕는다는 도울 보(輔)의 뜻이라고 성인은 덧붙이신다. 또 아래에서 유순하게 따르는 뜻이 있음을 강조한다.

② 구오(九五)가 양(陽)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나머지 여러 음(陰)들이 순종하여 따르니 이는 친해서 돕는 패상이다. 그러므로 물과 땅은 비(比䷇)가 되고 서로 힘을 합해 돕는다는 하순중(下順從)이다.

“원서(原筮), 원영정(元永貞), 무구(无咎), 이강중야(以剛中也).”

“원서(原筮), 원영정(元永貞), 무구(无咎)”는 강중(剛中)하기 때문이요.

촉재(蜀才)의 풀이

이는 본래 패상이 지수사(地水師䷆)다.

안(案)

육오(六五)가 이효(二爻)로 내려오고 구이(九二)가 오효(五爻)로 올라간다. 강(剛)이 가서 위의 중(中)을 얻어 水地比의 主爻가 된다. 그러므로 능히 점치게 되는 본질적인 도리를 추구하여 장구함을 구하므로 허물이 없다.

촉재(蜀才) 풀이의 해설

수지비(水地比䷇) 오효(五爻)는 지수사(地水師䷆)로부터 왔으므로 이는 본래 패상이 지수사(地水師䷆)라고 하였다. 지수사(地水師䷆) 오효(五爻)가 이효(二爻)로 내려오고 구이(九二)가 오효(五爻)로 올라가면 강(剛)이 위로 올라가 중정(中正)함을 얻게 되면서 이는 수지비(水地比䷇)의 주효가 된다. 그 까닭에 그 뜻이 원서원영정무구(原筮元永貞无咎)가 된다는 해석이다. 원(原)은 원문에서 원구(原究)라고 되어 있으니 또한 뜻이 동일하다.

○ 덧붙이는 말

① 점을 근원하되 선하고 영구하며 바르게 해야 허물이 없다는 구오(九五)의 강(剛)하고 중정(中正)한 덕으로서 알맞게 하는 강중(剛中)의 뜻이라는 게 단전의 관점이다. 이른바 나라를 다스림에 그것은 선해야 하고 백성을 위하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하늘의 이치에서 보아 어긋남이 없는 도리의 강조다. 이는 곧 구오(九五)의 입장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의 도리를 강조하는 패사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곳의 단전에서도 원영정(元永貞)은 강(剛)으로서 중정함을 보여주는 구오(九五)의 패상을 말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불 ^녕 ^방 ^래 ^상 ^하 ^응 ^야
“不寧方來”，上下應也.

“불녕방래(不寧方來)”는 상하가 응함이요,

우번(虞翻)의 풀이

물의 성질은 흘러서 움직인다. 그러므로 편치 못한 不寧이고 곤(坤䷁) 음은 방(方)의 뜻이 되면서 상하(上下)가 호응하므로 바야흐로 온다고 해석한 방래(方來)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감(坎☵)은 물이 된다. 수고로운 패다. 그러므로 물의 성질은 흘러서 움직인다고 하였다. 편치 못하다는 불녕(不寧)은 음(陰) 초효(初爻)가 양(陽)을 쫓으므로 당연히 두려고 위태롭게 여기면서 그 자리 잡을 곳을 찾는다. 곤(坤☷) 음(陰)이 방(方)의 뜻이 된다고 함은 구가(九家) 설괘(說卦)에서 곤(坤☷)은 方이 된다고 하는 그 말이다. 상하가 호응함은 지수사(地水師☵☶) 이효(二爻)가 오효(五爻)로 올라갈 때 삼효(三爻)와 사효(四爻)는 初爻가 모두 아래에 있으면서 거기에 호응하는 까닭에 이를 두고 상하가 모두 호응한다고 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바야흐로 온다고 함은 사방에서 그들이 모두 같이 온다고 하는 그 의미다.

“^{후 부 흥}後夫凶”,

뒤 늦으면 丈夫라도 흥하다고 함은

우번(虞翻)의 풀이

뒤는 상육(上六)을 가리킨다. 장부(丈夫)는 오효(五爻)를 말한다. 감(坎☵)은 뒤가 되고 간(艮☶)은 등이 된다. 이로써 보면 上六은 등 뒤가 된다. 또 호응도 없으면서 양(陽)을 타고 있으므로 후부흥(後夫凶)이 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상육(上六)은 끝의 자리다. 그러므로 뒤는 상육(上六)이다. 오효(五爻)는 본체가 양(陽)이다. 즉 부(夫)가 오효(五爻)인 근거다. 곡례(曲禮)에 주작(朱雀)은 앞이 되고, 현무(玄武)는 뒤가 된다고 하였다. 그때 말하는 현무(玄武)는 북방칠숙(北方七宿)이다. 곧 혼천부(渾天賦)에서 읊고 있듯 북궁은 신령스러운 거북이 잠겨 있다고 하는 그 뜻이다. 감(坎☵)의 자리는 방위상 정북(正北)이 되므로 그 개념이 뒤다. 한편 오효(五爻)는 호괘(互卦)가 간(艮☶)이므로 등이 된다. 이처럼 상효(上爻)가 간(艮☶) 등의 뒤에 위치해 있고, 안으로 정응(正應)도 없으면서 아래서 오효(五爻) 양(陽)을 탄 채 가까이서 서로 이웃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뒤 늦으면 장부(丈夫)라도 흥하다는 후부흥(後夫凶)이다.

기 도 궁 약
其道窮也.

그 도가 곤궁한 것이다.

순상(荀爽)의 풀이

후부(後夫)는 상육(上六)을 말한다. 예(禮)에 거스르게 양(陽)을 타고 성왕(聖王)을 돕지 않는다. 이는 의리상 주벌 당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그 도가 궁색해서 흉하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상육이 後夫를 뜻한다고 함은 上六이 九五의 뒤에 있기 때문이다. 예에 거스르게 양을 타고 있다고 함은 위에서 陰 六이 五爻 剛을 거스르게 타고 있음을 의미한다. 聖王을 돕지 않는다고 함은 아래 四爻 陰과 더불어 五爻에 순종하지 않는 효이기 때문이다. 의리상 주벌 당함이 마땅하다고 함은 노어(魯語)에서 중니가 말하기를 옛적 우(禹)임금이 회계산에서 여러 신들에게 치성드릴 때 방풍씨가 맨 뒤에 이르렀다.禹는 이를 잡아 살육했다고 하였다. 하관 대사마에도 태상을 세워 군중(軍衆)을 돕되 뒤에 이른 자를 주벌했다고 함이 바로 그 예다. 그 도가 궁색해서 흉하다고 함은 삼효는 사람 아닌 자리가 되기 때문으로 正應도 없다.

○ 덧붙이는 말

① 비가 도울 보(輔)의 뜻이라면 때가 서로 호응하여 도와야 할 때다. 효(爻)로 보더라도 구오(九五)와 육이(六二)가 서로 위 아래에서 호응하면서 돕는 관계를 보여준다.

② 다만 상육(上六)은 구오(九五)의 뒤에 있으면서 물 께로 구오(九五)를 핍박하는 형국을 만들어내므로 그 도가 궁색하여 흉하다고 할 수 있다.

③ 그 도가 궁색하다는 뜻을 내·외호괘의 산지박(山地剝 )에서 비롯되는 말이라고 풀이하는 시각도 성립된다.

④ 불녕방(不寧方)은 평온하지 않은 나라 즉 난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나라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용례를 살펴 볼 수 있는 기록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례 고공기 재인편이다.

“제후의 예는 술과 포와 젖을 사용한다. 그 제사에 말하기를 ‘평온하고 공덕이 있는 제후(寧侯)들은 불순한 제후들과 같지 않네. 왕에게 알현하지 않으므로 활시위를 당겨 그들을 쏘리라고 하였다.’”

둘째 대대례 투호편이다. 이는 백호통 향사편에 나오는 구절과 대략 흡사하다.

“예를 행할 때 노나라의 습관으로는 먼저 사사가 마루 아래에 서 있는 젊은이들에게 아 이 불순한 제후들아(不寧侯). 너희들이 왕에게 알현하지 않았으므로 천하가 업을 잃었으니 너희 모두에게 활을 쏘게 하리라고 하였다.

08比卦03, ^상 ^화 ^지 ^상 ^유 ^수 ^비
08比卦03, 象曰, 地上有水, 比,

象傳에 말하였다.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이 비(比䷇)니,

하안(何晏)의 풀이

물의 성질은 아래로 흘러내린다. 지금 땅 위에 있으면서 땅에 스며들어 땅을 적시면서 흘러가는 형상의 뜻이 수지비(水地比䷇)다.

하안(何晏) 풀이의 해설

물의 성질이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구절은 홍범을 인용한 구절이다. 물은 유순하게 흘러내리는 성질이 있다. 지금 땅 위에 있으면서 스며들어 윤택하게 하면서 비로써 적시니(우이윤지雨以潤之), 곧 땅에 숨어드는 성질(곤이장지坤以藏之)까지 보여준다. 이는 물과 땅이 서로 돕는 수지비(水地比䷇)의 상 그대로다.

^선 ^왕 ^이 ^건 ^만 ^국 ^친 ^제 ^후
先王以建萬國, 親諸侯.

선왕이 이것을 보고서 만국을 세우고 제후들을 친애한다.

우번(虞翻)의 풀이

선왕(先王)은 오효(五爻)를 말한다. 초효(初爻) 양(陽)이 이미 회복했다면 진(震䷲)은 세운다는 건(建)이 되고, 제후(諸侯)가 된다. 곤(坤䷁)은 만국(萬國)이 되고 배(腹)가 되며 감(坎䷜)은 마음(心)이 된다. 그 뜻은 배와 마음이 서로 친하게 돕는 까닭에 만국을 세우고 제후들과 친하고 있다. 시경

에 공후복심(公侯腹心)이라는 구절이 있으니 바로 이곳의 뜻 그대로를 나타낸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오효(五爻)는 천자(天子)가 된다. 중천건(重天乾䷀)은 중지곤(重地坤䷁) 가운데 감춰져 숨어 있으니 이것이 선왕을 말하는 이유다. 수지비(水地比䷇)의 양 하나는 지뢰복(地雷復䷗)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므로 초효(初爻) 양(陽)이 이미 회복하고 난 뒤의 변화로 그 뜻을 풀이했고, 初爻 강(剛)은 뽑기에 어렵다. 그러므로 진(震䷲)은 세우는 게 된다. 진(震䷲) 장자(長子)는 기물(器物)을 주장하는 패다. 그러므로 천하를 다스리는 데 앞세워 친(親)하려는 제후가 된다고 보았다. 땅에는 구주(九州)가 있다. 그러므로 곤(坤䷁)은 만국이 된다. 설괘(說卦)에서 곤(坤䷁)은 배(腹)가 된다고 하고 감(坎䷜)은 마음(心)이 된다고 했다. 위치상 감(坎䷜)은 마음의 위에 있고 배는 아래에 있으니 이는 배와 마음이 서로 마음을 합해 도우면서 친한 모습의 패상이다. 그러므로 선왕은 이를 본받아 만국을 세우고 제후들을 친 한다고 하였다. 인용된 시구 公侯腹心은 시경(詩經) 주남에 나오는 문구다. 그 구절이 이 패상의 맥락처럼 감(坎䷜) 마음과 곤(坤䷁) 腹의 뜻에 합하므로 이끌어써 제후들과 친한다는 뜻과 일치한다고 풀이하였다.

안(案)

수지비(水地比䷇)는 소식(消息)패로 보면 사월(四月)의 패다. 구경(九卿)에 비유하여 해당되는 달을 헤아리면 안은 경(卿)이 되고, 밖은 후(侯)가 된다. 나라를 세워 제후와 친함이 사월(四月)에 있음이니 명당(明堂) 월령(月令)에서 입하(立夏)의 달에 천자가 몸소 삼공, 구경, 대부를 거느리고서 남녘 교외에서 여름을 맞이하되 돌아와서는 공로에 맞게 제후들에게 상과 영지를 봉한다고 하는 그 의미에 통하는 패사다. 백호통(白虎通)에서도 제후를 봉하되 여름의 무성한 양기(陽氣)처럼 만물을 북돋아 양육하고 어진 이를 성하게 기른다고 하였으니, 좌전(左傳) 양공(襄公) 六年의 기록도 마찬가지다. 상을 내리는 이치를 봄과 여름의 기운에 두고 있다. 즉 상(賞)을 내려 경하(慶賀)하고 제후(諸侯)로 봉하는 일이 모두 여름과 같아야

하므로 나라를 세우고 제후를 친함이 이곳 수지비(水地比䷇) 그대로를 취함에 있다.

○ 덧붙이는 말

① 상전의 해석에서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이 돕는다는 비라고 함은 서로 친하게 맞닿아 있는 형상으로 놓고 보면 땅 위의 물만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② 비(比䷇)의 의미를 나라 건국으로 놓고 본다면 이는 땅과 물처럼 친하게 본받는 이치가 곧 제후들과 하늘의 이치로 친하게 되는 데 있다.

③ 당시 중국의 통치제도를 근거로 수지비괘를 살펴보면 나라를 세우는 일은 제후를 도와 백성과 친해지는 데 있으므로 선왕이 나라를 세우고 제후들과 친한다고 하였다.

④ 선왕-국가의 제도를 정비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는 '군자라는 호칭 대신 정치적 의미의 '선왕'으로 그 주체를 표현하였다. 이곳 비(比䷇)의 '선왕이건만국(先王以建萬國), 친제후(親諸侯)', 풍지관(風地觀䷓)의 '성방관민(省方觀民)' 화뢰서함(火雷噬嗑䷔)의 '명벌칙법(明罰勅法)'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08比卦04, ^{초 육}初六, ^{유 부 비 지 무 구}有孚比之, 无咎,

초육은 믿음을 가지고 도와야 허물이 없다.

우번(虞翻)의 풀이

믿음으로 해석된 부(孚)는 오효(五爻)를 말한다. 초효(初爻)는 어긋난 자리이고 변해서 효가 바뀌면 바르게 된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

순상(荀爽)의 풀이

초효(初爻)는 호응(呼應)하는 자리의 밖에 있다. 비유하면 자못 속되다. 성스러운 왕이 믿음직스러워 사방에 힘입게 되는 광채가 빼어나서 자못 속된 이들조차 모두 와서 친하고 도우므로 허물이 없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믿음이 오효(五爻)를 뜻한다고 함은 감이 믿음이 되기 때문이다. 초효(初爻)가 어긋난 자리라고 함은 음(陰)이 양(陽)에 거처해 있기 때문이다. 수

지비(水地比䷇)는 화천대유(火天大有䷔)와 더불어 방통 관계다. 소식의 괘에서 오효(五爻)가 내려와 초효(初爻)로부터 붙어남이 화천대유(火天大有䷔)다. 그러므로 변해 와서 효가 바뀌면 바르게 된다고 하였다. 효가 바르게 된다면 이는 허물이 없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이효(二爻)는 정응(正應)이 오효(五爻)에 있다. 그러므로 돕기를 안으로부터 하는 비지자내(比之自內)다. 초효(初爻)는 이효(二爻)의 아래에 있다. 이는 호응의 밖이라고 말하는 근거다. 초효(初爻)는 오효(五爻)로부터 멀다. 그러므로 비유로서 말하면 자못 속되다. 광채가 사방에 힘입게 된다고 함은 서경 요전의 문구다. 예빙의(禮聘義)에 부윤방달(孚尹旁達) 신야(信也)라는 구절이 있는 바, 이 의미가 바로 앞에서 말하는 성왕(聖王)이 믿음직스러워 광채를 사방에서 힘입게 된다는 그 표현이다. 중용(中庸)에서도 무릇 혈기가 있는 자는 높여 친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못 속된 이들조차 모두 와서 친하고 돕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수지비(水地比䷇) 초효(初爻)에 있어서도 역시 믿고서 서로 도우므로 허물이 없다.

유 부 영 부 종 래 유 타 길
有孚盈缶，終來有它，吉.

믿음을 있게 함이 질장구에 가득 차듯 하면 종말에 다른 길함이 있으리라.

우번(虞翻)의 풀이

곤(坤䷁) 기물(器物)은 질장구(缶)가 되고, 감(坎䷜) 물은 곤(坤䷁)에서 흐르되 초효(初爻)가 움직여 변하면 수뢰둔(水雷屯䷂)을 이룬다. 그때 둔(屯䷂)은 가득 찼다는 영(盈)이라고 했으므로 질장구에 가득 차듯함이 된다. 그러므로 종말에 다른 길함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온다 래(來)는 개념은 안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계사상전에서 형체는 기(器)를 일컫는다고 하였다. 또 형이하의 개념을 일컬어서 器라고 한다 하였다. 이들은 모두 곤(坤䷁)을 말하니, 땅에 있어서

형체를 이룬다는 바로 그 뜻이다. 그러므로 곤(坤☷)은 器가 됨을 알 수 있다. 고공기(攷工記)에서는 土를 재질로 하여 器가 된다고 하였다. 곤(坤☷)은 土가 되고 부(缶)가 되니 토기(土器)다. 또 곤(坤☷)은 배(腹)로서 안에 담기도 하니 그 형상이 질장구다. 곧 곤(坤☷) 기물이 질장구가 된다고 보는 근거다. 감(坎☵) 물은 위에 있고 곤(坤☷) 토(土)로 흘러가되 초효(初爻)가 움직여 양(陽)을 이루면 그때의 괘상이 수뢰둔(水雷屯☳)이 된다. 서괘에 둔(屯☳)은 가득찬 盈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효사가 영부(盈缶)고 효가 변해 양을 이룬다면 바름을 얻게 되므로 종말에는 다른 길함이 있게 되기 마련이다. 밖으로부터 안으로 온다고 했으므로 온다고 하는 뜻은 안으로 온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수지비(水地比☶)의 다섯 음(陰)들은 모두 수지비(水地比☶) 오효와 연결해 길흉을 판단한다. 오직 초효(初爻)라면 오효(五爻)가 와서 도우므로 변해 바르게 되어 구오(九五)에서 말하는 전금(前禽)이 되면서 다른 길함이 있게 된다고 하였다.

○ 덧붙이는 말

- ① 초육(初六)은 돕는 비(比☶)의 초다. 더구나 사리에 어두운 땅의 맨 밑에 있으면서 양(陽)자리의 음효(陰爻)다. 그래서 자기가 윗자리의 구오(九五)를 돕는 게 어떤 이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마저 없다. 여기에 바로 초육(初六) 효사(爻辭)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까닭이 있다.
- ② 양(陽)자리의 음효(陰爻)라는 사실을 놓고 보면 돕는 비(比☶)의 때에 대한 초육(初六)의 믿음이 갈팡질팡 종잡기 어려운 구석이 엿보이는데서 오는 경계사의 성격이 짙다. 그러므로 돕는데 대한 자기의 역할에 대한 확신을 질그릇에 가득 차게 하라고 말한다.
- ③ 비록 초육(初六)이 구오(九五)와 짝이 아니면서도 구오(九五)를 도와 마음속의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위 구오(九五) 하늘로부터 길함을 입게 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마침내 다른 길함이 있다고 하는 효사의 속 뜻이다.

상 08比卦05, 象曰, 比之初六, 有它吉也.

상전에 말하였다. 비괘의 초육은 다른 길함이 있는 것이다.

순상(荀爽)의 풀이

질장구(缶)는 호응이 안에서 이루어짐이니 나라의 가운데에 대한 비유다. 믿음이 이미 온 나라 안에 가득차서 그 덕화가 마침내 초효(初爻)에까지 미친다. 그러나 구오(九五)와 호응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다른 길함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상전에서 덧붙이는 해석의 내용이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안의 호응은 이효(二爻)를 의미한다. 둑기를 안으로부터 한다. 곤(坤☷) 토(土)는 나라가 되고 부(缶)는 토기(土器)가 된다. 그러므로 나라 안에 대한 비유다. 구오(九五)의 믿음이 이미 이효(二爻)에게 미치되 나라 안에 가득 차면 그 덕화를 구오(九五)와 서로 정응이 아닌 이효(二爻) 밖의 초효(初爻)까지도 힘입는다. 그래서 오효(五爻)의 진실한 믿음이 세속에 우뚝하므로 마침내 초효에게까지 미친다고 하였다. 곡량전(穀梁傳) 장공(莊公) 二十七年 온다는 뜻은 안과 사귀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오효(五爻)가 초효(初爻)로 와서 도움을 준다면 그 뜻이 바로 마침내 오는 종래(終來)다. 초효(初爻)의 정응(正應)은 사효임에도 멀리 오효(五爻)와 호응하고 있으므로 호응 관계가 아님을 말했고 자하전(子夏傳)에서는 이를 다르다는 타(他)의 뜻으로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후한서(後漢書) 노공전(魯恭傳)에 화제(和帝)가 처음 들어서고 장군 두헌(竇憲)에게 병기를 주어 흉노를 치는 문제를 의논하면서였다. 공(恭)이 상소를 올려 간하기를 아래에서 다스리는 인도(人道)가 어질면 위에서는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 비오고 바람 부는 천도(天道)의 변화가 때에 맞아 상서롭고 멀리 변방에까지 그 덕화가 미쳐서 이적(夷狄)까지도 마음으로 숭복하며 이르게 되는 법임을 상기시키며 역의 이구절, 믿음이 질 장구에 가득 차면 마침내 다른 길함이 있게 될 것임을 인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단비가 우리의 질장구에 가득차서 진실로 다른 길함이 있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호응 관계에 있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미친 뒤에야 길하다고 하는 것이다.

08比卦06, 육이비지자내정길. 六二, 比之自內, 貞吉.

육이는 친하기를 안으로부터 함이니 곧아서 길하다.

간보(干寶)의 풀이

이효(二爻)는 곤(坤☷)의 가운데 있다. 곤(坤☷)은 나라의 상(象)이다. 마땅한 자리를 얻고서 오효(五爻)에게 호응하되 용모가 관대(寬大)하다. 임금은 안락하고 백성들은 스스로 마땅함을 얻은 형상이므로 돕기를 안에서 하니 곧아서 길하다고 하였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二爻가 곤(坤☷)의 가운데 있으니 안이다. 곤(坤☷)은 땅이 되므로 나라의 상이라고 하였다. 음(陰)이 마땅한 자리를 얻고 오효(五爻)와 정응(正應)의 관계에 있다. 곤(坤☷) 二爻는 납갑(納甲)으로 보아 을사(乙巳)니 사(巳)는 서방을 주장한다. 익봉전(翼奉傳)을 참고하면 서방(西方)의 정(情)은 기쁨이니, 기뻐하며 움직이고 관대(寬大)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용모가 관대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곤(坤☷)은 백성이 되고 자리가 가운데 있어 중화(中和)의 이치로 움직이며 호응한다는 점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마땅함을 얻었다고 했다. 잠괘전에서도 수지비(水地比䷇)는 즐겁다고 하였다. 그 말은 수지비(水地比䷇)에 즐거운 象이 있으므로 군주는 안락하고 백성들은 스스로 마땅함을 얻은 형상이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효(二爻)로부터 오효(五爻)에 호응하고 있는 점에서 보면 돕기를 안으로부터 하고 있다. 거기에 바르고 마땅함을 얻고 있으니 이는 곧아서 길함이다.

○ 덧붙이는 말

① 육이(六二)의 직접 돕는 대상은 위의 구오(九五)다. 위는 밖이 되고 아래는 구오(九五)에서 보면 안이 된다. 자리로 보더라도 구오(九五)와 육이(六二) 모두 효와 자리가 음(陰)과 양(陽)으로 일치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육이(六二)는 아래 땅 궤의 중(中)이다. 이는 위의 중(中)을 차지하고 있는 구오(九五)에 대해 매우 유순하게 돕고 있는 형상이다. 즉 육이(六二)는 구오(九五)와 정응(正應) 관계로 서로 마땅하게 도와서 세상을 하늘의 이치로 다스리고자 안에서 노력하는 형상이므로 바르고 길하다.

② 아래에서 위를 돕되 육이(六二)는 음(陰)자리의 음(陰)이고 유순하게 위를 받드는 땅 궤의 중(中)이므로 자기의 중정한 도를 지켜 위에서 구하

기를 기다려 움직이는 아래 사람의 참다운 도리도 잃지 않고 있다.

08比卦07, 象曰, “^{상 환}比之^{비 지}自^{자 내}內”, ^{불 자 실 야}不自失也.

상전에 말하였다. 친하기를 안으로부터 함은 스스로 몸을 잃지 않는 것이다.

최근(崔觀)의 풀이

안으로부터 도우니 자기의 친함을 잃지 않는다.

최근(崔觀) 풀이의 해설

안으로부터 밖의 오호(五爻)를 돕는다. 자기가 친해야 할 사람을 잃지 않는 도리다. 論語에 그 친함을 잃지 않음은 또한 근본이 된다고 할 만하다 했으니 바로 그 뜻이다. 또 이호(二爻)는 안에서 중정(中正)함을 지키면서 자기의 도리를 잃지 않는 자다. 곤(坤☷) 몸은 스스로 자가 되므로 스스로 잃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08比卦08, 六三, ^{육 삼}比之^{비 지}匪^{비 인}人.

六三是 사람 아닌 사람과 돕고 있다.

우번(虞翻)의 풀이

비(匪)는 아닐 비(非)의 뜻이다. 자리가 마땅하지 않고 호응도 없다. 삼효(三爻)는 또 흉함이 많다. 패상이 산지박(山地剝☶)을 품고 있어 본질을 깎고 있다. 이는 아비를 죽이고 군주를 시해하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사람 아닌 사람이 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비(匪)와 비(非)는 옛과 지금의 같은 자다. 삼효(三爻) 음(陰)은 어긋난 자리다. 상효(上爻)와 정응(正應)도 아니다. 삼효(三爻)가 흉(凶)함이 많다고 함은 계사하전의 인용구다. 그러므로 삼효(三爻)는 흉함이 많다고 하였다. 초효(初爻)부터 오호(五爻)까지 보면 패상이 산지박(山地剝☶)이다. 박(剝)이란 깎아나가며 상(傷)하게 한다는 뜻이므로 패상이 산지박(山地剝)을 품고 있어 본질을 깎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천지비(天地否)의 육삼(六三) 효(爻)와 더불어 의미가 일치한다. 그러므로 두 괘가 모두 비인(匪人)을

말하고 있다. 우변은 해당 구절의 주석에서 삼효(三爻)를 말한다고 하면서 수지비(水地比䷇) 곤(坤䷁)이 건(乾䷀)을 사라지게 하니 이는 신하가 군주를 시해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상이다. 그러므로 사람 아닌 사람이다. 수지비(水地比䷇)와 더불어 뜻이 같기 때문에 인용하였다.

○ 덧붙이는 말

① 육삼(六三)은 양(陽)자리의 음(陰)이다. 더구나 위로 구오(九五)를 꺾박하는 상육(上六) 효사(爻辭)와 호응하는 자리다. 땅 껍데의 끝을 육삼(六三)이 차지하여 세상의 이치에는 어두우면서 안으로 의욕만 넘친다면 이는 행실이 반드시 사람답지 못하게 된다.

② 육삼(六三)은 스스로 덕이 중정(中正)하지도 못하고 이웃하고 있는 효들도 육삼(六三)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육삼이 스스로 자기의 올바른 도리를 찾기도 어렵다.

08比卦09, ^{상 환}象曰, “^{비 지 비 인}比之匪人”, ^{불 역 상 호}不亦傷乎?

상전에 말하였다. 사람 아닌 사람과 돕거니 또한 상하지 않겠는가.

간보(干寶)의 풀이

육삼(六三)은 을묘(乙卯)다. 중지곤(重地坤䷁)의 귀리(鬼吏)가 수지비(水地比䷇)의 집에 있으면서 土의 군주가 된다. 주(周)나라는 오행상 목덕(木德)에 해당한다. 묘(卯)는 목진(木辰)이 되고 성이 같은 나라다. 효의 자리가 어긋나 있고, 진(辰)은 음(陰)의 도적이니 관숙과 채숙의 상에 해당한다. 수지비(水地比䷇)로 만국을 건립하되 오직 이 사람들은 제거해야 했으니 그것은 사람 아닌 사람을 돕기 때문이었다. 어찌 또한 왕정을 상하지 않았겠는가.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곤(坤䷁) 六三은 납갑이 을묘(乙卯)니 간지가 목이다. 수지비(水地比䷇)는 중지곤(重地坤䷁)궁의 귀혼괘다. 곤(坤䷁)은 土가 되고, 土는 목이 관으로 오행상 木은 土를 이기므로 중지곤(重地坤䷁)의 귀리(鬼吏)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화주림(火珠林)의 법이다. 鬼吏는 소위 말해 사람 아닌 사람을 뜻한다. 곤(坤䷁)은 土가 되고, 곤(坤䷁)이 수지비(水地比䷇)의 괘 안에 있으므로 토의

군주가 된다. 가어(家語)에서 말하기를 주(周)나라는 목덕(木德)으로써 왕(王)이 되었다고 했으므로 주나라는 오행(五行)상 목덕(木德)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맹강(孟康)이 말하기를 목(木)은 해(亥)에서 자라나고 묘(卯)에서 무성해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묘(卯)는 목(木)의 진(辰)이 된다고 하였다. 목(木)의 덕(德)이 木 辰이라면 둘은 서로 성이 일치하는 나라다. 삼효(三爻) 음(陰)은 어긋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효가 그 자리를 상실했다고 말한다. 묘(卯)는 방위가 동방(東方)이니 익봉전(翼奉傳)에 이와 관련된 말로 동방의 정은 분노다. 노함이 음적(陰賊)을 행한다고 하였다. 맹강은 말하기를 목성(木性)은 수기(水氣)를 받아서 자라나니 땅을 뚫고서 나온다. 음기(陰氣)가 토의 기운을 도적질해 해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음적(陰賊)이라고 하였다. 목진(木辰)의 본체는 곤(坤☷) 음적(陰賊)이 된다. 따라서 관숙과 채숙의 상이라고 하였다. 수지비(水地比䷇)는 만국을 건립하는 패상으로 성이 같은 형제이면서 사람 아닌 사람처럼 왕정을 상하게 했으니 반드시 그들을 제거해야 했다. 그런 뒤에 아비를 죽이고 군주를 죽이는 근심이 없게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상하게 됨이 매우 지극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 아닌 사람과 돕는다면 또한 상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 덧붙이는 말

① 사람이 서로 친하게 어울리며 힘을 합하는 대상이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는 장차 스스로 몸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

08比卦10, 육사^{육 사}외비^{외 비}지^지정길^{정 길}.

六四是 밖으로 친해 도우니 곧아서 길하다.

우번(虞翻)의 풀이

육사(六四)는 속한 소성괘가 바깥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밖이라고 하였다. 마땅한 자리에서 어진 사람을 돕고 있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사효(四爻)는 바깥 패상에 속한다. 그러므로 밖이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사효는 호응이 초효(初爻)에게 있다. 그러면서 오효(五爻)를 섬기고 있으

니 이는 초효(初爻)를 두고 오효(五爻)를 돕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밖으로 돕는 뜻이 된다. 음(陰)이 바른 자리를 얻고 있으면서 밖으로 어진 이를 돕고 있으므로 그 자취가 곧아서 길하다.

○ 덧붙이는 말

① 육사(六四)는 위에서 구오(九五)와 함께 물 괄로 움직이면서 九五를 닮고자 한다. 그 이유는 자기의 짝인 아래의 초육(初六)이 자기와 같은 음이고 구오는 비록 자기의 짝이 되는 자리는 아니지만 덕이 있는 양(陽)으로 음양(陰陽) 합을 이루기 때문이다.

② 육사(六四)는 구오(九五)의 덕을 위로 받들어 섬기면서 닮고자 함에 있어서 그 행실이 지극히 공손하다. 왜냐하면 육사(六四)가 음(陰)자리의 음(陰)이고 위 소성괘의 맨 아래에 엮드려 있으면서 九五에 대해 매우 공손하기 때문이다.

③ 위로 양강(陽剛) 중정(中正)한 구오(九五)는 자리가 높고 육사(六四)보다 위에 있으면서 위의 중정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행실이 지극히 어진 자이다. 육사(六四)가 아래에서 친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래의 어둔 자가 아닌 위의 어진 자이므로 이는 사람이 친하게 여겨 돕는 도리에 있어서 매우 바른 이치가 된다.

④ 육사(六四)는 나라를 다스리는 면에서 보면 나라의 대신이 되고 구오(九五)는 지존의 자리가 되므로 위의 어진 자를 아래에서 친하면서 공손하게 돕는 모습은 바르고 또한 길하다.

08比卦^{상 환 외 비 어 현 이 종 상 야}11, 象曰, 外比於賢, 以從上也.

象傳에 말하였다. 밖으로 어진 이를 도움은 위를 따르는 것이다.

간보(干寶)의 풀이

사효(四爻)는 삼공(三公)이 된다. 수지비(水地比[䷇])의 상에 있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위로 성스러운 군주를 도우면서 아래로는 여러 제후국을 거느리고 있으니 그 지위가 방백(方伯)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능히 밖으로 구족과 친하면서 어진 덕의 임금에게 복종하고 있으니 위의 뜻을 좇아 힘써 펴고자 한다. 만방(萬方)을 편안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밖으로

어진 이를 도움이니 위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간보(干寶) 풀이의 해설

사효(四爻)는 삼공(三公)의 자리가 된다. 사효(四爻)는 오효(五爻)에 가깝게 있으면서 오효(五爻)를 돕는 수지비(水地比䷇) 삼공(三公)의 자리다. 위로 성스러운 군주를 도움은 중천건(重天乾䷱) 오효(五爻)를 뜻한다. 아래로 여러 제후국을 거느린다고 함은 곤(坤䷁) 세 효(爻)를 말한다. 삼공(三公)의 지위를 차지한 채 바른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방백(方伯)의 상이다. 능히 밖으로 구축과 친하면서 어진 덕의 임금에게 복종함으로 밖으로 어진 이를 돕는다고 하였다. 위의 뜻을 편다고 함은 오효(五爻) 감(坎䷜)이 뜻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방을 편안하게 함은 곤(坤䷁) 토(土)가 나라가 됨을 뜻한다. 오효(五爻)를 따르면서 밖으로 어진 이를 돕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사효(四爻)의 위 오효(五爻)를 돕는다는 뜻에서 위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안(愚案)

간보가 외비(外比)를 두고 밖으로 구축과 친하면서 어진 덕의 군주에게 복종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어진 자를 五爻로 못 박고 있지 않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가대즉현인 지덕(可大則賢人之德)이라는 계사상전의 주석에서 요신은 어진 사람은 중천건(重天乾䷱) 오효(五爻)를 말한다고 했으니 중천건(重天乾䷱) 오효(五爻)가 곧 어질다는 의미로 이 해석이 경전의 본뜻에 맞다고 본다. 왜에서 보면 바깥은 곧 상(上)이다. 상(上)은 곧 오효(五爻)다. 밖으로 어진 이를 돕는다고 하는 그 점에서 위를 쫓는 게 된다.

○ 덧붙이는 말

① 구오(九五)가 어진 자이고 육사(六四)는 구오(九五)를 가까이하여 돕고 따르므로 이는 아래에서 위의 구오(九五)를 따르는 모습이 된다는 상전(象傳)의 해설이다.

08比卦12, 九五, 顯比,

구오(九五)는 친해서 돕는 것을 드러나게 함이니,

우번(虞翻)의 풀이

오효(五爻)는 귀(貴)하고 공(功)이 많다. 마땅한 자리를 얻어 바르고 中이 된다. 초효(初爻)와 삼효(三爻)가 바르게 되고자 이미 변했다면 과상이 거둡니다. 그러므로 돕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현비(顯比)다. 계사전의 현저인(顯諸仁)을 의미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계사상전에 낮고 높은 것으로써 펼치니 귀천(貴賤)이 자리 잡는다고 하였다. 우번은 그곳의 주석에서 건(乾☰)은 높고 귀한 것은 오효(五爻)라고 하였다. 계사하전에 오효(五爻)는 공(功)이 많다고 했으므로 오효는 귀하고 공은 많다고 하였다. 양(陽)으로써 양(陽)자리이고 오효 중(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마땅한 자리를 얻어 바르고 또 中이다. 초효(初爻)와 삼효(三爻)는 자리가 어긋나 있다. 마땅히 변해 바르게 가야한다. 그래서 변해 수화기제(水火既濟☵☲)로 바뀌면 안과 밖의 호괘가 이(離☲)로 바뀌므로 초효와 삼효가 바르게 되고자 이미 변했다면 과상이 거둡니다고 하였다. 설문에서 옛적 현(顯)은 원래 머리 혈(頁)이 없는 글자 𣎵로 통용됐었다고 말한다. 관련 해설을 살펴보면 미묘하다는 뜻에 통하니 해로부터 생겨나는 미세한 광선을 엄두에 두었다고 하였다. 패는 아래로부터 올라온다. 그래서 처음에 미세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환하게 드러난다. 드러난다는 현(顯)은 해가 비치기 때문이니 이(離☲)는 해가 된다. 해가 비치면서 생겨나는 광선은 실오라기 같아서 보기에 미세하고 가늘다. 그러므로 구오를 일컬어 현비(顯比)라고 하였다. 현저인(顯諸仁)은 계사 상전의 문구다. 대개 진(震☳)은 어진 인(仁)이 된다. 오효(五爻)가 내려가 초효(初爻)에 자리 잡으면 선(善)한 원(元)이 된다. 삼효(三爻) 음(陰) 또한 그 바른 자리를 찾고 나면 이(離☲)가 되므로 이곳의 해석에서 인용하는 문구가 바로 顯諸仁이다.

우안(愚案)

수지비(水地比☵☲)는 화천대유(火天大有☲☰)와 서로 통한다. 오효(五爻)에는 이(離☲)가 엮드려 있어 밝다. 그러므로 현비(顯比)다. 화천대유(火天大有☲☰) 九五 九五是 효사(爻辭)가 위여(威如)였으니 이 또한 아래 숨어 엮드려 있는 건

(乾☰)을 염두에 둔 말이다.

왕 용 삼 구, 실 전 禽,
王用三驅, 失前禽,

왕이 삼면에서 물이함에 앞의 짐승을 잃으며

우번(虞翻)의 풀이

감(坎☵) 오효(五爻)의 호칭이 왕이다. 삼구(三驅)는 아래 세 음(陰)을 물이 함이니 초효(初爻)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의 짐승은 잃는다고 하였다. 초효(初爻)가 이미 변해 진(震☳)이 되었다면 진(震☳)은 사슴이 되고, 놀라 달아나는 동작이 된다. 이처럼 사슴이 놀라 달아난다면 잃어버리는 앞의 짐승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중천건(重天乾☰) 오효(五爻)가 건(乾☰)과 사귀어 감(坎☵)을 이루므로 五爻는 호칭이 왕이다. 五爻는 지수사(地水師☵) 二爻로부터 왔으므로 삼구(三驅)는 아래 세 음(陰)을 물이한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오효(五爻)가 초효(初爻)로 내려오면 지뢰복(地雷復☱)이 된다. 그러므로 初爻는 삼구(三驅)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앞의 짐승이란 초효를 뜻한다. 初爻가 변해 진(震☳)을 이루면 진(震☳) 사슴은 성질이 놀라기를 잘하므로 그 상징하는 동물로 보면 사슴이 된다. 또 진(震☳)은 작족(作足)이 된다고 했으므로 놀라 달아나는 뜻에 해당한다. 사슴이 놀라 달아난다고 해석한 녹사지분(鹿斯之奔) 문구는 시경(詩經) 소변(小弁)에서 인용했다. 즉 사슴이 달아나므로 앞의 짐승을 잃게 되는 것이다.

안(案)

아래 옆드려 있는 괘가 이(離☲)다. 이(離☲)는 그물(網罟)이 된다. 그러므로 호사에서 사냥에 비유하였다. 삼구(三驅)는 중동(中冬)에 크게 사열하는 법이다. 주례(周禮) 대사마(大司馬)에 中冬에 크게 사열하는 법을 가르치니 우인(虞人)이 경작하지 않는 곳을 사냥터로 정해 삼표(三表)로 삼으니, 그때의 일표(一表)는 오십 보가 된다. 사냥하는 날에는 사마씨가 후표(後表)의 가운데 기를 세우고 이에 수레 등을 늘어놓고 북치고 징을 울리면서 모두가 다 짐승물이에 동참한다. 이에 表에서 그침이 일구(一毬)가 된

다. 북 치고 징을 울리며 다시 나가되 수레와 말도 함께 달리다가 그 움직임이 또 표에서 그치니 이는 이구(二馭)가 된다. 다시 북치며 수레와 사람들이 달려가서 표에 미치면 그치니 이는 삼구(三馭)가 된다. 그 뜻은 전쟁하는 법을 가르침에 있으니, 짐승을 사냥함에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지수사(地水師䷆) 오효(五爻)에 밭에 짐승이 있다는 말이 등장한다. 수지비(水地比䷇) 오효에 왈 앞에 가는 짐승을 잃는다고 하였으니 그는 거스르는 것을 버려두고 유순한 것을 취함에 비유하였다. 대개 지수사(地水師䷆)는 마땅한 도리를 주장하므로 이로움이 잡는데 있다. 수지비(水地比䷇)는 어진 덕을 주로 했으므로 길함이 놓아주는데 있다.

읍인불계 邑人不誠, 吉.

고을 사람이 경계하지 않으니 길하다.

우번(虞翻)의 풀이

곤(坤䷁)은 읍(邑)이다. 사(師䷆)괘의 내호괘 震은 사람이다. 사(師䷆)괘에서 성음은 텅비고 임금은 없다. 이때 사(師䷆)괘의 2호¹¹⁰⁾가 올라가 위 괘의 가운데 오효에 자리 잡게 되므로 경계하지 않는다는 불계(不誠)가 되고 그 결과 길하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곤(坤䷁)이 위에 있으므로 읍(邑)이 된다. 수지비(水地比䷇)는 지수사(地水師䷆)로부터 온다. 지수사(地水師䷆)에서 생겨나는 진(震䷲) 양(陽)은 호칭이 사람이다. 그러므로 상전의 해석에서 우번은 읍인(邑人)의 뜻이 이효(二爻)에 있다고 하였다. 二爻는 본래 지수사(地水師䷆)에서 진(震䷲)이다. 그게 곤(坤䷁) 가운데 있으므로 읍(邑) 사람이다. 지수사(地水師䷆)에서는 육오(六五)가 坤이므로 군주가 없는 빈 읍이다. 지금은 지수사(地水師䷆) 이효가 올라가 오효의 가운데 위치했으니, 이는 여러 읍(陰)들이 기꺼이 돕는 바가 된다. 진(震䷲)은 말이 되는데, 진(震䷲)의 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알림에 경계하지 않고 스스로 돕는다. 경계하지 않고 믿는다면 말하

110) 비괘에서 師괘와 결부시켜 변화를 언급하는 까닭은 비괘가 사괘로부터 유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 않아도 믿는 게 되니 길하다.

邑人 상전 우변 주에서 음 사람은 이효(二爻)를 일컫는다고 하였다. 이 효가 본래 사의 진(震≡)으로 곤(坤≡)의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읍인(邑人)이 된다.

사(師≡)에서는 육오(六五)가 음(陰)이고 비(比≡)에서는 육오(六五)가 양(陽)이다. 읍(邑)이 비어 임금도 없고 사람도 찾아 볼 수 없으니 빈 성이다. 지금은 사(師≡)의 구이(九二)가 비(比≡)의 구오(九五)로 옮겨와 있고 그를 여러 음(陰)이 즐겁게 돕는다.

不戒 사(師≡)의 震은 말이 되는데 대신 비(比≡)에서는 진(震≡)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도와야 한다는 아무런 말이 없는 모습이나 스스로 돕는 구조이니 매우 길하다.

○ 덧붙이는 말

① 정자에 따르면 구오는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중정(中正)한 덕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위와 아래에서 서로 돕는 비(比≡)의 때에 그 행실이 하늘의 이치로 올바르다. 이는 임금이 위에서 마땅한 이치로 그 돕는 바의 도리를 밝게 드러내 천하가 혜택을 입을 수가 있다. 세상의 그 누가 이와 같은 사람을 친히 돕지 않을 자가 없겠는가. 이곳 구오 효사의 풀이다.

② 앞의 패사에서 구오(九五) 양(陽)이 홀로 강건하면서 중(中)을 얻어 군덕(君德)을 갖추었으니 인군으로써 으뜸이며 어질고(元), 중을 얻어 항구한 덕(永)이 있고, 지존의 자리에서 바름을 굳게 지켜서(貞) 허물이 없는 상이 '原筮, 元永貞, 无咎'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그 덕의 구체적인 의미를 언급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하고 바르면서 항구하게 지속해야 하는 하늘의 이치를 九五가 패의 효로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다.

③ 그 덕을 살펴보면 위 자리의 중심에서 하늘의 이치를 벗어나지 않고 있고 위 아래의 모든 음효(陰爻)들이 구오(九五)에게 진심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구오(九五)의 덕이 조금도 사사롭거나 편벽되지 않아 세상을 선포하고 이롭게 하려는 바른 도리로서 움직이고 있음을 말한다.

- ④ 삼구법의 개념은 사기에 나오는 탕왕의 고사를 소개한 그대로다.
- 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늘의 중정한 덕으로 세상과 친하면서 돕고자 한다면 천하가 절로 그에게 와서 따르고 복종할 것이니 세상을 다스리는 왕도의 가장 큰 이치다.
- ⑥ 내 그물로 들어오는 무리는 하늘의 이치로 다스리는 자기 자신에게 거역하는 금수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해 법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 ⑦ 정자의 해석에 따르면 가는 자는 거스름이 되고 오는 자는 順이 되어 잃는 바 대상이 앞으로 가는 짐승으로 오는 짐승은 어루만지고 가는 짐승은 쫓지 않는다는 뜻이 실전금(失前禽)이라고 하였다.
- ⑧ 한편 失前禽은 앞으로 가는 짐승이니 살고자 달아나는 무리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앞의 정자와 이 효사를 해설하는 입장이 달라진다. 즉 하늘의 이치로 나라를 다스리는 구오의 입장에서 볼 때 짐승은 하늘의 이치에 어두운 금수에 해당하고 자신의 허물을 돌이켜 살고자 달아나므로 이를 방치하여 더 이상 쫓지 않는다는 해석이 되는 셈이다.
- ⑨ 읍인불계(邑人不誡)는 구오(九五)가 백성에게 중도(中道)를 좇아 공명정대한 법을 쓰기 때문이다.

상 왕 현 비 지 길 위 정 중 야
象曰, “顯比”之吉, 位正中也,

상전에 말하였다. 드러나게 돕는 것의 길함은 자리가 바르고 알맞다.

우번(虞翻)의 풀이

중화리(重火離)는 괘상이 밝다. 또 바르고 위에서 中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초효(初爻)와 삼효(三爻)가 이미 변했다면 본체(內外互卦)가 거듭 밝다. 그러므로 중화리(重火離)는 괘상이 밝다고 하였다. 오효(五爻)는 위에 있다. 마땅하면서도 높은 자리에서 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바르고 위에서 중(中)이라고 하였다.

상 역 취 순 실 전 금 야
舍逆取順, 失前禽也,

거역하는 자를 버리고 순종하는 자를 취함이 앞의 짐승을 잃는 것이요,

우번(虞翻)의 풀이

구오(九五)는 상육(上六)을 등지고 있으므로 사역(舍逆)이다. 아래로 세음(陰)에 근거함은 취순(取順)이다. 초효(初爻)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앞의 짐승은 잃게 되는 실전금(失前禽)이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위에서 上六은 五爻의 뒤에 있다. 호괘 간(艮≡)은 등이 된다. 그러므로 호칭이 배(背)다. 상육(上六)은 오효(五爻) 양(陽) 위에서 놓고 있으므로 개념이 거슬린다는 역(逆)이다. 오효(五爻)는 호응하는 대상이 상육(上六)이 아닌 육이(六二)다. 그러므로 거스르는 효를 버리는 사역(舍逆)이다. 사효(四爻)와 삼효(三爻) 이효(二爻)는 모두 유순하다. 陽을 섬기는 모습이니 오효(五爻)가 그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순함을 취한다고 하였다. 다만 초효(初爻)는 호응하는 밖에 있다. 오효(五爻)가 초효(初爻)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의 짐승을 잃게 되는 실전금(失前禽)이다.

읍인불계 상사중야
邑人不誠, 上使中也.

읍사람이 경계하지 않음은 위에서 부림이 중도에 맞기 때문이다.

우번(虞翻)의 풀이

지수사(地水師䷆)의 二爻를 말한다. 지수사(地水師䷆)의 이효가 수지비(水地比䷇) 오효로 올라가 中에 위치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지수사(地水師䷆) 진(震≡)은 읍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二爻를 말한다고 하였다. 경계하지 않고 오효(五爻)를 믿는다. 中에 위치해 있으면서 바른 도리를 얻었다. 그러므로 지수사(地水師䷆)의 이효가 수지비(水地比䷇) 오효로 올라가 中에 위치하게 되었음을 말한다고 하였다.

그때 사(師䷆)의 내호괘(內互卦)인 읍 사람에 해당하는데 비(比䷇)는 진(震≡)을 찾아볼 수 없다.

○ 덧붙이는 말

① 앞의 효사 풀이에서도 살폈듯이 사역취순(舍逆取順), 실전금(失前禽)의 의미는 해석하는 입장이 애매하게 여겨지는 구석이 있다. 다만 우리는 솜

逆取順의 개념을 구오가 윗자리에서 보여주는 하늘의 지극히 공명 정대하면서도 중정한 덕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면 그다지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08比卦14, ^{상 육}上六, ^{비 지 무 수}比之无首, ^흉凶.

상육(上六)은 돕는데 시작함이 없으니 흉하다.

순상(荀爽)의 풀이

양(陽)은 머리가 없고자 하고, 음은 크게 마칠 수 있어야 한다. 음(陰)으로 머리가 없으면서 크게 마치지 못하므로 흉하다.

우변(虞翻)의 풀이

머리가 된다고 할 때의 수(首)는 시작(始作)에 해당한다. 음(陰)의 도(道)는 이루게 함은 없으나 대신 마침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시작이 없으니 흉하다.

순상(荀爽) 풀이의 해설

양(陽)은 머리가 없어야 함은 건(乾☰) 용구(用九)에서 말하는 그대로다. 그곳에서 건(乾☰)은 머리가 없게 해야 길하다고 하였다. 음(陰)으로서 크게 마칠 수 있어야 한다는 구절과 마찬가지로 하였다. 중지곤(重地坤☷) 용육(用六)에서 영구하게 끝아서 크게 마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은 음이면서 시작함도 없으니 이는 머리가 없는 게 된다. 크게 끝마치지도 못함은 능히 양의 역할을 대신하지도 못한다는 뜻이다. 단전에서 뒤에 오면 장부라도 흉하다고 했으니 상육을 말한다. 그러므로 흉하다.

우변(虞翻) 풀이의 해설

무수(无首)의 수(首)가 시작(始作)에 해당한다고 함은 건(乾☰)·양(陽)이 머리가 됨을 말한다. 上六이 음(陰)으로서 간(艮☶)·등의 위에 있으니 이는 머리가 없는 무수(无首)다. 거듭 시작의 개념에 결부시켜 말하는 까닭은 上六이 또한 九五를 도와야 하는 비(比☶)의 때에 시작할 때부터 돕지 않고 때를 지나 뒤에 오므로 효사가 후부(後夫)다. 이처럼 上六은 시작이 없으므로 끝도 없다. 음(陰)의 도는 이루게 하지는 못하나 끝맺는 덕은 있다. 왜냐하면 음(陰)은 양(陽)을 쫓아 끝맺는 역할을 도맡아 하기 때문이다.

다. 그런데 시작이 없다면 끝도 없다. 분명 흉하다.

우번(虞翻)의 풀이 2

수(首)는 시작(始作)의 뜻이다. 건(乾☰) 양(陽)은 머리가 된다. 위에서 음(陰)이면서 간(艮☶) 등 위에 있으나 양효(陽爻)와 같은 시작이 없다. 또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다. 이는 음(陰)의 도에 어긋난다.

○ 덧붙이는 말

① 상육(上六)은 수지비(水地比☶☵)의 맨 위이면서 험함의 근본이다. 이는 돕는 뜻의 비(比☶☵)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만을 믿고 행동하는 자다. 흉하다.

② 머리가 없다는 无首는 상육(上六)이 위에서 자리가 높음만을 믿고 음(陰)이 양(陽)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세상의 근본이 되는 머리는 곧 만물을 살리는 하늘의 덕인 구오(九五)다.

③ 상육(上六)이 그 자리가 가장 높은데다, 돕는데 가장 뒤처진다는 뜻에서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세상과 마땅한 이치로 돕지 않는 형상으로 그 도가 궁색하여 흉하다.

08比卦15, 象曰, “^상比^상之^비无^지首^무”, 无^무所^소終^종也^야.

상전에 말하였다. 도움에 있어 시작이 없음은 끝마치는 바가 없는 것이다.

우번(虞翻)의 풀이

미혹하여 도(道)를 상실했다. 그러므로 마치는 바가 없다.

우번(虞翻) 풀이의 해설

수지비(水地比☶☵)는 지수사(地水師☶☵)로부터 왔다. 지수사(地水師☶☵) 이효(二爻)로부터 상육(上六)까지의 궤는 지뢰복(地雷復☶☲)에 해당한다. 그 지뢰복(地雷復☶☲)에서 상육(上六) 효사(爻辭)는 미복(迷復)이고 上은 끝마치는 자리다. 무엇에 대해 미혹함일까 건(乾☰)과 곤(坤☷)의 본질적인 도리에 대해 어둡다. 곤(坤☷)은 건(乾☰)의 덕을 이어받아 세상에 펼쳐 보인다. 이는 건(乾☰)이 머리이면서 머리가 없어야 하고 곤(坤☷)은 건(乾☰)을 섬겨 크게 마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그 도리에 대해 미혹하므로 맨 위에서 머리노릇을 하고자 하면서 시작이 없다. 이처럼 시작이 없으니 끝도 있을 리 없다.

○ 덧붙이는 말

① 세상의 이치는 근본이 바로 서야만 끝마칠 바가 있게 된다.

◆ 《周易集解纂疏》 원본 텍스트

이 책의 원본 텍스트는 1994.3[2004, 重印], 《십삼경청인주소十三經清人注疏》를 저본(底本)으로 중화서국(中華書局)에서 간행한 《주역집해찬소周易集解纂疏》다. 찬(撰)한 사람은 청나라 시대의 이도평(李道平)이다.

주역집해찬소(周易集解纂疏) 1

발 행 | 2021년 11월 24일

저 자 | 김가원

펴낸이 | 한건희

펴낸곳 | 주식회사 부크크

출판사등록 | 2014.07.15.(제2014-16호)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타워 A동 305호

전 화 | 1670-8316

이메일 | info@bookk.co.kr

ISBN | 979-11-372-6339-0

www.bookk.co.kr

© 김가원 2021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